예언의 신
개요 연구

Outline Studies
From the Testimonies

Clifton L. Taylor 저

“그리스도인 생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완전히 온순함과 인내와 온유와 친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덕성들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용기와 힘과 정력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시는 길은 좁은 길, 극기의 길이다. 그 길에 들어가서 어려움과 낙망을 뚫고 전진하는 데는 연약한 것 이상의 것이 요망된다.” (치료, 458)

목차

제 1 장 엘렌 지, 화잇과 그의 저서에 대한 소개 13
1과 어린 시절과 개종 13
2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함 25
3과 계시가 믿음을 확인함 35
4과 공중 봉사 43
5과 인도하는 손길을 따름 52
6과 엘렌 지, 화잇이 한 일을 순서에 따라 살펴 봄 62

제 2 장 예언의 영(신) 75
7과 선지자들의 봉사(일) 75
8과 성경 –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 84
9과 예언의 영(신)과 성경과의 관계 92
10과 무류설과 영감설 100
11과 예언의 신을 어떻게 연구하며 사용할까? 106
12과 예언의 신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태도 113

제 3 장 하늘의 선물 121
13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21
14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율법 129
15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 구속의 계획(경륜) 137
16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144
17과 커다란 희생 – 십자가 151
18과 성령이 하시는 일(역사) 159
19과 천사들의 하는 일 (봉사) 165

제 4 장 그리스도인 생애를 위한 모본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됨 173
20과 사람이란 무엇인가? 173
21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 180
22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최고의 결정 187
23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위해 오심 195
24과 나의 가정과 위치(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202
25과 나의 가정과 가정의 식구들 209
26과 나의 가족 216
27과 여자와 그녀의 사명 223

제 5 장 나의 신앙(종교) 231
28과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231
29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238

30과 회 개 246
31과 고 백 252
32 회 심 260
33과 믿음과 받으심 266

제 6 장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남 273
34과 칭 의 273
35과 성 화 281
36과 완전함 288
37과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 295
38과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302
39과 의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309
40과 주님 안에서 기뻐함 316

제 7 장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이상 323
41과 대화 – 말하기 323
42과 품 행 331
43과 인내 – 참지 못함(조급함) 337
44과 친 절 – 비난 345
45과 이기심 – 이타심 353
46과 관대함(너그러움) – 탐심 360
47과 형제다운 사랑 368
48과 품성의 결함을 극복함 375
49과 영원을 위한 품성 382
50과 그리스도인 사업 원칙 389

제 8 장 나의 교회 397
51과 그리스도의 교회 – 교인의 자격 397
52과 교회의 조직 405
53과 교회와 그 징계 방법 412
54과 교회의 사명 419
55과 예배하는 집 426
56과 교회에 들어가는 문 – 침례 434
57과 성만찬 예식 441
58과 안식일 학교 – 연구(공부)하는 교회 451
59과 기도 집회 – 기도하는 교회 458
60과 야영회 –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465

제 9 장 나의 교회의 기본 교리 473
61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473
62과 신앙의 자유 481
63과 사람의 사후 상태 488
64과 악인의 형벌 496
65과 예언의 나타난 4대 강국 503
66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예언 – 마태복음 24장 510
67과 반역 519

68과 첫째 천사의 기별 – 심판 526
69과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 534
70과 성소란 무엇인가? 541
71과 지성소에서 549
72과 셋째 천사의 기별 – 안식일 556
73과 개혁 사업 564
74과 조사 심판 572

제 10 장 일하는 나의 교회 579
75과 이웃 전도 579
76과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제함 587
77과 도르가회 사업 594
78과 구호 봉사 601
79과 수확 운동 608
80과 문서 전도 봉사 614
81과 위대한 사명 621

제 11 장 나의 신앙 생활에 위험을 주는 것들 631
82과 세속 주의 631
83과 의심 – 이단 639
84과 두 개의 커다란 오류 646
85과 쾌락을 사랑함 653
86과 교만심 660

제 12 장 나의 마음 - 나의 교육 - 나의 정신 훈련 667
87과 나의 선생 667
88과 하나님의 옛날 학교 – 선지자 학교 675
89과 현대를 위한 하나님의 학교 – 그리스도인 교육 682
90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학생들에게 주는 지침 689
91과 내 생애의 일(평생 사업)을 선택함 696
92과 내 평생 사업을 위한 훈련(교육) 702
93과 균형진 학교 교육 과정(프로그램) 709

제 13 장 나의 몸과 나의 육체 훈련 717
94과 건강 원칙 717
95과 건강 개혁을 하는 이유 724
96과 “이들이 참된 치료제이다” 732
97과 좋은 음식과 음료 739
98과 내가 입는 옷 – 장식 747
99과 마약과 자극제 753
100과 부절제와 사회 760
101과 약물 –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767
102과 기도 – 치유 775

제 14 장 나의 시간 783
103과 일하는 엿새와 안식일 783

104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790
105과 휴식하는 시간 (레크레이션) 797
106과 오락과 게임 – 계속 804
107과 독서와 음악 811

제 15 장 나의 돈 817
108과 나의 돈이 어디서 오는가? 817
109과 하나님의 청지기 – 하나님과 동업함 824
110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 십일금 831
111과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과 제2의 십일금 838
112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나의 십분의 구 846

제 16 장 나의 교제 853
113과 나의 소꿉동무와 나의 친구들 853
114과 사회적 관계 861
115과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음성 훈련 867
116과 사랑 874
117과 교제(구혼) 881
118과 결혼 888
119과 가정 관계를 유지함 895

제 17 장 나의 미래 생애 903
120과 가까운 미래와 마치지 못한 사업 903
121과 법왕권의 목적 910
122과 절박한 최후의 위기 918
123과 신앙의 기준인 성경 926
124과 최후의 경고 933
125과 마지막 위기 940
126과 환란의 때 947
127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음 955
128과 지상의 황폐 963
129과 대쟁투의 종말 970
130과 내가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978

제 1 장

엘렌 지 화잇과 그의 저서에 대한 소개

제1과 어린 시절과 개종

성경절 연구: 마 5:6; 요 8:12

요점: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견해가 바뀌었다. 지금은 아버지를 맹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군주로 보는 대신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로 바라본다. 내 마음 깊이 그리고 열렬히 그를 사랑한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었다." (화잇 자서전 39)

예언의 신 연구

가문과 어린 시절

1. 하몬(Harmon)의 가정

"나는 메인(Maine)주 골함(Gorham)에서 1827년 11월 26일에 태어났다. 나의 부모님은 로버트씨와 유니쓰씨였다. (Robert Harmon－아버지, Eunice Harmon－어머니) 저들은 어린 시절에 진실되고 헌신한 감리교 신자가 되었다.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죄인을 회심시키는 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등을 40여년 동안 하였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동안 저들의 8자녀들이 모두 회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화잇 자서전 17)

2. 커다란 비운

"내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에 나의 부모님은 골함에서 메인주에 있는 포트랜드(Portland)시로 이사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내 나이 9살이었을 때에 내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고가 내게 발생하였다. 나의 쌍둥이 자매와 급우 한 아이와 같이 포트랜드 시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13살 정도 먹어 보이는 한 소녀가 아주 사소한 일을 인하여 화를 내면서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만 내 코에 맞았다. 돌에 맞은 나는 그만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게 되었다.

내가 나의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내 자신이 한 가게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친절한 낯선 행인이 그의 마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 자신

이 얼마나 약해졌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채 차라리 걸어가는게 낫겠다고 말하였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가지 아니하여 다시 비틀거리었다. 나의 쌍둥이 자매와 급우가 나를 집에까지 업고 갔다.

사고가 있는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상할 수가 없다. 나의 어머님은 내가 3주일 동안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였다. 어머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님은 하여튼 간에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다.

내 의식이 되살아났을 때에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당한 사고를 기억할 수 없었으며 내가 아픈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나를 위한 작은 침대가 만들어져 있었으며 그 안에 여러 주일 동안 누워 있었다. 뼈만 남도록 말라서 마치 해골과 같이 되었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죽음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에 나의 어머니에게 죽음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묻곤 하였다. 이런 말을 주고 받을 때에 그런 말을 듣고 일어나곤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였고 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기도를 드렸다. 내 마음에 평안을 느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 받기를 원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였다.

나의 기력은 아주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때에 마음 아픈 경험을 하였다. 저들이 나의 얼굴의 상처를 보고 친구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때에 사람의 용모가 동료들에게 대우를 받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 (화잇 자서전 17-18)

3. 인생의 전망이 사라짐

"나의 건강은 희망이 없는 듯 보였다. 2년 동안 나는 코로 숨을 쉬지 못하였으며 학교에 가는 날이 아주 적었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 같았다. 나에게 비운을 가져다 준 그 소녀가 학급의 반장으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그녀가 해야할 일 가누데 하나는 나의 쓰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요, 다른 학과를 돕는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녀 때문에 생긴 불운의 사고에 대하여 진정으로 미안해 하였는데 내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도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녀는 부드러웠고 모든 것을 오래 참았다. 그녀가 내가 그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했으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신경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손을 떨렸고 글쓰는 일에 진척이 매우 느렸다. 또한 개발새발 글씨를 쓰는 일 외에 별 수가 없었다.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중을 하다보면 책장에 있는 모든 글씨들이 한데 뭉쳐 버렸고 내 이마에는 커다란 땀방울이 떨어지고 실신 상태에 빠지곤 하였다. 나는 아주 심한 기침을 하였으며 내 온몸이 쇠약해 지는 것만 같았다.

나의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중단하고 건강이 회복되기까지는 더 이상 공부를 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 주셨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투쟁이 바로 나의 연약함에 굴복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화잇 자서전 18-19)

4. 죽음을 직면함

"이제부터 나는 나의 죽음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에 나의 어머니에게 죽음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묻곤 하였다. 이런 말을 주고 받을 때에 그런 말을 듣고 일어나곤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였고 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기도를 드렸다. 내 마음에 평안을 느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였다." (1 증언, 11; 화잇 자서전 18)

5. 기쁨과 슬픔

"눈발이 지상에 떨어지는 어느 겨울 밤을 익히 기억하고 있다. 하늘은 빛났으며 구름은 붉어 성난 것처럼 보였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였고, 눈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이웃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어머니는 나를 이끌어 창문 곁으로 데리고 가 주었다. 나는 매우 행복했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였었다. 내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손뼉을 쳤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줄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하였다.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광경은 곧 사라져 버렸고 다음날 아침에 태양은 여전히 떠올랐다.

나의 기력은 아주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내가 나의 친구들과 함께 뛰놀때에 마음 아픈 경험을 하였다. 저들이 나의 얼굴의 상처를 보고 친구로 대우애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때에 사람의 용모가 동료들에게 대우를 받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나의 아버지는 죠지아(Georgia)주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아니하였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껴 앉아 주고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부끄러워 움추리고 있는 나를 어머님이 가르쳐 보였으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내가 그의 어린 딸, 엘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몇 달 전에 집을 떠나실 때에는 내가 건강하고 마냥 행복해 하는 아이였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지만 해맑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1 증언, 11)

6. 다시 학교에 가려고 노력함(3. 인생의 전망이 사라짐을 읽을 것)

"3년 후에 다시 교육을 받기 위해 시도를 해봤다. 내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자 나의 건강은 아주 신속하게 쇠약해 졌으며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하면, 내 생명을 지불해야 할 것같이 생각되었다. 내 나이 12살이 된 그 이후에는 학교에 가고자 다시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소망은 학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나의 불운을 생각할 때에 살아봐야 필요가 없는 존재하고 생각하였고,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일에 대해 불평하였었다. 내가 내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었더라면 그녀가 나를 가르치고, 아픔을 덜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 주었을텐데 내가 가진 근심 덩어리들을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감추어 두었는데 저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내가 아플 때에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구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져 버렸었다. 세상적 기쁨에 대한 나의 전망은 어두워졌고, 하늘은 내게 닫혀진 것처럼 보였다." (1 증언, 13)

커다란 영적 부흥

7. 밀러(Miller)가 포트랜드(Portland)를 처음 방문함

"1840년 3월에 윌리암 밀러(William Miller)가 메인 주에 있는 포트랜드시를 방문해서 그리스도 재 강림에 대한 첫 강의를 하였다. 그가 인도한 강의들은 놀라운

각광을 받았으며 강의를 하고 있던 카스코(Casco)거리에 위치한 교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원을 이루었다. 이 집회에 어떤 광신적인 흥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엄숙함이 감돌았다.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인근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야로 몰려왔으며 점심을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다.

내 친구들과 함께 나도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리스도가 1883년 즉 몇 년 내에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강의를 들었다. 밀러씨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언의 정확성을 지적하면서 강의하였다. 그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예언적 기간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엄숙하고 힘있는 호소는 많은 청중들을 매혹케 했다. 죄인들이 구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들로 준비하여 잠시 후에 임하게 될 두려운 사건을 위해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집회를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두려움과 확신이 온 도시를 휩쓸었다. 기도 집회가 열렸으며 많은 종파에 일반적인 일깨움이 있었는데 저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강의를 받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중들에게 결심자들이 앉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호소를 하였을 때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그 자리를 채웠으며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채워 앉았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 내 마음에 있는 확신의 부족과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필요없는 흑암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였었다." (1 증언, 14)

8.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대개의 경우 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감리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가곤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한 관심을 가진 후부터는 카스코 거리에 위치한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나갔다. 다음해 여름에 나의 부모님께서는 감리교회에서 조최하는 야영회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야영회는 메인주 벅쓰톤(Buxton, Maine) 에서 열렸다. 나는 진지하게 주님을 찾아 나의 죄를 용서받기로 결심하였다. 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바라는 소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믿기 때문에 임하는 평안을 갈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론하는 중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설교자는 그의 설교에서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주저하는 가운데 있으며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기를 갈망하면서도 실패할까 하는 의심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권면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그의 자비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저들은 자비의 홀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구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치 아하수로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홀을 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떨면서 주 앞에 나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은혜의 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지는 그것이 죄 용서와 화평을 확실해 해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 전에 저들 자신이 어떤 거룩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한분께서만이 죄에서 깨끗케 하실 수 있으시다.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와서 저들의 소원을 아뢸때에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그분께서는 약속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모호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만 죄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 안위가 되었으며 내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 이후부터 나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며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진지하게 나의 죄사함 받기를 간구하였으며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때때로 큰 좌절에 빠지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황홀경에 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경험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처럼 믿을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받으심에 대한 그 단순한 말씀을 얼마나 내가 필요로 하였던가!" (1 증언, 16-17)

9. 짐이 사라짐을 느낌

"기도하는 사람들과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이는 동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가나이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나의 죄가 용서받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였다. 내가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부족과 무기력함을 느꼈다. 내가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나를 억누르던 짐을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처음에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느낌이 있었고, 좌절에 싸였던 짐을 다시 져 보려고 시도하였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꼈고 나의 모든 슬픔, 불운, 시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마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저들의 마음에 있는 짐들을 덜기 위해 예수님께 왔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었다. 내 마음에는 나의 특별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분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한 예수님의 동정하는 부드러움에 대한 확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그 짧은 기도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에 대해서 전에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배웠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사랑하는 어린이여! 예수님을 발견하였는가?' 하고 물었다. 내가 '예' 라고 대답하려고 할 때에 그녀는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렇구나 네가 그분을 발견하였구나. 그분의 평안이 네 얼굴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네 얼굴에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반복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삭이기를 '이것이 종교인가? 혹시 내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였다. 이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것만 같았고 너무나 큰 특권이 라고 생각되었었다. 내가 공중 앞에서 간증을 하기에는 너무나 수줍은 아이였었지만 구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느꼈다." (1 증언, 17-18)

10. 만사가 달라진 것 같음

"이러한 집회가 마쳐진 후에 우리는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내 마음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 권고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기도로 충만해 있었다. 만사가 그 성질에 있어 달라진 것만 같았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곤 하였는데 내 마음 역시 날씨와 같이 우울해 있었다. 지금은 태양이 발게 비추이고 분명하였으며 지상은 마치 빛과 따뜻함으로 홍수라도 지는 것같았다. 나무들과 풀잎들은 청초하게 보였고 하늘은 더더욱 푸르게만 보였다. 이 땅은 하나님의 평화를 미소하는 것만 같이 보였다. 또한 의의 태양되신 분의 광선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흑암을 뚫고 우울함을 몰아 내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 하며 성령의 위안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 안목에 있는 모든 것은 바꾸어진 것같이 보였다. 나무들은 더 아름다워만 보였고 새들의 노래소리는 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었다. 저들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행복이 사라질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던 포트랜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되었다. 저들의 대화는 일상 생활에 관한 것들인데 나는 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을 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말이 내 귀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과 기쁜 호산나를 부르며 찬미하는 소리로 들려왔다. 어머니를 향하여 '저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까? 저들은 야영회에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였다. 그때까지 어머니의 눈에 어찌하여 눈물이 고이며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맴돌고 있는 것을 몰랐다. 그녀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녀가 가졌던 비슷한 경험을 회상하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꽃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꽃들을 가꾸는 일을 낙으로 생각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꽃들로 집을 장식하여 집을 매력이 있게 하였고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정원이 우리가 야영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처럼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모든 관목과 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이 저들만이 통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원에는 샤론의 장미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 내가 그 꽃을 향하여 다가가서 경의를 표하면서 섬세한 꽃잎을 만져 본 것을 기억한다. 내 눈에는 그 꽃잎에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사랑하는 부드러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 가운데서도 거룩한 완전함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눈이 저들 위에 있었다. 그분께서 저들을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시고 아름답게 장식하신 꽃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돌보시겠는가?' 라고 하였다. 나는 조용하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반복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이 언제나 나를 두르고 있다. 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고 그분을 결코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겠다' 라고 하였다. 내 생애가 전혀 다른 빛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내 어린 시절을 어둡게 했던 것들이 내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 것 같았고 내 마음을 세상과 세상에서 주는 불만족스러운 것에서 돌이켜 하늘의 아름다움을 향하도록 하였다.

야영회에서 돌아온 후 얼마있지 않아서 나와 몇 다른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시문에 들어갔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 나와 같은 어린 나이에 성경에 근거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기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다니는 감리교의 어떤 자매들은 세례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에 불과하였다. 감리교의 목사님은 만약에 침례 후보자들이 양심상 저들이 잠기는 침례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례 역시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으신 바 된다고 하였다.

결국에 엄숙한 예식을 이행할 시간이 약속되었다. 그날은 바람이 부는 날이었으나 우리 12명의 침례 후보자들은 바다를 향하여 걸어갔다. 바다 물결은 높이 일었으며 해변가에 몰려 오곤 하였다. 그러나 이토록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벗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은 강과 같았다. 내가 물에서 일어났을 때에 나의 기력은 거의 사라졌고 주님께서 주님의 힘을 내 위에 내려 주셨다. 그 일이 있을 이후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물로된 무덤에서 일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날 오후에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 입적되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 역시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 내가 그녀의 손가락에 번쩍거리는 금반지와 크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귀거리가 그녀의 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내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하였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모자를 보니 조화로 장식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값나가는 리본으로 그녀의 머리띠가 장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헛된 것으로 장식하고 있음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위축을 받았다.

나는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귓속말로라도 견책하는 말을 하기를 바랬으나 그녀가 들어내기 위해 장식한 꾸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책이나 충고가 없이 지나쳐 버렸다. 우리 모두는 오른 손으로 악수함으로 친교를 교환하였다. 보석으로 꾸며진 손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의 손과 악수하였다. 두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교회 녹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형편이 사도의 말을 생각할 때에 적잖은 시험을 주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딤전 2:9) 성경의 이 가르침은 내가 높이 우러러 보는 사람, 그것도 나보다 경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같이 보였다. 만약에 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치스러운 의복을 흉내내는 것이 죄라고 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고 성경의 표준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자신은 내가 확신하는 대로 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하며 주신 제물을 소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과 반대된다고 느꼈다.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을 하게 하였는데 겸손과 자아 희생이 저들의 꾸밈이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다." (1 증언, 18-20)

재림 기별에 대해 즐거워함

11. 밀러가 두번째 포트랜드를 방문함.

"1842년 6월에 밀러씨가 포트랜드에 와서 두 번째 강의를 하였다. 나는 이번 강의에 참석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는데 좌절에 빠져서 구세주를 만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 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보다 이 도시 사람들에게 훨씬 열띤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몇 개의 종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밀러씨의 강의에 관심의 문을 닫아 버렸다. 많은 강단에서 그의 강의에 대한 오류와 극단성에 대해 논단이 대단하였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집회를 열고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청중들은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주의를 집중하였다. 그의 강의 방법은 화려체 문장을 사용하거나 가극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으나 평범하면서도 깜짝 놀라게 하는 문제들을 다루어서 청중들을 부주의한 냉각 상태에서 일깨우게 하였다. 그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주장을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하였다. 확신을 주는 능력이 그의 말에 나타났기 때문에 진리와 말씀이 저들 위에 인쳐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예절이 바르면서 동정적이었다. 집회하는 집이 가득차고 설교단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로 가득차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때에 그는 설교단에서 내려가서 연약한 나이많은 남자나 여자들을 이끌어 자리를 찾아 앉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단상에 돌아와 그의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는 참으로 아버지 밀러라고 불리웠는데 그는 자기의 권한이 미치는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세심하게 하였으며, 그의 태도는 애정적이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

람이었다.

그는 아주 흥미를 돋구는 설교자였는데 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적합하였고 힘이 있는 말씀이었다. 때때로 그의 강의 분위기는 고통스러우리만큼 엄숙함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확신에 굴복하였다. 백발이 된 남녀노인들도 떨리는 걸음으로 저들의 자리를 찾았다. 성인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까지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신음소리와 울음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도의 제단에서 합창을 이루었다." (1 증언, 21-22)

12. 성결을 사모함.

"나는 하나님의 종이 엄숙한 말씀을 하였다고 믿는다. 저들이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농담 같은 말을 할 때에는 마음에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였고 불원한 장래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었던 가장 큰 근심은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다. 내 마음은 계속해서 성결이라는 주제에 잠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축복을 갈망하였고 전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됨을 느꼈다." (1 증언, 22)

13. 의무를 피함

"나는 공중 기도를 해 본 적이 결코 없고 그저 기도 집회에서 수줍은 몇마디의 기도를 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이는 적은 기도 모임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하는 것을 꺼려 하였는데 혹시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잘못 전달하는 혼잡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으며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 좌절이 내게 엄습하였는데 3주 동안 나를 두르고 있는 흑암을 뚫고 들어 오는 빛이 없었다.

내 마음에 고통은 심각해졌다. 때때로 온 밤이라도 눈을 감지 않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쌍둥이 자매가 잠이 들기까지 침대에서 기다리고 누워 있다가 그녀가 잠이 들면 조용히 침대를 빠져 나와 마루에 무릎을 연하여 조용하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 영원히 타는 두려운 지옥불이 언제나 내 앞에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의 운명에 처할까봐 죽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기하였던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고뇌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게 얼마나 귀하게 보였던가?

여러 번 나는 온 밤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었다. 신음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의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전혀 없는 형편 가운데 온 밤을 지세곤 하였다. 주여! 내게 자리를 베푸소서. 이것이 나의 탄원이었다. 마치 가난한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 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마루를 향하여 엎드린 채로 기도하였다. 내 육체의 기력이 무척 쇠약해졌지만 고통과 좌절은 내게 그냥 남아 있었다." (1 증언, 26)

14. 성전과 어린 양의 꿈

"이러한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는 한 꿈을 꾸었다. 나는 한 성전을 꿈에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 때가 차면 성전 안에 피하여 도망한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었다. 성전밖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비난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이 계획은 기만이라고 말하고 위험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건물 안으로 들어 가려고 서두르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하였다.

조소를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많은 무리들이 사라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 모르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였고 두려워 하면 너무 늦어질 것같았다. 그래서 급히 집을 떠나 군중 가운데로 밀치며 들어갔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리들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하나의 큰 기둥이 바치고 있는데 그 기둥에 갈기갈기 찢어져 피로 낭자한 어린 양이 묶여 있는 것이 있었다. 거기 참석한 우리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찢기고 상한 것임을 아는 듯하였다. 성전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어린 양 앞에 와서 저들의 죄를 고백해야 했었다.

좌석 위로 높이 쳐들어진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하늘의 빛줄기가 저들의 얼굴에 비추는 것 같았고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데 저들의 음악은 마치 천사들의 노래와도 같았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와서 저들의 죄악을 고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기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간 후에도 내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천천히 어린 양을 대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나팔이 울리자 성전이 흔들렸고, 모여 있던 성도들이 승리의 함성을 올렸으며 그 건물 안에 말할 수 없는 광채로 가득 찼고 이내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임하였다.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은 빛과 함께 사라졌고, 나는 적막한 밤의 두려움에 처해 있었다.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깨어나게 되었고 내가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운명이 결정지어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다." (1 증언, 27)

15.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꿈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또 하나의 꿈을 꾸었다. 나는 처참한 좌절 가운데 손으로 얼굴을 가리운채 앉아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앞에 내 자신을 바치면서 나의 모든 고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나를 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항상 섬기리라. 바로 이때에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얼굴 모양을 지닌 한 사람이 들어왔다.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응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분께서 여기에 계시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을 볼 수도 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들고 나를 따르라' 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듣고서 나의 적은 소유물들을 챙겨서 나의 인도자를 따라 나갔다. 그는 나를 가파르고 약해 보이는 계단으로 인도했다. 내가 계단을 오르려 할 때에 그는 현기증이 생겨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만 바라보고 올라 오라고 주의를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다가 그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도중에 떨어졌다 한다.

하여튼 마지막 계단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문전에 와서 서 있었다. 나를 인도하는 자가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문전에 내려 놓으라고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그곳에 내려 놓았다. 그러자 그 인도자는 문을 열고 나를 들어 오라고 명하

였다. 들어 서자 마자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착각일리가 없었다. 그 사랑스러우면서 광휘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분이야말로 나의 형편과 나의 내적 사상과 감정을 익히 알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안전에서 내 자신을 감추어 보려고 하였다. 그의 통찰하시는 시야에서 견딜 수 없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미소를 보이시며 내 곁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그의 손을 내 머리에 올려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고 하였다. 그의 달콤한 목소리는 내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으로 내 마음을 전율하게 하였다. 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감정에 못이겨 그만 그의 발 앞에 엎드리고 말았다. 무기력한 형편으로 거기 있을 때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내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 하늘의 안정과 평안에 내 자신이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얼마 후에 나에게 기력이 다시 돌아왔으며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스런 눈빛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띄고 있는 미소는 내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차게 하였다. 그의 임재는 거룩한 존경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였다.

나의 인도자가 다시 문을 열었고, 같이 그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놓고 간 것을 다시 챙겨 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마쳐지자 녹색 코일로 꼬인 끈을 내게 건네 주었다. 그리고 이 끈을 내 가슴 바로 옆에 대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할 때에는 내 품에서 꺼내어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길게 늘여 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끈이 꼬인 상태에서 오래 있음으로 끈이 꼬이거나 매듭이 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였다. 꼬이게 되면 바로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그 끈을 내 가슴 가까이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가느다란 계단을 내려 오면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꿈은 내게 희망을 안겨 주었다. 녹색으로 된 끈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이 내 영혼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1 증언, 28-29)

16. 동정과 권면

"나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내 어머니에게 모두 털어 놓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나를 동정하면서 위안의 말을 해 주셨다. 그리고 포트랜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셨던(Stockman) 목사님을 만나 보라고 하셨다. 내 자신이 그분을 높이 신뢰하였는데 그분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그의 손을 사랑스럽게 내 머리에 올려 놓고 목메인 음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엘렌아, 너와 같은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아이는 오직 너 혼자뿐이다. 예수님께서 너로 하여금 어떠한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구나' 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록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의심과 좌절로 인하여 근심한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마음의 고뇌는 바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 긍정적인 증거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죄인이 죄의식을 굳혀 버린다고 하면 그의 죄의 무서움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그 자신을 추켜 올리며 어떤 특별한 위험이 없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주의 성령은 그를 떠나가고 그 자신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든지 아니면 분별없는 반항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이토록 좋은 사람이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저들의 파멸로 인하여 기뻐 날뛰는 대신에 단순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분(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고 힘썼

다. 그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믿고 살았다.

그는 또한 나의 초기 불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애통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어두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명하였다. 섭리자의 지혜가 너무나 가혹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장래에는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신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확실히 보리라." (1 증언, 29-30)

17. 위안을 받음

"'엘렌,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참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워가지 않으신다' 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렬한 기도를 해주셨다. 나의 비천한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의 성도의(종=목사님) 기도만은 들어주실 것같이 느꼈졌다. 위안을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집을 떠나왔다." (1 증언, 30)

18. 십자가가 높혀짐

"스타크멘 목사님과 얼마 안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운 것이 그 이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주앞에 나가서 주의 미소가 내 마음에 위안만 주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견디어 내겠다고 약속하였다. 내 마음이 근심으로 싸여 있었을 때에 주셨던 똑 같은 의미가 내게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그리 멀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저녁 기도 집회에 참석하였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 있었다. 몇몇 사람이 기도를 한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진주알처럼 내게 나타났다.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견디기 위해 애써온 짐과 고뇌들이 내게서 떠나갔고 주의 축복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내게 임하였다. 내 마음 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게서 만사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그의 영광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내 주위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여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다음날에 내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었다. 전날 밤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내 뇌리에 줄곧 스치는 사상은 곧 이것이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이었다. 내가 이 말씀들을 조용히 반복할 때에 내 맘에는 행복으로 충만해졌다." (1 증언, 30-31)

19.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견해가 바뀌었다. 지금은 아버지를 맹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군주로 보는 대신에 친절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로 바라본다. 내 마음 깊이 그리고 열렬히 그를 사랑한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비추이는 빛에 아무런 구름도 끼이지 않는다. 구세주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확신을 느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 -'…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마치 지옥에서 구출함을 받아 하늘에 옮겨진 것같이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울함과 고뇌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으로 바뀌어졌다. 내 생애에 시험 거리가 되었던 나의 초기 생애에 있었던 불운까지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내 사상이 영원한 것에 고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출세에 대한 야망과 교만심이 깨어짐으로 실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1 증언, 31)

20.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결심함

"내 나이가 매우 어렸으나 구속의 계획에 대한 것은 아주 명백하였었다. 또한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으며, 귀중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행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전생애가 나의 주인을 위한 봉사를 위해 바쳐졌다. 무엇이든지 올 테면 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살며 충실한 자에게 주시마고 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살며 충실한 자에게 주시마고 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마치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물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나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되었다. 특별한 시련이 닥쳐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다. 경험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방해할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미소를 볼때마다 나의 생애는 다시 환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으며 나의 갈 길을 기쁨으로 계속 걸어 갔다." (1 증언, 34)

기억할 말씀: "청소년 시대는 씨를 뿌리는 때이다. 청소년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하여 거둘 수확의 성격을 형성하는 시대이다." (소망, 101)

연구할 과제

1. 위에서 연구한 대로 엘렌 지 화잇이 그런 일이 있을 후에 약 6개월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1 증언, 32)
2. 엘렌 지 화잇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어떤 책들에 주로 기록되었는가? (화잇의 자서전, 그리스도인 생애와 가르침)
3. 엘렌 하몬(Ellen Harmon)이 언제 어디서 침례를 받았는가? (화잇 자서전 25) {본과 10번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참고할 것}
4. 윌리암 밀러(Willian Miller)씨를 공중 설교가로서 그의 설교에 대해 의논해 보라. (본과 11문을 참고할 것) {화잇 자서전 26-27)}
5. 엘렌 하몬이 그녀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하고 어떤 성공을 거두웠는지 말해 보라. (1 증언, 32-34)
6. 엘렌 화잇이 언제쯤부터 청소년의 교육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가? (3 증언, 131-160)

제2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함

성경절 연구: 합 2:3; 히 10:34-37

요점: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세주가 오심으로 저들의 기쁨이 극치가 될 것이라고 희망하던 시간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실현되지 않은채 시간은 흘러 갔다. … 우리는 실망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낙담하지는 아니하였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과 찌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재련을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불평을 참아가면서 다시 분석하는 일을 하였다." (화잇 자서전 61, 62)

예언의 신 연구

그녀의 믿음을 증인함

1. 엘렌 하몬의 증인

"내 아버지의 가족들은 이때까지도 감리교회에 이따금씩 참석하였고 교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인집에 모여었다. 어느 날 밤에 나의 형제 로버트(Robert)와 내 자신이 개인 집에서 하고 있는 교과 공부에 참석하기 위하여 갔다. 가르치는 장로님이 거기 참석하였었다. 나의 형제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분명히 공중 앞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만날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나의 형제가 말하고 있었을 때에 보통 때에는 창백하였던 그의 얼굴에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치 위에 있는 영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말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영의 지도를 받아 자유한 가운데 일어나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운데 말하였다. 죄책감 아래 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어떻게 하여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곧 오시게 될 복음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증언, 35)

2. 교인들의 반응

"나의 단순한 생각으로 나의 감리교 형제와 자매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나는 실망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 자매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저들의 의자를 요란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저들의 등을 내게 향하였다. 그토록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저들의 마음을 그토록 상하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었을 때에 비(B)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며 유용한 일을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속히 오심으로 가난한 죄인들이 멸망을 받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죄가 그 종국을 고하겠고 영원한 성화를 누리면서 즐거워할 것이요, 다시 유혹하여 우리로 결길로 가게 하는 마귀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그가 내게 묻기를 다른 의견을 가짐으로 현세의 운명에서 영원히 불멸의 몸으로 변화함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네 침상에서 평안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러나 나의 대답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일이나 사는 일에 자원해서 하겠다고 했으며 잠시 잠간 있으면 지나갈 눈에 비치는 번개와 같은 순간 동안 어떤 고통이 임하든지 참고 견디기를 원하며 또한 세월이 신속히 흘러가서 썩어질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함을 받게 되는 날을 속히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에게 아주 가깝게 살면 살수록 그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실망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1 증언, 35-36)

3. 집회가 마친 후에

"사회하는 장로님이 다른 문제를 교과 공부를 하는 시간에 이야기하였다. 그는 임시적인 복천년기에 참여하는 것을 인해서 매우 기뻐한다고 하였는데 주의 말씀이 마치 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에 가득차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시기가 속히 임하기를 학수 고대한다고 하였다. 집회가 마쳐진 후에 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친절히 하고 우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아주 싸늘하게 대하는 것을 느꼈다. 나의 형제와 나는 거기에서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서 그토록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주제가 저들의 가슴에 그토록 말할 수 없는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귀중한 빛을 발견한 일을 인하여 감사하였다." (1 증언, 36)

4. 복스러운 희망

"이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교과 공부를 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며 그의 자비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내 생애가 놀랍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기회가 있든지 구세주의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1 증언, 36)

5. 구속주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

"내가 말할 차례가 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는 증거를 이야기했으며, 나의 구속주가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을 사모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신조는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성화를 갈급한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교과 공부를 맡아하는 사람이 내 말을 방해하면서 말하기를 '자매여! 그대가 성화를 입은 것은 감리교를 통해서 된 것이요, 이상한 오류에 의해서 성화를 입은 것은 아니라' 고 하였다. 내가 사실을 토로해야겠다는 느낌이 있었다. 내가 새로운 축복을 받은 것은 감리교의 어떤 신앙 때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진리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찾았으며 기쁨과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의 증언이 마쳐졌고 이것이 감리교인 형제들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한 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1 증언, 37)

6. 로버트 하몬(Robert Harmon)의 증인

"로버트가 다음으로 그의 온유한 말씨로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의 말에 어떤 사람들은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

람들은 억지로 기침 소리를 내기도 하며 아주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과 공부를 하던 교실을 떠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매들이 구세주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에 진저리를 낸다고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만약에 저들이 사랑해야 하는 만큼 예수님을 저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재림에 대해 듣는 것이 그토록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대하는 반면에 오히려 그와 같은 소식을 인하여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증언, 37)

7. 사라(Sarah), 엘리자베스(Ellizabeth)와 엘렌(Ellen)이 한 계획을 세움

"이 때에 재림 신도들이 베토벤 홀(Beethoven Hall)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와 식구들은 이 집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였다. 예수 재림의 시기가 1983년 경이라고 믿고 있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으로 생각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죄인들을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야겠다고 작정하였다.

나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다. 사라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녀는 나보다 몇살 위였고 나의 쌍둥이 자매인 엘리자베스가 집에 있었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로 작정했고 돈을 벌어서 책을 사서 무료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고 점진적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 (화잇 자서전 47)

8. 진실된 자의 부정

"나의 아버지는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할 일은 모자의 맨 윗부분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제일 쉬운 일이었다. 또한 나는 25센트를 받고 스타킹을 짜는 일을 하였다. 내 심장이 매우 약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침대를 받치고 비스듬히 앉아야만 했다. 그러나 밤이나 낮이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하였는데 나의 떨리는 손으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종일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은 고작 25센트였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은전들을 얼마나 귀하게 따로 모아 두었던가?

내가 번 돈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낭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적은 없다. 나의 옷은 소박하였고 필요없는 장식품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치하는 것은 내 눈에는 헛된 일이요, 죄로 보였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금액의 돈들은 책을 사기 위한 것들이었다. 적합한 책들을 사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 주어 널리 전하도록 하였다.

인쇄된 매 페이지들은 내 눈에 아주 귀하게만 보였다. 그것은 세상에 보내는 빛의 기별자였고, 가까이 임하고 있는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명하는 기별이었기 때문이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근심의 짐이었으며, 세상에 경고의 기별이 주어지고 있는 동안 저들을 안전하게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화잇 자서전 47-48)

9. 유니스 하몬(Eunice Harmon)이 성경을 가르침

"어느 날 나의 어머니와 한 자매와 저들이 최근에 들은 바 있는 영혼 불멸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어떤 목사들이 증명한 성경절들이 반복 인용되었다. 그 중에 내게 강한 인상을 준 성경 말씀은 에스겔 18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는 말씀이요,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니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는 말씀과 디모데 전서 6장 15절과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있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고 하신 말씀과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하신 말씀들이었다.

어머님이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왜 저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다시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셨다.

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이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려 들었다. 나의 어머니와 홀로 있게 되었을 때에 영혼 불멸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그녀의 대답은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오류를 믿어온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오류를 믿어 왔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님에게 내가 묻기를 '어머님은 영혼이 부활시까지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즉시로 천당에 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하였다.

그녀는 대답하기를 '성경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에 대해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단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거룩한 성경 말씀에 언급이 있어야 한단다'라고 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이와 같은 이상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저들이 이 말씀으로 안위를 삼고 주님을 결코 찾지 않을 것같습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만약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고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역하는 자들을 굴복하도록 권유하지 않는 한, 지옥불의 공포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저열한 속성인 두려움을 이용하여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것들을 녹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이 교리에 대하여 또 다시 듣게 된 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골돌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진리가 사실이구나 하고 믿었다. 그때로부터 죽은 자들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내 자신이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신비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새롭고 장엄한 주제로 소개되었다. 때때로 내 마음은 죽은 자들이 즉시로 보상을 받든지 형벌을 받는 일과 미래에 있는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의심 때문에 불안을 가지곤 하였다. 만약에 죽을 당시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간다거나 영원한 불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썩은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화잇 자서전 48-49)

10.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빛

"그러나 새롭고 아름다운 이 신조는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토록 심사숙고 하였는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몸 전체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이 문제 대해서 전에는 그릇된 견해를 가져왔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화잇 자서전 50)

11. 로버트 하몬(Robert Harmon - 화잇 여사의 아버지)이 한 목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침.

"우리 가족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의 아버지는 감리교의 한 기둥처럼 서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집회시에 가르치는 자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가정에서 집회를 할 때에는 구역반장으로 활약하였다. 하여튼 간에 감리교 목사가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더니 우리가 믿는 신조와 감리교의 교리와는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그릇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이상하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새롭고 이상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 14:2,3)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0, 11)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그의 가르치는 주제에 열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기록한 바울의 글을 소개하시기를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천사들의 능력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살후 1:7-10)하였으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6-18)

이것이 우리가 믿은 신앙의 높은 권위이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기쁨과 승리의 재림을 주제로 삼았고,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다시 오리라고 선포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을 믿는 것이다. 이 교리는 옛 교리요, 이설의 색체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였다." (화잇 자서전 50-51)

12. 감리교회를 떠남

"그 목사님은 우리가 오류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단 한구절의 성경 말씀도 들먹이지 않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남으로 여러 사람들이 주는 시련을 피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셨다. 우리의 다른 형제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요, 우리가 믿는 신조가 챙피스러운 것이라거나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오류라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들은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고집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확실한 이유도 없이 그저 교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둘러대었다. 또한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자신들이 출교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우리는 대답하기를 일반적인 시련을 받는 것을 자처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목이 붙여지는지를 알기를 원했으며, 양심상 구세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그리 오래지 않아 한 통지를 받았는데 교회 별실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거기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이 주는 영향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교회의 회중들 앞에서 다루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유를 대는 것은 그저 교회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뿐이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규칙을 위반하였는가 하고 묻자 주저하다가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다른 집회에 참석했으며, 저희들(감리교)이 하는 교과 공부 집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가족은 과거 얼마 동안 시골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주일을 교과 공부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들의 증언이 찬성할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 있으라고 하는 강제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교과 공부 지비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감화를 끼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저들이 말하는 규칙에서 멀리 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저들의 규칙에 일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답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다시 오시는 구세주의 희망에 대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설이라고 주장하는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미소를 의식하면서 양심을 자유를 누리며 교회의 별실을 빠져 나왔다.

다음 일요일 사회하는 장로님이 우리의 이름을 삭제하였는데 교회로부터 출교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요, 품성면으로 볼 때에 나무랄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감리교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출교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이와 같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에게 겁을 주어 저들의 주장에 굴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저들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교회의 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 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였지만 저들이 믿는 바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혹시나 회당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거기서 나와 구세주를 사모하는 무리와 가담하게 되었다.

이 때에 선지자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사 66:5)" (화잇 자서전 51-53)

주 만나기를 예비함

13. 개조하는 자들이 많아짐

"매우 조심성있게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구세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에 접근해 갔다. 아주 엄숙한 가운데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생애를 정결케 하기를 구했으며, 주께서 오실 때에 만날 준비를 갖추었다. 집회들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은밀하게 개인 집에서 열렸으나 그 결과는 아주 좋았다. 믿는 자들은 저들의 친척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권면을 받았으며, 개종하는 자들은 날로 증가하였다." (화잇 자서전 54)

14. 포트랜드(Portland)에서의 집회

"목사들과 교회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랜드시에 있는 베토벤 홀은 밤마다 만원을 이루었고 특별히 일요일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고관들과 평민들, 목사들과 평신자들,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기 위하여 모여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 들어오지 못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

집회의 순서는 아주 간단하였다. 짧고 요점적인 강의를 하였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 시간을 허락하였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체로 가장 완전한 조용함이 있었다. 주의 종이 저들이 믿는 신조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 주께서 반대하는 자들의 정신을 제지하셨다. 때때로 사용하시는 기구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진리에 무게와 능력을 부여하셨다.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는 느낄 수 있었으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었다." (화잇 자서전 54)

15. 주께서 오시리라 기대했던 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세주의 강림을 가장 진실되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저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간은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이 시간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접근하였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다. 광명한 날 이후에 있을 평안이 저들의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험적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저들이 기다리던 귀중한 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여러 주일 동안 세속에 관한 사업들은 문을 닫고 제쳐 놓았었다. 우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과 사상들을 살펴 보았다. 마치 임종을 앞두고 몇 시간이면 지상의 모든 광경들을 보지 못할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살피는 일을 하였다. 이 큰 사건을 위해 승천할 때 입을 옷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내적인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서을 느꼈었다. 우리의 흰 세마포 옷은 영혼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구세주의 구속케 하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잇 자서전 56)

16.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기대하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것이 하늘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고 희망하던 사람들에게 임한 첫 시험이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실망을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조소하던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연약하고 겁이 있던 사람들을 저들의 편으로 넣는데 성공하였다.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나타났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감으로 저들의 용기가 꺽이자 대담하게 저들을 비웃고 조소하던 자들과 연합하여 저들이 밀러가 가르친 교리들을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밀러는 미친 광신주의자였다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보하거나 망설이는 중에 그저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실망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신조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리 오래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희망하였다. 주의 말씀은 진실되며 결코 거짓될 리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느꼈으며, 우리가 가진 귀중한 진리대로 살았다고 느꼈다. 우리가 실망을 하였으나 좌절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시대의 징조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믿고 다른 지시와 위안의 격려의 기별을 받기 위해 집회로 모이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었으며, 이러한 빛이 어둠에 있는 세상을 비추이게 하여야 하였다." (화잇 자서전 57)

17. 저들의 오류를 발견하고 인정함

"우리가 계산한 예언적 시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대로 기원전 457년에 페르샤 왕이 영을 내린 시기로부터 2300주야(년)까지니 1843년에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볼 때에 이 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었다. 그 해가 다 지나가도록 구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실망을 경험하였다.

기원전 457년 초에 그 영이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2300주야가 끝이 나려면 1843년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영이 기원전 457년 거의 말에 가서 내려졌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자 예언적 기간의 마지막 지점은 1844년 가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볼 때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지체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인하여 위안을 받았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합 2:3)." (화잇 자서전 57)

18. 시련과 실망의 가치

"하나님께서 1843년을 경과시킴으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였다.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단번에 된 일이 아니었다. 그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던 학식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의 학자들까지도 밀러가 한 시간적 계산은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사건을 놓고 왈가왈가한 일은 있었지만 저들 학자들이나 주의 강림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시간에 대한 공통적인 오차가 있었다.

실망을 맛본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였다. 열렬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적 기간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에 예언적 기간을 연구하여 저들이 한 오류를 찾아 내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으나 계시가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슬픈 경험을 하였으며, 풀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들이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계발시키며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다." (화잇 자서전 58)

19. 밤중 소리

"우리의 소망은 1844년에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중심지어졌다. 또한 이때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공중을 날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 14:8)하는 기별을 선포하는 시기였다. 이 기별은 주의 종에 의해서 1844년 여름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 기별과 연관하여 '밤중 소리'의 기별이 주어졌다. '보라! 신랑이 오나니 가서 맞으라!' 하였다.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이 기별에 관한 기별들이 주어졌고 수천의 사람들이 듣고 일어났다. 이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촌락에서 촌락으로 퍼져 나갔다. 이 기별은 배운 자들과 재능이 있는 자들, 그리고 산간 벽지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이 해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다. 내 마음은 기쁨의 기대로 충만하였었다. 그러나 좌절한 나머지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크게 동정하고 염려

하였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참된 경험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진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였다." (화잇 자서전 59)

20. 믿음의 시련

"조소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인내가 필요하였다. 우리가 경험한 실망 때문에 여러 번 조롱을 받아왔다. 희랍 정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한 교리를 전파되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다 썼다. 저들이 하는 집회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저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복음을 거절하였다. 그의 재강림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저희들은 반대하는 대신에 즐거워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였어야만 했다." (화잇 자서전 59)

21. 준비 기간

"매 순간이 내게는 말할 수 없이 귀한 순간이었다. 우리들은 영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고, 부주의하고 관심이 없어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느꼈다. 내 믿음에는 아무런 구름도 끼이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내게 적합한 것이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 하셨다. 나는 이 진리를 굳게 믿었는데 내가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었고 그분의 뜻과 내 마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는 때때로 여러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 눌려 있는 사람들과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 나의 믿음은 매우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에는 도무지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한번도 예외없이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또한 낙담하고 있던 영혼들의 마음에 빛과 소망이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

열심히 자신들을 살피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피차 고하는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접근되어 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었는가를 살피어 확실히 하는 것으로 느꼈다. 우리가 성결의 길로 진보하지 않으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관심은 증가되었고, 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 우리는 과수원이나 작은 숲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그분께서 만드신 자연으로 둘러 쌓인 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큰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의 구름이 끼이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떠오르기까지 쉬거나 잠을 자는 일을 전폐하고 깨어서 기도하였다." (화잇 자서전, 59)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저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저들의 인도받기를 선택하는 그 길 이외의 길로는 결코 저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신다." (소망, 224)

연구할 과제

1. 엘렌 하몬의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어떤 "두 상태"에 대한 교리가 그녀의 마음에 의혹을 가지게 하였는가? (화잇 자서전 28)
2. 그대는 위에 말한 "두 상태"에 대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가? (목사, 456; 1 증언 339, 340) {사전을 찾아 보아 참고하라}
3. 어떤 교리가 엘렌 하몬에게 정신적 고뇌를 가져다 주었는가? (화잇 자서전 29-31)
4.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빛을 받게 되었는가? (화잇 자서전 48, 49)
5.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보라.(화잇 자서전 61-62)
6. 1844년에 저들이 경험한 실망과 기원후 31년에 제자들이 경험한 실망을 비교 연구해 보라. (화잇 자서전 62)
7. 다니엘 8장 14절을 설명하라. (화잇 자서전 63)
8. 밤중 소리라는 말은 어디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마 25:6)
9. 언제 "밤중 소리"의 기별이 주어졌는가?(쟁하, 195)

제3과 계시가 믿음을 확인함

성경절 연구: 민 12:6; 암 3:7; 고전 1:6-8.

요점: "때때로 온 밤을 지새어 가면서 엄숙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일로 보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해주시곤 하였는데 이럴 때마다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CET 193)

예언의 신 연구

재림 운동에 있어서의 믿음

1. 나의 첫 계시

"내게 첫 계시가 주어진 때는 1844년이 지난 후 얼마되지 아니되어서 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한 자매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자매와 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다. 다섯 여인들이 가족 제단에서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 내 자신이 빛으로 온통 둘러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점점 지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내가 재림을 주장하고 믿던 신도들을 찾아 보기 위하여 두리번 거렸으나 볼 수 없었다. 이 때에 소리가 있어 '다시 보라.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을 보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좁고 험한 길이 있었는데 세상 위에 높이 펼쳐진 길이었다. 이 길 위에서 재림 신도들은 하늘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저들의 뒤에, 즉 저들이 시작한 지점에서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는데, 천사는 말하기를 이 빛은 '밤중 소리'라 하였다. 그 빛은 저들의 길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앞서 가셨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한 저들이 안전하였다. 얼마가지 않아 피곤해졌는데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우리가 벌써 그 성안에 들어 갔으면' 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면서 위로하시곤 하셨는데 그 팔을 움직일 때에 거기서부터 빛이 새어 나와 성도들 앞에 비추었고 성도들은 '할렐루야'하고 외쳤다. 다른 사람들은 저들 위에서 비추고 있는 빛을 소홀히 하면서 '저들을 이런 길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저들 위에서 비추이던 빛은 사라져 없어졌고 저들은 완전한 암흑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저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길에서 떨어져 어둡고 사악한 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1 증언, 58; 초기, 14, 15 참고)

2. 144,000인에 대하여

"이내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오실 날과 시간을 공표하시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성도 144,000인들은 그 목소리를 알고 이해하였으나 악인들은 천둥소리와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고 우리의 얼굴들은 빛으로 가득 찼으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 올 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십사만 사천인은 모두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 씌여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 있는 영광스러운 별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기뻐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악인들은 분노하여 난폭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감옥에 밀어 넣기 위하여 우리 몸에 손을 대려 하였으나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저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하였다. 그때 사단의 회는 서로 발을 씻어 주고 성결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알고 우리 발 앞에 경배하였다." (1 증언, 59; 초기, 16)

3. 인자가 오실 때의 징조

"우리 눈은 곧 동쪽으로 이끌리었다. 사람의 손의 반 정도의 크기 밖에 안되는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욱 환하게 되었다.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하여 어깨 위에 닿았으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의 오른 손에는 예리한 낫이 그리고 왼 손에는 은 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 때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은 흙빛으로 변하였다. 이에 우리는 모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하고 소리쳤다. 그 때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그치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여졌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음조를 더욱 높이 올려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그 구름은 지상으로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예수님께서 불꽃에 싸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응시하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일어났다. 144,000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갔다." (1 증언, 60; 초기, 16,17)

4. 죽은 자들의 부활 - (위의 예언의 신 말씀을 참고할 것)

5. 7일 동안 하늘로 올라감

"우리는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 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셨다. 그 분은 우리에게 금 거문고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주셨다. 유리 바다 위에는 144,000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의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썼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들은 그 위에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면류관에는 별이 불과 몇 개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면류관에 아주 만족해 하였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가 저희의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 위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

리의 주위를 둘렀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에 걸려 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세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하여 들어 갔으며 우리는 그 도성에 떳떳이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1 증언, 60; 초기, 17)

6. 생명 나무

"여기서 우리는 생명 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 나오고 강 양쪽에는 생명 나무가 있었다. 강 한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의 맞은 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나무를 본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시 위를 쳐다 보았을 때에 그 줄기가 꼭대기에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 나무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1 증언, 61; 초기, 18)

7. 핏치(Fitch)형제와 스톡맨(Stockman) 형제를 만남

"우리가 모두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그곳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무덤에 잠재우셨던 핏치와 스톡맨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을 물었다." (1 증언, 61; 초기, 18)

8. 시련과 영광의 무게를 비교함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주위에 둘러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게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할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 하고 외쳤으며 영광스러운 거문고를 타서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1 증언, 61; 초기, 18)

새 땅에 관한 계시

9.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

"선두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모두 그 성에서 이 지구의 거대한 산 위로 내려 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께서 서심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산산히 흩어지고 거기엔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는 위를 쳐다보니 열두 기초로 된 열두 문이 한편에 각각 세개씩 달려 있고 각 문마다 한 천사가 서 있는 큰 성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성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 때의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보기 시작하였다." (1 증언, 67; 초기, 18)

10. 성도들의 집

"나는 거기 있는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처럼 빛이 나고 보기에도 매우 찬란한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이 집들에서 성도들이 살 것이었다. 집집마다에 금 시렁이 있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서 저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 놓고 밭일을 하러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밭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었고 그들은 큰 소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 증언, 67; 초기, 19)

11. 들과 숲들

"나는 온갖 종류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들을 보았다. 나는 그 꽃들을 따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니' 하고 외쳤다. 그 다음 나는 키가 큰 풀이 자라고 있는 들판을 보았는데 보기에 아주 훌륭하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듯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완전히 화합하여 함께 거하였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짐승들은 평화로이 뒤따랐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세상에 있는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속에서 빛이 비치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하였다. 나무 가지들은 이리 저리 흔들거렸으며 모두들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것이며, 숲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으리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갔다." (1 증언, 68; 초기, 19)

12. 거룩한 성전을 봄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 자리에 빨갛게 테를 두른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는 저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물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테가 있었다. 시온 산이 우리 바로 앞에 나타나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일곱 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그 산들의 꼭대기를 향하여 기어 오르거나 혹은 저희의 작은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 올라가서 시들 줄 모르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성전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 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해 주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유하신 음성으로 '십사만 사천인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하시자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일곱 개의 기둥이 떠 받치고 있었으며 일곱 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모두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석판들에 144,000인의 이름이 금 글씨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1 증언, 68-69; 초기, 19, 20)

13. 만찬에 초대를 받음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곧 우리는 그의 온유하신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예비하였던 대로 너희를 섬기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다!' 하고 외치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상을 보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나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생명 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어도 좋으냐고 물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안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신실히 하면 잠시 후에 생명 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생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상에서 매우 쓸쓸함을 느낌은 내가 더욱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어서 그곳에 날아가 안식하였으면!" (1 증언, 69; 초기, 20, 21)

안식일과 하늘 성소

14. 엘렌 하몬이 죠셉 베이쓰(Joseph Bates)를 1846년에 만남

"내가 마사추세쓰 주에 이는 뉴 베드포드(Now Bedford, Mass) 에 있을 때가 1846년이었는데 거기서 죠셉 베이쓰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그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요, 예절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처음으로 듣고는 그가 나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에, 일어나서 이야기 하기를 '나는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계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자매가 한 증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진데 내 자신은 산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하신 분은 진실되게 이야기 했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죠셉 베이쓰는 토요일, 즉 주일 중에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그 날이 참 안식일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나 다른 9계명 보다 넷째 계명을 중요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화잇 자서전 95)

15. 하늘 성소에 관한 것을 봄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성소에 관한 것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열려 있었고, 시은좌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다. 두 천사가 법궤 양 옆에 서 있었는데 저들의 날개로 시은좌 위를 덮었으며 저들의 얼굴은 마주 보고 있었다. 나와 동행하는 천사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는데 그 안에 있는 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았다. 내가 넷째 계명을 보고 있을 때에 열 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 사상이 되는 넷째 계명 위에 신령한 빛이 비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를 인하여 의아해 하였다. 천사는 말하기를 '열 계명 가운데 오직 이 한 계명만이 하나님을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로 설명한다' 라고 하였다." (화잇 자서전 95)

16. 안식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이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안식일에 대한 기초도 놓여 졌다. 만약에 참 안식일을 잘 지켜 왔었다고 하면 이교도나 무신론주의자들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막아 주었을 것이었다.

넷째 계명이 짓밟힌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율법을 보수하는 자요 속된 안식일을 위하여 신원하는 자로 부르는 것이다. 죄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여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주일 중의 첫째 날로 바꾸려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그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날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이 전해졌

는데 이 율법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졌었다. 율법에 있는 깨어진 틈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58:12-14절에 나오는 귀한 약속을 적용하는 것이 내게 계시로 보여졌다.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였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며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할 것이요, 이 기별에 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화잇 자서전 96)

17. 하늘 성소에 대해 다른 광경을 봄

"1847년 메일 주 톱샴(Topsham)에서 안식일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보여 주셨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영을 느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는 심히 기뻐하였으며 나는 곧 지상의 사물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가운데 둘러 싸였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속력으로 나를 향하여 날아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나를 순식간에 지상에서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갔다. 도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나는 그리고 들어갔다. 한 문을 통과하여 첫 번째 휘장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휘장이 걷어 올려지자 나는 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향단과 일곱 금 촛대 그리고 진설병에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다. 성소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둘째번 휘장을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지성소로 들어 갔다.

거기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가장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에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구름이 날개를 그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으며 눈은 아래를 보고 있었다.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 향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영광이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될 때 향로 안에 있는 향불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함께 그의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돌비를 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위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 한 쪽 돌비에 네 조목, 다른 한 쪽에 여섯 조목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번 돌비에 있는 네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여섯 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네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히 빛났으며 영광의 기운이 그 주위에 가득하였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에 못박혔다면 다른 아홉개의 계명도 마찬가지로 못박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자유롭게 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시지 않았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주일 주 첫날로 안식일을 변경시켰다. 그것은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초기, 32)

18.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꾸셨다면...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기셨다면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의 돌비에 새겨져 있는 안식일 계명의 글자를 고쳐 쓰셨을 것이고 나는 '제일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쓰인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돌비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

신던 것과 똑 같은 글씨로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표인 동시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며,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위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았다." (초기, 33)

19. 환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 때에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쳤다. 그런 중에도 영광이 머무는 깨끗한 한 곳이 있었는데 그 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돌덩이들을 땅으로 날려 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머리를 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천둥이 울부짖는 것같이 온 땅에 메아리쳐 나갔다. 무섭도록 엄숙한 순간이었다. 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하고 찬양했다. 그들의 안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영광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초기, 34)

20. 예수님의 재림

"그 때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 온 종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반면 악한 그의 주인은 혼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곧 큰 흰구름 덩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과거 어느 때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나 구름이 땅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그의 자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늘에 맨 처음 나타난 그 구름은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잠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히셨다. 살아남은 성도들도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병거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병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주위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병거 어느 쪽에도 날개들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바퀴들이 있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고 외쳤고 또 날개들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 하고 소리쳤다. 그 구름 주위의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고 함께 소리를 높였다. 구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영광!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 병거는 드디어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위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금도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곳에서 환영을 받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초기, 34-35)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믿음으로 그분의 능하신 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붙잡으라고 명하신다." (2 증언, 170)

연구할 과제

1. 핏치와 스톡멘은 누구였는가?(Prophetic Faith of Our Father, Vol, 4. 533-545, 780-782)
2. 어떻게 하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조가 발전되었으며 수락되었는가? (1 기별, 258-261)
3. 엘렌 화잇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성소 진리에 대해 그녀의 확신을 어떻게 언급하였는가?(복음, 302; 1 기별 260-261)
4.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에 관한 진리를 설명해 주는 원칙들은 무엇이었는가?(쟁하 171, 191)
5.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의 실마리를 푸는데 성소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 된 것을 설명하라.(쟁하 91-194)
6.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선지자들의 이름을 적어 보라.(삿 4:4; 대하, 34)
7. 신약 성경에 언급된 여선지자의 이름을 들어 보라.(눅 2:36; 행 21:8, 9)

제4과 공중 봉사

성경절 연구: 사 61:1-3

요점: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가 열납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 이 원수가 너에게 겁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펴사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너를 그분 곁으로 가까이 이끄실 것이요, 너의 겸손함을 보전하시리라.'" (화잇 자서전 72)

예언의 신 연구

공중 봉사를 하라고 부르심

1. 나의 두번째 계시

"첫번째 계시를 본 후, 약 일주일 후에 두번째 계시를 보았는데, 내가 통과해야만 할 시련에 관한 것들을 주께서 보여 주셨는바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커다란 반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보여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 주셨다.

내가 계시에서 깨어나 무척이나 떨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계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건강은 아주 약했고 또한 계속해서 고통이 있었으며 나의 겉보기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처럼 보였었다. 나의 나이는 꽃다운 나이 열일곱살이었고 체구도 작았고,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했으며, 낯선 사람을 만나면 고통스러워 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였다." (화잇 자서전 69)

2. 큰 고민에 빠져 있었음

"여러 날 동안 밤이 깊도록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지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하는 의무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서 천사가 한 말이 내 귓전에 와서 메아리를 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고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잊어 버리기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일어서기로 하였다.

그러나 내게 제시되었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이것을 해 본다고 해도 틀림없이 실패한 것 같이만 생각되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엄습해 왔다.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증거한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만 해도 내 심장이 위축되는 것만 같았다. 나의 오빠 로버트는 나보다 2살 더 먹기는 하였지만 그의 건강 역시 약했으며, 나보다 수줍음을 더 많이 타는지라 나와 함께 짐을 질 수도 없

을 것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했기에 하는 직업을 그만 둘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면 아버지께서도 길을 열어 주시마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근심이 쌓여 있는 내게는 그리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였다. 내 앞에 있는 길은 어려움으로 둘려 쌓여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내게 겁을 주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기를 탐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달콤한 평안을 사라졌고 다시 내 영혼은 좌절로 억눌려 있었다." (화잇 자서전 69-71)

3. 형제들에게서 위안을 받음

"포트랜드(Portland)에 살고 있던 신도들은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맘이 편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모든 것들은 내 편에 어떤 죄가 있어서 혹시나 이런 계시를 보여 주지 않았나 하고 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서 집회가 열렸으나 내 마음에 있는 좌절 때문에 한동안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 마음의 고뇌는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무거워지는 것같았다.

결국에 가서 내 집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교회에서는 나의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자신을 내게 나타내셨다고 했을 때에 믿지 안하고 반대했던 피얼슨(Father Pearson) 씨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고, 내게 권면하기를 주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라고 하였다. 마치 나의 부드러운 아버지처럼 용기를 주고 위로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죄인의 친구되신 예수님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내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낙담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내 친구들의 기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세상이 반대할 것에 대하여 이제 무관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하기로 하였다." (화잇 자서전 69-71)

4. 약점을 극복함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나의 형부와 함께 폴랜드(Poland)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나의 언니가 살고 있었으며, 나의 집에서부터의 거리는 약 30마일(120리) 쯤 되는 거리였다. 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약 3개월 동안 나의 목과 폐가 아파서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말을 간신히 한다고 해도 낮고 거친 목소리로 할 정도였었다. 그런데 이때에 말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약 5분 정도 속삭이는 소리로 나의 간증을 하였다. 약 5분 후에 그토록 통증을 주던 목이 괜찮았고 나의 목소리는 맑고 낭낭하여졌으며, 아무 어려움 없이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 내가 나의 말을 마쳤을 때에, 내 목소리는 전과 같았으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때면 다시 목소리가 괜찮아지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내가 하는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섭리에 의해서 내가 메일 주에 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요단(Jordan) 형제가 사업차 그의 자매를 대동하고 올링톤(Orrington)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 나에게 같이 가자고 강권하는 것이었다. 내 자신이 주님과 약속하기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길이면 어떤 길이든지 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기뻐하였

고, 좌절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화잇 자서전 72-73)

결혼하여 봉사함

5. 제임스 화잇(James White)과 결혼함

"1846년 8월 30일에, 나는 제임스 화잇 목사와 결혼으로 연합했다. 화잇 목사는 재림 운동에서 깊은 체험을 했으며, 진리를 전파하는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왔다. 우리의 마음은 위대한 사업을 통하여 연합되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여행하고 활동했다." (1 증언, 75)

6. 공중 앞에서 이야기 함

"우리는 돈 한푼 없이, 소수의 친구들과 허약한 건강만으로 우리의 사업에 착수했다. 남편은 강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골몰함으로 심히 허약해졌다. 나는 이미 열거한 바와같이 어린 시절부터 허약한 건강 때문에 고생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돈도 없고, 우리의 견해에 동조해 주는 사람들도 매우 적고, 문서도 서적도 없이, 우리는 사업에 착수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예배드릴 집도 없었다. 천막을 사용한다는 생각도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우리의 집회들 중 대부분은 사가(私家)에서 열렸다. 우리의 기별을 듣는 회중은 적었다. 재림 신자들 외에는, 그리고 한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에 끌린 자들 외에는 우리의 집회에 오는 자들이 드물었다.

처음에,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중 앞에서 설교하는 일에 착수했다. 만일, 나에게 확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준 것이었다. 만일, 내가 자유롭고 능력 있게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우리의 집회는 일반적으로, 우리 둘이 다 참여하는 형태로 지도되었다. 남편이 교리 설교를 하고 나면, 나는 그 뒤를 이어 꽤 긴 권고의 말씀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씨를 뿌리고, 나는 진리의 씨에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1 증언, 75)

7. 조셉 베이쓰(Joseph Bates)와 가진 경험

"1846년 11월에 나의 남편과 함께 메일주 톱샴(Topsham, Maine)에서 죠셉 베이쓰 장로가 열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때에 나는 내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않은 때였다. 그 집회는 상당히 관심이 있던 집회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들어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다른 세계에 대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죠셉 베이쓰 장로는 내가 전에 천문학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 자신이 천문학에 대해 공부해 본 것같 것은 기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이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얼굴 빛은 하늘 빛으로 환히 빛났으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교회를 높였다." (화잇 자서전 97)

8. 계시에 대한 그(조셉 베이쓰)의 태도

"계시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죠셉 베이쓰 장로는 언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내 자신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란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받은 계시는 그저 그녀의 허약한 건강 때문에 환상을 본 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그녀가 계시의 흥분에서 깨어난 후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으며, 그녀와 동행하던 친구들과 특별히

그녀의 언니에게 사실을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였다. 그녀가 뉴 베드포드(New Bedford)와 페어헤븐(Fairhaven)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 번 방문하였고, 그녀가 계시를 받는 것을 여러 번 지켜 보았다. 메인 주에 있는 톱샴에서 계시는 보는 것 역시 지켜 보았다. 그녀가 계시는 받고 있는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그녀가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지켜보며 이것이 거짓이 아닌가, 아니면 최면술의 영향 아래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지금은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내 자신이 그녀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의 흩어진 백성, 상하고 찢기어 좌절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라고 믿는다. 특별히 1844년 10월 이래 세상을 위해서 해야할 일을 중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화잇 자서전 97)

9. 마사추세쓰(Massachusetts)에서 한 일들

"이 일이 있은 후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보스톤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 포틀랜드 항구에서 기선을 탔다. 거센 폭풍이 닥쳐 왔는데 우리 모두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다.

1847년 3월 14일, 우리가 먼 여행길에서 돌아온 후에 마사추세쓰주에서 2월에서 3월 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의 남편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7주 동안 여기 저기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해상과 육지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다. 엘렌은 지난 6년 이래 6주 동안 가장 건강한 시간을 보냈으며, 나 역시 무척 건강하여 매우 즐거웠다. ….

우리가 톱샴을 떠난 이래,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또한 많은 영광스러운 경험, 새롭게 되는 경험도 가졌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에 마사추세쓰를 방문한 것중에 가장 의미있는 방문이었다. 뉴 베드포도와 페어헤븐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큰 힘을 얻었으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 역시 많은 축복을 받았다." (화잇 자서전 99)

다른 세계를 본 광경

10. 그곳에 사는 주민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 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 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 곳의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 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초기, 39-40)

11. 두 나무를 봄

"그후에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으나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 때 나를 수행하던 천사가 이르기를 '이 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초기, 40)

12. 방문자 에녹을 만남

"그 후에 나는 달이 일곱 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씌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씌여 있었다. 또 화환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 뒤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화환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 곳으로 옮겨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오, 내 집은 도성이고 이 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 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 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초기, 40)

가난에 시달림

13. 스탁부리지 홀랜드(Stockbridge Howland)씨 집에서 살다.

"1847년 8월 26일, 메인 주 골함(Gorham, Maine)에서 우리의 첫 아이 헨리 니콜스 화잇(Henry Nichols White)이 태어났다. 10월달에 톱샴에 사는 홀랜드씨가 천절하게도 자기들이 사는 집의 일부를 내어 주면서 와서 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꺼운 맘으로 저들의 제안을 받아 들였으며 빌린 가구를 가지고 생활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가난하였으며, 또한 경기 역시 좋지 않았다.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자급자족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리 잘 되지 아니하였다. 나의 남편은 철로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힘겹게 하였으나 그가 한 일에 대해 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홀랜드씨 부부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저들의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먹었으나 저들 역시 어려운 판국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적으로 믿고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저들이 가진 것들을 다 바쳤으며 이제 저들 역시 저들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형편이었다." (화잇 자서전 105)

14.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단 말인가?

"나의 남편은 철로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중단하고 도끼를 들고 산에 들어가 장작을 패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계속되는 옆구리의 통증이 있음에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여 하루에 약 50센트(약 400원 현재)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내 자신은 불평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지난 밤동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며 저녁이 되면 낮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고 돌봐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어느 날 우리의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에 나의 남편은 그의 고용주에게 가서 돈이나 아니면 어떤 식량을 얻고자 하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다. 3마일(약 십오리)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비를 맞고 돌아왔다. 그의 등에 여러 보따리를 싸매어진 양식들을 지고 돌아왔다. 이런 봇따리 식량을 얻어 오기 위

해서 그가 강의를 했던 브른스윅(Brunswick)에 있는 사람들의 집집을 들린 것이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그의 모습이 매우 지쳐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나의 첫 느낌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편에게 '우리가 이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 여러 시간 동안 흐느끼며 울다가는 기절해 버렸다. 나를 위해 기도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의 성령의 감화 아래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일에 대하여 후회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으며,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때로 시련으로 인하여 낙망하므로 그분으로부터 먼거리에 있을 때가 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 주었다. 용광로는 금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태워 버리고 금을 더욱 빛나게 해 준다." (화잇 자서전 105)

15. 시험을 허락하셨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평안하고 안락하는 일을 꿈꾸지 않게 하셨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영혼들을 위해 일하는 일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여 가정이 안락한 곳이 되었더라면 그런 형편을 져버리기를 자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련을 허락ㅎ신 것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시련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때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저들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우리의 회답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하여 매우 조심하였다. 빚을 지는 것보다는 고통을 받기로 하였다.

어린 헨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악화되어만 가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감각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고 호흡은 빠르고 힘들어 했다.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해 봤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 보았으나 그의 말은 그가 회복될 것에 대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였으나 차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아이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삼았는데, 주께서 그 아이를 없애버리시려고 하지나 않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기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

우리의 간구는 아주 열렬하였고 고통 가운데서 올린 탄원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 하늘로부터 내려 오는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 위에 비추었다. 우리의 기도는 은혜로 응답이 되었다. 그 시간부터 아이의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화잇 자서전 106-107)

16. 커넥티컷(Connecticut)주를 처음으로 방문함

"우리가 톱샴(Topsham)에 있을 때에 커넷티컷 주, 미들타운(Middletown)에 살고 있는 챨벌레인(E.L.H. Chamberlain)형제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는데 1848년 4월에 커넥티컷 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강권하는 내용이었다. 우리에게 여건들이 허락된다면 가기고 작정을 했다. 나의 남편이 그의 고용주와 계산을 하

니까 고용주가 나의 남편에게 10불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돈 가운데 5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옷들을 사고, 나의 남편의 오바를 깁도록 하였는데 나의 남편의 오바의 소매는 어떤 것이 원래 헝겁인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웠다. 우리 수중에는 마사추세쓰에 있는 돌체스터(Dorchester)까지 갈 수 있는 5불이 있었다.

우리가 소유한 트렁크(가방) 속에는 이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던 평안과 양심상 거리끼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 인하여 즐거웠고, 이러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상급으로 생각하였다.

돌체스터엣 오는 오티스 니콜(Otis Nichols)씨 집에서 유하였는데 그 집을 떠날 때에 니콜스 부인이 나의 남편에게 5불을 쥐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 돈으로 돌체스터에서 미들타운까지 가는 표를 사는데 사용하였다. 우리는 미들타운에 도착하였으나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 어찌할 줄을 모르는 방랑객이 되었다. 우리 수중에는 오직 50센트의 돈이 남아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남편은 그 돈 50센트를 마차를 타는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트렁크를 가까이에 있는 목재상의 나무더미 위에 던져 놓고 믿음오 찰벨레인 형제를 찾기 위하여 걷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찰벌레인 형제를 찾게 되었고 그 형제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화잇 자서전 107)

17. 록키 힐(Confferenc at Rocku Hill)에서 열린 집회

"록키 힐에서 열린 집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알버트 벨던(Albert Belden)씨의 큰 방에서 열렸다. 나의 남편이 홀랜드(Howland)형제에게 그 집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4월 20일 벨던 형제가 말 두 필을 끄는 마차를 미들타운에 보내어 우리와 그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을 태워 주었다. 우리가 집회 장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 되어서였다. 우리가 도착한 후 얼마 있지 아니해서 베이쓰(Bates)와 거-니(Gurney)형제가 도착하였다. 그날 밤에 약 15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하였다. 금요일 아침에는 약 50명의 형제들이 모여 들었다. 그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었다. 그날 우리의 집회는 매우 흥미진진하였다. 베이쓰 형제는 계명들에 대한 빛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말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였으며 아직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였다." (화잇 자서전 108)

18. 뉴욕 서부를 방문하기 위하여 돈을 벌다

"약 2년 전에 장래에 뉴욕 서부를 방문하여야 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었다. 커넥티컷 주에서 열린 집회가 마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8월달에 뉴욕에 있을 한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지를 받았다. 하이람 에드슨(Hiram Edson)이라고 하는 형제가 글을 보내 왔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여 여행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에게 역시 여행할 만한 돈이 없었다. 나의 남편의 건강은 그리 좋지 않았으나, 건초를 만드는 곳에서 와서 일하라는 요청이 있기에 그 부름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것같이 생각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곁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를 하루를 사는 동안 힘을 주시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오기까지는 도

무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남편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나가 큰 낫을 휘둘러 건초를 베는 일을 하였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돈들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1848년 7월 2일에 홀랜드 형제에게 나의 남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경험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을 베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일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풀을 베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요일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 온종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홀트(Holt) 형제, 그리고 요한 벨던(John Belden)형제와 함께 100에어커(1에어커=1,200평)에 있는 풀을 베기로 하였습니다. 한 에어커당 87.5센트를 받기로 하였고 거기다 식사 일체를 제공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여기서 약간의 돈을 벌어서 주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잇 자서전 108-109)

19. 본리(Volney, N.Y.)에서 열린 집회

"뉴욕 서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일반적인 집회는 8월 18일 본리에 있는 데비드 아-놀드(David Arnold) 형제 집에 있는 창고에서 열렸다. 3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지역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대부분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주장하면서도 서로의 주장이 성격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 들이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어떤 형제는 요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기는 이미 지나간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요한 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된 십사만 사천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 함께 부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그의 고통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지려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일어나더니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예식에 대해서는 자기 믿음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의 만찬은 유월절의 계속이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만 거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상한 의견 다툼이 나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다. 많은 오류들이 진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말할 수 없는 근심이 나를 억눌러 그만 그 짐 때문에 기절을 하고 말았다. 베이쓰, 챨벌레인, 거니 형제와 나의 남편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나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화잇 자서전 110-111)

20. 성공적으로 집회가 마쳐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늘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이내 세상 것들을 잃어버렸다. 나와 동행하는 천사가 지금까지 제시된 오류들을 보이면서, 진리와 저들의 주장하는 바와는 상반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셨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오류에 관한 견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저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내게 명령하기를 저들이 오류를 고집하는 일을 멈추고 첫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 아래 연합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였다.

우리의 집회는 성공리에 마쳐졌다. 진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 형제들은 저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고 신도들이 증가되는 일이 있었다." (화잇 자서전 111)

기억할 말씀: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은 패망케 될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영혼들, 남의 비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 박수 갈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분(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4증언, 328)

연구할 과제

1. 엘렌 지 화잇이 두번째 계시를 본 후에 무엇이 그를 억압하였는가? (화잇 자서전 71-72)
2. 엘렌 지 화잇이 심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해 보라. (화잇 자서전 98)
3. 언제, 어디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첫 집회를 가졌었는가? (화잇 자서전 108, 109)
4. 어떻게 해서 메인 주에 있는 톱샴과 마사츄세쓰주에 있는 돌체스터가 초기 출판사업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Origin and History of SDA, Vol. 1. 187-206) {Captains of Hosts, 171-187}
5. 하이람 에드슨은 어떤 중요한 일과 곤계가 있는지 말해 보라.(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4 , 877-890)
6. 에드슨씨가 그린 역사적 장면들을 마세츄세쓰주 돌체스터에 그려 두었는데 그림들을 살펴보라.(Ibid, 998)

제5과 인도하는 손길을 따름

성경절 연구: 사 54:2,3,17

요점: "너는 적은 팜플렛을 인쇄하여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그 규모를 아주 작게 하라. 사람들이 그 기별을 읽을 때에 인쇄할 수 있는 자금들을 보내줄 것이다. 처음부터 이 일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은 규모로 시작된 사업이 결국에 가서는 온 세상을 둘러 싸고 있는 빛줄기처럼 확대될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셨다." (화잇 자서전 125)

예언의 신 연구

위안을 주는 섭리들

1. 헨리 화잇(Henry White)을 위해서 섭리가 마련됨

"또 다시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의 어린 아들 헨리를 희생하고서라도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주의 일에 바쳐 일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만 했다. 나의 건강은 매우 허약하였는데, 내 아이를 내가 꼭 데리고 가야 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 아이가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필요로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이 일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이었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의무에 아이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주께서 그 아이가 심히 아플때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제거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주님과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아픈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단 하나뿐이 없는 그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였다.

우리는 헨리를 홀랜드(Howland) 형제 집에 두기로 하였는데 그 집에 두면 안전할 것같이 생각이 되었다. 저들 역시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 키우는 일을 자원하였다. 저들이 우리가 그 아이를 여행길에서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볼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건실한 가정, 확고한 원칙대로 훈계하는 가정이 그의 아름다운 성격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아이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그를 떠날 때 짓고 있던 슬픈 표정은 밤이나 낮이나 내 눈 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내 뇌리에서 빼어 내려고 하였으며 다른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썼다.

5년간이나 홀랜드 형제의 집에서 헨리의 전반적인 양육을 도맡아 주었다. 저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돌봐 주고 옷등 모든 것을 사 주었다. 단 한가지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하여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마치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에게 일년에 한번씩 선물을 사 준 것처럼 우리도 일년에 그 아이를 위해 선물을 사서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모든 경비 일체를 홀랜드씨 가족이 부담해 주었다." (화잇 자서전 120)

2. 생수 - 한 꿈을 꿈

"나의 남편은 뉴 햄푸서(New Hamphshire) 주와 메인(Maine)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혹시 그 지역에 유행하는 콜레라에 걸리지나 않을까 하여 무척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런던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서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남편이 좀 걷자고 말하였다. 우리가 함께 걷는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을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그의 얼굴은 붉은 빛이었고, 그의 입술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혹시 콜레라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랬더니 나의 남편은 '좀 더 걷자! 콜레라의 치료제를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우리가 좀 더 걸어서 가다보니 한 줄기의 물이 흐르는 그 위에 있는 다리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더니 나를 거기에 세워 놓고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서 서 있었는데 손에 맑은 물 한 컵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면서 '이 물만 마시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또 한 컵의 맑은 물을 들고 나와서 손에 들고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나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하지 않는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 강물 밑에는 은밀한 곳에서 흐르는 샘 근원이 있는데 이 물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쳐 준다. 이 물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험을 감행하여야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각자 자신이 이 물을 구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가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그의 얼굴을 쳐다 보니 그의 안색은 자연스러웠고 정상으로 보였다. 건강미가 넘치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나를 엄습했던 두려움은 사라졌으며, 나의 남편의 모든 문제를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기로 하였고, 나의 남편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화잇 자서전 124)

3. 캄덴에 있는 무리들을 계시 가운데서 봄

"1950년 초에 아직 뉴욕주에 있는 오스웨고 (Oswego, N.Y.)에 있을 때에, 캄덴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이 도시는 오스웨고에서 동쪽으로 약40마일 (약1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다. 내가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계시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적은 무리를 봤다. 계시 가운데서 그 무리 가운데 경건한 체하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하나의 위선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였었다." (화잇 자서전 129)

4. 캄덴에서의 집회 (At Camden, N.Y.)

"안식일 아침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 들었다. 그런데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한 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 자매에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 전체냐고 무렀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내가 계시 가운데 보았던 여인은 그 집회 장소에서 4마일(약 십오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교인이 전부라고 대답한 그 자매는 이 여인을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이 들어왔는데 즉시로 그녀가 주님께서 그녀의 성격이 어떠한지 보여 주신 바 있던 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보았다.

집회를 하는 중에 그녀는 긴 시간 동안 말하기를 그녀 자신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 가운데 있는 성결함을 즐기고 있으며, 아무런 시련이나 유혹이 없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집에서 커다란 슬픔을 느끼면서 프리스톤(Preston)형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은밀한 곳에 쓰레기가 가득찬 것을 보았는데 이것

은 청소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하였다. 등불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귀중한 것들로 이 방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요일 아침에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집회를 하는 중에 나의 남편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였다. 그런데 자유롭게 말을 하지를 못하더니 기도를 좀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 진지하게 기도를 하였다. 검은 구름은 사라졌고 이내 나는 계시에 들어갔는데 또 다시 이 여인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 그녀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는 여자로 대표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하여 인상을 찌푸리고 서 있으셨다. 그와같이 찌푸리고 있는 인상은 나로 전율하여 떨게 하였다. 그녀는 위선을 감행하였는데 그녀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차 있음에도 거룩한 체 하였다.

계시에서 깨어나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면서 침착하게 내가 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가 조용하게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만약 내 마음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화잇 자서전 129-130)

5. 회개와 고백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증거한 말들을 달아 보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모르고 있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있지 않아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엄습하였다. 두려움이 그녀에게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녀가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지 다니면서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다녔다. 그녀는 영국에서 도망왔는데 그렇게도 친절한 남편과 한 아이를 두고 왔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악한 죄악들을 고백하였다. 그녀의 회개는 진정한 것처럼 보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던 것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캄덴(Camden) 주위에 살고 있던 형제 자매들과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셔서 증언한 말씀들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별은 자비와 사랑의 기별로서 기만과 위험한 오류에서 저들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주신 기별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화잇 자서전 130)

출판 사업을 시작함

6. 돌체스터(Dorchester, Mass.)에서 계시를 받음

"1848년 11월에 마사츄세쓰주에 있는 돌체스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 인치는 기별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으며,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는 빛을 인쇄하여야 하는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다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되었다.

계시에서 깨어나서 나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작은 인쇄물을 만들어 우리의 형제들에게 보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규모를 잡게 하시오. 그러면 형제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자금들을 보내 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된 사업이 결국에 가서는 온 세상을 둘러 싸고 있는 빛줄기처럼 확대될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1949년 여름, 아직 우리가 커넥티컷 주에 있을 때에 나의 남편은 현대 진리들

을 기록하여 출판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가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크게 격려를 받았으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그가 의심 가운데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돈 한 푼 없이 이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한동안 좌절에 빠진 나머니 그 계획을 중단하고 건초를 벨 풀을 찾고 있었다." (화잇 자서전 125)

7. 쓰고 쓰고 또 써야만 했음

"그가 집을 나가자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을 억눌렀는데 그만 그 때문에 기절을 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계시를 받게 되었다. 나의 주님께서 전에 나의 남편에게 힘을 주셔서 일년 동안 건초장에서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보여 주셨다. 그가 그렇게 돈을 번 것은 잘한 일이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 여러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에 나가서 풀을 베도록 힘을 주시지 않을 것을 보여 주셨다. 그 이유는 그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위험을 무릅쓰고 건초를 베기 위하여 들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없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쓰고, 쓰고 또 써야만 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을 단행해야만 하였다. 그는 즉시로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구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는 그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화잇 자서전 125)

8. 현대 진리

"7월 어느날 나의 남편이 미들타운(Middletown)에서 그게 최초로 발행한 인쇄물 천 장을 가지고 왔다.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여러 번 8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오가곤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벨던(Belden)의 말 마차를 빌려 타고 가서 인쇄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귀중한 인쇄물이 집에 있는 마루에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둘러 모여 무릎을 연하여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주께서 기별이 담긴 인쇄된 기별자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우리가 그 인쇄물을 접했을 때에 나의 남편은 봉투에 넣어서 읽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주소를 적어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미들타운에 있는 우체국까지 걸어 갔다.

7,8,9월 동안에 미들타운에 있는 인쇄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인쇄를 하였다. 매 인쇄물마다 8페이지가 되는 원고가 인쇄되었다. 인쇄물이 발송되기 전에 인쇄물 주위에 모여 눈물섞인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말없이 증거될 하나님의 기별이 담긴 인쇄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첫 인쇄물이 발송된 직후부터 돈들이 들어 있는 편지들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 들였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날아 오곤 하였다." (화잇 자서전 126)

9. 리뷰 앤 헤랄드(Review and Herald)지의 발간

"1850년 11월에 인쇄물이 메인 주에 있는 파리(Paris, Manine)시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이 인쇄물이 크게 인쇄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름 역시 에드벤트 리뷰 앤 쌔베쓰 헤랄드(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b) 지로 바뀌었다. 우리는 에이(A) 형제의 집에 유숙하였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으로 살기를 자원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이 인쇄물이 계속 발간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수에 있어서 적었고 저들이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기 때문에 때로 좌절에 빠지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으며, 때때로 자정이 되기까지 일을 하였으며, 원고를 교정하기 위해서 새벽 2-3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다.

지나친 노동에 태산 같은 근심, 걱정, 충분한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긴긴 여행을 하는 동안 추위에 시달리는 일은 나의 남편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으며, 게다가 맡은 책임을 이행하느라고 늘 쫓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얼마나 약해졌든지 이젠 인쇄소까지도 간신히 걸어 다닐 정도였다. 우리의 믿음은 극도로 시험을 받았다. 우리는 가난이나 고생, 또는 고통 같은 것은 기꺼운 맘으로 견디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동기가 잘못 이해되었으며, 불신하고 질투의 눈초리를 면치 못할 때가 많았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해하고 우리의 노력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였다. 잠을 자므로 휴식을 얻어야만 할 시간에 질투심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잠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여러 밤을 지새면서 고뇌의 눈물을흘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화잇 자서전 139-140)

10. 인쇄물 발간을 포기하려 함

"결국에 가서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여보! 더 이상 투쟁을 해봐야 별 수가 없을 것같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그냥 짓눌러 버릴려고 하는구만. 이러다가는 얼마 안있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것같애. 더 이상할 수 없을 것같애. 더 이상 인쇄물을 발간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고를 써 두었어.' 하는 것이었다. 그 원고를 인쇄소에 가져다 주기 위하여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나는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다. 나의 남편이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될 것을 나는 보았다. 사단이 나의 남편으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가도록 그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활약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었다." (화잇 자서전 140)

11. 뉴욕 주에 있는 사라토가(Saratoga, N.Y.)시로 이사함

"사라토가 스프링(Saratoga Springs)에 인쇄 사업을 위하여 정착하기까지 우리는 발스톤 스파(Ballstone Spa)에 여러 주일간 머물러 있었다. 셋집을 한 채 얻어놓고 스티븐 벨던(Stephen Belden)씨 부부와 본포이(Bonfoey) 자매를 오라고 기별을 전했는데 이들은 어린 에디슨 화잇을 돌보아 주던 사람들이었다. 가구들을 우선 빌려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에드벤트 리뷰 앤 쎄베쓰 헤랄드(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지 2권을 발간하였다." (화잇 자서전 141)

인쇄소를 설립함

12.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Rochester, N.Y.)에 정착함

"1982년 4월에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시로 말할 수 없는 극한 좌절 가운데 이사를 하였다. 매 발걸음을 띨때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했다. 아직 경제적으로 가난하였기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아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여야만 하였다. 1852년 4월 16일자로 기록된 홀랜드(Howland)형제에게 보내는 편지문을 아래에 소개하겠다.

우리는 막 로체스터에 정착하였습니다. 오래된 집을 일년에 175불에 세를 얻었습니다. 집에 인쇄소가 있습니다. 인쇄소가 없었다고 하면 사무실을 위해서는 일년에 그저 50불만 내도 되는 집입니다. 만약에 그대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본다고 하면 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5센트씩 주고 헌 침대를 두개 샀습니다. 내 남편은 의

자 6개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 둘만 짝이 맞았는데 전부 1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4개의 또 다른 의자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앉을 곳도 없는 것으로 모두 62센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의자의 나무들은 튼튼하게 짜져 있었기에 훈련삼아 그 의자에 앉아 보곤 하였습니다. 빠다는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고 감자 역시 살 수가 없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빠다 대신에 쏘스(간장과 같은 것)를 감자 대신에 무우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첫 식사는 두개의 빈 밀가루 통위에 널빤지를 올려 놓고 식탁을 대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가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일할 곳은 많은데 일군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안식일 집회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화잇 자서전 142)

13. 콜레라가 그 도시를 휩쓸음

"우리는 로체스터에서 많은 곤경과 좌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콜레라가 전 도시를 휩쓸었다.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묻기 위하여 마운트 홉 공동묘지(Mount Hope Cemetry)로 가는 길에서는 밤새도록 마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이 질병은 하류층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중, 하류 어느 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전염되어 희생자를 내었다. 가장 능란하다고 불리우는 의사들도 공동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우리가 로체스터 시가지를 지나갈 때에 매 골목에서 마차를 보았는데 마차에는 그저 평범하게 미송(소나무)으로 된 관 속에 죽은 사람들을 넣어 싣고 공동묘지로 향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어린 에드슨도 콜레라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신 의원(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 내 손에 그를 안고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었다. 즉시로 나아지는 것같았다. 한 자매가 그 아이가 질병에서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고 할 때에 세살 먹은 꼬마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더 이상 나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하였다. 그는 매우 약해 있었으나 그의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다. 아직 기력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시험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 아이가 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었다." (화잇 자서전 143-144)

14. 여행을 시작함

"우리는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Rochester, N.Y.)에서 메인 주에 있는 뱅고르(Bangor, Maine)까지 가는 동안 약 두달 동안의 약속이 있었다. 이번 여행은 포장마차를 타고 가야하는 여행이었는데 버몬트(Vermont)에 있는 형제들이 챨리라고 불리우는 아주 좋은 말 한 필을 주어서 이 말이 마차를 끌고 갈 것이었다. 아이가 그처럼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보였지만 악화만 되지 않는 한 출발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2일 이내에 여행길을 출발해야만 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만약에 앞으로 2일 이내에 식욕이 돌아와 무엇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더니 둘째 날에 고깃 국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더니 그것이 그 아이의 영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여행길에 올랐다. 4시쯤 되어서 아픈 아이를 베개 위에 눕히고 약 20마일(약 80리)을 달렸다. 그날 밤에 그 아이가 무척이나 신경질적인 것처럼 보였다. 도무지 잠을 자지 못했다. 거의 온 밤을 그 아이를 내 팔에 안고 있었다." (화잇 자서전 144)

15. 돌아가야 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로체스터(Rochester)로 돌아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길을 계속 가야할 지를 의논하였다. 우리가 묵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간다고 하면 가는 도중에 아이를 길에 묻어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상황을 보니까 그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로체스터로 돌아가기는 원치 아니하였다.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였다. 내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도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간다고 하면 아이가 죽기 뿐 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약 100마일(약 400리)가 남아 있었다. 최소한 이틀은 더 가야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국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나는 무척 지쳐 있었는데 내가 그만 졸다가 이이를 떨어뜨릴까봐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내 무릎에 눕혔다. 그리고 허리에 아이를 잡아 메고서는 아이도 나도 둘다 상당한 시간을 잤다. 아이는 소생되었고 기력이 회복되었으며 모든 여행을 마치고 아주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잇 자서전 144-145)

16. 미시간(Michgan)주와 위스컨신(Wisconsin)주를 방문함

"미시간 잭슨(Jackson, Mich)에 있는 교회가 혼잡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들의 형편에 대하여 지시해 주셨다. 그래서 저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교훈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그뿐 아니라 내가 한 증언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여기에서부터 기별자(Messenger Party)라고 하는 파가 생기게 되었다.

1854년 봄에 미시간을 다시 방문하였다. 우리가 뗏목을 타야만 하였기에 밤늦게 잭슨에서 차를 타게 하셨다고 믿는다. 우리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아주 엄숙함을 느꼈기에 기도하기를 요청하였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엄숙함을 느끼면서 기차 정거장을 향하여 떠나 갔다. 기차에 올라탄 후에 우리는 맨 앞 칸으로 갔다. 앞 칸에 있는 의자들은 의자 등판이 높기 때문에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해서 앞으로 갔다. 차가 만원이어서 두번째 칸에 들어가서 자리를 발견하였다. 보통때 밤에 여행을 할 때에는 보넷(모자)을 벗지 않았는데 손가방을 손에 들고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있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공동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기차가 잭슨 역을 떠나 약3마일(약 10리)쯤 달렸을 때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더니 결국에 가서 기차가 멈추었다. 내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차뒤가 거의 위로 치솟아 있었다.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거의 말할 수 없는 혼잡이 있었다. 엔진이 기차 레일에서 탈선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탄 칸은 레일 위에 그냥 있었다. 또한 우리의 차 칸은 우리 앞에 있는 차 칸하고 약 100피트(약 30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차 칸과 칸을 연결하는 고리쇠가 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차 칸과의 연결 고리쇠는 풀려 있었는데 마치 천사가 한 것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칸하고 앞에 있는 칸하고 분리가 되었다. 화물차는 그리 큰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책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트렁크 역시 괜찮았다. 2등실 열차칸은 심하게 부수어 져서 산산조각이 났으며 레일 양옆으로 곤두박쳐 있었다. 우리가 타려고 했던 객실은 심하게 부숴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 한쪽은 땅에서 올려진 상태로 있었다. 4사람이 죽었거나 심한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셨음을 피부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잭슨 근처에 있는 씨레니우스 스미쓰(Cyrenius Smith) 형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다시 위스컨신을 향해 기차를 타고 갔다. 우리가 위스컨신주를 방문하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개심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지루한 여행을 잘 견디도록 해 주셨다." (화잇 자서전 149, 153-154)

미시간(Michigan)주로 이사함

17. 베틀크릭(Battle Creek)으로 이사함

"1855년 미시간에 있는 형제들이 출판 사업을 베틀크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였다. 이 때에 나의 남편은 2-3천불의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약간의 책들과 책들로 인해서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토록 많은 빚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원인을 알길이 없었다. 책의 주문은 아주 적었다. 나의 남편의 건강은 아주 약해졌었다. 기침을 계속하였고 폐에 통증이 있었고, 그의 신경은 극도로 쇠약한 형편에 있었다. 그가 빚을 다 갚기도 전에 죽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화잇 자서전 157)

18. 위안을 주는 확신

"그 때는 참으로 슬픈 때의 연속이었다. 나의 세 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쩌면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내 뇌리를 억압하였다. 나는 남편이 현대 진리를 위해 지나친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죽는다.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을 그 누가 이해한단 말인가? 그가 여러 해 동안 져온 짐들을 그 누가 이해하며, 그런 염려 때문에 그의 정신은 손상을 입었으며, 그의 건강은 큰 손해를 입고 결국에 가서는 무덤으로 가게 되었고,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그의 가족을 남겨 두게 되었으니 이러한 사실들을 누가 이해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모른체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것들을 모른체 하고 지나쳐 버리신단 말인가?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위로를 받았다. 드려진 모든 희생, 모든 자아 부정, 그의 사업을 위하여 견디고 참은 모든 고통들을 하늘에 충실히 기록해 두셨으며, 후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인하여 크게 위로를 받았다. 주의 날이 오면, 아직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사실들을 환하게 하셔서 만민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편을 점진적으로 일으키실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강한 믿음을 활용하여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단이 반격을 할 것이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는 대신에 믿음으로 믿어야만 하였다. 하루에 세번씩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열렬한 기도를 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은혜로써 응답해 주셔서 나의 남편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때의 나의 감정을 내가 홀랜드(Howland) 자매에게 보낸 편지문보다 더 잘 묘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 글을 소개한다.

나는 이제 내 아이들을 나의 날개 아래 두고 돌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일을 구원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몸부림을 쳤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샘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가서 마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에는 풍성하게 있으며 거주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 영혼아! 먹을찌어다.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마실찌어다. 내가 나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사랑의 충만

함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빛 때문에 내 마음에 있었던 슬픈 구름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러한 것을 결코 잊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날찌어다. 깨어서 네 구속자의 놀라운 사랑을 송축할찌어다.

우리의 원수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도 모른다. 저들이 좋지 않은 말을 내뱉을지도 모른다. 저들의 혀는 불 같은 혀요, 속이고 거짓을 발하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를 압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 줄담을 하지 않습니다. 헛수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시는 날이 오면 저들이 행한대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 세력이 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찮은 비방하는 자들이 저들의 죄악을 인하여 담대해 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힘을 얻기 위하여 전능하신 자의 팔에 기대어 의지할 것입니다." (화잇 자서전 157-158)

19. 속박에서 놓임 받음

"베틀크릭(Battle Creek)으로 이사혼 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시기 시작했다. 미시간에서 동정하는 친구들을 발견하였는데 우리가 가진 짐을 나누어질 준비를 갖추었으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뉴욕 중심부에 살고 있는 시험을 함께 받은 옛 친구들과 뉴 잉글랜드(New England)주와 버몬트(Vermont)주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면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돕고자 하였다. 1856년 11월 베틀크릭에서 열린 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리도록 하셨다. 새로운 생기가 주어졌으며 우리 설교자들이 하는 일에 성공이 뒤따르게 되었다.

인쇄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필요한 양이 책정되었다. 진리의 기별자(Messenger of Truth)의 파가 그 세력이 약해졌으며, 그 기별을 증거하던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나의 남편이 빚을 다 갚게 되었다. 그의 기침이 멈추었고 목과 폐가 아파서 고통을 받았으나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건강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서 안식일에 세번이나 설교할 수 있었다. 첫날부터 아무 부담없이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준 것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셔야만 한다." (화잇 자서전 159)

기억할 말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은 그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실물, 341)

연구할 과제

1. 언제 화잇 가정이 뉴욕주 오스웨고에 살았으며 저들이 그곳에 살 때에 어떤 인쇄물을 인쇄하였는가?(화잇 자서전 128)
2. 1850년에 처음으로 카나다를 방문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2 SG 130)
3. 우리 교회의 기관지였던 리뷰 앤 헤랄드 지가 어디서 맨 처음 발간되었는가? (화잇 자서전 139)
4. 무엇 때문에 화잇 가정이 사라토가에서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로 이사하게 되었는가?(Origin and History of SDA, Vol. 206, 6) {Captains of the

Host. 186, 187}

5. 어떤 여인이 사라토가 스프링에서 로체스터에 와서 인쇄 사업을 도와 주었는가? (화잇 자서전 141)
6. 우라이야 스미쓰(Uriah Smith)씨는 누구였으며 로체스터에서 그의 하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Prophetic of Our Fathers, Vol. 4. 1110)
7.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인쇄소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해 묘사해 보라. (Pioneer Days of the Adventist Movement 245)

제6과 엘렌 지 화잇이 한 일을 순서에 따라 살펴봄

성경절 연구: 막 16:1-18

요점: "어느 곳이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며 회개시켜야 하고 복음은 만국에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근 각처에서 일하며 이미 갈아 놓은 포도원을 넓히며 지경 너머까지 나아가야 한다. 오래지 아니하여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이를 것이니 해가 있는 동안에 일할 것이다." (전도, 22)

예언의 신 연구

새로운 지역을 개척함

1. 1874년 캘리포니아의(California)에서

"캘리포니아의 일은 1868년 로보로(J.N. Loughborough) 장로와 보-디유(D.T.Bourdeu)장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872년 가을 화잇 장로 부부는 샌프란씨스코(Sanfransisco), 싼타로싸(Santa Rosa), 우드랜드(Woodland), 힐드스버그(Healdsburg), 피타루마(Petaluma) 등지를 방문하였다. 이런 지역에 사는 진실된 영혼들이 엘렌 지 화잇 여사의 기별을 받아 들였으며 그녀의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다.

1872년 2월에 화잇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12월에 돌아올 준비를 하기 위하여 미시간으로 돌아갔다. 1874년 오크랜드(Oakland)에서 열린 두번의 집회를 도와 주었다. 여기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운동 즉 절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 때는 오크랜드에서 출판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의 영문 시조(Signs of the Times)지를 발간하였는데 1874년 6월 4일자로 인쇄되었다. 1875년에 태평양 인쇄소(Pacific Press Publishing Company)가 조직되었는데 그 당시의 자산은 미화 2,800불이었다. 이 인쇄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태평양 인쇄 협회(Pacific Publishing Association)라 개칭하였고, 일년에 종교 및 교육에 관한 인쇄물들을 수백만불어치 이상 인쇄 출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화잇 부부에게 태평양 연안과 인접 도시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계시로 보여 주셨다. 이 일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는데 오크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 1875년, 1876년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 화잇 부부는 이 교회들을 세우는데 돕기 위하여 저들이 동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았다.

또한 화잇 부인은 힐드스버그에서 대학을 시작하였는데 이 대학에서 많은 일군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나가게 되었다. 현재 태평양 삼육 대학(Pacific Union College)이라고 명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세인트 헬레나-(St. Hellena)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녀가 심적으로 이 학교의 지주가 되었었다.

베틀크릭에 요양원을 세우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던 바, 화잇 부부는 캘리포니아에도 그와 비슷한 요양원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현재 세인트 헬레나(St. Hellena)에 위생 병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시골

에 있는 건강 요양원으로 시작이 되었었다. 평생을 두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화잇 여사는 늘 동정하고 저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우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또 다른 세곳에 요양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위생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벨리 병원(Paradise Valley)이 샌디에고(San Diege) 근처에 있으며, 글렌데일 병원(Glendale)이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근처에 있으며, 로마린다 병원(Loma Linda)이 로마린다시에 있다. 이런 병원들은 화잇 여사가 대담한 꿈을 가지고 시도한 결과로 실천된 것이요, 그 자신이 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로마린다에 의료 전도대학(The College of Medical Evangelist-현 로마린다에 의과 대학)을 세우도록 하는데도 화잇 여사의 공헌이 말할 수 없이 컸다." (화잇 자서전 457-458)

"1874년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의미있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출판 사업이 그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몇몇 형제들이 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해 동안에 해야할 가장 좋은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남편은 보다 폭넓은 계획을 세워 광범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강권하였다.

내가 계시를 볼 때마다 자주 보아온 청년 한 사람이 이 회의에 들어오게 되었다. 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말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더니 일어나서 심각하게 그러면서 권위있는 말을 하였다.

도시와 촌락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원수는 안간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 것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의 결실을 당장에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그의 부름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임하기 전에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직 8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기별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팔에 안을 수 있을 만한 일만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을 말아래 또는 침대 아래에 감추어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치 촛불을 켜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세상입니다.'

넷째 계명의 진리는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기별은 능력으로 세상 여러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레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바다에 있는 섬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진리의 존엄성을 보존하십시오. 진리가 점점 자라서 확장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저들을 위해 준비해 둔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한되어 있고, 아주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크게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크랜드, 샌프라시스코, 세크라멘도(Sacranento), 우드랜드 그리고 그외에 미국내에 있는 대도시들이 이 진리의 기별을 들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일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감싸고 있는 빛은 시험을 받아서 세상에 증가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계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사업을 확대해야만 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한 것, 또는 계획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선교 사업을 강행해야 할 것을 계시 가운데서 봤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보았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신도들이 불신과 이기심을 버리고 원수에게 단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확고한 목적을 세워 진리를 세우기 위해 연합할 것같으면, 현대 진리가 큰 능력으로 증거될 것도 보았다.

또한 태평양 연안에서 인쇄물이 인쇄되는 것도 보았다. 건강 요양원과 인쇄소가 설립될 것이었다. 시간은 짧다. 이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어서는 안된다.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너무 적다.

태평양 연안에서 발행하게 될 인쇄물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빛은 그것을 세상에 비추기 전에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상을 넓히자고 말하는 바이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은 보는 것같지만 먼데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화잇 자서전 208-210)

2. 영문 시조 발간(The Signs of the Time)

"이 때에 오크랜드에서 출판 사업을 시작하여 최초의 영문 시조를 발간하였는데 1874년 6월 4일자로 인쇄되었다. 1875년 태평양 인쇄소가 조직되었는데, 그 당시의 자산은 미화 2,800불이었다. 이 인쇄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태평양 인쇄 협회라 개칭하고 일년에 종교 및 교육에 관한 인쇄물들을 수백만불어치 이상 인쇄 출판하고 있다." (화잇 자서전 458)

3. 오레곤 주를 방문함

"오레곤 주를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거리였다. 여기서 4년간 떨어져 있었던 반 혼(Van Horn)씨 부부를 만났는데 저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레곤 주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깜짝 놀랐으며 매우 만족스러웠다.

6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그 주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한 신도들을 만났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간증을 말하였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였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멸망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는 것을 보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셔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여야 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군이 적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찬 것을 느꼈고 내가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였다." (화잇 자서전 231)

4. 텍사스(Texas) 주를 방문함

"목요일에 맥디어멘(Mcdearman) 형제의 집이 있는 그랜드 프레뢰(Grand Prairie)로 갔다. 여기에서 우리의 딸이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저들은 지난 여름에 그 지역 전체를 쓸고간 열병으로 인하여 거의 죽을뻔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고통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기쁘게 생각하였는데 이 형제들이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풍성하게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플라노(Plano)에서 11월에 열리는 야영회에 참석하기 위

해서 그 가정을 떠날 때에 저들의 건강이 좀 회복되었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옛 친구인 킬고레(R.M. Kilgore)장로 부부를 만났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형제들을 만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처럼 나의 증언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인 곳이 없었다. 나는 넓은 텍사스 주에서 행해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화잇 자서전 240)

유럽에서의 봉사

5. 스위스(Switzerland)를 방문함

"1884년 5월 28일에서 6월 1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베이셀(Basel)에서 제2차 유럽 지역 선교 회의(European Missionry Council) 가 열렸다. 미국에서 온 죠지 버틀러(George I.Butler) 장로님이 사회를 하였다. 이 집회에서 엘렌 지 화잇 부인과 그의 아들 윌리 화잇 (W.C. White)을 유럽 선교 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럽에 보내달라고 대총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대총회는 그해 11월에 미시간에 있는 베틀크릭에서 열렸는데 이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권장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화잇 자매와 그의 비서 사라 멕엔터퍼(Sara McEntrfer)양과 윌리 화잇의 가족이 1885년 8월 8일에 보스톤(Boston)항에서 케퍼로니아(Caphalonia)라고 불리우는 증기선을 타고 출발하여 8월 19일에 영국에 있는 리버풀(Livepool)에 도착하여 영국에서 2주일을 보내었다. 영국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그림스비(Grimsby), 얼스비(Ulceby), 리슬리(Riseley)와 사우스 엠톤(South Ampton)시들을 방문하였다. 공중 집회를 열었고 저들을 위하여 여러 번 설교를 하였다.

9월 2일에 런던을 떠나 스위스에 있는 베이셀에 다음날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스위스 대회의 연례 회의와 제3차 유럽 지역 선교 회의가 곧 열릴 것이었다.

베이셀에 있는 인쇄소(Basel Publishing House)가 막 완공이 되었다. 이 인쇄소가 후에는 임프리메리 폴리 글로테(Imprimerie Poly Glote=The Printing House of Many Language)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는데 그 뜻은 '많은 나라 말로 인쇄하는 인쇄소'라는 의미가 있다. 부지를 구입하였고, 1884년 버틀러 장로님이 방문했을 때에 계획을 세웠었다. 건물은 당시 유럽 선교 협회 책임자로 있던 휘트니(B.L. Witney) 씨의 감독하에 세워졌다. 그곳에 있는 인쇄 장비들은 미시간주 베틀크릭에 있던 리뷰 앤 헤랄드(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사에서 지배인으로 있던 켈록(H.W. Kellog)씨가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건물은 크고 실속있게 지어졌는데 넓이가 46자, 길이가 76자로서 지하실이 있는 지상 4층 건물이었다. 윗층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사용될 수 있게 구조가 되었다. 엘렌 지 화잇이 유럽에 2년 동안 이 건물에서 살았다.

화잇 부인과 그의 일행이 인쇄소에 도착하였을 때에 휘트니 장로는 '이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집회할 방을 먼저 구경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것은 일층에 위치하였는데 일광이 잘 들었고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이 어울리게 배치되어 있는 훌륭한 방이었다. 화잇 부인이 건물 안을 두리번 거리더니 '참 훌륭하게 지어진 집회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방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은지 얼마 오래지 않아 이 건물 안에 인쇄 장비가 들어 왔다. 인쇄실에 도착하였을 때에 인쇄기가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인쇄실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다. 이 인쇄실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내 인쇄실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고 방문객들에게 소개가 되었다. 화잇 부인이 악수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휘트니 장로가 물었다. 여기에 나이가 좀 든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고 화잇 자매가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할 기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였다." (화잇 자서전 281-282)

6. 이태리를 방문함

"1885년 11월 26일 화잇 부인은 베이셀에서 이태리에 있는 토레 펠리체(Torre Pellice, Italy)를 향해 떠났다. 며느리되는 메리와 휘트니 장로와 함께 떠났는데 그녀는 이 여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내 나이 85살되는 생일이었다.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내가 유럽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영국,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나의 증언을 전했으며 이제는 이태리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태리로 가는 중이다.

우리는 세인트 고딸드(The Great St. Gothard)를 지나 알프스를 넘어서 갔다. 금요일 아침 9시경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보디우(A.C. Bourdeau) 장로님의 집에 초대되었다. 다음 날 안식일에 저들이 새로 빌려서 집회를 하는 곳에서 설교하였다.

화잇 부인은 토레 펠리체에서 3주일을 머물렀으며 10번에 걸친 설교를 하였고, 그곳에 있는 동안 이름난 지역들을 방문하였는데 왈덴스인 계곡을 방문하였다. 여기는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숨었고, 고문도 받고, 살해를 당한 곳이었는데 화잇 부인이 이곳을 방문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만약에 이 산에서 한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영원을 두고 서 있는 이 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고수하다가 당한 고통의 역사를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망명해 온 그리스도인들을 천사들이 수없이 방문하였으련만 저들이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저들에게 마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하였으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다. 믿음의 좌절을 느낄 때마다 천사들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였으며 저들의 마음을 가장 높은 산꼭기로 이끌어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이 입게 될 의의 흰옷, 성도들이 받아 쓰게 될 면류관, 저들의 손에 들게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장차 앉게 될 흰 보좌를 보도록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두번 더 이곳을 화잇 부인이 방문하였는데, 1886년 4월에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와 이곳을 방문하였는데 그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주일을 보내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윙스(Wings)장로 부부를 대동하여 11월에 방문하였는데 이 때는 저들이 불란서에 있는 니메스(Nimes, France)에서 2주간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들렸다." (화잇 자서전 289-290)

7. 영국에서 봉사함

"제4차 유럽 선교 협회가 1886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국에 있는 그레이트 그림스비(The Great Grimsby)에서 열렸다. 저들이 한 보고는 어디를 가나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집회하는 방에 있는 난로 주위에 둘러 서서 저들이 경험한 실망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집회를 열만한 좋은 장소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다. 그리 비싸지 않은 곳에서 집회를 열면 저들이 접촉하기를 원하는 상류층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를 않는다고 한다. 천막을 치면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천막이 낡아서 쓰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집집 방문을 하려고 시도해 봤지만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문을 열어 주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기없는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중요성을 쉽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들의 질

문이다.

그레이트 그림스비에서 집회가 열리는 동안 청중들 앞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신, 용기,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화잇 부인이 권면의 말씀을 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경험을 연관시켜서 그녀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했다.

우리는 원수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야 한다. 인생은 싸움터이다. 졸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살피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귀하신 구세주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멀리 하려고 밤낮 쉬지않고 일하는 원수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할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자아 만족의 길을 가다가 영생을 잃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만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해서도 안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나는 먼데 있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는 바라본다. 거칠고 험하고 힘든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으며,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 놓으면서 '주님, 여기 내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 11:30)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대는 이 말씀을 믿는가? 나는 그분 안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을 볼 수 있다. 나는 하늘 왕국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돌과 같은 마음을 부숴트릴 것인가? 말구유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간 가시밭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피로 물든 길을 볼 수 있다. 세상의 교만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들어와야 하겠는가? 세상 표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고후 6:17, 18)

왕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것, 우주의 구세주를 구세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알아 주시는 것, 영원 불멸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다.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인가?

그대들은 성경을 상고하여야 한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줄 것이다. 그대가 성경을 읽어 간다고 하면 성경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갈바리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에 빠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그(예수님)의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의 길은 평안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구원의 샘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대의 가정에 거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그대 마음 속에 있는 밀실에 의의 태양이 비추이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 14:1-3)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말씀한 집을 나는 사모하고 산다. 이 세상에 있는 대궐 같은 집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사정없이 흔들릴 것이다. 내가 사모하는 집은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집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집이 없다. 우리는 단지 순례자에 불과하며, 나그네로서 보다 나은 나라를 향하여 지나가는 객에 불과한 것이다. 하늘을 향하여 길 떠나는 나그네들이다. 그대의 마음을 이런 것들에 집착하도록 하라. 그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대 바로 옆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나타내는 간증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엘렌 지 화잇이 실제적으로 저들이 당하는 난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화잇 자서전 291-294)

8. 스칸디나비아를 방문함

"화잇 부인이 2년 동안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덴마크, 스웨던, 노르웨이를 세번씩 방문하였다. 1885년 9월에 베이셀에서 선교 협회가 열렸을 때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대표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스위스에 있는 화잇 부인의 친구들이 북유럽 지역을 방문하는데는 여름이 적합하다고 조언을 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힘든 여행을 하는 동안 힘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모험을 하기로 하였다.

10월과 11월 절만은 코펜하겐(Copenhagen), 스톡홀름(Stockholm), 그리티테히드(Grythyttehed), 오레브로(Orebro)에서 보냈다. 화잇 자매는 그의 비서였던 사라 멕엔터퍼(Sara McEnterfer) 양과 그의 아들 윌리 화잇, 마테슨(J.G.Matteson)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대동하고 갔는데 그는 안내자요, 통역관으로 같이 갔다. 여러 곳에 있는 신도들이 그녀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모여 들었는데, 저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별을 들었다. 크리스티아니아(Christiania)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다. 보통 120명 정도가 모였었다.

10월 31일 안식일에는 인근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200명 정도의 신도들이 한데 모였다. 일요일에는 공장 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 800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였었다. 다음 일요일에는 절제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군인 체육관을 빌려서 '절제 원칙에 따른 가정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약 1,300여명이 모였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예로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들어 이야기하였다." (화잇 자서전 296)

태평양을 건너서

9. 뉴질랜드에서 봉사함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회의 회의가 마쳐질 때에 화잇 부인은 뉴질랜드까지 긴 여행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에밀리 켐프벨(Emily Campbell)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은 비서로써 그리고 간호원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그의 아들 윌리 화잇과 스타르(Starr) 장로 부부가 함께 갔다. 스타르 장로님 부부가 많은 시간을 화잇 부인과 여행하는데 보내었다.

2월 8일에 오크랜드(Auckland)에 도착하여 이스라엘(M.C. Israel) 장로님을 만났는데 오크랜드 교회에 있는 작은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12일 동안 오크랜드 교회에 있는 동안 열심히 봉사하였으며 8차례에 걸쳐서 권면의 말씀을 하였다. 이 후에 약 3주일 동안 뉴질랜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캐이오(Kaeo) 교회의 형제들과 시간을 보냈었다. 여기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을 발견하고 저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오크랜드와 캐이오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화잇 부인은 3월말에 나피에르(Napier)에서 열리게 될 대회 연례 회의에 참석하라고 권하였다. 이번에 열리게 될 대회 연례 회의는 야영 집회로서 적도 남쪽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지는 첫 야영 집회가 될 것이었다. 이 경험에 대하여 화잇 부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번에 가지게 될 야영 집회는 앞으로 열리게 될 야영회의 샘플(예)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 ……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가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히 8:5)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했다." (화잇 자서전 341)

10. 에본 데일 학교를 세움

"올손(Olson) 장로는 1894년 야영 집회가 끝난 후에 약 6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학교 부지가 될 만한 땅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교회 직원들과 장소 위원들은 올손 장로가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학교 부지에 적합한 장소를 찾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저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였다. 화잇 부인이 학교 부지를 위하여 여러 곳을 탐사하였었다. 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적당한 값을 주고 학교 부지가 될 만한 넓은 부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5월에 5명의 위원들이 도라 크릭(Dora Creek)이라는 곳과 쿠란(Cooranbong)이라는 땅을 답사했다. 그곳에 있는 땅을 답사하고 후에 4,500불을 주고 땅을 구입하였다. 이 땅은 1,450에이커(1에이커=1,200평)인데 그 중에 500에이커는 경작지나 초장으로 알맞을 것이고 나머지는 산야였다. 땅을 산 후에 그 그 땅을 '에본 데일(Avondale)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거기에 많은 개천이 있었으며, 풍성하게 흐르는 물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지었다. 학교 부지를 위해 선택한 땅은 도라 크릭 기차역에서 서쪽으로 약 3마일(약10리), 쿠란봉 우체국에서 1.25마일(약 5리)쯤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다.

1895년 1월과 2월에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Cape Town, South Africa) 에 사는 베셀스 (Wessels) 부인이 그의 세 딸과 그곳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다. 저들은 에본데일의 경치와 환경에 아주 좋은 인상을 가졌으며, 그녀의 딸 가운데 한 사람인 안나(Anna)씨가 착수하라고 5,000불을 주었다." (화잇 자서전 356-357)

11. 첫 건물을 세움

"약 4개월을 걸쳐서 제재소와 목수들이 많은 일을 하였다. 여자 기숙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갔으며, 식당을 위한 기둥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설계사의 계획에 의하면 일층 건물로서 80자에 26자 되는 건물이 지어질 것인데 식당, 배식대, 주방, 창고까지 지어지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 위원회에서는 세번째로 짓기로 계획되어 있는 건물이 속히 진행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왼쪽에다 2층을 올리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그래서 한동안 강당으로 사용하고 그 한쪽은 남자들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 건물이 약 2/3 정도가 완공되었을 때에 재무가 보고하기를 돈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천천히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개교하여야 할 시간은 박두해 있었고, 또한 건축가들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

움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학교 위원회에 이야기 하였을 때에 화잇 부인은 '학교는 예정한 대로 개교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건축가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한 가지 길은 있었다. -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연합하여 최고의 노력을 해보는 길이었다. 화잇 부인은 직접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결심하였다. 일요일 아침 6시에 집회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온 교회가 참석하도록 광고하였다. 그녀는 그때의 경험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어 놓고 저들의 노동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0명의 남녀들이 저들의 노력을 제공하겠다고 자원했다.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강한 팀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일을 계속하였다. 건물을 세워 완공을 했고, 청소하고, 안을 장식하기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학교 개교 예정일까지 모든 일이 완결지어졌다.'

1897년 4월 28일, 학교를 열기로 예정된 날짜에 학교는 개학을 하였고 헤스켈(S.N. Haskel) 목사 부부와 레시(H.C. Lacey) 교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이 있었다. 학교 시작 첫 날에 오직 10명의 학생 뿐이었다. 학교가 시작되었고 일이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말이 퍼지자 한 달 후에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오게 되었다. 휴스(C.B. Huges) 교수 부부가 교수하기 위하여 도착하였을 때에는 거의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학기가 진행되고 가르치는 과목들이 교회에 소개되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학기가 마쳐질 때에는 거의 6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40여명이 학교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화잇 자서전 364-365)

12. 에본데일 학교가 훈련 장소가 될 것임

"그(화잇 부인)녀가 이곳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곳에서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지시해 주셨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다.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될 새로운 일을 하도록 지시해 주셨다.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사방으로 뚫고 나가라고 하셨다. 또한 그(하나님)는 그녀(화잇부인)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확장하도록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여 주신 분명한 일들이 지연되어 왔었는데 이 일을 수행하는 어려움과 투쟁이 계속되었다. 사단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장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승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본데일 학교를 세우셨고, 또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학교에 대해 상세한 지시들을 주셨다. '이제 그(하나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대로 행할 것같으면, 에본데일 학교는 많은 선교 지역을 위한 훈련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의 지성을 일깨워서 이 사업을 본질을 이해시키고 저들의 최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저들은 이 일을 이행하기 위해 반응을 보였으나, 눈에 보이는 재원은 우리가 해야하는 거대한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보잘 것 없이 적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젊은 청년 남녀로 구성된 군대가 있는데 저들은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알맞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영국 국기가 꽂혀 있는 많은 지역에 불원한 장래에 많은 일군들을 지원하게 될 것을 믿는다. 주께서는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 주신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화잇 자서전 373)

미국으로 돌아옴

13. 남부 지역을 방문함

"1901년에 열린 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화잇 부인은 남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하는 일군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미씨씨피에 있는 빅스 버그(Vicksburg, Miss)에서는 유색 인종(흑인)들을 위해 일하는 일군들을 만났다. 내쉬빌(Nashvill, Ten.)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남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일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화잇 자서전 391)

14.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심 – 재조직

"하나님의 일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 모든 분야가 할 수 있는 대로 폭넓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행정 분야에 필수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 넓어지고 커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화잇 부인은 공식적인 대총회의 모임이 있기 전날에 모인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을 처리하는 운영 방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 (화잇 자서전 385)

15.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베틀크릭에 있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중요 건물 두동이 일년 내에 불로 전소되는 일이 있자 본교단의 중심 건물과 리뷰 앤 헤랄드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연구하였다.

본 교단의 중심 건물과 출판소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물어 왔을 때에 나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였다. 대총회 건물과 출판소 건물을 베틀크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 어디로 옮겨야 할지는 모른다. 대서양 연안이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코 베틀크릭에는 어떤 건물이라도 다시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물을 지을 더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다.

뉴욕시 안에 어떤 기관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느냐고 물어 온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고 말하고 싶다. 뉴욕에 가까이 두는 것에는 별로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로부터 30마일(약 120리 정도) 이내에 있는 장소는 너무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 주위에 있는 다른 지역을 연구해 보기를 바란다. 워싱톤 디.씨.의 유리한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리뷰 앤 헤랄드 출판소는 워싱톤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쇄물과 책에 워싱톤 디.씨.(Wahington, D.C.－미국의 수도) 에서 인쇄되었다고 하는 도장이 찍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별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이다. 출판소가 워싱톤 지역 가까이 세워지도록 하라. 이렇게 함으로 죽어가는 세상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자!" (화잇 자서전 388, 389, 392, 394)

16. 일어나서 지으라!

"본 교단 본부에 강한 훈련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100,000불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형제들의 의견이었다. 하나님께서 워싱톤 지역에 있는 그의 일군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지으라!는 것이다. 엘렌 화잇이 이 자금에 대해서 호소문을 인쇄하였다. '모든 대회에서 일하는 일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을 짓는 일군들의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워싱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떤 지체함이나 방해받음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그 일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라.' " (화잇 자서전 398)

생애의 일을 마침

17.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옥외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파라다이스(Paradise, San Diego) 위생 병원(당시에는 요양원이었음=역자), 글렌데일(Glendale)과 로마린다(Loma Linda)에 아름다운 위생 병원을 허락하신 일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도시 밖에서! 도시 밖에서!'라고 한 것이 여러 해를 두고 전한 기별이었다. 우리가 환자들이 밖을 내다 볼 수 없는 도시 한복판에 자리잡은 병원의 입원실에 가두어 놓고 낫기를 기대할 수 없다. 바라보이는 것이 집들 뿐이고, 활기를 불어 주어 소생케 할 것이 없는 도시에서 환자가 낫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으로서는 도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일을 이해하기를 어디하고 있는가?" (화잇 자서전 403)

18. 1909년에 있었던 대총회

"1909년에 있었던 대총회에서 화잇 부인이 건강 개혁의 원칙에 충실히 하라고 하는 원고를 낭독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위원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원고들을 낭독하였는데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호소'와 '로마 린다 대학은 전도인을 훈련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를 낭독하였다." (화잇 자서전 422)

19.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일들

(지면 관계상 그녀가 한 모든 일을 번역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발췌 번역함). 1909년 대총회가 있은 이후 4년간의 경험을 적어서 1913년에 있던 대총회에 보냄.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로 출판 원고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냄. 유럽에 있는 동안 '대쟁투'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보하였고. 1890년에 '부조와 선지자'를 1892년에 '정로의 계단', 1893년에 '복음 사역자', 1896년에 '산상 보훈'을 완성하였고 그녀가 집필한 책 가운데 가장 긴 책인 '시대의 소망'은 그녀가 호주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어 1898년에 출판되었다. '실물교훈'과 '교회증언 6권'이 1900년에 출판됨. '교회증언 7권'이 완성됨. 1903년에 '교육'이 1904년에 '교회증언 8권'이 1905년에 '치료 봉사'가 , 그리고 그 외에 특별 증언들이 완성됨. 1909년에 '교회 증언 9권'이 완성됨.

(이상은 중요한 출판물들이 그녀의 마지막 생애 중에 완성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상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는 엘렌 지 화잇 자서전 425-439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20. 그녀가 당한 마지막 사고

"1915년 2월 13일 안식일이었다. 화잇 부인이 사고를 당하여 그 사고가 있을 이후부터 클러치(겨드랑이 밎에 넣고 걷는 것)를 집고 다녔고 그 일이 그녀의 죽음을 재촉하였다. 복도에서 그녀의 서재로 들어가다가 발을 잘못 내디뎠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녀의 조카 딸인 메이 월링(May Walling)양이 그녀의 간호원으로 있었는데 그녀가 가까이 복도에 있었기에 그녀를 도왔다. 그녀가 걷지 못하는 것을 알아 차리고 의자에 앉힌 후에 의자를 끌어서 그녀의 침실에 누인 후에 세인트 헬레나 위생 병원에 있는 의사를 불렀다.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그녀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 그녀의 마지막 분주하게 그러면서 마지막 행복을 누리면서 결실기를 보낸 엠스 헤븐(Elmshaven)에 있는 햇볕이 잘 드는 이층에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마치 피곤에 지친 어린 아이가 휴식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의

임종 곁에는 그녀의 아들 윌리 화잇과 그의 아내, 그녀의 손녀 메이벌 화잇 워크맨(Mabel White Workman) 부인, 오랜 시간을 충실한 비서로 보낸 사라(Sara McEnterfer)양과 그녀의 조카딸이요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비서실을 했던 메이 윌링양과 쉴줄 모르고 헌신적으로 일한 또 하나의 간호원 캐리 헝거포드(Carrie Hungerford)부인, 가정부 테씨우드베리(Tessie Woodbury) 씨와 옛 친구였던 메리 치녹 트롭(Mary Chinock Throp) 씨 부인과 그 외에 친구들과 이따금씩 그녀의 집과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주 안에서 잠들었다." (화잇 자서전 444, 449)

기억할 말씀: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내뿜는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향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의 소망 2권 9)

연구할 과제

1. 북 이태리에서 화잇 부인이 어떤 특별한 관심있는 것을 발견하였는가? (화잇 자서전 290)
2. 어떻게 해서 오스크레일리아(호주)에 대해서 엘렌 화잇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화잇 자서전 283)
3.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정부의 거짓 증인'에 대해 말해 보라.(Orgin and History of SDA, vol. 2, 359) {Captains of Host 647-649}
4. 어떻게 하여 재조직이 이루어졌는가? .(Orgin and History of SDA, vol. 3, 39-45) {Christ's Last Legion 48-52}
5. 의료 전도 대학(The College of Medical Evangelist) 을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라. (Orgin and History of SDA, vol. 3, 163-167) {Christ's Last Legion 157-161}
6. 대총회장이었던 에이. 지. 다니엘스(A.G. Daniells) 목사(장로)님이 엘렌 화잇의 장례식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말해 보라. (화잇 자서전 467-475)
7. 70여년이 넘도록 활동적인 일을 하고 난후 엘렌 화잇이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화잇 자서전 462)
8. 엘렌 지 화잇이 기록한 책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이름들을 말해 보라.
9. 엘렌 지 화잇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데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였는가? .(Orgin and History of SDA, vol. 3, 269) {Christ's Last Legion 253}
10. 엘렌 지 화잇의 당시의 현재 교회의 성장을 비교해 보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연감(SDA year Book)을 참고하라.)

제 2 장

예언의 신

제7과 선지자들의 봉사

성경절 연구: 살전 5:18-23

요점: "…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하늘로부터 임명된 교사라고 일반에게 알려져 있었다. 선지자란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이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역시 선지자라고 불리웠다." (교육, 59)

예언의 신 연구

선지자의 말

1.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교통한 방법?

"태초에 사람이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저들이 창조주와 천사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특권을 잃어 버렸다.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그가 계시는 곳에 살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7)

2.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 가족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남녀들을 죄의 영향에서 보호하셨고, 그(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령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하므로 가장 타락한 죄인이라 해도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옳은 일을 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인간 대리인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나 꿈을 통해서 그가 목적하신 바를 알리기 위하여 저들과 대화(교통)하셨다. 그의 뜻을 전하는 기별자들은 거룩한 사람들, 선지자로 알려졌고, 주님께서 직접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한 자들로서, 하늘에서 특별한 기별을 받아 인간에게

전달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 12:6) 하였다.

성경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저들이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을 전달하였으며,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상담)하는 일도 하였고, 미래 사건을 교회에 경고의 기별로 전하였다. '…선지자들이 …' '… 저가룰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벧전 1:10-12) 하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7)

3. 부조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예언의 선물은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찍이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그 한 예를 볼 수가 있다. 아담으로부터 7대손인 에녹이 선지자였다. 세기를 거쳐 내려 오면서 그는 주의 오심을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봤다. 또한 불경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것돠 봤다.(유 14, 15 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께서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들이 받게 될 축복들을 미리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약을 다시 맺는 일을 하였으며, 저들이 장차 의인들이 받게 될 유업을 바라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 11:10)."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8)

4. 모세가 다시 오실 메시야에 대해 예언하였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모세는 큰 선지자였다. 메시야의 임함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찌니라.' (신 18:15)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 사람(모세)에게 많은 계시를 보여 주셨다. 그러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그대로 보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다.(신 34:10절 참고)."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8)

5.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저들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을 받아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태양, 달, 별,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나무 또는 돌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함으로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쥔 바 된 계명을 범하게 되었다.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저들의 창조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를 떠나 패망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슬펐다.

이러한 반역 행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 충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키도록 하였고, 저들이 행하고 있는 악이 분명히 형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대하 36:15)하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8-239)

6. 뛰어난 일곱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중 뛰어난 일곱 선지자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이었다. 저들은 분명한 말로 저들이 행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였다. 만약에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들을

은혜로 여기시고 축복하실 것과 저들의 타락한 죄악을 간과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었다. 이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기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에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 저들이 기록한 어떤 말씀들은 '장차 어느 날엔가'(사 2:1 공동 번역), '마지막 때까지'(단 12:4)를 위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9)

7. 예수의 초림시에 있었던 선지자는 누구였는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있었던 형식주의가 만행했을 때에는 기록상으로는 예언의 선물이 없었다. 그러나 메시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선지자가 있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여 가로되'(눅 1:67)라고 기록하였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하여…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눅 2:25, 32, 38) 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라고 불리운 침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메시야에 대하여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하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9)

8. 사도 시대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리스도교가 시작될 때 성령의 부어주심과 여러가지의 영적 은사로 시작되었다. 이 은사 가운데 예언의 선물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스데반이 영감을 받아 말한 기록과 초대 교회와 연관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빌립의 네딸이 있었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행 21:10)고 하였다.

사도 바울 역시 하늘의 영광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고전 12:1-7절 참고) 그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였는데, 어느 한 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엡 4:13)까지 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전 12:28) 하였다.

예수님의 열 두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역시 선지자였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그가 유배되어 있던 밧모섬에 있을 때에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하면서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계 1:1, 2) 하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0)

9. 대 반역의 때(암흑 시대)에 중단됨

"성경은 커다란 반역이 있을 것에 대하여 미리 말한다. 이 일은 사도 시대에 벌써 시작되어 결국에 가서는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살후 2:1-7)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언급하였다.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의 마지막 사도가 죽은 이후의 역사를 살펴 본다고 하면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진리를 떠나 점진적으로 교인들을 이끌어 내어 세상과 연합하게 하였고 이교에서 행하는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해가 감에 따라 교회가 증가하고 신도 수들이 증가되자 저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점점 순종하기를 적게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5,6세기가 지난 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에 조화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 세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형태를 쓰고 감행한 배교의 행위가 만연하였다. 진리는 감 추인 바 되었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무지가 범람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역의 때를 역사에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명시되었다. 이 때에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많은 진리들을 바꾸거나 제쳐놓는 일들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초 림 시에 그러했던 것처럼 예언의 선물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1-242)

10. 마지막 때에 예언의 선물이 재현됨

"그러나 성경이 두려운 반역이 있을 것에 대해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있기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와 미신적인 암흑에서 구출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다시 한번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히 비취어야만 한다. 성경의 순수한 진리가 환히 비춰져야 한다. 이때에 하늘의 빛은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예언의 선물은 참 교회에서 확증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행 2:17, 18; 욜 2:28-32)하였다.

요한은 분명하게 '남은 자손'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바로 마지막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계 12:17)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같은 책에서 저자는 '예수의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한번은 계시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를 요한이 경배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 19:10)'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같은 천사가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계 22:9)

이 두 말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그렇지만 한 구절에는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였고, 다른 구절에는 '형제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기별을 가져다 주었던 천사인 것 같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임에 틀림이 없다.(단 8:16; 9:21을 보라) 동일한 천사는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 19:20)고 하였다.

성경에 표현한 것들을 서로 비교 연구해 볼 때에 요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남은 자손 …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의 참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요, 또한 그 교회가 예언의 영을 가지게 될 것

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될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 성경이 예언한 것들이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언의 영-를 가진 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다. 저들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2-243)

말씀에 의해 시험함

11.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긴 광신주의 때문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거룩한 계시를 받은 것까지 의심하고 저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교사의 기만을 잘 살펴 봐야 하는 것처럼, 진리를 잘 이해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20)고 하였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현행하고 있는 재림 운동에 있어서 거룩한 지시가 어디서 왔으며 이 운동과 연관해서 예언의 선물의 역사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선물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5)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20)고 하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4)

12. 저들의 열매로 알찌라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기' 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변색되지 않은 진리, 거룩케 하는 능력이 있는 진리를 기만자에게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6-20)

엘렌 지 하몬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가 결혼한 후, 엘렌 지 화잇으로서 알려졌는바, 약7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활동하였는데, 60년간은 미국에서 10년간은 유럽과 호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이 긴 세월 동안 많은 계시를 받음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그녀 자신이 이 계시가 하늘에서 온 것으로 믿었으며, 교회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록하였다. 그녀의 책은 여러 권으로 나뉘어서 출판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순환되고 있다. 수천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상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화잇 부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람이요, 마지막 교회에 보낸 기별자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그녀가 한 일은 그녀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녀가 받은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화잇 부인은 항상 그녀의 일과 가르침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의 표준에 의해 판단되기를 원했다. '증거는 저들의 열매로 판단을 받게 하라.' 고 하였다. 그녀는 기록하기를 '저들이 가르치는 정신이 어떤 것이냐? 저들이 끼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저들의 믿음을 강화케 하신다. 이 두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협력하여 일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 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인이 찍혀 있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격의

일은 없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4-245)

13. 특별한 일들이 일어남

"주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앞에 지나갔다.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을 보았는데, 여러 해 후에 그들을 보았을 나는 그들을 알았다. 나의 마음에 이미 제시되었던 주제들이 생생한 느낌으로 떠오르므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밤중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들이 대륙을 횡단해 가서 위기의 때에 당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큰 재난을 면하게 했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의 나의 사업이었다. 한 힘이, 내가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도록 나를 강요했다. 이런 일이 하늘로 말미암은 일이겠는가?… 아니면 이 지상 어느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일이겠는가? …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5)

14. 그리스도의 사업이 확대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신 것이 복음의 대주제이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1:27; 2:9, 10) 이와같은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예언의 선물을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는 것을 판가름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년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1-4)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 저들은 오히려 저들 자신에게 주목을 이끌려 한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행 20:30) 하였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 30:10)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선생들은 '…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일 4:5) 하였다.

화잇 부인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가 인정되었고 죄인을 위한 유일하신 구세주로 높임을 받았다.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고 하였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주신 교훈을 따름으로 본을 보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6)

15. 복음의 대주제

"그리스도의 못박히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목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쁜 소식이 되어 저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 이러한 진리들을 사랑과 깊은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목사들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높이 쳐들라. 설교할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노래할 때에도 그를 높이라. 그대의 있는 힘을 다하여 혼동 가운데 있는 영혼, 거칠어진 영혼,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르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께 나오라고 말하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바쳤다고 말하라. 구속의 과학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 되게 하고 노래의 주제가 되게 하라. 기도를 드릴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쳐 놓고 다른 어떤 것들을 들먹이면서 설교하지 말라. 생명의 말씀을 드높이고 오래 참고 강한 믿음을 지키는 신도들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제시하라. 근심 가운데 있고, 의지할 곳 없어하는 영혼들에게 화평의 길을 제시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을 보여 주라."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7)

16. 율법과 증거

"의의 원수는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도록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인들을 통하여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의 율법의 주장들을 인간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기록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왕하 17:13) 하였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7)

17. 율법의 불변성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편만한 때에 화잇 부인은 확고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 사항에 순종해야 한다고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율법의 불변성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넷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요구 사항에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그의 공중 봉사 사업에서 강조하여 가르쳤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녀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유법의 원칙들은 아주 분명하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접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은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의를 통해서만 인간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율법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필요를 인정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내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언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이다. 이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속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눅 16:17)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상징적인 제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폐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8)

18. 성경이 높임을 받음

"화잇 부인의 글을 계속해서 성경은 모든 영적인 진리의 가장 큰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그녀의 글은 많은 성경절을 인용하였고, 그렇게 하므로 가상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글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성경의 일부(추가된 성경)라고 생각지 않으며, 또한 성경 연구를 대신해서 그녀의 글을 연구하지도 않는다.

그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그늘진 마음에 빛을 주기에 충분하며 저들이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을 저들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평범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증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남녀들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게 하며 저들이 따르기를 소홀히 했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 증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며 매력이 있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지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며 단순하게 한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8-249)

19.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할 말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할 말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찌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이다. 귀중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찬 성경이 있다. 그것은 지식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 성경을 그대의 학습서로 삼으라."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59)

20. "가라사대"라고 하신 말씀을 찾으라

"봉사하고 있는 그녀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결코 언급하시지 않았던 이론이나 문제들, 또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옹호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크고 엄숙한 진리가 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이 매 영혼에게 가져가야 할 척도이다. 우리의 갈길을 지시할 지침을 찾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찾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다. 세상적인 과학으로 마음이 수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도 회심하여 성결케 되면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9)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백성들이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지금처럼 진지하게 가르치셨던 때는 없다." (4 증언, 148)

연구할 과제

1. 우리가 연구한 이 장(예언적 선물)의 저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37 난외주 참고)
2. 모세는 선지자를 시험하는 어떤 시금석을 제시하였는가?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50)
3. 엘렌 지 화잇이 예언하여 성취되었던 세가지에 대해 말해 보라.(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51)
4. 화잇 부인이 계시를 받고 있었을 때의 그 육체적 몸의 상태에 대하여 말해 보라.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52-253)

5. 우라이야 스미쓰 (Uriah Smith)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증언한 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53-255)
6. 화잇 부인이 한 일들을 평가해 보라.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55-257)
7. '예수의 증거'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지 성경절을 찾아 보라.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243)
8. 신체의 어느 부분이 교회에 있는 예언의 선물과 교통하는가? (고전 12장)
9.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선지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마 23:29-31)
10.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막 12:1-8; 행 3:13-15)

제8과 성경 –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별

성경절 연구: 요 5:39; 딤후 3:14, 15

요점: "성경은 가장 위대한 교육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지성 – 고상하고 정결케 된 지성, 정화된 지성 – 이 없이는 기도하는 맘으로 그 거룩한 페이지들을 연구할 수 없다." (교육 기초, 171)

예언의 신 연구

"성경 말씀을 찾으라"

1. 진리의 금광인 성경

"성경에는 피상적인 탐구자에게서 숨겨져 있는 수많은 진리의 보석들이 있다. 진리의 광맥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그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대들의 유익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대들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고 바울처럼 부르짖고 싶어질 것이다. 매일 그대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글을 깨닫기 위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미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들은 진리와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새롭고 귀중한 빛을 받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성경은 그대들의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얻게 될 것이다." (5 증언, 265-266)

2.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는 이생에서 모든 성경절의 뜻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리의 극히 중요한 점들이 신비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가리워진 경우는 결코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마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과 기도로써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의 고리 하나하나가 발견되어 완전한 사슬이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아무도 실수하여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증언, 692)

3.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귀중한 진리의 보석을 가진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해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낮과 같이 분명하므로 분명히 계시

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5 증언, 331)

4. 성경에 있는 오묘는 너무 깊고 원대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 중생, 부활, 그 외에 성경에 제시된 많은 주제들은 너무 심오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설명하거나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오묘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특성에 속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속한 모든 오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5 증언, 699)

연구하는 목적

5. 성경에 있는 모순을 찾기 위해서 연구해야 할 것인가?

"모순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살피는 자들은 영적 통찰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비뚤어진 시각으로, 사실은 쉽고 단순한 것들 가운데서 의심과 불신의 많은 구실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들은 계시된 진리들의 순결과 고귀한 탁월을 명상할 때 놀라움과 경이로 충만해진다. 유유 상종이며, 유유 식별이다. 거룩함은 거룩함과 결합하고, 믿음은 믿음과 결합한다. 겸손한 마음과 진지하고, 무엇을 구하는 정신에는 성경이 빛과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 정신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들은 선지자와 사도들로 더불어 교제하게 된다. 그들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동화되고, 그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회의론자들과 불신자들의 트집에 대항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설명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지워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한 데 불과한 것을 설명하고자 시도함으로써 그들은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는 점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해서 탄식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된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점에서 영혼의 구원에 분명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원칙들을 우리의 생애로 실천하고, 교훈과 모본으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경건한 생애, 성실과 온유와 이타적 사랑의 매일의 모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대한 산 모범이 될 것이며, 그것은 성경을 옹호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의 논증이 될 것이다. 이것은 회의론과 불신으로 기우는 우세한 경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수단임이 입증될 것이다." (5 증언, 705-706)

6. 이런 말씀들이 필요함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빛의 광선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심령을 여는 대신에 반대 방향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글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어떤 사람이나 일단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되'라는 분명한 말씀 없이 이처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이론들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인간적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의 영향도 어느 정

도 받았고, 그들을 현명하고 경건하게 해주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선천적 · 후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탄하고,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을 판단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형통케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결과는, 그 일에 종사한 사람과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비참할 것이다. 영감의 본질에 대해서 제시된 이론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회의가 일어났다. 편협하고 근시안적 견해를 가진 유한한 사람들이, '이 구절은 필요하고, 저 구절은 필요하지 않고, 영감 받지 않은 것이다' 고 말함으로 성경을 비판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 (5 증언, 709)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있게 하라. 인간의 지혜가 성경의 한 말씀의 능력도 감소되게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엄숙한 선고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고 명령하는 바이다." (5 증언, 711)

7. 하늘로서 보내 주신 동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그는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벧전 1:12) 제목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천사들과 더불어 친교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의 발자국을 좇아서 살며,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눠 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처럼 더욱 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 문이 열릴 때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다. 그때, 순례자의 생활은 끝이 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땅 위에 살 때에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동행한 거룩한 이들의 소리로, 이제 여기서는 누구의 소리인지 능히 분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온 이들은 하늘 본향에서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교육, 127)

교육자로서의 성경

8. 지적과 영적 교양

"신체는 물론 마음과 영성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활동에 의하여 힘을 얻도록 경영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즉, 발달은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과 일치하는, 지성과 영성의 발달을 위한 방법들을 성경 가운데 준비하여 주셨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도 적합하고 내세에서도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깨달아야 할 모든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평이한 것들이다. 누구나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단 한 절을 읽을지라도 거기서 유익한 사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따금 하는 연구나 단편적인 연구로서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없다. 성경을 급히 또는 부주의하게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큰 진리 체계가 깨우쳐지지 않는다. 진리의 보화는 대부분 표면 아래 깊이 파묻혀져 있으므로, 열심 있는 탐구와 끊임없는 노

력으로써만 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진리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사 28:10)씩 찾아내어 모음으로써 하나로 크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찾아지고 모아진 진리는 서로 완전하게 조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복음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있으며, 모든 예언들은 서로 다른 예언들을 설명하고, 모든 진리들은 다른 어떤 진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은 복음서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원칙들은 각각 그 나름의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완전한 진리는 구성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구성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생각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 123-124)

9. 천연계와 계시와의 조화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큰 진리들을 증거한다.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는 한 거룩한 계시인 성경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천연계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법칙들을 우리에게 다소 가르침으로 그분을 알게 해 준다." (교육, 128)

10. 지구의 진화

"그러나, 천연계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잘못 끌어낸 주론들은 과학과 성경이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케 하였다. 또 이 둘의 조화를 도모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성경 해석 방법이 받아들여져 왔다. 창조에 관한 모세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지질학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지질학은 지구가 혼돈된 상태로부터 진화하는 데 수백만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이 과학의 상상적인 가설에 성경의 사실을 맞추기 위해, 창조의 기간은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하고 막연한 기간이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이런 결론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그 자체와 천연계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것이다. 창조에 사용된 첫째 날에 대하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5)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창조 주간의 제 6일까지 각각 말해졌다. 이 기간 중의 하루도 오늘날과 같이 아침 저녁이 있는 하루였다는 사실이 영감 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창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9)라는 증언이 있다. 이처럼 무수한 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하나님에게 있어서 땅을 혼돈한 상태로부터 진화케 하는데 과연 얼마의 세월이 필요하였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야만 할까?" (교육, 128-129)

11. 성경의 전기

"성경 중에 전기가 담겨 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다. 이 전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전기들과 같지 않다. 사람의 유한한 두뇌를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꼭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행위의 숨은 원천을 분별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격과 생애를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충실하게 묘사하실 수 있다. 이런 묘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교육, 146)

12. 역사 철학(역사와 예언)

"성경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 되고 가장 포괄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줄기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꿰뚫어 보려해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를 비추어 준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武勇)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 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 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참된 역사 철학을 보여 준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의 현인들에게 말한 유례 없이 아름답고 친절한 말 중에는, 인류의 창조와 모든 민족의 분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즉,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행 17:26, 27)라고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약의 줄로' (겔 20:37) 들어올 수 있다고 언명하셨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상에 사람을 살게 하여 그 존재가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원하면 자신을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고 기록되어 있다." (교육, 173-174)

13. 인도하시는 손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북쪽으로부터 온 듯한 한 폭풍을 보았다.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 (겔 1:4)났다. 서로 중첩된 많은 바퀴가 네 생물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었다. 그들의 위에 높이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26).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겔 10:8). 그 바퀴들은 매우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일견 혼란한 듯이 보였으나,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해 떠받쳐지고 인도되는 하늘의 존재들은 이 바퀴들을 굴리고 있었다. 그 위에 있는 남보석의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께서 좌정하셨고, 보좌 둘레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인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 (교육, 177-178)

14. 문학으로서의 성경

"교육하는 힘으로 평가해 볼 때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철학가들이 쓴 책들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문장의 형태와 주제들이 광범위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교훈을 주며, 연구하는 자들의 정신을 고상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계시의 빛은 인간의 연대기가 미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의 역사를 밝혀 주고 있다. 또한 성경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경탄과 칭찬을 불러 일으키는 아름다운 시가 있다. 문장의 수려함, 그 탁월성 및 내용의 엄숙한 위엄과 감동적인 정념에 있어서 어떤 천재적인 인간의 가장 뛰어난 작품도 이를 능가할 수 없다. 성경 가운데는 완전한 논리가 있으며 감동적인 웅변이 있다. 따라서 고귀한 인물의 고귀한 행동, 개인의 덕망과 사회적인 명예에 대한 훌륭한 모본 그리고 경건과 순결에 대한 교훈들이 묘사되어 있다." (부모, 428-429)

나의 법과 생애의 지침 - 성경

15.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까지 인도하는 지침

"이 어둔 세상의 위험을 뚫고 우리의 발길을 하늘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한 책이 주어졌다. 그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곧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치러진 큰 희생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빛이 주어진 이 땅에서 진리를 듣고서도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될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과, 마지막 일곱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 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다. 다른 사물들이 마음을 채우고 우상을 간직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등한히 여겨지고 경솔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경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어리석은 소설 때문에 등한히 해 온 그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심판한다. 그 말씀은 표준이다. 그들의 동기와 말과 행동과, 그들이 시간을 이용한 방법 등이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의 부족이 드러나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1 증언, 125-126)

16. 어린이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함

"…자녀들은 성경을 연구하도록 가르침 받아야 하며, 강한 신앙의 원칙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두려운 시험에서 저들이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큰 기능들을 잘 알아야 하고, 왜 우리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으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워지고, 지상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다르고 구별된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자녀들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월을 따라 성장할 때, 전달된 교훈들은 증가되어 가는 그들의 이해력에 상응하게 되되 마침내 진리의 기초가 넓고 깊게 놓여질 때까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 (5 증언, 330)

17. 가장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겨를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

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 앞에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역설하는 주장들을 가장 철저히 살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되어 있으므로 시련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이 의회들 앞에서 나가 믿음에 대하여 답을 할 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증언, 707-708)

18. 진리로 요새를 삼음

"성경에서 발견되는 고귀한 생명의 말씀을 매일 공부할 때, 지력은 강화되고,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순수한 행복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삶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된다. 성경을 배우는 자들은 또한 성경상 논증을 제공받음으로써 불신자들의 의심을 대항하고 분명한 진리의 빛으로 그 의심을 제거하게 된다. 성경 말씀을 살펴 온 자들은 언제나 사단의 유혹에 대한 방비를 갖추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완전히 하게 되며,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3 증언, 374)

19.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사람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한 번도 유혹자에 대하여 맹렬한 비난을 하지 않으셨다. 모든 유혹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제시하셨다. '기록하였으되'는 변함없는 그분의 무기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항해야 한다. 우리는 과학적인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뱀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 수단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능가할 수 없다." (9 증언, 68-69)

20. 진리가 고상하게 함

"진리는 받아들이는 자를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진리가 감화력을 마음과 품성에서 발휘하게 되면, 그것이 믿는 자들을 더욱 영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어린양과 진정으로 연결을 이루면 그는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인 능력에서는 물론이요, 지적인 능력에서의 계속적인 향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의 목적에 응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4 증언, 545)

기억할 말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저들의 지침으로 삼게 하고, 원칙을 위해서는 바위처럼 굳게 서게 하라. 이렇게 되면 저들이 어떤 높은 표준이든지 달성하게 될 것이다." (8 증언, 322)

연구할 과제

1.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커다란 암흑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하였

는가? (3 증언, 448; 5 증언, 704)
2. 사단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였는가? (9 증언, 16)
3.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의해 보라. (1 증언, 371)
4. 성경에 언급된 어떤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증언, 699)
5. 성경에 있는 난해한 점(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성경이 거룩한 영감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설명해 보라. (5 증언, 700)
6. 성경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교통(대화) 수단이 되는가? (5 증언, 533)
7. 성경과 지질학을 놓고 생각한다면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해 보라. (부조 상, 130-134)
8. 성경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존되어 우리 세대까지 내려 왔는가? (쟁상, 111)
9.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명 나무 잎'을 먹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7 증언, 195)
10.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방문자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안교 사업에 관한 권면 36)

제9과 예언의 영(신)과 성경과의 관계

성경절 연구: 대하 20:20; 고전 12:28-31

요점: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그늘진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에 충분하다. 또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까지도 아주 평범한 진리의 원 뜻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명한 증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이 소홀히 하였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2 증언, 454, 455; 5 증언, 663)

예언의 신 연구

초기의 경험들

1. 광신 주의자들을 만남

"이 때에 첫째 기별을 믿어 왔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광신이 있었다. 교리와 행동 속에 심한 오류들이 들어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류들을 내게 보여 주시고 당신의 잘못된 자녀들에게 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알려 주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심한 반대와 비난을 받았다." (5 증언, 655-656)

2. 나에게 있었던 큰 십자가

"잘못된 자들에 관하여 내게 보여진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십자가였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를 크게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므로 불가불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나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할 수 있는대로 개인에 대하여 호감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그러고는 고독해져서 심령의 고민을 안고 울곤 했다. 나는 오직 자신의 영혼만을 돌봐야 할 자들을 바라보고 만일 내가 그들의 상태에 있다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들을 말하기란 어려웠다. 나는 결과를 염려스럽게 관찰했고, 만일 책망받은 사람들이 그 책망에 반대하여 일어나거나, 후에 그 진리를 반대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곤 했다. 나는 기별을 당연히 전해야 할 그대로 전했는가? 거기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길이 없었던가? 그처럼 고통이 나의 영혼을 눌렀기 때문에 나는 가끔 죽음이 반가운 사자(使者)가 되고 무덤이 평안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5 증언, 656)

3.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는 이상 중에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태도의 위험과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찡그린 얼굴로 나를 보시고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내가 그 때에 느낀 고통과 고민은 묘사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 앞에서 얼굴을 떨어뜨렸으나 한마

디도 말을 할 힘이 없었다. 아, 나는 그 무섭게 불쾌감을 띤 얼굴에서 가리워지고 숨겨지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나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 6:16)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다.

곧 한 천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명령했다.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거의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앞에는 머리카락과 의복이 헝크러지고 헤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로 접근해 와서 그들의 옷을 내 옷에 문질렀다. 내가 옷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피로써 나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나는 나와 동행하는 천사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나는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떠나가고자 열망했다. 천사는 내게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지금 그대의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만일 그대가 주님께서 그대에게 보여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을 등한히 할 때 그대의 상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 주기 위하여 그대 앞에 지나갔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엄숙한 경고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기 위하여 나갔다." (5 증언, 656-657)

4. 개인적인 증언(기별)

"개인의 상황에 대한 증언 속에 주어진 경고와 교훈이 특별히 이런 방법으로 지적되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호소력을 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에 대한 증언들을 출판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보였다. 증언 15호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증언들을 알려 주는 것 외에 일반적인 위험과 오류들에 관한 나의 견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를 제시해 주는 더 좋은 길이 없음을 안다. 아마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을 제시해 주는 더 직접적이요 강력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1868년 6월 12일에 내가 받은 이상에서 나는 개인에 관한 증언들을 출판하는 나의 방침이 완전히 옳다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개인의 상황들을 택해서 그들의 잘못을 자세하게 지적하실 때, 이상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흔히 그들이 옳거나 거의 그렇다고 당연시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잘못으로 책망을 받으면, 형제와 자매들은, 그들 역시 어디에서 실패했으며 어디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겸손한 고백의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이 그들을 옳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들을 시험하시고 입증하신다. 그분은 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로잡고자 계획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신다고 자만해진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속이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그들 자신의 마음의 상상을 따르도록 그들 나름의 길에 버려둔 바 될 것이다." (5 증언, 658-659)

증언의 성격과 미치는 영향

5.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케 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한 연합체가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러

한 일은 교회 내에 명백하고 단도직입적이며 산 증언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0-23)." (3 증언, 361-362)

6. 경고, 심판, 자비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그분께서 당신의 영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길에 관하여 지금보다 더 열렬히 그들을 가르치신 시대는 결코 없었다." (5 증언, 661)

7.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고 그들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낙망할 이유가 없다. 그들을 위한 바로 이런 노력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느 정도로 열망하시는지 보여 준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한 백성들이 거룩한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그들이 범한 죄의 가증함을 남김없이 볼 수 있도록 죄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의 발 앞에 놓인 좁은 길과, 흑암과 실망을 뚫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 증언, 661)

8.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견책(책망)하시는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 실수한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의 생애가 명목적인 다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생애보다 더욱 비난받을만 하기 때문에서도 아니고, 그들의 모본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재림신자들의 모본과 행동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서도 아니다. 그들이 큰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반대하는 원수들에게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백성들,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분을 비난할 기회를 줌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 …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모든 죄와 악에서 분리되어 그분을 경외하는 중에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공개하신다. … 하

나님은, 그들이 세련되고, 성화되고, 고상해져서 마침내 그분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향상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신다." (5 증언, 661-662)

9. 성경은 증언(기별)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음

"나는 성경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권의 교회증언으로 그것을 둘러쌌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경우들이 여기에서 취급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회피하는 죄들이 지적되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권면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과 유사한 다른 상황들에 대한 권면도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증언들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대들 가운데 많지 않다.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에게는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이 터득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 온 영감의 말씀에 그대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시고, 그대들의 생애를 그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과 일치되게 하도록 권유하신 것은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의 책에 정통하기를 등한히 해 왔기 때문이다." (5 증언, 664-665)

10. 증언(예언의 신)의 말씀은 추가된 진리가 아님

"주님께서는 주신 바 증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 주고자 하신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 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상술되어 있지만, 받은 바 빛에 순종하는 자는 그대들 가운데 별로 없다. 추가된 빛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위대한 진리들과 증언들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진리로 마음을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셔서 아무도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

교만과 이기주의와 이기심과 증오와 질투는 지각력(知覺力)을 흐리게 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고 지배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 성경의 지식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건의 기본 원칙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높이고 마음들을 그리로 이끌고 아름다운 진리의 단순함을 모든 사람에게 새겨 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5 증언, 665)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

11. 경멸, 비난, 책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음

"어떤 분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대를 일으키시사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그대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접촉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대의 증언들을 마련하셨다. 그대는 비난과 조소와 책망과 질책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대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되, 마치 포도나무처럼 그대의 덩굴손으로 그분을 감아야 한다. 그분은 그대를,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을 전하는 매체로 삼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대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취도록 허락하신 빛이 그대의 환경 때문에 희미해지거나 가리

워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대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에 이 빛이 매우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목적이다.'" (5 증언, 667)

12. 성공은 단순함에 있음

"그대의 성공은 그대의 단순함에 있다. 그대가 이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 그대의 증언을 꾸미면 즉시 그대의 능력은 사라진다. 이 시대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속이는 것이며 진실이 아닌 것이다. 세상에는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고 매력을 주고 자아를 높이기 위하여 주어진 증언들이 많다. 그러나 그대의 증언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것은 생애의 세밀한 데까지 내려가서 연약한 믿음이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고, 신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할 필요를 마음에 새겨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증언을 주셔서 물러간 자와 죄인에게 그의 참 상태와 죄의 생애를 계속함으로써 그가 당하고 있는 막대한 손실을 제시해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살아 있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와 같지 않게 그대의 눈앞에 펼쳐 놓으시므로 그대에게 새겨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주신 빛에 따라서 그대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슥 4:6).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사 58:1)" (5 증언, 667-668)

13.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엄격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과 항상 싸워온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킬 것이다. 잘못은 잘못으로 불리워져야 하고, 심한 죄들은 그 바른 이름 그대로 불리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죄를 사실 그대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솔직한 증언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고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분명히 그들에게도 머물게 될 것이다.'" (5 증언, 676)

14.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된다.

"나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을 맡았다. 그 때 그 사업과 함께 나는 도우시는 전능한 분에게서 특별한 도움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나에게는 친구나 원수들을 구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별을 성실히 전하라는 엄숙한 책임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교양이 많은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자에게 지워진 신성한 의무를 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증언, 677)

15. 증언을 한 후에 후회하지 말라.

"내가 개인들이나 백성들에게 증거한 어떤 분명한 증언을 후회하거나 철회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어떤 곳에서 실수했다면 그것은 더욱 결정적이요 확고하게 죄를 책망하지 않은 데 있다.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사업을 비판하고 잘못을 고치는 보다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책임을 담당해 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그대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이다. 증언이나 책망을 통하여 내가 말하거나 기록한 것은 지나치게 명백히 표현

되지는 않았다. …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 신랄한 책망의 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심판 때에 그들이 한 일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나를 책망하는 책임을 진 자들과, 유한한 판단력으로 더욱 현명해 보이는 길을 제안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반복해 말한다. 나는 그대들의 노력을 수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게 하라. 나는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고 변함없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나의 형제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다. 공중 앞에서 책망하는 나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리하고 비판적이고 가혹해지게 했다고 주장되어 왔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지 않으신 책임을 맡는다면, 만일 그들이 그분의 택하신 겸손한 기구를 통하여 친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거듭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을 무시한다면, 그들만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슬픔에 눌린 마음으로,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달갑지 않는 나의 의무를 수행하되 심지어 나의 남편에까지도 책망을 보류함으로 내 자신을 감히 기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듣거나 참거나 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는 일에 덜 성실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말한다. 주님의 영은 빈번히 나에게 임하신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분리되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나의 마음 앞에 분명히 제시된다. 나는 그들의 잘못과 위험을 보게 되고, 내 앞에 제시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낀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영을 저항할 수 없다." (5 증언, 677-678)

증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16.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말하라' (사 30:10)고 부르짖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백성을 책망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별을 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업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달갑지 않은 사업을 내 스스로 택하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사람들의 호감이나 칭찬을 받게 해 줄 그런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진가를 깨닫는 자가 별로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오해와 질투 어린 의심과 불신으로 나의 활동을 이중으로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편견을 일으키고 나의 사업을 한정시키고자 애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나의 형제들이 내 앞에서 길을 열어 주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의 구속주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의무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업을 맡기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5 증언, 679-680)

17. 보증할 수 없는 독특성 (Unwarranted Distinction)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경고와 주의와 책망이 각 개인들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이상(異像)을 통하여 주어지지 않는 한 다른 근원에서 온 권면과 경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어떤 경

우에는 내가 교인들에게서 받은 편지들 때문에 기록하도록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증언들이 인간적 근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한 내 자신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자들이 존재해 왔다. 이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서 온 어떤 질문이나 주장이나 호소에 대한 회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관하여 주신 빛을 제시하는 증언이 기록된다면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유효성이나 중요성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5 증언, 683-684)

18.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글로에의 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받은 소식 때문에 그는 그 교회에 보내는 첫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알려 주는 사적인 편지들이 그에게 왔고, 그는 대답을 통하여, 만일 유의하기만 하면 존재해 있는 그 악을 교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들을 제시했다. 대단한 친절과 지혜로써 그는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한다.

바울이 영감받은 사도였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그에게 언제나 계시하지 않으셨다. 교회의 번영의 관심을 가지고 악이 들어오는 것을 본 자들이 문제를 그에게 제시했고, 그는 미리 받은 빛에 의하여 그렇게 진척되는 일의 진상을 판단할 준비를 갖추었다. 주님께서 그 특별한 때에 관한 새 계시를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빛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그의 기별을 다만 평범한 편지로 버리지는 않았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위험을 그에게 보여 주셨으므로, 그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게 되었다." (5 증언, 684)

19. 주께서 사용하시는 기구에 불과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엄숙한 경험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의 생명이 지속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은 그대로의 경고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일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내 자신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없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도록 맡겨 주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글이나 음성을 통하여 준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의 표현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 해 동안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의 심중에 기록해준 원칙들을 그대들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5 증언, 691)

부탁하는 말

20. 백성들이 마음을 혼동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그대들이 나와 백성들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빛을 외면하지 않도록 탄원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비평을 통하여, 증언들에서 오는 모든 힘, 모든 효과와 능력을 제거해 버리지 말라. 그대들 자신의 사상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이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하늘에서 온 빛이며 무엇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의 표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하지도 말라. 만일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지 않거든 그것들을 거절하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연합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의 궤변과 회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무효로 만들지 말라. 그대들의 영적 식별력의 부족으로, 이 하나님의 매개체를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걸리며 잡히게' (사

28:13) 하는 거치는 돌로 만들지 말라." (5 증언, 691)

기억할 말씀: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조(믿음)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그리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의심하도록 하여 결국에 가서는 멸망의 길을 내려 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4 증언, 211)

연구할 과제

1.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로 알려졌는가? (출 4:16; 삼상 9:6; 대상 6:49; 사 52:8; 겔 2:1; 학 1:13)
2. 엘렌 지 화잇은 그 자신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였는가?
   대답: "나는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저들의 잘못을 견책하고 위로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지시 받았다. (RH 1905. 1. 26)
3.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의 기별이 알려지게 되었는가? (삼상 9:27; 왕하 17:15; 대하 9:29; 사 44:26; 렘 23:33; 학 1:13)
4. 엘렌 지 화잇의 글들은 어떻게 불리어 왔는가? (LT 119)

제10과 무류설과 영감설

성경절 연구: 딤후 3:16; 벧후 1:20,21

요점: "무류설에 대하여 나 자신이 주장한 적은 결코 없었다. 하나님 한분만이 오류가 없으시다. 그의 말씀은 진실되며 그에게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시는 그림자 조차 없으시다." (화잇 부인의 편지 10번, 1895년)

예언의 신 연구

무류설

1. 베드로의 변심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는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그의 신중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었다. 한동안 그는 하늘에서 받은 빛에 따라 행하였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 식탁에 앉는데 대하여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교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없이 변경시켰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지도자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 편에서 이와 같이 약점을 드러낸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인상을 남겼다. 교회는 분열될 위험에 직면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중 행동으로 교회에게 해를 끼친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한 바울은, 그의 진정한 감정을 이처럼 위장함에 대하여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다. 바울은 교회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갈 2:14)다.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종말을 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최고의 대권이 베드로와 자칭 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당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 사도의 약점에 대한 이 기록은 그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사도들의 수준 이상으로 높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로서 보존되어야 하였다." (행적, 197-199)

2. 법왕의 무류설에 대하여 기록하였음

"법왕은 보편 교회(Universal Church)의 볼 수 있는 머리이며, 세계 각처에 있는 감독들과 목사들에 대한 최상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로마교의 주요 교리의 하나이다. 더욱이 법왕에게는 하나님의 직함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는 '주 하나님이신 법왕'이라고 불리워 오고 있으며 절대 무오의 존재로 선포되어 왔다(부록 1, 2 참

조). 그는 전인류의 숭배를 요구한다. 사단이 시험의 광야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그는 오늘날도 로마교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쟁투, 50)

3. 로마 교회(천주교)를 위해 완전성을 주장함

"법왕의 참람된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1세기에 법왕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ous Ⅶ)는 로마교회가 완전하다고 선포하였다. 그의 주장 중의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장래에도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성경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거만한 법왕은 또한 황제들을 폐위시킬 권세가 자기에게 있노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선포한 선고는 아무도 이를 폐기(廢棄)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쟁투, 57)

4. 하나님 한분만이 무류하심 – 요점에 언급한 예언의 신을 보라.

5.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불변하는 계시- 성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 17)." (쟁투, 7)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가?

6. 아담은 직접적인 교통을 즐겼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그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셨고,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啓示)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었다. 곧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 (벧후 1:21)하게 되었다." (쟁투, 5)

7. 2,500여년간 기록된 계시가 없었음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이천오백년간은 기록된 계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 전하여졌다. 말씀이 기록되는 일은 모세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 때에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가 영감받은 책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가장 탁월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일천육백년의 긴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쟁투, 5)

8. 성경은 인간의 손을 이용하여 기록하였음

"성경은 하나님을 그 저작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각 권(各卷)의 같지 않은 문체는 그 각 기자들의 같지 않은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대개 계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딤

후 3:16)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분께서는 꿈과 이상(異像)과 표상과 상징을 주셨고 진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상을 각각 인간의 말로 나타내었다." (쟁투, 5)

9.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셨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성문화(成文化)하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 1:14)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쟁투, 5-6)

10. 성경의 책들은 커다란 대조를 이룸

"성경은 신분과 직업, 지적 · 영적 소양이 크게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다루어진 주제(主題)의 성격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그 문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다. 기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각각 다르며 때로는 같은 진리라도 어떤 기자는 다른 기자보다 그것을 더욱 예리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몇 사람의 기자가 어떤 문제를 각기 다른 관점과 관계에서 소개하는 경우에, 피상적이고 주의성이 없거나 편견을 가진 독자들에게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것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밝은 통찰력을 가진 사려 깊고 경건한 연구자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조화를 발견하게 된다." (쟁투, 6)

11. 모든 성경 전반에 완전한 조화를 이룸

"진리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제시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개되었다. 어떤 기자는 한 주제의 어떤 면에 더욱 강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체험과 이해력과 인식력 등에 부합시켜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또 어떤 기자는 그와는 다른 면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각 성령의 지도 아래 자기의 마음에 가장 깊이 감명된 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와같이 계시된 진리는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어 생애의 온갖 환경과 경험에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에 적합하게 된다." (쟁투, 6)

성경의 영감설

12.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불완전하게 표현되었음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당신의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분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지도하셨다. 보물은 비록 질그릇(인간)에 위탁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 증언(證言)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온순하고 믿음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증언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된다." (쟁투, 6-7)

13.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게 비추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 17)." (쟁투, 7)

14. 성령이 말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일 4:1)고 말한다. 또한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 8:20)고 말한다.

성령의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류(誤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役事)에 큰 비난이 돌아갔다. 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印象)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상만을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어 줄 뿐이다.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시켜 줄 뿐이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극히 중요하므로 사단은 극단론자(極端論者)와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이 능력의 근원을 등한히 여기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계책 중의 하나이다." (쟁투, 7-8)

15. 성경의 정경(Canon)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시대 동안에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하였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을 주시는 일 이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을 주시는 일 이외에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와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은 있으나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도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정전(正典)이 완성된 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몽시키고, 경고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셔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4:26, 16:13)고 말씀하셨다. 그 약속은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가르치고 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고 보증하신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 (엡 4:12, 13)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

였다" (쟁투, 8-9)

16. 무한하신 자의 청취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록되기만 하지 않았고 말로 전달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율례를 어떤 열성으로 상고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증언, 393)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바 됨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를 주의하지 않고 읽는 사람은 사막밖에 볼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는 샘물이 용솟음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190-191)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언제나 그 말씀의 진리들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 한 것인 반면에,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 (신 29:29)한 것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러 진리를 소홀히 하도록 이끌었다. 성경의 오묘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감추어 두고자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우둔함과 무지로 인하여 그것을 깨달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제한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자주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깨닫기를 원하신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딤후 3:16, 17) 주신 것이다." (교육, 170-171)

"각 시대의 대쟁투"가 어떻게 하여 기록되었는가?

18. 모든 광경이 기록하는 자 앞에 전개되었음

"성령의 조명(照明)을 통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의 전모가 본서의 저자에게 공개되었다. 나는 때때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과의 대쟁투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 일관 핍박해 왔다. 그런 사실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쟁투, 10-11)

19. 다가오는 사건의 전조를 비춰주는 것임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 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막 13:22)" (쟁투, 11)

20. "각 시대의 대쟁투"를 기록한 이유

"본서의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들과 원칙들을 나타내 주는 데 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일부로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 기록들을 통하여 미래에 빛이 비추어지고, 과거의 개혁자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소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앞길에 빛을 받게 된다.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 주고, 사단의 간계(奸計)와 사단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저자는 본서의 감화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쟁투, 12)

기억할 말씀: "성경에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저들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읽든지 – 가정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든지 –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용해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증언, 84)

연구할 과제

1. 엘렌 지 화잇이 그의 남편에 대하여 또는 그녀 자신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2 증언, 119)
2. 증언의 원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5 증언, 67, 234)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면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여야 하는가? (5 증언, 747)
4. 언제 요엘 2:28절의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쟁상, 519)
5.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는가? (Ellen G. White and Her Critics 654)
6. "정치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예화가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상동 654)
7.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제자들의 이해를 높혀 주었는가? (상동 655)
8. "축어적 영감설" (Verbal Inspiration) 에 대하여 연구 토론해 보라. (상동 655, 461)
9. 성경이 "생애의 모든 상황(형편)"에 어떤 일을 하는가? (4 증언, 312)

제11과 예언의 신을 어떻게 연구하며 사용할까?

성경절 연구: 엡 4:11-13

요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접근하며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크게 증거될 때에 현대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증언의 성격과 영향력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증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될 때부터 그 기별과 깊이 연결된 것이다." (5 증언, 654)

예언의 신 연구

참 선지자를 시험하는 시금석

1. 모세가 제안한 시금석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 18:21-22)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예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래 임할 사건 또는 형편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짓기에 충분하다." (The Abiding Gift of Prophecy - A.G.Daniells 278)

2. 엘렌 지 화잇이 한 예언들

"이미 화잇 부인이 첫 계시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경험을 기록하였다. 그 광경은 후에 반복되었는데 그때에 상세한 것들이 추가되었다. 약 50여년 전에 그녀가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였다. 이 쟁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쟁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서 현재의 형편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세상에 있을 미래의 형편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책의 가르침은 아직도 그 근본적인 진리가 변치 않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이 순환되고 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히 오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어 그 준비를 하게 한다.

정치적, 사회적, 조욕적 형편이 지난 반세기에 결쳐서 놀랍도록 변해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 50여년 전에 지금과 같은 사회 변천에 대하여 그토록 정확하게 미래의 형편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미래에 있을 강신술에 대한 첫 계시가 주어졌을 때에는 뉴욕 로체스터(Rochester N.Y.)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두들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들은 사람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였을 당시였다.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에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떠나고 있는 오늘날의 형편에 대하여 화잇 부인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예언할 때에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 책에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마지막 극적인 장면들이 묘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증거되는 일, 은혜의 시기의 끝, 대환란,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권세들 사이에 있을 마지막 투쟁 및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험을 가져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화잇 부인의 예언서를 열심히 읽는 독자들은 그녀가 참 선지자라는 시금석에 합격하였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요, 어떤 예언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상동 278-279)

3. 하나님의 말씀(율법)과 일치하여야 함

"또 하나의 중요한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다. 초인간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하였다. 이 말씀은 매우 명백하고 결론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2:21)

여기에 언급한 선지자의 시금석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 꿈이나 계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실되어야 하며, 저들의 말하는 바가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1844년 12월에 화잇 부인이 받은 첫 계시는 그녀와 하나님과 긴세월 동안 긴밀한 교통을 시작한 첫 시발점이 되었다. 그녀는 1915년 7월 16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첫 계시를 받은 이후 무려 71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토록 긴 봉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진실된 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말씀을 지칠 줄 모르고 연구하는 학생이었고, 그녀에게 재림신도들이 거룩한 성을 향하여 여행하는 장면에 대한 첫 계시를 보여주신 그 빛을 따라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때에 주어진 빛은 해가 감에 따라 더욱 증가되었다. 그후에 주신 꿈과 계시를 통해서 수천배로 증가되었다. 그녀의 봉사를 마칠 그 당시에 그녀에게 보여준 첫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의 여러 국면을 다룬 20여권이나 되는 중요한 책을 남겨 주었다. 그녀의 책들은 성경절들을 인용하여 그 해석을 해 두었는데 이것은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녀의 기록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며 이 책들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영감된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있는가 살펴 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녀가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그녀의 책에서 발견된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동 279)

4. "저들의 열매로 알찌니라." (마 7:15-21)

5.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 완전한 의미는 혀로 말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고 말할 뿐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 (8 증언, 287)

6.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침(신 13:1-4)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롬 7:12)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31) 여기에 화잇 부인이 성경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 다른 어떤 말씀이 추가될 필요가 없다. 세상은 이 문제로 인하여 혼동 가운데 처하여 있다.

그들이 사는 낮은 골짜기를 두르고 있는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였다. 그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그 무언의 상징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궁벽한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 때때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험준한 그 산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었다. 그들은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로마의 군대들은 그들의 감사의 찬미를 침묵시킬 수 없었다." (쟁투, 66)

"신의 성품을 나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실물, 314)

7. 계시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육체적 변화(현상)
(민 24:3,4; 삼하 23:2; 고후 12:2-4; 단 10:8, 16-19)

8. 계시를 받을 때에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함

"엘렌 하몬이 계시를 받을 때에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지켜보고 시험한 자들은 무려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타난 기이 현상은 성경에 언급한 것과 흡사한 것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기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후 12:1-4)

이와 마찬가지로 후에 화잇 부인이 되었던 엘렌 하몬 역시 그가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 계시를 받는 중에 그녀는 하늘에 관한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세상은 아주 어둡게 느꼈는데 마치 어떤 섬광을 본 이후에 세상이 깜깜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어둠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또 하나의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계시가 여러 시간 계속되는 것이었지만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말은 하고 있었다. 마치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의 경험을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

씀할 수 있으리이까?' (단 10:17)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단 10:18), 이와 마찬가지로 화잇 부인이 여러 번의 계시를 받는 동안 놀라운 힘의 역사가 나타났었다. 실제로 그녀가 포트랜드에 살고 있을 때에 그녀의 집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가족들이 보는 큰 성경을 오른 손으로 반시간 이상이나 들로 있었는데 그 무게는 무려 18파운드(약8킬로그램)가 넘었다." (The Abiding Gift of Prophecy A.G.Daniells 272-273)

9.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시금석이 될 수 없음(눅 7:26-28)

엘렌 화잇의 글을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는가?

10. 증언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김

"증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이나 그것들에 관하여 의심을 품음으로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자들은 그들 뿐만이 아니다.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책망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으며, 다만 하나님이 영의 감화에 덜 민감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눈이 멀어져 가며, 지혜가 더 적어지고, 자제력도 줄고, 도덕적 능력도 적어지고, 신앙적 활동에 대한 열성과 취미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완전히 놓아 버릴 것이다. 그대들은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대들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대들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와의 현저한 차이를 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마음 속에서 죄를 품고 있는 데 그대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철저한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그대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책망에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처럼 그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5 증언, 680)

11. 선지자를 노하게 하는 것을 금해야 함

"여호야김왕은 방백들에게서 바룩이 한 두루마리를 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것을 그의 앞으로 가져와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시종 중에 여후디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견책과 경고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다. 때는 겨울이었으므로 왕과 그의 각료들과 유다 방백들은 불피운 화롯가에 모여 있었다. 겨우 조금 읽었을 때에 왕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보고 떠는 대신에 도리어 그 두루마리를 잡고 격분하여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 (렘 36:23)다.

왕도 그 방백들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 다. 어떤 방백들이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 다. 두루마리의 기록을 소멸한 악한 왕의 분노는 예레미야와 바룩에게로 향하여 당장 그들을 잡아 오도록 사람들을 보내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 (렘 36:24-26)다." (선지, 433-434)

12.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견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함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증거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신에 이상을 읽어 주는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 나는 이 같은 방법이 일관성이 없으며 불신자들이 진리를 반대할 구실을 삼게하는 길임을 보았다. 이상은, 그것을 결코 보

지 못했고 그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그러한 경우에 이상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 증언, 119-120)

13. 극단적인 의미를 강압해서는 안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에 관하여 보여 주신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상을 통하여 보여준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강조하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경향에 빠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 부드러운 동정의 마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해야 한다. 그는 세심한 태도로 감정을 다루어야 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취급하는 일은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일이다. 가장 겸비한 마음으로 이 일을 취급하되, 그도 또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약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증언, 166)

14. 우정(친교)관계를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하나님의 종들이 ...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곳에는 하나님의 사업의 진로를 언제나 방해하는 위선적이고 말썽 많고 다루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그들을 받아 들인다면, 그들은 교회를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교회의 행정의 권한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조직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 결코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G 형제는 매우 주의 깊이 행동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상에 반대한 부류가 옳지 않다는 것과, 그들이 진리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이상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은 소수의 귀중한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와 연합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같이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자 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나쁜 면에서 문제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조건 때문에 마음 섭섭함을 느끼고 기분이 상하였으므로, 조직이 생긴 후로 그들의 불만의 감정은 크게 증가되었다. 강한 편견이 그들을 지배했다." (1 증언, 329)

15. 증언의 말씀을 추가된 성경 말씀으로 제시해서는 안됨

"그대의 집회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잃어 가고 있음이 내게 보여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주어 오셨다. 그리고 그 빛을 간직하고 서로를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다. J 형제는 하나님께서 증언들을 통하여 주신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진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문제를 그릇된 각도에서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4 증언, 246)

16. 증언의 말씀에 개개인의 의견을 추가하는 것은 금해야 함

"교회증언을 인용할 때에 그것을 실감나게 전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인양 생각지 말라. 교회증언을 읽을 때에 그대의 말을 더해 섞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 인해 청중이 주께로부터 온 말과 그대의 말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길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

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자주 우리의 잔에 쓸개즙을 떨어뜨려 다른 이들이 쓴맛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 잘못된 권고로 그들의 영이 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반역할 마음을 갖게 된다." (6 증언, 122-123)

17. 개인(화잇 부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됨

"나는 최근에 꿈에서 일단의 사람들 앞에 갔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전한 가장 엄숙한 경고의 증언에 대한 효과를 제거해 버리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화잇 자매의 증언을 믿는다. 그러나 그가 고려 중에 있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이상 가운데서 그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의 말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고, 나는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했다. 나는 파수꾼에 관하여 내가 앞에서 제시한 것을 실제로 반복했다. 나는 이것이 그대들과 나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이 엄숙한 경고를 받은 자들이, '그것은 다만 화잇 자매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나는 내 자신의 판단을 여전히 따르겠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경고를 받기 전에 하던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그대로의 일, 곧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고 그들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 된다.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지지해 주고, 그들을 가장 강력한 기반 위에 세워 줄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들을 증언에서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화잇 자매의 의견이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고 그것을 그들 자신의 판단과 같은 수준에 둔다." (5 증언, 687-688)

화잇 부인의 증언을 옳게 사용하는 법

18.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가족들에게 소개함

"많은 사람들은 주의와 책망과 경고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간직한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빛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의 염려와 유행을 좋아하는 마음과 신앙의 부족은, 오류를 간직하고 있는 서적들과 간행물들이 온 나라에 편만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롭게 주신 빛에서 주의를 돌이키게 했다. 회의론과 불신은 어느 곳에서나 증가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처럼 귀중한 빛은 말 아래 감추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등한한 일에 대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비추게 해 주신 빛의 모든 줄기에 대하여, 그것이 거룩한 사물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도록 촉진시켜 주었던지 기호대로 따르는 것이 더욱 달갑기 때문에 거절했던지 간에, 그분께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예언의 신의 서적과 증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든 가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들을 읽도록 촉구 받아야 한다. 이 책들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한 교회에 한 질만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계획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든 가정의 서가에 놓여야 하고 거듭거듭 읽혀져야 한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한다." (5 증언, 680-681)

19. 이웃들에게 빌려 주도록 하여라.

"예언의 신 책자들과 증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가정에 소개되어야 하며, 형제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고 읽도록 강권해야 한다. 이 책들을 싼 가격에 비치하고 한 교회에 한 세트만 소유한 것은 현명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가정의 서고

에 있어야 하고, 여러 번 읽히고 또 읽혀야 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곳에 놓여져야 하며, 모든 이웃이 빌려서 읽음으로 닳아져야 한다." (4 증언, 390)

20. 증언에 지시한 말씀들을 따르라.

"예언의 신 책자들과 증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가정에 소개되어야 하며, 형제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고 읽도록 강권해야 한다. 이 책들을 싼 가격에 비치하고 한 교회에 한 세트만 소유한 것은 현명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가정의 서고에 있어야 하고, 여러 번 읽히고 또 읽혀야 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곳에 놓여져야 하며, 모든 이웃이 빌려서 읽음으로 닳아져야 한다." (4 증언, 390)

기억할 말씀: "광명한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의 가까이에 있다." (소망, 177)

연구할 과제

1. 신명기 18:21,22절에 예외되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설명하라. (렘 18:7-10; 욘 3장을 읽고 설명하라)
2. 교회에 있는 어떤 신도가 예언의 신을 반대하고 그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1 증언, 351)
3. 화잇 부인 자신은 이 빛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5 증언, 686)
4. 성경 가운데 유일한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5.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세 성경절을 찾아 보라.
6. 남은 교회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계 12:17; Ellen G. White and Her Critics 547, 548)
7. 로스웰 에프 코트렐(Roswll F. Cottrell) 장로(목사)는 남은 교회가 모든 예언의 선물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초기, 147)
8. 누가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는가?(The Abiding Gift of Prohecy 164)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한 가장 큰 선지자였다." (신 18:15 참고)
9. 예언의 선물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과실)들을 언급해 보라.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는가? (상동 296-307을 참고하고 본교회 연감을 참고하라.)

제12과 예언의 신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태도

성경절 연구: 행 2:16-21

요점: "그대는 불확실하거나 의심이 가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사단은 많은 의심을 제시하려고 하나 그대의 눈을 믿음으로 열고 살펴 보면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의심할 만한 것을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으신다. 항상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불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주신다. 그러나 그의 유한한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증거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주신 증거를 떠나 버린다고 하면 불신의 차거운 빙산 지역에 남게 될 것이요, 그의 믿음이 파산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4 증언, 232, 233)

예언의 신 연구

견책의 말씀을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

1. 그리스도는 신실한 견책자였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견책자이셨다. 그분처럼 악을 미워하고 두려움 없이 죄를 견책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신실치 못한 것과 비루한 것들에게 견책이 되었다. 그분의 순결한 빛이 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추함과, 생애의 목적이 얼마나 비루하고 허위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당겨 붙드셨다.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셨다. 그분은 악을 일컬어 당신이 축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들의 원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록 타락하기는 했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특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분의 자녀의 모습을 보셨다." (교육, 79)

2.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리한 화살과 같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리한 화살과 같이 청중들의 마음을 쏘아 꿰뚫었다. 청중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감동되어 구원으로 인도되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일언 일구가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책임을 깨닫게 하였다. 그런즉,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실히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는 그 노력이 헛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록 아무도 진리의 화살을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화살이 과녁을 맞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뚫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화살에 맞는 사람의 신음 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진리는 조용히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 당신의 충성된 목사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복음, 150-151)

3. 사랑으로 하는 견책

"당신의 제자가 그 고뇌를 경험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홀로 그 괴로움 속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의 사랑은 용기를 잃게 하거나 못본 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사람은 그 자신도 죄가 많으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자와 허물이 있는 자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남의 마음을 읽어 볼 수도, 또 그 마음속의 투쟁과 아픔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견책, 치유를 위한 타격, 희망을 속삭이는 경고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교육, 89-90)

4. 견책의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

"F 자매여, 그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잘못하여 마음을 상심하게 되어 슬프다면, 만일 그들이 실수하였다면 성경의 규칙을 따르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에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주의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다. 그대의 태도에 주의하라. 표정이나 몸가짐, 단어나 어조에서 교만이나 자만의 빛을 제하라. 자신을 높이거나 그들의 잘못과 대조하여 자신의 선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이나 표정을 주의하라. 주제넘음이나 경멸과 같은 가장 격이 먼 접근을 조심하라. 조심스럽게 모든 노기를 피하라. 명료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미지근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이라. 무엇보다도 미움이나 악감의 그림자가 없고, 지독한 표현을 하지 말 것이다.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친절과 온화함만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러나 그대는 다가오는 심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천사들의 시선이 그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귀한 열매가 방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책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하는 정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하늘의 감동으로 마음을 녹임으로 그대의 노력이 결실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라. 일이 잘 되거든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2 증언, 52-53)

5. 비난의 정신에서 하지 않도록 하라.

"나는 정죄의 정신에 대하여 그대에게 경고하였으며, 이 잘못에 대해 다시 그대에게 주의를 주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때때로 심하게 견책을 하셨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꾸짖는 사람들의 정확한 형편을 아셨으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책망의 정도를 아셨고, 그들의 잘못된 경로를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며, 또한 그분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법을 아셨고, 불행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법을 아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영혼들을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방법을 아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정확한 동기와 특별한 시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실수하실 수 없었다." (4 증언, 66)

6. 동기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음

"그러나 우리는 동기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는 외모로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잘못을 꾸짖기 위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고, 너무 심하게 비난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치료하기를 원하는 곳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혹은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동정심을 발휘하여, 부지중에,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견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이 꾸짖는 사람들을 동정심으로 책망하셨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4 증언, 66)

다윗은 어떤 견책을 받은 적이 있는가?

7. 자만심이 그로 범죄하게 하였음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감화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부조, 717-718)

8. 다윗의 죄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으므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당신의 성호에 욕을 돌렸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켰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다." (부조, 720)

9. 선지자 나단이 견책의 기별을 전함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서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래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권리를 수호하는 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호소하면서 선지자는 제거되어야 할 악과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단은 말하기를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고 하였다." (부조, 720-721)

10.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은 분노하여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삼하 12:5, 6)고 부르짖었다.

나단은 왕을 주목한 후 손을 하늘로 쳐들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라고 말하였다. 다윗처럼 범죄자들이 저희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하고 저희 악한 행위를 인간의 안목과 지식에서 영원히 덮어두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3).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 10:26).

나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 (부조, 721)

11. 사형 선고가 아들에게로 전가됨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비록 이스라엘 중에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사형에 처할 사람이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떨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에게 기별을 보내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 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의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고 말하였다.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깊이 겸비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왕관도 벗어 두고 여러 날과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끊는 슬픔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죄한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 였다. 때때로 사람이나 성읍들에 형벌이 선고되었을 때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그 형벌이 물러가기도 했었고, 신속히 용서하시고 항상 자비스러운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아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굽히지 않고 탄원하였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그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였다. 스스로 당연하다고 선언한 보응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한 다윗이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부조, 721-722)

12. 왜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의 타락의 역사를 읽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록을 공개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그처럼 크게 영예롭게 한 자의 생애에서 이 어두운 대목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을까?' 라고 질문한다.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는 말에서 다윗의 죄에 관하여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후세대 이방인들은 이 어두운 오점을 가지고 다윗의 성품을 지적하면서 의기 양양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고 부르짖어 왔다. 그리하여 신앙은 비난을 당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모독을 당했으며 영혼들은 불신에 굳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범죄하기에 담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가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부조, 722-723)

13. 다윗의 통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회개의 표현을 시편 51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14).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

의 용서와 가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부조, 724-725)

14.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한 위안의 말씀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시 32:5-7).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 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예증의 하나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려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임이 입증되었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 자기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사 27:5).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부조, 725-726)

내가 견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5. 증언의 말씀이 견책을 가져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책망받는 자들은 겸손한 도구를 대항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달가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써 책망의 필요와 그것이 가져다주기로 계획된 축복을 깨닫기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 죄에 빠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도덕적 지각도 왜곡된다. 양심의 경고는 무시되고 그 음성은 분명히 덜 들린다. 그는 옳고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힘을 차츰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그는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 신앙의 형식은 지키고 그 교리를 열렬히 고수할 것이다. 그의 상태는 참된 증인이 묘사한 그대로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 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 3:17). 하나님의 영이 책망의 기별을 통하여 이것이 그의 상태라고 주장할 때 그는 그 기별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 경고를 거절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증언들의 성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 다음에는 비록 그들의 행동에서 죄악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상태를 완전히 깨달았다면 무엇 때문에 책망이 필요하겠는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해 주셔서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신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눈먼 상태가 되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유의하고,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일을 열렬히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사랑하는 구주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깨닫는 자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한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5 증언, 682-683)

16. 견책을 받아 들이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지혜로 배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징계에 겸손히 머리 숙였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참 상태를 성실하게 묘사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는 겸손하게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시 19:7) 한다고 부르짖는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 12:8).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계 3:19)한다고 말씀하셨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 (히 12:11)는다. 비록 징계가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 (히 12:10)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정해진 것이다." (5 증언, 683)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함

17.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 함

"이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들의 우상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방종하는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는 바로 그것을 견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빛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죄를 견책하는 증언들을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나의 죄를 견책하기 때문에 증언들을 거절할 것인가?" (4 증언, 32)

18.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증언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와 방종은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조화되는 개혁이 즉시 시작된다. 죄된 방종을 품고 있는 다른 경우에는, 증언들은 거절되고 옳지 못한 많은 핑계들이 그것들을 거절하는 이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진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용기, 곧 해로운 습관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강화되고 지배되는 의지의 부족이다." (4 증언, 32)

19.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거의 6주간이나 되는 긴 금식을 통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승리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인간에게 접촉하고

자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으며, 마침내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인간을 당신의 보좌에까지 높이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분께서 인간을 위하여 성취하실 것인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 (4 증언, 32)

20. 사람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함

"인간은 거룩한 능력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원수와 투쟁하심으로 그에게 모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단호하고 인내성 있게 사단을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의지를 거스려서 사단의 책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는 없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거절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의 인간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얻는 것이 그의 특권인 승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다면 이것은 사례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 그 자신의 입장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4 증언, 32-33)

기억할 말씀: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곧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의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 74)

연구할 과제

1. 사도 요한의 경우에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계단을 이용하였는가? (계 1:1,2)
2. 엘렌 지 화잇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8 증언, 237)
3. 예언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고전14:4, 예외적인 것을 말해 보라. 렘 1:4-10; 욘 1:1,2; 8 증언, 236)
4. 고대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5 증언, 689)
5. 사단의 마지막 기만이 무엇이 되겠는가? - "사단의 마지막 기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증언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화잇 부인의 편지 12번 1890년)
6. 로빈스와 사르젠트(Robbins. Sargent)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말해 보라.(2 SG 75-79)

제 3 장

하늘의 선물

제13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절 연구: 눅 15:11-32

요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속절없이 원수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로 끌려간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 문서에 조인하셨다." (치료, 81)

예언의 신 연구

"먼 나라에"

1.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행한 처지에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원수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 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실물, 198)

2. 둘째 아들이 제재하는 일에 실증을 냄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싫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좇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실물, 198)

3.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을 주장함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아들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특권만을 주장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몫으로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받기를 원했다. 그는 현재의 낙을 누리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실물, 198-199)

4. 청년의 재물이 허비됨

"그는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 '먼 나라'로 갔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이 젊은이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기뻐하였다. 그 곳에는 그렇게 하면 네게 해가 될 터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악한 동무들은 그로 하여금 더욱 큰 죄에 빠지도록 부추겼다. 그리하여 그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였다." (실물, 199)

5. 큰 흉년과 궁핍 그리고 돼지떼들

"큰 흉년이 들자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지방 사람에게 얹혀 살게 되었고 그의 주인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유대인에게는 이 일이 몹시 천한 직업이었다. 한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 죄의 줄에 매인'(잠 5:22) 것이다. 즉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를 매혹시키던 찬란하고 번쩍거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와서는 속박의 쇠사슬의 무게에 눌리게 되었다. 돼지 외에는 다른 아무 친구도 없는 쓸쓸하고 흉년이 든 그 지방에서 그는 땅 위에 홀로 앉아 짐승이 먹는 팥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가 잘 살때 그에게 몰려와서 그의 돈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친구들 중에 그의 친구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허랑방탕하며 즐기던 오락은 이제 어디로 가 버렸는가? 그는 전에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의 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고 의지력은 약해져서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의 고아(高雅)한 정서는 거의 마비되어 인간 중에 가장 가련한 자가 되었다." (실물, 200)

6. 죄인의 형편은 어떠한가?

"여기에 묘사된 죄인의 형편은 얼마나 비참한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없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는다. 가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기 위하여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처럼, 또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롬 1:28).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실물, 200-201)

7. 먼 나라에 홀로 있음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은 만민이 인정하는 진리이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렘 17:5, 6).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 그러나 사람이 햇빛과 비를 안 맞으려 하면 안 맞을 수 있다. 이와같이 의로운 해가 비칠때나, 은혜의 비를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감으로 '광야 간조한 곳에 거하'게 될 수 있다." (실물, 201-202)

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감화를 끼치고 계시다. 가련한 형편에 빠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 사단이 그에게 행사한 기만적 세력은 깨어졌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롬 2:4)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 쇠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렘 31:3)고 말씀하셨다." (실물, 202)

9.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그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보이기 위하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언한다.

이 젊은이는 돼지 떼와 팥 껍질을 버리고 자기의 집을 향하여 떠난다. 그는 허약해서 비틀거리며 먹지못해 기진 맥진한 몸으로 결연히 자기의 길을 떠난다. 그는 자기의 누더기를 가리울 옷이 하나도 없다. 그의 가련한 신세가 그의 교만을 꺾었다. 본래 아들의 신분이었던 그가 종의 직분을 얻으려고 급히 달려간다." (실물, 202-203)

10.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알아 보았다.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 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드리운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끌면서 고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직 '상거가 먼데'도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한다. 여러 해 동안의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실물, 203)

11.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실물, 203-204)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12.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부친은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하였다.

침착성이 없던 청년 시절에 탕자는 자기 부친을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와같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 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벗어던지면 좋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에게 전제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인다. 죄인은 시편 기자와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시 103:13)도다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사 44:22),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렘 31:34),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렘 50:20)라고 하신다." (실물, 204-205)

13. 그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보증인

가!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자기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했는가? 그대는 죄악의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그대의 입술에서 재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그대는 그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고, 그대의 일생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대의 소망이 끊어진 채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 있지는 않는가? 오랫동안 그대에게 속삭였으나 그대가 듣기를 원치 않던 다음의 음성이 다시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그대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 2:10).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그대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2)고 초청하신다." (실물, 205)

14. 일어나 그대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실물, 206)

형의 태도

15.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음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의 화음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신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 였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 기뻐하는 노래 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물, 207)

16. 아버지의 달램(타이름)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 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아들로써가 아닌, 종으로써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勤勞生活)에서 생기는 소득(所得)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써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받은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실물, 207-208)

17.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러나 부친은 부드럽게 그 형에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것이 다 네 것이로'다고 말하였다. '네 동생이 방랑 생활을 하던 이 몇 해 동안에 너는 나와 같이 사는 특권이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선물(유산)이나 부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너는 내 사랑을 믿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실물, 208-209)

18. 맏아들이 회개하였는가?

"이 때에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실물, 209)

19. 바리새인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호소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의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방자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논박하셨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근거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苦行)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비유 가운데 맏아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이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이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그것을 탕자처럼 받기만 하면 된다." (실물, 209-210)

20. 누가 탕자인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정신

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자들은 저희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없는 자리에 두게 된다.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 6:6-8),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는 이것이니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 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사 58:6, 7)이다.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천부의 사랑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불행을 당한 자와 참회하는 자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 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 잃었다가 얻은 자가 네 동생' 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 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로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는 바깥 어두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8)." (실물, 210-211)

기억할 말씀: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펴신다." (치료, 65)

연구할 과제

1.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형벌 때문인가 아니면 영원한 상급 때문인가? (소망, 279)
2. 당시에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의 가르치는 방법이나 그가 사귀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반감을 표시하였는가? (실물, 181)
3. 그리스도께서 몇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까지 자기 생명을 바칠뻔 하였는가? (실물, 184)
4. 잃어버린 한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목자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언급해 보라. (실물, 184-185)
5.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은 넓은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물, 188)
6.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목자가 한 일을 하고 있는가? (실

물, 189)
7.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실물, 191-192)
8. 그대는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물, 195)

제14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율법

성경절 연구: 마 22:34-40

요점: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요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정로, 145)

예언의 신 연구

서론

1. 법을 누가 제정하여 주었는가?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엄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20:2).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 (부조, 305)

2.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

"이 율법은 그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 (눅 10:27; 신 6:4, 5; 레 19:18).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조, 305)

첫째 돌비

3. 첫째 계명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17).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전자(保全者)이신 여호와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

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부조, 305)

4.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表象)이나 상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 관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퇴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노여움이 삼사 대까지 밖에 미치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긍휼이 약속되어 있다." (부조, 305-306)

5. 셋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부조, 306-307)

6.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

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부조, 307)

7.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충절의 표로서 안식일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제칠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이 넷째 계명은 열 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부조, 307)

8.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사 58:13)말라. 여기서 그 금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 조차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세속적 사무를 제쳐놓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부조, 307-308)

둘째 돌비

9. 다섯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워 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 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엡 6:2)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부조, 308)

10.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까닭에)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등 이 모든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부조, 308)

11.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육욕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부조, 308)

12. 여덟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공사(公私)간의 범죄가 이 금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덟째 계명은 유괴(誘拐)와 노예 매매를 정죄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을 금하고 있다. 이 또한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정죄한다. 이 계명은 또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한다. 이 계명은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늘책에 사기로 기록된다고 선언한다."(부조, 308-309)

13. 아홉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示唆)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아홉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부조, 309)

14. 열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열째 계명은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 욕망을 금함으로써 만악의 뿌리 자체를 강타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남의 소유물에 대한 나쁜 욕심을

품는 것조차도 삼가는 사람은 그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부조, 309)

15.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로 눌렸다.

"우레와 화염 가운데서, 위대하신 입법자의 권능과 위엄을 놀랍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신 십계명의 거룩한 교훈은 이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율법의 제정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당신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감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만민에게 보이려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운 능력을 그들의 떨리는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산에서 물러갔다. 군중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9-21)라고 부르짖었다. 지도자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멀리 뒤에 남아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조, 309-310)

모세의 율법

16. 추가적인 율례가 주어졌음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律例)'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부조, 310)

17. 이 율례의 규정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최근까지 노예로 있었으나 이제 그들의 수하에 종을 거느리게 될 것이었다. 그 때 그들은 자신들도 애굽인 감독 밑에서 고생을 했으므로 그들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당한 쓰라린 고역을 회상하고 자기 자신들을 종의 입장에 두어 그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여야 하였다.

과부와 고아들의 권익이 특별히 보호되었고,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친절히 고려해 주도록 명령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출 22:23, 24)고 선언하셨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인들도 부정이나 압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였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출 23:9).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利子) 받는 것이 금지되었다. 저당 잡힌 가난한 사람의 의복이나 이불을 해질 무렵에는 되돌려 주어야 했다. 도둑질한 사람은 배로 변상해야

했다. 법관들과 통치자들을 존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며 재판관들은 거짓 송사를 도와주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비방과 중상이 금지되었고, 자기들의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백성들은 명령을 받았다.

다시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연례적인 축제들이 제정되었다. 그 때에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드릴 감사의 헌물과 그분의 축복의 첫 열매를 가지고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규정(規定)을 주신 목적이 진술되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전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니요,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출 23:9)라고 말씀하셨다." (부조, 310-311)

신정 정치를 설립함

18. 선민 국가의 창설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선민의 국가가 창설될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모세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경배하는 동안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오도록 부름을 받았다. 70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다만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현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순결과 긍휼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묵상의 대상이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제 모세와 '그 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한 동안 부재중일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는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아론과 훌을 임명하였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증거로써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으나 그분께 대한 계시나 그분의 뜻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모세는 지존자의 알현실(謁見室)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인내와 순종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살피기에 지치거나 그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받는 모세 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 교통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식일이었던 제칠일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빽빽한 구름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상에서 체류한 40일에는 준비하던 6일이 포함되지 않았다. 6일 동안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으며 다 같이 '만나를 먹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밖에 머무르면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였다." (부조, 312-313)

1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게 될 성소를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출 25:8)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세번째로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 31:17, 13, 14)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조속히 지으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이제 백성들은, 염두에 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배할 장소가 몹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도 건축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가 주어졌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무리 신성하고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부조, 313-314)

20. 십계명이 성소에 안치되다.

"이제부터 백성들은 그들의 왕의 영속적 임재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출 29:43, 45)는 보증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그분의 뜻의 구체적 표현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친수로 두 돌판에(신 9:10; 출 32:15, 16) 새겨져 성소 안에 거룩하게 안치되도록 모세에게 하사 되었다. 그리고 성소가, 건립되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하늘의 빛은 흑암에 싸인 세계를 비추어,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통치하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형태의 우상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표본이 될 것이었다." (부조, 314)

기억할 말씀: "시내에서 율법을 공포하시고 모세에게 의례의 율법의 교훈을 전달하신 분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시다." (부조, 상권 494)

연구할 과제

1.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말해 보라. (부조, 304)
2. 그 광경들을 상상해 보라. (부조, 484; 전도 601)
3. 은혜의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가? (부조, 489, 490)
4. 언제 새 언약이 비준되었는가? 부조, 490)

5. 옛 언약은 무엇인가? (부조, 395, 408-409)
6.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세우기 이전 여러 세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무엇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부조, 491)
7.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조, 491-493)
8.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늘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부조, 408)
9. 골로새서에 언급한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인가? (골 2:14; 부조, 483)

제15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 구속의 계획

성경절 연구: 창 2:7-9, 15-22; 3:1-6, 15

요점: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었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하여 놓으시지 아니하셨으나 그는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 사태를 위하여 대비하셨다." (소망, 17)

예언의 신 연구

인간의 타락

1. 경고와 주의를 주었음

"거룩한 천사들은 자주 에덴동산을 방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사단의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단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으며 그들이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들을 잘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순종할 때만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 타락한 원수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초기, 147)

2. 치명적인 죄악을 짓게 했던 네가지 잘못

"사단은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그녀의 남편인 아담과 떨어진 것이었다. 다음의 잘못은 금단의 나무 주위를 배회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 것이었다.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손을 들어 그 과일을 따먹었던 것이다. 그것은 보기도 좋았고 맛도 있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시샘했다. 그리고는 아담을 유혹했다. 하와는 뱀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말해 주고 그가 말할 능력도 가지고 있더라는 말로 자못 놀라움을 나타냈다." (초기, 147-148)

3.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투쟁

"나는 아담의 얼굴에 슬픔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움과 놀라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자에 대항하는 대적의 짓임을 확실히 알았으며 따라서 아내가 정녕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러나 하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했고 그 일에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동조자들을 얻었다. 그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고 그의 모든 지혜로운 계획들을 간파하고 싶게 만들었다. 사단은 여인이 자기 혼자 타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148)

4.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온 하늘에 알려졌을 때 거문고 소리는 그쳤고 천사들은 슬퍼하며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온 하늘은 크게 동요하였다. 범죄한 부부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다. 천사들은 저들이 계속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들이 될까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으로부터 그 죄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시고 천사들에게 즉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의 노여움을 사게 한 후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죄와 불순종하는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므로 죄가 영원히 존속토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면밀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저들을 동산 밖으로 몰아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 강한 천사들은 바른손에 빛나는 화염검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148-149)

5. 사단의 승리

"이 싸움에서 사단은 승리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자신의 타락에 참여시킴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아담과 하와도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초기, 149)

구속의 계획

6. 아버지와 아들이 회의를 하심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애와 질병과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나는 자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곧 그가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한 천사가 일러주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와 의논하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슬픔은 매우 큰 것같이 보였다.

세 번이나 그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거기서 나을 때에야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든 당혹과 의심의 빛이 걷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곧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대신 죽기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해주셨다." (초기, 149)

7. 상세한 구속의 계획

"천사들은 그들의 대장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진노와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와 질고를 지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배반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가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당하는 가지각색의 시험들을 몸소 겪으셔야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신 후에 그는 인간의 손에 넘기워져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충동으로 악인들이 행한 모든 고난과 치욕을 견디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그는 천사들도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가 그를 내리누를 것이나 그가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여 죄인들의 중보 사업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승천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초기, 149-150)

8. 천사들의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천사들은 그들의 대장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진노와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와 질고를 지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배반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가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당하는 가지각색의 시험들을 몸소 겪으셔야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신 후에 그는 인간의 손에 넘기워져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충동으로 악인들이 행한 모든 고난과 치욕을 견디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그는 천사들도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가 그를 내리누를 것이나 그가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여 죄인들의 중보 사업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승천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초기, 149-150)

9. 하늘의 천군들이 구속의 계획에 동의함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에 슬픈 빛을 띠시고 천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이후로는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과 계속 함께 있게 될 것이며, 당신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왕국을 주시고 온 우주 앞에 그를 높이실 것이며 그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사단과 죄인들은 멸망할 것이며 다시는 하늘이나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 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 천군들에게 그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계획 곧 그의 죽음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천국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의 계획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기, 151)

10. 감사의 찬양으로 회답함

"그러자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온 하늘에 가득 찼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들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곡조로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기꺼이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번민의 생애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굴욕적인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극기와 희생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초기, 151)

11. 하늘 아버지가 겪으신 투쟁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죄지은 인류를 멸망하도록 버려 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내어 주느냐 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천사들도 저들 중에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있을 만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151-152)

12. 천사들이 구속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분야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영광의 보좌로부터 강하게 향유를 받아 고난의 생애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하여 주도록 오르내리면서 봉사하는 일과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 주어졌다. 또한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사단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하여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초기, 152)

그리스도의 초림

13. 천사들이 초림의 기별을 전함

"그의 탄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장엄한 것은 못되었다. 그는 비록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나 어느 인간의 탄생보다도 훨씬 더 존귀를 받았다.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셨다는 기별을 전해 주었으며 그들의 증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따랐다. 하늘의 천군들은 거문고를 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평화와 행복과 영생이 이르게 된다는 기별을 의기 양양하게 전하였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이 강림한 것을 축하하셨다.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초기, 153)

14.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광경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가 침례받으실 때 그분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여 그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둘러섰던 군중들이 몹시 놀라 그를 응시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이가 구세주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양을 알아 볼 수 있는 한 표적을 약속하셨다. 그 표적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는 것이었다. 요한은 손으로 예수를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초기, 153-154)

15. 메시야를 증거한 선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약속된 메시야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려 주었다. 그의 사명이 거의 끝나 갈 때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대하신 교사로 따르라고 가르쳐 주었다. 요한의 생애는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였다. 그는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긴 하였으나 그에게는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뻐할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가 아니면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고독하였다. 그는 가족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가정을 떠나야만 했다. 수많은 무리가 이 선지자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 위해 복잡한 도시와 마을을 떠나 광야로 몰려 나갔다. 요한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 그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양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초기, 154)

16. 요한의 기별(증언)과 그의 죽음

"헤롯은 예리하고 강력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헤롯에게 그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헤롯은 어떤 희생도 원치 않았다. 그는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고 부인의 영향을 받아 요한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잡아 투옥시켰다. 갇혀 있는 동안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그분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없었으나 제자들이 그에게 그들이 들은 바를 전하여 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한은 헤롯의 부인의 영향으로 목 베임을 당했다. 나는 예수를 따르며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은 가장 비천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큰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존귀를 받았으며 그들 생애 동안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초기, 154-155)

17.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께서는 그 극렬한 시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사십일 동안 그는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다. 그의 주위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두려워 해야 할 불유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황폐되고 쓸쓸한 곳에서 들짐승들과 마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금식과 고통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사업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였다.

사단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유혹들을 준비하였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은 유혹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는 예수께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가 메시야임을 증거하도록 그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화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대답하셨다." (초기, 155)

18. 성전 꼭대기에서...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

도록 유혹하였다. 이 일에 사단은 영감의 말씀까지 인용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의 자비를 믿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를 바랐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이 좌절되기를 원하였으나 그 경륜은 너무 심원하여 그가 전복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신다. 저들은 시험을 받거나 반대를 만날 때 그것을 끈기 있게 견디어 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저들의 대적을 누르고 이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그것으로 그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악랄한 그의 대적 앞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는 그가 정복하러 온 사단에게 도리어 굴복한다는 뜻이 된다." (초기, 156-157)

19.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 앞에 이 세상 왕국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그에게 경배하신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사단은 자신의 세력이 제약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그 큰 일을 가능한 한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가 심사 숙고해서 만들어 낸 계획이었다. 만일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이 실패한다면 사단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한 왕국을 계속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만일 성공했다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반대를 든 한 정부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우쭐해 했을 것이다." (초기, 157)

20. 그분께서 고난의 생애와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사단은 세상 왕국이 자기의 것이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갖 고난을 겪거나 죽을 필요도 없이 세상 왕국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영광을 갖게 될 것이라고 꾀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결 같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때가 올 것이며 그 후에는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의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고난의 생애와 두려운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는 이 세상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것은 영원토록 그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그 때 사단도 그의 손에 넘기워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더이상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초기, 157-158)

기억할 말씀: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책망하는 데는 천천히 하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함에는 재빨리 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거룩한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다." (소망, 250)

연구할 과제

1.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라. (초기, 149, 150)
2. 누가 구속의 계획을 고안해 냈는가? (건강, 222)
3.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구속의 허락은 무엇이었는가? (부조, 69)
4.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귀한 일을 버리셨는가? (부조, 74)
5.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 3:15절의 약속을 저들이 어떤 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소망, 31)
6. 무엇 때문에 구속의 계획이 발표될 때에 마귀가 기뻐하였는가? (초기, 156)
7. 사단의 변장된 용모(외형)에 대하여 말해 보라. (초기, 157)
8. 침례 요한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가? (초기, 159)
9.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5가지의 이유를 말하라. (소망, 34, 38-39)
10.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한 목적은 무엇인가? (3 증언, 488)

제16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성경절 연구: 눅 4:16-21

요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아무 공이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소망, 22)

예언의 신 연구

그리스도의 봉사

1. 사단이 열었던 특별한 회의와 결의 사항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시 동안 그분을 떠나갔다. 그 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 광야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그분께 드리며 격려하였으며 그의 아버지의 축복도 그의 위에 임하였다. 사단은 그의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도 예수를 넘어뜨리는 데 실패하자 그의 봉사 기간에 기회를 보아 그를 넘어뜨려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를 미워하게 하고 그를 잡아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랐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을 모아 특별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지 못한 일로 인해 기가 죽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분노하였다. 그들은 더욱 더 간교한 계획을 꾸미는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함으로 예수로 하여금 그의 사명에 대해 절망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엄격하게 그들의 희생 제도와 의식을 엄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눈이 어두워 예언된 메시야가 권력 있는 세상의 왕으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를 조롱하고 거역하게 될 것이다." (초기, 158-159)

2.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봐 (보호해) 주었음

"나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불신과 증오와 비난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약하는 것을 보았다. 가끔 예수께서 예리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견책하셨는데 그럴 때면 백성들은 몹시 화를 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도록 저들을 재촉하였다. 여러 번 저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였으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여 성난 군중들에게서 안전한 곳으로 그를 피난시켰다. 또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명백한 진리가 발하여질 때 군중들은 그를 잡아 벼랑으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한번은 저들이 모여 그를 없애고자 모의할 때 천사들이 또다시 군중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예수께서 군중들 사이를 지나 자신의 길을 가시도록 했다." (초기, 159)

3. 예수님께서 그의 봉사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시고 사단의 능력을 물리치심으로써 그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절름발이를 고쳐 주심으로서 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의 잔혹한 세력에 눌려서 약해지고 옴싹달싹 못하던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자비로우신 말씀으로 그는 약한 자와 떠는 자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위로해 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단이 의기 양양하게 붙들고 있던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의 손아귀에서 풀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셨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려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크신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셨다." (초기, 159-160)

4.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거절함을 받았는가?

"예수의 생애는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말을 항상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가볍게 해 주셨다. 군중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겸손하고 능력 있는 그 교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지도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예수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려깊고 자아를 부정하는 생활에 의해 규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영화를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도취되어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씀들은 의미 심장하면서도 아주 평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자들이라도 그 뜻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초기, 160)

5.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였지만 인정하지는 않았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이해력을 흐리게 했다. 그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을 격동시켜 구주의 생명을 취하게 하였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있는 곳에 와서 그가 슬픔을 보고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은 그가 상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애롭고 온유한 음성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가 권위있는 음성으로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그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들을 듣고 넋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잡지 못한 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하였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들의 본 이적과 들은 사랑과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대제사장들은 저들도 역시 미혹되었다고 꾸짖었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그를 잡아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제사장들은 지도자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고 노발 대발 하였다. 나는 지도자들과 장로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그를 믿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단은 저들이 그것을 공인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저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비난을 더 두려워 하였다." (초기, 160-161)

6. 사단이 고안한 새로운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러한 사단의 계책과 증오도 구속의 경륜을 깨뜨릴 수 없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함

께 모여 그리스도를 따르던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의 피를 맹렬히 요구하게 하고 온갖 핍박과 조롱으로 그에게 모욕을 주도록 유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취급에 분노하여 그의 온유와 겸손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를 바랐다.

사단이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을 동안 예수께서는 그가 통과해야 할 고난 즉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려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력이 둔하여 그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초기, 161)

변화산의 광경

7.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

"변화산의 경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나는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야라는 강력한 증거를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겪게 될 쓰라린 슬픔과 실망 중에서도 저들의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보내셔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이야기할 상대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지상에서 고난을 경험한 자들을 보내셨다." (초기, 162)

8.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음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견책하셨으므로 그의 사업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피해 다녀야 했다. 그를 잡아 없애버리기 위하여 자기 나라에서는 들짐승을 사냥하듯 그를 쫓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승천시키셨다. 천사들은 그를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겼다." (초기, 162)

9. 모세가 죽음을 맛보았음

"모세는 그가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주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다 모세는 자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과 엄청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은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대신 그를 통하여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제안하셨던 일이 있었다 그 때 모세는 저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탄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는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려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간청했다.

물을 얻을 수 없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 놓았다.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내어 광야에 죽게 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반석을 명하여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속적인 반역과 불평이 그를 극도로 슬프게 만들어 잠

시나마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참으셨으며 또 그들의 불평이 자기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였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으며 저들을 위한 그의 깊은 사랑에 대하여 저들이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를 생각하였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려운 처지에 방치해 두셨다가 그들이 곤난을 당할 때 능력을 베풀어 구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렇게 하므로 저들은 자기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들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주의 노여움을 샀다." (초기, 162-163)

그리스도를 배반함

10. 탐심이 많은 제자 - 유다

"나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사단은 유다를 속여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항상 육적이었다. 그는 예수의 능력 있는 사업을 보아 왔으며 봉사 기간 중 줄곧 그분과 함께 했고 그분이 메시야라는 초인간적인 증거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인색하고 탐욕적이었으며 돈을 사랑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값진 향유에 대하여 화를 내며 불평하였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 여인의 사랑하는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 주셨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해도 예수께 바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향유가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구주께 바침으로써 그분에 대한 자신의 고마움을 더욱 더 크게 표시할 수 있었다.

유다는 자기의 탐욕에 대한 변명으로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동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항상 이기적인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 둔 것들을 가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유다는 남을 돕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의 필요마저도 돌보아 주지 않았다. 자기의 탐욕을 변명하기 위하여 자주 가난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리아가 베푼 관대한 이 행동이 탐욕적인 그의 마음에는 가장 큰 비난거리가 되었다. 유다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벌써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초기, 165)

11. 한 제자는 배반하고 다른 한 제자는 부인함

"유다는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고 은 몇 냥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기로 약속하였다. 돈에 대한 애착심이 유다로 하여금 그의 주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게 만들었다. 사단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통해 일하고 있었으며 감명적인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 배반자는 그의 주를 넘겨 줄 계획을 마음속에 추진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슬픈 기색으로 그날 밤 그의 제자들이 모두 다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항상 적극적인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열을 올리며 말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 32)." (초기, 166)

12.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동산에 계신 장면을 보았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저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저들의 소망이 무너져 내릴 것이므로 저들이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큰소리로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심한 고민 속에서 기도하셨다. 굵은 핏방울이 얼굴에 맺혔다가는 땅에 떨어지곤 했다. 많은 천사들이 이러한 주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 한 천사만이 가서 위로해 주도록 보냄을 받았다. 하늘에는 기쁨이 사라졌다.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과 거문고를 벗어 던지고 물을 끼얹듯 한 침묵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싸고 싶었지만 지휘하는 천사가 저들의 주님이 배반당하시는 것을 보고 구해낼까봐 그들을 제지시켰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세워진 대로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 그토록 두려운 순간에 그는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조차 동정을 받지 못하셨으며 그들마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그처럼 열을 올렸던 베드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그 자신이 한 단호한 선언을 상기시키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 번씩이나 고민 가운데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그의 주님께 나아가 인사를 드렸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쌌다. 그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로라'하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졌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은 저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신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초기, 166-167)

13. 예수께서 성난 폭도들에게 자기를 허락하여 굴복하셨음

"제자들은 그 때 무장한 무리들이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싸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 잘라 버렸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집에 꽂으라고 명하신 후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천사들의 얼굴에 회심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들은 내려가 저들의 사령관을 둘러싼 다음 성난 폭도들을 쫓아 버리고자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덧붙여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천사들은 또다시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원수들에게 넘겨 주시고 말없이 그들에게 끌려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낙담으로 어두워졌다." (초기, 167-168)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심문)

14.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심

"천사들이 하늘을 떠날 때 슬퍼하며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 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령관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것을 쓰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없애 버리기 위하여 법정 안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법정 분위기는 엄숙했고 저들의 영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 인성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 놓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신성을 드러내어 폭도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므로 구속의 경륜이 마침내 실패하게 되기를 바랐다." (초기, 169)

15. 미쳐 날뛰는 군중들에게서 당하신 대우

"군중들은 미친듯이 예수의 피를 요구했다. 그들은 그분을 잔인하게 매질했고 그의 몸에 낡은 홍포를 입히는가 하면 그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들은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갈대를 다시 빼앗아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마구 쳤다. 그러자 가시가 그 거룩한 이마를 찔러서 붉은 피가 그의 얼굴에서 턱 밑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초기, 170)

16.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심문받으시는 법정에 들어가 그의 고난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신성을 사용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자기에게 잔인하게 구는 무리를 벌하시기를 바랐다. 장면이 바뀌어짐에 따라 그들의 기대도 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산상에서 그들이 들은 음성과 그들이 본 영광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그들이 목격한 일 즉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귀신들을 꾸짖어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던 일과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케 하시던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을 능력을 행하셔서 몰아내실 때 그들로 무장한 군사들에게 쫓기듯이 도망하게 했던 것처럼 큰 호통을 쳐서 피에 주린 폭도들을 쫓아 버리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초기, 170-171)

17.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었지만...그러나

"유다는 심한 가책을 느끼며 예수를 넘겨 준 자기의 반역적인 행위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리고 그는 구주께서 갖은 모욕을 참는 것을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예수를 사랑하긴 하였으나 그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넘겨준 폭도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이 법정에서 그분의 피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심한 죄책감에 눌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있을 때 유다는 군중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아 범죄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니 예수를 풀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초기, 171-172)

18.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자백함이 백성들에게 폭로됨

"잠간 동안 그의 번민의 부르짖음과 그로 인한 혼란이 제사장들을 침묵시켰다. 저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 하나를 매수하여 그분을 붙잡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도둑을 잡듯이 비밀리에 끌고 온 사실이 탄로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다의 고백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그의 핼쑥하고 얼룩진 용모는 제사장들이 증오심 때문에 예수를 잡아왔다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폭로하였다. 유다가 예수의 무죄함을 큰소리로 외치자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놓아 줄 수 없다고 결의했다. 유다는 괴로움에 못이겨 그 돈을 저들 앞에 내던지고 번민과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을 맸다." (초기, 172)

19. 예수의 일로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친구가 됨

"빌라도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안도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예수를 정죄하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예수를 고소자들과 함께 헤롯에게로 보냈다. 헤롯의 마음은 죄에 대하여 굳어 있었다. 침례 요한을 죽인 살인자의 양심에는 그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오점이 남아 있었다. 그가 예수님과 그가 행한 놀라운 이적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그의 손에 넘겨 주자 헤롯은 그것을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심판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헤롯은 예수께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만나게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업이 아니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였다." (초기, 173-174)

20. 또 한번 실패한 사단은 매우 노하였다.

"사단은 그가 유대인들을 유인하여 예수님께 가했던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마디의 불평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예수께서는 비록 인성을 취하셨을지라도 하나님다운 면모를 한결같이 지니고 계셨으며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거스리지 아니하셨다." (초기, 174-175)

기억할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동정과 사랑이 있는 인간적인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으며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측량할 수 없다." (5증언, 316)

연구할 과제

1. 모세의 위대함에 대하여 토론해 보라. (초기, 167, 168)
2. 변화산에 나타난 바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초기, 169)
3.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웠었는가? (초기, 171)
4. 천사의 무리가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에 파송되었는가? (초기, 173)
5. 언제 베드로가 진정으로 뉘우치게 되었는가? (초기, 174)
6.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의 사령관을 구출하는 일은 무엇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초기, 175)
7. 헤롯을 고민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빌라도는 어떤 확신을 가졌었는가? (초기, 178)
8.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초기, 179)

제17과 커다란 희생 - 십자가

성경절 연구: 사 53장

요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시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느르던 발도 나무에 못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하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바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 은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신 분이 자신의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행하신 것이다. 죄를 지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신다." (소망, 290)

예언의 신 연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

1.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까지 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백성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고귀한 구주를 끌고 갔다. 그는 매와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셨다. 고통과 피곤함으로 기운이 진하여져서 실신하시기도 하셨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리어 기절하셨다. 세 번이나 그는 십자가를 멘 채 넘어지셨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운명의 현장까지 갔다. 천사들의 무리들이 그 장소의 바로 위 하늘에 정렬하고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슬퍼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갈바리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며칠 전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분의 승리의 입성을 따라가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 때 그들은 그분께서 나라를 취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시리라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다른 장면인가! 그들의 기대는 산산 조각이 나버렸다! 기쁨과 벅찬 희망이 아니라 떨림과 절망과 상한 심정으로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침통한 모습으로 치욕과 학대로 거의 돌아가시게 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 (초기, 175)

"그 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이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 때 이후로 그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소망, 742)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그의 마음은 다정한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고민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그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도록 놔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자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준비는 완료되었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떨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큰 못이 그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뼈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불평은 하시지 아니하셨으나 고통 중에 신음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기뻐 날뛰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구원의 경륜을 좌절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따라서 자기의 왕국을 잃게 되어 끝내는 멸망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초기, 175-176)

3.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치 왕 앞에 경배하듯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로 모욕하였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은 사단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말이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위를 날고 있던 천사들은 법관들이 그를 조롱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 하고 말 할 때 분노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내려가 예수님을 구해내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초기, 176-177)

4. 그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더이상 멀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두려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동정과 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신 다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셨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하셨다. 그 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초기, 177)

5.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신 포도주를 해융에 적시어 그분께 드렸다. 그는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태양도 이 무서운 광경을 비추기를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으며 이 소리는 살인자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일으켰다. 그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땅은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졌다. 칠흑같은 암흑이 지면을 덮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지막 소망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고통과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추종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초기, 177-178)

6. 슬픔과 절망이 저들에게 임하였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지며 온 땅이 암흑으로 덮여 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의 크고 강한 부르짖음은 그의 원수들을 떨게 했다. 제자들은 이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들의 희망은 모두 깨어지고 말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의 증오가 이것으로써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한적한 시간에는 절망과 낙담에 빠져 통곡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으나 이러한 희망은 그의 죽으심과 함께 무너져 버렸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그분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그를 메시야로 믿던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초기, 179-180)

7.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함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몸을 고이 장사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유대인으로서 그분의 신실한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히 빌라도에게 가서 구주의 시체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증오심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찾아가 그분의 시체를 요구할 수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한 장소에 안치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그 반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생명없는 그분의 몸을 내리면서 실의에 젖어 사라진 저들의 소망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들은 그분의 시체를 세마포로 조심스럽게 싸서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했다." (초기, 180)

8. 두 무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그분을 겸손하게 따랐던 여자들은 그분의 원수들이 혹시 그분의 시체를 가져가지나 않을까 염려해서 그분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큰 바위를 문어귀에 놓을 때까지 그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의 왕을 무덤에서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안식처를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 180-181)

그리스도의 부활

9. 능력있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급속이 내려왔음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그 안식일을 지냈다. 밤에는 군인들이 구주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하여 배

치되어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그 거룩한 장소의 주위를 날고 있었다.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동이 틀 무렵에 수호하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인 하나님의 아들이 해방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 그들이 감동적인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능력 있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신속히 날아왔다. 그의 얼굴은 번갯불과 같았으며 옷은 눈처럼 희었다. 그의 빛으로 그가 달려오는 길에 깔렸던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고 예수의 몸이 저희 것이라고 주장하던 악한 천사들도 그 영광과 찬란한 빛 때문에 두려워 달아났다.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하시던 광경을 보아왔고 이제 그의 안식처를 지키고 있던 천군 중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이 무덤에 내려갔다. 그들이 가까이 이르자 땅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초기, 181)

10. "당신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나이다."

"두려움이 로마 군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의 시체를 지키던 그들의 권세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 갈 일이나 자기들의 책임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천사들의 광명이 두루 비칠 때 로마 군병들은 죽은 자들처럼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두 천사 중 하나가 큰 돌을 무덤의 입구에서 굴려 내어 그 위에 앉았다. 다른 천사가 무덤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머리에 둘리웠던 수건을 풀었다. 그 때 하늘에서 온 천사가 땅을 뒤흔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나오소서' 하고 외쳤다. 죽음의 권세가 더이상 그분을 지배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엄숙한 두려움 속에서 천사의 무리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자 그 빛나는 천사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승리와 개선의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였다." (초기, 181-182)

11. 정복자로 무덤에서 나아오심

"사단의 부하들은 하늘 천사들의 밝고 찬란한 빛에 쫓겨나 그들의 왕에게 가서 그들의 포로를 억지로 빼앗겼으며 그들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신 사실에 대해 신랄하게 불평하였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타락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무덤에 묻히게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으나 그 가증스런 승리의 순간은 너무나 짧았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영광의 정복자로서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사단은 얼마 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과 지상 왕권이 이전의 주인이셨던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 사단은 자기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고 한탄하고 분개하였다." (초기, 182)

12.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함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바위가 터지며 땅이 흔들리고 몇 개의 무덤들이 열렸었다. 그가 죽음과 무덤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살아나셨을 때 땅이 흔들리며 영광이 거룩한 처소를 비추고 있는 동안 그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덤에서 나왔다. 은혜로 부활한 성도들은 영광으로 화하였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려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였다." (초기, 184)

13.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

"부활한 사람들은 키와 모습이 각각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 용모가 더욱 고상하게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이 지구상의 거민들이 점점 퇴화되어 그들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상실해 왔다고 가르쳐 주었다.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각 시대를 통해 내려오는 동안 그같은 저주의 결과는 점점 뚜렷해져서 사단의 본성은 더욱 더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보아라.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양과 아름다움과 능력에 있어서 천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기가 더욱 쉬워 생명이 더욱 단축되었다. 사단은 인류를 괴롭히고 쇠약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터득했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 나타나 '인류를 위한 대가가 치르어졌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부활했다'고 확신있게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셨음을 증언하였다. 거짓 소문들이 퍼졌으나 이 거룩한 무리들이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놀람과 기쁜 소식들을 전했다. 예수께서도 슬픔에 젖어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저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셨으므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숨길 수 없었다.

이 소식이 도시에서 도시로 거리에서 거리로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제자들을 향하여 품었던 증오심을 감추어 버렸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거짓 소문이 참되기를 바라던 자들은 거짓을 참된 사실로 받아들였다. 빌라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떨었다. 그는 그 증언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그로부터 그는 영원토록 평안을 되찾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리고 지위와 생명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나머지 예수를 죽이도록 넘겨 주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가 피 흘리도록 넘겨준 사람이 단순히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빌라도의 생애는 그의 생명을 마치기까지 너무나도 비참했다. 절망과 고뇌가 소망과 기쁨의 모든 정서를 파괴시켰다.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마침내 비참하게 죽었다." (초기, 184-185)

14. 빌라도와 헤롯의 최후

"빌라도의 생애는 그의 생명을 마치기까지 너무나도 비참했다. 절망과 고뇌가 소망과 기쁨의 모든 정서를 파괴시켰다.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마침내 비참하게 죽었다.

헤롯의 마음은 더욱 더 굳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야곱의 생명을 취했을 때 유대인들이 몹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으므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다.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초기, 185-186)

15. 경건한 여인들이 무덤에 옴

"주일 중 첫날 아침 아직 날이 새지 않은 미명에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그 큰 돌이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고 예수의 몸은 무덤 속에 없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그분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였다. 갑자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 이 하늘 거민들은 그 여인들이 왜 무덤에 왔는지를 알아차리고 곧

그들에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밖에 볼 수 없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기쁨에 벅차 여인들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급히 돌아가서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으나 그들과 함께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그분이 입으셨던 세마포는 보았으나 그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해 준 소식과 또 자기들이 본 것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기만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무덤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였다. 그 여자는 새로운 사연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슬픔이 북받쳐 올라 그녀는 몹시 울었다. 그녀는 다시 구부려 무덤속을 들여다보다가 이번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다른 천사는 그분의 발이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내 주를 훔쳐 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초기, 186-187)

16.의심많은 제자 - 도마

"그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겸손히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태도로 그가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날카로운 창날에 찔린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구주를 직접 보고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을 친히 만나 보았다. 그러나 그는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만져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그때서야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불신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고 말씀하셨다." (초기, 188)

17. 사십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심

"예수께서는 사십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재함을 공개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곧 그분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증언을 하라는 사명을 위탁하셨다. 진지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는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들이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하고 그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과 시련들을 견디어 내심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사단은 그분을 더이상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제자들과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더 노골적으로 유혹의 손길을 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시시 때때로 당신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들의

사명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들의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그들이 증거한 증언들은 그들의 표로 인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분을 열심히 따르던 자들은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흘러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즐겁게 귀를 기울였다 이제 그들은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알았다. 그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졌다. 그들은 하늘의 교사와 머지 않아 이별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의 입술에서 흘러 나오는 위안과 은혜의 말씀은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몹시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심령은 다시 한번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뜨거워졌다. 그는 또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 (초기, 189-190)

그리스도의 승천 - 하늘 아버지께로 가심

18. 문들아 !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온 하늘은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들은 영광의 왕을 모시고 의기 양양하게 하늘까지 호위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어났던 무리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하늘 천군들이 함께 하였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들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하고 외쳤다. 그 성안에 있던 천사들은 환희에 넘쳐서 '영광의 왕이 뉘시뇨'하고 물었다. 다시 호위하던 천사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하고 응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안에서 기다리던 천사들이 '영광의 왕이 뉘시뇨'하고 묻자 호위하던 천사들은 또다시 아름다운 곡조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렬은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그들의 위대하신 사령관을 둘러싸고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그 앞에 엎드리며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금거문고를 뜯자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이제 위엄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어린양에 대한 찬미와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 채웠다." (초기, 190-191)

19. "올리우신 이 예수는...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승천하시는 주님이 가물거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해 주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날 밤 그의 짧은 생애 동안에 있었던 기이한 이적들과 이상하고도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초기, 191)

20. 마귀가 또 하나의 회의를 소집함

"사단은 다시 그의 사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심한 증오심을 나타내며 이 땅 위에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 존속하는 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십배나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리

스도와의 싸움에서 전혀 승리를 얻지 못했으나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가능한 한 넘어뜨려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할 것임이 틀림없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꾸짖고 쫓아낼 뿐 아니라 자기들이 괴롭힐 자들을 치유할 능력도 주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들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초기, 191-192)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래 영원까지 구속을 받은 자들의 과학이 되고 찬미가 될 것이다. 저들은 그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쟁투, 651)

연구할 과제

1. 어찌하여 두 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는가? (초기, 181)
2.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신 기도는 응답이 되었는가? (소망 3권 274-275)
3.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사단이 그리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 183)
4.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날 어떤 세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는가? (소망 3권 309-310)
5.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의 예수님과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을 비교해 보라. (초기, 184)
6.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가? (초기, 188, 189)
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해 보라. (초기, 191-192)
8.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인간이셨는가? 아니면 신이셨는가? (2증언, 201; 소망 3권 18, 153)
9.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되었는가? (고전 15:17; 초기, 193)

제18과 성령의 하시는 일(역사)

성경절 연구: 요 16:7-15

요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이른 비이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구하여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실물, 115)

예언의 신 연구

그(성령)의 개성과 신성

1.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대표)함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自主)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소망, 669)

2. 성령의 개성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가 생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따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제 삼위되시는 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 삼위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지극히 높으신 세 분의 능력과 협력 — 우리는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전도, 616-617)

3. 신성의 삼위되시는 분 - 성령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 삼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에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소망, 671)

그(성령)의 선물과 열매

4. 성령의 선물(은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 12:8-11).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종들 각자에게 어떤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작별하실 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눅 24:49)라고 말씀하셨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써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았다. 그 때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엡 4:8).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엡 4:7),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 12:11).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 있다." (실물, 327)

5.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실물, 60)

그(성령)의 일과 사업

6. 보혜사- 진리의 성령 - 위안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

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소망, 671)

7.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음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지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소망, 172)

8.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

"아무도 남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명령에 의하여 어떤 물건을 갈아내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할 설교를 미리 내어 주지 말 것이다.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지런한 연구를 통하여 도움을 구하도록 하라. 그들이 이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을 복음 사역에 부르신 그분께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에게 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6 증언, 415)

9. 신비한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아직 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요 불완전하다. 대쟁투가 끝나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서 그분을 위하여 참 증거를 해 온 그분의 충성된 일꾼들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때,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신비가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8 증언, 267)

10.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함

"외형적 형식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 가장 성자다운 사람이 집례한 의식도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 한다. 거듭

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알곡 가운데 있는 쭉정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철저하게 정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말 3:18)를 분별하실 것이다." (5 증언, 227)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성령)의 능력

11. 이교국(이방 나라)에서도 역사하심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교국(異敎國)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예가 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한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덕성을 야만인의 마음속에 넣어 줌으로 저희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정심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은 그들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실물, 385)

12.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드럽게 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열렬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새로운 회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친 정신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지도를 바라는 그분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계획이 어느 곳에서 제시될지라도 실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열성을 보는 자들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 (9증언, 107-108)

13. 그렇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지 않을 것임

"주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이 남의 고난에 대하여 부드러워지고 민감해 질 때 인간의 고통을 가여워 할 때에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인간 일꾼들과 협력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며 상처받아 가련한 영혼을 처참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6 증언, 303)

14. 오류와 진리를 구별하게 될 것임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실물, 408-411)

15. 영적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인상지게 함

"이와같이 우리들도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와 친숙해져야 한다. 실로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이므로 우리는 이 책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 주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우리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

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의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실물, 24)

16.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한 번의 만짐과 한마디의 말씀과 한번 쳐다봄으로써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신뢰하기를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그처럼 큰 희생을 하신 분보다 더 크게 신뢰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분명히 교훈하신다.

인간의 도움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 5:14, 15).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마음의 순결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들은 심령과 육체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증언, 196)

17.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

"오순절 날에 무한하신 분께서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 드러내셨다. 그 분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 높은 곳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내려오셨다. 그것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이 감화가 제지당해 왔던 것 같았다. 이제 하늘은 영의 능력의 풍성함을 교회에 부어 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영의 감화 아래서 회개와 고백의 말들이 용서받은 죄들에 대한 찬양의 노래들과 함께 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들이 들렸다. 온 하늘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지혜를 바라보고 추앙하기 위해 아래로 굽혔다. 놀라움에 넋을 잃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일 4:10)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나누어 받은 선물을 굳게 붙잡았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따랐는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회개했다.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의 전광으로 감싸진 영의 검은 불신을 꺾고 나갈 길을 열었다." (7 증언, 31)

18.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속해 있음

"성령의 약속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시간에도 그분의 영과 그분의 은혜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일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화는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 (행 4:32)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와 모든 회중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8 증언, 20-21)

19.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8 증언, 22)

20. 더 많은 분량을 주실 것임

"만일 제자들의 사업에 대한 역사의 기록에서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할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운과 생기를 얻어 거룩한 열성으로, 활동한 그대로 기록되었을까? 그 당시에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것은, 오늘날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요긴하고, 더 한층 요긴하다. 사도들이 한 모든 것은 오늘날 모든 교인이 해야 한다. 그리고 죄악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결정적인 회개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크게 힘입어 더 큰 열성으로 일해야 한다." (7 증언, 33)

기억할 말씀: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애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생애를 바친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8증언, 19)

연구할 과제

1.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은 무엇으로 상징된 것인가? (쟁하, 146)
2. 성령을 대항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소망, 2권 47)
3.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5 증언, 120; 소망, 2권 43, 47)
4. 성령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라. (행적, 53)
5.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사용할까? (소망, 3권 164)
6. 부조 시대에 사람들을 위하여 행한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비교해 보라. (행적, 39)
7.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비교해 보라. (행적, 56-58)
8. 믿음으로 주장할 것같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가? (목사, 174)
9. 성령이 내릴 때는 언제인가? (목사, 511)
10. 성령의 7가지 상징을 찾아보라. (4 증언, 318; 8 증언, 21; 소망, 1권 126, 172; 실물, 430)

제19과 천사들의 하는 일(역사)

성경절 연구: 시 8:4, 5; 34:7; 마 18:10; 히 1:14

요점: "다른 사람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하늘 천사들과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끊임없는 우정을 저들(천사들)과 나누고 있으며 계속되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빛과 능력의 천사들은 보호하고, 위로하고, 고쳐 주고, 가르쳐 주고, 영감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저들 곁에 서 있다." (6 증언, 307, 308)

예언의 신 연구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1. 천사들의 삼분의 일

"만일 어떤 사람들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것처럼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들에게는 동조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건전한 원칙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보다도 개인에 의하여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저들은 비 헌신적인 상태에서 잘못된 이들 편에 언제든지 서게 되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물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동조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사물은 왜곡된 빛 가운데에서 보여지며, 커다란 해가 가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파멸에 빠진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우리 앞에 이러한 사실이 있으므로 우리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행동해야 한다. 특별한 마음을 가진 남녀들로 더불어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궁지 속으로 빠져드는 것 외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명심하고 알곡마저 뽑을까 봐 가라지를 뽑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증언, 114-115)

2. 사단에게 바치는 예물(재물 또는 헌물)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급한 기질을 억제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과 분노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 그에게 굴복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게된다. 귀에 거슬리는 불쾌한 모든 말, 성급하고 불평하는 모든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 바쳐진 제물이다. 그것은 값비싼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보다 더 값비싼 제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건강을 손상시키고, 마침내 영생의 행복을 박탈해 버리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제지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 그것은 우리의 취미를 세련되게 해

주고, 우리의 판단을 거룩하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과, 마침내는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 거룩한 제지 아래 우리는 은혜와 겸손 안에서 자라가고 바르게 말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육신적이며 급한 기질은 정복될 것이다.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께서 매시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봉사하는 천사들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머물다가, 우리가 거룩한 생애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하늘로 가져 갈 것이다.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는 즐겁고 기쁜 기록을 남길 것이다." (1 증언, 310)

3. 악한 천사들이 영혼들과 싸움

"나는 악한 천사들이 영혼들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싸움은 격렬했다. 악한 천사들은 이 영혼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유독한 영향으로 공기를 더럽히면서 그 사람들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열렬히 주시하면서,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지와 반대되게 지배하는 것이 선한 천사들의 일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원수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저항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더 큰 빛이 주어져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각성하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까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단의 군대를 제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구출하도록 거룩한 천사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단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고통과 열성으로 힘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단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자들의 원조를 요청하여 그 가련한 영혼을 둘러 싸고, 그에게 하늘의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흑암의 벽을 쌓는다. 그러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 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부른다. 그러나, 하늘의 갑옷을 입은 강한 천사들이 피곤하고 쫓기는 영혼을 도와 주기 위하여 나타나면, 사단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전쟁이 패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 자원하는 사단의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활동적이고 한 목적에 연합되어 있다. 비록 그들이 피차간에 다투고 미워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위대한 사령관께서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셨다." (1 증언, 345-346)

인간을 돕기 위한 천사들의 봉사(일)

4.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함

"천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이 비천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일, 곧 비참한 자들과, 품성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열등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늘 궁정의 순결하고 죄없는 천사들이 하는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며, 하늘의 기쁨의 정수이다." (3 증언, 381)

5. 초라한 오막살이에서도 봉사하는 천사들

"고통과 가난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길을 갖지 못할 것이며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늘 아버지를 알 길도 없을 것이다. 복음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지역으로 전해질 때 가장 매력 있는 모습으로 단장된다. 가장 밝은 광채와 가장 큰 능력으로 그 빛이 비취는 것은 그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는 농부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가고 의의 태양에서 나온 광선은 가난한 자들의 조야(粗野)한 작은 집을 밝히고 병들고 고통받은 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표현된 단순한 믿음은 딱딱한 빵 조각과 물 컵을 잔치 자리로 만든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께서는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어 먹게 하신다. 그들은 생명수를 마신다. 혐오되어 버림받은 자들이 믿음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위신으로 높임을 받는다. 그들은 세상에서 들어 올려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저택에 앉는다. 그들이 세상의 보화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7 증언, 226)

6.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의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 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 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다.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 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집회도 방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지속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쟁투, 631-632)

7. 압박받는 자들을 위해 탄원하기도 함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회의에 천사들이 대변자로 참가하는 일이 종종 있다.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목격하고, 사람의 귀로 그들의 호소를 듣고, 사람의 입술로 그들의 제의를 반대하고, 그들의 권고를 조롱하고, 사람의 손으로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해 왔다. 의회와 법정에 있어서 이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 역사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들 자신이 압박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유능하고 능변적인 옹호자 이상으로 호소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그러한 목적들을 깨뜨리고 악을 제지시켜 왔다. 위협하고 고통스런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 34:7)신다." (쟁투, 632)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천사들의 일(봉사)

8.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임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백성들이 의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들을 지켜 줄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단의 땅에서 모험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보호의 약속이 없다. 큰 기만자의 대리자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이나 말하고 행할 것이다. 그가 그 자신을 강신술자, '전력 치료 의사', 혹은 '자력 치료자'라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별반 상관이 없다. 허울 좋은 가장을 통하여 그는 부주의한 자들의 신임을 얻는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자들의 생애의 역사를 알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는 체한다. 검은 함정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의 조언을 구하는 여자들에게 큰 관심을 나타낸다. 그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불행한 결혼 때문에 생긴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담자는 그들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복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하면서 그는 의심하지 않는 그의 희생자들에게 마법을 행사하여 마치 뱀이 떨고 있는 새에게 마력을 거는 것처럼 그들에게 마력을 건다. 미구에 그들은 완전히 그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 죄, 수치, 파멸 등이 무섭게 이어진다." (5 증언, 198)

9. 마귀가 우리가 가진 것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명까지 취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과 악의에 놀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써는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반 없다. 만일 사단에게 맡겨진다면 그는 우링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의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보호의 벽을 깨뜨릴 수 없다." (쟁투, 517)

10. 하나님의 천사가 소경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하나님은 맹인과 불행한 자들의 친구인 반면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 정복하신 분의 이름으로 그들도 정복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전케 하라고 그분께서는 요구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동정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던지기만 한다면, 시련의 때에 견딜 수 있도록 또한 사단의 시험을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자 하신다. 천사들은 신체적으로 눈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파송되고 있다. 천사들은 저들의 발걸음을 지키며, 그들의 길에 놓여져 있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께서는 그들이 친절한 정신을 간직하고, 자신의 성질을 지배하기 위해 열렬히 노력하며 그들의 정욕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한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정신을 계발하여야 하며, 말과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3 증언, 516)

11. 풍랑에 처해 있는 배가 천사에 의해 보호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별 전용실을 향해 떠났을 때, 나는 갑판에 계속 머물렀다. 선장은 내게 등받이가 있는 안락의자를 마련해 주었으며, 찬 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담요를 주었다. 나는 객실로 들어가면 아플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밤이 오자 어두움이 바다를 뒤덮게 되었고, 맹렬히 돌진하는 파도는 우리 배를 무섭게 내던지곤 했다. 이 거대한 배는 무자비한 물위의 한낱 나무토막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배는, 그분의 명령을 행하라고 명을 받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휘황찬란한 배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순식간에 다 삼켜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를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4 증언, 288-289)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천사들의 일

12. 죄인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함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아첨할 기별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성화되지 못한 자들을 진정시켜 육적인 안전 속에 빠지도록 아무런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릇 행하는 자의 양심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시고, 그의 영혼을 회오의 날카로운 화살들로 찌르신다. 수종드는 천사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제시하여, 그의 큰 필요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키고 다음과 같은 고뇌 어린 부르짖음을 촉발시킨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티끌에까지 낮아지도록 굴욕을 주시고, 죄를 견책하며, 교만과 야망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바로 그 손이 참회하고 매맞음을 당한 자들을 들어올리시면서, 매우 깊은 동정심으로 이렇게 질문하신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 증언, 178)

13.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과 협력하기 위하여 천사가 기다림

"하늘은 모두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모든 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은 모든 참 성도들에게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행 5:20)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길을 그들 앞에 열어 놓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6 증언, 433-434)

14. 천사들은 인간들과의 협력 단체를 형성함

"천사들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모든 이들의 영적 복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상의 가족은 죄가 만든 크고 작은 상처를 싸매는 일에 하늘 가족과 연결해야 한다. 천사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인간 대리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 사단이 최상권을 얻기 위해 싸울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늘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그 천사들, 세상과 죄 없는 거민의 창조로 인해 기쁜 소리를 외쳤던 그 천사들, 인간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을 목격한 천사들 바로 이 하늘의 사자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망해 가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타락했으나 구속받은 무리와 연합하여 일하고자 가장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6 증언, 456)

15.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함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모든

흑암의 악마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동안 영광중에 있는 모든 천사는 그것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 속에 간직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그분의 모든 부를 상속하는 후사로 삼으시고자 제안하심으로 영혼들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실증하셨다. 그분은 범죄한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고 그분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제시하신다." (5 증언, 204)

16. 인간들이 성공할 때에 천사들이 기뻐함

"시험에 빠져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잃어버린 양으로 대표되어 있다.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발견하기까지 찾아 다녔다. 그리고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왔다. 또한 잃어버린 은전을 발견할 때까지 찾은 한 여인의 예증에서, 그녀는 이 잃은 은전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 기쁨을 함께 했다.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일꾼들과의 연결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 아홉의 의인들보다 한 죄인이 회개한 것이 하늘의 천사들 앞에는 더 큰 기쁨이 된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께도 기쁨이 있다. 온 하늘은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사람은 무한한 기쁨을 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노력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으며, 그의 성공을 그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다." (4 증언, 263-264)

천사들이 하는 다른 봉사(일)

17. 하늘에서 기록하는 일을 함

"많은 이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졌고, 그들의 이름이 교회 녹명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들의 기록은 얼룩져 있다. 기록하는 천사는 그들의 행위를 철저히 기록하였다. 모든 이기적 행위, 모든 잘못된 말, 이행되지 않은 의무, 모든 숨겨진 죄가 모든 간교한 위선과 함께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 철저히 기록책에 수록된다." (2 증언, 442)

18. 기록하는 천사들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기록함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대화의 주제이며, 남자들은 소녀들에 대해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 기록하는 천사들이 이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소년 소녀들의 말을 기록한다. 그들이 그 기록을 하나님의 날에 보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하겠는가! 많은 아이들은 경건한 위선자들이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친구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대하여도 마음을 굳게 닫고 만다." (2 증언, 460)

19. 면류관을 만드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음

"…주님께서 당신의 보배들을 만드실 때, 진실한 자, 솔직한 자, 정직한 자들은 기쁨으로 우러러보는 대상이 될 것이다. 천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별이 박힌 면류관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 오는 빛이 찬란하게 반사될 것이다." (5 증언, 96)

20.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음

"자기들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아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아 불게 할 때가 얼마나 오랠는지?" (6 증언, 426)

기억할 말씀: "하늘이 이땅에 임하게 될 날이 아주 가깝게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빛의 천사들은 저들의 동료로서 서 있다." (6 증언, 366)

연구할 과제

1.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천사들이 생명을 바침으로 이룩될 수 없었던 이유는? (4 증언 , 120; 부조, 상권 65)
2.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한 시간에 대해 말한 천사는 없었는가? (4 증언, 307)
3.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떠한 존재가 마련되었는가? (쟁투, 하권 323)
4.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지도를 받았는가? (6 증언, 366)
5. 천사들과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 더 거룩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5 증언, 739)
6. 그리스도는 현재 신성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천사 또는 인성으로 계시는가? (소망, 1권 22; 2권 27)
7.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 사이에서 중재한 10개의 예를 살펴 보라. (부조, 하권 312, 313; 선지, 155, 156, 520, 521, 578, 579; 소망 1권 321-323; 3권 252-254; 행적, 81, 82, 145, 146; 쟁투, 상권 417, 418; 하권 61, 62)
8. 계시록 12:10절의 말씀이 어떤 경우를 생각나게 하는가? (소망, 3권 299-301)

제 4 장

그리스도인 생애를 위한 모본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됨

제20과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절 연구: 시 144:3, 4; 고전 15:42-45

요점: "…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을 그 창조함을 받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에로 돌아게 하여 지, 덕,체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구속 사업이 될 것이었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요 인생의 큰 목적이다." (교육 21)

예언의 신 연구

육체를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1.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육체적 능력을 보존하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가장 큰 자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놀라웁고도 훌륭하게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일을 방지하는 일에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명령하신다." (치료, 271)

2. 운동과 노동을 해야함

"목사, 교사, 학생, 그 밖의 정신 노동자들은 육체적 운동으로 제거되지 않는 심한 정신적 부담으로 초래된 질병 때문에 때때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많은 활동적인 생애이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병행되는 엄격한 절제의 습관은 정신적, 육체적 활력을 확보해 주고, 모든 정신 노동자들에게 인내력을 줄 것이다.

육체적 힘에 지쳐 있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완전히 그쳐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이 가장 큰 유익이 되려면 조직적이요 유쾌한 것이어야 한다. 옥외의 활동이 가장 좋다. 그것은 약화된 기관들을 사용함으로 강하게 되고, 마음이 그 속에 집중되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손으로 하는 노동이 단순히 힘든 일

로 결코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치료, 238-239)

3. 혈액 순환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심장이 고동할 때마다 피는 몸의 각 부분으로 빠르고 쉽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몸에 지나치게 끼는 옷을 입거나 띠를 졸라매거나 극단에 속한 부적당한 옷을 입음으로 피의 순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피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피를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응혈이 생기게 한다. 두통, 기침, 심장동계(心臟動悸), 소화불량 등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치료, 271-272)

4. 호흡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 준다.

폐는 가능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폐의 용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된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그런 자세로써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곧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단단히 졸라매는 일에 의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가슴의 아래 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지 않게 되고, 호흡을 도와 주기 위하여 마련된 복부의 근육이 충분히 활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폐는 그 활동에 장애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진다. 피는 천천히 순환하게 된다. 폐에서 나와 버려져야 할 찌꺼기, 곧 해로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피가 더러워진다. 폐뿐만 아니라 위장과 간과 두뇌도 영향을 받는다. 피부는 누르스름해지고, 소화는 감퇴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두뇌는 흐려지고, 생각은 혼란해지고, 우울한 생각이 정신에 깃들게 된다. 모든 신체조직이 약해져서 활동력을 잃게 되므로 특히 병에 잘 걸리게 된다." (치료, 272-273)

5. 신선한 공기, 환기, 일광

"폐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되는 방, 곧 공기가 꼭 막혀서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 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그것은 특별히 감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해 줌으로 조금만 감기 기운을 받아도 병에 걸리게 된다. 많은 여자들은 이 밀폐된 방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창백하고 약해진다. 그들은 같은 공기를 반복해서 호흡하므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氣孔)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치료, 273-274)

"공공 건물이나 주택을 막론하고 집을 지을 때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히 일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회와 학교 교실들은 이따금 이런 점이 결여되어

있다. 환기를 적당히 하지 않으면 많은 졸음과 답답한 기분을 가져 오므로 많은 설교의 효과를 크게 말살시키고, 교사의 일을 어렵고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사람이 거할 목적으로 짓는 모든 건물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지대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건조한 지대를 갖게 되고 습기와 독기(毒氣)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너무도 흔히 경시된다. 계속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와 위험한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지대가 낮고 건조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기는 습기와 독기에서 초래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집에 있는 모든 방에 공기가 잘 유통되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침실은 밤낮으로 공기가 충분히 유통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어떤 방이든지 날마다 공기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침실은 춥거나 습한 계절에 충분히 데우거나 건조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치료, 274-275)

6. 청결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꼭 같이 요긴하다. 불순물들이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 많은 기공들은 빨리 막혀 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 나가야 할 불순물들이 다른 배설 기관에 여분의 부담을 주게 된다." (치료, 275-276)

정신적 건강

7. 정신이 육체에 끼치는 영향

"건강 교육에 있어서,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강조해야 한다.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두뇌의 전력(電力)은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들을 활기 있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신체 기능의 활력은 질병을 저항하는 데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력과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노, 불만과 이기심, 또는 순결하지 않은 마음은 건강을 해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 197)

8. 성경 연구를 통한 지성의 훈련

"여러 모양의 부분적인 진리들을 찾고 그 관계를 연구할 때에 인간의 지성은 그 기능이 최고도로 신장된다. 지능의 계발 없이는 누구도 이러한 연구에 종사할 수 없다." (교육, 124)

9. 어떻게 하면 잘 균형진 마음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남녀들이 잘 균형 잡힌 정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이끌어 내어 사용하고 계발해야 한다. 세상은 편향적인 남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들은 다른 것들은 활동 시키지 않음으로 왜소하게 만드는 반면에, 특별한 기능만 계발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실패를 거두고 있다. 저들은 과도하게 공부하지만, 실제적인 사업 생활에 관계된 것들을 등한히 하고 있다. 남녀들은 자신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되며, 저들의 자손들은 저들 자신보다도 인간적 자질에 있어서 열등한 상태 가운데 떨어진다. 그리하여 인류는 신속히 쇠퇴하고 있다. 현재 학교들이 운영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

은 청년들을 실제 생애에 부적절한 인물로 만든다. 인간 정신은 활동하기 마련이다. 만일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균형진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노동과 연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3 증언, 152-153)

10. 무엇이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게 하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우월감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고상함이다. 정신력의 적절한 배양은 전인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이 고상하게 하는 능력은 미래, 곧 영생을 위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다.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거룩한 기쁨의 상태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는 천사들이 관심을 끌만한 높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4 증언, 438)

11. 인간의 마음의 법칙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우상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 115:8)라고 말한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죄악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저락되었다." (부조, 91)

12. 지능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계발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계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원만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천부께서만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아신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가장 높은 이 세상 권세자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는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지적(知的)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물, 333-334)

13.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일 그대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하여 사업에 열렬하게 임한다면 그대는 책임감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신력을 발휘하되, 어떤 경우에도 육체적 능력을 등한히 하지 말라. 지적인 나태로 더 큰 지식을 얻을 길을 막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고, 강화되며, 계발되도록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숙고하는 것을 배우라. 충분히 배웠으므로 이제는 노력을 중단해도 좋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말라. 계발된 마음은 그 사람을 재는 척도이다. 그대의 교육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대는 매일 배우고, 얻은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야 한다." (4 증언, 561)

영적인 생활

14. 그분께서 생명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시리라.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 7:24) 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엡 2:1)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 203)

15.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樹液)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소망, 675-676)

16. 영혼의 영적 생명은 무엇인가?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소망, 805)

17. 영적인 생애는 어떻게 힘을 얻는가?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계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실물, 61)

18. 심령의 치료

"죄의 짐이 그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간다. 그는 의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 준다.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부인할 것인가? 희망이 절망을 대신하고, 즐거움이 우울한 심정을 대신한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누워 있다. 너무나 행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이상한 사건을 하나 하나 지켜 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초청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심령의 병이 들어있지 않았던가? 그들은 그 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지 않았던가?…

그 썩어가는 육체에 건강을 회복시키는데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셨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 시에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시 33:9) 서게 하신 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의 치료는 마음을 새롭게 해 준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치료, 77)

19. 좌절에 빠지게 될 때에 예수를 바라보라.

"죄책감은 생명의 샘을 망쳐 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 줄 것이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入籍)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 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

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치료, 85)

20. 언약의 무지개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말씀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요 3:16).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주에 증거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를 약속해 주는 보증이 된다." (치료, 94)

기억할 말씀: "비록 우리의 생명이 그 자라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두고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 이상으로 끊임이 없는 장성함이 따를 것이다." (교육, 138)

연구할 과제

1.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게 해 주는 힘에 대해 토의해 보라. (치료, 379, 380; 부조, 상권 135, 136)
2.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아담과 하와)의 용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살아, 20, 21)
3. 사단이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꾀어 타락시키기로 계획하였는가? (쟁투, 하권 351)
4. 창세기 2:17절의 말씀을 설명하라. (쟁투, 하권 352)
5. 조건적인 불멸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상동 353)
6. 언제 영혼 불멸설에 대한 교리가 시작되었는가? (쟁투, 하권 355)
7. 인간이 도덕적으로 자유한 존재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토의해 보라. (2 증언, 294; 부조, 상권 41;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본 원칙 297)
8.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실물, 367-368)
9. 구원의 경륜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하는 일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계획하셨는가? (4 증언, 472)
10. 인간이란 무엇(어떤 존재)인가? (8 증언, 264)

제21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

성경절 연구: 벧전 5:8; 고후 11:14; 고전 10:13

요점: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부조, 33)

예언의 신 연구

커다란 곤경의 곤란

1. 죄가 존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악의 소위(所爲)와 그 무서운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에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의심하고 트집잡기를 좋아하는 기질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성경의 말씀을 거절해 버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전과 그릇된 해석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성격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원칙 등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까닭에 악에 관한 큰 문제에 대하여 만족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 (요일 3:4)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쟁투, 492-493)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죄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온 세상의 심판장께서 사단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게 반역하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내게서 빼앗아 갔느냐?' 고 심문하실 때 죄의 창시자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입은 닫혀질 것이고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오직 유구 무언해질 것이다." (쟁투, 503)

2.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다." (쟁투, 493)

3. 강제적인 복종과 자원해서 하는 봉사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理智的)으로 이해하므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쟁투, 493)

천사들 가운데서 불만족하는 천사가 있었음

4.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위에 있었던 천사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 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 났도다'(겔 28:12-15)." (쟁투, 493-494)

5.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영광과 존귀를 부러워함

"루스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를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겔 28:17)도다고 말한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겔 28:6),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3, 14).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쟁투, 494)

6. 온 하늘의 조화를 깨뜨리게 되었음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였다. 그리

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뻤다. 그런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다.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되는 자기 찬양, 자기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행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의 회의는 루스벨에게 간청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 주고, 그분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쟁투, 494-495)

7.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천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의심하였다." (쟁투, 495)

8. 자유를 주장함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함으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써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쟁투, 495)

9. 자기의 직위를 회복할 뻔 하였음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

각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쟁투, 495-496)

10. 모반적인 말을 하고 허위를 진술함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정신력을 기만하는 일에 기울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신 사실까지도 자기의 반역 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왜곡시켰다.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자신과 가장 밀접히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는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그의 지위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늘 주민앞에서 낮추려고 계획하였다는 엉뚱한 거짓말과 노골적인 기만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와 충실한 천사들 사이에 근거없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편으로 전향하여 완전히 가담하지 않는 모든 자를 향하여 하늘 주민들의 유익에 냉담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충성된자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잘못 나타내고자 힘썼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활한 논증을 전개함으로 천사들을 미혹하려 하였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말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자들이 많아졌다."(쟁투, 496-497)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남

11. 그의 계획을 다른 세계까지 이끌고 감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모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사단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다. 그들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다. 루스벨은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크게 높임을 받아왔고 천사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만일 그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세계들도 자기편에 가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궤변과 허위를 다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그의 기만의 능력은 매우 놀라웠다. 그는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충성된 천사들까지도 그의 본성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쟁투, 497)

12. 죄의 사악함이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하였음

"사단은 크게 존경을 받아왔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로 가리워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이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감추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정부를 확립하며 모든 하늘 주민의 행복을 구하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천사들의 심중에 불만의 정신을 넣어 주면서 표면상으로는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나타냈다. 그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타냈다." (쟁투, 497-498)

13.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의 차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쟁투, 498)

14. 사단은 그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일을 계속함

"하늘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동조자들과 함께 복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자 그 반역의 괴수는 대담하게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그들 각자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사단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반역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만일 그들이 견책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결코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단과 그 무리는 불충성하는 일에 대담하고 완고해진 나머지 하나님 정부를 전복하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 반역의 괴수와 그의 모든 동조자들은 불손하게도 그들은 압제의 세력에 죄없는 희생자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쟁투, 499-500)

이 땅에서의 반역

15. 사단이 사람들로 저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함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반역을 선동한다. 사단은 일찍이 천사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침을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금도 그의 정신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약을 깨뜨리고자 노력하고 법을 범함으

로써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고자 애쓰고 있다. 죄를 책망하는 일은 여전히 증오와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킬 때 사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하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인양 그에게 분노를 나타낸다. 이것이 의인 아벨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책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낸 정신이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학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휘말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선포하신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 (출 34:6, 7)는다." (쟁투, 500)

16.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함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쟁투, 500-501)

17. 사단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선동한 것은 사단이었다. 악의 임금은 그의 온 힘과 간계를 다하여 예수님을 멸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구주의 은혜와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장하는 모든 점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구주의 생애가 고통과 슬픔으로 충만해지게 하였다.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한 궤변과 허위,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낸 증오, 비교할 바 없이 선한 생애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단의 잔인한 비난, 이 모든 것은 다 강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이 때까지 쌓여온 질투와 원한과 복수의 불길이 갈바리에서 한꺼번에 하나님 아들에게 폭발되었다. 그 때에 온 하늘은 조용한 공포속에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쟁투, 501)

18. 사단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음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천사들의 경배 받기를 거절하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 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고 먼저 간청하셨다. 그 때에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서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 1:6).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흠도 없으셨다. 그분의 겸비가 끝나고 희생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다.

이제 사단의 죄는 아무런 핑계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올바른 본성을 드러냈다. 만일 그가 하늘 거민을 지배할 권세를 얻었을 것 같으면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지배한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늘 거민들을 지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함으로 자유와 높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일이 속박과 타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실이 진상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기 때문이다. 또한 루스벨은 영광과 최상권을 얻기 위하여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놓은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드러났다." (쟁투, 501-502)

19. 온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봄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천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는듯하던 죄의 최종적 박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나 1:9)고 말한다. 사단이 속박의 멍에라고 비난하여 온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시련과 연단을 받은 피조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루어진 품성을 그들 앞에 완전히 드러내신 하나님께 다시는 충성심을 변치 아니할 것이다." (쟁투, 504)

기억할 말씀: "그대가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을 반복할 때에 사단은 그대에게서 도망할 것인데,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 교회 선교 역사 141)

연구할 문제

1.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사단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였는가? (1 증언, 544; 청년, 411)
2.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공개적인 반역(대항)을 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부조, 상권 28, 29)
3. 사단의 반역에 천사 중 얼마나 가담하였는가? (5 증언, 291)
4.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단을 즉시로 없애 버리심으로 우주에서 죄악을 도말하시지 않았던가? (쟁투, 하권 300, 301)
5. 결국에 어떻게 하여 대기만자가 정체를 밝히게 되었는가? (쟁투, 하권 301)
6.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지 설명해 보라. (쟁투, 하권 207)
7. 언제 사단을 향한 만종이 울렸는가? (쟁투, 하권 308)
8. 사단의 반역으로 다른 세계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초기, 298)
9.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빈 자리는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5 증언, 473)

제22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최고의 결정

성경절 연구: 수 24:15; 삼상 15:22

요점: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부조, 278)

예언의 신 연구

순종의 시금석

1. 순종에 대한 큰 표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하셨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랍비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교만심과 사람의 칭찬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이 자기들과 백성들 사이에 간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분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반감을 갖게 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실물, 304-305)

2. 부모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단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단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이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遺棄)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부조, 336-337)

3.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계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이것은 지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는 사단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부조, 49)

4. 순종은 믿음의 증거임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의식들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움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부조, 278-279)

5.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심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뢸 때에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할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와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2)." (소망, 668)

6. 제자되는 증거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요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具現)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 10:16)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정로, 60)

순종의 생애를 보여준 현저한 인물의 '예'

7. 아벨은 충성심이 있었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

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부조, 71)

8.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행사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노인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세대에서도 노인으로 간주되었다. 젊음의 열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고난을 견디고 용감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이제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젊음의 활력을 가졌을 때는 힘에 대한 자랑스런 자각으로 폭풍을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인생의 후기 곧 무덤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발을 옮길 때 낙담시킬 수 있는 방해물까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써, 아브라함을 위한 가장 혹독한 마지막 시험을 그가 연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과 수고에서 벗어나 쉬기를 바랄 때까지 보류해 두셨다. 주님께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창 22:2)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노인의 심장은 공포로 멎는 듯했다. 그러한 아들을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질 것이며, 백발이 된 그의 머리는 슬픔으로 숙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러한 아들의 고귀한 피를 자신의 손으로 흘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였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으나 그것이 그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말못할 고통 속에서, 장미빛 혈색의 건강미를 띤 아름다운 젊은 아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 위대한 늙은 부조는 인간이었다. 그의 정열과 애착은 우리와 동일했다. 그는 노년기의 위안이요 또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아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일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질문하기 위해 머물러 서지 않았다. 그는 아픈 마음으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글자 그대로 순종하되 칼이 그 아들의 떨리는 살에 내리 꽂히기 직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는 말씀이 들리기까지 이행하였다.

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세상 끝까지 하나의 빛나는 거룩한 모본으로 거룩한 역사의 책장에 기록되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게끔 제외시켜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다. '내 머리는 백발이며, 장년기의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누가 나의 기우는 인생을 위로하겠습니까? 어떻게 늙은 아비가 독자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질문하거나 불평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증언, 144-145)

9.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나누어 가짐

"하나님 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창 22:5-8 참고)고 말하여 하인들을 뒤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제물을 구할 것인지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말하였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여'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던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삼 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 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 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매는 줄을 매게 했다." (부조, 152)

10. 요셉은 하나님께 진실되었음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 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 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 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고 그는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 마는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 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

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 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부조, 217-218)

11. 레갑 사람에서 배울 교훈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예증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 얼마를 성전의 한 방으로 모아 그들 앞에 포도주를 차려 놓고 마시기를 청하였다. 예기했던 대로 예레미야는 항의와 절대적인 거절을 당하였다. 레갑 사람은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렘 35:6)라고 하였나이다고 언명하였다." (선지, 423)

"레갑 사람의 집에는 계속적인 축복이 선언되었다. 선지자는 선언하였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렘 35:18, 19).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이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충성과 순종은 유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셨다." (선지, 425)

12.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충성심

"…입을 크게 벌린 사자의 굴도 다니엘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금지할 수 없었고, 맹렬한 풀무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없었다. 원칙에 확고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개의치 않고 사자의 굴과 뜨거운 풀무불까지도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요셉의 품성을 주목해 보라. 덕성이 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는 완전했다. 모든 점에서 그 젊은이는 시험을 겪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꺾이지 않는 원칙은 모든 시험에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말씀은 법이었다." (5 증언, 43)

13. 하나님께 다니엘의 충성

"다니엘의 역사는 두드러진 것이다. 그는 큰 반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믿음과 원칙을 실천했다. 그는 왕의 조서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조금도 감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엿보는 눈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고 그의 원수들이 왕에 대한 불충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린 창문 앞에 가서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나친 의라고 불리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의 죽음이 예상될지라도 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세상의 권력도 개입되도록 허용하고자 하지 않았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으셨지만 천사들이 그와 함께 가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아침에 왕이 그를 부르자, 그는 대답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단 6:22). 그는 고상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5 증언, 527)

14. 예수께서도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始祖)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히 2:17).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히 4:15)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써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소망, 24)

순종의 결과

15.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을 그 상급으로 주심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시(신 7:15)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에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시 105:37)다." (소망, 824)

16. 번영은 순종에 달려 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원수들의 압박은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한 이런 기별을 통하여 마침내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많은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외면적인 봉사는 국가의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행하여졌다. 선민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한 방위 수단으로써 세상과 담을 쌓았다.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잡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인근 민족의 우상숭배의 풍습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제재를 악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 사이에 격벽(隔壁)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하신 바로 그 축복들을 다른 백성들이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선지, 708)

17. 순종 - 성공의 조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의 조건이다. 승리는 예식이나 과시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대장이신 하늘의 주 하나님을 단순히 순종함으로 인해 온다. 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자는 패배를 결코 모른다. 패배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고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둘째로 하는 데서 생겨난다. 순종은 주, 곧 만군의 대장께서 이스라엘 만군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공과였다. 그 순종은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었다. 우리 지도자의 음성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최대의 세력을 놀라게 할 방법으로 그분의 전투를 지휘하실 것이다." (6 증언, 140)

18.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심

"우리의 길 주위에 몰려드는 구름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 없는 자는 말한다.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를 수 있다." (4 증언, 27)

19. 구원은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에 달려 있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요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 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써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실물, 117)

20. 인류의 행복은 순종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축적해 두셨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도록 만든 모든 부당한 요구들을 일소하시면서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 곧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임을 강조하셨다. 그분은 이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할 때 인류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동시에 그 사회도 안정을 가져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교육, 76)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나오고, 인간의 정복과 감정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치료, 118)

연구할 과제

1. 구원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임으로(실물, 111) 구원은 순종함으로 살 수(벌 수)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 인간의 불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어떤 대주제들이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으며, 감사할 것이었는가? (부모, 365)

3. 유혹자가 하와에게 약속해 준 것들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부조, 상권 50-55)
4.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5가지의 결과를 언급해 보라. (부조, 상권 57, 63)
5.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해 보라. (부조, 상권 473, 476)
6.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인류를 위해 세우신 이정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해 보라. (선지자, 170, 171)
7.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일에 대해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부조, 하권 321)
8.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순종을 어떻게 보시는가? (부조, 하권 327-328)
9. 믿음과 추측의 차이를 알아보라. (복음, 261, 262)

제23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위해 오심

성경절 연구: 사 9:2, 42:1-4

요점: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처음으로 들어본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처음으로 말한 처음 불러본 이름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처음으로 쳐다본 얼굴이었다." (치료, 15)

예언의 신 연구

그리스도의 사명(일)

1. 죄와 질병의 짐을 덜어 주시기 위해 오셨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 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마 8:17).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치료, 17)

2. 그분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음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하여 고독하게 걸어 가셨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죄악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치료, 18-19)

3. 그의 생애의 사업 가운데 근본 사업은 무엇이었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그분을 랍비 학교에서 발견하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하셨다. 그 대답은 당신의 평생사업의 근본을 말한 것이었다(눅 2:48, 49).

그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아희생의 생애였다. 그분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당신을 영접해 주는 친구들의 친절한 영접 이외는 이 세상에서 거할 집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장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당신께서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 사이로 걸어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인내하시고 쾌활하셨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생명과 평화의 사자로 환영하였다. 그분께서는 남녀들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필요성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다." (치료, 19)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방법

4. 가르치고 거룩한 원칙을 나누어 줌

"구주께서는 모든 치료의 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 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의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나라의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그 길을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시며 큰 길가나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바다에서, 산기슭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성전의 바깥 뜰에서 가르치심으로 이방인들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치료, 20-21)

5. 분명하고 능력있게 기별을 전하심

"그리스도의 교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으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랍비들은 유전에 집착되어 인간의 이론과 사상을 강조했다. 때때로 성경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것이 성경자체를 대신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분께서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친구이거나 원수를 막론하고 어떤 관심이 일어난 것을 볼 때마다 그분께서는 말씀을 제시하셨다. 분명하고 능력 있게 그분께서는 복음의 기별을 주장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에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성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로 주어졌다. 그분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처럼 깊은 의미를 이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다." (치료, 21-22)

6. 마을에서 마을로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셨음

"그리스도와 같은 전도자는 결코 없었다. 하늘의 왕이셨던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은 사람들을 현실 그대로 만나기 위함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한 자와 속박되어 있는 자, 곧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사자로서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셨다. 위대한 치료자로서의 그분의 명성은 온 팔레스틴에 퍼졌다. 병자들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그분께서 지나가시는 곳으로 나왔다. 여기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여, 또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받고자 나왔다. 그와 같이 영광의 왕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치료, 22)

7. 비천하고 슬픔에 처한 자의 가정을 방문하셨음

"교사들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을 매개로 하여 백성들과 접근하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것이 언제나 가장 거룩하게 기억되고 공명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분께서는 저들의 유익과 행복을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청중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그분의 교훈은 매우 솔직하고, 그분의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그분의 말씀은 매우 동정적이며 즐거운 것이었으므로 청중들은 매혹되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단순성과 열성때문에 모든 말은 존중되었다.

그분께서 보내신 생애는 얼마나 바쁜 생애였던가! 날마다 그분께서 궁핍과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비천한 가정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은혜롭고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마음으로 그분께서는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면서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치료, 23-24)

편견의 벽을 헐어 버리심

8.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심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민족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외의 하나님 가족들을 제외시키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제한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급 제도가 없는 종교, 곧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를 하나의 형제로 연결시켜 주고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해 주는 종교를 세우셨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분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이웃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 친구들과 원수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은 생명수를 갈급하는 영혼이었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 중에 계시든지 그 시간과 환경에 적절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나타낸 모든 무관심과 모욕은 다만 그들에게 당신의 신성과 인성을 겸한 동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 주었다. 그분께서는 가장 거칠은 사람들과 가장 소망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고, 그들에게 흠없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애할 수 있는 품성을 얻게 해 주셨다." (치료, 25-26)

9. 그는 죄인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섞이셨음

"때때로 그분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낙심되고, 병들고, 유혹받고 타락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드러운 자비의 말씀, 곧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원수들과 백병전(白兵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존경받는 손님으로서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동정과 사교적인 친절로써 당신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위치에 놓이고자 갈망했다. 그들의 갈급한 마음에 그분의 말씀은 복되고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전달되었다.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새생애의 가능성이 열려졌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었지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낌없이 사귀었으며 당신의 동족인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

분께서는 그 멸시받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지붕 아래서 그들과 함께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으며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을 같이 나누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고 무한한 친절과 예의로써 그들을 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동정의 줄로써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한편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써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다." (치료, 26)

10.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심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라.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을 때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심으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분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얻고자 하셨으며, 또한 생명의 샘물을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원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말하였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7-14).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여자에게 얼마만큼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셨는가! 그분의 말씀은 얼마만큼 열렬하고 웅변적이었는가!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의 친구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요 4:29, 39). 그리고 그 말이 그 당시부터 여러 해를 지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그 감화력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치료, 27-28)

예수님의 모본

11. 그의 자아 희생과 자비심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그런 품성에 도달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현저한 특색의 하나는 그분의 자아 부정과 자선(慈善)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으며,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음료였다. 우리는 구주의 모본을 따름으로써 그분과 거룩한 교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품성을 모방하고 그분의 모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축복이 될 것이며, 현세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만족을, 내세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이다." (4 증언, 227)

12. 그의 고상함과 순결함

"나는 하늘의 임금을 보게 되었다. 천사들이 경배하였고, 영광과 광채와 명예가 넘쳤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은 그분의 세련된 본성을 불행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구실로 삼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근심된 자, 핍절한 자들 중에 계셨다. 그리스도는 세련됨과 순결의 화신이었다. 그분의 삶과 품성은 고상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일하시는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고 멸시당하고 핍절한 사람들 가운데 계셨다. 거룩한 교사는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다…." (2 증언, 467)

13. 그분은 고귀하고 유용한 노동을 하셨음

"지상의 거민들에게 주어진 근로의 길은 힘들고 또한 수고로운 것이지만 이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로 인하여 존귀하게 된 길이며 이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는 안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훈과 모본으로써 유용한 노동을 존귀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근로의 생애를 사셨다. 주님의 지상 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에서 꾸준히 일하심으로 보내셨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일반 노동자와 같은 옷차림으로 미천한 일터를 오고 갈 때에 작은 마을의 거리를 거니셨으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나란히 걸으실 때 봉사하는 천사들이 주님과 동반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일상적인 근로를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던 때와 꼭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짐을 덜거나 수고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에게 수반되는 모든 약점과 함께 인성을 쓰셨으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심한 시련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농가에서 사셨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으며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근면한 손으로 매일 수고하셨다. 주님의 모본은 근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은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부모, 276-277)

14. 그분은 완전한 일군이셨다.

"예수께서 유년과 청소년 시대에 일을 하심에 따라 심신이 계발되었다. 그는 자기의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사용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각 방면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는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는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는 당신의 모본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가르치고 청소년들로 인생의 부담을 나누어 지도록 훈련시키는 활동은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 주며 모든 기능을 계발시킨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소망, 72)

15.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어 지셨음

"교역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흠이 없으셨을 뿐 아니라 인내, 온유, 쾌활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생애로써 참된 예의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불쌍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언제나 친절한 얼굴로 대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유하시는 가정마다 신선한 공기가 감돌게 되었고, 또 그분의 생애는 사람들 속에 마치 누룩과 같이 작용하였다.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무지 몽매하고 무례한 백성들과 부정직한 세리,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군대, 무례한 농부, 그 밖의 여러 무리들 속에서

생활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늘 동정의 말씀을 하여 주셨다.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는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그에게 천연계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선하심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가장 사납고 도무지 장래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품성에 달할 수 있음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힘쓰셨다." (복음, 121-122)

16. 그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대항하셨음

"그리스도의 모본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저항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혹의 투쟁에서 영혼의 원수를 승리하신 그분은, 인류에 대한 사단의 능력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단을 정복하셨다. 승리자로서 그분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공로와 연합시키도록 그분의 승리의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강력한 유혹 아래 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능력에 의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 (3 증언, 480)

17.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음

"예수께서는 시험 당하게 될 자들의 구원자가 되는 법을 아시기 위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다. 그분은 그분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사람을 속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구주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종류의 위선을 심하게 견책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죄들을 잘 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읽으신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탄원하시며 죄인들과 변론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셨다는 한 가지 면에서, 그분은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두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4 증언, 293-294)

18. 그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 생명의 왕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밟아야 하는 땅 위를 지나가셨고, 그분께서 겪으신 시련으로부터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고 순결하게 나오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셨다." (9 증언, 69)

기억할 말씀: "우리들은 병자의 침상 곁에서, 가난한 오두막에서. 사람들이 많은때 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 95, 96)

연구할 과제

1.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보낸 시간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을 비교해 보라. (치료, 15)
2. 부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치료, 19)
3. 그리스도의 일과 말씀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치료, 20)
4. 이 땅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5 증언, 235)
5.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2 증언, 549)
6.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모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부모, 42)
7.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잘못 나타나고 있는가? (치료, 38)
8. 예수님께서 그대를 향하여 가지신 열망은 무엇인가? (치료, 77)
9.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신 외면적인 실패와 계속되었던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 (소망, 3권 175)
10.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확신을 어디서 찾게 되었는가? (소망, 3권 175, 177)

제24과 나의 가정과 위치(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절 연구: 창 19:12-14; 사 35:1, 2

요점: "인간의 활동만을 볼 수 있는 곳, 듣고 보는 것이 자주 죄악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는 곳, 소동과 혼란이 피로와 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곳에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천연계의 미와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라. 푸른 들과 숲과 산들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라. 도시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생기를 주는 하늘 공기를 마시라." (가정, 127)

예언의 신 연구

가정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1. 가정의 위치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

"하나님께서는 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두를 도덕적, 종교적 감화를 우리가 고려하기를 원하신다.

사단은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할 수 있는 대로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장애물들을 놓을 것인바 우리는 우리의 영적 향상에 가장 유익이 되는 교제를 선택하여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도움을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이루기에 불리한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불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히 서서 타락하게 되지 않도록 갑절이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복음은 …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참된 가치를 평가하게 하여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것 곧 최대의 가치를 가진 사물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바치게 한다. 이 교훈은 가정을 선택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최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가정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 목적이 선택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부에 대한 갈망, 유행의 명령, 또는 사회의 관습에 지배받지 말라. 무엇이 단순, 순결, 건강 및 참된 가치를 얻게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라." (가정, 131)

2. 본보기와 최초의 가정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첫 시조들의 가정은 장차 온 땅을 채우게 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모본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그 가정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자긍하는 마음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예술품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셨다. 이 곳이 그의 사는 집이었다. 푸른 하늘들은 그 집의 둥근 지붕이 되었고 땅과 그 섬세한 꽃들 그리고 산 풀들로 된 융단은 그 집의 마루였으며 아름다운 나무

들의 무성한 가지들은 천개형(天蓋形)의 챙이 되었었다. 그 집의 벽들은 주 되신 그 크신 미술가의 창조물인 가장 훌륭한 장식물들로 드리웠었다. 그 거룩한 부부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위한 한 공과 즉, 참된 행복은 자랑과 사치를 자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공과를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인공적인 것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더욱 크게 단순성을 계발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께서 가지셨던 목적에 부합하는 길에 훨씬 가까이 이르르게 될 것이다. 자존심과 야심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놓아 두신 기쁨의 근원들에서 참되고 향상시키는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가정, 132)

3.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선택해 주신 지상의 감정

"예수께서는 인간이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최대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활의 최선의 결과를 얻는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다. 영원하신 천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위하여 택하신 생활 환경들은 어떠하였는가! 갈릴리 산지의 한적한 가정, 정직하며 자중하여 노동함으로 유지되는 가정, 검소한 생애, 날마다 곤란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 자기 희생, 절약과 인내, 즐겁게 하는 봉사, 어머니의 곁에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 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신성한 봉사,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연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유년 시대의 환경과 기회였다." (가정, 132-133)

4. 허락하신 땅의 전원 가정들(산야에 있는 가정들)

"허락의 땅에서는 광야에서 시작된 훈련이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환경 밑에서 계속되었다. 백성들은 도시들로 집중되지 않았으며 건강을 주는 천연계의 모든 축복과 유혹을 받지 않는 생활을 확보하면서 각 가족들은 땅들을 갖고 있었다." (가정, 133)

가족과 도시

5. 도시 생활의 위험들

"도시 생활은 거짓이요 인공적이다.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 자극과 향락 추구의 소용돌이, 자랑과 사치와 호사(豪奢)에 대한 갈구 등은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것들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청년들을 엄습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아동들과 청년들을 엄습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유혹 중의 하나는 향락에 대한 욕심이다. 휴일은 많고 경기와 경마는 수천의 군중을 끌고, 흥분과 향락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꾀어서 인생의 올바른 의무를 잊어버리게 한다. 보다 훌륭한 용도를 위하여 저축되어 있어야 할 금전이 오락을 위하여 함부로 쓰여진다." (가정, 135)

6. 건강을 생각하라

"도시의 자연 환경은 흔히 건강에 해롭다.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나쁜 공기와 부정한 물과 부정한 음식, 좁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주택들은 직면해야 할 많은 나쁜 조건들 중의 몇 가지이다.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빈민 부락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를 아름다운 경치와 음악 속에 두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들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에 가까이

접근해 갈수록 몸과 마음과 심령의 건강을 얻는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가정, 135)

7. 세속적 이익과 돈벌이에 대한 사랑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른 환경 속에 두기 위해 주의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보다도 그들의 세속적 이익을 더욱 많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은 경건의 계발과 올바른 품격의 형성에 불리한 교우 관계를 맺게 된다.

그들의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친 가나안 사람들을 비난하는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재물의 신에게 값진 제물을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후에 그대들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리고 사랑스럽지 못한 품성을 지니고 장성할 때,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인 불효와 불신을 보일 때 그대들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대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탓한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심은 것－세상에 대한 그대들의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게을리 한 데서 오는 결과－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들의 가족들을 유혹의 장소로 옮겼다. 그리하여 그대의 영광이요 방어인 하나님의 방주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대들의 자녀들을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가정, 136－137)

8. 도시들은 참된 유익을 주지 않는다.

"백 가구 중에 한 가구도 도시에 거주함으로 신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궁벽한 곳에서 훨씬 더 잘 얻을 수 있다. 그대들의 자녀들을 도시의 광경들과 소음들로부터 떠나게 하고 전차와 수레를 끄는 짐승들의 덜컹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떠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정신은 더욱 건전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확신시키는 일이 더욱 쉬워짐을 알게 될 것이다." (가정, 137)

9. 시골로부터 도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에 대한 충고

"많은 부모들은 도시가 더욱 바람직하고 유익을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시골집을 떠나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많은 유혹에 노출시킨다. 그 소년들은 직업도 없이 거리의 교육을 받아 한 걸음씩 타락하여 마침내는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부모들이 신체적, 정신적 강건에 가장 유리한 감화들이 있는 시골에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청년들로 밭을 갊으로 일을 배우게 하고 그들로 피로와 천진난만한 단잠을 자게 하라.

부모들의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도시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더럽히고 그들의 심령을 타락시키고 있다. 게으름의 결과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구빈원(救貧院)과 감옥, 그리고 교수대는 부모들의 의무 태만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 주고 있다.

그대들의 보호 아래 맡겨진 값진 영혼들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세속적 대가를 희생하는 것이 낫다. 그들은 줄기찬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유혹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장 자유롭게 터놓고 진심으로 위탁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감화를 끊어 버리고, 모든 습관을 깨뜨려 버리고 모든 매는 줄을 끊는 것은 그대의 의무이다.

혼잡한 도시 대신에 그대들의 자녀들이 가능한 한 유혹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들을 유용한 일꾼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궁벽한 장소를 찾으라. 선지자 에스겔은 소돔이 범죄와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여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운명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악한 도시에 임하게 한 행로를 피해야 한다.

롯이 소돔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죄악이 없는 상태로 보존하고 그의 가족들로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의 주위에 있었던 그 부패한 감화는 롯 자신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의 자녀들이 소돔 주민들로 더불어 가졌던 관련은 어느 정도 그 자녀들의 이해 관계와 그의 이해 관계를 연결시켜 놓았다.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와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대들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곳에 선택하도록 연구하라. 대도시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함으로 비록 그대들이 전혀 부하게 될 수 없을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대들의 가정들을 조용한 궁벽한 시골에 가지도록 하라. 가장 좋은 감화가 있는 곳에 정주하라.

나는 주께로부터 우리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주택들을 찾기 위하여 도시로 모여들지 말도록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집안에 있도록 하는 데 실패하지 말도록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정, 137-139)

10. 지금은 도시들로부터 옮길 때이다.

"그대의 가족들을 도시들로부터 떠나게 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데 따라 가족들이 도시들로부터 이사해야 할 때가 왔다. 자녀들은 시골로 옮겨져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재력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적당한 장소를 얻어야 한다. 주택은 비록 작을지 몰라도 그 주택과 연결된 경작할 수 있는 농토가 있어야 한다.

넘치는 재앙이 지상의 거민들에게 이르기 전에 주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구하신다. 주께서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외침을 보내신다. 자녀들을 그대들 자신의 가정으로 모으며, 그들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존중히 하지 않고 악한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모아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도시에서 나오라." (가정, 139)

1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

"부모들은 시골에서 작은 주택과 농토를 장만할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과수원을 경작하고 그들의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삶에 필요한 피를 더럽히는 고기를 대신할 채소류와 작은 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는 자녀들이 도시 생활의 타락하게 하는 감화에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들 밖에서 그런 가정들을 찾도록 도우실 것이다." (가정, 139-140)

시골의 장점들

12. 한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시골에 장만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다.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그대는 도시들을 떠나서 시골로 옮기라는 부름을 받을 때에 그것을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말라. 거기에는 이런 기회를 붙잡는 이들을 위한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

다." (가정, 141)

13. 경제적 안전에 이바지한다.

"주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에서 떠나 자신들의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지시하셨는 바 이는 미래에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도시들을 떠나서 집과 집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농촌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 거듭거듭 주어진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더욱 상세한 권면을 참조하려면 Country living을 보라.)" (가정, 141)

14.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주는 권면

"그대의 복잡한 염려를 제쳐놓고 청년들의 품행을 타락시키는 강한 감화가 그리 끼쳐지지 않는 시골에 살 집을 마련하는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물론 그대가 시골에서 모든 성가신 일들과 복잡한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들은 그 곳에서 자녀들의 정신을 압도하려고 위협하는 많은 죄악들을 피하고 또한 유혹의 조수가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할 일이 있어야 하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가정의 단조로움이 그들을 거북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시의 나쁜 소년들과 섞이는 습관에 빠지고 드디어 거리의 교육을 받는다. …

시골에 사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다. 활동적인 호외의 생활이 심신의 건강을 함께 계발시킬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과 유용한 직업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경작할 정원을 가져야 한다. 나무들과 꽃들을 가꾸는 일은 식별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를 끼치며 마음을 만물의 조물주요 주재께 돌리게 한다." (가정, 141-142)

15. 시골에 사는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보증된다.

"땅은 그 땅의 보물을 모으려는 용기와 의지와 견인성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축복들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직업을 마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직업인양 그 일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농토에서 충분한 보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가정, 142)

16. 노동은 정신을 쇄락하게 하고 풍성을 세련시킨다.

"생각이 깊은 일꾼은 밭을 경작하는 중에 거의 생각지 못한 보물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농업이나 원예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계된 법칙에 주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각색 종류의 식물의 특수한 요구를 연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각각 종류에 따라서 서로 같지 아니한 토양과 재배법이 요구되고 각 식물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에 맞게 재배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옮겨 심는 데 요긴한 주의 곧 모근을 너무 한데 뭉치게 하든지 적당하지 못한 곳에 묻는다든지, 또는 모를 보호하고 전정하고 물주며, 밤에는 서리, 낮에는 햇볕에서 보호하고 잡초나 병충해를 막고 가지를 고르게 하며 바르게 배열하는 데 주의하는 일들은 다 품성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공과를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자체가 발달의 수단이 된다. 신중함, 인내성, 세밀한 주의, 법칙에의 순종 등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위에 말한 일들은 절대 필요한 훈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의 필요를 돌봄으로 생기는 부드러운 성품은 물론 생명의 신비와 아름

다운 만물과의 끊임없는 접촉은 정신을 민활하게 하고 품성을 세련시키고 향상시킨다." (가정, 142-143)

17.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신 분이 오늘날 사람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쟁기를 잡고 씨를 심고 뿌리는 자를 위한 지혜가 있다. 땅은 감주인 보화들을 갖고 있는 바 주께서는 도시에 모여들어서 작은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 가족들을 시골로 데려오는 사람들은 유혹을 훨씬 적게 만나는 곳에 그들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의 근원과 기초가 되시는 크신 교사를 배우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위한 적합성을 얻는 데 훨씬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가정, 143)

18.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충성하였으므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며, 죄로 인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하였다면 그들의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토지 경작에 관한 지시를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토지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온 땅이 영적 진리의 실물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땅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귀중한 곡식을 산출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게 될 것이었다." (가정, 143-144)

19. 일상 생활에서 영적 교훈을 찾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천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 두셨다. 우리로 하여금 천연계의 영광을 당신의 품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신실히 자연의 책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자연의 책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명상하는 데 있어 풍성한 근원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쉼의 날 뿐만 아니라 일에 종사하는 평일과도 연결시키셨다. … 즉 밭을 갈고 씨뿌리는 일과 밭을 가꾸고 추수하는 일 가운데서 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에서 역사하는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 대한 예증을 깨닫도록 가르치신다. 이와같이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용한 업무와 인생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진리의 공과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매일의 수고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의 일은 항상 우리 조물주와 구주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가정 생활의 모든 수고와 업무 가운데 금실처럼 떠오를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천연계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깃들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늘 진리의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며 그분의 순결한 형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가정, 144)

20. 천연계와 인류를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

"크신 교사 예수께서는 청중들이 피조물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천연계와 접촉시키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면 그들이 보고 있는 만상의 광경에서 영적 교훈을 해석하여 주셨다. … 그리스도의 교훈에는 각 사람의 마음에 흥미를 일으키고 각 사람의 가

슴에 호소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과업은 높은 이상을 잃은 단순한 수고의 되풀이가 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들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향상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들이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을 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새와 꽃과 나무에 관련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해설자가 되게 하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알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와같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활 경험에서 교훈을 배울 때, 천연계의 사물과 인생사를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이 우리를 주관하여야 하며,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이 법칙을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 주라." (가정, 144-145)

기억할 말씀: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 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길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소망, 3권 205)

연구할 과제

1. 침례 요한의 성품에 그가 살고 있던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정, 12)
2. 시골 가정에서 자라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말해 보라. (가정, 129)
3.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골에 살아야만 하는 4가지 이유를 말해 보라. (가정, 131-132)
4.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들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가정, 141)
5. 어린이들이 정원의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일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겠는가? (가정, 142)
6. 우리의 신앙을 예증할 가정 환경과 그런 이유를 말해 보라. (가정, 142)
7. 이 공과에서 배운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라. (가정, 143)
8.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무엇인가? (가정, 13)
9. 이와같은 가정(7번에 언급한 가정)이 이웃에 끼치는 감화는 어떤 것이 되는가? (가정, 29)

제25과 나의 가정과 가정의 가구들

성경절 연구: 왕하 20:14, 15; 잠 24:3, 27

요점: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 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예시는 이 세상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치료, 319)

예언의 신 연구

참된 가정 건설의 기초들

1.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함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래의 행복과 유익을 조심성 있게 보호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동시에 가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매력적인 곳이 되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재산이나 금전을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가정에는 쾌활함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 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계신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한다. 친절한 교훈과 사랑하는 말로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가정, 21)

2. 가정은 깨끗하고 말쑥하고 규칙적이게 하여야 함

"청결과 말쑥함과 규칙은 올바른 가정 관리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런 점들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여 전심 전력을 하는 반면에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영적 훈련을 등한히 하는 때에는 슬픈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또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깨끗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이들은 이 방면에 대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은 반드시 순결하고 단정한 심령을 가져야 함을 배울 것이요, 또한 이 순결함은 섬기는 천사들이 진리가 생애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정화시키며 취미들을 세련시켰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의복과 가정의 모든 일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은 후 말과 처신과 옷차림과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하

였다. …" (가정, 21-22)

3. 노력을 절약하는 설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많은 가정에 있어서 부인과 어머니는 자신의 수양을 위하여 독서할 시간이 없고 남편과 사귈 시간이 없으며, 자녀의 마음을 계발시키는 대 간섭할 시간이 없다. 존귀하신 구주와 친밀한 친구로 사귈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는 차츰차츰 단순히 가족을 위한 하나의 일꾼이 되어 그 힘과 시간과 취미를 다 세상에 붙은 쓸데없는 것들에 빼앗긴다. 그가 자신의 가정에 있으면서 거의 외객(外客)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다. 한때 그의 것이었던 기회 즉, 자녀를 고상한 생애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는 이용되지 않은 채 영원히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운 계획으로 생활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우라. 수고를 덜고 건강과 즐거움을 더할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라." (가정, 23-24)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4. 통풍, 채광, 배수 시설을 장치할 것

"공공 건물이나 주택을 막론하고 집을 지을 때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히 일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회와 학교 교실들은 이따금 이런 점이 결여되어 있다. 환기를 적당히 하지 않으면 많은 졸음과 답답한 기분을 가져오므로 많은 설교의 효과를 크게 말살시키고, 교사의 일을 어렵고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사람이 거할 목적으로 짓는 모든 건물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지대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건조한 지대를 갖게 되고 습기와 독기(毒氣)에서 오는 위험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너무도 흔히 경시된다. 계속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와 위험한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지대가 낮고 건조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기는 습기와 독기에서 초래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집에 있는 모든 방에 공기가 잘 유통되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침실은 밤낮으로 공기가 충분히 유통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어떤 방이든지 날마다 공기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침실은 춥거나 습한 계절에 충분히 데우거나 건조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가정, 148)

5. 따뜻하고 안락한 방을 노인들을 위해 준비하라.

"연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노인들에게는 따뜻하고 안락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힘이 쇠약해지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저항하는 체력이 사라져 가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햇빛과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풍부하게 가져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가정, 149)

6. 낮은 지대를 피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면 우리는 집들을 저지(低地)에서 생기는 독기와 안개가 없는 장소에 세움으로 하늘의 생명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두꺼운 커어튼을 걷고 창문과 덧문을 열라.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포도 넝쿨이 가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나무들을 집 가까이 심지 말라 햇빛은 휘장과 양탄자를 퇴색되게 하고 사진들을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뺨에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정, 149)

7. 집을 두른 뜰은 어떻게 가꿀 것인가?

"건물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드문드문 심어진 나무들과 약간의 관목으로 미화된 뜰은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힘을 가졌고, 또한 잘 손을 본 것이면 건강에 해롭지 않은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늘지는 나무들과 관목의 숲이 가까이 그리고 밀집되어 집을 둘러 있으면 건강을 위하여 좋지 못하다. 이는 그것이 공기의 유통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태양의 광선을 막는 까닭이다. 그 결과로 특별히 습한 계절에는 집안에 습기가 차게 된다." (가정, 149)

8. 천연미(자연미)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을 미(美)로써 옷 입히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그분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연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싸기를 원하신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거의 모두가 조그마한 잔디밭과 몇 개의 나무 그늘과 꽃피는 떨기나무와 향기를 풍기는 화초들을 그들의 가정의 주위에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인공적인 장식보다 훨씬 더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것들은 가정 생활에 부드럽고 고상하게 하는 감화력을 가져다 주고 천연적인 미를 더욱 좋아하게 해주고, 가족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 줄 것이다" (가정, 149-150)

가정의 기구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9. 가정들의 가구 설비는 단순하게 하라.

"우리의 자연스럽지 못한 인공적(人工的)인 습관은 우리에게서 많은 축복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유익한 생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한다. 공들여 만든 값비싼 가구들은 돈뿐만 아니라 그보다 천 배나 더 귀중한 것을 낭비케 한다. 그런 것들은 근심과 수고와 걱정의 무거운 짐을 가정에 끌어들인다. …

그대의 가정을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 오래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쉽고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대치할 수 있는 것들로 꾸미라. 만일 사랑과 만족감만 있으면 그대는 취미를 계발시킴으로써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매우 단순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공허한 외적 과시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더욱 단순하고 더욱 잘 정돈된 가정일수록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가정, 150)

10. 경쟁하는 정신을 피하라.

"관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로 불필요하게 지는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실망과 피로가 되고 있다. 과시(誇示)와 유행의 소산인 부족을 공급하느라 그들의 정신은 계속 근심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 …

절대적으로 해롭지는 않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한 비용과 염려와 노력이 만일 더욱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훨씬 전진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위 호사스러운 생활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건강과 힘과 재정을 희생한다.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복 문제와 가족들의 소비에 있어서 누가 최대의 과시를 할 것인가 하는 탄식할 만한 경쟁심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이란 감미로운 말은 왜곡되어 그 집안 사람들이 같지 않은 인생의 부문에 있어서 관습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과로하는, 네 담벽을 가지고 우아한 가구와 장식품으로 찬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가정, 150-151)

11.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장하는 일을 금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체면을 차리기 위하여 그처럼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불행하다. 그들은 가구를 진열하고 동료들-실로 그들이나 그들의 번영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의 찬사를 얻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쓰고 끊임없이 수고한다. 가구를 하나씩 연이어 구입하는 것은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침내 많은 값진 가구들이 구입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자부심과 야망을 만족시키지만, 가족의 안락은 조금도 증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바쳤어야 할 힘과 인내를 고갈시켰고 귀중한 시간을 소모시켰다." (가정, 151)

12.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한 역량을 잃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첫째 자리를 빼앗겼다. 많은 사람들은 향락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는 동안에 행복을 위한 역량을 잃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희망했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방문객과 낯선 자들의 감탄을 사기 위하여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이 끝없이 계속되는 수고, 이 끊임없는 고심은 그렇게 사용된 시간과 재정의 대가를 결코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 이것은 괴로운 속박의 멍에를 그 목에 메워 준다." (가정, 151-152)

13. 어색한 정밀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가정의 "예"

"어떤 가족들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아담함과 질서는 생활을 편하게 하는 긴요한 것이지만 이 덕성들이 극단에 치우쳐 생애를 끊임없는 고역의 기간으로 만들고 집안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크게 존경하는 어떤 가정들에는 그 가구와 가족들의 소유물들의 배치의 엄격한 정밀성이 있는바, 그것은 질서가 부족할 때와 거의 같은 불쾌감을 준다. 고통스러운 예절이 그 온 가정으로 하여금 참된 가정에서 기대되는 휴식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사랑하는 친구를 잠깐 방문했을 때 계속하여 쓸고 먼지를 털고 그대가 친구로 더불어 사교적인 담화를 즐기고자 기대하였던 시간에 상대편이 전체적인 정돈을 하고 감추인 작은 먼지와 거미줄을 찾기 위하여 구석구석을 노려보는 일 등을 보게 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비록 이것이 그 집에 그대가 간 것을 존중히 여겨서 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는 그대의 친구가 친구에게보다도 그의 과도한 청결 개념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데 대하여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가정, 152)

14. 즐겁고 유쾌한 감을 가지게 하였던 집의 방문

"그런 가정들과 정반대가 되는 가정을 우리는 지난, 여름(1876)에 방문하였다. 이 가정에서의 우리의 몇 시간의 체류는 무용한 수고나 어떤 다른 기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라 허비되지 않고 정신과 마음이 다 함께 즐겁고 유익한 방법으로 휴식을 주는 일로 채워졌다. 그 가정은 비록 사치하게 설비되지는 않았으나 안락한 가정의 '모본'이었다. 그 방들은 채광과 통풍이 잘 되어 있었는데, … 그것은 가장 값진 장식품들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응접실은 눈을 아주 피로하게 하는 꼼꼼한 방법으로 설비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가구들로 꾸며진 것이 보기에 좋았다.

의자들은 대개가 흔들의자 혹은 안락 의자였는데 다 같은 형태는 아니었으나 그 가족들의 같지 않은 조건들에 따라서 안락하도록 맞추어져 있었다. 낮은 방석을 붙인 안락의자들과 또 높고 등이 곧게 된 안락의자들 그리고 넓고 면적이 큰 안락의자들과 아늑하고 작은 것들도 있었고 또한 안락한 긴 안락의자들이었다. 이 모든 것들

이 나에게 '내게 앉아 보시오. 내게서 쉬시오'라고 말하는 듯이 보였다. 책들과 종이들로 장식된 책상들도 있었다. 모든 것은 다 아담하고 깨끗하고 매혹적이었지만 모든 보는 자들에게 제 자리에서 흩트러 놓을까 두려우니 아무것도 만지지 말도록 경고하는 듯한 그런 까다로운 배열이 없었다.

이 유쾌한 가정의 소유주는 능히 그들의 저택을 값비싸게 설비하고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형편이었지만 지혜롭게도 과시보다는 안락을 선택하였다. 가정에 있어서 보통 쓰기에는 너무 좋다고 여겨질 물건은 없었으며 융단은 퇴색을 막기 위하여서나 가구들이 변색되지 않게 하려고 커튼과 덧문을 닫은 채로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광과 공기는 정원에 핀 꽃들의 향기와 함께 자유로 들어왔다. 물론 그 가족들은 그 집과 조화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나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침울한 느낌을 주는 일이 없이 즐겁고 유쾌하게 우리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곳이 안식처라고 생각되었다. 이 가정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가정이었다." (가정, 152-153)

15. 장식에 적용된 원칙

"우리가 매우 많은 가정의 불쾌한 면으로 언급한 그 엄격한 꼼꼼함은 천연계의 위대한 계획에 일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피는 꽃들이 경계를 세운 정규적인 온상에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고 잔디 위에 마치 보석들처럼 흩어져서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형태와 빛깔로 땅을 아름답게 하도록 하셨다. 삼림의 나무들은 질서정연하게 심어지지 않았다. 삼림들, 언덕들, 골짜기들, 평원과 시내 등 대자연의 광경들을 보고 모양들과 색깔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즐길 때에 눈과 정신은 평안하여지며, 나무들과 관목들과 꽃들이 자연의 동산에서 떼를 지어 자라나는 것은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고 있다. 유년과 청년 그리고 노인들 모두가 다 같이 거기서 휴식을 찾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법칙은 다소간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다. 가정을 꾸미는데는 빛깔의 적당한 조화와 사물들의 전체적인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 방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동일한 디자인과 소재 혹은 실내 장식품이라야 품위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조화된 다양성이 있을 때에 더욱 보기에 좋게 된다.

그러나 가정이 미천하든 우아하든, 그 집의 설비가 값진 것이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것이든지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정신을 가짐이 없이는 벽들로 둘린 집안에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만족이 가정 안을 다스려야 한다.

주택의 가장 좋은 부분, 가장 햇빛이 잘 들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들, 그리고 가장 안락한 가구들은 그 주택에 실지로 사는 이들의 일상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주택은 그 집안 사람들과 또한 우리를 참으로 염려하여 주는 친구들 즉 우리가 그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또한 그들에게서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매혹적인 곳이 될 것이다." (가정, 153-154)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16.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함

"비옥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그 당시에는 앗수르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세계를 통치할 운명을 가진 고대 민족이 살고 있었다. 그 백성 중에는 천문학 연구에 크게 유의하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의 왕 므로닥발라단은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선지자, 344)

17. 왕이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저들에게 보여줌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 주었다. 왕은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사 39:2)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왕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강대 국가의 대표자들이며 따라서 국가의 현세적 부를 그들에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다." (선지자, 344-345)

18. 이 일은 히스기야에게 허락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음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내방한 것은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성경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대하 32:31)고 말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 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그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자신을 더 높였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대하 32:25)였다." (선지자, 346)

19.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346-347)

20. 히스기야의 마음에 후회로 가득찼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사 39:3-8). 후회로 충만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대하 32:26)였다. 그러나 악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으므로 때가 이르면 자라나서 폐허와 비애를 거둘 것이다. 그의 남은 세월 동안 유다왕은 과거를 속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려는 확고 부동한 목적으로 인하여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의 믿음은 격렬하게 연단을 받아야 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만 자신의 파멸과 자기의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음모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사자들이 내방하였을 때에 자기 임무에 충실함을 보여 주지 못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적 생애와 관계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보고의 특징이 되는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각, 이기심 없는 목적, 경건과 신성에 대한 열망이 말로 표현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못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쳐야 하겠는가?" (선지자, 347-348)

기억할 말씀: "…지상의 생활은 하늘의 생활의 시작이요, 지상의 교육은 하늘의 원칙의 초보이며, 이생에서의 인생의 활동은 내세에서의 인생의 활동을 위한 훈련이다." (교육 393)

연구할 과제

1.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가정, 150)
2. 집안에 어느 부분이 거실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가정, 150)
3. 어린이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 의논해 보라. (가정, 151)
4. 가정의 호사스러운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 (가정, 152)
5.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라. (가정, 156)
6.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정, 157)
7.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가정, 158)
8. 히스기야가 실패한 데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선지자, 333-334)
9.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증언, 304; 가정, 29)
10. 가정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말해 보라. (7 증언, 43)

제26과 나의 가족

성경절 구절: 엡 6:1-4

요점: "…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의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치리하는 그 같은 방법을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326)

예언의 신 연구

아버지의 위치와 책임

1. 남편의 참된 정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사회가 하나의 단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셨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책임은 어머니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들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아버지는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들 즉,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띠이다.

'가정의 띠'라는 그의 이름은 남편의 올바른 정의이다. … 나는 소수의 아버지들만이 그들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정, 211)

2.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장)이다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의 행복에 어머니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부양과 지도를 기대한다. 그는 자기 가정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생활과 감화력과 교제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의 걱정과 사업상 어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미소를 띠고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가정, 211-212)

3. 가정의 입법자와 제사장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연합하고 또한 찬양하는 노래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침과 저녁에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그날에 자기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한다. 그가 알게 된 모든 죄과와 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도 고백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 같은 행동 규칙은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을 수행하고 그의 자녀들 안에 올바른 원칙들을 확립하며 자녀들이 순수하고 고결한 품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역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육신적 부모에게 뿐 아니라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일을 가능케 해줄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의 거룩한 신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점에서도 자기의 어버이로서의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정, 212)

4. 하나님과 동행함

"아버지는 … 산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들어맬 것이다. 자기 자신의 힘을 불신하면서 그는 자기의 무력한 영혼을 예수께 매어 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을 붙잡는다. 형제들이여, 아침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였다. 심령의 조용하고 열렬한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가납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환난 때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하게 설 것이다." (가정, 212-213)

5. 겸손하게 그대의 권위를 행사하라

"아버지는 단순히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는 신령하고 거룩한 띠로 가족들과 함께 묶이어 있다.

가정에서 그가 어떠한 감화를 끼칠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지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균형 없이 자라고 훈련받지 못한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다운 성격과 정욕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가정의 머리에 서야 한다. 그는 올바른 도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그의 처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원칙에 의하여 지도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것이다." (가정, 214)

어머니 - 가정의 여왕

6. 남편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

"여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과 동등하도록 계획하신 그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세상에는 이름만이 아닌, 그 말이 가진 모든 의미로서의 어머니인 그러한 어머니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인의 특수한 의무들이 남자들의 그것보다도 더욱 신성하고 더욱 거룩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직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애의 사명에 착수하라.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들을 현세에서와 장차 을 더 좋은 본향에서 쓸모 있도록 교육시키게 하자.

아내와 어머니는 자기의 힘을 포기하지 말 것이요 자기의 능력을 무위 상태로

놔두거나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의 개성이 그 남편의 개성에 병합될 수 없다. 아내는 자기가 남편과 동등함 — 아내는 남편의 옆에서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고 또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 을 느껴야 한다. 자녀를 교육하는 아내의 일은 모든 면에서, 남편이 어떠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든지, 심지어 그가 국가의 원수의 직임에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일 못지 않게 고상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일이다." (가정, 231)

7. 가정의 여왕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 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어머니들에게 자기의 과업의 고귀한 특성을 깨닫게 해주라. 그리하면 그들은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의 직무의 가치를 인식하여 세상의 표준을 따르려는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라. 그의 직무는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요 자녀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된 위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가정에서의 그의 감화는 으뜸이 되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기 자녀들의 존경을 얻을 것이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들의 시중을 드는 종이 아니요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가르치는 여왕으로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가정, 231-232)

8. 가치에 대한 사실적인 비교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일을 옳게 평가하는 일이 별로 없고 또한 자주 자신들의 수고를 너무 낮게 평가하여 그 일을 가정의 고역거리로 여긴다. 그는 어떤 현저한 결과도 바라봄이 없이 날마다, 주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여 행한다. 그는 그날이 마칠 때에 자기가 행한 많은 작은 일들을 말할 수 없다. 그는 남편이 성취한 일들과 비교하여 자기가 한 일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때때로 자부하는 태도로 자기가 그날에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의 말들은 이제 그는 아내의 시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아내가 한 일은 자녀를 돌보고, 음식을 만들며, 집안을 정돈한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고 파는 장사도 하지 않았고 밭을 가는 농사일도 하지 않았으며 기계공의 일도 하지 않았으니 피곤케 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마치 창조주라도 된 듯이 비난하고 책망하며 명령한다. 그리하여 이것이 한층 더 아내이자 어머니인 그를 괴롭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내가 종일토록 자기가 맡은 의무를 행하느라 아주 피곤하게 되었지만 자기가 이룩한 성과를 볼 수 없어서 참으로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 232-233)

9. 휘장이 걷어질 수만 있다면...

"휘장이 걷혀져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그날의 일과를 볼 수 있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이 그 두 사람의 일을 어떻게 비교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 하늘의 계시로 하여 그들은 놀랄 것이다. 어머니는 지혜와 견인 불발의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새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는 자기의 일을 더욱 겸손한 시각으로 볼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일의 가치를

안다. 아버지는 썩어지고 없어질 사물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어머니는 이생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서 품격과 정신을 계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가정, 233)

10. 거룩하신 분과 같이 조각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신실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악한 세력에 저항하도록 교육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영광이 그의 위에 머문다. 다른 어떤 사업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일에 비길 수 없다. 그의 일은 화가와 같이 화폭 위에 아름다운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가와 같이 대리석에 형상을 아로새기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저술가와 같이 고상한 사상을 힘있는 문구로 나타내거나 음악가와 같이 아름다운 감정을 음률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어머니의 임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발시키는 것이다." (가정, 237)

자녀들 - 어머니의 조력자들

11. 가정 사회의 일원이 되는 자녀들

"자녀들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먹고 입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가능한 모든 행복을 자신들이 속한 가정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은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이 공동체의 여러 책임들 가운데서 그들의 몫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족의 모든 식구는 교인들이 교회 제반의 책임을 신실하게 지는 것처럼 이 책임들을 각각 져야 한다.

작은 심부름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대를 위하여 행할 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일이 끝나면 놀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라.

아이들은 역동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생활의 부담을 지는 일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 … 그들이 해야 할 일거리를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찾도록 방임하여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친히 이런 일을 단속해야 한다." (가정, 282)

12. 부모와 자녀들의 의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으며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명랑하고 충실하게 섬길 의무가 있다. 자녀들이 수고와 부담을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나누어 지는 의무감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부양할 의무를 느끼지 아니한다고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부모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들과 비위에 거슬리고 힘드는 일을 함으로써 부모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일들을 중지할 때에 자녀들은 장래 유용한 인물이 되게 할 매우 가치 있는 교육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보살피면서 감당하여야 하는 부담들을 나누어 지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에게는 가정의 일부를 그들의 방으로 사용하도록 주어졌고 가족 회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부모들과 자녀들은 상호간에 의무를 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부모에게 맡긴 채 부주의하고 무관심하

게 자라도록 용납하는 한편 자기는 모든 희생적인 일을 하는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 282-283)

13. 그릇된 친절로 말미암아 배운 나태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용한 인물이 되어 스스로를 돕고 남을 돕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시기의 많은 딸들이 자기들은 응접실에 앉아서 소설을 읽고 가장자리 장식, 뜨개질, 코바늘 뜨개질, 수 놓는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의 어머니는 수고하면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다림질을 하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바라본다. 그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무감각하다.

그러나 이 잘못은 어디에서 발단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혼이 누구에게 가장 큰 허물이 있는가? 어리석게 속은 부모들이다. 그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유익을 간과하고 그릇된 사랑으로 그들을 나태하게 앉아 있게 하거나 혹은 거의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정신이나 근육의 운동을 요구하지도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한다. 그리고는 그들의 딸들이 병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변명해 준다. 그들을 병약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부모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집 주위에서 적당히 운동을 취하였으면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를 빼앗겼으며 결국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게 된다.

그대의 자녀들이 일에 익숙하지 못하면 그들은 곧 피곤하게 된다. 그들은 옆구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며 사지가 피곤하다고 호소할 것이다. 이럴 때에 그대는 그들을 동정한 나머지 그들을 고생시키는 것보다 그대 스스로가 그 일을 맡아 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 자녀들에게 지우는 부담을 처음에는 가볍게 하여 주고 그 후 매일 조금씩 무겁게 하여 주어서 나중에는 별로 피곤해 하지 않고 적당한 양의 노동을 할 수가 있게 해야 한다." (가정, 283-284)

14. 평안과 잠을 보증함

"어머니들은 그들의 딸들을 부엌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그들을 끈기 있게 교육시켜야 한다. 하루가 마쳐질 때면 그들의 체격은 이런 노동에 더욱 알맞게 될 것이요 그들의 근육은 강건함과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사색은 더욱 건전하고 고상하여질 것이다. 그들은 피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당히 노동을 한 후에 취하는 휴식은 얼마나 유쾌한가! 자연의 신성한 회복자인 수면은 피곤한 육체에 활력을 주고 이튿날의 일을 위하여 준비시켜 준다. 그대의 자녀들에게 노동을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라. 그들의 도움이 요구되며 그들의 시간은 가치 있는 것이며 그대가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자녀들이 나태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죄이다. 설혹 그들이 피곤하게 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팔 다리와 근육을 활동하게 하라. 그들이 과로하지 않는 한 피곤함이 어찌 그대에게 끼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피곤과 지침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어린이들은 장성한 사람들보다 일의 잦은 변화와 간간히 쉬는 것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에라도 일하기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쓸모 있는 인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쁨을 느낄 것이다. 건전한 노동을 한 후에는 단잠을 잘 것이요 이튿날의 일을 위하여 기운은 소성될 것이다." (가정, 289)

15. "아이들이 성가시게 군다"고 말하지 말라

"어떤 어머니들은 '아, 글쎄, 아이들이 자꾸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성가십니다'라고 말한다. 내 아이들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내게 성가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그대의 자녀들을 칭찬해 주라. 경계에 경계를 더

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그들을 가르치라. 이것이 소설을 읽는 것보다, 방문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 (가정, 289)

가정 관리

16. 가정에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칙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 상호간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귀중한 산 모본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유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중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며 원칙에 진실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그 때에 이 원칙들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할 것이요 타인과의 교제에서 실행될 것이다." (가정, 305)

17.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자녀들은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라.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권리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유용하고 존경을 받으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줄, 그리고 내세의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의 사회에 들어갈 도덕적 적응성을 주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와 장래의 행복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습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일찍부터 복종과 극기와 타인의 행복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조급한 성질을 억제하고 거친 말을 삼가며 변함없는 친절과 예의와 자제를 보이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 306-307)

18. 맹목적인 애정도, 부당한 엄격함도 나타내지 말라

"맹목적인 애정에 빠져도 안 되지만 부당한 엄격함을 나타내어도 안 된다. 아이들을 완력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다. 그들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뒤에서 몰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길로 강요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자녀들을 다스릴 때에 사랑을 보여야 한다. 부모들은 혹독함이나 부당한 강요로써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혹독함은 영혼들을 사단의 올무 속으로 몰아넣는다.

권위와 사랑의 병합된 감화가 가족 통치의 고삐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입고 있는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해이해지거나 악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정, 307-308)

19. 시종 여일한 확고함과 침착한 단속이 필요됨

"아이들은 민감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곧잘 기뻐하고 곧잘 불쾌하여진다. 사랑의 언행으로 유순하게 훈련시킴으로써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가혹함을 보이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용히 말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행동하며 그대가 말한 것은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라.

그대의 자녀들과 사귈 때에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순진한 장난, 즐거움 그리고 슬픔 등에 공감하지 않는 일로 그들을 물리치지 말자.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심한 말이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일이 결코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록책에 이러한 모든 말을 기록하신다." (가정, 309)

20.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공동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법자이시요 왕이시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은 부모에게는 모든 억압을, 자녀들에게는 모든 불순종을 금하고 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자녀와 부모들은 이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를 규제하는 규칙은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당신의 법을 가정에서 집행하는 부모들과 이 법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긍휼과 공의의 결합된 감화가 끼쳐져야 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가정은 의로움과 공정함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따라 갈 것이다." (가정, 310-311)

기억할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뤄진 품성은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실물, 341)

연구할 과제

1.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가정, 215-216)
2. 조급한 남편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적합할까? (가정, 216)
3. 아버지가 어머니의 짐을 어떻게 함으로 덜어 줄 수 있는지 들어 보라. (가정, 219, 220)
4. 참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해 보라. (가정, 223, 224)
5.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유혹보다 더 강한 감화를 끼칠 수 있을까? (가정, 224-225)
6. 아버지가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하는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 보라. (가정, 239-240)
7. 모든 어머니들이 해야할 기도를 누가 맨 처음으로 하였는가? (가정, 241)
8. 부모들이 어떤 거룩한 위치에 있는가? (가정, 301)
9. 부모들이 내뱉는 거칠고 성난 말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정, 317)
10. 가정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보라. (가정, 385-393)

제27과 여자와 그녀의 사명

성경절 연구: 눅 10:38-42

요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 자원해서 섬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속성을 겸하여 가져야 한다." (6 증언, 118)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소망, 525)

예언의 신 연구

에덴과 그 후에

1.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에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 주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 하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엡 5:29; 창 2:24)." (부조, 46)

2. 여자가 복종함으로 연합이 지속되어야 했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금후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었더라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

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부조, 58-59)

3.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남편 곁에 있었을 때에 매우 행복하였음

"하와가 에덴의 가정에서 그의 남편 곁에 있을 때 완전히 행복하였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침착하지 못한 현대의 하와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치켜세움을 입었다. 그 여자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결과가 이를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적합하게 하시지 않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보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참 여자다운 존엄성과 고상한 품성을 희생하고, 하늘이 그들에게 지정해 준 바로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자들이 많다." (부조, 59)

어머니의 신성한 사명(거룩한 일)

4. 모든 여자들이 살림살이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함

"이스라엘에 있어서, 직업훈련은 하나의 의무로 간주되었다. 모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어떤 유용한 직업을 가르치도록 요구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생산적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모든 여자에게는 살림살이에 대한 의무를 아는 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따른 기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의 명예로 여겨졌다." (치료, 185-186)

"가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건강에 좋은 요리법의 기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여인들은 자기 가족의 건강에 대단히 필요한 것을 배울 결심을 해야 한다. 여러 곳에 위생적인 요리학교가 이 방면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인들은 어떠한 좋은 요리사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 주방 기술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진보를 위한 그의 노력에 꾸준히 인내할 것이다." (치료, 303)

5. 어머니의 일은 그녀 자신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임

"모든 어머니는 그 자녀를 돌볼 신성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 이 딸을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양육하여 그들에게 궁전의 식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품성을 주어 주님의 전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머니의 일은 흔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처럼 보인다. 그것은 별로 알아 주지 않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별로 알아주지 아니한다. 그는 매일 꾸준한 노력과 자제와 기지(機智)와 지혜와 자아희생적 사랑이 요구되는 적은 의무들을 되풀이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가 한 일을 어떤 큰 업적처럼 자랑할 수도 없다. 그는 집안의 일들이 잘 돌아가도록 일을 처리한데 불과하다.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들에게 일을 주어 즐겁게 해 주고, 어린 아이들의 발길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애를 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천사들은 수고에 지쳐 있는 어머니를 돌봐 주고 그가 매일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시한다.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치료, 376-377)

6. 많은 어머니들은 지나친 일들을 하고 있음

"여자가 자기 자신의 일과 가족의 일까지 할 때-남편과 아들들이 화롯가에 앉아서 사교적인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가 나무를 가져오고 물을 긷고 심지어 나무를 패기 위해 도끼까지 들 때 그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요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종이 되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많은 어머니는 자녀들이 가정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교육을 받지 않는 한편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진다. 그 결과로 그는 늙어지고 자녀들의 미숙한 발길을 지도해 줄 필요가 가장 절실할 때에 그들을 남겨 놓고 조사(早死)한다. 누가 잘못인가?" (5 증언, 180-181)

7. 가정은 선교 지역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위해서도 넓은 봉사의 분야가 있다. 유능한 요리사, 여자 재봉사, 간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가난한 가정의 가족들은 요리하는 법, 자기 자신의 의복을 만들고 수선하는 법, 병자를 간호하는 법, 가정을 올바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들보다 불행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과 자비로 어떤 작은 심부름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선교 지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위탁받을 때 모든 어머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숙한 책임을 맡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아들, 이 딸을 맡아서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서 주님의 궁정에서 영원토록 빛날 품성을 길러 주라.'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에게 악의 세력을 저항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과 영광이 성실한 그 어머니 위에 머무른다." (9 증언, 36-37)

8. 생애의 일반적인 의무들

"그대가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좀 덜 연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더 연구했더라면, 그대의 부모의 집안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애의 의무들을 행할 때, 그대는 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 그대는 그 일을 벗어나서 좀더 맘에 들고 고상하고 명예스러운 일에 관심을 쏟는다. 그대가 결코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만 한다. 기꺼이 충성되게 이런 명백하고 단순한 의무들이 이루어진다면, 가사적인 의무를 좋아하려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체험이 있건만 그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몫에 대해서 불평을 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스스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대는 결코 공중 앞에 서야 하는 일에 부름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접시를 닦고, 식탁을 차리고, 환자를 간호하고, 요리하고, 세탁하는 등, 그 어떤 일이든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대가 이러한 의무들을 즐겁고도 행복하게 하기 전까지는 더욱 위대하고 높은 의무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없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비천한 일을 누군가가 짊어져야 한다. 그것을 행하는 이들은 자기가 필요하고 명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느껴야 하며, 또한 그것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마치 가브리엘이 선지자들에게 파송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은 각각의 영역 속에서 그 질서대로 일하고 있다. 행해야 할 인생의 단순한 의무를 자기 집에서 챙하고 있는 여성은 천사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성실과 충성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으로 행해야 할 어떤 일이든지 명예롭게 할 것이다." (3 증언, 79-80)

9. 여자가 하는 일의 중요성과 존엄성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에게 허락한 지위 – 남편과 동등한 지위– 를 메꾸어야 한다. 세상은 명목상의 이름만을 가진 어머니가 아닌 그 어머니의 의미가 의미하는 데로의 어머니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자의 특수한 의무는 남자들의 의무보다 더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의무의 신성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녀의 평생 사업을 이행하도록 하라. 그녀의 자녀들을 이생과 내세의 더 나은 본향집을 위한 유용성을 위해 교육시키도록 하라.

가정에서의 여자의 직위는 보좌 위에 있는 왕의 직위보다 더 신성하다. 그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할 생애를 사는 것이다. 모본으로서만 아니라 개념으로서도 저들의 마음에 유용한 지식을 심어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아를 희생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교육 기초, 141)

어머니의 영향력

10. 영향력은 영원까지 미침

"어머니의 활동 범위는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감화와 연합할 때 어머니가 끼치는 감화는 영원토록 지속된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 가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어머니의 감화는 끊임없는 감화이다. 그리고 그 감화가 항상 정의의 편에 끼쳐진다면 자녀들의 성품은 어머니의 도덕적 열성과 가치를 증거할 것이다. 어머니의 미소와 격려는 북돋우는 힘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말과 호감의 미소로써 자녀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그의 감화가 진리와 덕행의 편에 끼쳐질 때,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인지! 그의 감화는 영원한 세월에 걸쳐 미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표정과 말과 행동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이 그의 감화의 결과라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 생각인가!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현명하게 훈련시킴으로 끼치는 감화가 인생의 부침(浮沈)을 통하여 미래의 영생에까지 뻗어 미칠 만큼 큰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모본자를 좇아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신실하고 열심 있고 견인 불발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나 이 일에는 갚음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잘 지도된 모든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가정, 240)

11. 어머니를 닮는 자녀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유대(紐帶)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이다. 아이는 아버지의 생활과 모본에서보다 어머니의 생활과 모본에서 더 쉽게 감명을 받는다. 그 이유는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친근한 연합의 끈이 그들을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은 그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기분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이기심에 빠지고 화를 잘 내며 가혹하다면 자녀의 성질이 이런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많은 아이들은 날 때부터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악에의 경향을 물려받았다. 영혼의 원수는 많은 부모들보다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원수는 만일 어머니가 그를 대항하지 아니한다면 그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머니에게 시험을 주어 압박한다.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는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도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간구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을 식별해 내기 위하여 항상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 간직해 둘 것이며 자기의 성미와 원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속하고 신실히 자기의 의무를 행하며 항상 엄습해 오는 사소한 유혹들을 이기는 생애를 살 것이다." (가정, 240-241)

12. 참을성 있는 어머니의 건전한 감화

"하루에 여러 번씩 어머니, 어머니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한 작은 어린아이의 거친 음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다른 아이에게 옮아간다. 그 우는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보아야 한다. 한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그 곤란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어머니의 현명한 머리를 필요로 한다. 다른 아이는 자기가 생각해 낸 일이 매우 흐뭇하여 어머니도 자기처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생각해 낸 것들을 꼭 봐 주기를 원한다. 인정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여러 시간 동안 어린이의 마음을 명랑하게 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의 귀한 어린 자녀들 사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귀중한 빛 줄기와 즐거움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 되게 함으로 이 귀여운 아이들을 자기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묶어 놓을 수 있는가.

그러나 번번이 어머니의 인내는 거의 주목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숱한 성가신 일에 혹사당한다. 장난꾸러기의 손들과 침착하지 못한 발들이 어머니에게 많은 노동과 곤란을 가져다 준다. 어머니가 자제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면 성급한 말이 그의 혀에서 새어 나오게 된다. 어머니는 거의 침착한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 긍휼하신 구속주께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신경을 진정시킨다. 그리하여 그는 조용한 위엄으로 자제의 고삐를 붙잡을 수가 있다. 그는 침착한 음성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가혹한 말을 억제하고 성난 감정을 억누르는 노력이 그에게 필요하였다. 만일 이런 말과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나타냈었다면 그의 감화는 소멸되었을 것이요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지력은 민감하다. 그들은 인내와 사랑스러운 음성, 그리고 조급하고 성난 명령을 식별한다. 이러한 명령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애정의 수분을 말라 버리게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기의 신경질과 동정적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 241-242)

13. 정신을 형성하고 성품을 끌지움

"특별히 어머니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다.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의 피로써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 신체 조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아이의 정신과 성격을 만드는 심령의 감화를 끼친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를 낳은 여인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을 가진 히브리 어머니 요게벳이었다. 하늘이 지도하신 아들이며 청렴한 사사(士師)이며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사무엘을 낳은 여인은 기도와 자기 희생으로 하늘의 영감을 받은 한나였다. 구주의 선구자의 어머니는 나사렛 마리아의 친척이며 같은 정신의 소유자인 엘리사벳이었다." (가정, 242)

14. 세상은 어머니의 은혜를 입고 있다.

"하나님의 날에는 진리와 개혁의 확고한 옹호자이던 인물들, 용기를 가지고 담

대히 행하고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선 인물들, 곧 세상의 명예 앞에서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고상하고 거룩한 진리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인물들에 대하여 세상이 경건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감화와 모본이 자녀들의 성품과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대의 책임을 기억하고 오직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반사하는 균형잡힌 정신과 깨끗한 성격을 계발시켜라." (가정, 243)

폭 넓은 분야에서 여성들이 봉사할 수 있음

15. 순결의 거룩한 띠를 두름으로 보호받음

"우리의 자매들은 참된 온유를 장려해야 한다. 그들은 주제넘거나 말이 많거나, 대담하거나 하지 말 것이며, 단정하고 겸손하며 말 수가 적을 것이다. 그들은 예의범절을 사랑해야 한다.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동정심이 있고, 용서할 줄 알며, 겸손한 것은 어울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입장을 지킨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간에 남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주의를 끄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 주위에 순결의 거룩한 테두리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은 어떤 부당한 자유로부터도 그들을 막아 줄 것이다." (2 증언, 455-456)

16. 남자들이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성들이 함

"여자들은 이 위기의 때에 해야 할 사업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의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 활동할 것 같으면, 그들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침착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 자아 희생적인 여성들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출 것이며, 그 빛은 그들에게 남성들의 힘을 초월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가정에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곧 생활 깊숙이 접근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자들이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밀접히 접촉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6 증언, 117-118)

17.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폭넓은 교육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접근하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여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고 저들의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 어머니들과 저들의 딸들을 접근하는 일로 인하여 큰 축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거룩한 일이요, 이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격려를 받아야 한다." (의료, 140)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포함된 광범위한 교육 — 주님께서는 학교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 곧 요리법, 가사, 재봉, 부기, 독서법, 발성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도록 계획하신다. 학생들은 안식일학교 교장, 안식일학교 교사, 성경교사 등 어떤 직분이든지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저들은 주간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전도, 475)

18. 여의사가 우리 요양원에 필요됨

"이루어져야 할 의료 선교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여자 환자들에게는 여자들이 치료해 주어야만 한다. 부부가 의사인 사람들은 함께 일하므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이 여자 환자들을 회진하고, 저들이 당하는 어떤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그녀의 남편과 상의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여자 의사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자들이 아플 때에 여자들이 저들을 치료해 줄 때에 사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문을 닫아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일들(남자가 여자를 치료하는 일=역자) 때문에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을 보았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단이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요양원에는 남편 곁에 설 수 있는 여자 의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들이 여자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온전히 회심한 여인이 현명한 의사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요양운에는 남자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여자 의사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의료, 140)

19. 공중 사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일

"여성 사업의 효과 — 여성들은 의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봉사사업에 몸을 바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처음으로 설교한 것은 마리아였다. … 현재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업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는 한 명의 여성이 있는 곳에 20명의 여성이 있다면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세련되고 부드러운 감화력은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업에 긴요한 것이다

연합된 활동에 참여한 부부 — 복음 전도 사업에 헌신해야 할 여성들이 있다. 여러 면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방문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목사들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전도, 471-472)

20. 이교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여인들

"외방 선교사업이나 본국 선교사업이나 간에 남녀를 막론한 모든 선교사들이 병자들에게 봉사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고, 그들 자신의 유용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교의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여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다른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고통을 없애 주고 질병을 제해 주는 간단한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치료, 145-146)

기억의 말씀: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며 어린이들은 그의 신하이다. 어머니는 모성의 위신을 가지고 가족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 (부모, 91)

연구할 과제

1. 한 여인의 충실한 증인의 역할을 한 결과에 대해 말해 보라. (복음, 197)
2. 여자들의 임금에 대해 토의해 보라. (7 증언, 207; 복음, 442; 건강, 314)
3. 가정의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하여야 할 경우에 여자들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여야만 하는가? (2 증언, 306)
4.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복음, 204, 205)
5. 어떻게 행복을 구하고 또 구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2 증언, 136)
6.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에게 줄 상급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청년, 413)
7. 여자들을 위한 원래의 계획(창조 당시)에 대해 설명해 보라. (3 증언, 484)

8. 많은 경우에 에덴 이후에 많은 여성들을 슬프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상동)
9. 무엇 때문에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토록 헌신하였는가? (소망, 2권 391, 392)
10.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하였는가? (소망, 2권 392)

제 5 장

나의 신앙(종교)

제28과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성경절 연구: 시 40:1-3; 사 1:5, 6

요점: "교만심, 야망, 사기, 미움, 이기심 등 이러한 속성들이 마음에서 정결함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죄악의 근성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사라지긴 하였지만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 없애 버리지는 않았다. 적당한 환경에서 이와 같은 속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열매로 익어간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어떠한 죄든지 남겨두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을 기다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를 섬기는 것이다." (5 증언, 175)

예언의 신 연구

무기력한 인간의 형편

1. 사단의 노예가 되었음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품부(稟賦)되었다. 그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마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마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인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하고 이 세상을 재화(災禍)와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유혹자 곧 사단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정로, 17)

2. 하늘에 적합하지 않음

"사람이 죄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골 2:3) 있는 자와 더불어 즐거이 교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게 되었다. 지금도 중생하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되지 못하매 따라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心琴)에는 아무런 공명(共鳴)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鼓舞)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背馳)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除外)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정로, 17-18)

3. 죄인이 어떻게 성결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 14: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7).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意志 力)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分限)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動機)를 깨끗케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 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정로, 18)

4. 오직 한 길이 있음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3:3)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 (요 3:3)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潛在)하고 있는 선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致命的) 오해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요 3:7)." (정로, 18-19)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었음

5. 야곱이 신비의 사다리를 봄

"그는 슬픈 중에 자려고 맨땅 위에 누우니 사면은 쓸쓸한 언덕 뿐이요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에 문득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였는데 본즉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 때에 위의 광명한 데서부터 위안과 희망의 기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 표상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로 더불어 하신 담화(談話)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표상이다." (정로, 20)

6. "내가 곧 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의 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정로)

7. 위대한 희생(놀라운 희생)

"아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眞價)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動力)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정로, 21)

8. 사단을 섬기지 못하게 경고하셨음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회피할 수 없는 보응, 우리 품성의 타락, 최후의 멸망들은 사단을 섬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 (정로, 21-22)

문둥병과 죄

9.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 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홀을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소망, 262)

10.부정하다. 부정하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

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소망, 262)

11.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으로 예를 들음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독기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하여졌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사 1:5, 6)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누구든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2, 3)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소망, 266)

12. 죄로부터 놓이기를 구하는 기도는 지체함없이 즉시 응답해 주심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갈 1:4)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소망, 266)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13. 엘리사가 문둥병자를 고친 이후에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음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서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 그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러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을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을 위해 하시리라고 감히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의 한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 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그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소망, 262-263)

14.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에 알아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 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마는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기를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소망, 263)

15. 즉시로 변화가 일어남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은 불그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성전에 예물을 가져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선언하기까지는 이런 예물은 가납될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의식을 이행하기를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단과 그 일의 결정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할 것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과 얼마나 긴급하게 분부하셨는지를 보여 준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증오한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적에 관한 어떤 소문도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성전에서 내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회복된 그 문둥병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소망, 263-264)

16. 이 일로 인하여 잠시 그의 사업을 중지하게 하였음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경고가 옳았음을 나타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의 치유를 목격했으므로 제사장들의 결정을 몹시 알고 싶어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돌아왔을 때에 커다란 흥분이 있었다.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사실을 감추려고 더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

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지만 그 문둥병자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표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키신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은 건강의 은사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다운 활력을 되찾은 것과 그의 가족과 사회로 복귀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를 온전케 해준 그 의원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구주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떼지어 그 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당신의 활동을 중지할 수 밖에 없으셨다." (소망, 264-265)

17. 모든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함(멀리까지 미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하였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문둥병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한편 편견과 유전에 의해 갇힌 바 된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를 보냄으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 의도된 증언을 그들에게 주셨다." (소망, 265)

18.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셨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반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의 지시는 이러한 비난의 그릇됨을 증명하였다. 즐겨 깨닫기를 원하던 모든 자에게 그것은 충분한 증언이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파견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율법을 존경하심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응대하셨다. 그는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시 109:5)도다. 산상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그분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마 5:44; 벧전 3:9) 비심으로써 그 원칙을 몸소 수범하셨다." (소망, 265)

19. 공중 앞에서 그의 회복을 선언함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가 나은 것을 확인하였다. 공적으로 선고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한 현저한 증언이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 자신에 의하여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베푼 자에 대한 산 증인이었다. 그는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제사장들은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였으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구주의 생애 동안 그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이 보였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행 6:7)였다." (소망, 265-266)

기억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망의 순간은 바로 거룩한 도움이 가장 가까운 때이다." (소망, 2권 342)

연구할 과제

1. 회의주의자들의 말년에 당하게 될 어떤 슬픈 광경이 묘사되었는가? (청년, 111)
2. 죄의 흔적(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교육 기초, 195)
3.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갈망하는데 잃어버린바 될 것인가? (초기, 288)
4.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해 보라. (행적, 551-552)
5. 망가진 옛 사람의 성품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4 증언, 92)
6.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에 대하여 동정하여야 하는가? 그대는 대답을 해 보라.(소망, 2권 309; 부조, 상권 476)
7. 하나님의 성령의 제지하시는 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면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소망, 2권 71)
8. 현대에도 마귀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소망, 2권 72)
9. 구속의 과학을 설명하라.(소망, 2권 297)
10.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이야기하라.(행 4:12; 부조, 상권 73)

제29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경절 연구: 막 2:10-12; 마 28:18; 히 7:25

요점: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 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시에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해' (시 33:9) 서게 하신 그분께서 범죄와 죄악으로 하여 죽은 영혼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셨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소망, 1권 372)

예언의 신 연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

1. 창조시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 33:6, 9; 104:5).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地表)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부조, 44)

2. 자연계 위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船上)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를 숨기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키웠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귀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 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

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주린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었다.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 방해 받으심이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쳤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를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랑을 느끼자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집중시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없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쳤으며 번갯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췄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막 4:40).

제자들 중에는 침묵이 흘렀다. 베드로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들지 않았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뒤쫓아오던 배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겪었다. 공포와 절망이 그 배에 탄 자들을 사로잡았으나 예수의 명령으로 소란한 광경은 고요하게 되었다.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까이에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하고 수근거렸다." (소망, 334-335)

3. 질병을 고치실 때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짐을 지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켜 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그들끼리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소망, 270)

4.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의 능력이 나타났음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엡 5:14)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 (골 1:13)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 (소망, 320)

5. 사귀들린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심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귀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접촉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예수께 저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도록 간청하였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 허리에 큰 돼지 떼가 먹고 있었다. 사귀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를 엄습하였다. 돼지들은 미친 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달음질쳐서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

그 동안에 이 사귀 들린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눈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온화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으며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소망, 338)

6. 성전에서 나타내신 능력

"그분에게로 쏠렸다. 제사장과 관원,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하늘 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신 일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그분 곁에 제일 가까이 섰던 제자들은 군중이 허락하는 한 멀리 물러섰다.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 구주께서는 홀로 서 계셨다. 모든 소리가 그쳐졌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침묵이 흘렀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라고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들었다. 그 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마치 삼키는 불처럼 보였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요 2:16)고 명령하셨다.

삼년 전 성전 치리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주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그 후 그들은 저희 스스로 공포심을 느끼고 일개 비천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체신 없이 복종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욱 무서워서 더 급히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감히 물어 본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들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 (소망, 590-592)

7. 악습을 극복하도록 사람들을 도우시는 능력

"악습의 희생이 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가장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탄원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봉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싸우고자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될 것이다.

당시에 하나의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미구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다(왕상 2:2). 인류의 모든 자녀, 곧 불멸의 면류관을 얻을 후보자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 라고 한 영감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방종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대장부가 되려면 위대한 도덕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나서 죄악적 방종으로 희생시켜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장부다운 기백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 입어 다시 찾으라고 호소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유혹의 힘, 곧 방종으로 빠져 들어가는 욕망의 힘을 깨닫고서 절망 중에 '나는 악을 저항할 수 없다' 고 부르짖는다. 그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라. 그는 거듭거듭 정복당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는 죄악 생활의 습관에 지배된 나머지 도덕적 능력이 약하다. 그의 약속과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와 같다. 그가 약속을 깨뜨리고 서약을 어긴 것을 알므로 그는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 주시거나 그와 함께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전과 후천적 습관과 기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보다 낮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오히려 모든 식욕과 정욕을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치료, 174-176)

8. 시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붙드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능력

"엘리야의 경험이 주는 교훈에서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새로 배워야 할 사람은 큰 책임을 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엘리야의 능력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 45:24)." (선지, 175)

9. 그를 따르는 자들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능력

"열 두 사도들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파견한 70인의 제자들도 그들의 사명의 표로서 초자연적 능력의 선물을 받았다. 그들이 사업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고 대답하셨다(눅 10:17, 18).

그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 승리를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다(눅 10:19).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은 모든 회개한 영혼의 방비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당신의 보호를 간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 아래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단이 강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를 하늘에서 내어쫓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자.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하여 나타낼 때 기뻐한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가?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한 말씀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요 3:16).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주에 증거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능력과 보호를 약속해 주는 보증이 된다." (치료, 94)

10.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 주신다. 영혼 구원의 사업에서 인간 대리자들을 구속주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야(陶冶)하는 그분의 영의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연합의 유대를 이루어 주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스스로를 주께 바치는 모든 자에게는 무한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7 증언, 30)

가버나움에 있던 중풍 병자

11.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베푸신 이적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다시 가르치셨다. 이 이적이 행해진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일은 또한 다른 귀중한 진리들을 예증하고 있다. 그 사실은 소망과 격려로 차 있으며 트집잡는 바리새인들과 관련시켜 볼 때 그것은 또한 경고의 교훈을 담고 있다." (소망, 266-267)

12. 죗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심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 보다는 죄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신 집안과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군중이 빽빽이 모여 있어서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께 나가기는 커녕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주위에 가까이 앉았고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다. 이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정탐꾼으로 온 자들이었다. 이 관리들 외에도 혼잡한 군중, 곧 열심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자들, 불신하는 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의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눅 1:53)." (소망, 267-268)

13. 예수께서는 중풍 환자의 소원을 이해하셨음

"중풍병자를 멘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

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었다." (소망, 268)

14.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랍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기 위해 궁금히 여기면서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들이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새롭게 그들의 마음에 떠 올랐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를 느꼈다." (소망, 268)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15.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참람되다고 생각함

"이 고관들은 서로 말을 주고 받지는 않았으나 피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생각을 읽고 이 감정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중풍 환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람되다고 약점을 잡아 이것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막 2:7)고 하였다." (소망, 268-269)

16.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자 그들은 그 시선 아래서 움츠려 물러섰다. 이윽고 시선을 돌리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 말씀하셨다.

이 때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소망, 269)

17.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

"죄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여!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여!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바 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동정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소망, 269)

18.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셨음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에 뒤 이었다. 이 교훈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요일 3:8; 요 1:4, 10:10; 고전 15:45).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 103:3)신다." (소망, 270)

19. 바리새인들은 패배감으로 아연 실색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혔고 패배감에 짓눌렸다. 그들은 이곳에서는 군중들을 선동하려는 그들의 뜻을 성취할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버렸던 그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이적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감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잠시 랍비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왔던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태도의 은근한 위엄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더 우월한 존재의 임재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고백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굳어갈수록 그들은 더욱 더 완강하게 자신들을 불신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새로운 술책을 꾸며내기 위하여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떠나갔다." (소망, 270-271)

20. 고침을 받은 중풍 병자의 가정에 기쁨이 차고 넘침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침상을 가뿐히 들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거의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는 가족들 앞에 충만한 성인의 활력을 가지고 섰다. 무기력하게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움직여졌다. 오그라들고 우중충한 색깔을 했던 살은 이제 생기있고 혈색이 좋았다. 그는 든든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 하였다.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

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소망, 271)

기억할 말씀: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치료봉사 159)

연구할 과제

1.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치료, 148)
2. 어떻게 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사람들에 의하여 거절을 당하시는가? (소망, 1권 55)
3. 중풍 병자가 그 질병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소망, 1권 367)
4. 문둥병과 중풍병과 그리고 완미함과 불신을 서로 비교해 보라. (상동 373)
5. 시험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자주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소망, 2권 64)
6.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이 어떻게 하면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소망, 2권 65)
7.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귀신들린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묘사해 보라. (소망, 2권 65)
8. 저들이 예수를 어찌하여 해할 수 없었는가? (소망, 2권 66)
9. 영혼의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소망, 2권 256)
10. 연약한 인성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여 얻을 수 있을까? (소망, 3권 393)

제30과 회개

성경절 연구: 시 32:1, 2; 51:1-14

요점: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정로, 23)

예언의 신 연구

첫 계단

1.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와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調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인가? "(정로, 23)

2. 첫째로 그리스도께 나오라.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말의 뜻을 밝히 드러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로, 25-26)

3. 회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32)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정로, 26)

4.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정로, 26-27)

5.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끌려감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저희의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여 어떤 악습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감화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부적 생애가 개선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저희 생애의 악함과 저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저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관대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에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굴욕이 요구되었는가?' 할 것이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이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정로, 27)

참된 자아 묘사

6.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구하라." (정로, 28)

7. 우리 자신의 참된 형편은 어떠한가?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었다 사욕이 없는 사랑과 자선은 그의 심령의 생명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이를 때이다." (정로, 28)

8. 우리 생애의 모든 부정한 점들을 밝히 말해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汚點)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의 불신실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한 죄인의 행실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마

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정로, 29)

9. 바울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음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외부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게 멀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에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롬 7:9)라고 하였다.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정로, 29-30)

10.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눅 18:13)하고 기도한 가련한 세리는 자신을 심히 큰 죄인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그의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그의 마음 문은 열려서 하나님의 신이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죄의 권세에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바리새교인의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기도는 그의 마음이 성신의 감화를 막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과 비교하여 그 자신이 더러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매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정로, 30-31)

경고의 말씀

11. 현실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함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갈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써 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렘 13:23).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정로, 31)

12.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왜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가?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시므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저들로 하여금 갈바리를 쳐다보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까닭이요, 또한 이 희생이 없이는 인류는 죄의 더럽히는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들로 더불어 교제를 회복하기 불가능-인류가 다시 영적 생애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불가능한-까닭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사망은 다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사람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더욱 고상한 생애를 살 소망도 없

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로, 31-32)

13.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변명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라고 하는 자들을 들어서 말하기를 '나도 저들만큼 선하다. 저들은 저희 행실에 있어서 나보다 별로 더 극기하고 단정하고 근신하지 못하다. 저들도 나처럼 오락과 방종을 좋아한다.'는 말로써 저희 자신을 변명하는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저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저희의 할 의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핑계를 삼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무 사람의 핑계도 될 수 없나니 대개 주께서는 허물이 많은 인간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시지 않으셨음이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악한 소행을 비평하는 자들은 더욱 착한 생애와 더욱 고상한 모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하여 그처럼 고상한 개념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만큼 저희 죄가 더 크지 아니한가? 이는 저희가 어떤 것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치 아니한 연고이다." (정로, 32)

14. 결코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의 애소(哀訴)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니 과연 이러한 지체는 사실상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정로, 32-33)

15. 죄의 무서운 결과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覺悟)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는 그러한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생길 리는 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 세상에 사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의 방축문(防築門)을 연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는 비탄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아니하고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 인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다. 하늘 자체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영향을 받았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에 요구되는 놀라운 희생의 기념물로서 있다. 우리는 죄를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정로, 32-33)

16. 계속 범죄할 때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마다, 그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신의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할 뿐 아니라 능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일후에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신을 거스린 이후에라도 또는 저희의 감화를 사단의 편으로 끼친

이후에라도 어떤 최후적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던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일생동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였은즉 그 때에 가서 예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로, 33-34)

17. 버리지 않고 사모하는 하나의 죄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죄악적 방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한다. 대담하게 불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자,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전연 무관심하는 자는 그 자신이 심은 바의 수확을 거둘 뿐이다." (정로, 34)

회개하는 방법

18.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의사를 강제하시지는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하므로 자멸하는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히 3:7, 8)." (정로, 34)

19. 시편 기자는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여호와는 기쁨과 슬픔의 착잡(錯雜)한 감정으로 찬 사람의 마음, 더러운 것과 거짓의 거처가 되는 방황하고 제멋대로 나가는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그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 24)하고 부르짖으라.

많은 사람은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신앙(知的信仰) 곧 형식적 경건만을 받아들인다. 그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0)라고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처럼 열심히 또는 꾸준히 행하라. 이 일은 하나님과 그대들 개인 사이에 영원히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추상적 소망은 결국 그대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정로, 34-35)

20.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 주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씀을 그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의(留意)하라.

그대들의 죄의 흉악한 것을 볼 때에 또는 그대들이 자신의 진상(眞相)을 볼 때에 실망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시킬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고후 5:19)하셨다. 그는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써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사려고 하신다. 세상의 부모라도 저희의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참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죄인에게 그보다 더 인정있게 애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인정있는 간청이 새어 나온 적이 없다. 그의 모든 허락과 경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표시이다.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딤전 1:15)는 것과 또 그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 빚진 자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적은 금액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은 매우 많은 금액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묻기를 어느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셨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눅 7:43)하였다. 과연 우리는 큰 죄인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넉넉하였다.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 때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리운 줄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정로, 35-36)

기억할 말씀: "두 개의 세상이 그대 앞에 있다. 그대는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현명한 자가 되어 영생을 붙잡으라."(4 증언, 117)

연구할 과제

1. 에서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어찌하여 슬퍼하였는가? (정로, 51)
2. 발람은 무엇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는 일이 그릇된 일임을 알았는가? (상동)
3. 유다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였는가? (정로, 51)
4. 바로는 어찌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는가? (정로, 51)
5. 위에 언급한 회개 또는 고백이 다윗이 한 회개와 어떻게 다른가? (정로, 53)
6. 참된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되는가? (소망, 2권 11)
7. 죄의 정도의 차이도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의 정도를 어떻게 보시는가? (정로, 67)
8.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과 하나님의 참된 판단을 비교해 보라.
9. 진정한 중생의 증거는 무엇인가? (2 증언, 294)
10. 참된 중생(회심)의 증거를 말해 보라. (2증언, 660)

제31과 고백

성경절 연구: 요일 1:9; 잠 28:13; 시편 32:5.

요점: "참된 회개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갈바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아들이 서슴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정로, 95)

예언의 신 연구

용서의 조건

1.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苦行)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정로, 37)

2.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적합한 고백이 되는가?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약 5:16)고 하였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쾌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정로, 37)

3.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홀로 참되신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내어 놓을 것이니,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 (히 4:15)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온갖 불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줄 수 있는 자이시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응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 34:18)라고 하였다." (정로, 37-38)

4. 참된 고백의 특성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있게 하여야 한다." (정로, 38)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우리로서 하여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6, 17).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겔 33:15)." (정로, 39)

죄는 사실이나 위선적인 고백

5. 회개하고 개혁함(고침)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하여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의 자복은 진정하지 못하고 간절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할 적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여사여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기는 비난받는 바 그 일을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 (정로, 39-40)

6.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은 후에 그들은 수치와 공포의 느낌으로 충만하였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저의 죄를 핑계하여서 그 무서운 사망 선고를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주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 보실 때에 아담의 대답은 그 범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일부분은 그 아내에게 돌려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하였다. 여인은 그 허물을 뱀에게 돌려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3)하였다. 왜 당신은 뱀을 지으셨나이까? 왜 당신은 그 뱀이 에덴동산에 들어옴을 허락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이 하와가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 가운데 암시되어 있나니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될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연고이다." (정로, 40-41)

7.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실례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정로, 41)

8. 바울의 한 고백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는 말하기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 (행 26:10, 11)다고 하였다. 그는 또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전 1:15)고 하였다." (정로, 42)

비교가 되는 고백의 "예"들

9. 너무나 잦은 바로가 한 것과 같은 고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의 바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는 더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의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앙들이 그치자 즉시 그는 하늘을 반항하는 일로 되돌아갔다. 발람의 고백도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칼을 빼 들고 그가 가는 길에 서있는 천사에 놀란 그는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 그의 고백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 통회도 없고, 목적의 변동도 없고, 죄를 가증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어떤 가치도 공효도 없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주님을 배반한 후,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 27:4)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죄의 무서운 장면과 미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죄책감에 눌린 그의 심령에서 강요된 것이었다. 그에게 이르러 올 결과 때문에 그는 자신의 큰 죄를 이처럼 인정하게 되었다.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 주어서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배신하여 악하고 무도한 자들의 손에 넘겨준 데 대한 깊고도 마음을 찢는 슬픔이 없었다. 그의 고백은 다만 이기적이고 암담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에 불과했다." (5 증언, 637)

10. 아간이 한 고백은 너무 늦은 것이었다.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으나 그 고백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았다. 만일 그 때에 자복하였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

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간은 큰 죄가 범하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인봉되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그의 지파에서 시작하여 그의 종족과 가족이 점차 지목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간은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와 동일한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써 그의 범죄의 결과를 피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복은 다만 자신의 형벌이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깊은 뉘우침도 의도의 변화도, 악에 대한 증오도 없었다.

그와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들에게 미칠 결과가 각각 저희 죄를 시인하게 할 것이다. 선고에 대한 무서운 느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부조, 497-498)

11. 다윗은 용서받기 위해 탄원하였다.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아내에게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탄원했다.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 51:4)라고 부르짖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잘못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다윗은 용서를 구하되 사제에게가 아니고 사람의 창조주에게 구한다. 그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 51:1)라고 기도한다." (5 증언, 639)

12. 다니엘이 죄를 슬퍼하면서 죄를 고백하였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음을 읽게 된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번영과 시련의 때를 막론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존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낮추고 그의 죄와 백성의 죄를 고백했다. 그는 마음에 깊은 슬픔 가운데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단 9:5-7).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나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자 하지 않고, 심령의 겸손과 통회로 완전히 고백하고 그들의 허물의 결점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분의 호소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 나라에 대하여 취하신 그분의 처사를 공의롭다고 옹호했다." (5 증언, 635-636)

13.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유다는 소리쳤다.

"유다는 그 문제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야시라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큰 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 들어 그분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다. 이번 일이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고정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

킨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그로 하여금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째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자기가 담당한 몫을 잘 수행하였다.동산에서 그는 폭도의 두목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마 26:48)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를 놓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그는 내가 그분을 빨리 꼭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묶어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에서부터 재판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다. 매 순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케 하시어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 주소서' 라는 목쉰 음성이 갑자기 재판정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율(戰慄)을 느꼈다.

놀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는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 대제사장 앞에 그의 주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전을 내던졌다. 그는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 쥐고 그분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놓아 달라고 간청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며 그를 뿌리쳤으나 당황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이 드러났다. 저희가 이 제자를 매수하여 그의 주를 팔게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유다는 또다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대제사장은 다시 침착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마 27:4)는 말로 조소 섞인 대답을 했다.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기들의 도구로 삼은 것을 기뻐했으나 그의 비열함은 멸시하였다. 그가 통회하며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 버렸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 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에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온 회중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넘쳤다. 그러나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자신의 속박을 풀고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바로 그날 늦게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의 소리가 멈췄

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날 때에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몹시 소름끼치는 광경이었다. 그가 나무에 자기의 목을 매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으나 군중 가운데 조롱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징벌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망, 721-722)

두 예배자

14.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성전에 갔는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稅吏)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였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었다." (실물, 150)

15.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이 가득찼음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사 65:5)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실물, 150)

16. 그는 그 자신의 품성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실물, 150-151)

17.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과시하였다.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다." (실물, 151)

18.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남을 비난하도록 하였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이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 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

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실물, 151)

19. 세리의 기도와 고백은 어떠하였는가?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실물, 151-152)

20. 예배하는 두 계급을 대표함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실물, 152)

기억할 말씀: "참된 고백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정로, 89)

연구할 과제

1.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세상 근심"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라. (목사, 448)
2. 박씨가 김씨에게 잘못을 했다. 김씨 역시 박씨에게 비슷한 잘못을 했는데 박씨가 김씨에게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김씨가 박씨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보훈, 164)
3. 어떠한 경우에 고백할 때에 보상을 해야 하는가? (5 증언, 643)
4. 고백할 때에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동 645)
5.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이미 심겨진 죄의 씨는 어떻게 되는가? (부조,

하권 450-451, 459, 461, 481-490)
6. 고역을 행하는 것이나 지리한 여행을 하는 것은 고백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로, 85)
7. 고해 성사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5증언, 638-639)
8.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고백은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잃는 것이 되는가? (부조, 상권 520-522)
9. 아직 어떤 고백은 미래 사건으로 남아 있는가? (부조, 상권 522)

제32과 헌신

성경절 연구: 대상 29:5; 렘 29:13; 눅 14:33

요점: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정로, 47)

예언의 신 연구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

1.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음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엡 2:1),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성한 곳이 없' (사 1:5, 6)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좇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 (옛 번역)(딤후 2:26)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정로, 43)

2.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인가?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苦鬪)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정로, 43)

3.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理智)와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계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갖 자동인형(自動人形)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極致)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 (정로, 43-44)

4. 돌아서는 것이 필요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하셨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재물의 신(神)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숭배하는 바 된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정로, 44)

모든 것을 다 바친다(굴복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5.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인가?"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는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 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苦役)일 뿐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자문하여 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애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온 자이다. 이 까닭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불행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행동을 즐겨 행할 것인가? 영광의 주께서 받으신 한없는 굴욕을 생각할 때에 분투와 자아 겸비를 함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찌 원망할 것인가?" (정로, 44-45)

6.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 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 그는 자기 심령에 가장 큰 손상과 억울함을 끼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경륜하신 자가 금(禁)하시는 길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다." (정로, 46)

7. 방종하는 것은 고통과 실망을 가져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서 닫아버리는 그러한 방종을 피하라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는 저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 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시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形成)하는 그것이다." (정로, 46-47)

8. 선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과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로, 47-48)

"제군은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님"

9. 나는 항상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듣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없는가? 나는 절대로 자행 자지해서는 안 되는가? 나는 항상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 나는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가?

그대들이 본성적 경향을 제지하면 할수록 그대들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더욱 유익할 것이다. 타고난 경향은 왜곡되었고, 선천적 능력은 오용되어 왔다.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과 충돌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청년, 68)

10. 완전한 헌신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점령할 때 유전되고 배양된 죄악에의 경향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로운 통제 하에 새로운 생애가 심령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행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화만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사업은 겉 사람과 속 사람을 포함한다. 몸과 혼과 영 즉, 전존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의의 도구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산다. 날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

들을 주셨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애의 새 기회 곧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품성을 배양할 유예의 기간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로 거듭나고 변화된 봉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셨다." (청년, 68-69)

11.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주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 정신적 · 도덕적 모든 능력이 당신께 속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시간과 감화력과 이성과 애정 그리고 양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것들은 세상의 경향에 일치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도자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거하는 육신은 하나님께 속한다. 모든 근육과 살은 주의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등한함이나 남용으로 단 하나의 기관이라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사 육체적 · 영적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꼴 지우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몸을 최상의 건강 상태로 보존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한다.

순결한 원칙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를 심비(心碑)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의 귀한 진리를 머리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이런 모든 진리가 생애에서 빛을 발하리라." (청년, 69)

12. 영혼의 대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을 귀히 여기심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신 당신의 선물을 통해서 나타났다. 아담은 사단의 지배 아래 굴복하였다. 그는 죄를 이 세상에 들여왔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었다. 인간은 자신을 사단에게 팔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를 다시 사셨다. …" (청년, 69-70)

13. 결심이 요구된다.

"사단의 암시를 따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죄는 죄에 빠진 각 사람에게 불명예와 재난을 가져다 준다. 죄는 본래 맹목적이고 기만적이며 아첨하는 말로써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대담하게도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아무런 보증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막아야 한다." (청년, 70)

봉사를 위해 헌신함

14.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하늘의 휘장(徽章)을 가진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개인적 희망과 요구를 온전히 다 버리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신 그 사업을 가장 중히 여기셨다. 주께서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를 찾다가 그가 성전에서 유대 랍비들과 앉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

노라' 하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눅 2:48, 49)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의 평생의 사업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경건, 헌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주의 종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의 하늘 고향을 버리시고, 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과 우주를 통치하시던 보좌의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고독한 생애를 보내시며, 잃어버린 세상을 도로 찾기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그 위에 부으셨다." (복음 111)

15. 아브라함은 주의 횃불을 든 자로 나갔음

"주의 종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진리의 파종자로 부름을 받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주의 횃불을 든 자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 (히 11:8)다. 그는 그의 고향과 가정과 친척과 그 밖에 모든 이 세상의 즐거운 관계를 다 버리고 한낱 길손이요 나그네가 되었다." (복음, 112)

16.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함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행 22:21)는 기별을 받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옛 교제도 끊어 버리고, 평생의 계획도 포기하며, 이 땅의 희망도 내어 버려야 한다. 씨를 뿌리는 자는 자신을 희생하며 외로이 수고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 112)

17.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함

"그러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친 자는 항상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받는다. 다함이 없는 하늘의 공급을 원하는 대로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호흡 곧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의 최대의 능력으로써 마음 가운데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기능을 더욱 배가시키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영혼 구원 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임한다. 교역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함으로 주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비록 인간으로서는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자의 행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복음, 112-113)

18. 고귀한 경험을 가지기 위해 일함

"주님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은 봉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자기를 쳐 복종케 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참 뜻을 깨닫고 그 교훈에 복종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교역자와 함께 활동하시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성품을 완성시키신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날마다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고귀한 경험을 갖게 되어, 복음이 타락한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일 것이다." (복음, 113)

19. 더욱 깊은 헌신이 필요됨

"지금은 더욱 큰 능률과 더욱 깊은 헌신이 필요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모든 죄의 기초가 되는 자기 숭배를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린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사명의 신성함과 부름받은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사람, 노력과 기도가 포함되지 않은 온전치 못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로 결심한 주의 사자들을 일으켜서 보내 주소서 하는 것이다." (복음, 114)

20. 오늘 구세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고 옛적에 마태, 요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신다. 만일, 마음에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보수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기심 없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우리 생애는 모든 불순한 동기들을 능히 제거할 만한 고상한 목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친척과 친구 또는 구습과 사교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할 수도 없고 또 당신의 목적을 알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친척과 모든 세상과의 관계보다 주의 사업을 더욱 중히 여겨 전적으로 주께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더욱 큰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 114)

기억할 말씀: "봉사를 위하여 남김없이 자신을 주께 바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능력이 주어진다." (7 증언, 30)

연구할 과제

1. 선을 행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자질 7가지를 언급해 보라. (복음, 111)
2.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헌신에 대하여 말해 보라. (복음, 39)
3.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 (복음, 114)
4. 엘리사가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요청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복음, 115)
5.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해 보라. (복음, 112-113)
6. 온전히 헌신한 생애의 유용성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치료, 144)
7.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생애의 경험들에 대하여 묘사해 보라. (5 증언, 488)
8. 이기적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이 이생에서 받은 상급은 무엇인가? (6 증언, 305, 306)
9. 어떤 조건하에서 하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청년, 88)
10.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정로, 107)

제33과 믿음과 받으심

성경절 연구: 시 53:1; 골 2:8; 히 11:1-3.

요점: "땅의 깊은 곳을 수색하거나 하나님의 실존의 오묘를 이해하고자 헛된 노력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 계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그분의 뜻과 일치된 생애를 함으로 발견하게 된다." (치료, 394)

예언의 신 연구

핑계, 의심, 표류

1. 어떤 사람은 핑계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한다.

"나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고상한 일이요 덕스러운 일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을 보았다.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이 일종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과 진실성을 불신할 여지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분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트집 잡음으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든지 할 수 있다." (1 증언, 377)

2.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저자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들이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딤전 6:16) 거하시는 창조주께 우리의 마음을 이끈다. 그것은 인간 역사를 다 포함하고, 오직 끝없는 영원의 주기에서 성취될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와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무한히 깊고 주요한 주제들로 우리의 주의를 끈다." (5 증언, 699)

"구속의 계획에는 오묘가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굴욕,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보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겸손,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끊임없는 경이(驚異)의 주제들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벧전 1:11, 12)고 말한다. 이것들은 또한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명상할 때 새 진리가 경이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5 증언, 702-703)

3. 그릇된 가르침이 수천의 불경한 사람들을 낳았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일 것 같으면

그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성경의 진리들은 다시 관습과 전통과 거짓 교리에 의하여 모호해졌다. 인기 있는 신학의 거짓 가르침은 수많은 회의론자와 불신자들을 만들어 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왕권의 암흑 시대 동안에 채택한 성경의 거짓 해석을 성경의 가르침처럼 공공연히 비난하는 잘못과 모순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오류와 유전으로 그릇 인도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된 생각을 품도록 인도되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전 2:8), 하나님의 참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성경을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 신성한 진리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벧전 2:9)하기 위하여 교훈과 모본으로 노력해야 한다." (5 증언, 710)

4. 닻이 없이 방황(표류)함

"의심이나 회의심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할 것 같으면 그들의 믿음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배려를 해 놓으셨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믿기 전에 외관상의 모든 장애가 제거되기를 기다린다면 그들은 결코 진리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박고 기초를 놓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외관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길에서 결코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믿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둘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 자신에게까지도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닻 없이 떠내려가며, 불확실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사단은 곧 키를 쥐고 그가 원하는대로 그들의 연약한 배를 끌고 간다. 그들은 그의 의지에 굴종한다. 이 마음들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의 궤변에 기만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혼란하고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증언, 583-584)

5. 저들이 현명하게 된 것처럼 상상하고 있음

"하나님과 천사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품성의 계발을 지켜보고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사단의 간계를 저항하는 자들은 불에서 연단한 금처럼 나올 것이다. 유혹의 물결에 그들의 발이 쓸려가는 자들은 하와처럼,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워지고 그들의 무지와 좁은 양심을 벗어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와처럼 그들은 슬프게도 기만당한 스스로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었으며, 하늘의 지혜를 연약한 인간의 판단력과 바꾸고 있었다. 작은 지식이 그들을 자부심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들 스스로와 하나님께 대한 보다 깊고 철저한 지식은 그들을 다시 온전하고 지각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진리와 천사들과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균형을 잡게 해 주었을 것이다." (4 증언, 584)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6.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신 분에게 가라.

"때때로 지성적 능력을 갖추고, 교육과 수양으로 연마된 사람들이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해력이 약해 보이고 마음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자가 오묘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 구절들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힘과 위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설명되었다. 그들은 빛의 근원, 곧 성경에 영감을 주신 분을 찾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는다. 진리의 광맥이 있지만 그것은 열렬하게

찾는 자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다. 그것은 땅의 표면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해 내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지적 능력에 좌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에 좌우된다." (5 증언, 704)

7. 우리의 믿는 믿음의 증거들을 이해하여야 함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시대를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시련의 때가 올 때,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역설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족할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크게 무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논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단신으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 당하면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우리들 중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인간의 지혜를 나타낸 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5 증언, 707)

8. 그리스도께서 옛 진리를 새로운 국면으로 제시하였음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마음을 구약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에 제시된 큰 주제들을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가져가기 위한 의도였다. 여러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왔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귀중한 진리들을 놓쳐 버렸다. 이 진리들은 미신적인 형태와 그 진정한 의미를 숨겨 버린 의식들로 가리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광택을 가리워 버린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귀중한 보석으로써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으셨다. 그분은 친숙한 옛 진리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경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그 참 능력과 아름다움 그대로 드러내고 그 당시의 사람이 결코 분별하지 못한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이 계시된 진리들의 창시자 되신 그분은 그 진리들의 참뜻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상태와, 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 부합되도록 채택한 거짓 이론들과 오해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분은 이 진리들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도적질 해 간 것들을 치워 버리시고, 그 원래의 모든 생기와 능력을 회복한 진리들을 세상에 돌려주셨다." (5 증언, 709-710)

9.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됨

"신령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 육신의 마음은 이 비밀들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의문을 품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큰 기만자를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의 감명과 확신은 점점 줄어들고, 사단의 충동은 더욱 빈번해져서 마침내 마음은 완전히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 때에는 이 어리둥절해진 마음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의 능력으로 보일 것이다." (4 증언, 585)

10. 순결한 종교의 거룩한 형질(특성)

"지식의 탐구, 과학의 연구에 수반되어 온 큰 악들 중 하나는 이 연구에 종사하는 자들이 너무도 흔히 순결하고 순수한 종교의 신령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과학적 원칙 위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해 왔다. 이 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의론의 미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심하지 못한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다시, 세상의 구주께서 영적으로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거룩한 기록에서 읽는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4 증언, 585-586)

11.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 증거는 단순히 이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설명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확신에 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일깨워진 눈에 보이는 그분의 창조된 업적 속에 있는 산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그분의 임재를 본다. 그들은 상쾌한 햇빛 속에서 그분의 미소를, 가을의 풍성한 들판에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본다. 심지어 땅을 꾸미고 있는 것들, 싱싱하게 푸른 풀, 온갖 색깔로 된 아름다운 꽃들, 숲 속의 여러 가지 키 큰 나무들, 춤추는 시냇물,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 평온한 호수는 온유하고, 자부적(慈父的)인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자 하는 그분의 욕망을 증거한다." (8 증언, 325)

하늘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12. 그대는 악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대들의 양심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각성될 때에, 그대들이 죄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때에는 죄를 매우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동기는 불순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애가 사욕과 죄로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하고 그와같이 변화하는 것-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가?" (정로, 49)

13.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이지만...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이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없이' (사 55:1) 한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 1:18),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겔 36:26)이라고 하셨다." (정로, 49)

14. 믿고 받으라.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 버리시고 그대에게 새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에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 그는 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도와주셨나니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 있어서도 그를 신임할 수 있게 즉, 저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믿게 하셨다. 이 사실은 그가 반신 불수를 고치실 때에 명백히 진술되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 9:6). 이와같이 복음 전도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고 하였다." (정로, 49-50)

15.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환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 불수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정로, 50)

16. 믿으라 -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다.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 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이 허락에는 조건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으

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예수께로 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롬 8:1, 4)는 연고이다." (정로, 51)

17.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남

"그 후로는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 19).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신께서는 그대들의 마음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 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정로, 51-52)

18.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하라.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신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골 2:6)라고 하였다." (정로, 52)

19. 의심할 여지가 있겠는가?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에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애(慈愛)로써 생각하신다. '우리가…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는 자비와 용서로써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정로, 54-55)

기억할 말씀: "불신에 대해 말하라. 그리하면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그리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뿌려진 씨앗이 결실하게 될 것이다." (본 교회 선교 역사 142)

연구할 과제

1. 회의론자(Skeptic), 무신론자(Atheist), 이교도(신앙이 없는 자-Infidel), 자연 신교 신봉자(Deist), 자유 사상가(Freethinker), 불가지론자

(Agnostic), 이교도(Pagan)의 차이를 찾아보라. (사전을 찾아보라)
2.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받아 들임으로 이교도(신앙이 없는 자)가 되었는가? (1 증언, 344)
3. 회의론 주의자들이 비난하는 말을 하는 성경의 예를 찾아보라. (5 증언, 748, 749)
4. 안식일이 신성하게 지켜졌더라면 무엇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가? (부조, 상권 443)
5. 그대는 때때로 이교도들이 괄목할 만한 지혜를 말하는데 저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라. (8 증언, 306)
6.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소망, 2권 302)
7.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시험기간(변화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로, 119)
8.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해 보라. (정로, 121-123)
9.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만족할 만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5 증언, 706)
10.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였는지 살펴보자.

제 6 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제34과 칭의

성경절 연구: 롬 1:16, 17; 3:20-22; 5:1

요점: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정로, 62)

예언의 신 연구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칭의)

1. 두개의 반대되는 오류

"하나님의 자녀들-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자는 전연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이와 정반대 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로, 59-60)

2 가정(추정)이라고 불리우는 믿음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참람(僭濫)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엡 2:8).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 40:8)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 (요

15:10)한다고 하셨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저 안에 거한다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3, 6).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정로, 61-62)

3. 사단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심어 놓았음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思考)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소망, 35-36)

4. 헤어지지 아니한 두루마기와 손대지 아니한 샘

"그리스도의 시대와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 3:17, 18)는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 5)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해지고 있다." (소망, 280)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칭의)

5.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 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 었다.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요 1:29)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야가 행하시리라고 예언된 바 그 사업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이기적 야심으로 상상하던 만큼 메시야의 사업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번 먹이셨으나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사십 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야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

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한 랍비는 조롱이 섞인 어조로 묻기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였다." (소망, 385)

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로, 62-63)

7. 신앙과 믿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구별할 것이 있다. 신앙과는 전연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 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19)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意志)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정로, 63)

이 진리에 대한 역사

8. 왈덴스인들에 의해 진리가 가르친 바 되었음

"왈덴스인들은 이처럼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평안의 기쁨을 알려 주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과를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거짓에 기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천할 만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의 의존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고 사람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사실이며, 그분과의 연결은 그처럼 밀접해야 한다." (쟁투, 73)

9. 허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함

"바로 그 즈음 루터는 후스의 저서를 읽고,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진리가 벌써 보헤미아의 개혁자로 말미암아 주장되

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루터는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계속해서 '일세기 전에 전파된 진리를 불태워 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고야 말 것이다'고 말하였다." (쟁투, 140)

10. 러페브르는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게 되었는가?

"러페브르는 열심 있는 성도 숭배자였으며, 그는 성도와 순교자들의 역사를 편집해서 교회의 성도전(聖徒傳)을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그 일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유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물론 로마교의 성도의 목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그의 마음에 넘쳐흘렀다. 그는 놀람과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종래에 하던 일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는 거기서 찾은 귀중한 진리를 즉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512년, 아직도 루터나 츠빙글리가 개혁 사업에 손을 대기 전에 러페브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또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아아, 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쟁투, 212-213)

11.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배웠는가?

"드디어 그는 멀리 일곱 묏부리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때 깊은 감동을 받고 땅에 엎드려서 '거룩한 성 로마여! 나는 네게 경의를 표하노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로마 도성으로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신부와 승려들이 늘어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온갖 의식을 행하였다. 보는 것마다 그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각 계급의 승려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교의 입에서까지 야비한 농담을 듣게 되었고, 무서운 불경, 심지어 미사를 드리는 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남을 보고 오직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승려와 시민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방탕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감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로마에서 감행되는 모든 죄악과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가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로마는 필시 그 위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 곳은 온갖 죄악이 생겨나는 무한 지옥이다'는 말까지 있는 것이다.

당시에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층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층계는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을 나오실 때에 내려오신 층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층계를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말씀이 우레처럼 들리는 듯하였다.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 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 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왕교의 미혹으로 가리어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다. 그 후로 로마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법왕 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 버렸다." (쟁투, 124-125)

12. 쯔윙글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격함

"그는 말하였다. '다른 아무 곳보다도 이 성전에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주위에 계시며, 그대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 그대들은 고행(苦行), 먼 길의 순례, 헌물, 성상(聖像), 동정녀 마리아와 성도들의 기도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긴 기도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번쩍번쩍하는 두건(頭巾), 반반하게 민 머리, 치렁치렁 끌리는 옷, 금박으로 아로새긴 덧신,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보상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교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괴로운 여행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값없이 제공된 죄의 사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로마교가 지시해준 그대로 천국에 가는 옛길을 따라가는 일을 만족하게 여기었다. 그들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찾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싫어하였다. 마음의 정결을 구하는 것보다 법왕과 신부에게 그들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이 더욱 쉬웠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얻는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로마교의 의식들을 지킴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구주의 피를 그들의 죄를 사유하기 위하여 흘리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받은 귀중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진리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퍼졌으며, 그 결과 마리아의 전당(殿堂)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예물의 액수도 감소되었으며 거기서 지출되는 츠빙글리의 봉급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광신(狂信)과 미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쟁투, 175-176)

13. 이 교리(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영국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루터가 그렇게도 분명히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이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교의 교리가 그 대신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교회의 교인이었던 횟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과 종교적 의식을 모두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쟁투, 253)

14. 웨슬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가르침 받음

"영국으로 돌아오자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의 전도자의 교훈 아래 성경상 신앙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던 것을 모두 버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온전히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런던에서 있은 모라비아 교도들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된 루터의 글이 낭독되었다. 그 말을 듣자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불이 타올랐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때에 한 가지 확증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확증을 얻었다.'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의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 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쟁투, 255-256)

은혜의 보상

15. 진리는 유대인에게서 잊어진 바 되었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랍비들은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써 얻어 보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다. 예수께서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실물, 390)

16. 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에 한 젊은 관원이 달려와서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 인사하며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다.

이 관원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지체 높은 랍비로만 알았다. 구주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니라. 만일 네가 나를 그런 분(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대표자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네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네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실물, 390-391)

17. 순종 - 영생의 조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사람들에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나니 곧 완전한 순종과 흠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물, 391)

18.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라고 물었다. 이 청년은 어떤 의식적 율례(儀式的 律禮)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

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는 둘째 돌비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이 청년 관원은 서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말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 없는 품성을 보전해 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묻게 되었다." (실물, 391)

19. 젊은 법관의 선택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실물, 391-392)

20. 예수께서 그에게 환부를 보여 주셨음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患部)를 보여 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神)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실물, 392)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이 실패한 곳에 받아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신다. 믿는 영혼을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대하시고 그가 그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117)

연구할 과제

1.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하여 "…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15:1-6)
2.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예레미야 23:5; 하박국 2:4)
3.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치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인가? (정로, 141)
4.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므로 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대의 말로 설명해 보라. (정로, 114)
5. 원수에게 정복당해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정로, 147)

6. 어떤 진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으로 인간의 입술에서 발해진 것 가운데 가장 달콤한(아름다운) 진리”인가? (6 증언, 426)
7.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와 고해성사(죄를 참회하는 것) 교리를 비교해 보라. (쟁상, 115)
8. 엘렌 지 화잇이 죽기 바로 직전에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인가?(교육 기초, 548)

제35과 성화

성경절 연구: 살전 4:3; 5:23; 벧후 1:5-8

요점: "가장 사소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산 믿음의 표적이 금실처럼 뚜렷이 나타나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장성을 조장시키게 될 것이다. 거기는 끊임없이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의 냥쭝을 옳게 사용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금 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상에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참된 성결(성화)이다. 대개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실물, 374)

예언의 신 연구

성화에 대한 그릇된 교리

1. 현대 종교의 움직임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부인하는데서 생기는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오늘날의 종교 운동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론은 교리상으로 거짓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에게 환영을 받는 사실을 볼 때 이 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요긴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쟁투, 468-469)

"오늘날의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가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네 것이다'고 말한다. 받는 자 편에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생각한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들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일이 됨과 동시에 그분의 품성과 뜻의 표현이 되는 원칙에 조화되지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뜻에 일치하는 성결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교리, 곧 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약 2:14-24).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람된 억측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법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쟁투, 471-472)

2.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성결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 죄인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 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케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죄는 불법이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요일 3:4, 6)다. 요한은 그의 편지서들을 통하여 사랑을 충분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참 모습을 나타내기에 주저하지 아니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요일 2:4, 5)느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성결의 표준으로 정해 주신 유일의 척도로 재어 보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성결하다고 할 수 없다. 도덕적 율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존중히 여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쟁투, 472-473)

3.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모습, 그리고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쟁투, 473)

4. 성결(성화)과 자아 방종

"세상은 자아 방종에 빠져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면, 세속적 만족과 죄악적 습관을 완전히 내어 버리지 않으면 성화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입증된다." (쟁투, 475)

5. 타락한 사람들 중에 더러는 저들이 성결하다고 주장함

"…그들은 진리를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성화에 대하여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 버린다. 그들은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화를 노래하고, 성화를 부르짖는다.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결한 체하고 헌신을 공언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올바르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입증해 준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맞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므로,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1 증언, 338)

6. 쾌락과 자기 만족의 분위기(감정)는 성화의 증거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유쾌하고, 만족감을 주는 느낌이 성화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충실한 기록이 보존된다. 어떤 것도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의 눈에서 숨겨질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고안과 계획과 계책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행위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고 한 사도의 말을 잊어버린다." (8 증언, 235)

7. 모든 것이 거룩한 교리(교훈)

"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사업의 본질을 그들 앞에 펼쳐 주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위험을 그들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 다른 여러 견해들 가운데서 그들은 일단 성화된 자들은 결코 범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아름답게 단장된 이론들의 해독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강신술의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해졌다는 교리는 성화된 자들의 애정이 결코 곁길로 갈 수 없다는 신조를 갖게 했다. 이 신조의 결과는 비록 성화 되었다고 공언하지만 생각과 생활이 순결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마음의 악한 욕망의 성취를 초래했다." (8 증언, 293)

참된 성결의 표

8. 참된 성결(성화)은 성경의 교리이다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 … 기를 원하노라'(살전 5:23)고 기도하였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고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롬 15:16) 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요 16:13)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법은 진리로소이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요 15:10, 8:29)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쟁투, 469)

9. 성경에 언급한 성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 13)라고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고전 15:57)라고 부르짖게 된다." (쟁투, 469-470)

10. 성결케 되는 일은 점진적이다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 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 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3, 14)고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화를 얻는 계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벧후 1:5-10)고 말하였다." (쟁투, 470)

11. 참된 성결에는 겸손이 뒤따른다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성결의 두려운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쟁투, 470)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으스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쟁투, 471)

12. 성결(성화)은 정신(마음)을 넓혀 준다

성결(성화)은 지식에 이르는 영혼의 통로를 폐쇄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을 넓히고 감동케 하므로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게 한다.

13. 성화(성결)는 악과 타협하지 않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졌다. 초대 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주의 깊이 유의되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부르짖음은 특별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침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 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행적, 554-555)

14. 성화는 고상하게 함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을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행적, 49-50)

성화(성결)의 범위

15. 성결(성화)은 몸 전체를 포함한다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고 도하였다. 그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고 편지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들은 모두 엄밀히 검사되었다.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서 어떤 결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당하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에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네 마음을 …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로써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촉진시켜 줄 율법과 조화되고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쟁투, 473-474)

16.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고 말한다.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 지적 감각력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 7:1)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갈 5:22, 23)와 같은 성령의 열매에 '절제' 를 부가시켰다.

영감으로 된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식과 음주와 금지된 쾌락을 통하여 그들의 고상한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견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식욕을 돋구어 주고 물욕과 연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그리

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공급할 수 없는 교회의 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너무도 흔히 악을 권장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오셔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고 있는 연회와 부정한 거래들을 보신다면 그분께서는 일찍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겠는가?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말한다. 만일 그분께서 담배로 더러워진 입술로써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 담배의 악취로 그 입김과 전신이 더러워져 있는 자, 하늘의 공기를 더럽히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독기를 마시게 하는 자들을 만나신다면, 곧 복음의 순결성과 전연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과 만나신다면, 그들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견책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담배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졌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계 21:27)한다고 주장한다." (쟁투, 474)

17. 성화(성결)는 그리스도인의 재정(돈)을 사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해로운 습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능력은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본을 낭비할 때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쓸데없고 해로운 일들에 낭비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멸망하여 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와 헌금을 도둑질하는 한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복음사업을 유지하는 일보다 더욱 많은 것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정욕의 제단위에서 불살라 버린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화되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재물은 쓸데없고 해로운 방종에 낭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고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극기와 자아 희생의 모본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쟁투, 474-475)

참된 성결(성화)의 생애를 산 모본들

18. 성결(성화)의 생애를 산 모본으로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일생은 그의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있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단 10:11)이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을 죄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다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고 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훈을 주셨을 때에 그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다(단 9:18, 15, 20, 10:8)." (쟁투, 470-471)

19. 욥, 이사야, 사랑받던 제자 요한 역시 성결의 생애를 산 모본자

"욥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

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6)고 부르짖었다. 또 이사야는 스랍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 6:3, 5)고 크게 외쳤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고후 12:2; 엡 3:8)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은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계 1:17 참조)." (쟁투, 471)

20. 바울이 산 성결의 생애는 계속되는 투쟁의 생애였음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 더불어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는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8 증언, 313)

기억할 말씀: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한 날의 사업이 아니요 필생의 사업이다." (행적, 550)

연구할 과제

1. "성결(성화)"란 무엇인지 말해 보라. (화잇 자서전 237)
2. 성결(성화)의 증거는 무엇인가? (6 증언, 350)
3. 엘렌 하몬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가진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 (화잇 자서전 79-84)
4. 회개와 성결함이 어떻게 하여 사람을 하나님과 화친하게 해 주는가? (쟁투, 하권 255)
5.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논의해 보라. (쟁투, 하권 262-263)
6.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겸손함과 슬픔이 특징이 되어야 하는가? (쟁투, 하권 270)
7. 회심(회개)과 성결(성화)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되겠는가? (쟁투, 하권 270, 271)
8. 언제 죄와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투쟁의 끝이 올 것인가? (1 증언, 340)
9. 누룩의 작용이 성화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설명되었는가? (실물, 90)
10. 누가 불멸의 몸을 받기 위해 마지막 손질함을 받을 것인가? (2 증언, 355)

제36과 완전함

성경절 연구: 히 6:1; 약 1:4; 3:2; 딤후 3:16, 17

요점: "…균형이 잡힌 성격은 온전히 이행된 한 개 한 개의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 단 한 개의 결함일지라도 이를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배양하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에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문을 닫게 한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점이나 주름이나 또는 아무 그러한 것이 없는 품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떠한 것을 물론하고 더러운 것은 결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모든 구속받은 무리 중에는 한 사람도 결함있는 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청년, 183)

예언의 신 연구

자신과 싸우는 맹렬한 싸움

1.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완전하기를 요구하심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실물, 330)

2. 완전을 위해 투쟁하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器管)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방면으로 능률과 재능이 자라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일하여야 할 것에 대한 모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하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요 3:16)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최대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실물, 330-331)

3. 완전을 얻는 것(이루는)는 쉬운 일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하여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실물, 331)

4. 건강 음식이 아닌 것을 탐하는 식욕

"육식, 차와 커피, 사치하고 비건강적인 식물의 사용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자들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결심한 자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식물에 대한 식욕에 계속 방종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정결해지기를 바라시며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는 극기를 실천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완전한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9 증언, 153-154)

5. 식욕에 노예가 되는 자들은 실패할 것임

"식욕의 지배적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6 천년간에 걸친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는 그 열매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우리가 마지막에 접근할수록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승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3 증언, 491-492)

6. 지금까지 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라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

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계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실물, 332)

무엇이 완전에 대한 이상인가?

7. 우리는 그분(예수)이 그의 영역(범위)안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범위) 안에서 완전을 이루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구주를 바라보고 있으며,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를 입는다. 그분은 품성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에서 거룩한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인들은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관하여 더 이상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꼴 지우시는 성령의 감화 아래 스스로를 맡김으로써 거룩한 품성을 반영하는 품성들을 형성해야 한다." (8 증언, 86)

8.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나타난 완전함

"하나님의 사업은 가장 큰 것이나 가장 작은 것이나 상관없이 모두 완전하다. 우주 공간의 모든 세계를 달아매시는 하나님의 손은 들꽃 또한 아름답게 피우시는 손인 것이다. 길가에 핀 가장 작고 흔한 꽃을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서 그 각 부분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주목하여 보라.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천한 사람에게서도 참된 미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충실히 할 때에는 하나님의 눈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일체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교육, 114)

"온갖 필요가 공급됨 — 아담은 그의 마음에 소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온갖 필요는 공급되었다. 영광스러운 에덴에는 죄가 없었고 조락(凋落)의 징조도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유로이 또 친절히 그 경건한 부부로 더불어 교제하였다. 노래하는 행복한 새들은 마음놓고 창조주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평화스러운 짐승들은 즐겁고 무죄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의 주변에서 뛰놀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다. 아담은 창조주의 가장 고상한 작품인 완전한 인간이었다.

하나의 그늘도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와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알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은 아담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연계의 온갖 사물에서 나타났다." (가정, 26-27)

9. 좋은 모본과 완전한 품성

"선한 품성은 마치 벽돌을 쌓는 일처럼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쌓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들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게 하는 품성은 저들의 능력을 활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편의를 사용하고 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코 낮은 표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요셉과 다니엘의 품성은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모본이며 구주의 생애는 그들의 완전한 모본이다." (부모, 536-537)

10. 이상향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人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는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소망, 311)

완전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11. 그의 완전한 인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시고자 함이었다.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소망, 664)

12. 품성의 완전은 필생의 사업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들의 사업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드려져야 할 것으로 묘사한다. 하늘에서 온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련되고, 고상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진정한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고통스런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채석장에서 떼어낸 거칠은 돌들은 끌로 다듬어져야 하고, 그것들의 거칠은 면들이 갈리어져야 한다. 오늘날은 표면적 사업, 쉬운 방법, 하나님께서 세운 품성의 표준에서 떠난 과장된 성결 등이 인기 있는 시대이다. 모든 짧은 통로, 모든 지름길, 하나님의 율법을 신앙적 품성의 표준으로 높이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허위이다. 품성의 완성은 평생의 과업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느리고 힘든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범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바란다." (5 증언, 500)

13.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현세에서 가장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날마다 같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실물, 330)

14.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품성의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하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장 안에 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막 떠다 놓은 거친 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어떤 형태의 불안전한 것이든지 어떤 성격의 죄든지 우리에게서 제거한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움 가운데 계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영광의 왕국에 있는 순결한 하늘 천사들과 연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이땅에서 우리의 몸이 불멸의 몸이 되기에 알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건강, 44)

어떻게 완전을 얻을(이를) 수 있을까?

15. 완전의 표준에 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완전한 표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하셨다. 그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치료, 114-115)

"오늘날 청년들이 다니엘이 굳게 섰던 것과 같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모든 정신력과 근육을 긴장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나 초심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들이 가장 높은 탁월함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그들이 사닥다리의 가장 높은 발판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청년, 164)

16. 적은 일에 충실함

"하나님의 작품이 전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각개의 부분이 모두 완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풀잎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세계를 지으실 때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잘해야 한다. 그대들의 업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실히 행하라. 가장 작은 문제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라. 날마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유쾌한 말을 하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뿌려라. 그대들이 이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행동을 가납하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대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 25:21)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청년, 144-145)

17. 흠없는 생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라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본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본다. 다만 비탄과 절망만 가져올 것처럼 보인 복수의 구름은 십자가에서 반사된 빛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기록을 나타낸다. '죄인이여, 살지어다 살지어다! 너희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여, 살지어다! 내가 대속하였노라.'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

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를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일 4:10, 3:1).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역시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행적, 333-334)

18.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실물, 332)

19.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기호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진해서 행하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 (고후 10:5)실 것이다." (행적, 482-483)

20. 그대가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하고 균형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잘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주께서는 온전하지 못한(나누어진)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키신다. 그리고 그 신도는 날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실험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적, 483)

기억할 말씀: "열렬하고 끈기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행적, 306)

연구할 과제

1.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설명하라. (보훈, 110-113)
2.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7 증언, 143)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가운데서 무엇을 인정하시는가? (소망, 3권 156)
4. 시련의 때에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자연계 가운데서 어떤 예증을 들었는가? (화잇 자서전 9)
5. 하나님의 속성(품성)과 그의 율법에서 어떤 공통적인 것이 발견되는가? (시편 19:7; 마태복음 5:48) 또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공언과 관계가 있는가? (실물, 327)
6. 자기 자신이 완전함을 얻었다고 자신을 기만했던 한 예를 들어보라. (4 증언, 219)
7. 채석장에게 떠온 거치른 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증언, 355)

제37과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

성경절 연구: 약 1:5-7

요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만 유지된다.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실물, 136)

예언의 신 연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 깨끗하고 분명한 소리로 말하라

"부모들이여, 자신을 훈련시켜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말하도록 하라. 여인들도 이 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쁜 어머니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말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바로 읽고 말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그들은 일을 해 가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발전시키는 데 늦었다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가정의 테두리 안에 가능한 모든 완전함을 이루도록 촉구하신다." (6 증언, 381-382)

"기도 집회로 모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전해진 간증을 알아듣고 그것에서 도움을 얻게 되도록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특별히 요구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경험을 기도회에서 말할 때에 난관들이 제거되고 도움이 주어진다. 그러나 너무 자주 간증들이 결점 투성이의 불분명한 말로 전해짐으로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자주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 (6 증언, 382)

2. 믿음으로 기도하라

"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과 축복을 받고자 기도할 때, 때때로 그것을 즉시 받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당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대의 믿음은 주어질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축복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기치 않은 도움을 얻어서, 분명하고 능력있게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증언, 121)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한 바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는 호소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

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갈 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 15)." (치료, 70)

3. 끈질긴 기도

"기도를 마친 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심하지 말고 기다릴 것이며 불안해 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약속을 굳게 붙들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끈질기게 졸라 대던 과부처럼 목적하는 바를 확고하게 하고, 그대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아뢰라. 그 목적하는 바는 그대에게 긴요하고 심히 중대한 것인가! 분명히 그렇다. 그렇다면, 요동하지 말 것이다. 이는 그대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라면, 강하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것이다. 그대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만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불하였다면, 그것을 얻은 후에 그대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요동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백한 말씀이 그대에게 주어졌다. 피곤해 하지 말고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경고가 여기 있다. 만일 그대가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대에게 후히 주실 것이요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2 증언, 131)

4. 기도와 찬양과 능력

"우리의 헌신적 활동이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는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만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 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게 된다. 그대는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고,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비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무한한 은혜를 모멸하기까지 한다. 이 큰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계발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이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음성을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시 107:8)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5 증언, 317-318)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5. 주님을 찾는데(기도하는데) 바친 시간은 허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데 바쳐지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분께서 인간의 노력과 협력하기 위하여 오시고, 남녀들이 그분과 협력할 때, 현저한 변화가 사업과 그 결과에 보이게 될 것이다.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인 모든 마음은 음성과 마음과 품성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기계는 마치 기름이 쳐지고 능란한 손에 의하여 지도되는 것처럼 움직일 것이다. 교역자의 정신이 두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기름을 받을 때 마찰이 줄어들 것이다. 친절과 온유와 사랑과 격려의 말을 통하여 거룩한 감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7 증언, 195-196)

6. 홀로 있을 때, 길을 걸을 때나 매일의 바쁜 일과 중에서 기도할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시험받는 장소에 버려 두는 것은 주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방패는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그대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그대에게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되며, 열렬하고, 끈기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치료, 510-511)

7.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가 천막을 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 천막 곁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의 희생을 드렸다. 그의 천막은 옮겨졌어도, 그 제단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방랑하는 가나안인이 그 제단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천막을 쳤을 때는 그 제단을 고쳐 쌓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기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침 이슬처럼 그분의 자비와 축복이 간구자들에게로 내려올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매 아침과 저녁에 자녀들을 그대들 주변으로 모으고 겸손한 간구로 도움을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라. 그대들의 사랑스러운 어린 것들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날마다 머리 아픈 일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들의 길을 둘러싸고 있다. 인내하고, 상냥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자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데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대들 자신의 계획 대신에 그분의 계획들을 받아들이되, 그것들의 수락은 이미 간직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생애가 거룩한 모본을 따라 차츰 꼴 지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빌 4:7)실 것이다." (7 증언, 44)

8.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침과 저녁에 가족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 놓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 한다. 아침에 매일의 업무를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둘러 앉혀 놓고, 하나님께 머리숙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에 맡겨야 한다. 하루의 수고가 끝난 후에, 가족들은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치료, 392-393)

9. 많은 가정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그분의 풍성한 자비, 곧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복된 햇빛과 소나기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적은 시간도 할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곧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부조, 143-144)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10. 그대의 난문제들과 걱정 거리들을 그분께 가져가라

"귀중한 기도의 특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알려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은 물론이요 우리의 작은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써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함을 느낄 때, 사단은 그의 시험을 개입시킬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선량하고 동정 깊은 친구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는 심사 숙고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의 막연한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안심하고 알릴 수 있다." (5 증언, 200-201)

11. 축복의 외면적 증거를 구할 것이 아님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한다." (교육, 258)

12. 특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탄원함

"왜 신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깊고, 열렬한 관심을 느끼지 않는가? 왜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나 어떤 특별한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는가? 우리의 교회들에서 봉사를 위한 단체들을 형성하도록 하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활동하는 일에 연합

하도록 하자. 그들은 세상의 부패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의 순결 안으로 영혼들을 모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증언, 21)

기도할 때에 피해야 할 것들

13. 서둘러서 급하게 해치워 버리는 기도를 금하라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역자가 그의 기도를 급히 서두르고 그가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염려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날뛰고 있는 동안 그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몇 가지의 긴급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쇄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는 곧 피곤해진다. 그는 향상시키고 고취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의 지칠대로 지친 몸의 조직과 피로해진 뇌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완되지 않는다." (7 증언, 243)

14. 필요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입을 금하라

"하나님의 이름에도 숭경의 뜻을 보여야 한다. 그 이름을 가볍게 생각 없이 입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 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 111:9).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얼굴을 가리운다. 하물며, 타락한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숭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해야 할 것인가!" (교육, 243)

15.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강연을 하는 식의 기도를 금하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태도, 설교를 하는 듯한 태도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임을 진정으로 이해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주님께 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든 기도는 소리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이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러한 기도를 듣도록 강요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인하여 진력을 내게 된다." (2 증언, 581-582)

16. 경박한 말을 금하라

"…나는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의 자애로운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의 간구가 하늘로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초기, 70)

응답받은 기도

17. 두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함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의 교훈을 따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정한 목적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아뢸 때에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야 할 것을 여기서 보여 주신다. 연합된 기도, 곧 목적의 연합에 큰 비중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

도를 들으시나,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새로 조직된 지상의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하고 독특한 교훈을 하고 계셨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상호간에 일치해야 한다. 그것은 속임에 넘어가기 쉬운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에 집중된 몇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였다." (3 증언, 429)

18. 통회하면서 나오는 자는 거절당하지 않음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 주시는 바 된다." (실물, 174)

19. 축복은 믿음에 정비례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써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 9:29, 21:22).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히 10:23).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수로는 열려 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 그것은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물줄기를 쏟아놓는다." (7 증언, 273-274)

20.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요 16:24)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시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두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

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1 증언, 120-121)

기억할 말씀: "…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정로, 217)

연구할 과제

1.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정로, 233)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예배하는 관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 (부조, 상권 464)
3. 구약 성경에서 끈질긴 기도를 한 두개의 예를 말해 보라. (부조, 상권 249-250; 초기, 77)
4. 때때로 길고 장황한 기도가 공중 기도를 할 때에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 177)
5. 초대 재림 신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말해 보라. (5 증언, 161)
6.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 어떤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가? (보훈 , 149, 152)
7.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뜻은 무엇인가? (보훈, 153, 154)
8.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뜻은 무엇인가? (보훈, 155, 156)
9.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동일한 기도는 무엇인가? (보훈, 157, 158)
10.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그대가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훈, 158, 163)

제38과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성경절 연구: 눅 11:1-4

요점: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 계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해 준 성공의 방법이다. …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으며, '받으리라'는 허락이 있다." (행적, 554)

예언의 신 연구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

1. 한적한 숲 속에서 탄원하심

"낮 동안에는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타인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셨다. 병자를 고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낮의 일이 끝나면 밤마다 도시의 소란을 피하여 나아갔고, 한적한 숲속에서 엎드려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때때로 엎드린 모습 위에 환한 달빛이 비취었다.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보든 빛을 가려 버렸다. 간구하는 동안에 밤의 이슬과 서리가 그의 머리와 수염에 붙었다. 그분은 자주 철야하며 간구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분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2 증언, 202)

2. 그는 강한(힘있는) 탄원자였음

"하늘의 왕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동안 자주 열렬한 기도를 하셨다. 그분은 항상 감람산으로 가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이 좋아하는 장소를 알고 자주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밤의 적막한 때를 택하셨다. 그 때는 아무의 방해도 없는 때이다. 예수께서는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었다. 그분 자신이 축복과 힘의 원천이셨다. 그분은 심지어 폭풍까지도 명령하셨으며 폭풍은 그분에게 순종하였다. 그분은 부패로 더러워지지 않으셨고, 죄를 모르셨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으며, 때로 강한 외침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인간에 공통적인 바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실패를 공감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강한 탄원자이셨다.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지만 그와 같은 연약성을 이해하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고뇌를 겪으셨다." (2 증언, 508-509)

3. 나를 위해 기도하셨음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분의 눈은 미래의 어두운 휘장을 뚫고 모든 아담의 자녀들의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분은 심한 폭풍

중에 있는 모든 영혼의 짐과 슬픔을 느끼셨고, 그 열렬한 기도에 당신의 살아 있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까지 있을 당신의 모든 추종자들을 포함시키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다.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제시해 주는 위대한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가장 긴박한 사태의 시간, 낙담이 심령을 압도하고자 하는 때, 그 때가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는 때이다.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될 그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가 어둠을 흩어버리고 음침한 구름을 거두어 버린다." (4 증언, 529-530)

4. 나는 위대하신 중보자의 단골 손님이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과 굴복은 영감받은 사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 곧 왕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 장년 남녀들을 사단이 그들에게 떨어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멸망의 심연에서 당신의 피로 구해 내셨다." (3 증언, 365)

가르쳐 주소서

5. 나와 동행하는 천사의 말을 들음

"그대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품성에 선악간에 영향을 끼친다. 그대들이 행사한 바로 그 영향력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한 천사가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그대는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그대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증언, 363-364)

6.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儉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실물, 129-130)

7. 내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음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業績)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정로, 93)

8. 나의 매일의 필요를 그분에게 알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 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예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에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간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증거한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정로, 93)

9. 기도의 특권을 감사하고 기도함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히 4:15)는 자니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였다. 그의 인성(人性)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정로, 93-94)

기도하는데 있어서 성공의 조건들

10.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 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상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

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지智 等의)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정로, 94-95)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 (사 44:3)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로, 95)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정로, 95-96)

11.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함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정로, 97)

12. 기도할 때에 인내해야 함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롬 12:12; 골 4:2)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 4:7)고 권하였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고 가르쳤다.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 (유 20, 21)라 하였다." (정로, 97)

13. 은밀한 기도가 영혼의 생명이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호기심을 가진 자의 귀는 이러한 기도의 호소를 들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은밀한 기도에 있어서는 심령은 주위의 영향과 소란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 심령은 조용히 그리고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게 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시고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감화는 쾌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침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또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신령한 빛을 수집(收集)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성채(城砦)시다." (정로, 98)

14. 마음의 창을 항상 열어 두어야 함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정로, 98-99)

계속해서 하늘과 교통하는 생애를 함

15. 하늘의 공기를 호흡함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見解)와 영원한 실재(實在)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함의 미(美)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인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를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살므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정로, 99-100)

16.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라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약 5:11).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過大)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본체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 147:3)." (정로, 100)

17.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하는 때에 우리는 손실을 입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생생한 맛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진리의 성결케 하는 감화로 말미암아 깨우치거나 각성하기를 그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하여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는 가운데 피차 동정하는 일이

부족함으로 큰 손해를 본다. 고독(孤獨)주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교적 소질을 적당히 배양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동정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계발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정로, 101)

18. 세상 사물에 너무 집착이 강함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증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세(現世)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이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와 더불어 함께 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무한히 큰 이유가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그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은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줄로 우리를 그와 묶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낮은 땅에 너무도 가까이 살고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 (히 7:25)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정로, 102)

19. 찬양은 마음을 하늘로 더욱 가까워지게 함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타므로써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에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 50:23)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조물주 앞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사 51:3)로 나아가자." (정로, 104)

기억할 말씀: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 놓는 것이다."
(정로, 213)

연구할 과제

1.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2 증언, 578, 581)
2.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가? (복음, 179, 180)
3. 믿음과 감정의 차이를 말해 보라. (초기, 76)
4.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생명을 버리기를 원한 사람에 대하여 말해 보라. (1 증언, 295)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정로, 231-233)
6. 우리의 생애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정로, 235)
7. 무엇 때문에 유혹 그 자체가 죄를 위한 변명이 될 수 없는가? (부조, 하권 26)

8. 죄의 용서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보훈, 163-168)
9.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한 말을 설명해 보라. (보훈, 168-172)
10. 이 기도의 마지막 말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확신을 주었는가? 그리고 똑 같은 말씀이 남은 교회에서는 어떠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가? (보훈, 172-175)

제39과 의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절 연구: 요 20:24-29

요점: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소망, 808)

예언의 신 연구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들을 주심

1. 성경에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의심함

"많은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아니한 자들은 혹시 회의론자(懷疑論者)의 말로 번민을 당하는 수가 있다. 성경에는 저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나니 사단은 이것들을 이용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라는 저들의 믿음을 동요시키려고 한다. 그리하여 저들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바른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에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의혹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한다." (정로, 105)

2. 나타난 증거들을 인하여 쉼을 찾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의 존재, 그의 품성, 그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異性)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되나니 그 증거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혹될만한 점을 없이하여 버리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정로, 105)

3.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떻게 측량하"겠느냐?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싸여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욥 11:7, 8)." (정로, 105)

그의 섭리에 대한 신비

4.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음

"사도 바울은 부르짖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고 하였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으나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한 능력과 연합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처리하시는 방법과 또 어떠한 동기에 자극되어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리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로, 105-106)

5.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많은 신비들이 있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신령하신 저술자의 품성과 같이 유한한 사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것, 중생(重生), 부활, 그 외에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도 깊은 신비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까닭이 없다. 천연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둘려 있다. 아무리 비천한 생물이라도 매우 지혜가 많은 철학자의 능히 설명할 수 없는 난문제가 된다. 우리의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정로, 106-107)

6. 성경의 위대함과 오묘함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함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고 하였다.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논증으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성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記事)밖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尊嚴)을 생각이 유한한 자로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문제들의 원대하고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정로, 107)

7. 구원의 길은 평범한 것이냐 아니면 신비스러운 것이냐?

"성경은 가장 고상한 교양을 받은 자의 마음을 경탄케 하고 혹하게 할만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필요와 갈망에 꼭 맞도록 진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는 아무리 비천하고 교양이 없는 자라도 구원의 길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히 진술된 진리가 논술(論述)하는 문제들은 너무도 고상하고 너무도 원대하고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바이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처럼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으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믿고 나아갈 그 계단(階段)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진리들 속에

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인 신비-진리를 보통으로 연구하는 자의 마음은 압복(壓服)시키나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는 존경과 믿음을 고취하는 신비-가 있다. 성경을 탐구(探求)할수록 그 성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념은 더욱 확고하여지나니 인간의 이론은 존엄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굴복되고 마는 것이다." (정로, 107-108)

8. 전능하신 자의 뜻(목적)

"우리가 성경의 큰 진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유한한 생각으로는 무한하신 자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과 또한 사람은 그 제한된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 뿐이다.

회의론자와 불신자들은 성경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그리고 성경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다 이 점에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히 3:12)라고 하였다. 성경에 가르친 바에 엄밀히 연구하고 '하나님이 깊은 것' (고전 2:10)을 성경에 드러난 한도 안에서 상고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신 29:29). 그러나 사람의 연구력을 착란케 하는 것은 곧 사단의 일이다.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데 어떤 자존심이 섞일 때에는 사람들은 저희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저희에게 만족하도록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조급하여지고 실망하게 된다. 저희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저희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여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다. 저들은 성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저희의 인간적 지혜로써 성경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못되는 때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론과 교리가 성경상 교훈에 근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것이 성경의 대지(大旨)와 어그러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의심과 의혹을 주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한 데 책임을 돌릴 것이다." (정로, 108-109)

9. 하늘 나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울 것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을 충분히 깨닫는 데 이를 수 있다면 그 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저들에게는 그 이상 더 진리를 발견할 것이 없고 지식의 발달도 없고 정신과 마음의 발전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지존자가 되시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의 극점까지 달하였으므로 더 향상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골 2:3).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항상 연구하고 항상 배울지라도 그의 보배로운 지혜와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정로, 109)

10. 성령에 의하여 오는 빛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음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세에서라도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당신의 백성에서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이 있다. 즉 그 말씀을 주신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리라' (고전 2:10, 11) 그리고 구주

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3, 14)고 하셨다." (정로, 109)

거룩한 지도가 필요함

11. 이성을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사고력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나니 성경 연구는 아무 다른 연구로는 불가능한 정신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병약에 지배되는 변하기 쉬운 이론을 숭상하는 일을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이 흐려져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아주 명백한 진리까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르지 않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순진성과 믿음을 가지고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다른 편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기에 우리의 무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그의 말씀(성경)을 펼 때에 마치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때에는 우리의 이성은 그 이성 자체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지능은 크신 영원자존자(永遠自存者)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정로, 109-110)

12. 성경을 읽는 것이 해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음

"얼른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명백하고 단순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성신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곡해할 염려가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에는 우리 마음은 의혹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회의사상(懷疑思想)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은 해석을 하게 한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희가 아무리 유식할지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릇되기가 쉬우니 그러므로 저들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기는 위험하다. 무슨 착오(錯誤)를 찾으려고 성경을 살피는 자들은 영적 통찰력(洞察力)을 가지지 못한다. 저들은 난시적(亂視的) 눈을 가지므로 실상은 까다롭지 않고 단순한 것 가운데서도 의혹과 믿지 못할만한 조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정로, 110-111)

13.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저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하지만 저들이 의심하고 회의 사상을 품는 진정한 원인은 그 대부분이 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연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 제재는 거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저들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로, 111)

14.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하셨다.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하고 허물을 찾는 대신에 이미 그대에게 비춰진 빛에 유의(留意)하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대는 분명히 이해한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라. 그리하면 지금 그대가 이해치 못하는 것도 깨닫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로, 111)

15. 맛보아 체험으로 알아야 함

"모든 사람-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무식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나니 그것은 곧 경험적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의 허락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친히 시험하여 보기를 요청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 34:8)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친히 맛볼 것이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라고 하셨다. 그의 허락하신 바는 성취될 것이다. 이 허락이 성취되지 않은 일이 지금까지 도무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 안 될 일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의혹과 분명치 않은 점들은 그가 임재하신 데서 발하는 빛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골 1:13)다고 하였다.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요 3:33)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내가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서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의 주림이 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를 묻는가?-이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참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자신이 마음 속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정로, 111-112)

16.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새로운 빛을 알게 됨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날 때에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성경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서 새 빛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시대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러하였고 또한 그것이 세상 끝 날까지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잠 4:18)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을 붙잡을 수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심령의 온갖 능력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므로 답답하던 모든 것이 그 때에는 밝히 알려지겠고 또한 이해하기 곤란하던 것들이 그 때에는 해석을 얻게 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로, 112-113)

17. 아름답고 완전한 조화를 볼 것임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혼란과 실패로만 보았던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調和)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정로, 113)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18.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 들어갔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그 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잡도록 놔두었다." (소망, 806-807)

19. 그(예수님)분이 다락방을 방문하셨음

"다수의 제자들은 이제 익숙해진 다락방을 저희의 임시 거처로 삼았다.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 곳에 모였다. 어느 날 저녁,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소식이 참이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도마의 생각과 그가 한 말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의심하는 제자는 자기 동료 중에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 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망, 807-808)

20. 예수께서 도마에게 그 자신을 보이심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는지를 보여 주신다. 예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다. 불신은 언쟁으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 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소망, 808)

기억할 말씀: "…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복음, 264)

연구할 과제

1. 성경에 언급된 것 4가지로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해 보라. (정로, 245)
2. "의심하는 자는 완전한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 증언, 68)
3. 소견이 좁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해 보라. (4 증언, 444)
4. 의심과 불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교육 31-33)
5.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였는가? (치료, 232)
6.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대하신 일에서 그의 추종자들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소망, 3권 362)
7. 현대 유명한 신학계에서 주장하는 오류를 받아 들이는 결과는 가금 어떤 결과를 낳는가? (쟁투, 하권 343)
8. 어떤 연령층에 회의론의 씨가 가장 위험한가? (치료, 403)
9. 무엇 때문에 회의론주의가 그렇게도 매력적인가? (치료, 403)
10. 회의론자에게 그 치료제로써 그대는 무엇을 권장하겠는가? (4 증언, 449; 5 증언, 98)

제40과 주님 안에서 기뻐함

성경절 연구: 시 37:3; 요 14:27; 15:11

요점: "…이 세상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 변화기 쉬운 것이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다. 그 행복은 생애의 어떠한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요 세상 물질의 다소나 세상 친구의 다소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니 그가 주는 행복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훈, 31)

예언의 신 연구

가시나무 혹은 아름다운 장미와 석죽

1. 세상에 보내신 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인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 (요 17:18)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요 17:23)을 알게 하옵소서 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그리스도의 편지니',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후 3:3, 2)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정로, 115)

2. 하늘가는 길을 비춰 주어야 함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설혹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비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할 것이다.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봉사에 대하여 옳은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정로, 115)

3. 가시떨기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낙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필자가 유럽에 있을 때에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 한 자매가 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일이 있었다. 내가 그의 편지를 읽는 날 밤에 난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가운데 나는 한 동산에 있었고 그 동산의 주인인듯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 때에 내 옆에 서서 가던 그 자매는 그의 길을 방해하는 보기 싫은 찔레나무에 나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그는 안내자를 따라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찔레와 가시나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가시나무로 면목이 손상되는 것은 가석한 일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그 때에 그 안내자는 말하기를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뿐이니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석죽을 따시오' 라고 하였다." (정로, 116-117)

4.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장면들

"그대들의 경험 가운데 어떤 명랑한 장면은 없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신의 감화에 따라 기쁨으로 뛰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가져본 일은 없는가? 그대의 일생의 경험들을 회고할 때에 거기서 무슨 유쾌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허락은 향기로운 꽃과 같이 그대들이 나아가는 길 좌우편에서 자라나지 않는가? 그대들은 그 허락들의 미(美)와 향기로써 그대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정로, 117)

기쁨을 가져올 것이나 슬픔(우울)을 가져올 것이냐?

5.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에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사도는 기록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 8:32)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비록 말로는 표시하지 아니할지라도 저희의 행동으로써 '주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마 주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는지 모르나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고 말한다." (정로, 118-119)

6. 불신에 관한 생각은 단 한마디도 생각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일은 모두 그대 자신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 대개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에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사단의 유혹을 용납하는 문을 열어 놓을 것 같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신과 반역적 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느끼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여 버린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의심마다, 그대 자신에게만 영향이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생애에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되어 그대들의 말의 감화를 소멸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비록 그대들 자신은 사단의 일시적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대들의 감화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런즉 우리가 언제나 영적 힘과 생기를 주는 그러한 말만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긴요한가!" (정로, 119)

7. 그대가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천사들은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주께 대하여 세상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지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담화는 천부 앞에서 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그대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이 그대들의 마음에서 생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친구의 생각을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밖에 내지 않는 주의(主義)를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도 시험으로 몹시 괴로운 가운데서 자아(自我)와 더불어 또는 의 세력으로 더불어 싸우는 가운데 거의 기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힘든 투쟁 중에 있는 자들을 낙담케 하지 말라. 그런 이들에게 저희의 길을 전진할만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원기를 돋우어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들에게서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롬 14:7)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게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낙담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정로, 119-120)

8.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온정미와 쾌활성이 결핍하고 엄하고 가혹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 모든 신앙상 경험이 이러한 우울한 견해(見害)로 말미암아 악평(惡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수는 울기는 하였으나 웃은 일은 도무지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참으로 슬픔에 처한 자이었으며 비통을 잘 아셨나니, 이는 그가 인류의 모든 우고(憂苦)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여신 까닭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극기의 생애였나니 비록 고통과 근심으로 그늘졌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도리어 항상 안정하고 침착한 표정을 띠셨다. 그의 마음은 생명샘이었고 그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정로, 120)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이 임함

9. "주 안에서 신뢰함"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시 37:3)라고 하였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날마다 그날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날의 근심과 난문제들이 있나니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우리

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시험에 대하여 얼마나 입빠르게 말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하고 너무나 많은 공포심을 가지며 또 너무나 무거운 근심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급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정로, 121)

10.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사서 한다

"어떤 이는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서 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건만 저들은 이러한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 저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오리라고 염려하는 어떤 불유쾌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한다. 또는 실지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저희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저희가 당하는 곤란이 저희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이 불안과 불평의 생각을 일으키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떠나게 한다." (정로, 121-122)

11. 마음을 번민케 하고 이마를 찌푸리게 하는 일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도 좋은가? 우리는 어찌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가?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의 번민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말게 하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성가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다만 번민케 하고 피로(疲勞)케 할뿐이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견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은 버려야 한다." (정로, 122)

12. 걱정으로 눌려 있음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는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처리를 솔직하게 하신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셨다." (정로, 122-123)

하늘 아버지의 근심(걱정) - 돌보심

13. 그분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해 염려하시고 돌보심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는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처리를 솔직하게 하신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셨다." (정로, 122-123)

14.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성하게 자라서 천부께서 부여하신 아담한 미(美)를 빛내는 들의 꽃들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마 6:28)고 말씀하셨다. 이 들의 꽃들의 미와 아담함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훨씬 뛰어난다. 예술적 기술을 다하여 만든 가장 화려한 성장(盛裝)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의 자연적인 우아(優雅)와 눈부신 미(美)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 6:30)라고 하셨다. 신령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루동안에 없어지는 단순한 꽃에게도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채로 단장하게 하셨거든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야 얼마나 더욱 크게 돌보실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염려하는 생각과 번민과 의심을 책하는 견책이 되는 것이다." (정로, 123-124)

1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되고 화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1)고 하셨다." (정로, 124)

16.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찾는 기쁨과 만족

"의무의 상도(常道)에서 벗어나서 이기적 동기로써 구하는 행복은 편벽된 것이요 변역하기 쉬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심령은 쓸쓸함과 섭섭함으로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전한 길로 걸어가라고 방임되지 아니하였다. 또 그리스도인은 공연한 후회와 실망 가운데 버린 바 되지도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가 현세의 낙(樂)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내세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로, 124-125)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

17.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전보다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 (삼상 7:12)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눈물을 씻어 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의 여생(餘生)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정로, 125)

18.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천국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이기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고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4)는 큰 음악 소리와 같은 축복이 저희 귀에 들릴 것이다." (정로, 125-126)

19. 구원받은 자들을 영접하실 것임

"그 때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로 맞아들임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저희가 사귈 동무들은 이 땅의 비열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더러운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저희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자들로 더불어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저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 모든 불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고 태양의 광선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답고 광채나는 당신의 영광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품성의 완전하심, 즉 도덕적 미(美)가 저들을 통하여 빛날 것이니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외관상 화려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흰 보좌 앞에 허물이 없는 자로 천사의 권위와 특권을 누릴 것이다." (정로, 128)

20. 하늘에서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비록 그는 가난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부요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정결케 되고 자기의 온갖 고상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바친 그 사람은 지극히 가치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나니 이 기쁨은 거룩한 승리의 노래로 표시되는 기쁨이다." (정로, 128)

기억할 말씀: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마음에 있는 그의 평안이 인상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이다." (6 증언, 47)

연구할 과제

1. 경박한 행동에 해당하는 동의어 4개를 찾아 보라. 예언의 신에는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청년, 254) {사전을 찾아 보라. 영어 원문은 = Frivolity}
2. 환락(Mirth)과 행복(Happiness)의 차이를 말해 보라. (청년, 464)
3. 경솔함(Levity)과 즐거워함(Cheerfulness)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로, 277)
4.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그릇 나타내는가? (정로, 265)
5.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불완전함을 보고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가? (정로, 277-279)
6. 그리스도인의 사업이 점점 흉조를 보여 심한 재난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는가? (정로, 281)
7.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가지는 기쁨은 이생을 위한 것인가? 내세를 위한 것인가? (정로, 287)
8.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소망, 2권 78-79)
9.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일이 생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사함으로? (소망, 2권 79- 80)

제 7 장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이상

제41과 대화 - 말하기

성경절 연구: 마 12:34-37; 빌 4:8

요점: "심령이 병들고 용기의 맥박이 떨어질 때 들려주는 격려와 권면의 말, 구주께서는 그것을 마치 자신에게 한 말처럼 간주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될 때, 하늘의 천사들은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치료, 144)

예언의 신 연구

값싸고 평범한 말

1. 세상적인 것에 대해 말이 많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언은 아름답게 하지만 마음속은 부패된 것을 보았다. 거짓 공언자들이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 12:34).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 않음을 보았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으면, 그들은 최상의 애정에 집중되어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느낄 때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하여 오셨다. 죄의 무게로 피곤하고 지친 그대로, 그들은 그분을 찾아왔다. 그분은 그들의 죄와 허물의 짐을 벗겨 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애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을 이제 사랑한다." (1 증언, 159-160)

2. 필요없는 경박한 대화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선한 행실의 모본이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며 비애를 아는 분이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당신이 제공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을 향하여 우셨다.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대들의 생애의 길과, 그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을 하신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라. 그분께서는 빈번히 축축한 땅 위에서 고민의 기도를 드리면서 온 밤을 새우셨다. 그대들은 자신

의 쾌락을 구하고 있다. 헛되고 경솔한 대화를 들어 보라. 웃고 희롱하고 농담하는 소리를 들어 보라. 이것이 모본을 본받고 있는 일인가? 여전히 들어 보라.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는가? 진리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가?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저 보네트, 저 의복, 저 젊은 남자가 말한 것, 저 젊은 여자가 말한 것,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오락 등이 말하는 내용이다. 얼마나 들떠있는가! 천사들은, 사단이 몰고 와서 그 사람들을 에워싸게 한 흑암을 흩어 버리기 위하여 그들 주변으로 가까이 접근해 갔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보라, 그들은 슬픔 중에 돌아서 버린다. 나는 그 천사들의 얼굴에 있는 눈물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울게 되었을까? 물론 그렇다." (1 증언, 505)

3.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어리석은 회롱의 말들

"많은 이같은 모임들이 내게 제시되었다. 나는 환락과 의복의 자랑과 용모의 장식을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기 원하며 떠들며 노는 것과 어리석은 농담과 천하고 비루한 감언과 너털웃음 등에 정신을 빼앗긴다. 눈들은 번쩍이고 볼은 상기되며 양심은 잠자게 된다. 먹고 마시는 것과 환락으로써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쾌락의 현장은 저들의 낙원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눈여겨 살피시고 계신다. …" (부모, 339-340)

4. 농담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됨

"만일 그대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안일과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며 축복하기 위하여 애쓰신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우리 구속주께서 보여 주신 모본을 따라가기에 유의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감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처하는 생애의 어떠한 관계를 막론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그 범위가 크든 작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즉 남을 헐뜯음으로, 어리석은 농담과 익살을 늘어놓음으로, 무익하고 불친절한 말을 함으로, 진리를 얼버무리거나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게 된다. 우리는 품성을 통하여, 즉 안일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생애의 짐과 의무를 회피함으로, 죄된 쾌락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또한, 의복에 대한 자랑을 통하여나 세상과 일치함으로, 그리고 외모에 어그러진 행동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존중함으로 그리고 자아를 유지하고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함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사병 같은 감상주의로 기울어지게 하고, 또한 가상적인 시련과 어려운 처지에 대해 마음을 쏟음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도 있다." (3 증언, 331-332)

5. 사단의 선동에 의해 한 말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발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

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발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소망, 323)

6. 험담과 남을 헐뜯는 말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발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발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소망, 323)

7. 한 천사가 문지방에 서서 모든 말들을 기록하고 있음

"내가 질투심에 탐익된 것들을 보고, 질투가 가득한 말들, 분별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창피하게 하는 것들이다. 말과 행동과 동기들이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문지방에 서서 귀중한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들을 표면적이면서 속 마음은 강퍅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말과 행동에 빛을 가져 오실 것이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기별자들은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침실에도 있다.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진 감추인 일들이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사상, 의도,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 그분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 (건강에 관한 권면 412)

보다 나은 대화의 길

8. 예수님에 대하여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키신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신다. 사단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왜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 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소망, 493)

9. 그리스도의 말과 품성

"성화는 매일의 과업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유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알려진 죄를 고의로 범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을 눌러버리고,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아무리 황홀한 신앙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거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청년, 114)

10. 도움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들이 경험한 귀중한 사건들에 대한 대화가 너무 적다. 말의 재능을 남용하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불구가 되고 하나님은 욕을 받으신다. 시기와 그릇된 주측과 이기심을 마음에 품는다면 부패한 속마음이 말로 표출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말에 젖어 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써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마땅히 표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피차에 서로 돕고 권면하는 근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불신자들은 종종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청아한 말을 들을 때 감화를 받는다." (청년, 424)

11. 우리의 의복, 거처, 대화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함

"나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요 3:7)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과시를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에나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주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주택,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거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버린 사실을 입증한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헌신한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며, 불신의 세상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5 증언, 189)

12. 말은 적게 하고 명상을 많이 하라

"나의 형제와 자매들, 늙은이와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여가의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을 펴고 그 귀중한 진리들을 마음에 간직하라. 일을 할 때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하라. 말은 적게 하고 명상은 많이 하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 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말을 선택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혼의 원수에 대하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그분

의 천사들이 언제나 그대들 곁에서 그대들의 말과 그대들의 행동과 그대들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만일 그대들이 훌륭한 권면을 외면하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기울여지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길을 택하면 그대들은 미구에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 스스로를 유혹의 길에, 사단의 전쟁터에 두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의 간계에 정복당할 것이다. 어떤 기간에 신앙의 고백을 해 온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도 없고 민감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헛되고 경박하다. 그들의 대화는 저급한 수준에 속한다. 더욱 높고 더욱 고상한 사상이 배제된 채 구혼과 결혼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4 증언, 588-589)

13. 안식일이 시작될 때

"안식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엄격하게 주님께 속한 시간을 우리의 자신의 용도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계를 위한 우리 자신의 일 중 어떤 것들이나 엿새 동안에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거나 자녀들이 행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요일은 예비일이다. 이날 시간을 내어 안식일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그 준비에 관한 생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 안식일에 말해지거나 행해지도록 남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길들여지기를 요구하신다. 넷째 계명은 사실상 세상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경박하고 하찮은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범해진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데서 벗어나는 것마다 우리를 속박과 정죄 아래에 가두어 넣는다.

P 형제여, 그대는 넷째 계명의 신성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며, 그대 가정에서와 그대의 행동을 통하여 안식일을 격하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디에서나 그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대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이제까지 이 점에 대하여 그대가 끼쳐 온 영향력을 깨뜨려야 한다. 그대는 흔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대는 흔히 망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사사로운 말을 하였다. 그대는 주의하지 않았으며, 헌신하지 않은 자들과 그 날의 일상 문제 즉 이익과 손해, 주식, 농사, 식량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대의 감화력은 손상을 입는다. 그대는 개혁하여야 한다.

진리에 완전히 귀의하지 않은 자들은 흔히 그들의 마음을 세상 사업에 대해 거침없이 생각하도록 허용한다. 비록 그들은 안식일에 육신적인 수고로부터 쉬지만, 그들의 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축, 농사, 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혀가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2 증언, 702-703)

그의 모본

14. 식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대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셨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잔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하자 그분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다. 그런 기회에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식사 시간을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많은 귀중한 교훈을 나누어주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

자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물론이요,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과 접촉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모본을 통하여,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그들의 대화가 일반적으로 그런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성격의 것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6 증언, 173)

15. 언어가 세련되어야 함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저들 자신을 보잘것 없는 낮은 표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학창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들은 언어와 기질에 있어서 세련될 것이다. 저들은 버릇없이 굴거나 자기만을 돌보며 이기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사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 위하여 저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과 일체가 된다.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보물들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각자가 자기의 맡은 사업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모, 100-101)

16. 말의 능력 - 귀중한 재능

"남녀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 활동함으로 기도하게 되며,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과 유용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나 감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절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말도 순결해야 할 것이다. 말의 재능은 높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빌려 주신 귀중한 재능으로 생각할 것이다." (복음, 96-97)

17. 친절하고 예절 바른 말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정 생활에는 물론 피차 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시 45:2),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사 50:4)하심이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골 4:6) 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 (엡 4:29)기 위함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 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 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일은 그가 하시는 일이다." (실물, 336-337)

18.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귀중한 것들을 말하여야 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권장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는 귀중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또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우리의 말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의 대화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애에 있어서 믿음을 나누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포부,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 사욕이 없는 목적, 경건과 성결에 대한 갈망 등이 우리의 말 속에 열매를 맺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어 그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물, 338)

19. 그리스도께서는 고상한 생애에 대해 말씀하셨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 계실 때나, 길을 가실 때나,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 타셨을 때나, 바리새인의 잔치와 세리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셨을 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더욱 고상한 생애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다. 그분은 만물과 일상 생애의 사건을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 청중의 마음은 그분에게 이끌리었으니 이는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아이들을 그의 팔에 안고 복을 빌어 주신 연고이다.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청중들은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실물, 338)

20.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지혜로 말하여야 함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것같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만 사람에 뛰어난'(아 5:10)자이고, '그 전체가 사랑스'(아 5:16)러운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써 말해야 한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말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업이다.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구주로 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물, 338-339)

기억할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둘러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는 우리의 명상과 담화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로, 253(영한대역)

연구할 과제

1.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보다 낫다고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가? (2증언, 143)
2. 성소 안에 있는 저울에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달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2

증언 , 48) – “성소의 저울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말들이 달려야만 한다.”

3.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하는 두가지 이유를 하라. (4증언, 135)
4.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가? (4 증언, 588)
5. 교회의 신도들에게 "쓸데없는 험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증언, 387)
6. 어떤 두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5 증언, 437)
7. 어리석은 이야기를 일삼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대가 해야할 의무는 무엇인가? (실물, 348)
8. 그리스도의 행위와 말에 대한 어떤 두드러진 말씀이 있는가? (소망, 2권 146)
9.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울해지고, 불쾌하고, 일치하지 못하는가? (6 증언, 62)
10. 9번에 언급한 반대 현상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1 증언, 574)

제42과 품행

성경절 연구: 삼상 18:5, 12-16; 단 6:4, 5

요점: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소망, 89)

예언의 신 연구

가정에서

1. 극기와 몰아의 정신으로

"청년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의무는 그들의 가정에서 애정과 참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다. 가정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극기와 몰아(沒我)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인들의 신분이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고상한 직분이다. 언니가 그 동생에게 끼치는 감화력은 얼마나 큰가! 누이가 바로 행하면 그는 동생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기도, 그의 친절, 그리고 그의 애정은 가정에서 큰 감화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326)

2. 온유와 친절과 예의

"가정의 신앙이 크게 요구되며, 가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언사는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간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대가 가정에서 온유와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다. 가정의 신앙이 좀더 참되었더라면 교회는 좀더 힘있게 되었을 것이다." (청년, 327)

3. 가정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짐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고 스승이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에 속한 한 식구로 지내셨다. 그 기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큰 이적들도 없었고 열광적인 군중들이 그분을 따라다니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들 중의 한 사람처럼 가정생활에 동참하고, 가정의 훈계를 받고, 가정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지셨다. 비천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었다(눅 2:52)." (치료, 349)

학교에서

4. 그대의 선생과 협력하라

"학생들이여, 그대들의 교사들과 협력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된다. 그대들은 그들을 돕고 있으며, 동시에 그대 자신을 향상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교사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들의 사업이 정평 있는 성공을 거두느냐의 여부는 주로 그대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그대들은 배우는 자들이 되어 교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협력하고 있는 교사를 보아야 한다." (7 증언, 275)

5. 그대의 학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하게 하라

"사업을 위한 그대들의 기회는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 그대들은 자아를 기쁘게 하는 데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대들이 성공을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할 때만 그대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기간에 그대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귀중하다. 그대들의 학생 생활을 할 수 있는대로 완전하게 만들라. 그대들은 그 길을 단 한 번만 통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일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대들이 성경의 지식을 얻는 데 성공할 때 그대들은 나누어 줄 보화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7 증언, 275)

6. 동료 학생들을 도와 주라

"만일 뒤떨어진 동료 학생이 있다면,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과를 그에게 설명해 주라. 이 일은 그대 자신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단순한 말들을 사용하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대들의 생각을 말하라. 그대들의 동료 학생을 도와줌으로써 그대들은 그대들의 교사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런데 흔히 머리가 둔해 보이는 자가 교사를 통해서보다는 동료 학생을 통하여 훨씬 더 빨리 이치를 터득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권하시는 협력이다. 위대한 교사께서는 그대들 곁에 서셔서 그대들이 뒤떨어진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대들을 도우신다. 그대들의 학교 생활에서 그대들은 가난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해 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모든 기회를 이용하라. 주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보낸 모든 순간을 축복하실 것이다." (7 증언, 275-276)

직장에서

7. 정확하고 부지런히 하라

"그대가 어떤 위치에서 봉사하든지 그대의 동기를 계발시키고 품성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정확하고 부지런히 하라. 안이한 일을 찾고자 하는 경향을 극복하라.

매일의 활동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원칙이 온 생애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해진 분량의 일을 하고 고정된 월급을 받으며, 적응이나 훈련에 어려움없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도록 부르시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일꾼들이 아니다. 그들의 모본은 전염성이 있다. 사욕(私欲)이 지배적인 동기가 된다.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배당된 매일의 의무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정력과 성실과 근면을 나타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치료, 499)

8. 노동의 존엄성

"노동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 저술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젊은 남자들은 교사, 서기, 상인, 의사, 변호사같은 직업을 원하거나 또는 어떤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애를 쓴다. 젊은 여인은 가사를 피하고 다른 방면의 교육을 구한다. 남녀를 물론하고 신실히 일하는 이유로 그 품격이 저하되는 법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게으름과 이기적인 의뢰심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게으름은 자아 방종을 낳고, 그 결과는 헛되고 빈약한 생활을 가져 오며, 모든 죄악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게 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 6:7, 8)." (교육, 215-216)

9. 노동의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함

"육체 노동이 천시되는 큰 이유는, 그 일을 흔히 되는 대로 생각 없이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가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다. 일꾼은 거기에 전혀 심혈을 쏟지도 않고, 자존심도 없으며, 남의 존경을 받지도 못한다. 노작 교육은 이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은 숙련되고 조직적인 일을 배워야 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한 행동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은 최선의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항상 진취적인 희망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표를 자기들이 하는 일에, 사람의 두뇌와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완전함에 접근하는 데 두도록 한다.

그런 훈련은 청소년들을 노동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근로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그 비천한 직업까지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단순히 천한 일로 생각하고 무지한 자기 만족으로 진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드디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비천한 일에서도 그 속에 학문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고상함과 미를 찾고, 그 일을 충실히 능률적으로 수행 하는 중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청소년은 일생의 직업이 무엇이 되든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 한 자기의 직분을 유용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교육, 222)

방문을 할 때에

10. 집집 방문을 할 때에

"집집 방문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있는 대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들은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 가운데서 일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욕의 방종으로 식욕을 억제할 의지력이 없는 무력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마음 가운데 흥미가 생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 있고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심이 없는 친절한 행동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들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되기가 쉬워질 것이다." (6 증언, 83-84)

11.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 앞장서서 가심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나누며,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면 구주께서는 항상 임재하셔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신다. 교회가 하나

님의 주신 사업을 받아들일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빛같이 비췰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분은 우리의 앞장을 서신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뒤따른다." (6 증언, 267)

사교적인 집회에서

12. 성령께서 환영받는 손님이 되실 때

"사교적 집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작열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혹은 주의 사업을 진전시키고 동료 인간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하고 교훈적인 집회가 된다. 이러한 집회에서 성령을 반가운 손님으로 환영하고, 그 손님을 슬피 떠나가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다." (청년, 387)

13. 12번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집회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사교적 모임이 있으니 거기에서는 외양에 대한 자랑과 환희와 그리고 경박한 것을 너무나 번번이 보게 된다. 거기 모인 자들은 오락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으며, 또 수호하는 천사들을 비탄에 잠기게 할 사건들이 발생한다. 잠시 동안은 쾌락의 장면이 낙원이 된다. 모든 사람은 환희와 연락에 도취된다. 눈에는 불꽃이 일고 뺨은 붉어진다. 그러나 양심은 잠자고 있다." (청년, 387)

14. 음험한 감화력

"가식적인 품성과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쾌락과 오락을 위하여 아주 쉽게 모인다. 그리고 그들의 감화력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끌어 들인다. 어떤 때에는 성경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청년 남녀들도 설득당하여 회합에 참가한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기 싫어하고 또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본을 쉽게 따르는 그들은, 일찍이 마음이나 가슴에 성령의 접촉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감연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나무가 맺어야 할 과실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늘의 표준을 상고했더라면, 이러한 연회가 실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잔치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로 신중한 지도를 받은 청년들이 오락의 장소에 자주 출입함으로 인간적 감화에 매혹되어 세속적 성향을 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에게 애착심을 갖는 일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단장하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종신 노예로 팔아버린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세속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의 길이 비록 극기와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설 것이다." (청년, 388-389)

하나님의 집에서

15. 하늘 문 어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젊은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그대들의 특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박한 일이나 쓸데없는 일 또는, 대수롭지 않은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향하도록 하라.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 26:41)는 구주의 분

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한 유혹의 하나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처소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마음이 겸손한 영혼에게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 찬미의 노래나 그리스도의 성직자가 전할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훈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여 주어진 한 방편이다. 하늘에서의 숭고한 예배에는 불순한 자나 불결한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 265)

16. 경건이 크게 필요됨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는 경외심이 매우 필요하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와 예의에 전연 무관심한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책을 읽거나 수군대거나 웃고 있는 자들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 그들의 눈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습관을 그대로 두면 점점 널리 번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청년, 265)

17. 자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라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회에서 무심하거나 부주의한 것이 무슨 자랑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굽어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늘 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네 행위를 아노니'(계 3:1)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주의와 무관심의 습관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자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경외심이 완전히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것을 실지로 연습하라.

설교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속삭일 정도로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하여 불경건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가 만약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주시하며 그러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염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깊이 듣는 자들을 원하신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였다." (청년, 265-266)

그의 봉사에서

18.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예절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가운데 참된 위엄과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이 결핍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공언하는 진리의 향기를 더럽힌다. 정신과 태도를 훈련시키는 일을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행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남녀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와 복음 사업에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다.

주의 사업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도 있는 생활과 경건한 말을 하도록 하라. 수준을 너무 높일까봐 걱정하지 말라. … 모든 조잡하고 거친 행동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 대신 예절과 우아함과 그리스도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거칠고 무뚝뚝한 성격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한 성격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선교, 273-274)

19. 재치와 근면과 열성으로...

"사람이 재치와 근면과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자질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친다면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것이므로 갑절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영혼 구원 사업에 매우 필요한 것은 많은 재치와 지혜이다. 구주께서는 전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실 때에 그 크신 재치를 이용하시어 언제나 친절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그는 무례히 행하거나 필요없이 가혹한 말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쓸데없이 남의 감정을 상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선, 불신, 죄악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책망하셨으며, 그가 가차없이 책망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로 진리를 잔인하게 여기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간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나타내시었다. 주의 목전에는 어떠한 자나 다 귀한 존재들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족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가장 친절한 동정을 표시하시었다. 주께서는 모든 인류를 보실 때에 당신이 구원하여야 할 영혼들임을 아셨다." (선교, 279-280)

20. 높은 표준을 유지함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므로 일을 적게 성취한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큰 목적이 없고 도달하고자 하는 높은 표준도 없는 듯이 평생을 보낸다. 그 한가지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는 그가 지불하신 값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선교, 289)

기억할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물어 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치료, 452)

연구할 과제

1.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환락을 위한 회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 273)
2. 예절(Courtesy)과 예의(Etiquette)와의 차이를 말해 보라. (교육 309-311)
3. 참된 예의의 근본 또는 원칙은 무엇인가? (보훈, 192)
4. 예절에 대해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인가? (교육 311-312)
5.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상함의 결핍을 나타내는 품행은 어떤 것인가? (2 증언, 455)
6. 사교성의 가치에 대하여 논의해 보라. (4 증언, 71)
7. 어떻게 하면 생애 가운데 있는 불행의 절반을 줄일 수 있는가? (가정, 436)
8. 참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사람으로 어떻게 되게 하는가? (가정, 440)
9. 박해를 받고 있었던 바울의 생애가 어찌하여 계속되는 설교가 되었는가 말해 보라. (행적, 455)
10. 바른 품성을 쌓으려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4 증언, 588)

제43과 인내 - 참지 못함(조급함)

성경절 연구: 고전 13:4-7

요점: "참을성 있는 관용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봉사하는 중에 영혼에게 휴식을 가져오는 것은 참을성이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촉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충실한 노동자들을 통해서 된다. 사랑과 격려의 말은 그대들이 잘못을 범하는 자에게 쌓아 올릴 수 있는 모든 흠을 찾는 일과 비난보다도 급한 성질과 완고한 기질을 정복하는데 더 많은 일을 성취할 것이다." (7 증언, 266)

예언의 신 연구

참지 못함(조급함)

1. 참지 못하는 것(조급함)은 사단을 섬기는 일이다

"날카롭고 거친 품성의 특성들을 가진 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쓰라린 특성들을 억제하고 뿌리 뽑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성급함에 굴복하는 사람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좋은 품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빌의 순금보다 더 귀중하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현실과 영원을 위하여 처신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선과 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계발을 통하여 우리가 악을 더 나쁘게, 혹은 선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유다에게서처럼 악이 우세해져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악이 우리의 심령에서 추방되고 선이 우세해져야 하겠는가?" (4 증언, 606-607)

2. 가정에서 야비하고, 교회에서는 오만 불손함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대화는 좋은 양심에 수반된다. 마치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만들어지듯이. 만일 한 사람이 자기 가족과 또 다른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천박하다면, 아무도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볼 필요가 없다. 그는 가정에서 보이는 까다롭고 위압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이다. 아무도 생애의 의무와 관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지 않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없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화를 잘 내는 성정은 좋은 원칙의 열매가 아니다. 그대는 품성의 높고 고상하고 도덕적인 특질을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대가 지금 해야 한다. 그 일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4 증언, 347)

3. 엄격함 보다는 사랑에 더욱 풍성하라

"언제든지, 시정해야 할 무엇을 보거나 듣거든 너무 충실하게 하려다가 가혹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은총을 구하라. 잘못이 지적당하는 일은 언제나 굴욕스런 일이다. 쓸데없는 책망으로써 그를 더욱 괴롭게 하지 말라. 몰인정한 비평은 상대자로 낙망에 이르게 하며, 밝은 빛이 없는 불행한 생애가 되게 한다.

형제들이여, 엄격함보다 사랑에 더욱 풍성하라.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때에는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자들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고, 오히려 싸매어서 낫게 해주라." (복음, 496)

가정에 있는 불화

4. 제지되지 않은 모든 말과 행동들이 기록됨

"부모들이여, 기록하는 천사들은 그대가 자녀들에게 하는 조급하고 까다로운 모든 말들을 기록한다. 그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지 못한 것, 죄가 심히 흉악하다는 것과, 죄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려 주지 못한 모든 사실이 그대들의 이름 곁에 기록된다. 자녀들 앞에서 부주의하게 혹은 농담으로 별반 생각 없이 한 모든 말, 순결하고 고상하지 못한 모든 말을, 기록하는 천사는 그대들의 그리스도인 품성에 있는 하나의 오점으로 표시한다. 그대의 선악간의 행위가 모두 기록된다." (1 증언, 399)

5. 그대의 성급함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함

"부모들은 때때로 그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변명한다. 그들은 신경질적이므로 꾸준하고 침착할 수 없고 쾌활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천적 결함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단을 기쁘게 해준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또한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그들이 초조하고 성급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내는 정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행동하게 되면, 악이 증가되고 만사가 잘못될 것이다." (1 증언, 385-386)

6. 이야기(소설) 책을 읽는 자들이 저들의 독서를 방해하면 참지 못함

"R 자매여, 그대의 생애는 잘못 되었다. 그대는 아무것이나 닥치는대로 마구 읽었다. 그대의 마음은 그런 독서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대의 신경은 소설을 급하게 읽어내려 가는 동안 흥분되었었다. 만일 그렇게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이 성가시게 하면 조급하게 화를 내곤하였다. 그대는 자제력이 없다. 그리하여 자녀들을 단단히, 굳게 잡아 놓지 못하였다. 그대는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 그대는 그들의 응석을 받아 주고, 방임한다. 그리고는 화를 내고, 꾸짖고, 그리고 혹심하게 다룬다. 이런 변덕스러운 방법은 그들에게 매우 해롭다. 그들은 단호하고 강한 손이 필요하다. 이는 그를 방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규칙적이며, 현명하고, 분별 있는 징책이 필요하다." (2 증언, 433)

7. 자신이 살아 있음

"그대는 거듭거듭 말해 왔다. '나는 나의 성질을 잡을 수 없다.' '나는 말해야 한다.' 그대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없다. 자아가 잔뜩 살아있다. 그대는 그것이 상하거나 모욕을 당치 않도록 항상 지키고 있다. 사도는 말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자아를 죽인 사람은 그리 즉시 느끼지 않으며,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저항하려는 자세가 없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그대는 죽지 않았다. 만일 그대가 죽었다면, 그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취었다. 지금 그대가 보고, 그대를 괴롭히는 만 가지 것도 눈에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는 영원한 것을 알게 되며 이생의 사소한 문제를 초월할 것이다." (2 증언, 425)

가정을 행복하게 만듦

8. 그대가 의미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한 것을 이행하라

"어린이는 예민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쉽게 즐거워 하고, 쉽게 불행해진다.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드럽게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하고 염려하게 행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일관성 있는 단호함과 분노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은 모든 가정의 훈육에 필요하다. 그대가 말하려는 바를 조용히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대가 말한 것을 틀림없이 실행하라." (3 증언, 532)

9. 절제가 인내를 낳음(벧후 1:6)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의 집과 마음을 정돈하라. 하늘에서 온 진리가 그대를, 즉 혼과 몸과 영을 향상시키고 성화시키도록 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G 형제여, 그대가 먹는 것은 저열한 정욕을 강화시킬 경향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대가 해야 할 의무로서 그대의 몸을 제어하지 않는다. 먹는 데 절제가 실행되어야 그대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에게 그대 자신의 품성의 특질을 상당히 전해 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는 조심하고, 급하고 가혹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단호하게 취급하되 예수께서 그대를 취급하신 것처럼 인내로, 사랑으로, 동정으로 대하라. 책망할 때 조심하라. 자녀들을 참아 주지만, 잘 제어하라. 이점을 그대는 소홀히 하였다. 그대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므로 그들은 바른 방법으로 교정하지 않았다. 그대들을 위해 큰 일이 남아 있다." (2 증언, 405)

10. 그대의 자녀들에게 한가지 시간을 주라

"그대들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하는 일과 운동 등을 같이 즐김으로 저들의 신뢰를 얻으라. 저들의 우정을 계발시키라. 처음에는 저들에게 작은 책임을 맡기고 저들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큰 책임을 맡기라. 그대들이 저들의 도움을 고맙게 여긴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라. 결단코 저들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뿐이다'라는 말을 그대들의 입에서 듣지 못하게 하라." (부모, 124)

11. 가정 왕국의 연합된 통치자들

"가정 왕국의 연합된 통치자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친절과 예의를 보여 주도록 하라. 결코 저들 자신의 품행이 저들이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는 교훈에 반대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자녀들을 순결하게 양육하려면 저들 자신이 심령과 생애의 순결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저들의 자녀들이 훈련에 복종하게 하려면 먼저 저들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모방할 가치가 있는 모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 저들이 이 방면에 태만하였을 경우, 저들에게 위탁된 자녀들이 하늘 법정에서 부모들의 태만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온 세상의 심판관이 되시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손실과 실패에 대한 저들의 깨달음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부모, 128-129)

12. 시련이 인내를 기를 것임

"우리가 고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높은 표준이 있다. 또한 우리가 이 표준에 도달하려면 전지(煎枝)의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직면해야 할 어려움이 없고, 극복해야 할 장애가 없고, 인내와 참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전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시

련들은 우리의 경험에서 가장 적은 축복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공을 거두게 하는 일에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계획된 것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억압하고, 파멸시키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자아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5 증언, 344-345)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약 5:7). 이와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계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실물, 61)

위대한 "에"들

13. 욥의 경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롬 8:28) 성경의 전기가 고난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사 43:12). 우리는 그분이 선하신 것과 그 선하심이 한량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전 4:9).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무아의 정신은 사단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는 무아의 정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 사단은 하나님의 행위의 원칙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사단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업이요, 또한 그분의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이 무아의 정신의 실례를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54:17).

세상 역사의 아주 초기에 사단의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일생을 적어 놓은 기록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스의 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 1:8)고 증언하셨다." (욥 10:1; 14:13; 1:8-12; 2:5-7을 보라) (교육, 154-155)

14. 끈기있는 인내로 자기 품성을 옹호함

"욥이 믿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 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 말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품성을 옹호하였고, 그리함으로 그가 대표하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욥 42:10-12)." (교육, 156)

15. 모세의 한가지 실수

"모세와 아론은 성막 문으로 가서 땅에 부복하였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 나타'났으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민 20:8)라.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으나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발한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을 책하실 때에 그 말은 모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고 백성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를 붙들어 주셨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모세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행위가 처음부터 비평과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모든 책망을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부조, 417)

16. 모세가 범한 죄의 성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고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두 형제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물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흔들림을 당했다.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고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 이들도 역시 약속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것인가?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확고 부동한 신앙을 나타내었더라면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 장관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해 주시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가데스에서의 불평을 신속히 저지했더라면 연달아 일어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예방되었을까!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 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부조, 417-418)

17. 모세가 지은 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큰 죄가 아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 모세가 커다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 중의 하나이었다. 시편 기자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 106:33)고 하였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경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이 죄를 그처럼 엄격히 처리하셨을진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론자에게 그들의 불신을 변명할 재료를 준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감화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계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부조, 420)

18.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신 34:10-12).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죄 곧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사단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토록 하여 마침내 그를 죽음의 권세에 가두어 둔 자신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대적 마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는 하나님의 선고가 그를 죽음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였다.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뜨려져 본 일이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포로이므로 그의 어두운 옥사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단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였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대 반역자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최초의 불평과 비난을 되풀이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으로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박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에덴동산에서 거짓말을 하여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함으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 가게 한 사단 자신의 행위를 사단에게 상기시키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9)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 때 그 곳에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부조, 478-479)

19.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있으신 인내심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했으나 밤에 죄수를 심문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합법적인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성원이 된 의회 앞에서만 가능했고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수로 취급되셨고 가장 낮고 비루한 인간에게 학대를 받도록 내어준 바 되셨다. 대제사장의 관저는 군사들과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개방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정원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감호실로 잡혀 가셨는데, 그 때 사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조롱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분의 말씀이 희롱조로 여러번 반복되었다. 법적 심문을 기다리면서 감호실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무식한 폭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의회 앞에서 잔인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을 저희의 악마적인 성질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허가서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로 미치게 만들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결백하심과 위엄스러운 인내심은 그들을 사단에게서 온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채웠다. 자비와 공의는 짓밟혀졌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소망, 709-710)

20. 그의 거룩한 인내심은 실패하지 않았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치기 위해 달려들었다. 야수처럼 군중들은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으며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이를 가로막아 미친 폭도들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도 욕설하는 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의 고관들의 지지를 받은 사악하고 부패한 군병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주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저울질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처럼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때

나타나고 있던 모든 장면의 뒤편에는, 그들이 장차 어느날 보게 될 영광에 둘린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떨고 있었다. 무례한 무리가 그분의 앞에 조롱하는 태도로 절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나왔다가 돌아서서 무서워 떨며 말없이 서 있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 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쩍였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조롱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시간에 헤롯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처럼 마음이 굳은 헤롯도 그리스도에 대한 선고를 감히 재가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무서운 책임에서 놓여 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정으로 돌려보냈다." (소망, 731)

기억할 말씀: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의 생애 동안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5 증언, 466)

연구할 과제

1. 온유함이 동정, 경멸, 칭찬을 불러 일으키는 자질인가? (보훈, 27-32)
2. 사단이 쏘아대는 화살을 막아낼 우리의 방패는 무엇인가? (2 증언, 92)
3. 내가 먹는 습관은 누구의 사업인가? (2 증언, 364)
4. 커다란 인내를 요구하는 두개의 예를 들어 보라. (가정, 360, 375)
5. 하나님이시라도 할 수 없는 한가지는 무엇인가? (5 증언, 345)
6.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불평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상실하였는가? (부조, 하권 22)
7.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회개를 수락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는가? (부조, 하권 23)
8.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부조, 하권 23)
9.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는가? (부조, 하권 23-24)
10.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가지 특성이 분명해졌는가? (부조, 하권 24)

제44과 친절 – 비난

성경절 연구: 시 15

요점: "…친절한 말, 동정의 눈초리, 그리고 감사의 표시는 몸부림치는 외로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른 영혼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이 될 것이다. 한마디 격려의 말과 친절한 하나의 행위는 피곤한 어깨 위에 지워지는 짐들을 가볍게 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 (7 증언, 50)

예언의 신 연구

남의 잘못을 찾는 자

1.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음

"나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들어 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얼마동안 형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감시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결점을 찾아내고자 관찰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과 진리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단이 그들에게 원하는 곳, 곧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생각이 머물게 된다. 그들의 영혼은 등한히 여기고, 그들 자신의 결점을 좀처럼 깨닫거나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거나 그들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관찰하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복, 모자, 앞치마 등이 그들의 주목을 끈다. 그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 주일이 걸린다. 나는 몇 사람의 가련한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들이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늘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서도 결점을 찾아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증언, 145)

2.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자에게 가라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진 사업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의 영혼과만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되면,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된다. 이론을 잘 따지고 결점을 찾는데 민감한 이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갈 것 같으면, 그들 스스로 자주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달갑지 않은 일이므로, 그들은 찾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이론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 관하여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1 증언, 145)

3.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먹이는 일을 일삼음

"교회는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홀로 서기에는 너무 약한 모든 사람들이 ___에서 떠나 있

는다면, 그 곳에는 훨씬 더 순수한 영적 분위기가 감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결점의 껍질을 먹고 살며, 이웃의 태만과 단점의 독기(毒氣)를 자신에게로 모아들여서 [썩은 것을 먹는] 교회 청소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사실상 그들이 신세를 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짐이 된다." (4 증언, 193-194)

4. 험담을 좋아하는 자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혀들이 있다는 말을 하기가 괴롭다. 해악(害惡)을 길러 주는 거짓 혀들이 있다. 교활하고 수근거리는 혀들이 있다. 잡담을 늘어 놓고, 당치 않게 간섭하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일이 있다. 험담을 좋아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매개로 사용하시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렇게 한다. 이 모든 불화의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거나 심지어 의심하는 것까지도 모두 공개하고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여기는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숨긴다.

나는 진리를 거짓으로, 선을 악으로, 순결을 죄로 바꾸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거짓말의 정신이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상태를 보고 즐거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은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정죄할 틈을 열렬하게 살핀다. 모든 사람에게는 품성의 결함들이 있음으로 시기심이 그들에게 손해되도록 해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이 스스로 임명된 재판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명을 그들에게 씌울 것이다." 그들은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험담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들의 재미있는 뉴스를 발표한다." (5 증언, 94-95)

5. 사단이 가지고 있는 돋보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 본성적으로 강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피차간에 마음 놓고 한 말을 수집하되, 그 말이 성급히 한 것이기 때문에 말한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나타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흔히 너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조차 없는 이 우연한 말들은 사단의 확대경을 통하여 살펴지고, 깊이 고려되고, 되풀이되어 마침내 두더지가 파 놓은 흙두둑산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채 악을 추측하는 자들은 유혹의 노리개감이 된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의 힘이나 말의 결과를 거의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훨씬 더 큰 잘못에 빠진다. 언행일치는 하나의 보배이다.

준수해야 할 친절의 법은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피차간에 비평하고 정죄하라는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우정을 가장하여 어떤 사람에게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얻고, 그렇게 얻은 지식을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요, 또한 정직한 일이겠는가? 떠돌아다니는 온갖 소식을 수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에 의심을 던져 줄 온갖 것을 발굴해 내어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랑인가?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중상하고 해칠 수 있게 될 때 크게 기뻐한다.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계 12:10)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5 증언, 95)

6. 비판적인 정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악을 낳는 죄들에 속하는 헐뜯는 말과 비난하는 정신을 모든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가혹함과 헐뜯는 일은 사단의 역사로서 책망받아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임은 교인들에게 격려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중에 험담하고 비난하기 위한 귀를 막아야 한다. 말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적해 주라. 그에게 성경을 순종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의 불평을 직접 가져가도록 명령하라. 이와 같은 연합된 활동은 빛의 홍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악의 홍수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5 증언, 609-610)

재어보고 판단함

7. 어떤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살음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살아 온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죄인들을 일깨워 회심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비평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기를 거절한 이타적인 그 사업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비평한다. 그들은 거치는 돌이 된다. 만일 그들이 신자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면 그들은 즉시 진리를 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일에 너무 분주해져서 사람을 비평할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며, 악한 것을 추측하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예민한 상상력으로 판단하여 소문을 퍼뜨릴 시간도 없을 것이다." (8 증언, 82-83)

8. 그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재어 보는) 표준

"그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대는 방관자나 관중처럼 한편에 서서 남들의 결점과 실수를 살펴보고 그대가 남들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추겨 세웠다. 그대는 거래에 있어서 조심하고 정직하였으며, 그래서 고상한 신앙 공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서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과 이 점에 관한 그대의 원칙을 비교하고 마음 속으로 '나는 그들보다 낫다' 하고 말했다. 동시에 그대는 교회 밖에서 살피고 결점을 찾으면서 그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악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대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며, 그대는 자신에 관하여 자만의 정신을 갖고 있다." (2 증언, 255)

9.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소문을 퍼뜨림

"그대는 남들의 입장이나 그 일의 성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여러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 거론한다. 그대는 그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찰하며 다각도에서 조사해 보지도 않고서 그들이 가는 길에 관해 의문을 던지고 정죄하려 든다. 그대는 남들의 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간섭지 말아야 한다. 남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대의 의무나 충실히 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가지고, 감사하라." (2 증언, 424)

10.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문제를 뗌질하라고 하지 않으셨음

"그대는 형제들이 성경상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그들에게 결점들이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대는 그 결점들을 깊이 생각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먹는 대신에

그들을 먹는다. 바라봄으로써 그대는 그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정확한 노선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대조하지 말라.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맡겨 주신 사업이 아니다. 그분은 그대를 교회를 땜질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대가 성경의 빛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있다. 비록 어떤 점들에 관하여서는 그대가 옳을지라도 그대의 주장이 언제나 옳다는 인상을 주지말라. 많은 점에 있어서 그대의 사상은 왜곡되어 있고 비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증언, 334)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

11. 교사를 향하여 불평을 함

"각 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을 유지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학생들은 불평과 불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오며, 부모들과 교인들은 그들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그 이야기에 두 면이 있음을 잘 생각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이 왜곡된 이야기가 그들과 대학 사이에 장벽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 두려움과 의문과 의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런 영향은 큰 해를 끼친다. 불만족의 말은 전염병같이 퍼지며, 마음에 새겨진 인상은 지우기 어렵게 된다. 이야기는 반복될 때마다 커져서 마침내 거대한 덩어리가 되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교사나 교수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들은 단순히 학교의 규칙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행하려 했을 뿐이며, 이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타락하고 말 것이다." (4 증언, 428)

12. 목사들의 잘못을 찾아냄

"각 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을 유지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어떤 학생들은 불평과 불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오며, 부모들과 교인들은 그들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그 이야기에 두 면이 있음을 잘 생각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이 왜곡된 이야기가 그들과 대학 사이에 장벽을 세우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이 하고 있는 것에 관해 두려움과 의문과 의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런 영향은 큰 해를 끼친다. 불만족의 말은 전염병같이 퍼지며, 마음에 새겨진 인상은 지우기 어렵게 된다. 이야기는 반복될 때마다 커져서 마침내 거대한 덩어리가 되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교사나 교수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들은 단순히 학교의 규칙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행하려 했을 뿐이며, 이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타락하고 말 것이다." (4 증언, 428)

13. 목사의 얼굴에 눈물이 없으면...

"만일 목사의 얼굴이 부싯돌과 같이 되지 않고, 그가 불요 불굴의 믿음과 용기를 갖지 않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설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의 부정한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의 증거를 꼴 짓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의 증거는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진다. 그는 그의 용기와 믿음이 사라져 없어진 것과 그의 활동이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세상은 기쁘게 해 주고 싶은 욕망에 굴복한 아첨꾼들과 위선자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기주의를 연구하지 않고, 형제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성실한 사람들은 참으로 별로 없다." (5 증언, 299-300)

14. 일과 설교가 비난을 받음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지닌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그 문제에 대한 부모의 평가에 의거하여 평가하게 된다. 많은 가장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고 몇 가지만 찬성하고 다른 것들은 정죄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별은 비판과 의심을 받고 경솔하게 취급된다. 이와 같이 부주의하고, 불경한 말로써 젊은이들에게 주게 된 인상은 오직 하늘의 책들만이 나타내 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닫는다. 그들의 도덕적 지각은 시간이 결코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없는 그릇된 선입관을 받는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도덕적 지각을 깨우치기가 어려운 것을 슬퍼한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책들은 실수 없는 펜으로 그 참 원인을 써 놓는다. 부모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이나 하늘의 일과 조화되지 않았다. 목회와 하나님의 성소의 신성성에 대한 그들의 낮고 통속적인 사상은 자녀들의 교육에 혼합되었다. 여러 해 동안 이와 같이 어두운 가정 교육의 영향을 받아온 어떤 사람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능과 그분의 목회에 대하여 철저한 존중심과 고상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은, 그대가 그대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기별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대에게 전하는 기별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존경심을 가지고, 적절한 언어로써 훌륭한 감성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5 증언, 497-498)

15. 그리스도인 의사를 비난하는 것

"의사는 몰인정한 비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운다. 그의 책임은 무겁다. 그러므로 그는 사업에서 그와 관련된 자들의 동정이 필요하다. 그는 기도로 지탱되어야 한다. 그가 인정받고 있다는 깨달음은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7 증언, 74)

16. 중상하는 혀로 지도자들을 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보다 오늘날 조금도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백성들이 그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능한 한 고달프게 만드는 데 있어서 대원수를 조력하는 데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들은 중상과 거짓의 혀로 몹시 괴롭힐 것이다. 그들은 비평하고, 그가 그들로 하도록 이끌고 있는 바로 그 노력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리하게 돌려버린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추측으로, 모든 것이 바르고 완전한 정직성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기와 부정직을 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기적 동기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고소한다. 진리의 사업에서 가장 적게 일해 오고 가장 적게 투자해 온 사람들이 위대한 사업에서 재정적 책임을 감당하는 직임에 맡겨진 하나님의 종들의 성실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제일 앞장서서 표현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의 전진을 위해서 뭔가 과감히 하려고 하며, 그들의 영적인 번영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표준이지만, 얼마나 적은 수효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지! 우리의 종교는 만일 그것이 이론적이기만 하고 실제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성경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과 이기심의 영향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위기를 오싹하게 만드는 구름과 같다." (4 증언, 234-235)

친절의 법칙

17. 더 나은 길

"입에서 나오는 경솔하고 불친절한 말은 반복함으로써 더 커진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마디씩 보태어 마침내 거짓 소문이 큰 비중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큰 부정이 범해진다. 말을 옮기는 자들은 그릇된 의심과 옳지 못한 판단력으로 그들 스스로의 경험을 손상시키고 교회 안에 불화의 씨를 뿌린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사물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을 것이다. 그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결점을 찾느라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신 사업을 얼마나 등한히 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8 증언, 83)

18. 의무와 친절

"의무, 엄격한 의무에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그것은 친절이다. 만일 의무와 친절이 결합한다면, 결정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무와 친절이 분리된다면, 의무 속에 부드러운 사랑이 섞여지지 않는다면, 실패가 있을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남녀들은 쫓겨나게 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S 형제는 복음의 채찍을 높이 치켜들고, 그의 말로 자주 내리쳤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성과 선행을 장려하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의 가혹함에 반발하여 호전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3 증언, 108)

19. 선을 행하는 것은 이중의 축복을 받게 함

"자선 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 곧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특성을 계발시켜 준다. 은밀한 중에 행한 친절한 행동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고, 이들을 모든 관대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꽃에서 풍겨 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작은 친절, 곧 사랑과 자아 희생의 작은 행동은 생애의 축복과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작지 않은 부분을 이룬다.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극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 받지 못할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부요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보훈, 82-83)

20.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친절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감정의 표시를 매우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의 대하여 아무 것

도 모르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회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 오백 데나리온의 빚이 오십 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써 구주께서는 그와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써 그에게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에 그는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그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동정을 멸시하였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

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써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소망, 566-568)

기억할 말씀: "아무도 형제들과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느끼지 말아야 한다. 저들이 이땅에서 연합하여 일치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늘에서 결코 연합하여 일치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 교회 선교 역사 124)

연구할 과제

1.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대부분의 악은 무엇인가? (8 증언, 242)
2. 우리 생각에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밟아야 할 계단들은 무엇들 인가? (8 증언, 84)
3.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게 되는가? (1 증언, 500)
4.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저주가 누구에게 내리는가? (복음, 464)
5. 어떻게 하여 자주 이기주의가 나타나는가? (4 증언, 607)
6.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가? (복음, 480)
7.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 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 것인가? (안식일, 74)
8. 영어 "CENSORIOUS"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 보라. (비판)
9. 남의 잘못을 들먹이고 비난을 일삼는 곳에 있게 될 때에 친절과 예의를 보임으로 저들의 비난을 대신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따를 것인가? (9 증언, 194)

제45과 이기심 – 이타심

성경절 연구: 마 22:39; 고전 10:24; 고후 8:9

요점: "자신을 위해 살려는 것은 멸망을 하려는 것이다. 탐욕 곧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 버린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앞으로 이끌어 들이려 함은 곧 사단의 정신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주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실물, 259)

예언의 신 연구

이기심의 정신

1. 교회 안에 편만해 있는 죄악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롬 15:3).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사업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이기심은 그분의 면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기심, 곧 세상의 죄는 교회의 편만한 죄가 되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모든 이기심의 뿌리를 강타하신다. 그분은 아무것도, 그분 자신의 명예와 하늘의 영광까지도 보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들에게서 합당한 극기와 희생을 기대하신다. 모든 사람은 그의 역량껏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모든 세속적인 고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외시되어야 한다. 세속적 유익을 위한 유일한 욕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증언, 204)

2. 마음들이 자아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차 있음

"나는 고귀한 신앙을 가졌다고 공언하나 자기애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기록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 남들을 위해 행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 남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당도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지 않는다. 자아는 우상이 되었다.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늘 기록에는 친절한 행동, 남을 위한 희생, 주린 자를 위한 공궤, 벗은 자를 입힘, 나그네를 영접한 일 등이 남아있지 않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다. 그들의 받은 복을 얻으려는 이들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그들이 안다면 이 방면으로 무엇인가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감행하는 데는 덕이 있다. 우리는 혹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2 증언, 26)

3.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됨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드리는 적은 금액을 더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행적, 75)

4. 부절제가 가장 나쁜 이기심임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이 창고에 드리는 적은 금액을 더이상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행적, 75)

5. 영생을 원하기는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그의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분은 이 청년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사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신 물질 대신에 그가 당신과 동역자가 될 특권을 주셨다. 그분은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특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청년 자신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실물, 393)

비교해 보라

6. 너그러움은 너그러움을 낳는다

"형제들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는 정신이 나타났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정신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형제들의 관심을 살펴보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딱딱하고 이기적인 정신이 피차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처럼 고상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중에 속하여 공언을 통하여 그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노라고 말하는 자들은, 고상하고 관대하며, 그들 자신보다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는 기질을 나타내고,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대한 정신은 관대한 정신을 낳고, 이기심은 이기심을 낳는다." (1 증언, 149-150)

7. 이기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음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피차간에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여기는 사람에게. 영광이나 사람의 인정이란 무엇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얻고 있는 자에게, 무엇이 이 세상의 쾌락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그에게, 무엇이 사람의 모욕과 반대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마음 속에 이기심

이 살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영적 냉랭함과 나태와 교만과 비겁은 똑같이 믿음 앞에서 물러간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빼놓고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5 증언, 48)

8. 두 가지의 정신이 비교됨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는 것은 탐욕의 정신이며, 이같은 정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8, 9)는 말로 당신의 백성을 엄중히 책망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분께는 가증하다.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비심에 호소할 것이다. 거기서 예증된 원칙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한편 이기심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속인들의 생활에서 예증된 원칙은 받고 또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속인들은 행복과 안일을 얻고자 하나 그들이 심은 열매는 비참과 죽음이다." (행적, 339)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9. 이기심이라고 하는 문둥병의 영향을 받지 말라

"대가 덕을 실천하고 마음과 생애에 정직을 품을 때 그대는 참된 위엄과 도덕적인 가치에서 향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품성이 이기심의 문둥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 계발된 지성과 결합된 고상한 영혼은 그대를, 하나님이 거룩한 신뢰의 자리에 사용할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4 증언, 562)

1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그네를 환대함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사도의 명령이 오늘날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 나는 우리 백성들이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당한다. 필요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가 놀랄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에 축복을 감추어 두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향락이 달아날까 두려워 건드리지도 못한다. 천사들은 우리가 선행할 기회를 이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혹 부하고, 혹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모두가 품성을 계발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에 가난한 자를 우리 중에 두셨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입증받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계발시키도록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 속으로 초청해 들이지 않으려는 핑계들을 많이 들었다. '우리 집에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음식 장만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 저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하지.' 그리고 그 곳에서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기 위한 다른 구실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방문객들은 크게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대접에

관해서 불쾌한 감정을 지니고 떠나간다.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매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방하여 이웃집에 가서 말하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다는 것이 구하는 자를 박대할 구실이 되라는 증거가 없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작은 떡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했으며, 그분의 종을 위하여 집을 제공하고 떡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그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녀와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서 증명될 것이다." (2 증언, 28-29)

11. 자아 희생은 이기심을 위한 해독제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유용하고 이타적인 생애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우리의 바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방인의 땅으로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하여야 한다. 바로 생애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자아는 부정되어야 하며 계속 굴복되어야 한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것은 생애의 작은 일에서 자아를 매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자아를 잊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남을 아끼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대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한다." (2 증언, 132)

희생하는 정신

12. 봉사하게 하는 동기

"우리는 받는 보수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아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오라기의 이기심도 당신의 사업에 짜여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기울여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 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 놓을 때에만 가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선지, 65)

13. 그리스도인 신앙을 향한 가장 강한 논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헌신한 일군들, 참된 목자들의 노력을 인정하신다. 그가 설교할 시간이 그리 많지 못할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설교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한 설교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 이기심없는 행위는 그리스도교를 향한 가장 강한 논증이 될 것이다. 병자를 돌보는 일, 좌절에 빠진 자들을 돕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땅에서 해야 할 일을 대표하는 능력있는 복음을 실증해 보이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술을 아는 것은 셀수 없는 많은 문들을 여는 것으로서, 진리가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는 곳을 찾게 할 것이요, 영혼들이 영생을 위해 구원함을 받게 할 것이다. 비록 강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 영혼이 만신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할 때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너무나 매혹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알기까지는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537)

14. 그리스도의 이기심 없는 봉사는 우리의 교과서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다. 성전과 회당에서, 도시의 거리에서, 시장과 작업장에서, 해변과 언덕에서 그분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과 무정함을 꾸짖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당신의 길에 축복을 뿌리셨다. 그분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분의 친절과 부드러운 동정과 이기심 없는 사랑의 교훈을 배웠는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그분의 인내는 지치는 일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어 가는 수많은 사람들, 황량한 해변의 난파선처럼 모든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활동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예하는 자들은 그분의 봉사에도 참예하여 약한 자와 불행한 자와 낙심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사업을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들은 열성이 뛰어나야 하고 모든 재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성실하고 이기심 없는 활동으로 귀중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역자들은 위대한 교사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받은 빛을 나누어주지 않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했음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9 증언, 31-32)

15. 하늘에 편만해 있는 정신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는 이 기쁨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품격과 계급이 열등한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이기심이 있는 자들이 비천한 봉사로 여기는 바이나 그것이 죄가 없는 천사들의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정로, 77)

이기심 없이 산 모본들

16. 인정많은 사람으로서 욥

"그대 각자는 틀에 박힌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생애 동안에 실패한 것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일하는 중에 그대에게 주어진 짤막한 유예의 시간을 활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에 합당한 자로 그대가 발견될 수 있는지 그대를 시험하시고, 보시기 위해서 고통의 세상 중에 그대를 처하게 하셨다. 그대 주변에는 재난을 당한 자, 동정과 사랑과 친절의 말, 또한 우리의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널려 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철채찍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에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 내야 한다." (3 증언, 530)

17. 왕위를 계승할 자 요나단

"세자(世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 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교육, 157)

18. 메시야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나타나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를 좇았다. 그러나, 그가 증거해 왔던 분께서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일변하였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요한의 일은 신속히 그 종말을 고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동요되지 않았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30)고 말하였다.

시간이 지나가도,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던 왕국은 건설되지 않았다.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 신선한 공기와 광야의 자유로부터 차단된 채, 그는 주목하며 기다렸다.

무력의 시위나 옥문을 깨뜨리는 일은 없었으나,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고상하게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하였다.

홀로 지하 감옥에서, 그의 선생의 길과 같이, 그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내다보고 요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희생에 동참하는 신임(信任)을 받아들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보살폈다. 타락한 세계나 그렇지 않은 세계를 물론하고, 온 우주의 지적 존재들은 모두 그가 무아의 봉사를 옹호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교육, 157)

19.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여행을 계속하여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그들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였으며 또한 도처에서 위험에 둘리워 있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서 그리고 외로운 큰길에서,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배웠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충실한 목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과 편의를 생각지 아니하였다. 자아를 잊어버린 그들은 피곤하고, 주리고, 추울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 곧 양의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구원만을 바라보았다." (행적, 169)

20.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워진 사슬의 한 고리로, 그리스도의 자비의 계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그분과 함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여 그분께서 걸어가신 곳을 걸어 보고 그분께서 가르치기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그처

럼 자주 머물렀던 들과 골짜기들을 바라보는 것이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병자의 침상 곁에서, 가난한 오두막에서, 사람이 많은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치료, 105-106)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은 반드시 약한 자와 가련한 자와 실망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나누어야 한다." (9 증언, 31)

연구할 과제

1. 일반적으로 모든 죄를 포함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가? (4 증언, 384)
2. 어떤 영혼을 대하는데 무엇 때문에 때때로 끌과 망치가 필요되는가? (4증언, 496)
3.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자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8 증언, 24-25)
4.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라는 말을 설명해 보라. (소망, 2권 187)
5. 어찌하여 세상에서의 전도 사업이 크게 방해를 받고 있는가? (9 증언, 53)
6. 어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은 바 재물을 투자하라고 하시는가? (9 증언, 53)
7. 무엇 때문에 이기심이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가? (실물, 380)
8. 임종시에 베푸는 자선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5 증언, 154)
9.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을 읽고 실행하라고 강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증언, 35)
10.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 보라. (실물, 256-259)

제46과 관대함(너그러움) - 탐심

성경절 연구: 출 20:17; 눅 12:15; 골 3:5

요점: "관대한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자기 자신까지 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되신 구세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선심에 호소하고 있다." (9 증언, 254)

예언의 신 연구

관대함을 보인 사람들의 "예"

1.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일치하였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분쟁의 위험이 있었음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창 13:1-9)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롯은 아직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다시 벧엘로 가서 전에 세웠던 제단 곁에 그들의 장막을 쳤다. 그들은 재산이 증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되었음을 곧 발견하였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그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살았으나 번영 가운데서는 그들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 목초가 두 사람의 가축떼와 양떼에게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와서 해결책을 구했다. 그들이 헤어져야 함이 분명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에서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그는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8-10)고 말하였다." (부조, 132)

2.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무아적인 정신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그같은 환경에 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난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웃음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써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고 하였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롬 12:10)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치심이다. 한결같은 예절, 곧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계발은 인생의 불행을 절반으로 근절시킬 것이다. 자아 존대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

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빌 2:4)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부조, 132-133)

3.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막을 지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출 25:8)으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상실하였으며,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 하였다." (부조, 343)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출 25:2)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 조건이었다." (부조, 343)

4. 저들은 필요 이상으로 바쳤음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였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거리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출 35:21, 22)다." (부조, 343-344)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 곧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 가져왔다. 마침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진영에 '무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출 36:6)고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후세대를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입는 까닭이다. 교회를 짓는 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부조, 344-347)

5.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 비용을 담당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을 도우려고 담대히 나아왔다. 부자요 명예가 있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그 어두운 시간에 절실하게 필요되었다. 그들은 운명하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재산과 영향력으로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악의에서 크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적, 104)

6. 니고데모는 이세상 재물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음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에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아왔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행적, 104-105)

탐심을 보인 사람들의 "예"

7.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가져온 아간(역대상 2:7을 볼 것)

"그 승리와 심판이 시행되던 엄숙한 시간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다. 시날산 의복을 볼 때에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다. 이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그것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다. 한 가지 죄는 다른 죄를 유도하여 그는 여호와의 보고에 바쳐야 할 금과 은도 훔쳤는데 곧 가나안 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였다." (부조, 496)

8. 무서운 죄는 파멸을 불러 들였음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체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에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엄숙하고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죄가 범해지고 있지 아니한가? 아간에게 여리고의 노획물을 훔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같은 탐욕에 방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골 3:5; 마 6:24; 눅 12:15; 엡 5:3)는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간과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서운 운명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매우 많다." (부조, 496-497)

9. 탐식이 가득했던 종 게하시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였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여러 해 동안 자기 주인의 필생의 사업을 특징지은 자기 부정의 정신을 계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서 고상한 기수가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었었다. 하늘의 최대의 선물이 오랫동안 그의 손이 미치는 곳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 대신에 세상 재물이라는 값싼 합금을 탐냈다. 이제 탐욕적인 정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그로 하여금 압도적인 유혹에 굴복하도록 했다. 게하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비밀리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 (선지, 250-251)

10. 범죄자에게 형벌이 신속히 임하였음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고 하였다. 그 후에 게하시는 계획적인 거짓말을 했다. 그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게하시에게 옷 두 벌과 함께 은도 한 달란트 대신 두 달란트를 강권하여 받게 하고 자기 종에게 그 보물 전대를 날라 주도록 명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집 가까이 이르자 종을 돌려보내고 은과 의복을 감추었다. 이 일을 마친 후 게하시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서 질책을 막으려고 두번째 거짓말을 하였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게하시는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때에 엘리사는 신랄한 탄핵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엘리사는 묻기를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하였다. 범죄자에게 형벌이 신속히 임하였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니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선지, 251)

11. 배반자 가룟인 유다

"유월절 조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그 때 그는 구주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분을 잡기로 계획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종 한 명의 몸 값인 은 삼십에 영광의 주를 팔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소망, 716)

12. 그는 그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 줬음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소망, 716)

13.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아나니아가 헌물을 가져왔을 때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더냐고 베드로는 물었다. 아나니아에게 공공 자산으로 그의 소유를 강제로 희생하도록 한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여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을 속이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던 것이다.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행적, 72-73)

14. 우리에게 주시는 한 경고의 기별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실례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행적, 74)

사단의 계획들

15. 사단이 부하들과 모여서 한 회의에서 한 말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교회들이 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증강하고 이적들을 베풀어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사단은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증오한다. 그들은 그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실패케 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들은 가서 토지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근심의 사슬로 매어 놓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저들을 이러한 물질들로 미혹할 수 있다면 저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룩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도 돈에다 더 관심을 쏟고 그것을 더 기뻐할는지도 모른다. 그들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화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 편에 쌓아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사업에 재물을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국은 더욱 더 훼손될 것이다. 그들이 각처에서 집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그러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방해를 놓고 혼란을 일으켜라. 서로 사이의 사랑을 파괴시켜라. 그들의 목자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 주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한다.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도록 갖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지배하여 저들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실망하도록 하라. 이 일은 그들의 용기를 꺾고 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치의 영역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이 되게 하라. 이러한 경향이 저들을 지배하는 한 구원과 은혜는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온갖 매력적인 것들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라.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들은 물론이요, 그들의 밉살스러운 영향도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재물을 바치고자 하거든 그것을 아까워하도록 인색한 마음을 불어넣어라.'" (초기, 266-267)

16. 사단은 그의 계획을 잘 수행해 가고 있음

"나는 사단이 그의 계획들을 잘 수행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집회로 모일 때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같이 그 사업을 방해하려고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쁜 암시들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악한 성벽들을 이용하여 항상 그들의 타고난 성향들을 충동하고 자극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혹한다. 만일 그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들 속에 기반을 잡게 되고 그의 모든 권능으로 그들을 범하기 쉬운 죄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어느 정도 그들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녹여낼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구원의 감화 아래 있지 않을 때를 틈타 사단이 들어와 모든 고상하고 관대한 원칙을 위축시켜 저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들은 선행을 좋아하지 않게 되며 예수께서 그들을 사단의 세력과 암담한 불행한 처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치르신 큰 희생을 잊어버리게 된다." (초기, 267-268)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음

17. 재림신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음

"사단은 유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틈타 그로 하여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불평하도록 유인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크나 큰 낭비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고 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드리는 그 풍성한 선물이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의 주님을 은 몇 냥에 팔 정도로 밖에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인하실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 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욱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데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저들이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만일 그러한 자들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사단의 제안들을 받아들여 그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승리의 환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는 사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268)

18. 탐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도중하차 할 것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탐욕적인 행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예수와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내놓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며 질책한다. 사단은 저들의 행적과 그것들을 견책하는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으로 얻어진 열매들이다'라고 말하며 하늘 천사들을 모욕한다. 천사들은 몸서리를 치며 그 광경으로부터 돌아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그분도 저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서 털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대경 실색한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의 주님을 판 유다처럼 그들은 조그만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한 원칙들과 그리고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팔 것이다.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늘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늘의 원칙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영혼이 이기심으로 위축되는 대신에 은혜로 왕성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를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많아지고 따라서 하늘의 원칙들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항상 사심 없는 자비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초기, 268-269)

19. 큰 개혁운동에 관한 계시

"밤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 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의 감화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나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1844년에 목격한 것과 같은 개혁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9 증언, 126)

20. 탐심을 가진 자들은 분리되었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고자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원해서 헌물을 바치라고 호소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상의 소유물에 이기적으로 집착해 있었다. 이 탐욕적인 사람들은 신자들의 무리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9 증언, 126)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쳐 나오는 복음의 빛은 이기심을 책망하고 관대함과 자선심을 격려한다." (9증언, 254)

연구할 과제

1. 햇수를 거듭 보내는 것은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지기, 151)
2. 세상에서 재물도 갖기를 원하고 하늘에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2 증언, 193)
3. 죄의 등급에 대하여 의논해 보고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죄가 큰 죄가 되는가 말해 보라. (5 증언, 337)
4.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절을 찾아 보라.
5. 유다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는가? (4 증언, 486)
6. 범죄한 아간이 발견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4 증언, 492)
7. 어떤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는가? (3 증언, 130)

8. 마태복음 25장 24-27절의 말씀을 설명하라. (3 증언, 386, 387)
9. 구속의 계획의 기본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3 증언, 387)
10. 탐심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는 무엇인가? (3 증언, 548)

제47과 형제다운 사랑

성경절 연구: 요 13:34; 요일 3:7, 8

요점: "우리는 노력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필요하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때, 진정한 사랑은 저절로 솟아오른다." (7 증언, 266)

예언의 신 연구

예수님으 말씀

1. 사랑은 제자되는 증거가 됨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폭력이나 사리(私利)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기워졌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소망, 678)

2.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마지막 계명 중에 하나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는 말씀이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카롭고 비 그리스도인 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실물, 144)

3. "우리가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처럼 큰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가장 신성한 의무를 우리에게 지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똑같은 동정과, 똑같은 자비와 이타적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이기적 야망과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애정을 차지하실 때 사라질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한 큰 축복이 조건들 아래 여기에 간구되고 있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비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적용되도록 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기준이라고 주장 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 15). 얼마나 놀라운 계약인가!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적게 이해되고 있으며 유의되고 있는가. 가장 흔한 죄악들 중 하나이며, 가장 유해한 결과가 따르는 하나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의나 복수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감히 입술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적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모든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성서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5 증언, 170-171)

4.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 5:9). 은혜와 화평은 구설의 다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 추문의 행상인들이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정을 정숙하게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무도 흔히 쓸데없고 경박하고 악의에 찬 험담에 허비된 시간은 더욱 높고 고상한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 만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문하고 실수한 자들을 위하여 꾸준하고 친절하게 활동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본되시는 분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그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5 증언, 176)

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업을 등한히 해 온 자들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는 위대한 명령에 비추어 그들이 의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지워져 있다. 모든 사람은 질병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축복을 증진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는 데 강하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굴복하는 자들을 도와줄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식을 가졌으면 무지한 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나 같이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주위에 있는 자들과 나누는 일 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5 증언, 606)

요한이 한 말

6. 아름다운 말과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요한은 주님을 위한 충실하고 열렬한 일꾼으로 나섰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어 주심을 입어 새로운 열성과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요한은 열심이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진 유능한 설교자였다. 아름다운 언어와 음악적인 음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하였다. 그의 말의 단순함, 그가 말한 진리의 숭고한 능력, 그의 가르침의 특징을 이룬 열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게 하였다." (행

적, 546)

7. 그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음

"사도의 생애는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 타오른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로 하여금 그의 동포들 특히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행적, 546)

8. 결국에 가서는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었음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음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적, 546-547)

9.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음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 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였으며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행적, 547)

10. 이러한 사랑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함

"이와 같은 사랑을 신도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하였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하여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히 연합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의 생애는 당신의 의로 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높여야 하였다." (행적, 547-548)

11. 차츰 차츰 변화가 일어났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두움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행적, 548)

12. 요한은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함

"교회 내에서 우애가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신도들에게 이 사

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다.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행적, 548)

13.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 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행적, 549)

14. 충동적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임

"사도는 '우리가 말 … 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편지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 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행적, 551)

15. 사랑은 동기를 조절함

"요한은 신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정신을 나타냄으로 그들에게 이르게 될 고귀한 특권들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救贖)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동기를 제어하며 이 능력의 소유자들을 세상의 부패시키는 감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올 것이며 그들은 현세와 영원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

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행적, 551-552)

다른 사람들의 말

16. 그분의 만지심은 그대에게 전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임

"가능한 한, 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 자매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며, 완고함과 결점을 찾는 태도를 그쳐야 한다. 그대들은 자신의 정신을 복종시키고 그 대신에 사랑하는 구주의 정신을 취해야 한다. 손을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라. 그 접촉이 그대를 감동시켜 그분 자신의 비할데없는 품성의 아름다운 특성으로 그대를 채우게 하라. 그대들은 그분의 사랑에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그대들을 변화시키며 그분의 은혜가 그대들의 능력이 되게 하라. 그 때 그대들은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도덕적 힘은 품성의 가장 세밀한 시험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고결함은 순수해지고 성화될 것이다. 그 때 그대의 빛은 아침빛 같이 퍼져 나갈 것이다." (4 증언, 63)

17. 고귀한 사랑의 식물을 마음에 품으라

"교회가 번영하려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측에서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소중히 기르기 위하여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식물이 마음 속에서 무성해지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사랑의 특성을 자신의 생애에서 계발시킬 것이다. 그는 오래 참음과 선행의 정신을 나타내고,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말과 행동에 나타난 이 품성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배격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고, 냉랭하고,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가꾸는 사람은 정신에 있어서 자아 부정적이고,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자제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동기와 악한 의향을 전가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을 깊이 느낄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한 요소이다. 그것은 자랑하게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사람을 결코 충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경솔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고, 결점을 찾고, 전제적이 되도록 이끌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자만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적합하든지 적합하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나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 깊은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은 하나의 적극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 앞에 항상 제시해 주고,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해 준다. 사랑은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안락과 자아 방종을 구하도록 충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흔히 사랑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나타내는 존경이다." (5 증언, 123-124)

18.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7).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참아줄 뿐만 아니라 그런 참음이 가져다 주는 어떠한 고난이나 불편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고전 13:8)한다. 그것은 결코 그 가치를 상실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늘의 속성이다. 그것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귀중한 보배로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불화와 다툼은 사단의 일이며 죄의 열매이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화평과 사랑을 맛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피차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라. 나는 사랑의 덕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는 길을 배웠는가? 이런 하늘의 특성이 없으면, 재능과 학문과 웅변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보화를 그처럼 가볍게 평가하고 그처럼 적게 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5 증언, 169)

19.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올바른 길이 그처럼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왜 그들은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 연구하고 기도하고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는 대신에 형제로서 사랑하기 위하여 피차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지 않는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않는 것-에 응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구주의 모본을 즐겨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필요한 훈련에 응하고자 하지 않는다.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나 어떤 난처한 일이 생기면, 마음은 반역을 하고 혀는 독을 지닌 화살이나 황폐시키는 우박과 같은 말을 쏟아 놓는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보다는 말하는 자에게 훨씬 더 중하게 내리는 이중의 저주이다.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서 치명적 열매를 거둔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악을 추측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그는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5 증언, 176)

20. 사랑은 마음과 마음을 붙잡아 맬 것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많이 간직하려면 더 큰 열망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 교회의 힘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어 놓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다. 아, 우리는 얼마나 적은 사랑,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피차에 얼마나 적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는 진리의 말씀과 정신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킬 것이다. 진리와 사랑의 불변의 원칙들은 마음과 마음을 연합시킬 것이다. 그리고 연합의 힘은 받은 바 은혜와 진리의 양에 비례 될 것이다. 거울 즉 하나님의 '최고(의)법'을 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품성을 반사해 보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위험 신호와 경고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않고 품성의 결함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함들이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들은 오류와 반역과 공공연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최고의 표준까지 향상하지 않는 마음은 한때 얻었던 그 힘을 간직하는 능력을 언젠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벧후 3:17, 18)." (5 증언, 537-538)

기억할 말씀: "…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히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되게 하는 거룩한 기쁨을 부을 수 있는 매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실물, 440)

연구할 과제

1. 영혼에 있어서 세개의 커다란 도덕적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전 13:13; 3 증언, 187)
2. 사랑이 어떻게 이기적으로 될 수 있을까? (3 증언, 529)
3.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세련된 사람도 하늘에 부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4 증언, 223)
4. 하늘에서의 사역자들은 저들의 적합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행적, 540)
5.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논쟁보다 훨씬 강한 것은 무엇인가? (치료, 148)
6. 그대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리"가 될 수 있겠는가? (소망, 1권 414-415)
7.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5 증언, 345)
8.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실물, 402)
9.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진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형제의 사랑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겠는가? (실물, 406)
10. 누가 내 이웃인가? (실물, 393, 394, 407, 408)

제48과 품성의 결함을 극복(정복)함

성경절 연구: 마 7:24-27

요점: "사람의 위대함과 고상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지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 가장 강한 사람은 욕설하는 것에 아주 예민하면서도 격정을 억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영웅이다." (4 증언, 656)

예언의 신 연구

품성을 형성하게 하는 영향

1. 경건한 생애의 영향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波紋)이 생기고, 이어서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이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圓形)은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그 호수의 가장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감화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감화력은 우리가 알고 조종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품성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감화력을 발산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다. 우리의 감화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에 율법의 원칙을 실천할 때 곧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 사람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실물, 340)

2. 사람들은 교회가 믿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만 진리를 전하거나 문서를 보급함으로써만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값싼 품성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품성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쓰여진 모든 책들이 거룩한 생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바를 믿지 않고 교회가 생활하는 바를 믿을 것이다. 너무도 흔히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의 감화가 진리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활에서 전해진 설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9 증언, 21)

3. 생애의 적은 일에 주의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만 진리를 전하거나 문서를 보급함으로써만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값싼 품성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품성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쓰여진 모든 책들이 거룩한 생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바를 믿지 않고 교회가 생활하는 바를 믿을 것이다. 너무도 흔히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의 감화가 진리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활에서 전해진 설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9 증언, 2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눅 16:10)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는 사실상 요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물, 355-356)

4. 품성을 강하게 하는 훈련

"청년들의 성향과 습관은 나이든 장년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대는 어린 나무들을 그대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구부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구부린 그대로 자라게 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나무가 될 것이며, 그대의 손으로부터 받은 손상과 학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해 주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자란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무를 펼치려고 하지만, 그대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영구히 구부러진 나무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이나 그릇된 방향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미래 생애에 그들은 젊었을 때에 지도받은 대로의 길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청년 시절에 형성된 습관은 힘이 세어지고 자라남에 따라 자라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미래의 생애에 더욱 더 강해질 뿐 일반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3 증언, 143)

5. 하나님의 말씀은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교화(敎化)시키는 성령이 깃들여있고 새롭고 귀한 빛이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흘러나온다. 진리가 그 속에 나타나 있고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하신다. 크신 교사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고무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신령한 사물과의 친교가 이루어져 그것이 유혹에 대한 방벽(防壁)이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며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하늘이 주는 사랑의 빛이 영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실물, 132)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시는가?

6.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품성 중에 숨겨진 결점들을 내보이시는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살피고 계시며,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품성을 더 잘 아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감수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이것들은 올바르게 지도될 것 같으면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을 안겨 주시며,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 그들을 각기 다른 처지

와 다양한 환경 아래 처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한 그들의 품성의 약점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약점들을 고치고, 그들의 본성의 거친 구석을 닦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에 준비될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있어서 그들의 활동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신다. 책임 있는 자리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은 자비로써 그들의 숨겨진 결함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여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며 복잡한 정서와 그들 자신의 마음의 동향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찾아내게 하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그들의 자세를 깨끗하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의 도덕적 능력을 시험하실 수 있고 그들의 행위의 동기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바른 것은 계발시키고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심령의 도덕적 기능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종종 그들이 순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공격하는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4 증언, 84-85)

7. 하나님의 용광로가 우리를 시험하실 때까지

"탐욕적인 정신을 계발하여 그것을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삼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을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대단찮은 것에 날카로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무가치하다. 우리는 진리의 큰 칼에 의하여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우리의 그릇된 성품의 특성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과 환경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여 품성의 금은 빛나게 하고 가짜 금속은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호된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읽혀지지 않는다. 모든 저속한 생각 모든 그릇된 행동은 품성 속에 있는 어떤 결함을 드러낸다. 이 모난 특성들은 하나님의 큰 작업장 안에 있는 끌과 망치 아래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광스런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에 적합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고 닦여져야 한다." (4 증언, 540-541)

8. 하나의 결점(흠)이 있기 때문에 목걸이를 못쓰게 함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연합해야 한다. 그들은 강한 품성의 특성들을 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짓고 있는 생애의 구조의 성격을 주의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매일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인 신사인가?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의 품성의 건물을 훌륭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타나게 해 줄 고상하고 정직한 행동들이 보이는가? 하나의 부실한 목재가 배를 침몰케 하고 하나의 흠집이 사슬을 쓸모없이 만드는 것과 같이 말과 행동에 나타난 타락시키는 품성의 한 가지 특성은 악에 대한 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며, 만일 극복되지 않으면 모든 덕성을 파괴할 것이다." (4 증언, 606)

9. 연단하는 과정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께서 계발시키고자 하시는 매우 귀중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분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한다.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셨

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가시덤불을 전정하는 데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쓸모없는 돌을 당신의 용광로 속으로 던지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시험하는 것은 귀중한 광석이다.

대장장이는 철과 강철이 어떤 종류의 금속인지 알기 위하여 그것들을 불 속에 넣는다. 주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이 어떤 기질로 이루져 있는지,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꼴짓고 형성할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하여 고난의 풀무 속에 놓여지도록 허락하신다." (7 증언, 214)

10.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곳을 잘라 내심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자리를 채울 수 있기 전에 조화롭게 되고 갈려져야 할 거친 돌이므로 그대들의 품성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마련하신 자리를 채울 준비를 갖추기 전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그분께서 그대들의 품성의 날카로운 모들을 잘라낼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쓸데 없이는 단 한 번도 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라. 그분의 일격 하나 하나는 그대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결점들과 행위가 회복되어야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신다." (7 증언, 264)

11. 그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심

"우리의 시조는 죄가 없고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악을 행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서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품성의 발달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봉사도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또는 순종하기를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충성에 대해 시험을 받아야 했다." (교육, 23)

결점들을 극복(정복)하기 위해서

12.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친구들을 찾으라

"올바른 습관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건전한 도덕과 신앙적인 감화력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궁정에 살기에 적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해야 한다. 품성에서 모든 결점을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귀중한 은혜의 기간들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생애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유용해지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젊은 남녀들은 좋은 품성을 금이나 은이나 주식보다 더 좋은 자본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공황과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상의 소유들이 쓸려가 버릴 때에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 높고 고상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죄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더럽힌다. 정직과 견실함과 인내는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계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특성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소유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능력, 선을 행하기에 강하고, 악을 대적하기에 강하고, 역경을 견디기에 강한 힘을 옷 입혀 주기 때문이다. 진실한 품성의 탁월함이 가장 큰 광채를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은 이곳이다." (4 증언, 655-656)

13. 명상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냐

"추상적인 명상은 충분하지 않고 바쁜 활동도 충분하지 않다. 그 두가지는 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형성에 요긴하다. 열렬하고 은밀한 기도에서 얻은 힘은 사회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목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영향을 물리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강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류를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흑암과 오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귀중한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한다. 에녹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인류를 동정하고, 불행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감정이 예민한 자들을 관대하게 대하여 주고,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낙망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5 증언, 113)

14. 행복과 불행의 근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불안과 불만과 불안정은 구주의 부재(不在)를 나타낸다. 예수님이 생애에 들어오시면, 그 생애는 주님을 위한 선하고 고상한 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대는 이기적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와 점점 더 가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대의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을 그 자신 속에 가지고 있다. 만일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되고 있는 저속하고 감상적(感傷的)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우쭐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사단은 감각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야망적인 계획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빌 3:14)을 우리 앞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박력 있게 하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5 증언, 487-488)

15. 그의 위대한 승리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매우 힘들고 낙망적인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때에 우리는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의 최대의 정복은 자아에 대한 정복이 될 것이다." (9 증언, 182-183)

16. 새로나는 길 - 유일한 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지상 생애 동안에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하여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다. 그러나 우리는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유전적인 옛 품성의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육신적인 심령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기만,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말은 버려야 한다. 남녀들을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 (9 증언, 23)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물, 96-97)

17. 품성의 참된 시금석

"아이들은 이 세상이 연병장이 아니고 싸움터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훌륭한 군인처럼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대장부같이 강건하고 침착해야 한다. 세상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자원하여 책임을 지고, 난관을 헤쳐 나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서 품성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음을 청년들이 배우게 한다.

시련에 대처하는 옳은 길은 거기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 때는 물론이요 장성한 후에도 모든 훈련에 적용된다. 아이의 유년시절의 교육을 게을리한 결과로 나쁜 경향이 굳어지면 후년의 교육은 더욱 곤란하고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타고난 욕망과 경향을 말살하는 일은 하등한 본성에 고통이 아닐 수 없으나, 이 고통은 더욱 높은 기쁨 가운데서 잊어버려야 한다.

모든 과실, 모든 결점, 모든 곤란을 정복할 때마다, 그것은 더욱 좋고 더욱 높은 일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보람있는 일생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이룩한 성공은 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된 것이다." (교육, 295-296)

가장 위대한 것

18. 가장 높은 목표인 품성

참된 교육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문학적 재예(才藝)를 경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보다도 능력을, 능력보다도 선량을 중요시하며, 지적 재예보다도 품성을 중히 여긴다. 세상은 큰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더욱 요구하며, 견고한 원칙에 의하여 그 재능이 지배되고 있는 인물들을 요구한다." (교육, 225)

19.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 4:7),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잠 15:2)라고 하였으며, 참된 교육은 이와 같은 지혜를 나눠 준다. 교육이란 능력이나 재예의 어느 한 부분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분야의 지식이 계발되고 최적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된 교육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망라해

서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 225)

20.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

"품성을 쌓아 올리는 일은 인류에게 맡겨진 일 중 가장 중요한 일로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재고되어야 할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어떤 이전 세대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청년 남녀들이 오늘날처럼 큰 위기에 직면했던 일도 일찍이 없었다." (교육, 225)

기억할 말씀: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품성은 영원을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6 증언, 268)

연구할 과제

1. 누구의 악한 생애와 가르침이 이 땅을 홍수로 멸하기까지 부패하게 하였는가? (부조, 상권 425)
2. 발람과 유다의 품성과 경험에서 그대는 서로 공통되는 어떤 점들을 지적해 낼 수 있는가? (부조, 하권 72)
3.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실물, 352)
4. 현세와 미래를 위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실물, 370)
5. 솔로몬이 품성 건설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는가? (4 증언, 628)
6. 어린이들에게 형성되는 품성의 책임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3 증언, 144)
7. 마태복음 6장 25절을 설명하라. (2 증언, 496)
8.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표준이 세워져 있는가? (행적, 522)
9.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을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리하며 살 수 있을까? (5 증언, 176)
10.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라.

제49과 영원을 위한 품성 건설

성경절 연구: 갈 5:22-25

요점: "우리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죄의 더러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완전하여야 한다. 하나의 악행도 하나님의 율법은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의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의 윤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성 만을 표준으로 인정한다." (치료, 414)

예언의 신 연구

품성은 변화될 수 있음

1. 한 가지가 부족했던 선지자

"엘리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의 사업의 번영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코 반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죄인에 대하여 공의를 실천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결케 하기 위하여 그를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품성을 갖지 않았다. 그는 올바른 때와 올바른 장소에서 아니라고 말할 용기와 힘을 그의 믿음에 첨가하지 않았다. 죄는 죄이고, 의는 의이다. 경고의 나팔 소리는 울려야 한다. 우리는 몹시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의무의 자리에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사람도 이기적인 안락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4 증언, 517)

2. 품성의 변화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결함이 있고 끊임없이 경고를 받고 권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로서 시험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품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하여 천사들은 놀라면서 저들의 기쁨을 감사의 노래로 표시한다. 저들은 죄많고 실수하는 인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기뻐한다." (4 증언, 16)

3. 누룩은 안에서 밖으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듭남의 대진리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났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 3:3-8)." (실물, 97-98)

설계자와 건축가

4.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세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능은 현실과 영원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일꾼이다. 비록 소유주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건물은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그 결함 때문에 하나의 경고의 표지로서, 혹은 거룩한 모델과의 조화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감탄할 하나의 건물로서 서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 품성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가 계발해야 할 재능들이다. 그리고 적절하게 계발되기만 하면 그것이 바른 품성을 형성할 것이다. 사람이 귀중한 씨앗을 그의 손에 간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씨가 과수는 아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기 전에 심겨져야 한다. 마음은 과수원이며 품성은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발시키고 발전시키라고 우리에게 능력들을 주셨다. 우리 스스로의 길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 능력들이 조화를 이루고 귀중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업을 갖고 있다." (4 증언, 606)

5. 각 사람의 자기의 품성을 설계하여야 함

"예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행복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정과 육과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를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소망을 굳게 세웠다. 그러므로 세상의 폭풍우가 분명한 기초에서 그들을 쓸어 버릴 수 없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여부는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들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은, 배격당할 때, 가장 활발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정력과 끈기로 계속하면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4 증언, 655)

6. 그대가 품성을 형성하는 주제들을 선택함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給養)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

다. 어떤 급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사고력(思考力)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 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이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특권이 부여된 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 기록하였'(호 8:12)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고 말씀하신다." (교육, 126-127)

7.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인을 받을 것인가?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하므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 없이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의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5 증언, 216)

품성 훈련을 위한 계단들

8. 품성의 미덕을 계발함

"모든 아동들 속에 계발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할 하나의 특성은 무아의 정신이다. 즉,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일 없이 미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품성이다. 이것은 모든 뛰어난 덕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하나가 되며, 모든 참 생애를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 자격 중의 하나가 된다.

아이들은 지도에 있어서 인정(認定)과 위로(慰勞)와 격려(激勵)가 필요하다. 그러나, 칭찬 받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로 하여금 특별한 각광(脚光)을 받게 하든지 또는 어린이들의 재치있는 말을 그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반복하여 칭찬하는 일 등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부모나 교사가 어린이들에 대하여 그들의 품성이 계발돼야만 하는 참된 이상과 그 성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아이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조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이나 또는 능력의 탁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이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해질 것이며, 또 표면적인 과시나 위대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당혹해 하지 아니하는 품위를 갖게 될 것이다.

품성의 미덕이 발달하는 것은 임의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품성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한 풍토에서의 "삶"으로 인해 계발되는 것이다. 순결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순결하고 고상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육, 237)

9. 은밀한 기도가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훌륭한 건물의 모형을 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곳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찬란한 이상을 명상해야 한다. 그렇게함으로 우리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후 6:16) 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성취될 만한 품성의 건물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상 생애에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셨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미명과 해 지는 황혼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종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 행로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 41:13)고 하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아침에 있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신선하고 능력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는가!" (교육, 258-259)

10. 성장하는 조건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신 것을 받아서 자라난다.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호 6:3) 것이다. 마치 의로운 해처럼 '치료하는 날개(난외 주)' (말 4:2)를 가지고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며, 우리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며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호 14:5, 7) 것이다.

밀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막 4:28)이 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배고픈 자에게 떡이 되고 다음 수확을 위한 종자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농부 예수님께서도 수확을 기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 속에 당신을 재생시키고자 노력하신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에 재생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교육, 106)

11. 생애의 수확은 품성이다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원인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먼저 종자를 뿌렸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허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은 혹 동료를 속이고 자기가 한 적이 없는 어떤 봉사 행위에 대하여 찬사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연계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 불충실한 농부에게는 그 수확이 그의 잘못을 대변한다. 크게 볼 때, 이 사실은 신령적 세계에서도 진리로 나타난다. 악이 성공하는 것은 외양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학교에 무단 결석하는 아이, 학업을 게을리 하는 소년,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점원이나 하인, 어떤 사업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잘못이 덮여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잘 하고 있

다고 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수확은 품성이며, 이 품성이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교육, 108-109)

완전한 품성

12. 성장 단계마다 완전함이 있음

"종자가 싹이 트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나무의 자라남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한다. 자라남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나무는 자라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해야 한다. 식물의 생장과 마찬가지로 품성도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언 중에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성장의 각 단계에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보다 더한 지속적인 성장이 따를 것이다." (교육, 105-106)

13. 평생을 두고 하여야 할 사업임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 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일 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높은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가장 강한 증거는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처럼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 돌아가는 길은 한 치, 한 치씩 옮길 때마다, 한 시간 한 시간씩 경과할 때마다 무서운 싸움을 거듭함으로써만 갈 수 있다. 조급하고 주의성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악의 세력 아래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악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성결한 생애에 들어가는 데는 순간 이상이 요구된다. 목적을 설정하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시키는데는 노력과 시간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우리는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 무수한 유혹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굳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마치지 못한 채로 생애의 끝을 맞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치료, 452)

14.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과학이 있음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다. 마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인 인간의 경향과 일치되지 않는 방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필생의 교육과 훈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 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원을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분께 굴복되어야 한다.

성령의 귀중한 은사들은 한 순간에 계발되지 않는다. 용기, 견인불발, 온유,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일 등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하

여 얻어진다. 옳은 일을 위하여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고 확고하게 붙드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치료, 453-454)

15.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의 옷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최상의 미, 즉 영원한 미를 사랑하고 찾아 구하기를 희망하신다. 사람이 만든 아무리 훌륭한 작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히 값진 것으로 보시는 아름다운 품성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늘의 베틀로 짠 고귀한 옷 즉 지상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계 19:8)를 자신들을 위하여 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인 이 옷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옷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아 이 세상에서 입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순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울 때 그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옷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할 것이며, 내세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궁전에 들어갈 자격이 될 것이다.

그 허락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 3:4)하였다." (교육, 249)

그(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성들

16. 적극적이고, 정력이 있었고 힘있게 일하심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에 그는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귀하고 사랑스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난관에 봉착하거나 곤경을 극복하여야 할 때에는 무기력하고 거의 무익하여진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과단성과 정력, 품성의 견고함과 능력이 그가 견디신 것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도 계발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소망, 72-73)

17. 즐겁게 일하시고 재치가 있으셨음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 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 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는 노래로써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에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하였다. 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 갔다." (소망, 73)

18. 그는 온순하고 유순하셨음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시려고 힘쓰셨다. 그가 너무 온순하고 겸손하신 까닭에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가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감화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언들과 유전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것들의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듣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만든 것을 순종하실 수는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듯하였으며 성경의 참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 랍비들은 어린 아이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소망, 85)

19. 동정적이고 겸손하셨고, 사랑스러우셨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오던 분이신가?" (소망, 137-138)

20. 동정심을 나타내셨으며 사교적인 친절을 나타내셨음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으시고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에 예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소망, 274)

기억할 말씀: "일광이 꽃에 여러가지 섬세한 빛깔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주신다." (소망, 2권 30)

연구할 과제

1. 선과 악을 위해 미치는 자연적인 영향력에 대해 토의해 보라. (2 증언, 133)
2. 우상은 무엇인가? (5 증언, 250)
3. 어찌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성질을 내며 악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실물, 90)
4.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의 발판들을 들어 보라. (6 증언, 147)
5. 진리의 누룩이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실물, 93)
6.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엡 5:16; 실물, 354)
7. 우리가 지금이라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될 일과 저들의 품성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무엇인가? (실물, 376)
8.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6 증언, 439)

제50과 그리스도인 사업 원칙

성경절 연구: 잠 22:29; 마 6:9; 롬 12:11

요점: "성경에서는 모든 정당한 실업 부문에 대하여 요긴한 준비 사항을 말하여 주었다. 근면, 정직, 검약, 절제, 결백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이다. 잠언에 설명된 것 같은 원칙들은 실제적 지혜의 보고이다. 상인이든, 직공이든, 아무런 실업 부문의 지도자이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고용된 사람들을 위하여 잠언에 기록된 현인의 말씀처럼 적절한 격언은 달리 아무데서나 찾을 수 없다." (교육, 177)

예언의 신 연구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들

1.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가에 따르면, 정직한 사람은, 확고부동한 성실성과 정직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상적인 이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저울 추는 하나님께서 보실때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과 거짓 저울추로 거래하고 있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진리 가운데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의 생애는 그 사실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득을 위해 그의 명예를 팔지 않을 것이다. 그의 원칙들은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의 세상적인 사무들은 그의 원칙의 사본이 될 것이다. 견고한 고결함은 세상의 찌꺼기와 쓰레기 가운데서 금처럼 빛을 발할 것이다. 기만적이고 속이며, 불신실한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꾸밀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품성의 발전을 지켜보고 도덕적인 가치를 재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품성을 드러내는 이런 작은 거래의 행위들을 하늘 책에 기록하고 있다. 한 일꾼이 매일의 생업에서 불신실하고 그의 사업을 등한히 한다면, 만일 세상이 사업상의 그들의 표준으로 종교상의 그의 표준을 추정한다면,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4 증언, 310-311)

2. 워싱톤은 어찌하여 능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나라의 정치가인 워싱턴은 질서와 규칙을 유지하는 데 완전함으로 많은 양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모든 서류는 그 날짜와 장소가 기입되어 있었고, 잘못 놓여진 것을 찾느라 소모하는 시간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연구하는 데 부지런해야 하며, 지식을 얻는 데 신실해야 한다. 인내하는 수고를 통해 그들은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차원의 탁월한 수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일정치 않은 목적과 모순된 습관의 게으름 때문에 설교단에서나 혹은 다른 사업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부주의한 무관심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보인다. 간

혹 있는 갑작스런 충동은 이러한 안일을 사랑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개혁을 이루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끈기 있게 계속되는 선행을 요구하는 일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쉬는 일에 있어서 규칙적인 시간을 지킴으로써만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만일 질서와 규칙이 세상적인 사업에 필수적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4 증언, 411-412)

3.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업무 시간을 충실하게 써야 한다.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이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허비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거의 하루에 맞먹거나, 어떤 때는 이를 초과하기도 한다. "시간은 돈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따른 돈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꾸물거리고 시간에 분별이 없다면, 사업을 번창시키려는 데 진심어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격이고,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를 따르게 될 것이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할 때, 많은 자본이 참된 사업에 축적된다. 사업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속하게 일을 해 낼 것이다. 모두 무엇이 절실히 해야 할 일인지 알기 위해 깨어야 하며, 마치 위대한 경영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일하는 것처럼 수행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자재와 기계 사용에 세심한 주의의 결핍으로 여러 손실이 일어난다. 부주의 때문에 당하는 낭비나 손상이 없도록 크고 작은 갖가지 문제들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연중 여기 저기서 조금씩 허비하는 양을 합치면 어마어마하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예 남는 것을 비축하는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자재를 마구 써서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신중하면 지금은 제쳐 두거나 버리는 분량들을 모으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휴지처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아 두어 돈이 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증언, 450-451)

4. 인내하고 근면함

"발전의 언덕은 노력 없이 오르지 못한다. 신앙적 문제이거나 세속적 문제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노력 없이 이럭저럭 하다가 상급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경주는 반드시 빠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반드시 강한 자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다. 참을성 있고 근면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크게 공헌한다. 상당한 재산과 안락은 열렬한 근면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대개는 얻어지지 않는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들 [요셉의 형제들]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창 47:6)고 말했을 때 그는 이 품성의 특성을 깨닫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5 증언, 180)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피해야 할 것들

5. 거짓 진술

"성경은 모든 거짓과 거짓 거래, 그리고 부정직을 매우 강한 어조로 정죄하고 있다.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원수의 편에 가담시키고 있음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의 시험에 굴복하여 그들의 감각이 두려울 정도로 둔해질 때까지 그의 계략을 따르는 것을 보았다. 진리로부터의 약간의 일탈, 하나님의 요구로부터의 약간의 변형은 재정상의 손익이 있을 때,

그렇게 죄악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백만장자가 저질렀든지 거리의 걸인이 범했든지 죄는 죄다. 거짓되게 오도(誤導)함으로써 재물을 얻으려는 자는 그들 영혼에 정죄를 가져오는 것이다. 거짓과 기만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것은 얻은 그 사람에게 저줏거리가 될 뿐이다." (4 증언, 311)

"사업상 거래를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게 만들고 또는 정직하고 부정직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크기나 사소함이 아니다. 정직으로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땅에 발을 들여 놓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떠한 크기의 불의에도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들의 사업과 분리시키고 있다. 수천 번의 속임수와 소소한 부정직이 그들의 동료들과의 거래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패된 그들의 진정한 심령의 상태를 보여준다." (4 증언, 337)

6. 지나친 여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려 깊고, 피차간에 훨씬 더 자비롭고 더욱 많이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속에 있게 되면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친절하게 돌봐 주게 될 것이다. 사업 거래에 있어서 형제가 형제를 이용하지 말 것이다.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궁핍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 준다. 그들의 행위는 사기와 부정직으로 하늘의 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이 원칙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주님의 축복이 마음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보다 큰 원수의 감화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과 생애가 깨끗하고 균형진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 (5 증언, 350)

7. 다른 사람의 불운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계급의 사람들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고통케 함으로 부요해 질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 거래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의 위치에 놓으라는 것과, 우리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무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교훈을 다 같이 범하는 자이다." (치료, 187)

8. 형제들 사이에 법적으로 고소하는 일 (고전 6:1-7; 마 18:15-17)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과 악의를 일으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시험을 받을 것인바, 사실상 그런 감정을 가질 참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첫째 자리에 놓고 그것을 수호하고 지탱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형제들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구주의 법칙을 따르는 대신에 법정을 찾아가 기도 할 것이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던 많은 사람들도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지 않는다. 형제들 간의 언쟁과 싸움과 소송은 진리의 사업에 수치가 된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교회를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게 한

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상처를 다시 찌르고 그분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5 증언, 242-243)

"사람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상관없이 진리를 말해야 하는 때가 더러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법률가들에게 호소할 때 크게 모욕을 당하셨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주어진 교훈에 유의하겠는가? 하나님 사업에 대한 관심은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겨질 수 없다.

나의 심령을 심한 고민으로 채운 문제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법률가들과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단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 그들은 사업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법률가들을 찾아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아래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라는 사명을 받았다." (8 증언, 69)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

9. 부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됨

"학생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많은 학교들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편벽된 교육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일반 학과들을 철저히 배워야 하며 부기에 대한 지식도 문법에 대한 지식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려고 희망하는 모든 자들은 장부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정직하였으나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부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철자법을 바르게 알고 분명하고 아름답게 쓰며 장부를 정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많은 학교에서 부기 과목을 이상스럽게도 학과에서 삭제해 버렸으나 이 과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 이런 학과에 철저하게 준비시킴으로 학생들을 책임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모, 218)

10. 다양한 직책들을 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함

"경험은 귀중한 가치가 있다. 주께서는 지성적인 사람들, 곧 우리의 합회들과 기관들의 책임 있는 여러 직위에 적합한 사람들이 당신의 사업에 관련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헌신적인 사업가들, 모든 사업상 거래에 진리의 원칙들을 실천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업무를 맡은 자들은 다른 책임들, 그들이 질 수 없는 책임들을 맡아서는 안 되며, 사업의 관리는 무능한 사람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 사업을 책임진 자들이 때때로 중요한 재정적인 업무를 관리할 재치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임명함으로 실수를 범해 왔다." (7 증언, 247-248)

11. 완전한 연구와 훈련으로 재능들을 계발시키는 일

"사업적인 분야에 전도가 유망한 사람들은 철저한 연구와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재능을 계발시키고 완전히 숙달시켜야 한다. 그들은 학생들처럼 올바른 사업의 원칙들과 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곳에 그들 스스로를 두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가는 한 사람도 무경험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만일 사업의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유능해지기 위하여 그들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면,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매우 가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고, 일함으로 활동에 있어서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인간 대리인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숙해지기 위하여, 완전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7 증언, 248)

12.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함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들은 잘못된 원칙과 방법들을 통하여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기록은 바벨론의 궁정에 있던 다니엘의 기록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의 모든 직무상 거래들이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았을 때 하나의 결격 항목도 발견될 수가 없었다. 그의 공적 생애의 기록은, 비록 미완성의 것일지라도, 연구의 가치가 있는 교훈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사업가는 반드시 책략적이요 정책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그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국무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늘의 영감을 받았다. 그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데 대한 하나의 예증이다." (7 증언, 248)

사업 원칙과 방법

13. 매일 따라야 할 금언의 말씀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 22:29).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 14:23).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 13:4),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 23:21).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 20:19).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 17:27),'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 20:3).' (교육, 135)

14. 재정적 안전책

"성경에 그토록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는 경고에 주의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파산이나 파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 28:20).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 13:11).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잠 21:6).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 22:7).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 (잠 11:15).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잠 23:10, 11).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잠 22:16).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 26:27)." (교육, 136)

15.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사회의 복리, 곧 세속 단체와 종교 단체의 복리는 모두 이런 원칙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이런 원칙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거의 잊혀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시된 그분의 율법 때문이다." (교육, 136-137)

16. 하나님과 함께 일함

"사람마다 해야 할 '각각(의) 사무'(막 13:34)를 받았는데, 이 사무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알맞는 일이며, 자기 자신과 동포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분께서 친히 책임을 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염려하며 일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근면, 충실, 수고, 검약, 사려 같은 것이 요구된다. 모든 재능은 최대한도까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성공적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근 가운데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 하지 말라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교육, 137-138)

17. 이익과 손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24; 전 11:1; 잠 11:25).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 23:4, 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교육, 139-140)

18. 가장 높은 이익금을 주는 투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 3:9, 10).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3:10-12).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레 26:3-6)." (교육, 140-141)

19. 보이지 않는 자들의 감사를 받음

"모든 업무의 회계 곧 모든 매매의 명세는 부정한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눈감아 보내지 않으며 악을 완화시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감사들인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정밀한 조사를 받는다." (교육, 143-144)

20. 질문 가운데 질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막 8:36, 37).

이것은 부모나 교사나 학생이나 노인이나 청년이 나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현세의 짧은 세월에만 국한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여하한 사업 설계나 인생의 계획도 결코 건전하다거나 완전할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영원을 계산에 넣도록 교육을 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원칙을 택하고 영원한 재산을 구하도록, 다시 말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보물을 자신들을 위해 쌓으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불의의 재물들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눅 12:33, 16:9) 영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그것에 의하여 풍부하고 고상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둘 수 없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 4:8)." (교육, 145)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신다. 성공은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5 증언, 321)

연구할 과제

1.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진리가 어떻게 하여 그의 사업을 올바르게 하게 할 것인가? (4 증언, 309)
2. 우리들 가운데 있는 미지근한 상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4증언, 309)
3.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저희들의 것으로 만드는데서 그분의 것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4 증언, 479-480)
4. 남의 물건을 편취하였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소망, 2권 373-374)
5. 모든 사업가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해 보라. (실물, 362-363; 4 증언, 540)
6. 종교(신앙)와 사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증언, 424)
7. 돈을 자연스럽게 낭비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권면이 주어졌는가? (청지기, 255, 256)
8. 경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실천하여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어 보라. (청지기, 257)
9. 빚을 지는 것과 자아 부정을 놓고 서로 토의해 보라. (청지기, 257-258)

제 8 장

나의 교회

제51과 그리스도의 교회 - 교인의 자격

성경절 연구: 요 17:9-12, 24

요점: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어 역시 봉사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군사들이다. 그리스도인 목사들과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사업을 맡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바른 원칙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전해 주도록 청중들을 교환시켜야 한다.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 (치료, 134, 135)

예언의 신 연구

교회란 무엇인가?

1. 반역의 세상에 있는 그분의 요새이다

"목사들과 모든 교회들이여, 한 백성으로서, 또한 일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하신 사랑과 선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응답을 하도록 하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시 135:2-5).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요새로 삼으신 선택하신 한 백성, 그분의 교회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죄에 빠진 반역한 세상에서 성채를 소유하고 계신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것 외에는 그 어떤 권세나 법률도 그들 속에 알려지거나 인정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목사, 15-16)

2. 거룩한 것과 비슷한 성전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재능과 축복들을 마련해 주셨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

그분의 충족한 형상을 드러내고, 그분의 교회가 그분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다른 세계, 즉 영원한 세계를, 그리고 지상의 법률보다 더 높은 율법을 끊임없이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건축된 성전이 되어야 하며, 건축가된 천사가 금으로 만든 측량 막대기를 하늘로부터 가지고 왔는 바, 하나님께서 측정하신 대로 각각의 돌들을 자르고 네모나게 하며, 하늘의 상징으로서 빛을 발하도록 마광되어 사방으로 의의 태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밝고도 맑은 광선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야 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빛과 의의 완전한 갑주를 입고서 교회는 최후의 쟁투 속으로 들어간다. 불순물과 쓸모 없는 물질은 불타 버릴 것이며, 진리의 영향력은 그 성화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특성을 세상에 증거한다." (목사, 17-18)

3. 사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풍성한 은총을 드러내심으로서 인간의 심령에 관하여 실험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승리를 호언 장담하고 온갖 악의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의 율법에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궤변과 기만에 대해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화는 사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과 그룹 천사, 인간 매개자들과 협력하도록 사명을 받은 권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단련을 통하여 한때 진노의 자녀였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성을 계발시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직분과 즐거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목사, 18)

4.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저장 창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소유로 삼으신 이들로부터 큰 영광의 소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저장고이다. 이 곳에서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의 풍성함이 충만하고도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 속에서 선언하신 것, 곧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그분께 베푸신 사랑처럼 커다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것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아버지로 더불어 하나되어 우리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은 하늘 천사들에게 경이로운 사실이며, 그들의 큰 기쁨이다. 그분의 성령을 풍성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교회를 불의 장벽으로 둘러 주시는 것과 같아서 지옥의 권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때묻지 않은 순결과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함 가운데 서 있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수치,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모든 영광의 대 발원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충해 주는 존재로 바라보신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목사, 18-19)

5. 하나님의 재산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며 서 있는 때에 끊임없이 교회를 기억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굴욕 당하셨던 때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굴욕의 장면으로부터 떠나가 계시지만 인성은 조금도 상실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연민의 사랑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며, 인간의 비애를 항상 체휼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짓밟힌 율법을 붙들기 위해 고투하고

있는 그분의 대표자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미워했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의 신자들을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산 사슬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정의 사슬로 그분의 마음에 매어져 있다. 그분은 자기가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우리의 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참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들의 가장 큰 열망은 영혼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분은 통회하며 열렬하게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전능자께서는 시련과 시험에 빠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간구를 거절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진실된 신자들이 우리의 구속주를 통해서 받지 못할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곧 가장 혹독한 투쟁을 겪게 될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이다. 악의 동맹체는 아래서 오는 능력으로 분기할 것이며, 사단은 자기의 극악한 고안품들과 거짓으로 속이거나 현혹할 수 없는 선택된 이들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 신 바 된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요 머리되시는 분께서 그 마음을 닫거나, 그 손을 거두시거나, 그 약속을 저버리시겠는가? 아니다. 결코, 결코 아니다." (목사, 19-20)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6.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목사, 31)

7. 우리가 ...한다면 강한 사람들임

"만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쳐 오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빛에 상응하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세상에 전해야 할 신성한 진리의 수탁자로 삼아진 바 되었으므로 행해야 할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이점들을 사용해야 한다. 거룩한 품성으로 진리가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할 것이며, 오류와 죄의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목사, 31)

8. 신앙과 지성 훈련을 위한 설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적 · 지적 훈련을 베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많은 인재들이 미국뿐 아니라 외방 선교지에서 여러 방면의 사

업 가운데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출판소는 문서들을 공급하여 진리의 지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개울물처럼 불어난 자비의 물줄기를 일어나게 한 모든 선물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자." (목사, 31-32)

9. 청소년으로 구성된 군사들이 ...만 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음

"우리는 제대로 지도와 격려를 받게 될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의 군대를 오늘날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믿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젊은이들을 돕는 잘 짜여진 계획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모든 이들을 교육하여 진리를 제대로 대표하고,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며, 자신이 일하도록 자격을 갖춘 각 방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자." (목사, 32)

살아계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움

10.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야 되심을 믿었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와서는 예수가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야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소망, 411-412)

11. 그는 열 두 제자의 믿음을 나타내었음

"베드로는 열 두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사칭(詐稱)이 물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습의 영향 등이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여전히 가로막았다. 때때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빛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흔히 그들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후 4:18).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소망, 412)

12. 믿는 이들의 신앙의 기초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욥 11:8).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

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고전 2:9, 10). '여호와의 치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시 25:14)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요 6:45). 아! 참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소망, 412)

13.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었다.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고 기록하였다(신 32:4; 시 62:7; 사 28:16).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해당시키고 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벧전 2:3-5)라고 말하였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었다." (소망, 412-413)

14. 육천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음

"육천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육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소망, 413)

15.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가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 있는 사명이다." (소망, 413-414)

16. 그 말씀은 교회에 적용이 되는 말씀임

"구주께서는 복음 사업을 베드로 한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 교회에 적용시키셨다. 그리고 대체로 같은 말씀을 신도 단체의 대표자인 열 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만일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그들이 종종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 선생의 소원대로 복종하였을 것이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공경하였을 것이다." (소망, 414)

17. 그리스도가 반석임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만물을 구주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전 11:3; 엡 1:22, 23).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언명하신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임재이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약한 자임이 드러날 것이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께서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렘 17:5; 신 32:4; 시 2:12)." (소망, 414)

교회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18.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교회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이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는 교인들이 있으며,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서글프게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숫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24-30).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 버리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된다.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뿌리째 뽑히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의견과 판단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범하여 한 포기의 알곡이라도 뽑아 버리지 않도록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마 13:30)고 말한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모을 것인데, 그것들은 멸망되기로 정해졌다. 발전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 교회들 안에 알곡 사이에 있는 가라지

처럼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그분은 잘못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며 경고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더디 배우는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알곡으로부터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신다.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야 한다. 알곡이 충분히 자랄 대로 자랐을 때, 그 특성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라지와 쉽게 구별된다." (목사, 45-46)

19. 교회는 완전하지 않음

"어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오직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열성적이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있는 결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자들과 전혀 사귀지 않기 위해 세상을 떠났는데, 악은 여기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유 속의 종들처럼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 13:27) 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성을 낸다고 할지라도 전투하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잘못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떤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시며, 우리는 잘못된 이들을 출교시키거나 공공연히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유한한 인간은 품성을 그릇 판단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품성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런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는 무엇이 알곡을 구성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라지를 구성하고 있는지 말해서는 안 된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으로 상징된 두 계층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분리 작업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겨졌으며, 여하한 인간의 손에도 맡겨지지 않았다." (목사, 47)

20.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는 응답되어야 함 (요한복음 17:20, 21)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보관소이며,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질 세상에 최종적이고도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하나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신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주어짐으로 세상에서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목사, 50)

기억할 말씀: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 (치료, 135)

연구할 과제

1. 사단의 회의에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그 회의 목적에 대해 말하라. (목사, 16)
2. 사단은 어찌하여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참된 교회에 가담하게 하는가? (목

사, 46)
3.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라바와 그리스도 가운데 그 하나를 택할 수 있을까? (목사, 38)
4. 증언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 오용되었는가? (목사, 42)
5.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깃발의 특징은 무엇인가? (6 증언, 144)
6. 교회의 참된 특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복음, 201)
7.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현대에 나타나게 될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7 증언, 33)
8.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육, 345)

제52과 교회의 조직

성경절 연구: 겔 1:15-21; 고전 12:12,27

요점: "선지자에게는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것들과 연결된 생물들의 모양은 모두 혼란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없는 지혜의 손이 바퀴들 가운데 있고 그 일의 결과는 완전한 질서이다. 하나님의 지도하신 모든 바퀴는 다른 모든 바퀴와 완전히 조화 일치되어 움직인다." (9 증언, 259, 260)

예언의 신 연구

필요성, 목적, 결과

1. 교회 조직 이전의 상태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조직이 도입된 지 어언 사십년이 되었다. 나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처음부터 관여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이다. 나는 대처해야만 했던 난관들과,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조직이 세워진 해악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사업 발전에 끼친 영향도 주시해왔다. 사업 초기 단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관해 특별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과 함께 이 빛을 주의 깊게 참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우리 사업은 진취적이었다. 우리 숫자는 소수였으며, 대부분 가난한 계층에 속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세상은 거의 알고 있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소수의 인쇄물과 극히 제한된 설비뿐이었다. 양들은 큰 길가와 샛길, 도시와 촌락, 삼림 속에 흩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우리의 기별이었다." (목사, 24)

"우리 숫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뿌려진 씨앗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으며, 늘어나게 하셨다. 처음에 우리는 개인 가정 집, 커다란 부엌, 창고, 숲 속, 교사(校舍) 등지에 모여 예배드리며, 듣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우리는 소박한 예배소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목사, 26)

2. 조직을 하게 된 이유

"신도수가 늘어나게 되자 어떤 조직 형태가 없이는 대혼란이 생기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목사의 부양, 새 지역의 사업 수행, 무가치한 교인들로부터 교회와 목회직 보호, 출판소를 통한 진리의 간행, 그외의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불가피해졌다." (목사, 26)

3.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 고투하였다. 주님께서 이 점에 관해 거듭거듭 증거해 주셨지만 거센 반대에 자주 부딪쳤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의 섭리로 지도하고 계심을 알았다. 우리는 조직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이 발전적 운동에 현저한 발전이 수반되었다.

사업 발전으로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에 착수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육 사업의 중요성에 마음을 쏟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 철학의 오류들로부터 벗어난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수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건강 기관의 필요성도 긴박하게 느껴졌는데, 이는 우리 백성들을 돕고 교육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과 계몽의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되었다. 이 모든 것은 최고의 질서가 요구되는 선교 사업이었다." (목사, 26-27)

4. 교회 재산을 보호하고 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나는, 원수가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고 그들을 난처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기 위하여 접근해 올 것이므로, 그들이 지혜롭게 움직이고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보았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의 발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자 하는 재산이 원수의 대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교회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교회의 일을 올바른 상태에 두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몫을 하지 않은 채 남겨 두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그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관장해 주시도록 의뢰해야 한다. 사단이 활동할 때가 왔다. 폭풍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의 계획에 대하여 안전하게 서기 위하여 전진하고자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의 문제를 미결상태로 놓아 둠으로 원수가 완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그가 가장 좋아하는 대로 일을 관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1 증언, 210-211)

5. 교회의 연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신체의 모든 다른 지체들이 연합하여 온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온몸을 주관하는 머리에 순종하여 각자의 직책을 수행하듯이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의 균형진 몸 안에 연합하여 온몸이 성화된 머리에 복종해야 한다." (4 증언, 16)

"연합은 힘이요, 분쟁은 허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현저한 영향을 발휘한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가 오늘날처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분열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한 적은 없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일반 교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으며 국가의 법이 미구에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뭉쳐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세상에 알리게 하셨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남녀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본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본되신 분을 가까이 따르고자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참으로 주의 깊게 진리를 제시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진리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빛, 곧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산 편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분열과 불화와 분쟁을 존재케 함으로 오늘날 사단에게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다." (5 증언, 236)

6. 강한 반대가 있었음

"그러나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직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있었다. 제일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조직을 반대했으며, 대부분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렬한 기도로 주님을 찾았다. 그러자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는 질서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곧 조직이 불가피하다는 빛이 주어졌다. 온 우주에 걸쳐 하나님의 모든 사업 속에 조직과 질서가 나타나 있다. 질서는 하늘의 법이며, 이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법이 되어야 한다." (목사, 26)

7. 교회 조직이 커다란 성공을 증명했음

"우리의 사업은 큰 헌물이나 유산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번영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단결된 노력을 축복하셨다. 진리는 널리 크게 퍼져 나갔다. 기관들은 증가되었다. 겨자씨가 한 그루의 큰 나무로 자라났다. 조직의 체계는 아주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 조직적인 헌금 제도가 성경상의 계획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면서 우리 기관의 조직이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목사, 27)

우리가 ...을 대항하여 무장하여야 함

8. 무질서의 위험

"우리가 조직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 사람도 하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조를 세우도록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는 수많은 연구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되었다. 이것은 많은 희생과 고투를 겪으며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세워졌다. 우리 형제 중에 아무라도 미혹을 받아 이것을 부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선언하노니, 그것은 설 것이요, 강해질 것이요, 확립될 것이요, 견고해 질 것이다.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극복해야 할 난관들 때문에 전진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전진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었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들로 인해 현재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에 관하여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각 사람은 크게 조심하도록 하자." (목사, 27-28)

9.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함

"한 가지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독자성이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군인들로서 사업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우리들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에 관하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날 것이 알려져 있을 때 그것에 관하여 우리의 인쇄물에 독자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사상을 제시할 권리가 없다. 일요일 준수 재림교도들은 이렇게 해왔다.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 사이에는, 아마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반대하는 일 외에는 일치된 행동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된다. 모든 일꾼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피차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이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상하고, 집약된 행동으로

발휘되기 위하여 절약되어야 한다. 그것은 무의미한 운동에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5 증언, 534-535)

10. 교회에 분열을 막기 위해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연합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5 증언, 239)

11. 조직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정신을 막음

"다소 경험이 적은 일꾼들에게 책임이 이렇게 넘겨지는 데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약간의 위험들이 있다. 세상은 주권을 위한 싸움으로 가득 차 있다. 동료 일꾼들로부터 이탈하는 정신, 분열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하여 로마교의 제도와 같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만당한 영혼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자유를 자랑할만한 덕성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형제들의 권면과는 독립된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교훈 받았다.

여기에 우리의 사업의 번영을 방해하는 큰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논 상대자들의 판단과 조화를 이루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길을 취할 때만 안전과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없다.

가짜 활동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주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철저한 조직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때에 만일 사단이 이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사업을 혼란시키는 그의 활동에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아, 그는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는 지혜와 주의를 기울여 세워진 조직과 질서의 제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시대에 사업을 주관하고자 욕망하는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나치게 자유롭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9 증언, 257-258)

12. 돌발적이고 변덕스러운 운동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발작적이요 변덕스런 행동은 강하면서도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의 일로써 적절히 비유된다. 하나가 앞으로 끌면 하나는 뒤로 끈다. 그리고 주인이 소리를 치면 하나는 앞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하고 중대한 사업에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지 않으면 혼잡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형제들과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활동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교역자들은 바른 원칙에서 떠나가는 일을 하나 하나 자유롭게 지적하는 형제들을 신임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멘다면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끌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끌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끌지만 그들은 혼자서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대신에, 그들은 동료 일꾼들과 조화를 이루어 끌어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활동은 합당치 않은 때에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와는 반대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일은 하지 않고 버려 둔 것보다 더 나빠진다." (9 증언, 258-259)

우리가 촉진해야 할 일

13. 교회 안에서 일치하도록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함

"작은 의견 차이를 골똘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피차간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심으시고 생명의 강에서 급수(給水)받은 의의 나무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 15:8)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8 증언, 243)

14. 질서, 연합, 신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찾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과 판단은 신뢰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교회에 하나로 이끄셔서 질서를 준수하고, 규칙과 훈련을 받게 하시며, 자신들보다 남들을 낫게 여기고 서로간에 복종하게 하신다. 연합과 신뢰는 교회의 번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 각 교인들이 자기의 독특한 길을 추구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이들을 자극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위험과 위기의 때에 안전할 수 있겠는가? 교회의 번영과 존립 자체도 그 교인들의 고무적이고 연합된 행동과 변함없는 신뢰에 기초한다. 위기의 때, 한 사람이 위험의 경고를 발하면, 의심 때문에 지체하거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필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연합된 행동이 많은 영혼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순간에 지체함으로 원수가 많은 이익을 얻게 했다." (3 증언, 445)

15. 천사들과 일치하며 일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조화를 이루며 활동한다. 완전한 질서가 그들의 모든 활동의 특징이다. 우리가 천군 천사들의 조화와 질서를 밀접하게 본받으면 본받을 수록, 이들 하늘의 매개자들은 우리를 위해 더욱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조화된 행동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질서하며, 절도가 없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철저하게 조직적이며 완전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천사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할 수가 없다. 그들은 혼란과 소동과 분열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서 버린다. 하늘 사자들의 협력을 원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들과 일치하게 일해야 한다. 높은 곳으로부터의 기름을 소유한 이들은 그들의 온갖 활동에 질서, 훈련, 행동의 일치 등을 장려할 것이며, 그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 하늘의 사자들은 불규칙, 분열, 무질서를 결단코 시인할 수 없다. 이 모든 악행은 사단의 노력 결과로서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용기를 꺾고, 성공적인 행동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목사, 28)

16.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염려함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특정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성한

책임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가르치실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당시의 신자들이 책임 있는 위치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분명히 크게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시도록 열렬한 기도로 그분께 구해야 한다." (9 증언, 264)

17. 교회 안에서 권위있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었다. 교회는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들로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공공연히 교회에게 강요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행적, 261-262)

현재와 미래

18. 통솔력의 책임을 분배하여야 함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조직체를 통제하거나 사업의 어떤 분야를 통제하기 위하여 왕 같은 어떤 권력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는 지도자의 책임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워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에게 책임들이 분담되어 있다." (8 증언, 236)

19. 우리 사업의 일반적인 면을 변경하지 말아야 함

"우리 사업의 일반적 특징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예언에 밝혀진 그대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함으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야의 사업을 방해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것이다. 현재의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을 형성시켜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보는 데서 우리의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 (6 증언, 17)

20. 승리를 위해 전진해야 함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지역들로부터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에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강조하는 음성들이 올 것이다. 목사와 백성들이여, 깨어라!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제공된 모든 기회와 특권들을 깨닫고 포착하기에 민첩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은 사단의 맹렬한 진노를 저지시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지 않게 하고자 열렬한 활동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통치하신다. 그분은 우주의 사업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군사들은 승리를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 그들의 대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 개선문에 이르기까지 그들로 싸우게 하라. 주께서는 강한 정복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7 증언, 13-14)

기억할 말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일치를 모방하면 할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자 노력하는 저들의 노력이 성공될 것이다." (목사, 28)

연구할 과제

1. 사도 교회의 조직을 위한 첫 계단은 무엇이었는가? (행적, 20)
2. 12사도는 무엇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는가? (행적, 21)
3. 어떤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본처럼 제시되었는가? (행적, 20)
4.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가? (9 증언, 258)
5. 모든 교인들은 교회 직원들을 선정하는데 발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8 증언, 236)
6.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높은 권위는 무엇인가? (3 증언, 492)
7. 대총회의 가장 중요한 부 또는 가지는 무엇인가? (8 증언, 233)
8.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 토의해 보라. (1 증언, 223-224)
9. 교회 조직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래의 책들을 참고하라.(Spalding's Oringin and History of SDA, Vol. 1 - Captanins of the Host Chapter 17, the Church Manual, and Current Yearbook)

제53과 교화와 그 징계 방법

성경절 연구: 잠 25:8,9; 약 5:20

요점: "주께서는 그의 추종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큰 주의를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향상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적합하게 징계하는 일이 등한히 되어서는 안된다. …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 있는 교회와 하게될 대 연합을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7 증언, 264)

예언의 신 연구

교회의 권위와 그 책임

1. 교회의 권위

"세상의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큰 능력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신자들을 심리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을 말씀해 주셨다. 따라야 할 행동 노선에 대한 명백한 지시를 하신 후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18). 그러므로 성경의 법칙에 따라 행해질 경우에, 하늘의 권위는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징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교회의 판단에 반대되게 자신의 판단을 세우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그가 교회의 의견에 반대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교회 안에 징계나 행정이 없으면, 교회는 조각이 날 것이며 한 몸으로서 결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옳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인도하셨다고 주장하는 독자적인 마음을 가진 개인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각자는 서로 다른 논리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각자가 스스로 독립된 교회가 된다. 이들 모두가 옳을 수는 없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감의 말씀은 '예' 와 '아니오'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와 '아멘' 이다." (3 증언, 428-429)

2. 교회는 죄를 처리할 책임이 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여기에 예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하신 자들이 그분의 명백한 지시를 감히 멸시하기까지 할 때에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순종과 죄악은 당신께 심히 불쾌한 것이므로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음을 깨닫지만, 즉시 그 죄를 그들로부터 떨쳐 버리기 위

한 결정적 조치를 단번에 내림으로 당신의 불쾌히 여기심이 그들 모두 위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악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 의해 간과된다면, 그분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으로서 그 죄악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잘못으로부터 순결하게 하실 필요를 보여 주신다. 한 죄인이 하나님의 빛을 전 회중으로부터 차단할 흑암을 퍼뜨릴 수도 있다. 백성들이, 흑암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을 크게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 그 잘못을 찾아내어 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그 잘못을 우리가 책망한 연고로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난, 편견과 가혹함과 엄격함에 대한 부르짖는 원성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명백한 죄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간과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죄인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죄인과 동일한 허물을 갖게 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 중에 존재하는 잘못과 죄악을 다룸에 있어서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이르러 온 많은 경우가 이상 가운데서 내게 지적되었다. 이 잘못을 간과하는 자들은 단지 그들이 성경의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매우 온후하고 사랑스런 기질을 가졌다고 백성들에 의해 생각되었다. 그 임무는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였다." (3 증언, 265-266)

"나는 많은 영혼들이 탐심 때문에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분명하고 곧은 증언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고대 이스라엘에 분명히 임하였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죄에 대해 한 몸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책임을 지우신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몸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안겨 줄 죄들을 부지런히 발견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될 경우, 저들은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심령을 취급하는 일은 일찍이 인간이 참여한 사업 중 가장 훌륭한 사업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바로잡는 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긍휼을 사랑하는 한편 공의롭게 취급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에 신실한 견책을 혼합해야 할 필요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항상 불필요하게 가혹하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유 22, 23)고 말한 사도의 권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3 증언, 269-270)

3. 규율과 규칙들이 필요함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의 사상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에 관하여 그대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라.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성막 봉사의 질서에 관한 지시는 세상에 생존할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막을 세우고 뜯는 일의 여러 부분을 담당할 사람들이 선정되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정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사업에 손을 대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 우리는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죽음의 형벌은 없어졌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의 사업에서 오늘날 그처럼 부주의하고 무질서하게 일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법칙과 규칙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5 증언, 274)

여호수아와 아간

4. 여호수아는 잘못된 것을 찾아냈음

"여호수아의 분별력과 잘못을 찾아내어 그들 중에 거하는 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들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지도 않으신 일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그것을 문제로 삼고, 의문시하고, 비난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진노를 옮기시기 위하여 휩쓸고 있는 죄들을 견책하고 교정하는 부담을 지우신 이들의 앞길을 직접적으로 막는다. 아간과 같은 경우가 우리 중에 존재한다면, 잘못을 찾아내는 여호수아의 역을 맡은 이들에 대하여 사악하고 흠을 찾기 좋아하는 정신의 소유자라고 비난할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경고는 빗나간 백성들에 의하여 무사 안일하게 무시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3 증언, 270)

5. 이스라엘은 아간 때문에 약하게 되었음

"나는 아간의 고백은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이 그렇게 하였고, 또한 그렇게 할 고백과 유사함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발견해 내실 때까지 자발적으로 고백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그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 결국 강퍅하게 된다. 그들은 마치 아간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약화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의 정죄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교만하고 반역적인 마음을 낮추고 그 잘못을 벗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평안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백성들 위에 있으며, 그분은 저들 중에 죄악이 존재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그것이 조장되는 한 저들 중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 것이다." (3 증언, 270)

6. 성결되지 못한 자들이 징계를 거절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장애물을 없애고 서글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는 이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공포를 느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순결한 중에 번영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자들은 비 헌신적인 이들로부터 저항하는 영향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부류들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서와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3 증언, 270-271)

알곡과 가라지

7. "둘다 함께 자라게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

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므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 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실물, 71-72)

8. 저들의 뿌리는 서로 얽히어 있음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 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실물, 72)

9. 초대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신자들이 있었음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 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실물, 72)

10. 가라지가 알곡과 닮았음

"잎이 청청할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 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자와 악한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 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실물, 74)

11. 비유의 절정

"구주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 놓는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실물, 74-75)

구세주께서 교훈의 말씀을 하셨음

12.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그분의 계획

"실수한 교인들을 취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구주께서 주신 교훈을 주의 깊이 따라야 한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사시고,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랑으로 그분께 결속시켜 놓은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간을 취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는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관한 악을 추측할 권리가 없다. 교인들은 실수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나타내도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의 누룩을 넣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불리한 소문들은 교인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된다. 어떤 한 사람 편에서 주 예수께서 주신 지시를 따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이루어지고 불의가 자행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마 18:15)고 말씀하셨다.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한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다시 다른 사람이 듣는다.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소문은 퍼져간다. 악이 증가되고 마침내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너와 그 사람과만'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잠 25:8, 9). 그대의 형제에게 죄를 묵인하지 말라. 그러나 그를 노출시켜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책망을 복수처럼 보이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밝혀진 방법대로 그를 교정하라." (7 증언, 260-261)

13. 원한이 악으로 성숙하기까지 허용하지 말라

"앙심으로까지 무르익도록 원한을 용납하지 말라. 듣는 자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유독(有毒)한 말로 그 상처가 곪아서 터지도록 허용하지 말라. 무정한 생각들이 그대의 마음과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대의 형제에게로 가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 문제에 관하여 그와 함께 이야기하라." (7 증언, 261)

14. 조용하고 침착하게 설명하라

"범죄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해와 개인적인 손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바꾸지는 않는다. 혼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실수를 범한 자에게 이야기함으로 어려움이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실수한 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침착하고 조용하게 그와 의논하라. 분노의 말이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보다 좋은 그의 판단력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20)는 말씀을 기억하라.

불평의 질병을 고쳐줄 치료제를 그대의 형제에게로 가져가라. 그를 돕기 위하여 그대가 할 몫을 다하라. 교회의 평안과 연합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요 특권임을 생각하라. 만일 그가 그대의 말을 듣는다면 그대는 그를 친구로 얻은 것이다." (7 증언, 261)

15. 하늘은 이러한 면접(담화)을 흥미있게 주시함

"온 하늘은 손해를 입은 사람과 잘못을 범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담에 관심을 갖는다. 실수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진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의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늘의 햇빛이 그의

마음을 채운다. 대쟁투는 끝나고, 우정과 신뢰가 회복된다. 사랑의 기름이 잘못 때문에 생긴 쓰라림을 제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과 마음을 묶어주고, 이루어진 연합 때문에 하늘에는 음악이 있다." (7 증언, 261-262)

16.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서로 서약하라

"이와같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공의롭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기로 스스로 서약할 때,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면 그들은 회개와 고백과 손해 배상의 일을 계속하고, 피차 간에 선을 행하는 위치에 완전히 서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7 증언, 262)

17.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마 18:16). 영적으로 마음이 준비된 자들을 그대와 함께 데리고 가서 잘못에 관하여 잘못한 사람과 이야기하라. 그는 그의 형제들의 연합된 호소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문제에서 그들의 합의를 깨닫게 되면 그의 마음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7 증언, 262)

18.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직원회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한 자를 출교시키는 책임을 질 것인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17절). 교회가 그 교인에 관하여 결의를 하게 해야 한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7절). 만일 그가 교회의 음성에 유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를 교정하기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거절한다면, 그를 교회의 친교에서 분리시키는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진다. 그 때는 그의 이름이 녹명책에서 지워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성실하게 따르기 전에는 잘못한 자의 이름을 교회의 녹명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을 교회의 어떤 직원이 조언해도, 어떤 위원회가 제안해도, 어떤 교회가 결의해도 안 된다. 이 교훈을 따랐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악이 점점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제거되어야 한다. 교회가 더럽히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교회의 건강과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7 증언, 262-263)

19. 극단적인 경우에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돌보도록 임명받은 자들은 올바른 본을 보이기 위하여 주의해야 하고,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기회를 주지 말고 언제나 그들이 형제들에게 권유하기를 바라는 사랑과 존경과 예절의 바로 그 정신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부지런히 유의해야 한다. 증오나 불친절에 대한 온갖 표현은 제지되어야 하고, 원한의 온갖 뿌리는 제거되어야 한다. 형제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구주께서 세우신 법칙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파당들이 분열 상태를 완고하게 고집할 경우에는 그들이 화합할 때까지 (교인)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5 증언, 241)

20. 하늘에서 인정함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8절).

이 말씀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와 기강을 보존하기 위한 그분의 기구이다. 주께서는 교회의 번영과 순결과 질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교회에 위임하셨다. 교회에는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으로 진리에 오명을 끼치는 적합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의 친교로부터 제외시키는 책임이 주어진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지시와 일치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재가를 받게 될 것이다." (7 증언, 263)

기억할 말씀: "만약 우리가 진지한 사랑으로 넘쳐서 타락한 자들의 발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5 증언, 420)

연구할 과제

1. 교회의 어떤 문제에 가담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라. (4 증언, 268)
2.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증언, 465)
3. 그리스도인은 누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3 증언, 433)
4. 어떤 사람이 한동안 교제를 단절하다가 회개한다면 무엇을 하여야 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남아 있는가? (7 증언, 263)
5.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교인으로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규율인가? (1 증언, 215)
6. 교회에서 교인 대다수가 표결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5 증언, 107)
7.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실물, 64)
8. 초대 교회를 세울 당시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실물, 66)
9. 얼마나한 기간 동안 가라지가 알곡과 거의 흡사하게 보이는가? (실물, 66)
10.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늘 가족과 살 가치가 있는 자로 결정하게 될 것인가? (실물, 67)

제54과 교회의 사명

성경절 연구: 마 5:14-16

요점: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두루마리가 세상에 펼쳐질 시대가 왔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담긴 진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며 모든 캄캄한 대륙과 바다의 섬들을 비춰야 한다. 이 일은 결코 지체되지 말아야 한다." (복음, 456)

예언의 신 연구

구약 시대의 교회

1.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숫군을 가지셨음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행적, 11)

2. 세상을 향한 축복의 근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潮水)가 흘러나온다." (행적, 13)

3. 이스라엘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어야 했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

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롬 1:21)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앞에 높이 들릴 것이었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 제도의 기초이셨다. 모든 표상과 상징들의 체계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예언이었고 구속의 약속들이 묶여져 있는 표상이었다." (행적, 13-14)

4. 저들이 저들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실패함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았다. 그들은 이방인의 행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과의 교제에 가하신 제재를 그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행적, 14-15)

사도교회

5. 제자들은 가장 위대하신 선생에게서 훈련을 받았음

"삼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顯現)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 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에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행적, 17-18)

6.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은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엡 2:14, 3:6)는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 진리는 그분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보상하실 때와, 또한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행적, 19-20)

7. 영토의 경계나 계급의 차이가 없음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 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행 17:26, 27)시다는 그 진리의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행적, 20)

8. 다양성 속에 있는 일치(연합)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1, 23). 그분은 그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분은 창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아셨고,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과 언젠가 피묻은 깃발이 제자들 위에 의기 양양하게 휘날릴 것을 아셨다." (행적, 20-21)

남은 교회의 사명

9. 증인이 되라는 부름을 받음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그들은 공론에 빠져서는 안 되며, 불신자들과 사업을 같이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하나님의 권고와 계획이 그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9 증언 , 19)

10. 그리스도인 종교가 최상으로 발달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생애

는 신앙에 조롱거리가 된다. 교회의 녹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의 내적 단장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대표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행하고 활동하는 특권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의 생애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생애로써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9 증언, 22)

11. 진리대로 살아야 함

"우리가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기별을 가진 자들의 생애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높은 표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한다." (9 증언, 23)

12. 세계적인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빛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어둔 곳을 널리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함으로써 구주와 협력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남녀들은 세속적인 이득과 쾌락을 찾는 데 몰두되어 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시간을 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다.

명백한 증거들이 끝이 가까움을 가리키고 있다. 경고는 분명한 음조로 주어져야 한다. 평화의 왕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관들과 경쟁할 기관들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면서 보여 준 견인 불발의 인내와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9 증언, 24-25)

13. 영원이 우리 앞에 있음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걷히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안일에 몰두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해졌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대들에게 알려 준 것이 허사가 되었는가? 그분께서 임박한 종말에 관한 경고를 계속해서 그대들에게 보내신 것이 허사가 되었는가? 그대들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에 관하여 그분의 말씀이 선포한 바를 믿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음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채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9 증언, 26-27)

교인들을 위한 일

14.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움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시간과 재능을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쓰므로 그들을 약화시킨다. 도시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중 많은 곳에서 목사

는 안식일마다 설교하고, 교인들은 안식일마다 나누어준 축복 때문에 받은 축복에 대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 그들은 안식일에 받은 교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일 동안 일하지 않았다. 교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큰 영적 허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일꾼들의 군대에 들어가 그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의 목사들이 안식일에, 우리의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랑으로 충만한 짧은 설교를 하기에 적절한 때들이 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매 안식일 설교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찾고 있는 이 지상의 순례자요 나그네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성과 그런 헌신으로 일을 하자. 봉사의 언약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위대하고 엄청난 영혼 구원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한 협약 아래 있다. 교인들은 주일 동안에 그들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안식일에는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회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과 신선한 활기를 주는 시의적절한 식사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것처럼 활동할 큰 필요를 깨닫게 되면, 안식일에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간증들이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기쁨으로 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므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목사들은 진리를 이미 받아들인 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데 그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이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죄인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모든 물가에 그들은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곳곳마다 방문되어야 하고 교회가 차례로 세워져야 한다. 진리 편에 서는 자들은 교회들로 조직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목사는 똑같이 주요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

교회가 조직되자마자 목사는 교인들을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사는 설교하는 데보다 가르치는 데 그의 시간을 더 많이 바쳐야 한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새 회심자들은 사업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한편, 그들은 또한 목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목사들은 인간, 연약함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도를 받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분이시다." (7 증언, 18-20)

15. 교인들로 일하게 하라

"달란트의 비유를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라. 신자들이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받은 역량에 따라 주님께서 그들이 남들에게 빛을 전하고 축복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들의 빈부와 귀천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사 그분을 위하여 열렬히 일하시도록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업의 전진을 교회에 의탁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공언하는 제자들이 지각 있는 존재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모든 훈련된 정신, 모든 길들여진 지성, 모든 역량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져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 (6 증언, 432)

16.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8 증언, 27)

17. 새로운 지역에서 일해야 함

"포도원은 온 세상을 포함하며, 모든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덕적 불모지가 된 땅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 동산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상의 황무지는 개간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장미처럼 싹을 내며 꽃을 피우게 되어야 한다. 성령에 의해 감동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새로운 지역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회들이 서고, 새로운 회중이 조직되어야 한다. 지금 모든 도시마다 그리고 세상 끝의 무너진 곳에도 현대 진리를 제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빛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빛이 발산되게 되어 있다. 샛별이 우리 위에 떠올랐으며 우리는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의 길에 그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6 증언, 24)

18.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이용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고한다.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대의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라. 그대의 성공은 그대의 지식이나 학력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대의 능력에 달렸다. 사람들과 친근히 교제함으로 가장 유능한 강연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사상의 방향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난롯가에 모여 앉은 어떤 가족이나 또는 적은 무리들이 모인 개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밖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는 설교나 혹은 회관이나 교회당에서 하는 설교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복음, 193)

19. 치명적인 실수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받은 겸손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수함으로 성직에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실 것이다.

구원의 기별을 들은 수백명 아니 수천명이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러고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부언하신다(마 20:6, 7).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가? 저희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기 때문인가? 헌신한 무수한 평신도들이 설교단 밖에서 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라." (행적, 110-111)

20.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음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

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행적, 111)

기억할 말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남녀들이 (우리 교인드을 포함하여) 사업에 참가하여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과 함께 저들의 노력을 연합하기까지 결코 마쳐질 수 없다." (9 증언, 117)

연구할 과제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몇시간 하는가? (9 증언, 45)
2. 어떤 사업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짰는가? (6 증언, 29-30)
3.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남겨 준 유산은 무엇인가? (6 증언, 261)
4.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일을 하여야 하는가? (7 증언, 21)
5. 앞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이 어떻게 지장을 받을 것인가? (6 증언, 22)
6. 그대는 선교 정신이 있는가? (선교, 106)
7. 어떤 사람들이 영적 난장이인가? (선교, 109)
8. 1893년에 우리 백성들이 저들의 지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 대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선교, 48)

제55과 예배하는 집

성경절 연구: 창 28:16, 17; 출 3:5; 시 95:3-6; 100:3-4

요점: "겸비하게 믿는 영혼에게 예배하는 집은 하늘의 문이 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리어지는 찬양과 기도, 전파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지정된 것들이요, 그곳에서 드리는 고상한 예배에는 그거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5 증언, 491)

예언의 신 연구

하나님의 집

1. 하나님의 집을 세움

"그대는 예배당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말한다. 그대가 지나치게 못마땅히 여기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 건물에 있어서 지나치게 공든 것도 멋있는 것도 없다. 그 건물은 결코 대단치 않다. 그 장식은 낭비가 아니다. 이 건물에 대해 불평하려는 자들은 이것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다. 그분께 봉헌되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사랑스런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질서와 미가 결여된 채로 건축된 예배당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크고 편리한 집들을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헌될 집에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 그들의 손에 있는 돈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손실인 양 생각하고 내어놓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과시와 장식을 위해 과다히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단정함과 질서와 멋과 미를 갖추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집을 짓는 것보다 그 목적이 더 높고 더욱 거룩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미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2 증언, 256-257)

2. 깨끗하고 멋이 있어 관심을 끌만하게 하여야 함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집은 아담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 소수의 신자들밖에 없다면 아담하면서도 작은 집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당함으로 예수님이 그대들의 손님으로 오시도록 초청하라. 그분의 백성들이 마음의 욕망대로 편리한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창고나 어떤 초라하고 괴상한 건물이나, 어떤 값싸고 버려진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즐겨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대들은 친구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 그분의 귀중한 생명까지 바치신 분,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최초의 집이었던 마구간보다 불과 조금밖에 더 낫지 못한 장소가 지상에서 허락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시험해 보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않겠는가?" (5 증언, 269)

3. 헌당식

"가능한 대로 우리의 교회당들이 빚 없이 하나님께 헌당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서면, 교인들이 일어나 건물을 짓도록 하라. 동료 목사들의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한 목사의 지도 하에 '우리는 집회 장소가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 있어야 겠다'고 말하는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 손수 이 일에 참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백성들이 즐겁게 연합하여 힘쓰기를 요구하신다.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리하면 곧 다음과 같은 감사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 (6 증언, 101)

"만일 교인들이 빚을 청산하고자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진지하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배당에 얹혀 있는 빚들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빚이 청산되는 모든 경우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것은 그분의 집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이 될 것이다." (6 증언, 104)

4. 회중(교인)들을 위한 교회(성소)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궁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관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배에 속한 것은 무엇에든지 부주의하거나 냉담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교제는, 그들의 마음에서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구분할 수 있게 보존되어야 한다. 원대한 이상과 고상한 사상과 대망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든 사상을 강하게 하는 교제를 하는 자들이다. 높거나 낮거나, 도시 안이거나 거칠은 산중 동굴 속이거나, 비천한 오두막이거나 광야이거나 간에 성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곳이라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임재로써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 곳은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5 증언, 491-492)

예배자

5.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알현실(謁見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부조, 252)

6.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깊이 들으라. 한 순간도 졸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졸므로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말씀, 유의하기만 했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었을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감각을 마비된 상태로 만들어서 주의와 경고와 책망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자 분주히 활동한다. 혹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때때로 어린아이가 청중들의 주의를 끌므로 귀중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한 존경심을 별로 갖지 못하므로 그들은 설교하는 동안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만일 그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동작을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본다면, 그들은 수치와 그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충만해 질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깊은 청중들을 원하신다. 사단이 그의 가라지를 뿌린 것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이었다." (5 증언, 493)

7.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하도록 하라

"안식일마다 모일 때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 찬양을 돌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분께 우리 마음의 찬송을 드리자. 설교자가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담을 갖고 말하자. 단순한 언어로 모든 찬양의 노래 중에 그 사랑이 표현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그대의 기도를 지도하게 하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의 감동적인 반응으로 그대가 하늘로서 오는 기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하게 하라. 이것이 매우 구식임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굶주린 영혼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에 대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제가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 반응은 그대의 영혼에 힘이 되며 남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빛을 발산하는 돌들이 있다는 증거를 줄 것이다." (6 증언, 367)

8. 기도가 드려진 후에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교의 표준을 높여 주라. 예수님이 그들의 경험 속에 직조(織組)되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가장 존중하도록 가르쳐 주고,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으로 부드러워지고 양순해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곳은 그분의 집이다. 나는 순결한 생각과 가장 고상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 나는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악한 추측과 증오와 속임수를 마음 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축복하시는 장소이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생애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읽으신다.'" (5 증언, 494)

공손한(경건한)태도

9.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지상 성소에 속한 거룩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그들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배울 수 있다. 종교적 예배에 관한 백성들의 습관과 관습에 큰 변화가 생기되, 더 좋게 변하지 않고 더 나쁘게 변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들과 귀중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힘을 신속

하게 잃어버리고 있으며, 통속적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옛날에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성소에 대하여 가졌던 존경심은 거의 상실되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을 예배하는 질서를 명령하셨고, 그것을 세속적 성격에 속한 어떤 것보다 더 높이셨다." (5 증언, 491)

10. 침묵 속에 있는 응변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그들의 자리로 조용히 가야 한다. 만일 방안에 난로가 있을 경우에는 나태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주위에 모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속적 이야기와 속삭이는 것과, 웃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활기 있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을 특징지워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그들은 조용한 명상으로 참된 헌신의 정신을 유지해야 하고, 예배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특별한 유익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게 해주도록 기도로써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한다. 그들은 그 집안에 하늘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침착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또한 반성과 기도의 순간을 장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귀중한 교제를 많이 상실한다. 영적 상태를 가끔 살펴보고 마음과 정신이 의의 태양에게로 끌려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으로 들어올 때 주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마음 속에 생각한다면, 침묵 속에 귀중한 응변이 있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사업장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속삭임과 웃음과 이야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은 합당한 무게를 갖게 되고, 올바르게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5 증언, 492)

11.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함

"목사가 들어올 때는 위엄 있고, 엄숙한 태도로 들어와야 한다. 그는 강단에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숙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감명을 주겠는가! 사람들에게는 엄숙함과 경외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 엄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깃들고, 하늘의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이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중의 각 사람들도 그와 함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된 그분의 진리에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기도로써 집회가 시작되면, 거룩하신 분이 계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하며, 모든 마음은 조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성실한 예배자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말씀의 봉사는 효력이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모든 예배는 마치 '회중의 스승'(전 12:11)께서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처럼 엄숙하고 경외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5 증언, 492-493)

12. 부모들은 공손한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

"형제들이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대의 행동이 어떠하며 그대가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길러 주기 위하여 교훈과 모본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많은 책임을 전도자에게 넘기고 그로 하여금 그대들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러나 그

대들은 부모요 교훈자로서의 그대들 자신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대의 권속들이 그대를 따라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도록 명령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아들과 딸들은 그대 자신의 모본과 게으른 교훈 때문에 타락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 교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목사에게, 그대들의 매일의 일을 중화시켜 주고 자녀들의 마음과 생애를 덕성과 경건으로 훈련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목사가 영혼을 교화시키고 구원하고자 성실하고 애정 어린 권면과 꾸준한 훈육과 열렬한 기도로써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 자신의 게으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목사를 비난한다. 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사업을 맡아서 충성되게 이행할 것인가? 그들은 전진하고 향상하므로 그들 스스로 고상한 표준에 도달하고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향상시키기 위하여 겸손하고, 꾸준하고, 인내하는 방법으로 활동하겠는가? 우리의 교회들이 연약하고, 그들의 영역에서 마땅할 만큼 깊고 열렬한 경건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게하는 우리의 현재의 습관과 관습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시험하는 진리가 있다. 만일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빛을 대적하는 죄인들이며, 그것에 비례해서 죄가 있다. 하나님의 보응하는 심판의 날에 이교도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5 증언, 494-495)

음악

13. 모든 노래의 주제

"구원의 이치는 모든 설교와 모든 노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간구와 함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해야 한다." (전도, 493)

14. 아름답고 능력있게

"음악은 선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의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최선껏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래는 일반적으로 즉흥적으로 불리워지거나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려진다. 어떤 때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므로, 음악은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적절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 음악은 아름다움과 비애감과 힘을 가져야 한다. 찬양과 헌신의 노래로 목소리를 높이자. 할 수 있으면 기악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는 예물로 영광스러운 화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4 증언, 71)

15. 분명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형식적인 예배의 잘못은 아무리 강하게 묘사해도 묘사할 길이 없는 반면에 진실한 예배의 심오한 축복은 적절히 설명할 말이 없다. 인간이 영과 이해력으로 노래할 때 하늘의 연주가들은 음률을 잡고 감사의 노래에 연합한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음성을 계발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필요한 것은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억양과 정확한 발음과 분명한 발성이다. 모든 사람은 귀를 거슬리게 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음조가 아니라 분명하고 부드러운 음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음성을 계발하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노래하는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라." (9 증언, 143-144)

16. 회중이 함께 노래하도록 하라.

"개최된 집회에서는 노래의 봉사에 참여할 인원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래에는 능숙하게 다루어지는 악기들이 수반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기악의 사용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봉사의 분야를 주의 깊이 지도해야 한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일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온 회중이 동참하게 하라." (9 증언, 144)

"**스스로 도우려는 자들의 음악 순서를 수락함** —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찬미를 부르는 것을 등한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찬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특별히 찬미 부르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수락하라. 그러나 노래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때로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단순한 찬미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찬양대의 노래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기도 한다." (전도, 509)

설교

17.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방법을 이해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으로부터 인기 있는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를 듣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영혼이 갈급하던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을 찾은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세상에 자비의 마지막 기별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피난처로 높여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한 심령으로 회개와 믿음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청중들이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것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만일 그 청중들이 관심 있어 하면 그들은 그것을 성공의 증거로 생각한다. 백성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지하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4 증언, 394)

18. 매 집회마다 결심하지 않은 영혼들의 있음

"즉각적이고 힘있는 그리고 열렬한 행동이 아직 결심하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 없이 설교하려고 시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질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모든 회중 가운데에는 주저하며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거의 이끌려 온 영혼들이 있다. 시간과 영원을 향해 결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자신의 심령에 진리의 기별의 영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울질에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직접적인 호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의 심령에 감명은 깊어지지 않으며, 그들은 오기 전보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이 더 적어진 느낌으로 집회를 떠나게 된다. 그들은 보다 호의적인 기회를 기다리자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 가인의 제사와 같이 이 불경건한 설교는 구주가 빠졌다. 황금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이 영혼들의 사건은 결정되었다. 무관심한 방법과 영혼에 대한 부담 없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지 않은가?" (4 증언, 446-447)

19.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도 있음

"우리의 많은 목사들은 순전히 논쟁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큰 실수를 범해 왔다. 진리의 이론은 듣고 제시된 증거에 감명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 그 때 설교의 일부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제시하면 뿌려진 씨는 싹이 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백성들 앞에 제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될지도

모르며 어떤 이들은 그들 앞에 제시되는 진리의 사슬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들의 심령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결코 다시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잃어버린 금같은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이 진리의 이론과 연결되어 높여졌다면, 그것은 그들을 그분 편에 서게 했을 것이다."(4 증언, 393-394)

20. 매 설교마다 호소함

"우리는 회심한 목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그들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홀로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목사는 그의 믿음에 그 부담을 짊어질 것이다. 그는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목사는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밀접한 연결을 가질 때까지는 결코 단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겸손하게 그의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고 은혜의 이슬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그에게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안겨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는,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진지한 권면을 하며, 죄인의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고는 결코 회중들을 떠나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회중들을 하나님의 큰 날까지 다시는 만나지도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4 증언, 315-316)

"모든 설교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는 열렬한 호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죄와 방종은 정죄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경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목사는 그가 하는 말을 심령으로부터 느끼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남녀들의 영혼들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신실해야 한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동일한 열성이 그분의 대표자들에 의해 느껴져야 한다."(4 증언, 396)

기억할 말씀: "… 불평하는 말이나 불만이 그대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천사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음을 기억하라…"(7 증언, 183)

연구할 과제

1. 하나님의 집이 예배하는 무리가 생길 때마다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말하라. (6 증언 , 100)
2. 우리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자들을 세 내어 사용해서는 안되는가? (6 증언, 101)
3.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들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때때로 무엇으로 인하여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는가? (9 증언, 91)
4. 학교 건물로 사용되는 방을 예배하는 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5 증언, 496)
5.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의복에 관해서는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5 증언, 498-499)
6.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과 능력있게 노래하는 것의 차이를 말해 보라. (4 증언, 71; 9 증언, 143)
7. 인간들이 노래할 때에 어떤 두가지의 조건하에서 하늘의 음악가들이 함께 노

래하게 되는가? (9 증언, 143)

8. 우리가 목사들을 목사(Minister)라고 부르는 대신에 성직자(Reverend)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장감리교, 천주교에서 부르는 목사의 명칭) {소망, 3권 71}

제56과 교회로 들어가는 문 -침례

성경절 연구: 롬 6:3-5; 골 3:1-3

요점: "침례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 의미는 죄에 대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6 증언, 93)

예언의 신 연구

예수님의 침례

1. 광야의 선지자

"광야의 선지자와 그의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촌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의 때는 왔다. 그는 자기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자기 어머니에게 고별의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예수와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고 그들 출생의 환경으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애하였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애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은둔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차 교통한 일이 없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은 예수의 탄생을 특징지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 시대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의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예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야가 되실 것을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은 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시고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특별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사실은 그가 과연 '약속되신 분'일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메시야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야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소망, 109-110)

2. 메시야를 알아봄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에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가 계신 그 자리는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 주위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서 범죄에 대한 험악한 이야기를 들었고 숱한 죄 짐에 눌린 사람들을 만난 적은 있

었으나 그처럼 신령한 감화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야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된 것과 부합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요청을 응하기에 주저하였다. 죄인인 그가 어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 베풀 수 있는가?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가 죄책을 씻김 바란다는 고백인 의식에 순복해야 하는가?" (소망, 110)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가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소망, 112)

3. 요단강에서의 침례식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였을 때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외치며 뒷걸음을 쳤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고도 온유하신 권위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셨다.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를 물속에 장사지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었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는 지금 좀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그의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가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공생애 동안도 그는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에 거하셨었으나 그의 지상 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되었다." (소망, 111)

4. 하늘의 이상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 주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 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異像)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회중에게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비취었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다. 죄 범한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가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소망, 112)

5.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 조차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 …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 22:7, 8)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성령은 이 사건을 취하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그가 …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양과 같'으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사 53:7, 6).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 중의 대다수는 희생 제물을 마치 이방 사람이 자신들의 제물에 대하여 생각하듯이 그것으로 자신들이 신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예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화목시키게하는 예물은 자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소망, 112-113)

6. 영광의 중요성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자라' 고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엡 1:6)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가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췬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소망, 113)

의식의 의의

7. 두 개의 기념비

"침례와 성만찬은 기념적인 두 기둥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의식 위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다." (6 증언, 91)

8. 들어가는 표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으셨다. 사람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렘 23:6)라는 표를 받아야 한다." (6 증언, 91)

9. 세 이름 아래 침례를 받음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후 6:17, 18)는 약속이 성취된다." (6 증언, 91)

침례를 위한 준비

10.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함

"침례 후보자들 측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들은 평소에 받아 온 것보다도 더욱 성실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새로 진리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원칙이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아무도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의 빛은 주의 깊이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으로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6 증언, 91-92)

11.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필요함

"성실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은 각성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려 주기 위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애에서 으뜸이 되기 위하여 이기적 방종에 대한 욕망을 품는다면, 성실한 신자들은 자신이 심판 받아야 할 사람처럼 그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은 젊은 회심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성실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음으로써 반신반의의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바로 첫 경험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사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필요를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이 이런 순종을 하지 못하면 죄는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식욕과 정욕이 패권을 쥐고자 애를 쓰고, 유혹이 양심을 혼란케 하므로 참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모든 사람이 사로잡고 유혹하고 속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반드시 싸워야 할 투쟁을 깨달을 것 같으면, 믿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더욱 부지런히 활동하게 될 것이다." (6 증언, 92-93)

12. 권면(권고)를 구하는 것은 저들의 특권임

"홀로 버려진 이 영혼들은 때때로 유혹을 받되 유혹의 악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충고를 구하는 것이 특권임을 깨닫게 해 주라.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영혼들과 나누는 우리의 대화는 영적이며 용기를 주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회의적이고 갈등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싸움을 주목하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 앞에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그들이 오르고자 애쓰고 있는 빛나는 사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6 증언, 93)

13. 부모들의 일

"부모들의 일.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신을 살피는 일과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침례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에 관하여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를 받도록 부당하게 재촉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녀들은 다 같이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자녀들이 침례를 받도록 동의함으로써, 부모는 그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서약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모독하지 않도록 양떼 중의 그 어린양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가장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종교적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 교육은 비난하는 정신으로가 아니고 즐겁고 쾌활한 정신으로 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형태로 유혹이 오지 않도록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지혜롭고 상냥한 교훈으로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 부모들은 경험 없는 이 어린 자녀들의 친구로서 그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올바르게 행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가족 중 어린 사람들에 불과함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부드러운 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날마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이다. 부모들이여,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자녀들을 친구로 삼으라." (6 증언, 93-94)

14. 하나님께 해야 할 첫 봉사를 저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의 생애 중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되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침례 받기를 원할 때는 그들을 성실하게 다루어라.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첫째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 물어 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들에게 말해 주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첫째 교훈이다. 하나님을 위한 첫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에게 단순하게 가르쳐 주라.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쉽게 그 일을 가르치라. 그리스도인 부모의 권면대로 주님께 자아를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라." (6 증언, 94)

15. 부모의 책임

"성실하게 노력한 후에 그대의 자녀들이 회개와 침례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생각되거든,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그들의 미숙한 발로 순종의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충실한 목자의 준비를 하라고 나는 거듭 말하는 바이다. 부모들이 사랑과 예절과 그리스도인 겸손과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치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대가 자녀들이 침례 받는 일에 동의한 후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그들이 진리를 믿는 믿음과 용기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6 증언, 94-95)

목사들이 해야 할 일

16. 회심(중생)의 열매들을 설명하라

"목사의 일. 장성한 남녀로 성장한 후보자들은 어린 사람들보다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에게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에게 그릇된 습관과 생활은 없는가? 그들과 함께 특별한 모임을 갖는 것이 목사의 의무이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분명히 설명해 주라.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읽어 주라. 회개의 열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임을 보여 주라.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사상과 목적의 변화임을 알려 주라. 악한 습관들은 버려야 하고, 험담과 시기와 불순종의 죄도 버려야 한다. 성품의 온갖 악한 특성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약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6 증언, 95)

17. 침례 후보자들을 시문하라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마땅히 시험해야 할만큼 엄격히 시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단순히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편에 서 있고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냉랭하고 어렴풋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침례 후보자들이 복음의 요구 조건들을 적용시키게 해 주라." (6 증언, 95-96)

18. 의복에 대한 문제

"새로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문제들 중 하나는 의복에 관한 것이다. 새로 회심한 자들을 성실하게 다루도록 하라. 그들은 의복에 있어서 허영적이 아닌가? 그들은 마음의 교만을 품고 있지 않는가? 의복의 우상은 도덕적 질병이다. 그 질병은 새 생애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면 의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가 요망될 것이다." (6 증언, 96)

19. 침례식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침례는 맑은 호수나 흐르는 시냇물에서 베풀도록 하라. 그리고 침례식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나타내야 할 중요성과 엄숙함을 다 나타내도록 하라. 이런 예식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언제나 참석한다.

침례식을 집례하는 자는 그 예식이,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하고 거룩한 감화를 주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예식은 향상시키는 감화를

끼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어떤 예식도 평범하거나 천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평범한 수준에 놓여서도 안 된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들에 대하여 더욱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관련된 집회들을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교육시키며 훈련시키고 있다. 영생을 위하여 영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작은 활동이 교회를 향상시키고 성화시키는 엄청난 결과가 된다.

모든 교회는 침례 후보자들을 위하여 침례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것을 쓸데없는 자금의 지출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이다." (6 증언, 97-98)

20. 침례식을 마친 후에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서약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하게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과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연합된다. 이 때부터, 신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진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 그는 모든 세속적인 대상들을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이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더이상 부주의하고 냉담한 생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생애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재능을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인식을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받은 모든 은사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6 증언, 98-99)

기억할 말씀: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만일 그대가 저들의 도움을 주장하면, 모든 위급한 시기에 이러한 능력이 도울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이다." (6 증언, 99)

연구할 과제

1.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가 죄를 씻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고백인 의식에 순복하여야 할 것인가?" (소망, 1권 129-131)
2. 침례의 실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소망, 1권 234-235)
3. 침례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 이외의 어떤 진리의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가? (소망, 1권 122; 6 증언, 462)
4.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먼저 따라야 하는가? 침례인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인가? (6 증언, 91)
5. 물의 침례가 선행되는가 아니면 성령의 침례가 선행되는가? (마 3:15-16; 행 10:44-48, 19:5, 6)
6. 예배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재침례를 받았는가? (행적, 280)
7. 참다운 회심과 침례가 있은 후에 얼마나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행적, 466)

제57과 성만찬 예식

성경절 연구: 요 13:1-17; 마 26:26-30

요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거국적인 축제를 대신하여 발을 씻는 의식과 성만찬 예식의 기념인 의식을 제정하심으로써 모든 나라에 있는 당신의 추종자들이 각 시대를 통하여 이 의식들을 거행케 하기 위함이었다." (전도, 270)

예언의 신 연구

봉사하는 의식(섬기는 예식)

1. 다락방에서의 의견 차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 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이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 곳에 있어 발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 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데 처하여 겸손 하기를 거절하였다." (소망, 644)

2. 그(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일어서셨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하겠는가? 어떻게 그분은 그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 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분은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분은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 동안 기다리셨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소망, 644)

3. 유다

"유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시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사랑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순간동안 사라졌던 옛 감정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진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세속적 영광과 현세적 왕국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그가 생각한 바와 같이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보자 그는 그리스도와의 의리를 끊으려는 그의 의도를 굳게 하였으며 속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다." (소망, 645)

4. 베드로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베드로는 이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욕에 대하여 분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큰 소리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소망, 645-646)

5. 겸손 예식의 의미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 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離間)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그 때 그들이 가졌던 정신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준비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 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소망, 646)

6. 우리들 역시 정결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와야함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렵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소망, 646-649)

7.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소망, 649)

8. 이기심 없는 봉사의 완전한 모본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

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그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을 팔 자의 발을 씻기셨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 5:45).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소망, 649)

9. 겸손의 위대함

"예수께서는 여러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였을 때에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 (마 20:26) 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함에서 찾을 수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지 친절한 행동만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 여행에서 더러워진 먼지를 없애려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다. 우리 주님의 그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다.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하였다." (소망, 649-650)

10. 거룩한 예식을 위한 준비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 의식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아래와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性癖)이 있어서 이것들은 때때로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한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

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거룩한 순찰자가 이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흘러내려온 사상의 조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 곳에 계신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저희 주님의 본을 따르려는 감각을 활발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에 사상과 사상은 연결되며 일련(一連)의 추억들, 하나님의 크신 인자(仁慈)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이 떠오른다.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 뿌리들이 나타난다.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대한 일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 우리들의 사상은 자기 도취가 아니요, 엄격한 자책과 겸손이다.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 버린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제거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끈다." (소망, 650-651)

주의 만찬 예식

11. 거룩한 봉사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유월절 만찬을 차려 놓은 식탁에 계셨다. 유월절 절기에 쓰던 누룩 없는 떡이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었다.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포도즙을 흠없는 희생물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셨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로 부패되지 않은 것만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벧전 1:19)을 대표할 수 있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망, 653)

12.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곳에 앉아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꾀하고 있었으며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의 성질을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요 13:11)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거짓 제자에게 그의 은밀한 목적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식탁에 자리잡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재난을 예고하는 구름이 저희 모두를 덮고 있었다. 제자들이 잠잠히 먹고 있을 때에 예

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자 놀라움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어떻게 저희 가운데 누가 감히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하여 팔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누가 이런 구상을 마음에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자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들,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처럼 큰 관심을 나타내신 자들인 그 사랑하는 열 두 제자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와 낙담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라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극히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례로 '주여 내니이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유다는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싸여 있던 요한이 마침내 '주여 누구오니이까' 하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은 '주여 내니이까' 하고 물으면서 피차에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다의 침묵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질문들로 혼란하고 놀람을 표현하는 가운데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감시를 피하려고 유다는 저들처럼 '랍비여 내니이까?' 고 물었다. 예수께서 엄숙히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다." (소망, 653-654)

13.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유혹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가 두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하였다. 완강한 교만으로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죄가 탄로나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더욱 결심을 굳게 할 뿐이었다. 그는 성만찬에서 나와 배반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갔다.

유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고로 그분은 자기가 메시야라는 최고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그에게 닥쳐올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잠잠히 계셨다면 저희 주께서는 거룩한 선견지명이 없으시고 불시에 습격을 받아 잔인한 폭도들의 손에 팔리웠다고 제자들은 생각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열둘을 택하였지만 그 중의 하나는 마귀라는 것을 일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의 배반을 주님께서 훤히 알고 계셨음을 보여 준,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참된 주종자들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이었다. 유다가 무서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반역자에게 선고하신 재난을 기억할 것이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반역자로 알려진 그

에게서 당신의 봉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하신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한층 더 그분이 식탁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요 13:11, 18)고 선언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배반자는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구주께서는 증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이 모본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유혹의 희생이 되게 하며 혹은 그를 사단의 전쟁 마당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열 둘 중 하나를 제하고는 모두 회개하였다."(소망, 655-656)

14. 성만찬 예식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하신다. 공개된 죄로 인해 죄지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신다(고전 5:11). 그러나 이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경우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누가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는가? 누가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낼 수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까닭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전 11:27, 28, 29)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이 의식을 거행하려고 모일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합께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 흑암의 왕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그 곳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중드는 까닭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역시 참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문객들은 이런 때에는 언제든지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그 곳에도 참석한다. 인간 이상의 존재들의 안목이 그 장면을 보았다."(소망, 656)

15.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들을 섭기시기 위해 거기 계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 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 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汚點)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합당치 못한 어떤 사람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라도 참석을 거부하지 말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참석하므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마고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의식들에서 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 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마땅할 것이다." (소망, 656)

16. 새 언약과 주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批准)될 것이었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었다." (소망, 656-659)

17. 슬퍼하는 시간이 아님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향상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내지 말 것이다. 준비적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요 14:27)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소망, 659)

18. 성만찬 예식의 의의(뜻)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 곧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 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소망, 659)

19. 우리의 희망의 중심(근원)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소망, 659-660)

20. 이 예식들의 목적과 중요성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리키는 이 예식들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도 많다. 이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바 되었다. 우리들의 지각이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리신 바 되셨으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 15). 우리는 죽어가는 구주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 보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3-55)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도 참되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취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욱 그러한가!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 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 6:54, 56, 57) 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예식은 신자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는 산 연결을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소망, 660-661)

기억할 말씀: "구세주의 비길데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성화될 것이다." (소망, 3권 148)

연구할 과제

1. 엘렌 화잇의 계시에서 발을 씻는 예식에 대한 어떤 말씀을 언급하였는가? (초기, 16)
2.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발을 씻는 예식을 몇번이나 강조하여 명령하셨는가? (요 13:14, 15, 17)
3. 요한과 유다는 다락방에서 어떻게 앉아 있었는가? (소망, 3권 123)
4. 어찌하여 이 예식이 유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는가? (소망, 3권 130)
5. 유다와 요한의 생애를 비교해 보라. (행적, 548)
6.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을 이행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계셨는가? (소망, 3권 136-137)
7. 발효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소망, 3권 130)
8. 어떻게 함으로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넘겨 버렸는가? (소망, 3권 140)
9. 우리가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음으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소망, 3권 148)
10. 어떤 국면에서 유월절과 주의 만찬과는 서로 동일한 점이 있는가? (부조, 하권 194-195)

제58과 안식일 학교 – 연구(공부)하는 교회

성경절 연구: 요 21:15-17

요점: "안식일 학교 사업의 목적은 영혼들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업하는 질서가 흠이 없고 있어야 할 설비가 다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 학교는 실패인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의 감화 아래서 점점 감수성이 약하게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안교, 52)

예언의 신 연구

성경 연구를 위한 학교

1. 안식일 학교 내에 있는 선교 지역

"안식일학교 사업은 중대한 사업이므로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식일학교 사업이 흥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안식일학교는 사실상 성경 연구회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학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신성한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성취하여 온 것보다 더욱 많은 일을 이룩할 수가 있다. 안식일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때에 그것은 놀랄 만한 힘을 가지게 되므로 위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1889년 현재) 안식일학교는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상태, 또 되어야만 하는 본연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안식일학교 사업에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교회를 향상시키고 확장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교회의 유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안식일 학교에는 가장 귀중한 선교지가 있다. 그래서, 만일 오늘날 어떤 좋은 전조(前兆)들이 보인다면, 그것들은 다만 앞으로 안식일학교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징후나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안교, 9)

2.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들과 함께 기도함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할 교육사업이 있다. 교사들은 젊은이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책임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야 한다. 젊은이들로 성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사들은 모든 영향력을 다하여야만 한다. 젊은이들 스스로가 지금껏 나누어 받고만 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열성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애써 일하라." (안교, 12)

3. 게으름에 대한 어리석은 핑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도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들이 외모를

단장하고 주름을 잡고 장식거리를 달며 쓸데없는 바느질로 치장할 시간을 낸다. 필요도 없는 장식품이 그 어머니들 자신의 옷과 그 자녀들의 옷에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내적(內的) 장식과 영혼의 교양이 외모의 장식보다 못한 것처럼 등한시되고 있다. 어머니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풍습이나 유행을 따르는 데 굶주려 있다." (안교, 20)

4. 교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함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 사업의 어느 분야에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대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도 받은 것이다. 그대들이 만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그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대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철저히 알아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안식일 학교에서 그대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가지 문제를 제시 한다면, 그대가 가진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여 줌으로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대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 주시는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비교하여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대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여 의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안교, 31)

5. 젊은이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함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과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기독교 교계에 많아질 이단과 신화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을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라. 우리의 사업은 심판의 시험에 능히 설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사회에 들어와 있는 악을 대면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이 얻은 모든 지식과 영향력을 다 사용하여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조류를 막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오류와 비성서적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은 전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요구를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부정한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젊은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성경에서 비쳐 나오는 빛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있다." (안교, 35-36)

6. 기도하는 맘으로 성경을 연구함

"학식이 많다는 사람들이 하나의 신비라고 단정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넘겨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에게는 안위와 교훈으로 가득 차있는 것들이다. 허다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들이 실천하고 싶지 않은 진리들에 대하여 스스로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성경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탐구하는 데 사용되는 지적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의 단순성, 곧 의에 대한 진지한 열망에 좌우되는 것이다.

결코 기도없이 성경을 연구하여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사물들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시며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는 일을 방지하여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 경고에서 권고를 받으며, 그 약속에서 활기와 힘을 얻도록 하여 주는 것이 하늘 천사들의 직분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호소, 곧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한 말씀을 우리

자신의 호소가 되게 하여야 하겠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한 결과로 시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쉽사리 기억하여 그 성경 무기로써 사단에게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혹들이 흔히 견디기 어려운 것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물들을 즐겨 배우려는 사람들 주위에 둘러서 있다. 그리하여, 크게 어려운 때가 생기면 필요한 진리, 바로 그것을 그들의 기억에 불러일으켜 되살아나도록 하여 준다." (안교, 38-39)

7. 안식일 준수를 가르침

"부모들은 성스런 안식일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가족과 함께 철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해가 뜰 때, 다같이 일어나 안식일학교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급하게 서둘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전날에 적절한 준비가 있었다면, 한주일 동안 공부한 교과를 복습할 시간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나 자녀 모두 교과를 잘 배웠다는 자신을 가지고 안식일 학교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안교, 54)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

8. 책임이 부여되었음

"우리는 안식일학교 사업이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슨 증거로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 열매로 판정될 것이다. 그것은 안식일학교 학생들의 성품과 행실에 의하여 평가될 것이다. 우리 안식일학교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에게 책임이 주어져서 그들로 재능을 개발시키고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먼저 하나님께 그 자신을 바치고 그 다음, 초년기의 경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일이야말로 청소년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을 계획하는 방법과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교제하도록 하며, 어리석은 담화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힘찬 동역자가 되어 아직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라." (안교, 62)

9. 반원들을 위한 개인적인 사업

"우리 교사들은 회개한 남녀, 곧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어린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때까지는 조금도 쉬지 아니할 그러한 남녀들이 되어야만 한다. 누가 우리 안식일학교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열렬한 일꾼들이 될 것인가? 누가 청년들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내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바치도록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사업의 방대함을 보는 한편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신적 번민을 금할 수 없으며, '누가 이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반드시 셈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서 영혼들을 지킬 것인가?' 하고 부르짖고 싶어진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가져야 한다. 대표자들은 고르고 고른 말을 쓰고, 그들의 언사는 은혜로 부드럽게 하며,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찰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진실하고도 열렬하며 끈기가 있을 것이다. 사랑스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해 일하여야 한

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란 무슨 기쁨인가? 이 기쁨이란 그들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안교, 74-75)

10. 가정들의 방문

"안식일학교 사업 각 부서에서 일하는 교사와 직원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대들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대들이 만일 하나님과의 산 교제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열렬한 기도로써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그대들은 하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예복을 입듯이 반드시 겸손으로 옷입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심정과 진리와 의에 대하여 고상한 애정을 가진 겸손한 일꾼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러한 일꾼이라면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 그들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사랑에 찬 동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물들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경험에 관하여 그들과 서로 이야기함으로 그들의 참된 상태를 알게 될 것이며, 그대의 믿음의 팔로 그들을 안아 아버지의 보좌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안교, 75-76)

교사와 그의 일(사명)

11. 교사의 선택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교훈이 피상적인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표준을 높이 올리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앙적 경험에 있어서 커다란 결함이 보인 청년 남녀들을 일꾼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그대들의 안식일학교에 더 나쁜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 그대들의 안식일학교에서 표준을 낮추지 말라. 그대의 어린이들은 교사로서의 모본과 감화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그러한 교사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특징지어 주는 미덕과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숭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 혼란되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게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 도덕적 가치가 없고, 그 과거 생애가 양심과 성실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남녀들을 말로나 글로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들은 예리하고 기지에 넘치며 총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성실성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감화력은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안교, 89-90)

12. 복장과 행실

"안식일학교 교사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견실한 생애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지 아니한 사람들을 안식일학교 교사가 되도록 초청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근본 원칙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개인적 경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의 가르침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안식일학교 반을 맡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모순이다. 그러나, 그

가 섬긴다고 공언하는 구주를 부인하는 의복을 입고 그런 행실을 하는 교사의 감화력 아래 반을 두게 하도록 용납함은 더욱 나쁜 일이다." (안교, 93-94)

13. 경건하면서도 쾌활하게

"교사들은 경건을 유지하면서도 또 쾌활함을 지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솔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 하나님께 속한 깊은 사물들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꾸미는 태도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반 학생들이 종교란 하나의 실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이것은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라. 종교란 냉랭하고 무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영광이 내재하는 증거로서, 얼굴에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을 발하도록 하자." (안교, 98)

14. 반에서의 논쟁

"안식일학교 교과는 마음과 정신의 밀실을 비출 수 있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교사들은 성령의 감화 아래 모든 이기심을 없애고, 성급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분별없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인간의 노력과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학교 사업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학교를 논쟁의 장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식일학교는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의견을 나타내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모두 안식일학교에서 쫓아 버리고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상이 새로운 것이어서 안식일학교 학생들에게 의문시되더라도, 투쟁적인 정신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토론과 논쟁이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안교, 117)

15. 과정 공부책을 읽어나감

"안식일학교 교과는 마음과 정신의 밀실을 비출 수 있도록 가르쳐져야 한다.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교사들은 성령의 감화 아래 모든 이기심을 없애고, 성급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분별없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인간의 노력과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학교 사업의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학교를 논쟁의 장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식일학교는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의견을 나타내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모두 안식일학교에서 쫓아 버리고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상이 새로운 것이어서 안식일학교 학생들에게 의문시되더라도, 투쟁적인 정신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토론과 논쟁이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안교, 117)

16. 겉만 훑어 나감

"교사들은 교과에 실린 고정된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과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기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교사는 반 학생들 앞에 나서기 전에 그 날 그 경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 마음 속에 자기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 놓도록 해야 한다. 반 학생들 앞에서 교과를 외운다는 것과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단순한 말을 사용하고 교과 내용을 평이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학생들이 그대들의 말을 이해하는지 확인하여 보라. 만일, 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들의 수고란 헛된 것이다. 겉만 훑어 가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가라. 성경은 생활의 법칙이요 안내자이다. 건전한 교리를 그대들이 맡은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 실제적으로 접촉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건전한 행위가 그대들이 노력한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교, 118-119)

17. 반생이 모두 회개하여야 함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더 사모하고 자신은 더욱 덜 생각해야 한다. 영혼들을 위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얻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반생들을 만나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간구는 짧고도 간단하나 진지하게 하라. 그대들은 말을 적게 하고 잘 선택해서 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대들의 입술과 모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들 마음 깊이 뿌리 박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유혹의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라. 우리는 반 전체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유용한 교인이 되기까지 자라기를 기원한다." (안교, 125)

안식일 학교 운영상의 지도 원리

18.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지도록 기회를 줌

"학교를 언제나 한 사람의 운영에 맡겨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 사람은 안식일학교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이상에 맞는 틀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는 참신한 사상을 나누어 영적인 생활 면에서도 학교를 진전시킬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봉사해 온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지만 교사나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특혜보다는 학교 자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교가 변화를 가짐으로써, 또 영혼을 위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일꾼을 대치함으로써 학교에 유익함이 명백하거든 지체없이 변경하라. 자기를 높이려는 야심이 없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이런 처사 때문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될는지 모르지만 안식일학교 학생들이 진보하고 향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나이많고 그 사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아직 그 사업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지 않으므로, 맡은 과업에 충실했던 연장자의 모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리해서, 젊은이들은 좋은 사업에 필수적인 성공을 얻기 위하여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 (안교, 160-161)

19. 안식일 학교 교장에게 주는 권면

"교사나 학생들 앞에서 교장은 결코 야단을 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대들이 학교에 좋은 감화를 주고 싶거든, 채찍을 버리고 하늘에서 오는 영감적인 감화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대들과 같이 할 것이다. 학교를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규칙을 세움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가능한한 안식일학교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라. 몇몇 학교에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정신이 있다. 형식과 규칙이 중대시 되고 있으며, 더욱 더 중요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등한시되고 있다. 모든 사람으로 유쾌하게 하라. 만일, 몇 사람이 영혼을 휩싸고 있는 근심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름을 햇볕에 내놓은 다음 안식일학교에 들어오도록 하라. 언제나 용기가 꺾일 말만 하고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꾸중만 하는 어머니는 어린이들을 적절히 다룰 수 없다. 교장, 교사들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이런 면에서 자신의 결점을 반성한다면, 그 점을 들어 말함으로써 그대들의 감화력을 감소시키지 말라. 오히려 조용한 방법으로 그대들의 감화력이 악을 시정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라. 어떻게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계획하고 연구하라." (안교, 168-169)

20. 널리 펼치고 계신 그리스도의 팔

"신령하신 교사께서는 고집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발휘하신다. 그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른다. 그들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노력은 다함이 없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팔을 크게 벌리사 잘못을 저지른 사람, 반항적인 사람, 심지어 배교한 사람들까지도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은 거친 대우를 받고 있는 작은 어린이들의 무력함을 동정하신다. 인간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그분의 귀에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귀하지만 거칠고 무뚝뚝하며 고집센 성격의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끌어 당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인과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제일 쉽게 유혹을 받으며 잘못을 가장 쉽게 범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특별한 대상이다." (안교, 178-179)

기억할 말씀: "끊임없이 제 지식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대신에 학생에게서부터 그 능력과 힘을 끄집어 내기에 힘쓰는 사람이 현명한 교육자이다." (안교, 146)

연구할 과제

1.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성경 연구에 대한 취미가 없는가? (안교, 19)
2. 교과 공부를 매일 연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안교, 36; 45)
3. 몇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안교, 67)
4. 어린이들에게 신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안교, 69)
5. 이상적인 안식일 학교 교사에 대해서 말해 보라. (안교, 80-81)
6. 안식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환대하고, 생일 선물을 주고, 상품을 주는 일에 대해서 어떤 영감의 말씀이 있는가? (안교, 87, 126, 161)
7. 밀랍(초)에 뚜렷한 도장을 찍는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안교, 88)
8. 조직적으로 매주에 드리는 연금에 대해 의논해 보라. (안교, 115)
9. 안식일 학교에 지각하는 원인에 대해 말해 보고, 시간을 엄수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해 보라. (안교, 149-150)

제59과 기도 집회 – 기도하는 교회

성경절 연구: 마 7:7-11

요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 자신들을 두게 될 것이다." (정로, 225)

예언의 신 연구

관심을 끄는 기도 집회

1.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감사하는 집회

"그리고 기도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해야 할 뿐 아니라 매주 한 번씩 기도 모임이 열려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많은 자비하신 일들이 숙고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불평, 의심 그리고 불신에 대하여 마음껏 말하듯이, 우리가 받은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할진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낙담과 우울함을 끼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길에서 항상 좌절거리들만 보고 시련과 고초에 대하여 말하는 불평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비추어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갈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게 될 것이다." (4 증언, 461)

2. 기도 집회의 목적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함으로 피차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앎으로 힘과 빛과 및 용기를 모으기 위하여 모인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원기의 회복과 활력을 받는다. 이러한 모임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영적 사물에 대한 취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흥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2 증언, 578)

3. 재미있고, 교훈적이며, 매력적인 집회

"하늘의 교사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경험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앙 생애의 소유자들이 함께 모여,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경험을 나눈다. 향상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생한 경험,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가져야 하며 가지게 될 것이다. 산 경험은 매일의 시련, 투쟁과 유혹 및 강한 노력과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경험의 단순한

관계는 빛과 힘 그리고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남을 전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준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거룩한 하늘 사물에 애정을 가진 자들에게 흥미롭고도 교훈적이어야 한다." (2 증언, 579)

"기도회는 개최되는 것 중에 가장 흥미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종 형편없이 운영된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집회에는 참석하는데 기도회는 소홀히 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모임이 흥미있고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에 주려 있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기도회에서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 (4 증언, 70)

4. 열렬하고 효과있는 기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당신의 요청을 아뢰기 위하여 한적한 수풀이나 산을 찾으셨다. 하루의 일과나 수고가 끝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찾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 우리는 기도를 억제하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와 경성함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성령과 깨달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더욱 적다. 열렬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항상 적절한 기도이며 결코 지루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기도는 헌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원기를 회복시킨다." (2 증언, 582)

5. 일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교회들의 감독자들은 젊은 남녀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재능들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킬 계획들을 고안해야 한다. 나이든 교인들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진지하고 동정적인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목사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선교 사업에 협력하게 하는 계획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긴 설교를 함으로 그들의 관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생각지 말 것이다. 산 관심이 일어나도록 방법들을 계획하라. 모든 사람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매주 선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여 그들이 경험한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공한 것 등을 말하게 하라. 그러한 보고들이 헌신한 일꾼들에 의하여 전해질 때, 선교회는 지루하거나 귀찮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관심을 충만히 갖게 될 것이고, 출석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6 증언, 435-436)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교회들이 깨도록 하라. 교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떠맡고, 그를 부르신 분의 이름을 옹호하도록 하라. 건전한 믿음과 열렬한 경건이 게으름과 불신을 대신하게 하라. 그리스도 위에 신앙이 놓여질 때에 진리는 영혼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며 예배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단조롭고 생기 없는 기도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얻게 될 것이며 그대가 공언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할 때에 매일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죄인들은 회심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감동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던 어떤 이들이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고 들었노라'고 말한 것처럼 말할 것이다." (6 증언, 437)

기도 집회가 어떻게 하여 손상을 입는가?

6. 세속주의가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음

"기관들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특권을 너무도 소홀히 해 왔다. 이런 특권들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결되며, 흑암의 구름이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된다.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기관들의 각 부서는 하늘 천

사들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께서 영혼의 성전에서 세속성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의 더러움을 씻어 내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리함을 거두어들이려고 열망하면서 기도 모임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선 아래 직접 두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며, 이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될 것이다." (4 증언, 460-461)

7.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태도, 설교를 하는 듯한 태도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임을 진정으로 이해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주님께 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든 기도는 소리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이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러한 기도를 듣도록 강요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인하여 진력을 내게 된다." (2 증언, 581-582)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그것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열렬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한 새 마음의 욕망이어야 한다. 탄원자가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때 자아는 잊어버린바 된다. 그는 인간적인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영혼이 갈망하는 축복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5 증언, 201)

8. 길고 조용한 기도

"사람들은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고 지루하고 퇴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한 주일 동안 게을리 한 의무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며, 그들의 소홀함을 보상하고 가책을 느끼는 양심을 진정시키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되풀이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원하여 기도한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기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들과 같이 영적인 흑암의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도와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올바로 적용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어서 더욱 현명해질 것이다." (2 증언, 582)

기도 집회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9. 기도할 때에 분명한 말로 기도함으로

"말의 은사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았을 때 나의 마음은 매우 아팠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나 집회에서 간증할 때 맑고 분명한 음성이 얼마나 긴요한가! 가족제단에서 얼굴을 푹 수그리고 낮고 가느다란 음성으로 기도하므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실하였는가! 그러나 가족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도할 때 간신히 들릴 정도로 말하던 사람들이 분명한 말을 하는 것은 이상스런 일이다. 그런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합당할는지 모르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들을 수 없다면 아멘할 수 없으므로 가족 예배나 공중 예배에서는 덕이 되지 못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대화시에는 잘 들리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간증이나 기도를 할 때에 왜 그런 음성으로 말하지 못하는가?" (부모, 241)

10. 바울에 의해서 원칙이 제시되었음

"모든 종교적 의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전 14:13-19).

방언의 은사에 관하여 바울이 제시한 원칙은 기도와 사교적 집회에서 음성을 사용하는 문제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들은 이런 면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공중기도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부모, 244-245)

11. 그대의 눈을 들어 하늘 성소를 향하라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말할 때 왜 분명한 음성으로 말하지 못하며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또는 자신의 특색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 못하는가? 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왜 분노의 정신이나 의혹이 없는 겸손과 신앙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깨끗한 손을 쳐들고 기도할 수 없단 말인가? 마치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푹 수그리고 그대들의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 그대들의 기도를 당신 자신의 공로와 흠없는 의와 혼합하여 마치 향기를 풍기는 향처럼 하늘 아버지에게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대들의 눈을 높이 들라." (부모, 241)

12.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라

"그대들은 와서 간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도록 초청을 받았으며 그대들의 초청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7, 8).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의 요청을 기꺼이 허락하는 아버지께 대한 비유로써 하나님께서 기꺼이 복을 내리시는 점을 설명하셨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 말씀하셨다(눅 11:11-13)." (부모, 241-242)

13.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 생애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막 1:35; 눅 5:15, 16, 6:12).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신 생애를 하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빈번한 왕래와 날마다 자기를 따르던 군중에게서 물러나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쉬임 없으신 활동과 사람의 곤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셔야 하였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소망, 362-363)

14.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여야 함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시 107:8) 그를 더욱 찬송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전연 구하는 것과 받는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지!" (정로, 102-103)

기도 집회의 유익한 점

15.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곳으로 가라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정로, 98)

16. 그대가 하늘의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며 살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로, 99)

17.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사업에 참예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녀를 위하여 그처럼 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당신을 각박하고 까다로운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는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에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시므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정로, 103)

18. 가나안 방언을 배우라

"우리는 십자가 주위에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명상의 주제, 대화의 주제,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쁜 감정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생생히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모든 것을 기꺼이 내맡기려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표현할 목적을 위하여 이런 특별한 방법들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십자가의 신비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4 증언, 462)

19. 기도는 우주의 보좌에까지 상달함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 없는 흠 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할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우편에 있노라'(시 16:8 참고)고 말씀하신다." (복음, 258)

20.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

"우리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 삼아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 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바 된다.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필요는 경우를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의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의 유익을 위해 응답된다." (복음, 258)

기억할 말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복음, 257)

연구할 과제

1. 때때로 기도 집회가 싫증나고 지루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2 증언, 577)
2. 기도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뿐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 증언, 577)
3. "기도 집회를 망치는 자(죽이는 자)"로 어떤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는가? (2 증언, 578)
4. 어떻게 하여 옳바른 기도를 그릇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가? (1 증언, 145)
5.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들의 공부와 종교적 의무 중에 어떤 것을 첫째 의무로 삼아야 하는가? (4 증언, 424)
6. 어떻게 하여 때때로 불경건한 일들이 기도 집회에 나타나는가? (복음, 177)
7.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이유를 들어 보라. (실물, 136-137)
8. 믿음과 추측(가정)의 차이를 말해 보라. (소망, 1권 156)
9. 교인들이 목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말해 보라. (5 증언, 162)
10. 예수께서 어떤 경우에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셨는가? (2 증언, 202)

제60과 야영회 -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성경절 연구: 레 23:33-33

요점: "예수를 찾아야(만나야)할 곳은 가정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집회(야영회)에 가라. 그렇게 되면 그대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긴아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되겠는가? … 그대의 자녀들로 이와 같은 경우(야영회)를 위해 준비시키라.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지,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도 야영장에 들어서면 거룩한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 그것은 그대 영혼에게 하늘 가는 문과 같이 될 것이다." (5 증언, 146, 165)

예언의 신 연구

준비

1. 교인들이 참석해야 함

"우리 교인들이 장막회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진리의 원수들은 많고 우리 교인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강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대들은 집회에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진리의 대열에 가담하기를 요구하신다." (6 증언, 38)

2. 사업에 지장이 있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행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그 돈을 절약하여 돈이 매우 필요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의 백성들의 대열에 속해 있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함으로써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그 집회에 힘을 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한 힘을 쓰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듣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사업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구실을 만들지 말라. 그대들은 모든 빛의 광선이 필요하다. 그대들은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대들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설명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대들은 이런 특권을 한 번이라도 놓쳐서는 안된다." (6 증언, 38-39)

3. 축복을 받기 위해 목사들을 의존해서는 안됨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장막회에 가서 그 집회에서 축복을 받고자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인간을 의지함으로써 약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들은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다른 어떤 사람을 지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그 자신 안에 생명과 뿌리를 간직할 개인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집회의 성공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사단이 그대들을 통하여 활동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의 생각을 그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고 그대들이 그의 노선에서 할 어떤 일을 맡길 것이다. 그대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대신에 널리 흩어 버릴 것이다." (6 증언, 41)

4. 단지 받기만 할 것이 아니요 나누어 주어야 함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을 지배할 때, 영혼은 믿음과 용기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분위기 곧 그것을 흡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고취시켜 주는 분위기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누어주기 위하여 장막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에 참여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아 진리로 돌아온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귀중한 축복을 받은 것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안수 목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그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채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소망과 믿음이 강화될 것이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할 하나님의 대리자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6 증언, 43-44)

5.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 실물교훈이 되어야 함

"모든 장막 집회는 단정하고, 질서정연하며 끌리는 데가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절약해야 하며, 불필요한 과시를 피해야 하며, 그 장소와 관계된 모든 것이 아담하고 단정하도록 해야 한다. 멋있는 솜씨는 사람을 끄는 큰 힘이 있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질서 정연함과 매무새를 갖추어야 한다." (6 증언, 34)

"우리는 하늘에서 온 기별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미로 나타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천막의 질서와 정돈 상태를 살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장소에 나아오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준비 상태는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의 신조와 원칙을 드러내는 예가 된다. 이 예는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주위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가족 천막들은, 단정함과 질서를 통하여 가정 생활의 단면을 보여줌으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의 버릇과 습관과 실생활에 관한 산 설교가 되어야 한다." (6 증언, 35)

집회(야영장)에서

6. 두 세력이 일하고 있음

"우리는 이와 같은 집회에 두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여호와의 군대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각 활동을 펼친다. 사단과 그의 군사도 속이고 죽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활동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마귀의 모든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1, 12). 날마다 싸움은 계속된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박한 행동과 허영은 없어지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농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것 같으면, 승리를 얻게 되고 흑암의 왕국을 떨게 할 것이다." (6 증언, 41)

7. 집회의 성공 여부

"집회의 성공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달려 있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부어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교인들이 피차 분열과 빈정대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결코 성령께서는 강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질투, 시기, 좋지 못한 추측, 험담 등은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방해한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열렬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감화력을 해치는 행동보다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는 것은 없다. 그분께서는 비평하고 용기를 꺾고 사단의 사업을 도와주는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6 증언, 41-42)

8. 품성의 변화는 세상에 주는 증거임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 해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이 결함 많은 품성에 작용하여 그 품성을 균형 되게 계발시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 (6 증언, 42-43)

9. 집회(야영회)에서 배울 것들

"목사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과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방법들이 채택되고 계획들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준들은 높여지고, 사람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들을 고수함으로 불의에서 떠나 깨끗해지는 길을 교훈 받게 될 것이다." (6 증언, 45)

"잘 경영하기만 하면 장막 집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 완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된다. 장막 집회는 노유를 막론하고 교인들이 주의 법도를 더욱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며 신자들이 타인을 돕는 일에 도움이 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장막 집회에 오는 부모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교훈과 모본으로 그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들이 자녀들을 부패시키는 세상의 감화로부터 구원하고자 애쓸 때에, 그들은 가족에서 나아지는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특히 새로 신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만일 이 일이 진행되면, 낙심한 자는 곧 자기의 상태를 잊게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해지며, 무식한 자는 유식해지며, 모든 이들이 예

수 안에 나타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나오면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분 안에서 실수 없는 조력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6 증언, 49-50)

10. 얻어야 할 세가지 교훈

"장막회에 모이는 자들은 그 집회의 목적이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영적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집회는 우리에게 결실이 없을 것이다." (6 증언, 45-46)

지도자들을 위한 지식

11. 교회에 필요되는 것

"많은 이들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마음으로 장막 집회에 온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은 불평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임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원수가 그들의 마음과 판단력을 지배하도록 한 것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 불평은 회개로 바뀌어야 하며, 불확실과 실망은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는 진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 속에서 내재하는 원칙이 되며 자아와 그 모든 까다로움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예로운 도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비열한 본성을 만족시키고 양심이 정죄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일은 슬픈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으로 처지고, 항상 안되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결코 사단을 발로 눌러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죄책감과 정죄 의식이 항상 영혼을 괴롭게 하며, 이러한 외침이 나오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랴' (롬 7:24). 죄악의 방종을 통하여, 자존심이 파괴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남들을 위한 존경심이 약화되어서, 결국은 남들도 우리처럼 불의하다는 생각에 빠지고 만다." (6 증언, 52-53)

12. 사람들로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 도와줌

"해마다 열리는 우리들의 집회에서 이것들이 백성 앞에 제시되어야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3). 표준을 높여야 하며, 설교는 가장 신령한 내용으로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약함과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마음의 순결, 순진 무구한 정신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죄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불행만을 생산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는 죄는 마음의 교만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과 사랑의 결핍이다." (6 증언, 53)

13. 진리를 솔직하게 제시함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이 도처에 있다. 굶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설교들이 교회들에서 전해진다. 이 설교들 속에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밝게 하는 빛을 만들어 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청중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 24:32). 가르침 중에서 많은 것이 죄인을 일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백성들은 명백하고 직설적

인 진리의 개진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맛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오래 지내 왔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 (6 증언, 53)

14.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를 제시하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제시하여 영혼을 녹이며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 청중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 1:29)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교훈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백성들 앞에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계속 제시하라. 무엇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는지를 보여 주라. 곧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죄는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소하지 말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짓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만 불멸이 이르러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라.

세상의 정책과 세상의 원칙에 맞춤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갔는지를 백성들에게 일깨우라. 이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다." (6 증언, 53-54)

15. 거룩한 주시자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거룩한 감찰자의 임재를 항상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대가 항상 인정해야 하는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치 온 우주가 그대 앞에서 듣는 것처럼 말하라." (6 증언, 56)

다른 특징들

16. 노래와 악기 연주

"장막 집회 동안에 노래하고 기악으로 찬양해야 한다. 고대의 악기들이 예배 시간에 사용되었다. 예배자들은 수금과 심벌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의 예배에 음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흥미를 더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찬양의 모임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순한 예배를 가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인내하심에 대해 참으로 이해하였다면, 그분의 성호에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흘러나왔다면 장막 집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우리는 영혼의 열기를 더 진작시켜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 50:23)." (6 증언, 62)

17. 부흥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장막 집회에서 부흥을 위한 노력이 너무 없다. 주님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시종일관 부흥회가 계속되어야 한다.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가장 단호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들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가 진지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주님이 곧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왕이나 통치자나, 재물이나 영향력 등도 곧 임할 심판을 막지 못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하라. 매 집회의 마지막에 결심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관심 있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믿음에 확고해지도록 하라." (6 증언, 64-65)

18. 개인들을 위해 일하라

"집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쳐 있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만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한다. 빈민 중에 정신적인 안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설교가 끝난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청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무거운 짐에 눌린 기분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오도록 초청하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영혼들과 대화를 가질 것이다.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라. 저들이 진정으로 의를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자신의 영혼 속에 믿음의 실체를 간직해야 한다. 하나님께 저들 자신을 복종시키는 법, 믿는 법, 허락들을 주장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격려의 말과 중보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6 증언, 65-66)

"주님의 종들은 설교단에서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설교를 하면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토양을 관리하지 않으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부드러워지고 굴복되지 않으면 설교의 많은 것은 상실되고 만다. 회중 가운데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관찰하고, 예배 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개인적으로 몇 마디 건넨 것이 전체 설교보다 더 유익할 경우가 잦다. 청중들에게 주제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그들의 마음에 그 문제가 분명하게 되었는지를 문의하라. 친절과 예절로 그대가 참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염려한다는 것을 보여 주라.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회심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호소할 때에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편견은 사라질 것이다." (6 증언, 68)

19.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가 꼭 있어야 함

"야영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매일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지도 하에 어린이들의 집회나 성경 유치반을 개최해야 한다. 단순한 언어로 성경과 천연계에서 취한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 유치반 방법과 천연계로부터 나온 실물 교훈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침 교과 시간 후에, 청명한 날에는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소풍을 나가, 산보중에 강둑에서나 초원에서나 잠깐 쉬면서 천연계에서 끌어낸 짧은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다. 이런 교훈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유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진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6 증언, 105)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가 제대로 주관되면 우리와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며, 이 집회에서 배운 교훈들은 가정에서 반복될 것이다.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전도가 될 것이다. 호주에서의 야영회들에서 이런 집회들이 큰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6 증언, 106)

20. 야영회에서 일한 결과

"장막 집회를 통하여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성회'라고 부르신 이 집회들을 통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신다. 이 집회를 위하여 수 천명이 나오는데 많은 이들은 무슨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여 호기심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이들이 진리의 기별을 듣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과 접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이 백성이 그 동안 잘못 전해진 내용과는 다른 사람들임을 보게 된

다. 편견, 반대, 무관심은 사라질 것이며, 솔직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그분의 대표자들을 갖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줄 상황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될 특별한 진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길에 비추인 빛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사업에 대해 더 활기를 갈구한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찾는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급하는 영혼들로부터 기도와 눈물과 질문이 하늘로 올라간다. 많은 이들이 천국 문턱에서, 안으로 들여 보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6 증언, 70-71)

기억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영장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매 천막의 질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6 증언, 35)

연구할 과제

1. 야영회에 참석하는 자들이 첫째로 해야 하는 준비는 무엇인가? (5 증언, 163)
2. 고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년에 몇 차례의 성회를 가졌는가? (6 증언, 39-40)
3.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은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인가? (2 증언, 598, 599)
4. 진리를 받아 들이는 것이 우리의 수준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1 증언, 274)
5. 초기 야영회를 준비하는 중에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가? (6 증언, 50)
6. 제시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주제들은 무엇인가? (복음, 158-159)
7. 다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복음, 313)
8.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증거하여야 하는가? (6 증언, 81)
9. 우리의 야영회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야만 하는가? (6 증언, 87)

제 9 장

나의 교회의 기본 교리

제61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절 연구: 합 2:4; 롬 4:1-8, 21-25

요점: "주님은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에게 제공하신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것은 그의 의가 되고,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3증언, 371)

예언의 신 연구

준비시키는 기별들

1.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 참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 일이 되어야 한다. 주의 축복하심을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교회 안에는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진지하고 중요한 기도에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여야 한다. 죄악이 편만한고로 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경건의 형태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외계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한다. 교회를 강하게 하고,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31)

2.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함으로 쇠약한 교회, 회개하지 않아 완미한 형편에 있는 청중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만약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했더라면 크건 작건 간에 세상 끝날까지 각성함이란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무식해서도 안된다. 그의 능력을 저항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위한

길들이 마련되면 그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늘의 창문을 닫음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단비를 오지 못하게 방해할 수 없다. 악한 사람들이나 마귀는 하나님의 방해하거나 그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좌정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방해할 수 없다. 저들이 부드럽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죄를 버리면서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주장한다면 사단이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유혹과 반대하는 영향력, 그것이 공개적이든지 비밀리에 하는 것이든지 성공리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슥 4:6) 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두렵고 엄숙한 시기에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 아 – 슬프다. 교회 안에 편만해 있는 교만심, 위선, 기만, 의복을 사랑함, 부질없는 행위들, 오락, 그리고 가장 높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로다. 이 모든 죄악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영원한 것들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32)

3. 적용되어야 할 치료제는 무엇인가?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한 기별이 임하여 왔는데, 그것은 지난해 동안 악을 위한 치료제로서 진지하게 반복하여 제시된 기별이었다. 그 치료제란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어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을 가지는 것과 연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앙을 공언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살아 있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 이와 같은 친밀한 대화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며, 그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 주신 바 된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

악의 능력(힘)이 인간의 속성과 너무나 친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그 힘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영적 힘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한다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 외의 다른 연합은 패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신도들은 그리스도를 첫째로 , 맨 나중으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최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하는데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것은 고상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합을 가지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저들의 필요로 느껴야 한다.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ㄷ. 저들 자신의 의지(뜻)을 하나님의 의지 아래 복종시켜야 한다. 내적 외적 방해물로 인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떼어 버리기 위해서도 고통스러운 노력을 해야 한다. 교만심, 이기심, 허영심, 세속주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죄악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할진데 정복되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그렇게도 힘들고, 그렇게도 잘 변하고, 요동하는 것은 저들 자신에게서 저들이 사모하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채 그리스도에게 저들 자신을 붙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33)

4. 깜짝 놀라게 하는 기별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족들은 엄숙한 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서 있는가? 우리

의 빛은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비추이고 있는가? 우리는 신도들로서 모든 빛의 근원되신 분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쇠퇴와 타락의 전조가 보이는 것을 인해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이다. 진리를 위해서 가장 진지한 헌신을 함으로 생명과 열성, 순결과 헌신을 공언해야 할 사람들에게 영적 사망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형편은 저들이 신앙을 고수하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영원한 반석되신 분에게 정박하게 해 주는 닻줄이 끊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저들은 항도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36)

5. 안전한 정박소로 돌아 가라.

"다음으로 주어진 기별은 원수가 끊어버린 닻줄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되는 기별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안전한 정박소로 우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기별이었다. 다음의 말씀을 주의 깊이 읽어 보라.

진리의 논쟁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대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대가 하는 일을 성공리에 하게 될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고(요 15:5)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대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건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분을 찾을 수 없노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하신다. 그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어서 들어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길이 간단하고 쉬운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 … 지금 당장에 그대의 마음 문을 열고 사고 파는 이들의 것이 된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들어 오시도록 초청하라. 그리고 그분께' 내가 내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대는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37)

미네아폴리스 집회(Minneapolis conference)에서 주어진 기별

6. 그 기별이 어디서 왔는가?

"그 기별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은 하나님에게서 온 기별이다. 그 기별은 거룩한 신임장을 지니고 있는데, 그 기별의 결과는 성결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신임장을 지닌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 위엄, 그리고 그의 의와 풍성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되심이 그 기별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나타나 있어 편견으로 저들의 마음을 닫아 버리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죄인들이 의로 돌이키는 것을 보아왔으며, 통회하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새롭게 부흥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44)

7. 남쪽 지역에 있는 란캐스터(South Lancaster)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남쪽에 있는 란캐스터에서 열렸던 집회에 대하여 그녀(화잇부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에 이토록 철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과분한 흥분 같은 것은 없었다. 강요하고 호소하는 일도 없었다. 앞으로 나오

라는 호소의 말씀을 준 일도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엄숙한 사실을 인정하는 인식이 있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저들의 죄악을 고백하면 저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회개하고 고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듯하였다. 금요일에 열린 집회는 5시에 시작되었는데 9시가 되기까지 끝을 내지 못하였다. … 많은 사람들이 제시된 빛을 연구하고 율법의 빛에 의해 볼 때에 저들이 범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간증들을 하였다. 저들은 저들 자신들의 의를 믿어 왔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할 때에 저들의 의는 더러운 헝겊처럼 보였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범법자들은 아니었으나, 저들 자신들이 저들의 마음이 부패되었으며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저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셔야 할 자리에 저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을 두는 일들을 하였다. 저들이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으나, 저들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야 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을 우리의 동정깊으신 구주께 내던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심을 뿌리뽑는 일이며, 자신을 못박는 일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46)

8. 저들이 어떠한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리와 의의 증거를 보내셨다. 저들은 예수를 높이고 그의 의를 높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라고 기별과 함께 보낸 사람들은 단지 인간에 불과하나, 저들이 증거하는 기별의 성격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경고의 말씀에서 그대는 돌아서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빛을 삼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말할 사람, 아끼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칠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그의 일을 할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이켰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일깨워 회개시키기 위한 기별을 보내시고, 저들이 첫째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려 하였으나 그의 기별이 어떻게 받아 들여진 바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기별과 그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을 경멸하고 견책하였다. 영성은 사라졌고 겸손과 어린이다운 단순함은 어디로 가버렸으며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믿음의 공언이 사랑과 헌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 49)

9. 의견 다툼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대한 기별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의견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였다. 이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만약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일하였더라면, 저들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그분께서 보내 주신 기별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다. 우리 젊은 형제들은 나이 든 형제들을 바라본다. 그러나 저들이 이 기별을 받아 들이지 않고 저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 생각지 않고 그 기별을 대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 무식한 자들에게 그 빛을 거절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저들 자

신을 빛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빛을 거절하는데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는데 그 빛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무식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 길을 올라가려고 하는 진리의 마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밀어 내리는 대신에 있는 힘을 다하여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거의 2년 동안이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진리의 빛을 받아 들이도록 강권해 왔으나, 저들이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절하여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생각에 휩싸여 있다. 저들은 구세주로 하여금 들어 오시도록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에서 돌아섰다. …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빛이 전진해 가고 있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 거짓된 빛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이 저들의 불신 때문에 그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물러 서기를 바란다.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바 된 빛으로 저들 위에 분명하게 그리고 끊이지 않는 빛으로 비추이도록 하라." (그리스도 우리의 의 50-51)

10. 영적 소경됨에 대해 하늘에 있는 슬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 소경됨에 대하여 하늘에 슬픔이 있다. … 주께서 기별자들을 일으키고 그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 58:1)고 하셨다. 아무도 그 자신을 하늘에서 온 빛과 백성들 사이에 놓고 방해하는 위험을 자처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별은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그 기별을 증거할 목소리가 없다고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목사들에게 명하노니 주님을 진지하게 찾고 교만심을 버리고, 가장 높고자 하는 투쟁일랑 그만 집어 치우고, 하나님 앞에 자아를 겸비하게 하기를 바란다. 믿음을 지녀야 할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있고, 교회를 이토록 연약하게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냉정함 때문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52)

11. 사단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깨어질 수 있을까?

"인류와 하나님의 원수는 이 진리(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분명히 제시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는 이 진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받아 들여진 바 되면 그의 능력이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마음들을 조절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경험 속에 의심과 불신과 흑암이 끼도록만 한다면 그의 유혹으로써 저들을 이길 수 있다." -RH. Sept. 3, 1889- (그리스도 우리의 의 54)

12.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입장은 재미있으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거절하는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불신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에 사단을 향한 조종(죽음의 종소리)이 울렸다. 진리와의의 원수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상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울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사단이 사람들을 저들 자신들의 의와 공로와 행함에 대해 높이 평가하도록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유혹으로써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저들을 그

의 희생물과 전승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높이라. 그대의 문설주에 갈바리의 어린 양이 흘린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54)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한 새로운 시대

13. 파란 많은 위험한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파란 많은 위험한 시기이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은 우리를 두렵게 둘러 싸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게 될 사건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59)

14. "큰 외침"이 시작됨

"시험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위에 놓여 있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냄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빛을 비추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의 영광이 지구 전체에 환하기까지 가득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60)

15. 환란의 때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대가 환란의 때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한 적합한 선물 즉, 회개한 죄인에게 입혀 주시는 의에 대하여 알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60)

16. 그 기별이 전파되어야 함

"초기 제자들의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와 같이 이 땅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저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회심하는 일들을 할 것인데, 이 기별이 능력을 가지고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죄인들의 마음에 매력을 주는 주제는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다. 갈바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굶주린 군중들에게 그분을 제시하라. 그분의 사랑의 빛은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범죄하는 데서 순종과 참된 성결에 이르도록 저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들의 양심이 일깨워져 다른 것으로서는 도무지 알게 할 수 없는 죄의 가증함을 알게 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충성되시며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율법에 연관시켜 제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인들 앞에 거룩하신 희생물로서 높혀지지 않았다. 희생물로서, 대속물로서 하신 그의 일이 단지 차겁게 또는 별 생각없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것이 죄인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써 그의 풍성하심 그대로를 죄인들이 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인해서 성령을 통하여 굳어진 마음에 확신과 회심을 가져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60)

17. 설교할 때에 효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과 효능은 바로 이 근원(성령)에서 오는 것이다. 성령은 위안하시는 자로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타나신다.

이 지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부

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있었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나타내 보이심)는 그분의 위엄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저들을 믿음으로 저들의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른비가 내렸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땅은 그의 의의 영광의 빛줄기로 말미암아 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61)

넓은(다양한) 의미에 있어서의 셋째 천사의 기별

18.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출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어 왔다. 나는 이 질물들에 대하여 '넓은 의미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64)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칭의)는 무엇인가? 티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놓는 일로서,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을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104)

19. 가장 위대한(놀라운) 진리가 무시되고 있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칭의)에 관한 교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

백명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주제에 대한 성경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진리는 현세와 내세의 복락을 위해 꼭 필요되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난해하고 거룩하지 못한 감화력이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들끼리 서로 얽어매고, 하늘에 계시는 저들의 동무(친구)를 소홀히 하도록 이끌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다. 저들은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지나간 과거를 되찾기 위해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스도 우리의 의 87)

20.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이 새로운 그릇이 된다면, 그분께서는 새로운 포도즙으로 그 그릇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들을 추가해서 주실 것이요, 옛 진리들이 새로이 회복될 것이요, 진리를 형성하는 본체에 다시 위치될 것이며, 일꾼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들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오류라고 하는 쓰레기 밑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야 한다. 받은 모든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하나의 중요한 주제 즉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주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94)

기억할 말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는 입혀 주신 바된다. 우리가 성결(성화)케 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바 된다. 전자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여권(자격)이요, 후자는 우리가 하늘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98)

연구할 과제

1. 엘렌 지 화잇에 의해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 회의가 있기 여러 해 전에 가르쳐진 바 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에 대해 살펴 보라.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공과들이 1875년에 출판되었다.
2. 다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살펴 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 우리가 영원의 문어구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5 증언, 16-18)-1888년에 출판됨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별이 1888년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임하여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23, 24)
   "하나님에게서 떠남"이라고 하는 기사가 자서전 326, 327 페이지에 언급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6 증언, 450에 기록되었으며 1890년에 출판됨
3. 정로의 계단에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기사를 찾아 보라.(정로, 159, 161)

제62과 신앙의 자유

성경절 연구: 막 12:17; 행 5:29; 마 5:10-12

요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를 거룩한 임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그 법의 신성한 의무에 순종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모든 인간 법률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교회나 정부가 명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제쳐져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주권자의 왕관보다 더 높혀 져야만 한다." (6 증언, 402)

예언의 신 연구

세상(정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

1. 정부와 그 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어떤 무리의 형제들이 정부와 법률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많은 것들을 말하고 저술하였다. 스스로를 오해받는 입장에 두는 것은 실수이다. 위정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흠을 잡는 일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개인이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니다.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공격적이어야 함에는 틀린 바 없으나 우리의 무기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그 큰 날에 한 백성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나 반대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출판물과 말에 있어서 문맥과 상관없이 떼어 내면 법률과 질서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될 표현들을 삭제해야 한다. 모든 것은 신중히 하여 우리가 나라와 그 법률에 불충성할 것을 격려한다는 느낌을 제공할 어떤 내용도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권세들을 무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반역자로 취급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적개심과 분란을 쓸데없이 조장하여 이 때가 속히 오도록 하지 말 것이다." (6 증언, 394)

2. 방심 가운데 한 말이 원수에 의해서 사용됨

"우리 형제들이 부주의하게 말하거나 저술한 내용 속에 나오는 조심성 없는 표현들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만 정죄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재림교도 전체를 책잡는 데 사용될 것이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은 모일 모시에 우리의 책임 있는 모 인사가 이 정부의 행정자들에 반대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대적들의 논거를 위하여 수많은 말들이 기억되고 간직된 것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랄 것

이다. 많은 이들은 그들의 뜻하지 않는 대로 그들의 말이 곡해되는 것을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꾼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부주의한 표현으로 사람의 영혼을 시험할 큰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환난의 때를 자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증언, 394-395)

3.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일이다.

"권세와 세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난을 적게 할수록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들도 미국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선두에 나서고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의 백성에게 같은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미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는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들어 올려야 한다. 모든 겸손함과 은혜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제칠일은 주의 안식일임을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깃발을 펼럭이며, 그분의 말씀을 옹호하여 전진해야 한다. 권세자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 때에는 사도들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 4:19, 20)." (6 증언, 395)

4. 시련이 오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주의 대리자들은 성화된 열성, 즉 그분의-온전한 지배를 받는 열성을 가져야 한다. 폭풍우의 시간이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속히 오도록 재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환난의 때가 와서 오직 그분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그분께로 몰고 갈 것이다.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시험되고 증명될 때까지 우리는 자신들을 알지 못한다. 남들의 품성을 재어 본다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정죄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6 증언, 396)

5.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음으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아 부인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며, 우리에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으로 당한 위험을 적시하고, 우열을 다투는 일은 그칠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참된 신자 중 아무도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이렇게 간증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었으며 나의 구주인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6 증언, 400-401)

우리 앞에 환란의 때가 있음

6. 환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임할 것인가?

"미구에 온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실하고 열렬하게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사 56:1, 2)." (9 증언, 228)

7. 계속적인 확장과 진보가 있어야 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주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더 깊은 경건과 더 큰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으로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끊임없는 확장과 발전이 있어야 한다. 사업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게서 민족으로 확장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되고, 확립되고, 강화되고, 안착되어야 한다." (9 증언, 228)

8.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늘과 연합하였다고 공언하고 어린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세력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충동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칠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핍박의 손을 느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킬 희망으로 안식일을 변경시켰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법률보다 힘이 더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핍박해 온 죄악의 사람이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를 강제할 법률을 제정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위하여 굳게 설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9 증언, 229-230)

9. 남의 교회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과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헤아리고,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그의 패권을 거역하는 하나의 작은 무리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가 지상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교의 국가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지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순종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의무에 대하여 진실한 자들은 협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눅 21:16)에게 배반당할 것이다." (9 증언, 231)

일요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10. 일요일 휴업령이 강요될 때에 어떤 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는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때 그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그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빛은, 사람들이 땅의 권세에 충동을 받아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때에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 날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선교 사업에 헌신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것이었다." (9 증언, 232)

11. 일요일을 선교 목적으로 보내게 되면 박해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일요일을 선교 사업에 바칠 때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모욕하기를 좋아하는 독단적인 열광자들의 손에서 채찍이 거두어질 것이다. 우리가 일요일에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펴는 일에 스스로를 바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 증언, 232-233)

12. 일요일에 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사업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일요일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날에 옥외 집회들과 가정 집회들을 개최할 수 있다. 집집 방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글을 쓰는 자들은 기사를 쓰는 데 이 날을 바칠 수도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요일에 종교 집회들을 가지라. 이 집회들을 참으로 흥미롭게 만들라. 부흥적인 찬미들을 부르고 구주의 사랑에 관하여 능력 있고 확신 있게 말하라. 절제에 관하여, 그리고 진정한 신앙적인 체험에 관하여 말하라. 그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영혼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은 일요일을 선교 활동에 바쳐야 한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집회를 열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할 것이다." (9 증언, 233)

13. 일요일 법령을 무시하는 시위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가?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를 위한 법은 배교한 그리스도교계의 소산이며, 일요일은 그리스도교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보다 더 높임을 받은 교황권의 소산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경의를 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바라시는 때에 그들이 반대를 무릅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편견을 너무도 크게 일으켜서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법에 반항하여 시위 운동을 하지 말라. 만일 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 굴욕을 당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일요일을 그리스도 편에서 말하는 사업을 추진시키는 날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일해야 한다." (9 증언, 235)

14. 다른 교회들을 침략(수색)하는 행위나 말을 하는 것은 어떤가?

"사람들은 진리, 솔직하고 분명한 진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그리

스도의 정신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경고들을 그분을 위하여 지키지 않고, 인내와 자제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일할 귀중한 기회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긴 공격의 연설을 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한 백성으로서 등한히 해 왔고, 결정적으로 불충성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은 소수의 중심부에 국한되었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마침내 복음의 감화에 굳어져 버리기까지 되었다. 진리를 너무 많이 듣고서도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감명을 주기란 어렵다.…" (9 증언, 236)

15. 오스트랄리아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한 번은 아본데일에서 우리의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을 담당한 관리들이 일요일에 일하는 자들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일요일을 선교 사업을 하는 날로 주께 바치십시오. 여러 지역에서 집회들을 개최하고, 또한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들은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진리를 제시할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언제나 주께 가납될 일입니다.'" (9 증언, 238)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함

16. 1592년에 자유의 원칙을 높이 쳐들었음

"우리가 지금 고수해야 하는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의 옹호자들에게 의해 유지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1529년 스파이어스 의회에 군주들이 모였을 때에 세상의 희망은 묵살될 것처럼 보였다. 이 회집에서 종교 자유를 제한하며 개혁 교리들이 더이상 파급되지 못하게 막는 황제의 칙서가 제시되었다. 독일의 제후들이 그 칙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도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은 가려져야 하는가? 세계를 위한 중대한 사활의 문제가 현안이었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장 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칙령을 거부합시다.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다수결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높이 들었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이 마지막 투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되었다. 이 위대한 선물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한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 진리들을 몸소 수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그 진리들을 찾아낼 때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삼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언행 속에서 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남들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6 증언, 402-403)

17. 마지막 시대에 있는 개혁자들은 누구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전해 준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세상에 복음을 나눠 주라 하신 것을 깨달았으며,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도 개혁자들이 그들의 맡은 바에 충성했던 것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는가?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때를 위한 진리는 원근 각지에 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해졌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학식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진리를 열렬히 상고하여 빛을 받은 사람들이 뒤이어 다시 기별자들이 되었다. 그 당시에 진리는 인쇄물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루터의 필치는 힘이 있었다. 그의 저작은 널리 퍼져서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그같은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설은 수백 배나 뛰어나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개진하는 성경들과 수많은 언어로 된 출판물들이 우리 수중에 있으며 온 세상에 속히 전달될 수 있다. 우리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진지함은 어떠해야 하며, 빛을 전하는 열의는 어떠해야 할까!" (6 증언, 403)

마지막 위기를 위한 준비

18.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주어진 형제들이여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대들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대들은 이런 엄숙한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하늘과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준비의 큰 역사를 깨닫고 있는가? 빛을 받은 모든 자들, 예언을 읽고 들은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는 아무도 더이상 세상에 비극을 가져온 죄를 달래며 살지 말라. 더이상 무기력과 둔한 무관심 속에 살지 말라. 그대 영혼의 운명을 불확실한 곳에 걸지 말라. 그대가 완전히 주님 편에 섰는지를 확인하라.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신실한 마음과 떨리는 입술에서 나오게 하라. 은혜의 기간의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의 품성 건설에 최고의 자재를 투입하였는가? 그대는 자신의 영혼에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해 왔는가? 그대는 빛을 순종하였는가? 그대의 일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였는가?" (6 증언, 404-405)

19.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위대한 사람들과 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와 세상 끝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범죄가 만연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은 냉담하게 되었다.

현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회계 사무실에서 돈 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도박장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오락을 즐기는 사람, 극장과 댄스홀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영원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고 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나가는 대열 속에 들어 있지 않다. 그들은 대 배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6 증언, 406-407)

20. 휘장이 걷어질 수 있을까?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때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 3:16).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

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실 수 없다. 그분께서 그대의 종교 활동들에 은혜를 주시리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휘장이 걷힐 수만 있었다면, 운명지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6 증언, 407-408)

기억할 말씀: "…개혁자들에 의해서 높이 쳐들어진 진리와 신앙의 자유의 깃발은 마지막 투쟁 마당에서 우리에게 높이 들라고 위탁되어 있다." (6 증언, 402)

연구할 과제

1. 지상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지셨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소망, 2권 315-316)
2. 권위(권세)있는 자들과 정부가 응당 정죄를 받아야 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놓이게 되는가? (6 증언, 397)
3.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는 정부의 성격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교육 228-229)
4. 진리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기까지 핍박이 강행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9 증언, 230)
5. 짐승의 표에 관련된 일요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9 증언, 232)
6. 방해가 되는 천주교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9 증언, 244, 247)
7. 바벨론에 있었던 세 청년에게서 어떤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가? (선지, 487-490)
8. 마태복음 22:21절을 설명하라. (소망, 3권 55, 56)
9. 미국에서 마지막 논쟁이 될 것은 무엇인가?

제63과 사람의 사후 상태

성경절 연구: 시 115:17; 전 9:5, 6

요점: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 (쟁투, 549)

예언의 신 연구

사망은 영원한 고통을 뜻하지 않음

1. 불멸에 대해서 사단이 가르친 최초의 공과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했다. 이것이 영혼 불멸에 관한 사단의 최초의 가르침이며 그는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속임수를 써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하여 이 방법을 쓸 것이다. 나는 에덴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 그들이 금단의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주위에는 화염검을 두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고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인이 될까봐 에덴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 나무의 과일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누가 화염검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하고 묻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아무도 화염검을 지나서 그 나무에 가까이 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란 있을 수 없다' 고 대답하였다.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것이다.

나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지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생명은 그것이 고통이든 행복이든간에 생명이고 죽음은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증오도 없다' 고 천사가 말했다." (초기, 218)

2. 죽은 자의 의식에 대한 교리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 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 등을 보는 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지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를 배회하

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즐거움이 되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쟁투, 545)

3. 인간은 생명 나무에 의존해서 살 수 있음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은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 3:22, 2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 나무로부터 분리되었는데, 범죄 후에 이것을 먹게 된다면 죄가 영속되었을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4). 인간은 불멸성을 얻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의존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불멸의 죄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목사, 133-134)

4. 사망은 범죄의 결과로 생긴 것

"범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인간에게 또 다른 시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번째 시험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죄에게 불멸의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범해진 율법의 모든 형벌을 온 세상을 위해 당하셨다. 이것을 그분은 행하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성 가운데로 돌아와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목사, 134)

5. 사망은 두려운 신비였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믿음은 더욱 희미해지고 소망은 장래를 비추어 주기를 거의 그쳤다. 선지자들의 말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한 두려운 신비였다. 삶의 피안(彼岸)은 불확실하였고 암담하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 2:18)라고 선지자가 말한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통곡만을 말한 것이 아니요, 인류 전체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눈으로 구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 때에는 어두움이 쫓겨가고 미래의 신비가 밝히 드러날 것이었다." (소망, 32)

6. 죽은 것은 잠자는 것과 같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 되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소망, 527)

7.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잘 것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 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 날 것이다 (요 8:51, 52; 골 3:4)." (소망, 787)

무덤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8. 나인 성에서 오는 장례 행렬

"가버나움에서 팔십리 이상 떨어진 넓고 아름다운 에스드랠론 평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원(高原)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 곳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다.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였으며 도중 내내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데려오고 또한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알리시리라는 소망까지 품고 따라갔다. 군중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랐는데 산악 촌락의 성문 쪽으로 뻗은 바위가 많은 길을 예수를 따라서 올라간 무리는 즐겁고 기대에 찬 일행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성문에서 장례의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에 운반되는 열린 관대 위에는 시체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둘레에 가득 차 흘렀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경의와 유가족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인 듯하였다." (소망, 318)

9.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음

"그것은 동정을 일으키는 광경이었다. 고인은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 외로운 애도자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위안인 아들을 뒤좇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셨다. 과부가 예수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울면서 무턱대고 따라올 때에 예수께서 과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곧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었지만 이러한 자애로운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 시체를 만지시는 것도 예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 관을 멘 자들이 조용히 섰고 애곡하는 자들의 통곡도 그쳤다. 그 두 무리들이 혹시나 하여 관 주위에 모여 섰다. 질병을 내쫓으시고 사귀를 정복하신 자께서 임석해 계셨다. 사망도 과연 예수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분명히 위엄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는 말씀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청년은 눈을 떴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다.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있던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기쁜 포옹을 하였다.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 였다.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것처럼 잠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장례의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돌아갔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망, 318-319)

10. 야이로의 딸

"거라사에서 서쪽 해안에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려고 모여있는 군중을 보셨다. 그들은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 하였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연회석상에서 세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레위 마태의 집으로 향하셨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 유다 장로는 심히 슬퍼하며 예수께 나아와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즉시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원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주를 따랐고 사람들도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뒤따랐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하였으나 군중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되는 것이 조마조마하였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시어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그들이 아직도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이제 예수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을 옮겼다. 벌써 그 곳엔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공중에 사무쳤다. 무리가 모여 있는 것과 떠드는 소리는 예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 하심으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들은 이 외인의 말에 성이 났다. 그들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집에서 떠나도록 요구하신 후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세 제자를 데리시고 시체가 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소망, 342-343)

11. 소녀가 일어남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소망, 343)

12.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었던 슬픔

"예수께서 쉬시곤 하셨던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리하여 그의 누이들은 구주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란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저희 오라비에게 무서운 병이

들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곧 오시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알리는 기별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에게로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소망, 525-526)

13.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찬 말씀인가! 제자들은 저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입게 될 위험을 생각하여 베다니의 유가족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책망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그 기별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에 제자들은 실망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지셨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 대한 그윽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서둘러 기별자와 함께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일깨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않고 계셨음을 확신하였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 되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소망, 527)

14.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매우 조용하게 기별이 전하여졌으므로 방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슬픔에 잠겨 있던 마리아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마르다는 곧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마르다가 나사로를 장사한 그곳에 간 줄로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 울지 않고 슬픔에 싸여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자 서둘렀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리었다. 예수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수께 대한 마르다의 신뢰심은 깨어지지 않았으나 그는 예수께서 또한 사랑하셨던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던 오빠를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깊은 비통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는 희망으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애곡자들 때문에 떠들썩한 가운데 이 누이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소망, 528)

15.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고 대답하였다.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요일 5:12)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 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에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었다." (소망, 530)

16.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수는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소망, 530)

17. 돌을 옮겨 놓으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단지 한 번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써 거절하였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난 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막 5:39)고 말씀하셨었다.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만 앓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의 이적에는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

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명령은 순종되었다. 돌은 옮겨졌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죽음으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았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었다. 놀라움과 기대로 찬 무리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다." (소망, 534-535)

18.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스도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셨다. 신성하고 엄숙함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람되다고 그를 비난한 바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로 그에게 돌을 던졌었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예수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면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써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하려 함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예수의 능력의 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던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망, 535-536)

19. 혈기 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선 나사로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곁에 섰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소망, 536)

20. 기뻐하면서 감사함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졌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에 목메인 음성으로 구주께 감사를 표시하였다. 오라비와 누이들과 친구들이 재회를 기뻐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 장소에서 떠나셨다. 그들이 생명을 주신 분을 찾았을 때에 그분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아니하셨다." (소망, 536)

기억할 말씀: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시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소망, 2권 40)

연구할 과제

1. 인간의 불멸설에 대한 그릇된 교리들에 대해 언급해 보라. (쟁상, 94)
2. 로마서 6:23절에 언급한 죽음은 어느 것인가? (쟁투, 하권 368)
3. 데살로니가 전서 4:14절을 설명하라. (행적, 255)
4.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책에 대해 설명하라. (초기, 226)
5. 사람이 죽어도 무엇은 계속해서 생존하는가? (목사, 429)
6.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은 어떤 이적인가? (소망, 2권 340)
7.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리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한 말은 올바른 말인가?
8. 그대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도록 용납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소망, 2권 341-342)
9.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는가? (소망, 2권 346-348)

제64과 악인의 형벌

성경절 연구: 롬 6:23; 살후 1:9; 계 21:8; 말 4:3

요점: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말 4:1) 사를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 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쟁투, 673)

예언의 신 연구

영원한 파멸 - 영원히 계속되는 불행이 아님

1. 고통을 당하는 기간과 정도가 다름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행 24:15).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계 20:6)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삯'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신다. 한 영감의 기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시 37:10)고 말한다. 또한 사람은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욥 1:16). 그들은 오명(汚名)으로 덮인 채 소망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 들어간다." (쟁투, 544)

2. 영원한 죽음

"나는 에덴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금단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서 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주위에 화염검을 두셨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가족 중에 누가 화염검을 지나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라고 묻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의 가족 중에 아무도 그 화염검을 지나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은 없다. 죄를 짓는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

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될 것이다." (초기, 51)

3.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나타내었는가?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했다. 이것이 영혼 불멸에 관한 사단의 최초의 가르침이며 그는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속임수를 써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하여 이 방법을 쓸 것이다. 나는 에덴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 그들이 금단의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주위에는 화염검을 두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고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인이 될까봐 에덴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 나무의 과일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누가 화염검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하고 묻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아무도 화염검을 지나서 그 나무에 가까이 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란 있을 수 없다' 고 대답하였다.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것이다." (초기, 218)

4.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도록 하는 오류

"사단이 사람들을 빠뜨리는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경고들을 완전히 간과해 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으로만 보게 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도와 죄인들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초기, 219)

5. 영원한 고통에 관한 오류

"영혼 불멸과 영원한 고통에 관한 오류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단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이 영원한 고통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책을 의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단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이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를 영원토록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분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과 그 저자를 부인하고 죽음이란 영원토록 잠자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초기, 219)

6. 악한 자들이 결국에 가서 흙으로 돌아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고 영원한 고통으로 괴롭히지 않으실 것이며 또 천국에 들여보내지도 않으실 것을 보았다.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들과 한데 어울려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그토록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공의가 성취될 것이다. 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불에 소멸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을 존경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보았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 후에 모든 하늘 천군들은 '아멘!' 할 것이다." (초기, 221)

7. 죄와 고통이 종결됨

"이리하여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파멸은 모두 종식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 … 나이다' (시 9:5, 6)고 말한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도 음조가 틀리지 않는 완전히 조화된 훌륭한 찬양의 노래를 듣는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들었다(계 5:13 참조).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참람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의 찬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흔합되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쟁투, 545)

8.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

"그 때에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말 4:1)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 너 덮는 그룹아 … 내가 너를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던 것같이 되리라' (겔 28:6-19; 시 37:10).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엡 4:18; 잠 8:36)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사단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소망, 763-764)

지상이 황폐됨

9. 마지막 칠 재앙

"그 후 나는 마지막 칠 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에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 밖에 생각지 않았다. 그 후에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칠 재앙의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나는 그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화가 나서 손을 뻗으시거나 치켜드신다면 세상의 거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치료 불능의 종기와 말라빠지는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 멸망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그 광경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그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

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선언이 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 (초기, 64-65)

10. 악인들끼리 서로 분노를 발함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 저기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칠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끝에서 저끝까지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초기, 289-290)

11. 사단이 일천년 동안 거하게 될 집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무더기 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김으로 인하여 큰 웅덩이가 생겼다. 바위 조각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 곳이 바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일천년 동안 거할 집이다. 그는 여기에 갇혀서 황폐된 지상 여기 저기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일천년 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씹을 것이다. 그는 지상에 홀로 갇혀서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닐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가 타락한 이래 그는 악한 계교를 끊임없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가 타락이래 저지른 일들을 회상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운 미래를 기다리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 때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고통과 그가 저지르게 만든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 (초기, 290)

12. 죽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음

"다음에 나는 보좌들이 놓인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구원얻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 있을 때의 행위를 심판하여 모든 경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사단의 형벌은 그가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속였던 모든 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살아남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초기, 290-291)

13. 예수께서 큰 산에 내려 오심

"죽은 악인들의 심판이 끝난 후 곧 일천년 후에 예수께서 도성을 떠나셨으며 성도들과 천군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예수께서 큰 산에 내려오셨으며 그 산은 그의 발이 닿자 마자 무너져 내려 거대한 평지가 되었다. 그 때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도성은 열 두 기초석으로 되어 있었고 열 두 문이 있었는데 한 쪽에는 각각 세개씩 있었으며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있었다. 우리는 '도

성이다! 큰 도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고 외쳤다. 그 도성은 찬란한 광채와 영광을 발하면서 내려와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대한 평지에 놓여졌다." (초기, 291)

둘째 부활

14. 죽은 죄인들이 다시 일어남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든 천군들과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그 도성을 떠났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을 호위하고 갔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렬이 그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는 두려운 위엄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내셨다. 그들은 죽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 그대로 부활했다. 오!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가! 첫째 부활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으며 둘째 부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세상의 군왕들과 고관 대작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유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인자를 바라보았다. 그를 멸시하고 모독한 바로 그 사람들, 그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던 자들, 갈대로 그를 쳤던 자들이 모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난받을 때 그분에게 침을 뱉었던 자들이 이제 그분의 뚫어보시는 눈초리와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피하여 숨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자들이 이제 그분의 못 박히신 흔적을 보았다.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이제 그분의 몸에 남은 잔인한 고통의 흔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야말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며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 할 때 자기들이 희롱했던 분임을 알았다. 그 때 외마디의 긴 신음 소리가 일어난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여 피해 숨는다." (초기, 292)

15. 그분의 두려운 영광을 피하기 위하여 바위 밑에 숨음

"그들이 한때 멸시했던 그분의 두려운 영광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가 바위 밑에 숨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넘치는 영광에 압도되어 괴로워하면서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부르짖는다." (초기, 292)

16. 사단이 그의 부하들로 전쟁을 준비하게 함

"그 다음에 예수님과 거룩한 성도들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다시 도성 안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의 비참한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만이 공중에 가득하게 된다. 그 때 나는 사단이 다시금 그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리들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허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와 그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부활한 무리들을 가리켰다. 그 중에는 전쟁에 능한 힘센 장군들과 왕국을 정복한 능력 있는 왕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거인들도 있었고 전쟁에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용장들도 있었다. 거기에는 가는 곳마다 열국들을 떨게 했던 대 야망가 나폴레옹도 있었다. 또 거기에는 정복하려다가 전쟁에서 죽었던 위풍당당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무덤속에서 일어날 때 죽음으로 중단되었던 그들의 본래의 사상을 다시 갖게 된다. 그들은 죽기 전에 가졌던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모의하고 그 다음 군왕들과 정복자들과 힘센 사람들과도 의논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대군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효도 적고 약하니 그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빼앗고 그 곳 거민들을 쫓아낸 후에 그 성의 영광과 모든 부를 누리자고 말한다." (초기, 292-293)

17. 큰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이려 함

"사단은 그들을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모두들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그 가운데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은 전쟁에 필요되는 갖가지 무기들을 제조한다. 그리고 사단을 선두로 하여 큰 무리가 그 성을 향해 진격한다. 왕들과 전략가들은 사단을 바짝 따르고 그밖의 군중들은 무리를 지어 뒤를 따른다. 각 무리에는 지도자가 있고 그들이 황폐된 땅을 밟고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지도자의 명령을 잘 지키며 간다. 예수께서는 도성의 문을 닫으실 것이며 이 큰 군대는 도성을 둘러싸고 격전을 예상하면서 작전 계획을 세운다. 예수님과 모든 천군들과 성도들은 번쩍이는 면류관을 쓴 채로 도성 벽 꼭대기로 올라가고 예수께서 장엄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죄인들아, 의인들의 보상을 보라!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악인들의 받을 보응을 보라!' 그 때 부대들은 도성벽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무리를 바라본다. 그들의 번쩍이는 면류관을 보고 또 그들의 얼굴이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여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분의 위엄과 지극히 찬란한 영광을 바라본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사기가 꺾인다. 보물과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그들을 압도하게 되고 그들은 죄의 삯은 사망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멸시하였던 거룩한 무리가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옷입고 있는 반면에 자기들은 도성 밖에서 험악한 무기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초기, 293-294)

둘째 사망

18. 하나님께로부터 불로 된 비가 저들 위에 내림

"사단은 그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애써 군중들을 선동한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불비가 내려 위대하고 능력있고 고상한 사람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살라 버렸다. 나는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 있을 때 행한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며 소실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한, 고통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생명의 기생충은 죽지 않는다. 그 기생충이 먹을 찌꺼기가 남아 있는 한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초기, 294)

19.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불살라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놓여진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는 사단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 버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모든 천군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소리로 '아멘' 한다." (초기, 294-295)

20. 지구가 정결하게 된 것을 보았음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노소와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발 앞에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그의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하고 영원토록 사실 그분에게 경

배한다.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초기, 295)

기억할 말씀: "현세에서만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사람에게 제공된다." (실물 265)

연구할 과제

1. 악한 자가 죽은 직후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절을 들어 증명하라. (벧후 2:9)
2.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죽은 자의 형편에 대한 교리와 위배되는 것같은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 (실물, 264)
3. 무엇이 둘째 사망을 더욱 두렵게 하는가? (1 증언, 124; 2 증언, 210)
4. 이사야 28:21절에 나오는 "비상할 것"과 "기이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부조, 하권 318)
5. 잃어버린 바 당한 영혼들의 최후에 하게 될 절규는 무엇인가? (쟁투, 하권 544-545)
6. "영원토록 무서운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교리를 믿은 결과는 무엇인가? (초기, 225)
7.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쟁투, 하권 368)
8. 악한 자의 형벌에 대해 이해하도록 유다의 죽음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쟁투, 하권 375)

제65과 예언에 나타난 4대 강대국

성경절 연구: 단 2:36-45; 겔 21:26, 27

요점: "이스라엘에게서 벗기신 왕관은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의 각 왕국들에게 계속되어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 때는 가까이 왔다. 오늘날 때의 징조는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구에 서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교육, 233)

예언의 신 연구

느부갓네살의 꿈(이상)

1. 내가 꿈을 꾸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려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상 숭배자의 국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나타낸 사건이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이 한 놀라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 였다. 왕의 마음이 비록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으나 그가 깨었을 때에 꿈의 내용을 회상할 수가 없었다.

난처하게 된 느부갓네살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들을 불러모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번민을 이렇게 말한 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였다.

이 말에 박사들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모호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데다가 저희가 사람들의 비밀을 안다고 뽐내면서도 자기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심을 품은 왕은 한편에는 부와 명예를 주리라는 약속을, 다른 편에는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지고 그에게 꿈의 해석 뿐 아니라 꿈 자체를 고하라고 박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박사들은 여전히 되풀이해서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고 대답하였다.

이제까지 신임해 왔던 사람들의 분명한 배반에 매우 분개하고 화가난 느부갓네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당할 결과를 예상하고 공포에 싸인 박수들은 왕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그의 시험은 일찍이 어떠한 인간이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임을 왕에

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간언하였다." (선지, 491-493)

2.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거룩한 자의 도움을 간구함

"그때에 '왕이 …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였다.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관리들이 찾고 있던 사람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도 있었다. 명령에 따라 저희도 역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묻기를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라고 하였다. 아리옥은 그 놀라운 꿈에 대한 왕의 고민과 이제까지 그가 완전히 신뢰하던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목숨을 내걸고 감히 어전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자기에게 보여 주시도록 그분께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왕은 이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 였다. 그들은 다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강했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새로 이세상의 재판장께 복종시키고 저희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 분께 간구하였다. 그들의 탄원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선지, 493-494)

3.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즉시 박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말했다.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리리라.' 장관은 곧 다니엘을 왕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고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군주 앞에 선 조용하고 침착한 유다 포로를 보라. 그는 첫 말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 높였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는 왕의 갈망하는 질문에 다니엘은 대답하였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선지, 494-497)

4. 왕이 꾼 꿈

"다니엘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은 이러하'다고 다니엘은 자신 있게 말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조목을 듣고 있던 왕은 이것이 그가 그처럼 알고자 번민하던 그 꿈임을 알았다. 이리하여 그의 마음은 호감을 가지고 그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만왕의 왕께서 바벨론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달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 곧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깨우침을 받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책임을 깨달아야 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미칠 미래의 사건들이 그의 앞에 공개되어야 하였다." (선지, 497-498)

바벨론

5.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다니엘은 계속하여 말하였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선지, 498)

6. 지상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만일 모든 지상 왕국 중에서 가장 부요했던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를 강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괴롭고 난처할 때에만 하나님을 저희 피난처로 삼았다. 그와 같은 때에 저희 위인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곧 저희가 알기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들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교만한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최고의 지성인이긴 하였으나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장래에 관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와 경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지, 501)

7.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벽에 기록된 하늘이 보낸 기별을 쳐다보고 선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었다. 이 글자들을 쓰던 손은 그 이상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네 단어는 여전히 아주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노령의 선지자가 선언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미칠 듯이 어리석은 짓을 하던 최후의 밤에 벨사살과 그 귀인들은 저희 죄악과

갈대아 왕국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었다. 더이상 하나님의 제어하신 손길이, 절박해 오는 화를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천벌이 하늘에까지 미친 자들에 대하여 선언하시기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 한'(렘 51:9)다고 하셨다. 인간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괴팍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철회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리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 벨사살은 망하고 그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선지, 530)

메대 바사

8.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선지, 498)

9. 다리오와 고레스

"'다리오 … 원년'에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고 고레스를 장군으로 세운 메대 군주는 바벨론에게서 만국의 통치권을 박탈하였다. 다리오의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를 돕고 강하게 하'(단 11:1)기 위하여 다리오에게 왔다.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칠십년이 차는 중요한 해였다." (선지, 556)

10. 메대 바사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바벨론은 마침내 부서지고 깨어져 사라져 버렸으니 그 까닭은 번영할 때에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희 나라의 영광을 인간의 공적에 돌렸기 때문이었다. 메대 바사 왕국도 하늘의 분노를 입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짓밟았기 때문이었다. 그 나라의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악과 참람됨과 부패가 성행하였다. 뒤따른 나라들은 한층 더 저열하고 부패하였으며 도덕적 가치를 재는 저울에서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았다." (선지, 501)

헬라

11. 역사는 반복한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아 순찰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의 설립 발전을 추적하였다. 이 모든 나라에서도 군소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되었다. 이들 각 나라에 시험 기간이 주어졌고 각 나라마다 그것에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갔다." (선지, 534)

12. 이교의 중심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베뢰아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그에게로 보내라고 기별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베뢰아에 왔으며, 실라와 함께 그 곳에 남아서 훌륭하게 착수된 그 사업을 수행하였고, 새로운 개종자들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교훈하였다.

아덴 성읍은 이교국의 중심지였다. 이 곳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와 같이 무지하고 잘 속는 민중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이 매우 훌륭한 백성들을 만났다. 도처에 있는 그들 신의 형상과 신격화된 역사와 시(詩) 의 영웅들의 조상(彫像)이 시선을 끌었고, 한편 장엄한 건축물과 그림들은 민족의 영광과 널리 성행하던 이교신의 숭배를 나타내었다. 백성들의 감각은 그 예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황홀해져 있었다. 사방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사원들과 신전들이 크고 중후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전쟁의 승리와 고명한 사람들의 행위가 조각물, 사당 그리고 명판에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덴을 거대한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행적, 233-234)

13. 저들의 예술, 문학, 종교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신전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는, 그의 심령의 부담을 토로하면서 아덴 사람들의 종교상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예술 작품, 문학 그리고 종교에 정통함을 나타내었다. 그들의 조상(彫像)과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형상과 같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 새긴 우상들은 아주 희미하게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다. 그 우상들은 아무 생명도 없고, 인간의 힘에 지배되어 사람의 손이 그것을 움직일 때에만 움직일 수 있는고로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 우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바울은 상기시켜 주었다." (행적, 237)

로마

14. 철과 같이 강한 네번째 왕국

"'네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물건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숴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선지, 498-499)

15. 세상 열국을 정복할 것임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내다보셨고 만국의 흥망을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둘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에게도 역시 시험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참 하나님을 높이기에 실패한 나라의 영광은 사라지고 셋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나라도 역시 지나가고 철과 같이 강한 넷째 나라가 세상 열국을 정복할 것이다." (선지, 501)

16. 발가락 - 분리된 상태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파멸시키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상의 세력들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세상 나라들 사이의 연합을 구하지 않고,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분리의 상태에 있는 발가락으로, 부서져 버릴 재료로, 또한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큰날이 우리 앞에 박두해 있는 것을 알려 준다. 그것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1 증언, 360-361)

하나님의 왕국

17. 이 열왕의 때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선지, 499)

18.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타난 열국의 흥망 성쇠에서 우리는 단순한 외적 ·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바벨론과 그 모든 권세와 장려함, 곧 이제까지 우리들의 세계에서 결코 본 일이 없고 그 시대 백성에게 매우 견고하고 영속할 것처럼 보이던 권세와 장려함이 얼마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풀의 꽃과 같이' 바벨론은 망하였다. 메대 바사 나라와 헬라와 로마 나라도 그처럼 망하였다. 하나님으로 그 기초를 삼지 아니한 모든 나라가 그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라만이 견딜 수 있다." (선지, 548)

19. 새로이 건설된 나라의 건설자

"씨 가운데 있는 배종(胚種)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 주신 생명력의 전개(展開)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猛獸)들로 표상하셨는 데,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표상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의를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넣으심으로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신다." (실물, 76)

20. 우리 왕의 대관식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輓歌)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에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9 증언, 287)

기억할 말씀: "…현재까지 성취되리라고 예언된 모든 예언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직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선지, 511)

연구할 과제

1.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된 말을 설명하라. (쟁투, 하권 76-78)
2.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의 왕국이 영구히 서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였는가? (선지, 495)
3. 세상 황제들이 일어난 해와 패망한 연대들을 말해 보라. (선지, 496)
4. 황제(왕)들의 즉위와 폐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선지, 477)
5. 열국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 (선지, 511)
6.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의미심장한 시대의 징조들은 무엇인가? (선지, 512)
7. 어떻게 하면 최후에 나타나게 될 위대한 사건들을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가? (선지, 512)
8.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룹의 날개 밑에 있는 바퀴 아래 있는 손"은 어떻게 묘사되었으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선지, 510-511)

제66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커다란 예언

성경절 연구: 마 24장

요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소망, 627)

예언의 신 연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1.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 23:38)고 하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공포로 사로잡히게 하였다. 이 말씀을 그들은 무관심한 체하였으나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족의 영광인 이 장엄한 성전이 곧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불길한 전조는 제자들도 함께 느끼게 되었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더욱 분명한 말씀을 고대하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나갈 때에 그들은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그 중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어떤 부분의 벽은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 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한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온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성전의 장대함에 그리스도의 주목이 이끌렸을 때에 거절 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아노라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들이 분명히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가리키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소망, 627)

2.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그분이 홀로 감람산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진 것이다." (소망, 627-628)

3. 많은 거짓 메시야가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거짓 메시야들이 나타나 이적을 보이며 유대 민족의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사이에 많은 거짓 메시야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경고는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성행하던 것과 같은 기만이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하여졌고 또다시 행하여질 것이다." (소망, 628)

4.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들은 살해를 당하였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유대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들을 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징조들이 메시야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징조이다." (소망, 628-629)

'불법이 성하므로'

5.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속였고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을 산헤드린에 넘겨 주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였다." (소망, 629)

6. 신앙의 자유를 억압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심문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같이 다시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막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전진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다." (소망, 629-630)

7. 시련이 일어날 때에 배교(배도)하는 자들

"박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느냐 혹은 그분을 반대하느냐를 결정한다.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이 저희 행동을 직접 부당하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다.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소망, 630)

'인자가 오심'

8.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경고는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 당할 때에 유의하도록 주어진 바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에 함께 멸망하였다." (소망, 630)

"그것이 로마군에게 그처럼 소름끼치는 광경이 되었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욱 그러했겠는가! 온 성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 전체는 하나의 활화산(活火山)처럼 불타고 있었다. 건물들은 굉음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넘어져 불구덩이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백향목 지붕은 불붙은 종잇장들과 같았고, 도금한 첨탑(尖塔)들은 새빨간 쇠꼬챙이처럼 빛났고, 탑루(塔樓)는 높은 불과 연기 기둥이 되어 버렸다. 가까이 있는 산들은 불빛에 비취어 환하게 드러났고, 그 멸망의 과정을 공포에 질린 채 염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낙담한 무리들이 불빛에 드러났다. 그리고 성벽 위에와 성 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불붙는 소리와 건물의 재목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큰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성벽 위에도 비명과 통곡의 소리가 뒤섞였으며, 주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도 그들의 남은 기운을 다하여 고민과 비탄의 부르짖음을 발하고 있었다.

성내의 살육은 성밖의 그것보다도 더욱 비참하였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 폭도나 제사장, 싸우는 자나 자비를 구하는 자나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효는 죽이는 자들의 수효보다 훨씬 더 많았다. 로마 군인들은 도륙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주검의 무더기를 기어 올라가야 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온 성은 곧 로마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난공 불락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보루(堡壘)를 내어 버리고 달아났으므로 티투스가 거기 이르렀을 때에는 오직 적막뿐이었다. 그는 그 보루들을 보고 놀랐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적군일지라도 능히 이와 같이 거대한 보루들을 대항하여 점령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도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거룩한 성전의 터는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였다' (렘 26:18). 그 성의 포위와 뒤이은 학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은 수백만에 달하였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갔거나 종으로 팔려 가게 되었으며, 승리자의 개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랑의 백성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다." (쟁투, 34-35)

9.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긴 암흑 기간

"그리스도께서는 신속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옮기셨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흑암의 세기들 즉 그분의 교회를 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특징지은 세기들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므로 예수께서는 한 짤막한 말씀으로 그 장면을 지나치셨다. 예수께서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다. 천년 이상 계속될 미증유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었다. 수백 수천만명의 예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소망, 630-631)

10.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 함

"이제 분명한 말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위험을 경고하신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중의 하나로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고 말씀하셨다.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나아갔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 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유혹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는 부르짖음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희망으로 광야에 나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죽은 영혼들과 교제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고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강신술이 제시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

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소망, 631)

11. 그의 오심에 대한 징조

"구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징조들 가운데 첫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을 정하셨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소망, 631-632)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2.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법 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 24:32, 33)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소망, 632)

13.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고전 15:52).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유 24). 그런고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소망, 632)

14. 인자의 오실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에 속함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소망, 632-633)

15.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세상의 형편을 지적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천년 기간이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바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소망, 633)

16. 세상을 향한 복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시대의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죄악을 현대에서 본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골 1:23)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계 14:6, 14)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행 17:31)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벧후 3:12 상단 참조).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소망, 633-634)

17.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주신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영문 성경 참조)고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노아에게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이 전하여졌다.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는 기별이 임하였다(창 7:1; 19:14). 롯은 자신을 하늘의 사자의 보호에 맡겨 구

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다. 따라서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소망, 634)

신실한 종과 불신실한 종

18. 신실하고 지혜있는 종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눅 12:37).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주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워 준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눅 12:42) 신실하고 지혜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소망, 634)

19. 악한 종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범죄에 있어서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자란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는 세상과 같이 함정에 빠져 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 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에게 불시에 이르를 것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전' 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리' (살전 5:3)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은 그들에게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

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고 거만하게 자랑한다(벧후 3:4; 사 56:12).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계 16:15)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바로 그 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 을 부르짖을 때에 홀연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소망, 634-635)

20.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 오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드리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 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취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해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쳐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 (소망, 635-636)

기억할 말씀: "신랑이 오는 때는 밤중 - 가장 깜깜한 때- 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깜깜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실물, 435)

연구할 과제

1.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설명하라. (2 증언, 346)
2.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함을 받았는지 말해 보라. (마 24:15-20; 쟁투,상권 52)

3.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과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가? (쟁상, 61)
4. 무엇이 십자가에 못박혔는가? (소망, 3권 100; 골 2:12; 부조, 상권 481-482)
5. 마태복음 24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소망, 3권 100)
6. 어떻게 하여 핍박의 날이 감하여졌었는가? (쟁상, 431)
7. 마태복음 24장 26절은 미국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소망, 3권 101)
8. '하늘의 권능'들은 무엇인가? (마 24:29; 초기, 42)
9. '하늘에 있는 인자의 징조'는 무엇인가? (마 24:30; 초기, 35)
10.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경고의 말씀인가? (소망, 3권 97)

제67과 반역

성경절 연구: 살후 2:3-7

요점: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요, 참람된 일을 진척시켰다. …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쟁투, 49)

예언의 신 연구

타협

1. 다신교와 그리스도 교회와의 타협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 만국과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권만 인정해 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람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상의 이익과 영예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찬성과 지지를 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후에는 사단의 대표인 로마교의 감독에게 충성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쟁투, 50)

2. 참 교회로부터 분리

"로마교들은 신교도들에게 이단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고집스럽게 참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오히려 그들 자신들에게 해당된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군기(軍旗)를 버리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유 3)에서 떠난 자들이다." (쟁투, 51)

3. 사람들로 성경에 대해 무지하게 하였음

"사단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에는 성경 말씀으로 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단이 도전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대응하셨다. 사단의 모든 암시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왕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이와 같은 논리를 채택하였다. 수백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다. 절조 없는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였다. 그같이 하여 법왕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쟁투, 51)

안식일

4.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자 시도함

"오류(誤謬)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놓고 활약하였다. 예언은 법왕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단 7:25)라고 하였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다. 이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 그들의 명목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상(聖像)과 유물 숭배가 그리스도인 예배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총회의 교령(敎令)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제도를 확립시켰다(부록 3 참조). 로마교는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효를 맞추기 위하여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쟁투, 51-52)

5. 안식일을 변개코자 함

"이교에 양보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한층 더 무시하는 길을 열었다. 사단은 헌신하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넷째 계명에 손을 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온 그날을 축일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초기에는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았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참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돈독하였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으므로 율법의 신성성을 열렬하게 옹호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대단히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요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일로 삼았다. 그날에 종교적 행사들이 행해졌지만, 그날은 다만 오락일로 여겨졌을 뿐이며,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하게 준수되고 있었다.

사단은 자기가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모욕하였다. 일요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그는 유대교에 대한 증오감을 보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쟁투, 52-53)

6. 로마는 안식일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일요일을 로마제국 전체의 공적인 축일로 삼았다(부록 4 참조).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이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하고 있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충돌하는 이해(利害)를 연합시키는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다.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같은 날을 지킨다면 이교도들이 명목상으로라도 그리스도교를 채택하는 일이 촉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더할 것을 깨달은, 야망과 권력욕에 고무된 교회의 감독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어느 정도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주장하였고, 넷째 계명에 따라 그날을 지키고 있었다.

대기만자는 그의 일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교 세계를 자기의 깃발 아래 모으고, 자기의 대리자,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거만한 대감독을 통하여 자기의 권세를 발휘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교도들과 야심이 가득한 감독들과 세속적 욕망을 가진 교직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때때로 대규모 종교 회의들을 경영하여, 온 세계에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소집하였다. 거의 모든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조금씩 가치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일요일은 조금씩 높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교의 축제일은 신성한 제도인 듯이 높임을 받게 된 반면 성경상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날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로 공포되었다." (쟁투, 53)

7. 사단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가?

"이리하여 이 큰 배도자는 마침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살후 2:4)게 스스로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유일한 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로서 계시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되신다. 그리고 제칠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 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쟁투, 53-54)

8. 일요일을 지킴 - 법왕권의 시작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성경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의 제도로써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단서(端緖)는 이미 바울의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살후 2:7)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법왕권의 소생(所生)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쟁투, 54)

종교적 폭정

9. 1260년간 법왕권의 압력(박해)

"6세기에 법왕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좌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 주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계 13:2)를 주었다(부록 5 참조).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 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단 7:25; 계 13:5-7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拷問臺)와 화형(火刑)과 참형(斬刑)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

게 미움을 받을 것이'(눅 21:16, 17)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박해는 전에 없이 한층 더 격렬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므로 세상은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 12:6)고 예언하고 있다." (쟁투, 54-55)

10. 암흑 시대의 시작

"로마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권세가 더해 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기어 갔다.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과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그러므로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신에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임금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죄는 신성(神聖)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그런즉 성경이 금지를 당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법과 전설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므로 생기는 타락이 나타났다.

이 때는 그리스도교회가 위기에 놓인 시대였다. 충성된 기수(旗手)는 참으로 적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마는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승리하고 진정한 종교는 세상에서 제거될 것처럼 보였다. 복음은 잊혀진 바 되었고 종교의 형식은 증가되었으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혹한 요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쟁투, 55)

11.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행위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遺物禮拜), 교회당과 제단과 수도원의 건립(建立), 많은 돈의 헌납(獻納),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기나 한 것처럼. 비행(非行)은 온 사회에 퍼지되 심지어 로마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파급되었지마는 그 교회의 세력은 꾸준히 증가되는 듯하였다." (쟁투, 55-56)

12. 어떻게 해서 법왕 최상권이 성립되었는가?

"비행(非行)은 온 사회에 퍼지되 심지어 로마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파급되었지마는 그 교회의 세력은 꾸준히 증가되는 듯하였다. 8세기의 말엽에 법왕교도들은 초대의 교회에서도 로마의 감독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령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확실성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권위 있게 하기 위하여 무슨 방법이 사용되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시가 이미 주어져 있었다. 승려들은 고서(古書)들을 위조하였다. 초기부터 법왕은 전반적인 최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당시까지 전혀 듣지 못한 종

교 회의의 결의문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교회는 이 기만을 즐겨 받아들였다(부록 6 참조)." (쟁투, 56)

13. 소수의 신실한 건축공들

"참된 기초 위에서 일을 하던 소수의 신실한 건축가들은 거짓 교리가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느꼈다. 마치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쌓던 사람들처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느 4:10)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행되는 박해, 기만, 불법, 그 밖에 사단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장애물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피곤하여져서, 충성된 건축가들이었던 자들 중 더러는 낙담해 버렸다. 그들은 마침내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된 기초에서 물러갔다. 그러나 원수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 (느 4:14)라고 용감하게 외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막 13:37)고 말씀하신다." (쟁투, 56-57)

14. 우상숭배, 무지, 사악함이 유행함

"암흑은 점점 더 짙어지는 듯이 보였다. 우상 숭배는 더욱더 보편화되었다. 우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가장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풍습들이 널리 보급되었다. 사람들의 정신은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성(理性)은 그 기능을 잃은 듯하였다. 신부와 주교 자신들이 향락을 즐기고, 육욕적이며 타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들을 지도자로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무지와 악덕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쟁투, 57)

15. 법왕 그레고리 7세는 무엇이라고 까지 말하였는가?

"법왕의 참람된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1세기에 법왕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ous Ⅶ)는 로마교회가 완전하다고 선포하였다. 그의 주장 중의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장래에도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성경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거만한 법왕은 또한 황제들을 폐위시킬 권세가 자기에게 있노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선포한 선고는 아무도 이를 폐기(廢棄)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부록 7 참조)." (쟁투, 57)

16. 오만불손한 법왕과 온유하신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처럼 오만 불손한 법왕의 태도를 마음 문밖에 서서 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7)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태도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조적인가!" (쟁투, 58)

17. 연옥, 방종, 미사의 부조리와 오류

"그리하여 이교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이 들어올 길이 준비되었다. 로마는 그것을 연옥으로 명명하였으며, 쉽사리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이 이단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혼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곳, 그리고 거기서 모든 부정한 것이 씻겨졌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긍정되었다(부록 8 참조).

그 신자들의 공포심과 악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로마로 가능케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날조가 필요되었다. 그것은 곧 면죄(免罪)에 관한 교리였다. 법왕군(法王軍)에 속하여 그 영토를 넓히고, 교회의 적(敵)을 징벌하고, 법왕의 영적 최상권을 부인하는 자들을 박멸하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사유를 받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과 형벌에서 면죄된다고 약속되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을 내면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죽어서 연옥의 불에 빠져 있는 사별한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수단으로 로마교는 금고를 채우게 되었고, 머리 두실 곳도 없으시다고 하신 이를 대표한다는 자의 호사(豪奢)와 악행을 지탱해 주었다(부록 9 참조).

성경상 의식(儀式)인 주의 만찬도 미사라는 우상 숭배적 제도로 대치되었다. 로마교의 사제들은 그들의 무의미한 야단스런 의식을 통하여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冒瀆)하는 참람된 언행으로 그들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창조할 권능이 있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 아래서 하늘을 모독하는 끔찍한 이단을 믿노라고 고백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한 많은 사람들은 화형을 받았다(부록 10 참조)." (쟁투, 58-59)

18. 종교 재판이 성행함

"13세기에 법왕의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 즉 종교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흑암의 왕이 법왕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들의 비밀 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악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악적인 명령의 놀라운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무서운 행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큰 성 바벨론' 은 '성도들의 피에 취' 하였다. 여러 토막으로 잘리워진 수백만의 순교자들은 그 배교적 세력에 대하여 신원(伸寃)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쟁투, 59-60)

19. 법왕 세력의 전성기

"법왕은 전세계의 독재 군주가 되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법왕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인류의 운명은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모두 그의 관리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년 동안 로마교의 교리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그 의식들은 엄숙히 거행되고, 그 축제일들은 널리 준수되었다. 승려들도 존경을 받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아마 이 때처럼 로마교가 위엄과 세력을 편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부들에게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못하였다.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로마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 줄 빛을 싫어하였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자 그들은 권세를 한량없이 부리고, 온당치 않은 행동을 거침 없이 하였다. 사기, 탐욕, 방탕이 세상에 두루 퍼졌다.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는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았다. 법왕과 주교들의 저택들은 극히 비열 한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 어떤 현직 법왕과 주교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죄를 범하였으므로 세상의 통치자들도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극악 무도한 사

람으로 보고 교회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뜨리고자 노력한 일까지 있었다.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학문, 예술,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쟁투, 60)

20. 호세아의 말이 성취됨

"로마교의 권세 아래 있는 세계의 상태는 선지자 호세아의 말이 분명히 성취된 사실을 실증하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호 4:6, 1, 2).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이러하였다." (쟁투, 60)

기억할 말씀: "…어떠한 시대에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자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오직 하나인 지도 원리로 삼으며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쟁상, 99)

연구할 과제

1. "그리스도인의 피는 종자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라. (쟁상, 68–70)
2. 언제부터 법왕 권세가 교회에 들어 오도록 길이 마련되었는가? (쟁상, 81)
3. 그리스도교회에 하나의 저주가 된 것이 하나의 축복이 된 것처럼 환영되었는가? (쟁상, 82)
4. 예언의 영에 의해서 로마교의 감독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는가? (쟁상, 82)
5. 광야에서 유혹하던 사단이 사용하던 어떤 주장이 지금도 로마교를 통해서 강요되고 있는가? (쟁상, 83; 소망, 1권 159)
6.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쟁상, 83; 엡 5:23)
7. 요한 계시록 12:16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쟁상, 89)
8. 법왕의 무류설에 대해 의논해 보라. (쟁상, 93; 쟁하, 396)

참고 – 교회 역사책이나 백과 사전이 있으면 그레고리 7세와 피우스 4세에 대한 것과 무류설에 대해 찾아 보라.

제68과 첫째 천사의 기별 - 심판

성경절 연구: 계 14:6-7; 히 10:32-33

요점: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은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언상 연대의 기한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종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촉구하셨다. …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살아, 401)

예언의 신 연구

거대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남

1. 세계적인 기별이었음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 다른 여러 나라에 분산된 기독교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구세주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재림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 기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주의 깊게 들었다.

윌리암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미국에서 재림기별을 전할 사명이 맡겨졌고 그들이 높이 든 횃불은 먼 데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비추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선택받은 사람을 여러 번 방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예언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그의 총명을 열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진리의 사슬의 첫째 고리를 주셨으며 그것에 연결된 각 고리를 살펴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이와 찬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미와 영광으로 그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 중 다른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써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한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 (살아, 356-357)

2. 하나님께서 윌리암 밀러를 부르셨음

"윌리암 밀러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세상 거민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교회들이 타락하였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애정을 예수에게서 돌려 세상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대신 세속적 영광에 몰두해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대신에

세속적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위선과 흑암과 사망이 편만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이 속에서 격동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의 소와 전장(田莊)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윌리암 밀러에게 그의 농장을 버리라고 하셨다.

윌리암 밀러는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사건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1843년에 재림하실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은 널리 여러 사람의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은 예언적 기간에 대한 해석이 적확(適確)하다고 믿었으며 자기 주장을 버리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 어떤 교역자들은 저희의 교파적 관념과 감정을 버리고 저희의 교회와 봉급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는 무리와 연합하였다." (살아, 357-358)

3. 거대한 평신도들의 선교 활동(운동)

"그러나 재림기별을 받는 교역자 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별을 전할 책임은 대다수의 소박한 평신자들이 맡게 되었다. 농부들은 저희의 농장을, 직공은 저희의 연장을, 상인은 저희의 상품을, 지적 직업인들도 저희의 지위를 버리고 기별을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의 수효는 이루어야 할 사업에 비교하면 너무 적었다. 참된 파수꾼들은 경건하지 않은 교회와 죄악에 빠진 세상의 상태를 보고 크게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나 가난이나 고난이라도 달게 받았다. 사단의 반대를 겪으면서도 그 사업은 꾸준히 진전되어 수만명이 예수 재림의 진리를 믿게 되었다." (살아, 358)

4.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큰 감화(확신)을 주었음

"일반인들이나 교인을 막론하고 장래의 진노하심을 피하라고 죄인을 경고하는 엄숙한 기별을 어디서나 듣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처럼 재림운동에 참가한 전도자들도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였다. 재림기별을 전하는 교역자들의 감동적인 설교는 늘상 설교단에서 듣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보증과는 크게 대조되어 재림기별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성경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안전에서 각성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퇴보와 세속적인 상태와 불신과 그리고 오만함과 이기심을 보았다. 많은 사람이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속적 사물에 두었던 애착을 이제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부드럽고도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라는 기별을 외치는 일에 참가하였다." (살아, 358-359)

5.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외쳤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려고 힘썼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 주려고 애썼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저희 부모에게 돌이켜졌다. 교만과 진리에 대한 회피의 장벽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마음 깊이 죄를 자백하였고 집집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어디서나 심히 애통하며 하나

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혹은 이웃과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 열렬하고 결정적인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계속하여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들의 탄원을 속죄소로 상달시켰더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기도가 너무도 적고 죄에 대한 투쟁도 너무 적어 산 믿음의 부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인자하신 구주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살아, 359)

6. 많은 무리들은 숨을 죽이고 엄숙한 기별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었음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재림신도들의 회집에 참석하였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가 직접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듣기를 갈망하였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신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반대자들을 제지하고 계셨다. 어떤 때에는 기별을 전하는 그 도구가 보잘것 없었으나 성령께서 능력을 진리 위에 더하셨다. 회집마다 거룩한 천사가 참석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고 날마다 많은 사람이 재림신자의 수에 가담하였다. 곧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증이 반복되는 동안 많은 무리가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접근하는 것같이 보였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또는 중년에 이른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찬미를 부르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즐거운 찬송 소리는 고요한 밤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그 감동적인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살아, 359-360)

미국 밖에서 일어난 재림 운동

7. 세계적 대 선교사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

"1821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해석을 한 지 3년 후에 '세계의 선교사'라고 불리워지는 요셉 볼프가 주님의 재림이 절박함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볼프는 히브리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는 매우 어렸을 때에, 그의 집에 경건한 히브리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민족의 희망과 기대와 오실 메시야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렬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매우 재간 있는 한 유대인이었는데, 자칭 메시야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유대의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자유를 잃은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슬프다, 슬프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그 소년의 마음에는 갑자기 '아마 예수님도 한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이 죄없는 그분을 죽였나보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너무나 깊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 출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설교를 듣고자 하였다." (쟁투, 357)

8. 미국 국회에서 연설함

"1821년부터 1845년까지 24년간 볼프는 넓은 범위에 걸쳐 여행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아비시니아, 아시아의 팔레스틴, 시리아, 페르샤, 보카라, 인도 등의 여러 나라를 순력(巡歷)하였다. 그리고 그는 북미 합중국도 방문하였는데, 지나는 길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전도하였다. 그는 1837년 8월에 뉴욕 시에 도착하여 그 도시에서 설교하였다. 그 후에 다시 필라델피아 시와 볼티모어 시에서 설교하

고, 마지막으로 워싱턴 시에까지 갔다. 거기서 그는 말하였다. '한 의회에서 전 대통령 존 퀸시 애덤즈 씨가 제의한 동의에 의하여 내가 국회 의사당에서 강연을 하도록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어느 토요일에 전체 의원과 버어지니아의 감독과 성직자들과 워싱턴 시민들이 참석한 데서 강연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와 같은 영광은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나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 나는 아시아에서 한 나의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통치에 대하여 말하였다.'" (쟁투, 360-361)

9. 여러 가지 고난과 무수한 위험을 당하면서도...

"볼프 박사는 유럽의 어떤 권위의 보호도 받지 않고 많은 고난과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야만 나라들을 두루 다녔다.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주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 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도적들에게 포위당한 일도 있었고, 기갈로 거의 죽을뻔한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걸어서 산을 넘어 수백 마일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얼굴에 눈을 맞으면서 얼음으로 덮인 땅을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발이 감각을 잃게 된 일도 있었다.

야만인과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무장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장하였다.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로써 무장하였다.' 그는 '나는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갔다. 그 후에 그가 여행한 한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경을 펴 들었는데, 책속에 힘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이 그는 심판의 기별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상의 대부분에 전파되기까지 그의 활동을 중지하지 않았다. 유대인, 터키인 배화교도(拜火敎徒), 힌두교도, 그 밖의 여러 종족과 민족 사이에서 그는 그 지방들의 언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래지 아니하여 메시야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전파하였다." (쟁투, 361)

10. 스칸디나비아에서 아이들이 전도 설교를 함

"재림기별은 스칸디나비아에도 전파되어 큰 흥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국교회(國敎會)의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들이 투옥당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놓고 말할 수 있었다." (쟁투, 366)

11. 저들이 가진 재능 이상의 힘이 저들을 감동시켜 저들로 설교하게 함

"그 운동은 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척되었는데 경고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대개 노동자의 비천한 가정들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자들도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6세 내지 8세의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

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 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심판의 경고를 할 때에는 엄숙한 능력으로 하였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셨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연구를 다시 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고치는 한편 너무나 뚜렷한 업적들이 생기게 됨으로 국교회의 성직자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쟁투, 366-367)

12. 이 아이들을 예루살렘 마당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지른 아이들과 비교함

"구주의 재림기별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올리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분에게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므로 만일 그들이 잠잠할 것 같으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대답하셨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르자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그쳤다. 그 때에 그 성전 뜰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바로 어른들이 멈추었던 그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 호산나' (마 21:8-10)라고 부르짖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노하여 예수님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구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모든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쟁투, 367-368)

반대를 만남

13.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선포함

"많은 사람 즉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여 말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였다.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위선적인 목사들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외쳤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려 주는 징조와 예언상 연대가 마치는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재림하실 시간을 정하는 것만은 반대한다고 하였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충성되지 못한 종들로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행위를 조사하실 때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심히 기뻐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였다." (살아, 360-361)

14. 충성되지 못한 파숫군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함

"충성스럽지 못한 파수꾼이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방해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어 구원의 길을 탐구하게 되자 이런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여 그들의 두려움을 안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일에 사단과 헌신하지 못한 목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다른 사람도 방해하였다. 방해를 받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피는 방해한 사람이 자기 손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교회의 가장 겸손하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신앙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려는 성직자들의 노력에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은 곳과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재림의 교리를 성경과 비교만 하더라도 그 교리의 신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살아, 361)

15.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저희들의 형제들에 의해 핍박을 받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형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의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적지 않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출교를 당했다.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다음의 선지자의 기별이 매우 귀중하였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사 66:5)." (살아, 361-362)

16. 하나님의 천사들은 깊은 관심(흥미)을 가지고 주시했음

"하나님의 천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재림기별을 거절하자,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돌아섰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재림의 진리에 관하여 아직 시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속아 재림신자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믿게 되었다. 천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하는 다른 빛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362)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함

17. 저들은 고요하고 엄숙한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기다림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대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기대했던 시간이 당도하였다. 재림 신자들은 이 시간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맞이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 속에 평안히 지내며 찬란한 저 세상에서 누릴 평화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신뢰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이 기다림의 고귀한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 주일 동안

세속적 사무가 거의 전폐되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아무도 승천 예복을 만드는 이는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삼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살아, 362)

18.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실수를 덮어주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예언 연대 계산의 실수를 가리우셨다. 재림신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반대자의 가장 학식이 많은 자들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예언상 연대 계산법은 정확하다. 어떠한 큰 사건이 그 때에 일어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밀러가 예언한 대로는 아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종교적 각성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살아, 362-363)

19. 기대하던 시간이 지나침

"기다렸던 그 시간이 지나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지 않으셨다.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주께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다만 공포 이상의 더 고상한 동기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들이 고백한 신앙은 저희의 마음에나 생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자 자기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들의 슬픔을 최초로 조롱한 사람들이었다." (살아, 363)

20. 보이지 아니하는 휘장이 걷어질 수만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은 시험을 견디는 신실하면서도 실망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동정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누는 휘장을 걷을 수만 있었다면 천사들이 이 신실한 신자들 곁에 가까이 나아와서 사단의 화살을 막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살아, 363)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의 일군들을 가지고 계신다. 시대의 요청은 사람이 나타남으로 응답되었다." (6 증언, 332)

연구할 과제

1. 언제 '세상의 끝(말세)'이 시작되었는가? (쟁하, 89, 90)
2.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쟁하, 124)
3.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대한 임시가 있는가? (쟁하, 212)
4. 죠셉 월프는 어떻게 해서 참된 메시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쟁하, 92)
5. 죠셉 월프는 그 당시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말하였는가? (쟁하, 97)
6. 윌리암 밀러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특성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는가? (초기, 235)

7. 대 재림 운동에 있어서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쟁하, 108)
8. 1844년 봄에 당한 실망과 1844년 가을에 대한 실망과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실망을 서로 비교 연구해 보라. (초기, 242; 쟁하, 143, 160-163)
9. '승천할 예복'에 대해 토의해 보라. (쟁하 116)

제69과 둘째 천사의 기별 – 바벨론

성경절 연구: 계 14:8; 마 15:1-13

요점: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쟁투, 389)

예언의 신 연구

바벨론이 무너짐

1. 빛이 어떻게 해서 암흑이 되었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의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는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요, 이것을 멸시하고 거절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도리어 어두움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써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그칠 때 말씀을 듣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살아, 364)

2. 약 5만명이 바벨론(교회)에서 나왔음

"교회가 재림기별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을 때 주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 재림신자들은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약 5만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살아, 364-365)

3. 윌리암 밀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은 교회들을 분열시키거나 혹은 또다른 교

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기대도 하지 않았다. 윌리암 밀러는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중에 한 번이라도 그 당시에 있던 교파 외에 다른 교파를 세울 생각이나 기대가 없었다. 다른 교회에 손해를 입혀 가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교회에 한결같이 유익을 주고 싶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기뻐할 것이며 또한 나와 같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따로 집회할 필요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였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친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는 목적뿐이었다. 나의 수고를 통해 회개한 사람들은 여러 기성 교회에 입교하였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물어 볼 때에 나는 항상 그들이 좋게 생각하는 교회에 입교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다." (살아, 365)

4. 무엇 때문에 재림 신도들이 분리하였는가?

"얼마동안 많은 교회가 윌리암 밀러의 활동을 환영하였으나 재림의 진리를 배척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재림에 관한 모든 운동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큰 시련과 고통 속에 빠졌다. 그들은 저희가 속한 교회를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교회를 떠날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조롱과 학대를 받고 저희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특권조차 박탈당하며 예수 재림에 관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도 못하도록 금지당하게 되자 많은 신자들이 분기하여 저희를 얽매는 속박을 벗어버렸다.

재림신자들은 여러 교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배척한 것을 보면서 계속 그 교회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교회로 인정할 수 없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이 선포될 때 이 신자들은 전에 속했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살아, 365-366)

5. 진리를 거절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바 됨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했을 때로부터 여러 교회에는 서글픈 변화가 일어났다. 진리를 거절당하자 오류를 받아들여 소중히 여겨졌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차로 식어갔다. 교회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성령은 교회에서 거의 거두어진 바 되었다." (살아, 366)

기다리는 시간

6. 첫번째 실망

"1843년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그의 재림을 기다리던 신자들은 얼마동안 의심과 절망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낙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고 또한 더 확실한 빛을 위하여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였다.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상 근거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듯이 생각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그 사건이 임박했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었다. 신자들은 그들이 당한 실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던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살아, 366)

7.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간의 지연에 관한 성경 말씀을 직접으로 또는 설득력 있게 적용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큰 힘을 얻었다. 1842년에 하나님의 성령은 찰스 피취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언의 도표를 만들게 하셨으며 일반적으로 재림신자들은 이것을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신 명령이 성취된 것이라고 믿었다. 이 예언 가운데서 시간의 지연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었다. 실망 후에야 그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선지자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 2:2, 3)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실망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재림신자들이 바른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없었던들 그들의 믿음이 그 시련의 때에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살아, 366-367)

8.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 중에는 재림신자의 경험이 동방의 혼인 예식으로 설명되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는 운동은 곧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아가는 것에 해당되며, 또한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 재림하시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간 것과 실망 및 지체를 대표한다.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진실한 신자들은 전과 같이 합심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른 것'을 믿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처음에 가졌던 헌신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비유 중의 지체되는 동안 졸며 자는 처녀들로 표상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살아, 367)

9. 진리의 사업에 어떻게 하여 오욕(비난, 치욕)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즈음에 광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재림기별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안내자인 성경 말씀을 배척하고 자신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상상의 지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맹목적이고 완고(頑固)한 열심으로 자기의 행동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의 광신적 이상과 행동이 재림신도의 큰 무리로부터 동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 중 몇 사람은 진리의 사업에 크게 누를 끼쳤다.

1843년의 첫째 기별의 선포와 1844년의 밤중소리의 선포는 광신과 의견 차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마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으며 또한 머지않아 뵙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깊은 조화를 이뤘다. 한마음과 같은 소망은 그들로 모든 인간적 세력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해주었다." (살아, 367-368)

밤중 소리

10.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마 25:5-7)하였다.

1844년 여름에 재림신자들은 저희가 이전에 계산한 예언적 연대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바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재림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한 2천3백주야는 1844년 봄에 끝날 것이라고 믿어 왔었

으나 이제 그 기간이 그 해 가을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을에 주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게 되었다. 이 시기에 관한 기별의 선포는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는데 또 하나의 진전이 되었으며 이 비유가 재림신자의 경험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비유 가운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고 외친 것과 같이 그 성취에 있어서도 2천3백주야가 끝날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1844년 봄과, 나중에 2천3백주야의 참 마감 시기로 알려진 1844년 가을과의 중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성경 말씀과 똑같은 소리가 선포되었다." (살아, 369)

11. 재림 운동의 기별은 밀물과 같이 땅을 휩쓸었음

"재림운동은 밀물처럼 땅을 뒤덮었다. 그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또는 멀리 떨어진 산골까지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일깨웠다. 이처럼 기별이 선포되자 광신(狂信)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아래 아침 서리처럼 사라져 버렸다. 신자들은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살아, 369-370)

12. 이 운동의 성격(특성)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력을 벗어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극단적인 흥분이 재림기별을 전파하는 데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의 견책하는 기별을 좇아 자신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과 비슷한 성질의 기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임을 표시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별에는 들뜬 흥분은 없었으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고뇌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치지 않는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다.

성경의 증거가 명백하고 결정적이었지만 밤중소리는 논증으로 전파되지는 않았다. 마음을 감동시켜 추진시키는 능력이 수반되었다. 의심이나 의문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곳에서 모여든 백성들이 감람산에 운집하였고 그들은 예수를 호위하는 무리와 연합하여 그 순간의 영감에 따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9)라고 외쳤다. 마찬가지로 호기심에서나 혹은 단지 조롱하기 위하여 재림신자들의 회집에 모여들었던 불신자들은 '보라 신랑이로다'고 선포되는 기별의 능력에 감동되었다." (살아, 370)

13. 말할 수 없는 엄숙한 기쁨이 있었음

"그 때에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믿음-큰 상급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 있었다.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렸으며 미구에 저희 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숭고한 희열을 느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충성스럽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밀려왔다." (살아, 370-371)

14.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재림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저희 주를 만나기로 고대하는 시간을 맞이하였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을 저희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합하여져서 서로를 위

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하여 은밀한 곳에 모였고 기도 소리가 들과 숲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저희는 구주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매일의 양식보다도 더 귀하였으며, 만일 마음에 그늘이 덮여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느끼고 나서야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였다." (살아, 371)

실망은 당하였으나 버림은 당하지 않았음

15. 두번째 당한 실망

"그러나 그들은 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바라던 그 시간은 지나갔으나 구주께서는 오시지 않으셨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마리아가 구주의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울며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요 20:13)라고 부르짖던 때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살아, 371)

16. 비난하고 조소하면서 믿음을 부인함

"그 기별이 참될지도 모른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믿지 않는 세상을 잠시 동안 제어(制御)하고 있었다. 그 시간이 지나서도 이 제어하는 힘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실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감히 뻐기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방하며 조롱하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속히 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 온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신앙을 취소하였다. 매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존심이 받은 심한 상처 때문에 세상에서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남의 의견에 따라 산 사람들은 저희 견해를 바꾸려고 하였다. 조롱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우유 부단한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이끌어서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시간은 지나갔고 주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세상은 다시 여전히 수천년 지속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살아, 371-372)

17. 믿음과 인내에 대해 두려운 시험을 받음

"열성 있고 신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느꼈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다고 믿었고 또한 미구에 거룩하신 주님과 하늘 천사와 함께 사귈 줄로 기대하여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절교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지 않은 것이다. 이제 생애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세상의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무서운 시련이었다.

그러나 이 실망도 제자들이 예수의 초림시에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곧 다윗의 왕좌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저희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실 줄로 믿었다. 높은 기대와 예상되는 기쁨으로 그들은 다투어 저희 왕께 영광을 돌렸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저희 옷을 양탄자처럼 펴 놓았고 혹은 잎사귀가 무성한 종려(棕櫚)나무 가지를 뿌렸다. 열광적인 환희로 연합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다." (살아, 372-373)

18. 제자들이 경험한 쓰라린 실망

"사람들이 기뻐 외치는 소리에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고 성이 나서 예수와 제자

들을 책망하자 예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고 대답하셨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으면서도 쓰라린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예수의 고통스런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을 무덤에 장사해야만 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저희의 희망은 예수와 함께 죽어 버렸다. 주께서 승리하여 무덤에서 나오시기까지 그들은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행 17:3)이라는 예언을 깨닫지 못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정한 시간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신 사업을 성취하였다." (살아, 373)

19.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재림 신자들이 있었음

"세상은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혹한 시험 속에서 저희 믿음을 버렸으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몇 사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예언적 기간 계산에서 아무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아무리 유능한 반대자라도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고대하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살아, 373)

20.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미 받은 빛을 경솔하게 버리지 않고 재림운동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 사도 바울은 각 시대를 내려다보면서 이 위기 속에서 시련을 당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5-39).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사랑하며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하며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리는 것이었다." (살아, 373-374)

기억할 말씀: "...여기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Babel)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혼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은 성경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쟁하, 128)

연구할 과제

1.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라. (쟁하, 128-131)
2.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으로 전파된 때는 언제인가? (쟁하, 139)
3.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느 정도로 성취되었는가? (쟁하, 139-140)
4. 고대 성소 봉사에서 7월에 행하여졌던 어떤 행사가 1844년에 일어났던 운

동을 지적하고 있는가? (쟁하, 155-156)
5. 밤중에 있었던 비유(열 처녀의 비유)를 말로써 묘사해 보라. (실물, 427-429)
6. 엘렌 하몬의 첫 계시에 나타난 밤중 소리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초기, 14-15)
7.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밤중 소리가 주어진 두 이유를 말해 보라. (초기, 244; 266 중간에서부터 - 267 중간까지)
8. 첫째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초기, 245)
9. 인내하면서 보다 분명한 빛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두번째 목적을 어떻게 인정(인식)하게 되었는가? (쟁하, 196)
10. 어떤 성경 말씀이 실망당한 믿는 신자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는가? (쟁하, 167-168)

제70과 성소란 무엇인가?

성경절 연구: 단 8:14, 9:24-27

요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성소의 본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본형을 본따 지은 것이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의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와 및 분향단과 그 외에 성전 봉사를 위하여 사용할 기구들은 또한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것이다…." (살아 424)

예언의 신 연구

저들의 잘못된 점(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함

1. 다니엘 8:14절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것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단 8:14)고 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어 왔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어처럼 되풀이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림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쟁투, 409)

2. 2300년을 세분함

"이 결론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일찍이 그들이 산출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기간을 부인하게 되었다. 이천삼백 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重建)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는다. 이천삼백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야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다. 그런데 기원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 주일의 중간에 메시야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가 서기 34년이었다. 이로써 2300년의 첫째 부분인 490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

을 입으리라'고 하였다. 그 예언 중에 밝히 기록된 모든 사건은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없이 다 성취되었다." (쟁투, 410)

3. 저들의 잘못된 점을 알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함

"이 계산에 의하면, 1844년에 이루어진 성소의 정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밝히 알 수 없는 것 외에는 모든 점이 다 명백하고 잘 조화되었다. 그런데 1844년에 이천삼백 주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고 이미 예언의 성취로 확인된 증거까지도 무시되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 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 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천삼백 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쟁투, 410-411)

4. 저들이 광야에 모세가 세운 성소에 대해 읽고 연구했음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곧 그 본질과 위치와 봉사 등에 관한 설명이 너무도 충분하고 명백하게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증가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바울은 성소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히 9:1-5)." (쟁투, 411)

5. 솔로몬의 성전이 광야의 성막(성소)을 대신함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 건축은 영구적이고 그 규모도 굉장하였으나 각 부분은 성막과 같은 비례로 지었고, 그 안에는 같은 기구들을 두었다. 그리하여 성소는 다니엘의 시대에 한 번 파괴된일 외에 서기 70년에 로마군에게 파괴되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상은 성경이 말해 주는 지상에 존재한 유일의 성소이다. 그것을 바울은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어떠한 것인가?" (쟁투, 412-413)

진리가 발견됨

6. 새 언약의 성소가 발견됨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히브리서를 다시 펴보았을 때 그들은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에도'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이 이 성소에 대하여 이미 말했음을 암시해 준다. 그 전장(前章)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한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히 8:1, 2).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쟁투, 413)

7. 요한이 하늘의 성소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보도록 허락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일곱 등불 켠 것'(계 4:5)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계 8:3) 놓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곱 등불 켠 것'과 향단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지상 성소에서 금등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들이었다.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계 11:19)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 때에 휘장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하여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로 대표된 언약궤를 보았다." (쟁투, 414-415)

8.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 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이다." (쟁투, 415)

9. 인간을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순(나무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다. 그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아버지의) 위(位)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슥 6:12, 13)고 말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잇 돌'이라고 지적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한다.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0-22)고 한다.

'영광도 얻'으리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 … 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 1:5, 6)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아직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영광의 위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한 그 나라이다(눅 1:32, 33).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계 3:21참조).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사 53:4; 히 4:15, 2:18; 요일 2:1).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쟁투, 415-416)

10. 성소는 무엇인가?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이다.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쟁투, 417)

지상 성소의 봉사

11. 가장 중요한 의문이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 있음

"그러나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해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구약 성경은 지상 성소와 관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가 있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서 9장에는 지상성소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준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 9:22, 23). 좋은 제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

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 사실은 표상적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 직분을 행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 8:5)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쟁투, 417-418)

12. 매일의 봉사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레 10:17)고 한 지시대로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었다. 그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일 년 내내 매일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한 단을 위하여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라고 하였다.(레 16:16, 19)" (쟁투, 418-419)

13. 대속죄일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일 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레 16:8)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져야 하였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 16:21, 22). 아사셀은 다시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것을 끌고 간 사람은 그 의복을 빨고 목욕한 후에야 장막으로 돌아왔다." (쟁투, 419)

14.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

"그 모든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죄와 접촉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속죄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하였다. 그날에 모든 사람은 일을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쟁투, 419-420)

15. 백성이 죄에서 놓이게 될 때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열납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써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쟁투, 420)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16. 첫째 칸에서의 봉사

"이상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행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지상 성소에서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앞에 나타나시고' (히 9:24)라 말한다.

성소와 성막 뜰을 갈라 놓고 문의 역할을 했던 '휘장 안', 곧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일 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을 피우는 것은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탄원하며, 회개한 신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귀중한 의의 향기와 함께 그분 앞에 드리신다. 그와 같은 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는 봉사 사업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거기 집중시켰다. 그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6:19, 20, 9:12)." (쟁투, 420-421)

17. 주께서 그곳에서 18세기(1800년) 동안 봉사하심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

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가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쟁투, 421)

18.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 - 심판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계 22:12참조)." (쟁투, 421-422)

19. 1844년 10월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쟁투, 422)

20. 아사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동시에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효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쟁투, 422)

기억할 말씀: "…원래 성경에 기록된 성소라는 말은 첫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모본으로 만든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로는 지상의 성소가 나타내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쟁하, 182)

연구할 과제

1.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재림 신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려 하였는가? (쟁하, 171)
2. 모세가 지은 성소에 대해 설명해 보자. (쟁하, 174-175)
3. 출애굽기 25:9절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라. (쟁하, 176)
4. 쉐키나(Shekinah)는 무엇인가? (쟁하, 178)
5.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비교해 보라. (쟁하, 178)
6.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진리를 증거한 세 사람을 들어 보라. (쟁하, 179)
7. 아세셀은 무엇이었는가? (레 16:8)
8.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누가 지는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라.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자는 (The Sanctuary Service - by M.L. Andreasen, Chapter 'The Scapagoat')를 보라.
9.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을 마지막 투쟁에 대해 얼마나 자주 가르쳤는가? (부조 상권, 470, 471)

제71과 지성소에서

성경절 연구: 계 21:2, 9, 10

요점: "구약 당시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죄는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성소로 옮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과 같이 하늘성소의 정결은 거기의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다" (살아, 425)

예언의 신 연구

주님께서 그의 성소에 오심

1. 완전하며 조화되는 진리의 제도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에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뵈옵게 되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착오없는 섭리로써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별을 모든면에서 정확하게 전하였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쟁투, 423)

2. 착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착오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

여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쟁투, 423-424)

3.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오셨음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 이상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라고 하였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 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 3:1).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 (살후 1:7, 8) 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기대하고 있었다." (쟁투, 424)

4. 또 하나의 경고의 기별을 증거하여야 하였음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쟁투, 424-425)

5. 중보자 없이 서야 함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 3:2, 3)고 말한다. 하늘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쟁투, 425)

6.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말 3:4)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 (엡

5:27)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때에 교회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아 6:10)가 있을 것이다." (쟁투, 425)

7. 말라기는 두번 임하실 것에 대해 예언함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일 외에, 또한 그분의 재림, 곧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일을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말 3:5). 유다도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유 14, 15)고 말한다. 이러한 임하심과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쟁투, 425-426)

열 처녀의 비유

8.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감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실물, 408)

9. 저들 스스로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음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시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눅 12:36)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쟁투, 427)

10.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음

"비유에 의하면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

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쟁투, 427-428)

11.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된 처녀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 되고 만다.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겔 33:31).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실물, 411)

12.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부족을 채워 달라고 함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 22:17)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4:20)." (실물, 411-412)

13. 보라 신랑이로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간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

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실물, 412)

열린 문과 닫힌 문

14. 마태복음 22:1-14절에 나오는 조사 심판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마 22:11; 계 7:14 참조).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마는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쟁투, 428)

15. 언제 자비의 문이 닫힐 것인가?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결정되면, 바로 그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 25:10)고 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 되어 있다." (쟁투, 428)

16. 봉사의 종류(형태)가 바뀜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지상성소의 봉사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는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 (레 16:17)라고 명령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첫째 칸의 봉사는 마쳐졌다. 곧 첫째칸의 봉사가 그쳤을 때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다. 모형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떠나갔을 때 그는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히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쟁투, 428-429)

17. 유대인에게 어떻게 해서 문이 닫혀 졌는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준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 3:7, 8)고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 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당신의 중보사업의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과 그 밖의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의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 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쟁투, 430)

18.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식을 자원함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긴요한 일인가!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써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무사할 수는 없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 여하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다. 경고를 거절하였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 많은 인류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은혜는 소돔의 흉악한 주민들을 위하여 더 이상 간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시의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 23:38)고 선언하였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 할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0-12)고 선언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가운데 버려 두신다." (쟁투, 430-431)

19. 빛을 찾는 자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므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재림신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후에 그들의 참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 주는 성경 구절들이 그들 앞에 전개됨에 따라 그것이 분명하여졌다." (쟁투, 431)

20. 저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대제사장을 따라 갔는가?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재림의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하였다. 그들의 진정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일에 관한한 그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준 빛

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계산에 대한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재림운동에 수반되었던 성령의 큰 능력을 인간 혹은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 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 졌다." (쟁투, 431-432)

기억할 말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에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되리니 그 때에심령의 부족을 보충하기에는 때는 이미 늦게 되리라.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실물 433)

연구할 과제

1. 1844년에 경험한 실망의 신비를 여는(푸는) 열쇠가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2. 다니엘에게 보이신 성소 정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쟁하, 195)
3.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계 19:7; 쟁하, 195)
4. '어린 양의 신부(아내)'는 누구인가? (계 21:9,19; 쟁하, 195)
5.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된 것들을 찾아 보라. (고후 11:2; 엡 5:23-32; 렘 2:32, 3:1, 12; 31:32)
6. 슬기로운 처녀로 대표된 자들은 누구인가? (쟁하, 196; 마 25:4)
7.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실물, 439, 144)
8.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둘째 칸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두 칸 모두에서 이루어졌는가? (쟁하, 199)
9. 마태복음 22장 1-14절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잔치에 처음 초청을 받은 것, 두번째로 초청을받은 것, 세번째로 초청을 받은 것은 각각 무엇을 대표하는가? (실물, 320-325)

제72과 셋째 천사의 기별 - 안식일

성경절 연구: 계 11:18, 19; 14:9-12

요점: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쟁투, 449)

예언의 신 연구

언약궤와 안식일

1. 하나님의 언약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 … 더라' (계 11:19).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궤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쟁투, 433-434)

2. 하늘 성소 안에 있는원본 - 십계명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명령의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일점일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다. 시편기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

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시 119:89, 111:7, 8)." (쟁투, 434)

3. 그 축복은 결코 옮겨지지 않았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하므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처음에 제칠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다." (쟁투, 434-435)

4. 빛이 열린 문에서부터 비쳤음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과격한 일들이 생겼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寫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 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계 3:7)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 3:8)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곧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여 주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이 보여진 바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었다." (쟁투, 435)

5. 삼중 경고의 기별은 계속 되었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章)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부록 32 참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 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

곧 …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롬 2:12-16)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 11:6), '범사에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 (롬 14:23)이기 때문이다." (쟁투, 435-436)

6.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무리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무섭게 경고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계 14:9, 10) 라.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용된 표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것이 요긴한 일이다. 짐승, 우상, 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쟁투, 438)

7. 요한 계시록 12장에 언급한 용

"이 여러 표상들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단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계 12:9 참조). 사단은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단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쟁투, 438)

8. 요한 계시록 13장에 언급한 표범 같은 짐승

"13장 1-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위와 권세를 계승한 법왕권을 대표한다. 표범과 비슷한 이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같은 이 예언은 틀림없이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말한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 라고 하였다. 마흔 두 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삼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 이다. 그 기간은 전장(前章)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쟁투, 438-439)

9. 요한 계시록 13장에 언급한 두 뿔 가진 짐승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선지자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 (계 13:11)다고 말한다. 그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

력들과는 같지 않다.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 (단 7:2) 때에 올라오는 맹수들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천사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계 17:15)고 설명하였다. 바람은 전쟁을 표상한다. 그리고 네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 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을 표상한다." (쟁투, 439-440)

10. 땅에서 올라 오니...

"그러나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서반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역사가와 평론가들은 이 나라의 기원과 성장을 묘사할 때 무의식중에 이 성경 기자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해서 사용하였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자들이 여기에서 사용한 말을 풀이한 데 의하면 이 '올라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나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일찍이 어떤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어떤 유명한 저술가는 북미 합중국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빈터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 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소리없는 종자와 같이 자라나서 큰 나라가 되었다' 고 말한다. 1850년에 유럽의 한 잡지는 합중국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세력과 힘을 첨가시키고 있다' 고하였다. 에드워드 에베레트는 그 나라의 설립자들인 필그림에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라이든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 남이 모르는 궁벽한 곳,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보라, 평화롭게 정복한 그 광대한 지역을, 그들은 거기다가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던 것이다.'" (쟁투, 440-441)

11. 공화 정치와 프로테스탄트 주의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 주는 독립 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치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다. 공화 정체와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의 가장 강

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 (쟁투, 441)

12.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나 이 새끼양과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계 13:11-14) 고 한다." (쟁투, 441-442)

13. 어떻게 용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인가?

"새끼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國是)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정부의 원칙과 자유 제도의 정신과 또한 엄숙하고 명백한 독립 선언과 헌법에 배치되는 일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의 일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현명하게 노력하였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생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국권으로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안전책을 무시하고 유린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 표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순이 나타나 있다. 이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곧 순결하고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이 실상은 용처럼 말한다." (쟁투, 442)

하나님의 법과 특징

14. 짐승의 독특한 특징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단 7:25)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준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법왕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다.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제하여 버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제칠일 대신에 제일일의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고쳐 버렸다. 그러나 법왕교도들은 둘째 계명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첫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자 원하시는 그대로 율법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획적이요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넷째 계명의 변경은 바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이다. 이 점에서 법왕의 권세는 그 자신을 하나님보다 공공연하게 더 높이고 있다." (쟁투, 446)

15.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써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함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법왕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거만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일요일을 위함이었고(부록 33 참조), 또한 국가의 권력에 의뢰한 것도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주일이라고 한 것은 제칠일을 가리킨 것이요, 제일일을 가리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넷째 계명에는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날을 '내 성일'이라고 하신다(막 2:28; 사 58:3)." (쟁투, 446-447)

16.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셨는가?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신 것처럼 흔히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의 그릇됨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으로 증명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7-19).

안식일의 변경에 관하여 성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일반적으로 시인하는 사실이다. 미국 전도 문서 협회와 미국 주일 학교 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들에는 그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 중의 한책은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 말하였다.

또 다른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 가시기까지는 그날(안식일을 가리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칠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 (쟁투, 447)

17. 천주교에서도 이 일을 인정함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주교 교리 문답' (Catho1icCatechism of Christian Religion) 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칠일이 아닌 제일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쟁투, 447-448)

18.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 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쟁투, 448)

19.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두려운 경고 - 셋째 천사의 기별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다.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쟁투, 449-450)

20. 그리스도교국은 나누어질 것임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계 13:16)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밧모 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계 15:2, 3)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쟁투, 450)

기억할 말씀: "주께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기별(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을 최상의 것이 되도록 고안하신다." (6 증언, 11)

연구할 과제

1.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현 시대를 위한 기별은 어떤 것인가? (8 증언, 197)
2. 셋째 찬사의 기별을 전하게 한 사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별은 언제 마쳐질 것인가? (초기, 260; 쟁하, 467)
3.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된다고 하였는가? (초기, 262)
4. 윌리암 밀러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라. (초기, 263-264)
5.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떤 진리만큼은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하였는가? (4증언, 595)
6. '짐승의 형상(우상)'은 무엇인가? (쟁하, 218-219)

7.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계 13:17, 18; 쟁하, 226, 455; 8 증언, 159)
8.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쟁하 226)
9.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에 속한 일인가? (쟁하 228)
10. 얼마나 광범위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쟁하 228)

제73과 개혁 사업

성경절 연구: 출 20:8-11; 사 58:1, 2, 12-14

요점: "…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 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계 1:9)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쟁투, 78)

예언의 신 연구

안식일 개혁

1. 마지막 시대에서의 안식일 개혁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 (사 56:1, 2, 6, 7)라.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사 56:8).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쟁투, 451)

2.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사 8:16)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십계명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계명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왕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印)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착오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사 8:20)리라고 말한다." (쟁투, 451-452)

3. 크게 외치라 ! 아끼지 말라!

"'또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허물에 대하여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겨'(사 58:1, 2)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 같은 한 단체가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당신의 계명을 유린하고 있는 자라고 단호하고도 엄숙한 견책을 하신다." (쟁투, 452)

4. 안식일이 로마에 의해 변경되었음

"선지자는 또한 오랫동안 버려 두었던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사 58:12-14).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교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쟁투, 452-453)

매 시대에 신실한 사람들이 살았음

5.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림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어덴에서 죄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그날을 지켰다. 택한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주위에 편만한 우상 숭배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여 내실 때 그분께서는 집결되어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고 영원히 당신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시고자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쟁투, 453)

6. 매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음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지켜져 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일을 유린하는데 성공하였을지라도 그의 최상권의 시대에 있어서까지도 은밀한 장소에 숨

어서 성일을 거룩히 지킨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 개혁 시대 이래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날을 지키는 어느정도의 무리가 반드시 있었다. 때때로 박해와 조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창조의 안식일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항상 증거되어 왔다." (쟁투, 453)

진리를 설교하므로 반대를 만남

7.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특징지어질 것인가?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쟁투, 453-454)

8.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에 희생이 따름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귀중하게 보였던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즐거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섰다." (쟁투, 454)

9.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달고 변명하였는가?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칠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하여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와 같은 이론은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임이 입증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에 확립된 교회 전반의 관습이요 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더욱 널리 보급되었던 일이며, 세상 그 자체 만큼 오래된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같이 인정한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그 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욥 38:6, 7; 창 2:1-3 참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제정되거나 사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쟁투, 454-455)

10. 인기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함

"사람들의 주의가 안식일 개혁 문제로 쏠리게 되자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의 증언을 해석하였다. 그러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 궤변, 교부들의 유전, 교회의 권위 등으로 그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자들의 공격을 대항하였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들의 웅변적인 궤변을 가지고서는 학계의 교묘한 이론보다는 성경에 정통한 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논증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 경탄해 마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투, 455)

11. 겸손과 순종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듦

"사람들의 주의가 안식일 개혁 문제로 쏠리게 되자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의 증언을 해석하였다. 그러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론, 궤변, 교부들의 유전, 교회의 권위 등으로 그 진리를 뒤집어 버리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진실성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학자들의 공격을 대항하였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들의 웅변적인 궤변을 가지고서는 학계의 교묘한 이론보다는 성경에 정통한 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논증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고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 경탄해 마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완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왜 우리 편의 큰 인물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르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투, 455)

재림 운동을 전개한 자들이 한 경험

12. 재림의 시간을 정함

"그런데 재림신자들의 대다수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재림운동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예언에 대하여 근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모순되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일을 거듭해서 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제 성소 문제를 비추어 주고 있는 빛이 예수님의 재림때까지 미치는 예언적 기간은 전혀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한 정확한 시일도 예언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계속해서 정하였으며 그 때마다 그들은 거듭거듭 실망을 당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견해를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엄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하였

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 주는 예언들을 인용하여 그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 주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살후 2:3)는 말씀이 그의 경고였다. 만일 그들이 성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그릇된 데로 이끌려가게 되고, 실망으로 불신자들의 조소를 사게 되고 낙담하는 위험에 빠져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진리까지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준 사도의 권고에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재림신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분명한 시간에 그들의 신앙을 두지 아니하면 준비하는 일에 열렬해지거나 부지런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아무리 여러 번 생겨날지라도 그 때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언의 큰 진리를 거의 깨달을 수 없으리 만큼 타격을 받게 된다." (쟁투, 456-457)

13. 고대 이스라엘과 재림 운동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좋은 실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신뢰했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쟁투, 457-458)

14.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지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라셨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히 3:19)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써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쟁투, 458)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심

15.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하게 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음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20).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

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써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없이 믿어 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 주고 있다." (쟁투, 458-459)

16.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의무(책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회피하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초기의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도와 순교자들이 한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결과 확고한 충성의 산 모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왔다. 그들은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밝혀 주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종들에게도 빛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것이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퍅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겔 3:7)고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겔 2:7)고 말씀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에게는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겔 33:7-9)." (쟁투, 459-460)

17. 진리가 일반화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데 다 같이 큰 장애가 있는 까닭은 진리는 불리한 것과 조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의 옹호자들이 결코 논박할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한 유일한 반대 논증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리가 인기를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고후 4:17) 하는 줄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성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히 11:26) 여기게 된다." (쟁투, 460)

18. 큰 개혁은 주의와 신앙과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짐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智略)으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척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 51:7, 8)." (쟁투, 460)

19.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현세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렵지만 그분의 귀중한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흩어지고 찢긴 예수님의 양 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세에서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멀지 않아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풍부한 보상을 받아 새로운 왕국을 영영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다." (초기, 47)

20. 우리는 낮 동안에 일하여야 한다.

"오. 재림 교우들이여!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질서정연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들임을 보여주자! 우리는 낮동안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 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 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 (초기, 47-48)

기억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십계명 중 다만 이 넷째 계명에만 율법을 반포한 자의 이름과 칭호가 밝히 드러났다. …" (쟁하, 232)

연구할 과제

1.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쟁하, 232; 505; 6 증언, 350)

2.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주신 바 된 마지막 기별은 무엇인가? (쟁하, 234)
3. 언제 안식일의 기초가 놓여졌는가? (쟁하, 236)
4. 누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선지, 647)
5. 누구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인가? (쟁하, 238)
6.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거짓된 평온함으로 이끌게 할 것인가? (쟁하, 240)
7. 저들이 어떻게 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쟁하, 241)
8.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기가 접근해 오고 있는가? (쟁하, 242)
9.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악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쟁하, 243)
10.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이 결코 피해본 일은 없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논쟁점)은 무엇인가? (쟁하, 244)

제74과 조사심판

성경절 연구: 단 7:9, 10, 13, 14; 계 20:12

요점: "하늘 조정에서 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르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실물, 322)

예언의 신 연구

심판이 진행됨

1. 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심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90:2)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천 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법정에 열석하게 된다." (쟁투, 479)

2. 인간을 위해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위(봉사)

"'내가 … 보았는데 인자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 14).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 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 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쟁투, 479-480)

3. 하늘에 있는 기록책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라고 말

한다.

생명 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 12:1)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 책에 기록된 자들'(계 21:27)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말 3:16) 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느 13:14)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 56:8)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 37)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전 4:5)기 때문이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사 65:6, 7)라."(쟁투, 480-481)

4.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는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진다."(쟁투, 481-482)

5. 심판정에서 사용하는 법(표준)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 14)고 말한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2)고 권면한다."(쟁투, 482)

6.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심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눅 20:35, 36)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 나오리라'(요 5:29)고 말씀하신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9:24, 7:25)." (쟁투, 482)

7. 모든 사건들을 하나씩 철저히 조사함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가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출 32:33)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겔 18:24)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누구든지 사람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 33)." (쟁투, 482-483)

틀림이 없는 기록을 근거하여 결정(심판)을 내림

8. 죄 사하는 일이 재림 이전에 있어야 함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審理)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행 3:19, 20)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쟁투, 485)

9. 죄는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지워짐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審理)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행 3:19, 20)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쟁투, 485)

10.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정확한 기록들을 가지고 계심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쟁투, 486)

11. 한번 행한 행동은 결코 취소할 수 없음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의 양(量)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쟁투, 486-487)

12. 모든 일과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예술가의 광택 낸 감광판에 얼굴의 모양이 틀림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쟁투, 487)

13. 사랑으로 한 행동만이 그 가치가 인정됨

"심판 때에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빌려 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을 이자와 함께 받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능력을 손과 마

음과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용하였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감화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로써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납되고 보상을 받는다." (쟁투, 487)

14.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명상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기주의가 하늘책들에는 나타나게 된다. 거기는 동료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주었는지에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이 몸차림과 방종에 희생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쟁투, 487-488)

'깨어 있으라'

15.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간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 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 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긴요하다." (쟁투, 488)

16. 인류를 위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

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쟁투, 488-489)

17.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조사하심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쟁투, 489-490)

18. 생명과 사망의 운명이 모두 결정됨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막 13:33).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전에 마쳐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 12)." (쟁투, 490-491)

19. 심고, 짓고, 먹고, 마시는 일이 계속될 것임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9)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

이다." (쟁투, 491)

20. 그러므로 깨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막 13:35, 36)).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단 5:27) 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쟁투, 491)

기억할 말씀: "…지금 심판은 위에 있는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하여 왔으니 얼마나 속히 현재 살아 있는 자들의 차례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연구할 과제

1. 다니엘 7:13,14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의 어떤 오심을 말한 것인가? (쟁하, 273)
2. 조사심판 때에 고려하는 것은 어떤 경우들 뿐인가? (쟁하, 274)
3. 그리스도께서 심판정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쟁하, 279)
4. 사단이 사람들의 무엇을 지적하면서 저들이 자기(사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쟁하, 279)
5. 죄로 인해 생애의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쟁하, 280)
6. 레위기 16:22절에 나오는 상징에 대해 설명해 보라. (쟁하, 281)
7.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죄를 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초기, 287)
8. 조사 심판이 시작된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쟁하, 282)
9. 하늘 성소에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과 갈바리에서 우리를 운명하신 그 가치를 서로 비교해 보라. (쟁하, 286)
10.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기 위해 무엇을 들먹이는가? (쟁하, 286)

제 10 장

일하는 나의 교회

제75과 이웃 전도

성경절 연구: 마 20:1-7

요점: "교회의 교인들은 저들의 주위에 있는 집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대들 주위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고, 동정과 친절을 다하여 저들의 마음을 접촉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문하고 저들에게 친절과 관심을 표명하라….영원만이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원대하게 미치는 지에 대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구호, 70)

예언의 신 연구

모든 가정들을 방문하라

1.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일들이 있음

"**우리 교회앞에 놓여 있는 큰 일** –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는 이들이 없다. … 추수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들을 자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곡식단들이 거두어 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응당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일들을 하는 일들로 그냥 남아 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상한 심령을 감싸 주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회복하는 일은 고통 가운데 있어 필요를 느끼는 인류를 위해 이행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자비만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얼굴에 나타나는 해맑은 표정, 희망을 던져주는 말, 붙잡아 주는 그대의 손을 또한 요청하신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라. 어떤 이들은 병들어 있고, 어떤 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태양빛을 비추어 주라. 용기를 잃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저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 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다. 어떤 영혼들은 병들어 낫고자 하나 낫게 할 향유에 미칠 수 없고 낫게 할 수 있는 약도 없다.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데리고 오라. 그대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시기 위해 그곳에 임석하실 것이다." (구호, 71)

2.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라.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라** — 교회가 설립된 곳에는 어디에서나,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 온 자들이 처음에 그들의 이름이 교회 녹명책에 기록될 때부터 이 일에 종사해 왔을 것 같으면, 오늘날 이처럼 널리 번져 있는 불신과, 이처럼 깊이 뿌리박힌 범죄와, 이처럼 비할 데 없는 사악은 없었을 것이다. 만일에 모든 교인이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을 것 같으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일하기를 등한히 한 결과를 세상에서만 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등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고상하고 거룩한 관심을 침해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 초래되었다. 비평하는 가혹한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 식별력이 흐려졌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업은 큰 손실을 당했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려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분별하지 못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과 심령을 합하여,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고 교화 시키는데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구호, 71-72)

3.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함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어느 곳에나 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타락한 자, 부절제로 타락한 자들에게로 접근해 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 목사, 국회의원, 재판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절제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야 하고, 영생은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구호, 73)

4. 사랑과 동정으로서 진리의 기별을 제시함

"**각기 다른 분야의 봉사에 부름을 받음** —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각기 다른 분야의 선교사업을 담당하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의 적은 한 부분만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 또한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친절로써 감화를 끼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봉사의 기회가 하나라도 이용되지 못한 채 놓쳐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교 사업이다. 집집을 찾아 다니면서 사랑과 동정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처음 선교여행에 보내시면서 지시하신 교훈과 일치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도움 — 예수님께서 성 읍과 동네를 지나실 때에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것이다. 우리는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 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구호, 73-74)

5. 햇빛 반을 조직하여 일하라!

"**햇빛 반** — 노래로 하는 봉사사업에 능력이 따른다. 아름답고 분명한 곡조로써 찬미를 부를 줄 아는 학생들은 노래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싸여있는 장소에 아름다운 노래와 밝은 햇빛을 전해 주며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자들에게 노래를 불러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여, 큰 길과 벽촌으로 나가라. 낮고 높은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힘쓰라. 가난하거나 부한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는 대로 '우리가 찬미 좀 불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 보라. 그런 후에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을 때에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봉사가 참 선교 사업인 것이다. (구호, 75)

6. 우리가 휴일에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공휴일은 주님을 위해 심부름하는 날로 삼으라** —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붙잡을 수 없고, 믿음을 활용할 수도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절망적인 어떤 이들에게 빛과 귀중한 위로의 동료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심부름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해야 한다. 그들의 직업이 일요일과 공휴일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이면, 그들은 휴일을 그들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 그대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말을 하도록 할 것이다. 영감 받은 사도의 말에 유의해 보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산 원칙이 실천됨으로 그대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매일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업을 위하여 전 시간을 바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인 사업에 바칠 수 있는 공휴일과 여가가 있으며, 만일 그들이 지나치게 인색하지만 않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구호, 76)

7. 안식일에 방문하는 일

"**안식일의 구호 봉사** — 넷째 계명에 의하여, 안식일은 휴식과 종교적 예배에 바쳐져 있다. 세속적인 모든 일은 중지되어야 하지만,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런 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괴로워하는 자를 구제해 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일을 존중히 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구호, 76-77)

8. 영혼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함

"**우리에게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 우리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가야 한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일이 겨우 시작된 데 불과하다. 복음을 이 쪽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복음에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 실물, 230, 231

집집 방문의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나쳐 버리는 가난한 자들을 등한히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눅 4:18)셨다고 말씀 하셨으므로,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잃어버린 자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한 번도 경고해 주지 않았다! — 관심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까지 가라.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죄인을 초청하고 있는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바울처럼 마음과 정신력을 다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날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대고 말할 것

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한 번도 경고해 주지 않았다. 너는 나를 예수님께 나가도록 탄원한 적이 없다. 내가 만일 너처럼 믿었다면, 나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접근할 수 있는 한계까지 찾아 가서 기도와 눈물로 경고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구호, 78)

9. 1844년에 가졌던 정신을 다시 가지라.

"**1844년의 전도의 정신을 다시 불 붙이라** — 최근 어느 밤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면, 우리들이 과거에 사람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던 때보다 더욱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마음은 1843년과 1844년 당시의 재림 신도들의 활동으로 되돌아갔다. 그 당시에는 집집방문이 많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매우 성실하게 전파한 그들이 기울인 노력보다 더 큰 노력까지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신속하게 지상역사의 종말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전에 없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구호, 79-80)

10. 이 일을 다시 실천하라.

"**이 일을 다시 실천하라** — 제자들과 같이 그대가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구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대는 친구들을 얻고 그대의 수고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모든 일꾼들은 하늘에서 오는 능력에 의하여 지탱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갈 때,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과 접촉하는 길을 얻을 것이다. 병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게 될 것이다. 찬미소리와 기도소리가 동시에 들려질 것이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펼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표적들을 주셔서 전해진 말씀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일은 벌써 지나가 버렸다. 그 일을 다시 한 번 실천해 보라. 들판은 무르익어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추수장으로 나가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동료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모든 말과, 모든 노래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미구에 오신다는 기별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각성을 일으킬 것이다." (구호, 80)

친절한 마음에 이르게 하는 열쇠임

11. 마리아의 깨어진 옥합

"**오직 사랑과 친절에 의해서만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음** — 집집 방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의 힘을 다 써야 한다. 그들은 미천하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일해야 한다. 우리는 정욕이 타락하여 그 욕구를 제어할 만한 의지력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사심없이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 그들의 물질적 결핍이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이기심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선교 간호원들은 이 사업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비록 그들이 간호하는 일에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동료 일꾼들에게서 일하는 방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말과 위선과 자기 자랑은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생 사업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순결하고 성화된 사랑만이 거룩한 향기처럼 된다. 마리아의 깨어진 향유 옥합과 같이, 그것은 향내로 온 집을 가득 채운다. 사랑이 들어있는 웅변과 진리의 지식과 비범한 재능들은 모두 귀중한 천품들이다. 그러나 다만 재능과 가장 귀중한 재간만으로는 사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구호, 81)

12. 마음에서 흘러 나오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 사랑이 결핍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신성과 접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까닭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사랑의 사슬의 금고리로 말미암아 우리 동포들과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긍휼과 동정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와 불행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끌려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느껴야 한다는 간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신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사랑과 동정의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향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호, 82)

13.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

"**격려하는 말을 함** — 무정하고, 냉정하고, 동정심없고, 비평적인 말을 결코 하지 말라. 격려해 주고, 희망을 일으켜 줄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 주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이것은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이다.

책망으로 회복될 자는 하나도 없음 — 사람이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은 언제나 굴욕적인 일이다.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비난으로 그 경험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지금껏 비난으로 개선된 일이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비난으로 반감을 갖게 되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각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 많은 죄를 가리워 준다.

관대한 사랑을 권장함 — 그대의 영원한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대는 스스로를 깨어나서, 좋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추수, 곧 위대한 추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수확에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추수는 분명하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다. 지금 곧 선한 사업에 부요해지고자 노력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전 6:18, 19).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탄원한다. 어느 곳에서나 그대 자신에게 있는 얼음같은 냉랭함을 제거해 버리라. 그대에게 관대한 사랑과,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계발시켜라." (구호, 84-85)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정신을 재기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되살려라** —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우리 교회들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를 맞아 상처난 행인을 길가에서 죽도록 버려 두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도움이 필요되는 많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렸다.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거룩한 치유자의 능력이 필요한 바로 그들이 간호를 받지 못하고 주목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버려졌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단이 한 영혼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행동하고, 잃은 양을 돌보지 않고 집으로 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들임이 분명하다." (구호, 85)

15. 한 사람의 회심자가 있는 곳에 백 사람의 회심자가 있을 것임

"**친절은 더 큰 전도의 열쇠임** —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고, 예모있고, 부드러운 마음과 동정심을 갖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오늘날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진리로 돌아오는 자가 백 명 있게 될 것이다." (구호, 86)

어떻게 방문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16. 그대의 이웃들과 가까이 사귀라.

"**그대의 이웃에게로 가까이 가라** — 그대의 이웃을 차례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아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접근해 가라. 그들을 동정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 줄 기회를 찾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몇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 주라." (구호, 87)

17.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를 도와 주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에 따라 접촉하여, 그들의 육체적 필요와 고통을 구제해 주라. 그러면 그대는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는 그곳에다 은혜와 믿음의 좋은 씨를 심게 될 것이다." (구호, 87)

18. 편견을 없애 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 가까이에 사는 자들을 방문하고, 동정과 친절로 그들의 마음에 접촉하고자 힘쓰라. 편견을 일으키는 대신에 편견을 제거할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들의 노력을 자기 자신들의 교회에만 국한시키고 회개하지 않은 이웃을 위하여 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문책받을 것을 기억하라." (구호, 88)

19.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하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다고 가상해 보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를 반대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라.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다

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들이 그대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릴지라도, 화를 내어 급히 떠나가거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영혼들과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대의 노력을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접근할 다른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연구하고 계획하라. 만일 그대가 개인적 방문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무언의 진리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라. 인간에게 자만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 있는 기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인쇄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구호, 94-95)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만나신 방법** —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과 사람들을 만나신 그분의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각 계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으며 도시와 촌락에서 어떻게 일하셨기 때문에 수천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 곁으로 몰려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 있다. 주님의 말씀들은 명료하고 분명하였고, 동정과 친절이 나타났다. 그들은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확신 아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갔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이끌려 간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 단순함과 열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구호, 95)

20.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정들을 방문하심

"주님께서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오직 개인적 노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는 명령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능력으로 그들을 옷 입혀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일을 지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할 말을 그들에게 주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을 여셔서 모든 빛의 근원되신 분에게서 나오는 빛의 광선을 받게 하실 것이다." (구호, 98)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대체로 사람과의 면담하시는 일이었다. 그는 단 하나의 영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 그 한 영혼이 받아들인 진리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증거(전달)되었다." (6 증언, 115)

연구할 과제

1. 방문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호, 78)
2.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환대(Hospitality)에 대해서 토의해 보라. (구호, 84)
3. 집집 방문을 하면서 봉사를 할 때에 중요한 세가지 제단은 무엇인가? (구호, 9)
4. 영혼 구원하는데 예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호, 89, 90)
5. 그대가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구호, 91, 92)

6. 거룩한 노래의 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언급되었는가? (구호, 93)
7. 그대가 서 있는데 문을 닫아 버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구호, 94)
8.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구호, 95-96)
9.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구호, 97)
10. 유월절에 있었던 광경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구호, 104)

제76과 고통 당하는 인류를 구제함

성경절 연구: 사 58:3-11; 마 16:24

요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므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소망, 640)

예언의 신 연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 그(주님)는 선한 일을 하셨음

"그분의 사업은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의료선교 사업이었다. 겸손하고, 자비롭고, 부드럽고 긍휼이 많은 마음으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눌린 자들을 건져 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다. 도움을 받으려 그분께 왔다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간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본받을 모본에 한 오라기의 이기심도 섞어 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의 생애를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며 음료였다. 그분께서는 도움을 얻고자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안겨 주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구호, 116)

2.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동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인간의 재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사심 없는 열성으로 노력하며,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감화는 막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주께로 나오게 된다. 구주께서 맡겨 주신 일을 실제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실증된다. 이 일은 괴로운 노력이 요구되지마는 보상을 받는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런 활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 감화를 통하여 재능 있는 남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려 오게 된다." (구호, 117)

3. 복음을 위한 쐐기가 됨

"**고통을 덜어 주는 복음** — 의료 봉사는 고통을 면하게 해 주는 복음을 인간에게 전해 준다. 의료사업은 복음사업의 선구자이다. 그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동정의 표현이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는 크며 세계는 그것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의료선교 사업의 중요성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지방으로 그 사업이 신속히 들어가게 허락해 주신다.

그대의 이웃에서 시작하라 — 참된 개혁자가 들어가기 전에, 의료선교사업은 많은 문들을 열어 줄 것이다. 아무도 어떤 먼 지역에서 불러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는 즉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기회는 각 사람에게 와 있다. 그대가 책임져야 할 일, 그대의 가정이나 이웃에서 해야 할 일을 착수하라.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하라고 독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지체말고 전진하며,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에게 대한 개인적 책임을 명심하라. 마치 그분을 섬기는 일에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그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행동하라. 준비된 다른 어떤 사람이 없는지 하고 보지 말라. 만일 그대가 참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진리를 소개받은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흑암 중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로 말하기를 '나의 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시간과 재정을 요구합니다'고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를 돕는 손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일할 힘과 능력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주님의 가족 중 어린 식구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심령의 모든 힘이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무아적 봉사의 여러 분야에서 도와 주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구호, 119-120)

4. 몸에 있는 오른 손과 같음

"**합당한 균형을 유지하라** — 교회가 잘 조직된 노력으로 의료선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몸의 오른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선교사업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른 분야의 사업을 등한히 하지 않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른손의 사업 — 대개 오른손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의료선교사업이 담당할 몫이다. 그 사업은 주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받아들일 길을 준비시킨다. 손이 없는 몸은 쓸모가 없다. 몸이 영광을 받으면, 돕는 손도 틀림없이 영광을 받는다. 손이 없으면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손은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오른손을 무관심하게 취급하고, 그 도움을 거절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구호, 122-123)

5. 그것(의료 선교 사업)이 교회에 생기를 가져 올 것임

"나는 목회사업을 하는 형제들에게 이 일을 슬기롭고 유능하게 수행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남녀들을 일하게 하라. 의료선교사업을 세째 천사의 기별 전파에 결합시켜라. 여러 해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가므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깨우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정규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을 하라. 모든 가족들과 개인들 앞에 세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알려 줄 사역자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모든 사람을 격려하라. 그런 다음에 이 교회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속히 되돌아오지 않는지 보라." (구호, 124)

가정에서의 의료 선교사(사업)

6. 병든 자에게 치료를 해 주라.

"**가정에 들어가는 문** — 의료선교사업은 복음사업의 선구자이며,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많은 가정으로 들어갈 문을 찾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의료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령과 육체의 두 가지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꾼들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나갈 때, 그들은 실제적인 일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장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자들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이 집집을 방문할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복음 기별을 들을 수 없었을 뻔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구호, 125)

7.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지도하실 것임

"만일 그대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까이 나가면, 그대는 슬퍼하고 낙심한 자, 비애와 상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화평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 줄 방법을 매일 그분에게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는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기도로써 병자들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그대는 마치 그대가 신뢰하고 대단히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겁고 자연스럽고 유쾌한 위엄을 간직하라. 그 사실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한다.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침상 곁에 서시면 회심할 뿐 아니라, 고침을 받을 자가 많다. 세심한 봉사를 통하여 환자가 그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큰 승리를 얻은 것이다." (구호, 125-126)

8. 가정에서의 선교 간호원의 일

"주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 주는 능력 있는 간호원으로 활동할 지혜로운 남녀들을 원하신다. … 선교 간호원들이 완수해야 할 많은 분야의 사업이 있다. 가정으로 들어가서 진리에 관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잘 훈련된 간호원을 위하여 문호가 열려 있다. 거의 모든 지역사회마다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만일 그들이 복음으로 접촉이 되면, 복음이 틀림없이 그들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흔히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교 간호원들이 병자들을 돌봐 주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때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고, 구주를 소개해 줄 많은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욕으로 타락한 식욕을 제어할 의지력이 없는 불쌍한 자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들은 패배하고 낙심한 자들의 생애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사심 없는 친절한 행동에 나타난 그들의 이기심없는 사랑은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구호, 126)

9.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

"의료선교사업은 봉사할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와 천연법칙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현명한 교육자들이 되어 모든 방종을 경고해야 한다. 무지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참상과 불구와 질병들을 볼 때, 우리가 무지를 깨우치고, 고통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찌 회피할 수 있겠는가?" (구호, 126-127)

10. 건강 개혁의 원칙을 숙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의료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심령과 육체

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고통을 덜어 주고 질병을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단순한 그런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건강 개혁의 원칙을 잘 알므로 올바르게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습관을 통하여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건강개혁 원칙의 가치를 실증해 줌으로써 우리의 전도사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선교사업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의사께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함으로 겸손하고 경건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구호, 127)

11. 건강 요리 원칙을 가르치라.

"편견이라는 군주로 말미암아 영혼에 이르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생활의 원칙들을 모르고 있다. 건강식을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긴한 사업이다. 더욱 많은 요리학교가 세워져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집방문을 통하여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건강개혁의 감화를 통하여 많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원칙들을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한 완전한 진리를 받게 될 것이다." (구호, 128)

12. 극단을 피하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주장하는 많은 견해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와 크게 다르다. 인기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언행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참으로 다르게 보이고자 애쓰지 말고 그들이 감화를 끼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접근해 갈 것인지 노력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처럼 높이 평가하는 위치에 이르도록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들이 전해질 것이다.

식생활의 개혁을 옹호하는 자들은, 저들 자신의 식탁을 위하여 준비해 둔 식사로써 가장 훌륭한 빛을 받은 건강법의 장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솔직한 마음의 판단에 맡길 수 있게끔 그 원칙들을 실증해 주어야 한다. …

건강개혁을 옹호하는 자들이 극단적으로 그 문제를 끌어 갈 때, 사람들이 염증을 내게 된다 해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도 자주 우리의 종교적인 믿음이 이렇게 되어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되었고, 많은 경우에 그런 모순들을 본 자들은 그후에 건강개혁에 아무런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불과 몇 달 동안에, 저들이 일생을 두고 원상태로 회복해 놓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 그들은 사단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 … 편협한 의견과 사소한 점에 대한 지나친 긴장이 건강개혁사업에 큰 해를 끼쳐 왔다." (구호, 128-129)

13.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형편에서 구원 받음

"나는 의료선교사업이 한 때 선량한 마음과 가장 풍부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타락의 밑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낼 것과,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 타락의 상태에서 구조될 수 있을 것을 보았다. 그들을 동정적으로 돌봐 주고,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 줄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의 진리이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 대리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협력하신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위

하여 반석 위에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고맙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상한 교리들을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의료선교사업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도움을 줄 때에 성령께서 도덕적인 능력을 깨우치기 위하여 인간 대리자들의 봉사와 협력하신다. 정신적 능력은 활동하도록 일깨워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호, 131)

14. 거룩하고 헌신적인 남녀들을 부르심

"거룩하고 헌신한 남녀들이 이 의료선교사로 나가도록 지금 요구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육체력과 정신력과, 경건성을 최고도로 계발시키게 하라. 현명한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은혜, 곧 그들의 영적 탁월성을 현저히 나타나게 해주었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오늘날에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는 많은 헌신한 선교사들을 사역의 대열속에 가담시켜 줄 것이다." (구호, 132-133)

15. 인쇄물을 전하고 진리를 말함

"**기다리지 말라** — 사역자들, 의료복음선교사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준비하는 일에 여러 해를 소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진리가 들어가도록 열려 있는 문들은 머지않아 영원히 닫혀질 것이다. 지금 기별을 전하라. 지금 그대 앞에 열린 일터를 원수가 장악하도록 허용하며, 기다리지 말라. 작은 단위의 조직된 무리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정해 주신 일을 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전도자로 일하게 함으로 우리의 출판물들을 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약으로써가 아니고 천연요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 주며,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라." (구호, 133)

마지막 위기를 위해 준비함

16. 환난의 때가 우리의 앞에 있음

"악의 대리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통합하며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최후의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우고 있다. 큰 변화들이 우리 세계에서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마지막 움직임은 급속할 것이다.

세상 사물의 상태는 환란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 매일의 신문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무서운 투쟁에 대한 것을 알려 주는 내용으로 충만해 있다. 대담한 강도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의 파업들이 보통의 일로 되고 있다. 절도와 살인자들이 각 곳에 범행을 저지른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린 아이의 생명들을 취하고 있다. 사람들은 부도덕에 정신을 빼앗겨 있으며 갖가지의 악이 관영하고 있다.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함. — 오늘날의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시대이다. 통치자나 정치가들, 책임과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계급의 생각 있는 남녀들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하고 불온한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저들은 모든 세속적인 요소를 점유하는데 강력히 긴장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무슨 결정적인 대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실-곧 세상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 것을 인식한다.

천사들은 장차 이를 운명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를 마칠 때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전쟁의 바람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폭풍은 모여 와서 이제 지상에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시는 때에는, 과연 붓으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슬픔이 세상에 올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은 빨리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천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저희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들이다." (구호, 134-135)

17. 대도시들이 휩쓸어 버린 바 될 것임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활동적으로 진척되어 왔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재난이 닥쳐 올 불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몹시 등한시되어 왔다. 대도시들이 휩쓸려갈 때가 가까와졌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심전력의 봉사를 누가 하고 있는가?" (구호, 135)

18. 절박해 오는 재난들

"얼마 전에 매우 인상적인 한 장면이 내 앞을 지나갔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에 떨어져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심판이 그렇게도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너는 알았지? 왜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

머지않아 아주 고통스러운 환란,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을 환란이 열국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이전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만유를 통치하는 나라를 마련해 놓으신 분을 섬기며 서로 밀접하게 연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데 달려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종말까지 증가하게 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어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거의 마지막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 136)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 — 지난 금요일 아침, 잠이 깨기 직전 대단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나는 잠에서 깬 것 같았는데 나의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창문들을 통하여 나는 무섭게 큰 화재를 볼 수 있었다. 큰 불덩어리들이 집들 위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불덩어리들로부터 불붙은 화살들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붙은 불은 끌 수가 없었고, 많은 장소들이 파괴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야 평안을 찾게 되었다." (구호, 136-137)

19. 대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이제부터 의료선교사업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열성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사업은 진리가 대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는 문이다. 모든 도시에 의료선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일꾼들이 들어가야 한다. 모든 도시는 잘 조직된 단

체, 곧 잘 훈련받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한두 명만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해야 한다." (구호, 138)

20.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일

"의료선교사업은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업 중에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교회와 연결이 끊어지면 의료선교사업은 미구에 무질서한 원자의 이상한 혼합에 불과해질 것이다. 그것은 생산이 아닌 소비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전시키는 그분의 돕는 손으로서의 일을 하는 대신, 교회의 생명과 힘을 약화시키고, 기별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독립적으로 그 일을 경영하면, 다른 분야에 필요되는 재능과 재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가련한 자들을 돕는 바로 그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분리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진리를 조롱하는 처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구호, 139)

기억할 말씀: "세 천사의 오른 팔로서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현대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7 증언, 59)

연구할 과제

1. 그리스도의 구제 사업에 있어서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전에 임시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호, 118)
2. 모든 선교 역사 가운데 누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는가? (구호, 118)
3. 다음과 같은 변명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1)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구호, 119)
   2) 아이들이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구호,120)
   3) 이와 같은 일을 위해 특별한 훈련(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구호, 120)
4.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과에 언급한 봉사를 하라고 명하셨는가? (구호, 121)
5. 모든 사람들의 습관을 규칙적이 될 수 있게 하는 변함없는 법칙을 말해 보라 (구호, 130)
6. 사람들의 가정에서 하는 이기심 없는 봉사가 어떻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며 영감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 (구호 봉사131)
7. 진리를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구호, 132)
8. 어떠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가? (구호, 137)
9.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호, 139; 삿 5:23)
10. 삼중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도, 536)

제77과 도르가회 사업

성경절 연구: 행 9:36-42

요점: "그대가 고통 당하면 짓눌려 있어 어느 길로 가야 쉼을 얻을지 조차 모르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저들을 돕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쓰라. 그대보다 불운에 처한 자들을 보고 저들의 복지를 위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구호, 168)

예언의 신 연구

욥바에 있었던 도르가

1.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큰 사랑을 받는 자라.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도르가라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행적, 131)

2.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슬피 울었음

"그녀가 '그 때에 병들어 죽'었다. 욥바의 교회는 그들의 손실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자 교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도르가가 살아 온 봉사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슬퍼하면서 생기없는 시체 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행적, 131-132)

3. 베드로가 그녀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함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에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 하셨다." (행적, 132)

오늘날 교회에 필요되는 것

4. 그와 같은 인내심과 다함이 없는 성실함이 요구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유했던 줄기차고, 경건하고, 끈덕진 충성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번영할 수 없다. 그것은 교회에, 안식일 학교에, 사회에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복되지 않은 품성의 육신적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교회와의 관계를 이룬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쳐서, 강하고 희망찬 정신이 필요한 때가 되면 그들은 낙심상태가 되어 교회에 무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릇된 일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의 때에 쇠하지 않을 확고 부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언제나 요망된다." (5 증언, 304)

5. 조직(도르가회)의 가치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그 분야에 관하여 현명하게 교육받은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무리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들은 오랫동안 필요했던 생명과 활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자매들은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가족들과 이해받지 못하는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나는 우리 자매들을 돕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 낙담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일은 그들의 생애에 햇빛이 들어가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반사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업에 그대와 또한 그대와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구호, 144)

6.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여인들

"**개인 전도에 종사함** — 주님께 자신을 바쳐 가난한 자들과 죄로 상처받은 자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손을 뻗는 여인들의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 개인적 전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에 종사하는 여인들은 큰 길과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의 집으로 복음을 가져 간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병자를 돌봐주고, 그들의 육신적 필요를 구제해 주면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읽고 설명해 준다." (구호, 148)

7.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연구하라.

"**품위 있고 위엄 있게** — 생애를 하나의 가공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대의 가장 적은 의무라도 성실하고 기쁘게 이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 16:10)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신 그 생애를 연구하라. 그분은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한 의무라도 등한히 하지 않으셨다. 완전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특징지었다. 도움을 위하여 그분을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불사불멸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의 품위와 위엄을 가지고 매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 —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보다 큰 일을 찾기 위하여 작은 일을 간과하지 말라. 그대는 작은 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낙심 중에 빠진다.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디에서나 그 일을 붙들라. 그대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계발시키는 길은 그대의 손에 잡히는 일을 함으로써 열린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실없이 시들어 버리는 이

유는 매일의 기회를 소홀히 하고 작은 것들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구호, 153-154)

8. 여인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

"머지않아 우리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이므로, 심각한 반대를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남녀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셨다.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의료선교사셨다. 우리들 역시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자매들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의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단순하게 일하라. 그대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라. 그들로 하여금 그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라. 사람이 앓고 있으면, 그에게 치료를 해주라.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아이의 아픔을 제거하고자 근심에 눌린 불안한 어머니를 도와 주라." (구호, 162)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봉사함)

9.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함

"그리스도의 종교와 빈곤과는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위태롭게 하는 거짓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향락과 쾌락이 행복의 총체라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것이 거짓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부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도, 한때 가난하고 헌 데로 덮여 있던 나사로와 입장을 바꾸고자 한 때가 왔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믿고 신뢰하는 가난한 사람을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령과 연결시켜 주는 황금실이 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시다. 우리의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옮겨 가셨다.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시다. 그분은 가난하셨으나, 모든 선과 축복의 중심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의 저장소가 되신다." (구호, 172)

10. 믿는 가정들에게 도움이 필요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보호가 요망되는 믿음의 가족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 각 사람은 특별한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 6:10).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교인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의무를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각 교회안에 당신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돌볼 개인적 책임을 맡기셨다.

진실한 가정의 가족들이 병자를 돌봐 주고, 약한 자를 도와 주고, 무식한 자를 가르쳐 주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단련시켜 줌으로 서로 보호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도 가난하고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구호, 178)

11. 음식과 의복을 줌으로 친절을 증명함

"**빈곤한 자를 찾아냄** — 우리는 그대의 선한 뜻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선한 뜻만으로 안락하게 될 수 없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을 통하여 그대의 친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 중 누구든지 양식을 구걸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풍족하게 주셔서, 근면과 절약으로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대가 공급해 줄 수 있게 하셨다. 그들의 필요에 그대의 주의를 끌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욥이 한 것처럼 하라.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 내었다. 직접 답사하여 무엇이 필요되며 어떻게 그것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것인지 알라." (구호, 183)

12. 새로운 회심자들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선사업에 있어서 진리를 제시함으로 확신이 생겨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을 특별히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도덕적 용기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받은 결과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을 부양하던 그 일을 못하게 된 자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 도와 줄 가치가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직업을 제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로 도움 없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 주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통하여 어려울 때에 형제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온정적이며, 무아적이고, 자아희생적인 한 백성을 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사 58:7)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구호, 184)

"여러 가지 산업체들을 세워 가난한 가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수, 대장장이, 또한 참으로 어떤 유용한 노동의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식하고 직업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 줄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도 넓은 봉사의 분야가 있다. 유능한 요리사, 주부, 여자 재봉사, 보모,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난한 가족들에게 요리하는 법, 의복을 만들고 수선하는 법, 병자를 간호하는 법, 가정을 적당하게 관리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소년 소녀들에게 어떤 유용한 일과 직업을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선교사업을 하는 가족들은 미개척지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농부, 금융업자, 건축가, 그 밖의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등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산업체들을 세우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평범한 집들을 마련하고,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치료, 193-194)

13. 올바른 도움을 주라.

"궁핍한 자들을 도와 주는 방법들은 주의 깊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는 방법을 근시안적인 인간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분별하지 않고 도와 주는 자들이 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잘못한다. 궁핍한 자들을 도와 주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 주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움을 받을 때 그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특별한 도움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기만 하면 의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적당한 시기에 적합하지 않는 관심을

기울이므로 우리는 나태와 무능과 낭비와 부절제를 장려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낭비를 장려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도와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해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권리가 없다." (구호, 191)

14. 가난한 자들로 자립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남녀들,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게 할 것이다. 이들이 교회에 알려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이 값없이, 혹은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난한 가정의 식구들에게 음식을 요리하고 그들 자신의 옷을 만들고 고치는 방법과 가정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소년 소녀들이 어떤 유용한 사업이나 직업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자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생계만 유지해 가게 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구호, 194)

15. 나태한 자들을 도와주지 말아야 함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신다. 주님은 고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지런하지 않는 자들을 부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간의 낭비와 노력의 부족이 있는 곳에 가난과 빈곤이 초래된다. 만일 이런 방종에 빠진 자들이 그런 실수들을 보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구멍 뚫린 바구니에 보화를 담는 것과 같다. 그러나 피치 못할 가난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에게는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 (구호, 200)

16. 가장 가난한 자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

"풍부한 우리나라(미국)에서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만일 그들이 올바른 길을 따랐다면, 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결핍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나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그대의 형제들을 후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대의 재물을 사용하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불행과 질병으로 가난하게 된 자들은 그대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믿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벧전 3:8)." (구호, 202)

불운에 처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17. 충분한 도움을 주라.

"아버지 없는 자녀들을 가진 많은 홀어머니들은 이중의 짐을 지고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그와 함께 있는 어린 것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 그에게는 그들을 훈육하고 교훈할 시간이 별로 없으며, 그들의 생애를 밝혀 줄 감화력을 그들에게 미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는 격려와 동정과 실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보호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채워 주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초연한 입장에 서서 그들의 실수나 그들이 일으

킬 수도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비난하는 대신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 주라. 걱정에 눌려 있는 어머니를 도와 주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의 짐을 가볍게 해 주라." (치료, 202-203)

18. 가까이 있는 자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

"모든 선물과 기증물에는 주는 자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게으름을 조금도 장려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도 말아야 하며, 명성을 얻기 위하여 주어서도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킴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기증을 하는 한편, 그들의 가난한 형제들이 그들 곁에서 고통당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은밀한 방법으로 형제를 위하여 한 친절한 적은 행동들은 그들의 마음을 연합시키고, 하늘에서 주목하게 된다. 나는 부자가 댓가와 노임에 있어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과부와, 그들 중에 사는 가난하다고 평가될 만한 자들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을 보았다." (구호, 217)

19. 고아들 — 누구의 책임인가?

"**어찌하여 책임이 근본적으로 교회에 있는가?** —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보호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돌봐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주로 기관들을 의지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같지 않은 여러 교회가 이 사업을 하기를 바라신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정해 주신 바로 그 일이 교회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무런 대책없이 자녀들을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고아들은 교회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대여, 마음을 열고 그대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가라." (구호, 228-229)

20.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초청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 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복음의 영적 축복을 예증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오라고 열렬히 호소하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겸비를 설명하신다. 여기에는 지구 역사의 끝이 가까울 때 주어지는 복음의 특별한 초청이 또한 제시되어 있다.

먼저 큰 길로 가서, 모든 사람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오도록 초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별은 그처럼 크게 은총받은 백성들에 의하여 거절되었다. 그 다음 초청은 좀 더 불쌍한 부류의 사람들, 곧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에게 주어졌다. 이들은 야심적인 계획들로 의기양양해진 자들이 아니었다. 만일 그들이 그 초청을 수락했다면 그들은 잔치에 왔을 것이다. 기별이 전달된 후 종들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눅 14:22)고 보고하였다.

그 때 주인은 그의 일꾼들에게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가장 타락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강권하여 데려오라' 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 '세리들과 창기들' 도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친절과 인내를 통하여 그 초청은 가장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는, 강권하는 힘이 된다." (구호, 245-246)

기억할 말씀: "모든 영혼은 마치 그가 구세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진다. 사람 하나 하나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사무친다." (2 소망, 278)

연구할 과제

1. W.C.T.U.에 관해서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는가?(구호, 162, 163)
2. 구세군들이 하는 사업과 우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저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가?(구호, 251)
3. 어디서 도덕적 부패, 가난, 범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구호, 173)
4. 이 땅에서 가난을 없애는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의해 보라.(구호, 177)
5.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는 두 무리의 가난한 자들은 어떤 무리인가?(구호, 178-180)
6.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어떤 노동 제도가 있는가?(구호, 195-196)
7.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가장 최상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구호, 237)
8.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은 어떤 것이 있는가?(구호, 246)
9.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 권면(충고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구호, 231)
10. 세상이 그대의 생계를 위해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구호, 192)

제78과 구호봉사

성경절 연구: 약 2:15-17; 갈 6:10

요점: "사람들은 현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들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주시하며 저들을 달아보고 있다. 저들은 또한 저들의 행동과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겸손하며 진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가 들어가는 모든 도시와 촌락에 저들의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6 증언, 264)

예언의 신 연구

구호 봉사를 위한 자금

1.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필요가 충족됨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라고 하셨다(사 58:7-10).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막 16:15). 그러나 빈곤한 자는 많은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하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소비하거나 남이 우리의 소유를 상용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의 명령은 허락이다. 그리고 그 허락 뒤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 같은 능력이 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 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구호, 263-264)

2. 맡겨 주신 선물들은 계속해서 유통되어야 함

"자선의 작은 시내가 언제나 보물 창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관대한 마음보다 더욱 앞서가며 훨씬 더 앞서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탁하신 돈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구제하며 인류를 복되게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 많은 양의 선물을 기증함으로 매우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느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바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들 앞에 제시된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해 주고, 벗은 자들을 입혀 주고,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극빈자의 가정에서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

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구호, 268-269)

3.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혜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눅 14:12-14)." (구호, 269)

4.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그들이 집에 있는 값진 장식품들과 그림들과 가구들 위에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식탁위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당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것은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유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하늘 책에 부채로 기록된다는 것이 경한 일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궁핍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님의 돈은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이기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의 청지기들 중 아무에게서도 어떠한 불공평이나, 주님께 대한 어떠한 도적질도 면제해 주지 않으실 공정하고 편벽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구호, 270-271)

5. 특별한 도네이션(기부금)으로 자금이 충당함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직책을 감당할 사람들을 택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의 인도를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를 드렸는지 알게 된다. 과부와 고아들은 교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들의 필요는 교회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특별한 의연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었다. 십일조는 주님께 바쳐야 하되 반드시 목사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독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정을 합당하게 분배한 여부를 돌볼 사람들을 택하여 신자들 중 아무도 생활의 필요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게 되어야 했다." (구호 275)

6.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움직여서 이 사업을 돕게 하심

"그대는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에게서 재물을 선물로 받는 데 대하여 묻는다. 그 질문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물어보고 싶다. 가옥과 토지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분은 주린 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집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되, 그것을 사람의 손에 두셨다. 만일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특권이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까지라도 감동시켜 그 사업을 후원하

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바치게 하신다. 우리는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 받을 것이다." (구호 278)

7. 어떻게 저들을 접근할 것인가?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노력을 통하여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대표자로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정을 바치고 동정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이기적 관심사에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감화와 재정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을 개심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겸손한 선교사와 더불어 자선사업에 즐겨 연합할 것이다. 땅에 있는 그들의 재물을 올바로 사용함으로 그들은 '다함이 없고'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눅 12:33).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지혜가 주는 보화, '장구한 재물과 의.'(잠 8:18)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구호 283)

음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함

8. 교회가 뒷받침하는 음식물 판매

"**교회가 고안한 식품 판매는 정죄될 것이 아님** — 베틀크릭 주(州) 박람회가 열렸을 때, 우리 신자들은 서너 개의 요리용 풍로를 가져다가 땅에 놓고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증해 보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식탁을 차렸다는 말을 들었다.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의 노력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구호 284)

9. 요리 학교를 경영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파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베틀크릭 박람회에서 우리가 한 것과 유사한 일을 여러 도시에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빛이 또한 주어졌다. 이 빛과 일치되게 위생 식당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상업적인 정신에 몰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을 전해 주지 못할 큰 위험이 있다. 우리의 식당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접촉하게 해 준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정적 이득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남녀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진리를 제시하기를 바라신다." (구호 286)

10.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여는 잔치에서 저들을 만나셨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 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분명한 교훈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게 되자 즉시 가정과 친구와 친척들 간에서, 실수 없는 모습으로 언어의 재능을 활용하셨다. 한 마디의 불결한 말도 그분의 입술에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의 그릇된 행동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다. 비록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을지라도 그분에게는 하나의 죄의 흔적도 없으셨다.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 오찬이나 잔치에 초대하면, 그분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셨다. 세리와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분께서는 비난을 받으셨다. 그들은 그분이 세리들과 같다는 오명을 그분에게 씌웠다. 그런 경우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에서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많은 귀중한 교훈을 하셨다. 참석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 이유는 그 분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끌리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입을 여셨을 때, 그들의 주의가 그 분께 집중되었다.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앙심 있는 사람들과 없는 무리들 중에서 처신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어떤 공적집회에 참석할 때 말할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대화는 과거에 잔치에서 들었던 바와는 결정적으로 달랐다. 그 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으므로 그들은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듣고자 갈망하는 것처럼 조용히 주의하여 들었다.그리스도께서 참석한 잔치석에서 그 분께 나타낸 존경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우를 받은 것과 그 태도에 있어서 너무도 뚜렷한 대조가 되었으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리스도는 청중의 필요에 적합한 교훈을 주셨다.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왕의 초청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여주신 것도 그 분께서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하신 것이다. …위대한 교사는 권세를 가진 분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동일한 참된 사회생활의 의무와 규칙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추호도 불확실한 음성이 없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은 쟁반에 금 사과와 같았다." (구호286, 287)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서 금하는 방법들

11. 저녁 잔치, 댄스, 기타의 잔치들

"식욕에 대한 욕망과 향락에 대한 사랑을 이용한 자금 거출 호소는 그릇된 것임

—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의 금고에 자금을 모아드릴 목적으로 만찬, 자선회, 댄스, 향연 등으로 잔치, 폭식, 낭비를 장려하는 것을 본다. 여기에 육신적 마음이 고안해 낸 희생 없는 재정 획득의 방법이 있다.

그러한 모본은 청년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교회가 복권, 자선회, 유희 등을 허락하는 것을 주시해 보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정을 얻는 것에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문란한 영향을 주는 교회의 이 모든 부패와 낭비와 향연들 중에서 우리는 깨끗이 서도록 하자. 우리는 그 자금이 교회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신선한 외투를 그 위에 씌워 줄 권리가 없다. 그러한 제물들은 절고 병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들이다. 그 제물들은 영혼의 대가이다. 교회의 목적을 위한 재정을 획득하고자 강단에서 향연, 댄스, 추첨, 자선회, 사치스러운 잔치 등을 정당한 것으로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전혀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정을 바치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식욕이나 육신적 향락을 의지하는 호소를 하도록 제안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즐겨 바치지 않으면 그러한 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가납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구호 289)

12.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가?

"불신자들의 마음에 어떤 인상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표준이 땅으로 떨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멸시된다. 가장 부패한 원칙들이 비성서적인 이 자금 거출 방법에 의하여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이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금고에 돈을 가져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모든 방법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러한 모든 고안을 하게 하는 것은 거짓 헌신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멀고 얼빠진 상태인가? 교인들은 노아 당시의 세상 거민들이 한 것과 같이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한 것뿐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그릇되게 나타내는 행동들을 증오할 것이다." (구호 290)

13.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치게 됨

"소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공언하는 곳에서 사단은 기만적 향락과 경건치 않은 환락 위에 종교적 의복을 씌워 그것들을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비용 지출에 대한 자금을 거출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진정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치기 보다는 오히려 향락을 좋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바친 돈에 참여할 이기적 관심을 위하여 바친다.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그러한 방침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자선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분의 모본과,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가? 이러한 유흥과 폭식의 장면에서 육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에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지막 결산의 날은 이와 같은 환락과 어리석은 장면의 감화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여줄 것이다.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사가 연회나 일반적 환락의 유혹적 매수물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이 마음을 감화시켜 자선사업에 종사케 하는 힘을 갖지 못하고 이처럼 유인하는 것들이 편만하다는 것은 슬픈 실정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금을 거출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은 참으로 성공적이었다. 거기에는 강제의 필요성도 없었다. 모세는 호화로운 연회도 배설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환락과 춤과 일반적 쾌락의 장면을 벌이지 않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재정을 모으려고 그는 복권 추첨도, 속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헌물을 가져 오도록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하는 선물들을 받게 되었다. 이 자원하는 헌물이 너무도 풍성하였으므로 모세는 그만하면 흡족하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바쳤으므로 그들의 헌물들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호 290-291)

14. 교회가 그러한 예물로 지탱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한 재정으로 유지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는 이러한 헌물들을 받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바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서는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식욕을 만족시키는 호화로운 진미에 대한 기호와 육신적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세속적 유흥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는 할 것이다." (구호, 292)

봉사의 영향과 그 상급

15. 검보다 강함

"**칼이나 법정보다 더욱 강함** — 마음 속에서 이기심 없는 참된 선교적 활동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은 악행하는 사람을 다루는 칼이나 법정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살아 있는 선교사는 장벽들을 깨뜨릴

수 있다. 지정된 일을 감당하는 의료 선교사는 육체적 질병에서 고통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죄의 문둥병인 영혼의 질병도 고쳐 줄 수 있다. 이따금 사람들의 마음은 견책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사랑을 항거할 수는 없다." (구호, 297-298)

16. 편견을 없애야 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17. 남을 돕는 일은 건강을 증진시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18. 하늘에 있는 불멸의 기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19. 두 개의 노 - 믿음과 행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20. 우리의 노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만날 것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기억할 말씀: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소망, 73)

연구할 과제

1. 상호 협조하는 법칙에 대해 의논해 보라. (부조, 하권 187)
2. 어떻게 하면 자선의 물줄기가 말라 버리게 되는가? (구호, 269)
3. 탐심에 가득찬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간청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셨는가? (구호, 277)
4.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연금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천사들이 기록하는 4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구호, 292)
5. 행위가 미치는 영향과 강령(신조 또는 규율)이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해 보라. (구호, 299)
6. 여행자가 그의 이웃을 구원한 일에 대해 이야기 하라. (구호, 305)
7. 그대의 난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는가? (구호, 312)
8.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상급은 무엇인가? (구호, 316)
9. 복음을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구호, 318)
10. 엘렌 지 화잇이 구호봉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보라.

제79과 수확 운동

성경절 연구: 시 24:1; 50:10-12; 학 2:8

요점: "느헤미야는 불확정한 데에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에게 부족되는 재물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청하였다. 주께서는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즐겨 움직이고자 하신다. 주를 위하여는 수고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사람들로 주게 하시는 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선물들은 문화가 뒤떨어진 많은 나라에 진리의 빛이 비칠 길을 열 수 있다. 선물을 보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도 없고 당신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선물을 거절하지는 말아야 한다." (선지, 606)

예언의 신 연구

문제와 계획

1. 어려운 문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2. 성공적인 계획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3.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

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4. 이들(불신자들)의 기부금이나 호의를 받아 들여야 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심

5. 교회의 책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6. 청년 남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7. 청년들을 경계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

8. 부지런히 일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

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9.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10. 예절과 재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와 옴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편견을 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편견을 극복하고 마음들을 얻는 방편으로 의료 선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는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사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편견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구호, 298)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한 자들은 생각과 기도와 진실하고 신성한 재치를 선교 사업에 사용할 것이다." (영문시조, 1893. 5. 29.)

11. 공식 확인서를 받음

"왕에게 제시한 그의 요청이 순조로이 응답되자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그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그의 사명에 위엄과 위신을 세우며 그의 여행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는 총독들과 유대에 이르기 위해 통과하여야 하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조서와 또한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곽과 건물들위에 필요한 재목을 그에게 주도록 지시한, 레바논 산야의 왕의 삼림 감독에게 보내는 조서를 받아 가졌다. 느헤미야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과 특권을 행사하는 데 신중히 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선교, 172)

12. 전진하라!

"왕에게 제시한 그의 요청이 순조로이 응답되자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그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그의 사명에 위엄과 위신을 세우며 그의 여행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는 총독들과 유대에 이르기 위해 통과하여야 하는 지역

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조서와 또한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곽과 건물들위에 필요한 재목을 그에게 주도록 지시한, 레바논 산야의 왕의 삼림 감독에게 보내는 조서를 받아 가졌다. 느헤미야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여된 권한과 특권을 행사하는 데 신중히 하여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선교, 172)

느헤미야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

13. 느헤미야의 생애를 연구하라

"나는 지나간 몇 해 동안 우리의 선교 사업을 소개하는 계획과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이 일을 추진시켜야 할 것을 말하면서 느헤미야의 모본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담대히 그의 친구 아닥사스다왕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도움을 간청하였던 명철과 기도와 신앙의 사람 곧 느헤미야의 경험을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권하고자 한다.

넉넉한 자들에게 재물을 간청하여 얻음— 기도의 사람은 역시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할 준비와 뜻을 가진 사람은 일할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는 재물이 부족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재물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선교, 171)

14. 방해를 만남

"그러나 군대의 경호를 받아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음을 나타내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시기심과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은 전에 갖은 모욕을 가하고 갖은 피해를 입히는 일로써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들의 적의를 나타내었었다. 이러한 악행의 선두에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부족들의 두목들이 있었다. 이 때로부터 이들은 느헤미야의 거동을 시기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으며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그들의 힘으로 느헤미야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 일의 성공에 대하여 의심과 불신을 일으켜줌으로써 일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역시 건축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조소하고 그 사업은 불가능한 것이라 말하며 치욕적인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 예언하였다. …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더 적극적인 반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할 수 없이 끊임없는 대적의 음모에 대비하여 밤낮으로 계속 경계하였다. 대적의 밀사들은 여러 거짓 소문을 퍼뜨리어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 하였으며 또한 여러 가지 구실로써 느헤미야를 그들의 음모에 빠뜨리려고 공모하였다. 더구나 배신적인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역적 행위를 도우려고 하였다. … 우정을 표시하는 대적의 밀사들이 건축자들 속에 끼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꾼들의 주의를 전환시키려고 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의하며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며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교, 173)

15. 오늘날 지도자들이 꼭 같은 방해를 당함

"느헤미야가 당한 경험은 현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도 반복된다. 진리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원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현재의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노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조소와 비난을 피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꿈꾸는 자, 믿을 수 없는 자, 음모를 꾸미는 자, 또는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간단히 말해서 원수의 목적을 이루기에 알맞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가장 신성한 것이 우습게 보이어 불경한 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아주 조그마한 풍자와 익살이 시기, 질투, 불경(不敬) 및 증오심과 연합하여 모독적인 조소자들의 희열을 충분히 일으켜 준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익살꾼들은 서로의 고안들을 예리하게 만들어 서로 담대히 그들의 경건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조롱과 조소는 참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이나 하나님께 진실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업에서부터 물러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다." (선교, 173-174)

16. 조직자로서의 느헤미야

"온 백성이 즐거운 역사에 애국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기에 차 있었다. 재능과 책임 있는 자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몇 개의 단체로 조직하여 각 지도자들에게 성의 일부를 쌓는 책임을 맡기었다. 부지런히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조화를 이루어 일하면서 재건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시기에 매우 유쾌한 장면이었으며, 이른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는 톱질 소리와 망치 소리는 듣기에 매우 즐거웠다." (선교, 175)

17. 참된 지도력을 발휘함

"그 사업이 실제로 착수되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열심과 정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서 그의 책임을 벗어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지고 일을 감독하며 일꾼들을 지시하며 모든 방해물들을 주시하며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의 영향력은 약 5킬로나 되는 성 주위 어디에나 항상 미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적절한 말로 용기를 주며 일에 부지런한 자들을 알아주며 게으른 자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또 예리한 눈으로써 원수들의 동태를 주시하였다. 때때로 원수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듯 열심히 의논한 후 역사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러 그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며 일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모든 일꾼들의 시선이 조그마한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종종 느헤미야에게로 향하고 있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과 눈은 모든 사업의 대 감독자이시며 자기의 마음 속에 성을 건축할 마음을 넣어 주신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가 증강되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고 외쳤으며, 그의 말은 다시 반복되며 반향되어 그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일꾼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선교, 175-176)

18. 고난을 꺼려하거나 봉사를 회피하지 않음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은 고난 당하기를 꺼려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심지어 잠자는 짧은 시간에도 옷을 벗거나 무기를 내려 놓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선교, 176)

19. 어떤 자들은 일하기를 거절하기도 하였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귀족들과 방백들도 귀인답게 그들의 의무에 임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드고아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다. 신실한 건축자들에 대하여서는 명예스러운 말로써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편 이러한 게으른 종들에 대해서는 그 기록에 수치스러운 일이 날인되어서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한 경고로 전해져 내려왔다.

모든 종교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떨어져서 그 일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는 종종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정열적으로 일한다. 하늘에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모든 행실이 적혀 있으며 그 책에는 빠뜨린 것이나 잘못 기록된 것이 없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한 모든 사실들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믿음과 사랑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기억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보존될 것이다." (선교, 176-177)

20.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됨

"오늘날 교회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곧 기도와 설교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설교가 확고 부동한 목적을 포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구된다. 느헤미야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히브리 애국자들이 취한 그 노선은 아직도 오늘날 목사와 지도자들이 취하여야 할 노선이다. 그들이 계획을 세운 후에는 교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교인들로 그 계획들을 이해하여 그 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개인적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의 노력에 수반되었던 성공은 기도와 믿음 그리고 현명하고 정열적인 활동이 얼마나 큰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산 믿음은 강력한 활동을 일으킨다. 지도자들이 나타내는 정신은 신자들에 의하여 크게 반영된다. 이 때에 세상을 시험할 엄숙하고 중대한 진리를 공언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서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나태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교, 215)

기억할 말씀: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 휘장은 지금 막 걷혀지려 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자신의 안이와 안락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에 골똘해 있을 수도 있겠는가?" (9 증언, 26)

연구할 과제

1. "그리스도인이 구사(驅使)할 수 있는 기지"는 무엇인가? (선지 604)
2. 세기를 두고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 온 두가지의 선물에 대해 말해 보라. (6 증언, 310)
3.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대우함으로 저들을 일깨워 주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는가? (6 증언, 434)
4. 수확 운동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본 교회 연감 참고)
5. 수확 운동 총액이 어떻게 해서 일년 동안 드려진 안식일 학교 연금과 비교가 되는가? (본 교회 연감 참고)
6. 수확 운동의 기원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 보라. (See Origin History of SDA Vol. 3 {Christ's Last Legion}, by A.W.Spalding, Chap. 11)

제80과 문서 전도 봉사

성경절 연구: 시 126:5, 6; 전 11:6

요점: "누가 우리의 인쇄물을 들고 나가겠는가? 거룩한 능력과 협력할 모든 남녀들에게 주께서 그 사업에 적합한 기질을 부여하신다. 저들이 투구를 쓸 때에 모든 필요한 재능, 용기, 인내심, 믿음 그리고 재치(기교)가 뒤따라 오게 될 것이다." (6증언, 333)

예언의 신 연구

문서를 통한 전도

1.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선교 사업

"하나님께서는 우리 책속에 들어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수단으로 문서전도사업을 지정하셨다. 문서전도자들은 사람들의 영적 교육과 계발을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가능한 한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사업이다. 문서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만일 문서전도자의 노력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코 경고를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전, 6-7)

"중요성에 있어서 목회사업과 동등함 — 문서전도자들은 나라의 여러 지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목회사업의 중요성과 전연 동일하다. 활동하는 설교자와 침묵의 사자가 모두 우리 앞에 있는 큰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문전, 8)

2. 모든 교회에서 온 일군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서 나온 일꾼들이 문서전도자로서 당신의 사업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만일 교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한다면, 만일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려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신다. 교회의 신실한 봉사로 말미암아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마다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상 각처에서 찬사와 기도와 감사가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계발시키는 일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전, 20-21)

3. 천사들이 동행하여 길을 예비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이여, 나는 주님께서 온 세상에 널리 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책들을 배포하기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그대에게

청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그 책들을 전하기 위하여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만일 많은 신자들이 이 책들을 배포함으로써 주님께서 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업에 정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늘의 천사가 그대와 동행하여 길을 예비할 것이다." (문전, 22)

4. 적응을 잘하고 재치가 있으며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 요구됨

"선교인들이 도처에서 요구된다. 선교지의 여러 곳에서 문서전도자들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중에서가 아니고, 또 아무 일에도 쓸모가 없거나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남녀들 중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고, 적응을 잘하고 재치가 있으며 예리한 선견지명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야 한다. 문서전도자로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들은 이 일에 종사할 것인데 어떤 생각없는 목사는 그들의 재간을 단순히 문서전도사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아첨의 말을 한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얕본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자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고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빈약한 목사들이 되도록 얽매어 버린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노력이 필요되고, 그토록 많은 유익이 이 사업을 위하여 성취되었을 지방이 등한시된다. 유능한 문서전도자도 목사와 같이, 만일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하면 그의 봉사에 대한 충분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 (문전, 28)

자격을 구비한 문서 전도자

5. 첫째 요소는 무엇인가

"문서전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베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심이 서기까지는 아무도 성공적인 영혼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확고히 붙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새로운 빛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에 저희는 교리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사유와 순결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찾아갈 것이다." (문전, 49)

6. 철저한 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인 활동을 문서전도 분야에서 할 수 있다. 문서전도자는 끊임없는 향상함이 없이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그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틀에 박힌 말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의 노력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의 마음 속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과 가족에게 접근할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방안을 줄 것이다.

우수한 문서전도자들이 철저한 훈련과 실습으로 출판소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을 취급하게 할 것이다." (문전, 5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져서 어느 때든지 요구를 받으면 지식의 보고에서 새롭고도 오랜 것들을 제시할 준비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판매하는 책에 대한 지식 — 문서전도자들은 그들이 취급하는 책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달하여 중요한 장(章)들에는 쉽게 사람들의 주의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증언, 338(1900)

7. 좋은 인상을 주는 옷 차림과 태도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우리가 믿노라고 공언하는 진리에 대하여 비난을 초래한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온 생활이 성경의 진리와 조화되게 하라. …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남에게 끼치는 감화가 일시적이고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의 모든 태도와 외관이 존경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온전한 성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진리는 심지어 옷차림에서도 깨끗한 인상을 줌으로 확대된다. 무뚝뚝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업에 합당하지 않다. 재치, 좋은 구변,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식별력을 소유한 남녀들, 영혼의 가치를 느끼는 남녀들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문전, 65)

8.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함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음** — 아무라도 손을 쓰지 않고 방관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태만하고 무활동적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봉사를 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분의 노력은 얼마나 열성적이고 얼마나 끈기 있는 것이었던가! 그분께서는 주어진 사업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어떠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그분께서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께서는 죄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셨지만,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에 죄인의 죄를 지셨다. 그분께서는 시험과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다.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망의 타격을 받으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 오셨다." (문전, 76-77)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라** — 문서전도자의 사업은 만일 그가 정직하고, 열심있고 참을성있게 그리고 꾸준히 일하기만 하면 발전하고 장래에는 성공할 사업이다. 그의 마음을 사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경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불굴의 인내로 직면하면 그것들을 극복할 것이다. 교역자는 끊임없이 조화있는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위대한 품성은 작은 행동과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문전, 77-78)

활동하는 문서 전도자

9. 예의와 친절로 문호를 열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활동 방법 중의 하나는 문서전도자의 일이다. 행동 범절이 예의 있고 친절한 일꾼은 많은 가정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때 자신이 사려 깊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집안 일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체하여 주기를 요구함으로 전도자 자

신을 짐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다. 전도자가 가정에 있는 동안 환자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때때로 그들이 너무 바빠서 문서전도 권유나 성경 교수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종종 그는 그들의 하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살 수 있다." (문전, 88-89)

10. 도와줌으로 신임을 얻으라!

"사람들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안 일의 짐을 나누어 가져라 … 성가신 일을 하는 피곤한 아버지를 도와주라.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동정심을 가져라. 겸손하게 일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대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저들을 도와 주라. 그렇게 함으로 얼마 동안 시간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도와주라 … 병자를 치료하는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 실물교훈이 될 것이다. 좀 더 철저하게 하려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지도 모르며 또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대가 방문한 가족들에게 그들이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말하라. 건강개혁에 대해서 실린 소책자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라. 이와 같이 하여 그대는 진리의 씨를 뿌릴 수 있다." (문전, 89)

11. 부채를 지지 말 것

"모든 사람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 어떤 교역자라도, 그의 업무가 부채를 지는 방법으로 경영되어서는 안 된다. 벌기도 전에 금고에서 가불하는 행위는 하나의 올무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제한을 받게 되고 선교사업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부양받지 못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임의로 부채를 지게 될 때에 그는 사단이 영혼들에게 쳐 놓은 하나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다." (문전, 93-94)

12. 문서 전도 사업은 의료 사업과 목회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함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경고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위임하신 한 방법이다. 신실한 교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로 상징되었다. 교사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의 일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의료선교사업은 목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서전도사업은 의료선교사업과 목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대가 백성들을 방문할 때 그대는 복음교역자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문전, 101)

하나님과 연합함

13. 능력을 붙드라!

"문서전도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는 기도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붙들게 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있는 감화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모든 일꾼과 함께 하실 것이다.

진지한 노력으로 백성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는 목사나 전도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성스런 문서전도자를 축복하실 것이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사업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지배하에 겸손히 일하라." (문전, 106)

14. 천사들이 성공하도록 도와 줌

"많은 책임이 문서전도인에게 놓여 있다. 그는 성경을 설명할 준비를 갖추고 일

을 하러 나가야 한다. 만일 그가 이 곳 저 곳에 여행할 때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있어 많은 영혼에게 빛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말을 줄 것이다." (문전, 111)

15. 천사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줌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식별한다면 그들은 하늘이 보는 데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것이다. 문서전도자는 영혼에게 빛과 힘을 전해 줄 책들을 취급할 것이다. 그는 이 책들의 정신을 흡수하여 그 책들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일에 온 마음을 바칠 것이다. 그의 능력, 그의 용기, 그의 성공은 이 책에 제시된 진리가 자신의 경험 속에 얼마나 온전히 짜여 들어갔느냐, 그의 품성을 얼마나 온전히 계발시켰느냐에 달려 있다. 그의 생애가 이와 같이 형성될 때에 그는 나아가서 그가 취급하고 있는 거룩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깊고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며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업에서 그에게 성공을 줄 것이다." (문전, 112)

16. 모든 어려운 것을 도와줌

"**허다한 방법** —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사업을 최상으로 여기는 한 가지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그들의 발 앞에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치료, 481 481)

결과는 외관상 성공으로 평가할 것이 아님 —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의무를 신실히 행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신실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상은 외관상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행하여진 정신에 달려 있다. 그대들은 문서전도자들로서 혹은 전도자들로서 그대들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는 알지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원고 20(1905)

낙심할 필요가 없음 —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항상 자기 부정을 실천한다면 교역자들은 낙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 영혼들 역시 마귀가 죄의 노예로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하고자 찾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문전, 114)

진리로 가득찬 우리의 서적들

17. 기별을 전하는 책들

"주님께서는 현대 진리의 빛을 가진 책들을 배포하기 위하여 문서전도 분야에 참여할 일꾼들을 부르신다. 세계의 거민들은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을 깨우쳐 줄 서적들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

오랫동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성화될 필요가 있다. 세째 천사의 기별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엄청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빛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되는 것을 금하신다.

경고의 기별이 세계 도처에 전해져야 한다. 우리의 서적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언으로 출판되어야 한다. 이 책들을 가지고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문서전도자들로서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결코 깨우쳐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문전, 120)

18. 예언의 신 서적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실물교훈]을 배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책을 판매함으로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노력이 이 한 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은 한 가지 분야에 봉사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실물교훈]은 살아서 그 지정된 사명을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노력을 그 한 책을 배포하는 일에 바쳐서는 안 된다. 큰 책들 즉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쟁투], [시대의 소망]이 각처에서 판매되어야 한다. 이 책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세계 도처에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어떤 일도 이 책들을 판매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전, 124)

19. 건강에 관한 출판물

"**건강에 관한 출판물들의 배포** — 건강에 관한 출판물들을 배포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절제에 관한 큰 문제와 참다운 건강개혁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에 대하여 탐구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전에 없이 깊이 고무되기를 바라신다.

신앙과 건강 — 참다운 신앙과 건강법칙은 꼭 같이 병행한다. 건강을 파괴하고, 영혼을 타락시키며,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을 주지 못하게 하는 죄악적 만족감에서 벗어날 필요를 남녀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문전, 131)

20. 우리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서 하는 봉사

"**우리의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진리를 소개함** — 우리의 잡지에는 축복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진리가 실려 있다. 우리의 정기 간행물을 판매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는 내용이 충실한 문서들을 배부함으로 성취될 수 있는 사업에는 사실상 잠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기 간행물과 서적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밧모섬의 요한에게 주신 기별을 세상에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한다." (문전, 145)

기억할 말씀: "문서전도보다 더 고상한 사업이 없는 것은 이 사업이 최고의 도덕적 책임의 수행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문서 24)

연구할 과제

1. 우리의 문서들이 필히 보급되어야 할 다섯 군데를 언급하라. (9 증언, 122)
2. 목회 사업을 위한 준비로써 문서 전도 사업의 경험을 가지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문서 53, 54)
3. 예레미야 16:16절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문서, 59)
4. 문서 전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문서, 76)
5.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범할 수 있는 유혹에 대해 말하라. (문서, 78)
6. 문서 전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해 보라. (문서, 12장

116-120)
7. 문서 전도자들이 간혹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는가? (문서, 145-147)
8. 건강에 관한 문서들이 왜 중요한가? (문서, 185, 186)
9. 문서 전도인들이 소책자와 전도지들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문서, 197)
10. 우리 서적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의 한계를 말해 보라. (문서, 208, 209)

제81과 위대한 사명

성경절 연구: 마 28:18-20; 계 22:17

요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업에 대한 박해를 위하여 충분히 준비하셨고 사업의 성공의 책임을 친히 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먼 지방에까지 가서 나의 임재가 그곳에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보증하라. 내가 그대들을 버리는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니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 (행적, 31)

예언의 신 연구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1.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령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 을 가르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에게 하늘의 빛이 밝고 힘있게 비춰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주와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였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열 두 제자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약속은 유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하여 저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먼 곳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투심 많은 유대인들의 의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사방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그리스도께 대해 들은 소식들을 열심히 주고 받으며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곳으로 모여들었다." (소망, 818)

2. 산 중턱에 적은 무리들이 모였음

"약속된 시간에 약 오백명 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중턱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 주었다.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어떻

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의 불신 때문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 (소망, 818-819)

3.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단 한 번의 유일한 회견이었다. 예수께서 나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경배하였는데, 죽음으로 닫혀졌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특이한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셨다. 저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사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일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반대를 진압하고 자연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분은 사나운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흰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자를 살리셨던 것이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소망, 819)

4.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산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분은 중재 사역에 들어가셨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 20)." (소망, 819)

"**온 세상에 띠를 두름** -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셨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띠로써 두를 사업을 확장하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적합한 재능들을 주셨다. 요양소, 학교, 출판사, 그와 같은 종류의 온갖 시설들을 이 세상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외국에서 재정이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위생 식당의 개업과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요양소들의 섭립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저들의 착한 행실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료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협력하신다. 요양소들과 치료실들은 여러 나라에 세우기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로 저들의 최선을 다하는 남녀들은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방문하는 자들은 육체적으

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몸이 지쳐 있는 자들은 새기운을 얻게 되고, 병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죄에 멍에를 진 자는 놓이게 될 것이다. 죄를 섬기던 생애에서 돌이켜 의를 섬기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미가 먼 나라에서 들려올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미의 노래로 이루어진 간증은 다른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전도, 406)

5.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선포하여야 함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이었으나 바리새주의는 그들을 온 인류에 대하여 가장 배타적이요 가장 편벽(偏僻)된 자들로 만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관한 모든 것 곧 의복과 관습과 의식과 유전들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대 나라를 온 세계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믿음과 예배,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다." (소망, 819-820)

영적 왕국을 설립하기 위함

6. 예언의 세목들이 성취되었음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메시야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 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어야 할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망, 820)

7.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손에 맡겨 주신 사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친절을 베푸신 곳이다. 그 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유대 땅은 그분의 출생지였다. 그 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 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과 그분의 하신 수고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함을 보고 제자들은 더 유망한 일터를 주시도록 간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 씨가 움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질투와 증오에서 오는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이므로 그들도 그 박해를 피하지 말아야 하였다.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해져야 하였다. 온 예루살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일어난 소름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소망, 820-821)

8.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되어야만 함

"그러나 사업을 이 곳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었다. 이 사업은 가장 먼 변경(邊境)까지 확장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아 희생적 생애를 목격하였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목도하였다. 비록 저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희가 하고자 한 대로 나에게 행하였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나를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거리낌 없이 받아 들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쫓아내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믿는 모든 자는 한 교회로 모여야 한다." (소망, 821)

9.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었음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바침될 것이다. 이적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16:17, 18)고 말씀하셨다.

이 때에는 독살(毒殺)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무법한 사람들은 그들의 야망을 가로막는 자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생명이 이런 위험을 당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증인들을 죽음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위험에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마 4:23; 9:6). 그리고 이제 한 새로운 선물이 약속되었다. 제자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 날 성령의 부어 주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에 있어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소망, 821)

10.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설립되었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맡겨 주셨다. 그분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며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지셨다.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 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

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 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소망, 821-822)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1. 모든 일군들은 저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야 함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계 22:17).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초청을 반복할 것이다.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서는 일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근에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그것이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주리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까지도 이 일의 감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사업이 좁은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으나 각 나라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의 기별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의 사업의 모든 부분이 마치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는 바퀴 속의 바퀴처럼 모든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해서 추진되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심금(心琴)을 울릴 때에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릴 것이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소망, 822-823)

12. 국가적인 편견을 없이하라.

"그러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너머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 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기심이 정해 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며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 그분은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며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소망, 823)

13. 병든 자를 고치며,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구주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그 사명과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미친다. 그 모든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고전 12:11)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주의 사업을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보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였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소망, 823-824)

14. 단순한 자연 요법 사용함을 찬성하심

"병을 고치시는 구주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한번은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7).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 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소망, 824)

15.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며 회복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眞髓)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소망, 824-825)

잃은 자를 구함

16.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불신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들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구주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곳들이 있었다. 그처럼 지금도 불신은 교회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다.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교회의 힘이 약하다. 교회가 믿음이 부족하므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신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의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 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소망, 825)

17.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목사들을 교회의 교육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인가? 슬프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꺼져 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리려고 애써서 부채질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사람들에 의해 병든 양들처럼 돌봄을 받고 있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인간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같이 큰 사랑을 다만 피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 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양의 의분이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그 큰 심판 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눅 13:27)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소망, 825)

18.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사업의 윤곽을 말씀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도 주셨다. 그분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 여기에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것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가르침은 여기서 제외된다. 유전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추론이나 교회의 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위탁에는 교회의 권위로 법을 제정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관한 기록과 '율법과 선지자'만이 이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맡겨진 보물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군호(軍號)와 저들을 구별짓는 표가 되며 그들의 연합의 띠와 저희 행동의 노선을 결정하는 권위가 되는 동시에 성공의 원천이 된다. 그분의 이름을 지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신임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충실한 자들의 거처로 보내사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종들이 증거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소망, 825-826)

19. 제자들은 모든 불화한 것을 일소하였다.

"최초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 이 제자들은 저희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준비했다. 오순절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구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명씩 회개하였다.

지금도 그렇다. 인간의 공론(空論)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시대에 부어 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욜 2:23)." (소망, 827)

20.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그의 지상 봉사 기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하는 이 사업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셨다. 그분은 열둘과 또 후에 칠십인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각자 봉사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므로 그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 곳에 멈추시자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다. 마치 당신의 보호에 대한 보증인 것처럼 손을 펴 축복하시고는 그들 가운데서 천천히 승천하셨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눅 24:51)셨다." (행적, 32)

기억할 말씀: "도처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일군들이 필요되고 있다. 진지하고, 믿음직한 일군들이 국내외 선교 지역에 현재 한 사람씩 있는 곳에 100명씩이나 있어야 한다." (교육 기초, 488)

연구할 과제

1.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행적, 27)
2.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저들이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였는가? (행적, 37)
3. 저들이 기다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행적, 38-39)
4. 복음 사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행적, 30)
5. 어떻게 해서 강퍅한 마음들과 세속에 붙은 이기심을 녹일 수 있었는가? (행적, 33)
6. 유럽에서 어떠한 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 있는가? (전도, 401)
7. 누가 경고의 기별을 전하여야 하는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전도, 419)
8. 어떠한 복음의 찬란한 승리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 (전도, 674)
9. 제1세기에 복음 사명이 어떻게 순종되어 전파되었는가? (롬 10:18; 골 1:6; 행적, 582)
10.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행군 명령은 무엇인가? (복음, 114)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런 은밀한 소원들을 들을 다른 어떤 귀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로, 225)

제 11 장

내 신앙에 위험을 주는 것들

제82과 세속주의

성경절 연구: 눅 21:34-36; 요일 2:15

요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표준보다 조금만 높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외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이루어야 한다. 믿지 않는 친척들과 우리 동료들에게 그렇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 증언, 146)

예언의 신 연구

세속 주의의 증거

1. 그대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대를 사랑함

"우리가 그대를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그대 자신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실제적인 경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대 자신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 저들(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대가 저들과 맞장구를 칠만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본다. 또한 저들이 그대 안에서 저들을 기쁘게 할만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 저들은 그대를 찬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그대를 위로하려고 한다. 또한 그대도 저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것들을 위로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다. 저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저들의 교만심을 격려해 주었다. 또한 그대의 행동은 죄인들을 향하여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 세속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의 판단력은 왜곡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싫어 하시는 죄가 그대의 안목에 그리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6 증언, 430)

2. 이기심, 물욕, 탐욕(탐심)

"우리는 교회의 유용성이 제한된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독단적으로 억제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권리가 없다. 과거에 잘 지도된 노력에 뒤따른 성공의 정도는 그런 생각을 반박한다. 성공은 언제나 이루어진 활동에 비례했다. 교회의 유용성을 제한한 것은 오직 활동과 희생의 제한이다. 선교 정신은 약화되고, 헌신

은 저조되고, 이기심과 탐욕, 탐심과 사기가 교인들 사이에 존재한다." (5 증언, 202)

3. 세상의 어리석음이 저들의 하고자 하는 의도를 없애 버렸음

"이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광경 즉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당신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이 당신의 공의와 대면하게 될 최후의 대심판을 연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지력의 냥쭝을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데 써버린 자들은 심판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편의와 세속적 향락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참 사랑의 친구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어리석음과 기만은 그 의도를 없애 버렸다. 경박한 오락과 의복에 대한 허영심과 식욕의 방종은 마음을 굳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 의무는 멸시를 받았다. 무한히 가치 있는 사물은 경히 여김을 받고 마침내 인류를 위하여 그처럼 큰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씨뿌 린것을 수확할 것이다." (부조, 557-558)

4. 사치스러운 가옥과 값비싼 가구들을 사랑함

"자비하심의 작은 물줄기들과 보다 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의 너그러움보다 훨씬 더 빨리 전진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과 수립을 위한 길은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사치와, 과시를 좋아하는 마음에 의하여 차단된다. 전 교회는 사업의 각 분야에서 져야 할 엄숙한 책임을 맡고 있다. 만일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과시와 의복을 사랑하는 마음과 훌륭한 집과 값진 가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경향을 부인할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사이에는 훨씬 더 큰 겸손과 훨씬 더 큰 세상과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절약과 극기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비하심의 자금을 많이 마련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늘의 왕께서 밟으신 자아 부정의 길을 겸손하게 걷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극기의 생애가 되어야 하므로 도움을 위한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7 증언, 296-297)

5. 저들의 옷차림, 대화,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음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공언하지만 그들이 대화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들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벧후 3:11, 12).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그러나 재림신도라는 이름을 지닌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몸치장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 (초기, 108)

6. 저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임

"만일 우리의 모본이신 자비로운 예수께서 이 초림 때처럼 그들 가운데에 나타

나신다면 신앙을 공언만 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분은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그분의 생애와 사업을 따르라. 그분은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은 곳도 없이 통으로 짠 소박한 겉옷을 입으시고 머리둘 곳도 없으셨던, 초라하고 비천한 구세주 앞에서 부끄러워 할 것이다. 그분의 흠없고 자아부정의 생애는 그들에게 견책이 되고, 그분의 거룩하신 경건은 그들의 무익한 웃음과 경박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제재가 될 것이다. 그분의 거짓 없는 말씀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들의 담화를 억제시키게 될 것이며, 꾸밈 없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겸손의 모본이신 자애로운 예수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없애 버리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구실삼아 그를 붙잡는 데 선봉이 될 것이며 그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초기, 108-109)

세속 주의의 위험성

7. 현세적인 이익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운 손실을 가져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 종교적 감화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요청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필요하게 그리스도인 품성 형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 그들의 평생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었다." (부조, 169)

8.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분리시킨 벽을 사단이 무너 뜨리려 함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지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고자 모험함으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락하게 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택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감쪽같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다. 그들은 그런 교제가 그들에게 해를 주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어간다." (쟁투, 508)

9.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련된 부하들(대리인들)

"유혹자는 흔히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의심받지 않는 자들을 통

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을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된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 그런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세련된 지성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력과 모본에 나타난 교묘하고 기만적인 특성은 무식하고 교양없는 자들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사업에 끼친다." (쟁투, 509)

10. 교회 안에 있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병폐)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교회에 있다. 교인들은 사단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놋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거나 그 능력을 느낄 만큼 충분하게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그들은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와 헌신을 이따금 일별하지만, 그것이 달갑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들은 미구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고자 유의하지 않는 한 그들을 유용하고 유능하게 하실 수 없다." (5 증언, 202-203)

교회 안에 있는 세속 주의

11. 개신 교회 안에 있는 세속 주의

"로빈슨과 로저 윌리엄즈가 훌륭하게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들의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 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법왕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간직하고 지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 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쟁투, 297-298)

12. 재림 신도들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손에 맡겨진 사업을 하고 있다. 안락과 편의, 생명 자체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진리의 빛을 전하고 하

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옹호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죄가 교회 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다. 빛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을 묘사하신 것이다. 이 세상이 그들의 집이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을 그들의 사업으로 삼는다. 그들은 값진 주택들을 짓고 온갖 좋은 것들로 장식한다. 그들은 의복과 식욕의 탐닉에서 기쁨을 찾는다. 세상의 사물들이 그들의 우상이다. 이것들이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엄숙하고 무서운 사실들을 다만 희미하게 보고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다. 유대 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지웠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오도록 허용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회와 특권들을 허비할 것인가? 평화롭고 비교적 번영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련과 핍박의 압박 아래 흑암의 날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5 증언, 456-457)

13. 고대에 살던 거룩한 사람들은 이세상의 순례(유랑)자였음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거나 세속적 계획이나 야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 놓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더 좋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열망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셨다." (5 증언, 188)

14. 불신의 상징(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데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들의 방종되고 안일을 좋아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냈음을 시인하심 없이 세상 앞에서 어떤 두드러진 방법으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없으셨다.

나는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에게, 그대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바이다. 그대들의 행동이 내 앞에 제시되었을 때, 나는 최근에 우리 백성들이 그 도시에 세운 주택들을 지적당했다. 이 건물들은 그대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리들을 그대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너무도 많은 기념탑들이다. 그것들은 강단에서 전해진 어떤 설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농담과 조롱으로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소유주들이 마음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마 24:48)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 증언, 188)

15. 저들의 의복과 대화

"나는 의복을 바라보았으며,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둘 모두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었다. 의복과 대화는 이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것을 마음에 가장 크게 간직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일 4:5). 청교도적 검소함과 단순함이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택과 의복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의복이나 우리의 집들을 꾸미는 데 쓸데없이 사용된 모든 돈은 우리 주님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사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관들은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관들을 어려움에서 모면해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들의 번영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어떻게 주님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요 3:7)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마음을 그리스도께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과시를 본받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에나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며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주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주택,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거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버린 사실을 입증한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헌신한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며, 불신의 세상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5 증언, 188-189)

16. 세상과 차이가 있음

"상에서 우리의 위치는 마땅히 점유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이 우리가 받은 빛과 기회에 일치하였더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하였더라면 우리가 틀림없이 도달했을 자리에서 우리는 훨씬 더 멀리 가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빛 가운데서 걸어갔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계속 좇아갔다면, 우리의 길은 점점 더 밝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빛을 가진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도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택함을 받은 귀중한 백성으로 서 있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8 증언, 247)

17. 교회는 저울에 달려야 함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려질 것이다. 그 교회는 받은 바 특권과 이점(利點)에 의하여 판정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받은 바 축복이 그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그에게 갖추어 주지 못했다면, '부족함이 뵈었다'는 선고가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어진 빛과 받은 바 기회에 의하여 그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8 증언, 247)

교회가 세속 주의에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 세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후 6:14). 이것은 결혼 관계에 대

한 언급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과의 신뢰와 협동의 어떤 친밀한 관계도 올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되리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6).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라고 부르짖습니다(고후 6:17, 7:1)." (5 증언, 13)

19. 세상 재물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는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것들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상 가운데서, 교회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나는 이 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았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세속적 마음, 이기심, 탐심 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 왔다.

지나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기심과 탐심의 죄악이 싹터 나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애정을 세상에 둘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눅 18:25). 그러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고 있음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한 그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세상의 보화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이 된다. 재물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빌려 준 것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친절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1 증언, 141-142)

20.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나는 이처럼 번영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그들의 이기적 탐심을 극복한다면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을 보았다.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부와 고아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재물이 필요한 곳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노력하라. 이 귀중한 보배들은 우리 편에서 기울이는 어느 정도의 노력 없이 저절로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야 한다.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1 증언, 142)

기억할 말씀: "… 그리스도의 안에는 영원한 빛과 평화의 기쁨이 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세상의 욕심을 적게 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덜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 (가정 447:2)

연구할 과제

1. 참된 종교의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인가? (목사, 270)
2. 홍수 이전 시대의 세상과 현대 세상을 비교해 보라. (목사, 90)
3. 세속 주의의 원칙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칙을 서로 비교해 보라. (4 증언, 79)
4.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원칙보다 하늘의 원칙을 실행하는데 실증을 보일 수 있겠는가? (1 증언 142)
5. 솔로몬이 다시스의 은과 오빌의 금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7 증언, 217)
6.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세상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대해 의논해 보라. (선지, 544; 쟁하, 316)
7.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여 세속 주의를 권장하고 있는가? (1 증언, 156)
8.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나타난 평생 사업들은 무엇들인가? (고전 3:11-15; 5 증언, 466)
9. 무엇이 세속 주의를 막아줄 것인가? (5 증언, 202)

제83과 의심 – 이단

성경절 연구: 마 24:11-13

요점: "**아무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 –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 놓여진 기초들– 을 뜯어 파괴시키지 않게 하라. …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고, 저희는 이제까지 놓여졌던 것보다 더욱 강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속임이다. 아무 사람도 이제까지 놓여졌던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없다." (8 증언, 297)

예언의 신 연구

구약 시대의 반역

1. 홍수 이전에 있었던 반역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창 6:7)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세계와 그의 풍부한 귀중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었다. 그분은 들의 짐승들과 그렇게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했던 식물(植物)을 쓸어 버리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모케 하실 것이었다." (부조, 92)

2. 홍수 이후에 있었던 반역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를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입안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부조, 119)

3.시내산 밑에서의 반역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

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부조, 319-320)

4. 고라의 반역

"만일 그대들이 제멋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고를 저버린다면, 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증언들에 대한 그들의 신임을 감소시킨다면, 그대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대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의견에 있어서 얼마나 완고했던지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이 모세의 판단보다 낫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과 연합한 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그처럼 굳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살아남은 자들은 모세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민 16:41)라고 말했다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기만이 인간의 마음을 엄습하는지 보게 된다.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영에 물든 영혼들을 각성시키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대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있는지 조심하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취급하는 태도에 대하여 그분께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5 증언, 66-67)

5. 국가적인 반역

"이울게 하는 아합 통치의 감화 아래서 이스라엘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있었으므로 이제는 널리 퍼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반대해서 감히 저희 생명을 내걸고 공공연히 서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조상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예배하는 우상의 신전과 신에게 바친 숲들은 늘어만 갔다.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들의 연기로 인해 공기는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교 사제들의 술 취한 부르짖음이 산과 계곡에 울려 퍼졌다." (선지, 115)

후세에 있었던 반역(배교)

6. 초기에 있었던 반역(배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改宗)하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은 계속적으로 해로운 일을 하였다.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儀式)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

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쟁투, 43)

7. 종교 개혁 시대 이후의 반역(배교)

"펍박으로 진리를 깨뜨려 버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단은 일찍이 로마교를 형성시켜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 보다 더욱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 내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하므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사단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그 유전들을 지지하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을 전락시켰다." (쟁투, 298)

8. 1844년 이후에 밀러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던 배교(반역)

"1844년의 시기를 지난 후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광신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강신술의 이론들을 주장하는 몇 사람들에게 전해 줄 책망의 증언들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사상들을 전하는 데 활동적인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무효로 만들고 있다는 빛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들을 제시함으로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교훈을 받았다." (8 증언, 292-293)

미래에 있을 배교(반역)

9.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될 것임

"과거의 경험이 반복될 것이다. 미래에는 사단의 미신들이 새로운 형태를 취할 것이다. 오류들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비위를 맞춰 주는 모양으로 제시될 것이다. 빛의 옷을 입은 거짓 이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이고자 애쓸 것이다. 가장 크게 미혹시키는 감화가 발휘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최면술에 걸리게 될 것이다." (8 증언, 293)

10.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사단의 대리자들은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우리의 첫 조상에게 숨겼던 것처럼 매력적인 의상(衣裳)으로 거짓 이론들을 가리고 있다. 이 대리자들은 사실상 치명적인 오류를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화들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최면술의 감화가 머무를 것이다. 사단이 올무를 놓고자 가장 끈기 있게 애쓰는 대상은 가장 크게 빛을 받은 자들이다. 그는 만일 그들을 기만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의 통제 아래 죄를 의의 두루마기로 옷 입히고 많은 사람을 곁길로 인도할 것을 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 사단이 빛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의 집회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가담시키고자 애를 쓰면서 걸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갈 6:7)라는 경고를 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8 증언, 294)

11. 선동적인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님(참 종교는 인기있는 종교가 아님)

"그대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걸어가라. 그대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님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교리와 이론들을 위한 입맛을 돋구게 하는 짐을 아무에게도 지우지 않으셨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가르침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려라. 그것들이 그대들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대들의 평생 사업이 그것들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하라." (8 증언, 295)

12.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 있다. 사도는 신자들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고 말한다.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2-10)." (8 증언, 295-296)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님

13. 이렇게 하는 일은 칭찬할 만하거나 의로운 일이 아님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함으로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고 손상을 입게 만드는 일은 거룩한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경고와 책망, 조언과 지시의 기별을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기별들을 그것이 연관된 것에서 떼어 내어 오류적인 기별에 설득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만한 곳에 배치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S 형제와 그 동료들이 발행한 소책자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비난하고, 교회로부터 분리되라고 촉구하였다. 이것은 명예스럽지도, 의롭지도 못한 일이다. 이 책을 편집할 때 그들은 내가 인정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오류라고 비난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 이름과 글들을 사용했다. 이런 소책자를 받게 될 이들은, 내 저서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이 그 주장과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주장에 대한 책임을 내게 씌울 것이다. 이런 일을 역설하는 이들은 크게 기만당하고 있다고 나는 주저 없이 말하는 바이다." (목사, 36)

14. 거짓 기별

"나는 큰 빛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그분의 인간 매개자들을 통하여 세워 오신 것을 헐어 버리는 일을 옹호할 때, 그들은 크게 기만당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노선을 따라 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해 동안 해왔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라거나, 바벨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집에 그냥 있는 편이 낫다. 그런 이들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 숙고하게 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매개자들로 더불어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은 형제들의 참소자, 곧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는 자의 편에 가담해왔다. 사단의 매개자들은 음부로부터 활동해 왔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당황하게 하고 괴롭히

며, 그들에게 큰 환난을 주기 위해 악의 동맹체에 가담하도록 인간들을 고무시켜 왔다. 온 세상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해 적개심을 나타낼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일요일, 곧 적 그리스도 권세의 제도를 영화롭게 함으로 교황권에 존경을 나타내지 않은 연고이다. 사단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최상권에 대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땅에서 말살시켜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목사, 36-37)

15. 사단의 비난

"사단의 고소 장면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그는 말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슥 3:1).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자기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속죄하고 계신다.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을 때 그들은 그분의 입혀 주신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납된 바 된다. 사단은 그들을 향해 악독한 증오로 불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께 나타냈던 동일한 정신을 그들을 향해 나타낸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 로마의 총독은 그분을 석방하려고 했으며, 백성들이 그분께서 통과하시려는 고초로부터 예수님을 놓아 주기로 선택하기를 바랐다. 그는 시끄럽게 떠드는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범죄자 바라바를 세워 놓고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 27:17, 21, 22)." (목사, 37-38)

16. 비난하던 자(사단)가 책망을 받음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하나님의 천사들이]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그들의 속량자 예수] 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나는 현대 진리를 믿노라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이 장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성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대에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에서 돌아서서 충성의 자리로 되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옹호하는 자리에 서며 사단의 지도하에 불법의 사람이 파괴한 곳을 수보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수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이다. 진리는 언제까지나 먼지 속에 묻혀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며 존귀케 될 것이다. 그것은 떠올라 그 본래의 모든 광채를 발할 것이며, 영원히 굳건하게 설 것이다." (목사, 40-41)

17. 비난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님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상에서 그분이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시는 대상이다.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에게 확신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과 함께 계수되었다고 선포하는 기별을 가지고 우리 중에서나 우리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큰 외침은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라고 주장할 때, 그대는 그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에게 어떤 기별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보내심을 받기도 전에 달려갔기 때문이다. 큰 외침이란 소책자에 실린 기별은 거짓이다. 그러한 기별들이 올 것이며,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될 것이나 그 주장은 거짓이다. 그것은 빛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일을 한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기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기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때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1, 2)." (목사, 41-42)

18. 오직 한 교회만이 율법의 깨진 틈에 설 것임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의를 이 교회를 향해 환기시키며 그를 바벨론이라고 정죄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인물은 형제들의 참소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 관하여 사단이 세상에 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감정을 입 밖에 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가능할까? 오류의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열성을 충족시켜 주기에 족한 사업이 있지 않은가? 자금과 재능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이로서 그대는 그대의 주님의 소유를 오류를 유포하는 일에 잘못 사용해왔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속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이들에 관해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투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 그들의 무기를 돌려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온 힘을 합쳐 악의 동맹체에 맞서 싸울 것이다." (목사, 50-51)

19.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단은 졸지 않고, 잠자지 않는 원수로서 항상 인간의 심령에 작용하여 그의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 그는 자기를 섬기는 일에 밀어 넣을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할 때, 사상들과 거짓 이론들을 제시해 주며, 그들로 하여금 오류를 옹호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 것이다.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회심시킬 뿐 아니라 그를 순결하게 만든다. 우리 사업의 초창기 때부터 새롭고 깜짝 놀랄 만한 이론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일어났다.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경험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진리의 빛 속에서, 또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형제들의 도움 속에서 자기의 이론들을 조사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께 탄원하여 아뢰기를,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혹은 사단이 나를 이끄는 거짓된 길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빛을 받을 것이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목사, 54-55)

20. 함께 밀고 나가라. 함께 밀고 나가라. 함께 밀고 나가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선포해 온 이들은 자신의 입장

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럴 듯하게 증언들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해에 걸쳐 내 기별이 제시해 온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왜 그들은 천사가 말한 '똘똘 뭉치라, 똘똘 뭉치라, 똘똘 뭉치라'와 같은 말은 인용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연합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고 한 권면의 말씀과 원칙을 반복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일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진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기별들이다. 그런 기별들 속에는 대기만자의 허울 좋은 활동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는 연합하여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교회를 방해한다. 그들은 자신의 충동적인 흥분을 따르며,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대로 움직이며, 거짓 관념과 이론으로 진리를 훼방한다. 그들은 그 형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길을 고집하여 결국 사단이 그들에 대해 원했던 대로 정신적 불균형에 빠지게 된다." (목사, 56)

기억할 말씀: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하였다. '이 기별들에 일점 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기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아 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초기 264:3)

연구할 과제

1.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필요되는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 이와 같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 통로로 들어가게 되는가? (목사, 43)
2. 교회에 오류를 들여 오려고 할 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목사, 48)
3.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리의 원수가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목사, 51)
4. 때때로 증언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는가? (목사, 52)
5.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무엇인가? 십일조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목사, 53)
6. 시간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목사, 55)
7. 영어의 'They go on a gangent'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목사, 55)
8.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장한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목사, 55)

제84과 두 가지의 커다란 오류

성경절 연구: 신 18:9-13; 마 10:16-20

요점: "죽은 자가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혼이 생존한 자를 돕기 위하여 돌아 온다는 믿음은 현대의 강신술의 길을 열어 놓았다." (쟁하, 379)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라는 법령은 배도한 그리스도국의 작품이다. 일요일은 그리스도인 세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안식일 이상으로 높여진 법왕권의 지식이다." (9 증언, 235)

예언의 신 연구

영혼의 불멸설은 강신술의 문을 열어 놓았음

1. 영혼 불멸설의 기초

"인기 있는 목사는 강신술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그들은 강신술의 해로운 영향에서 그들의 양떼를 방어할 길이 전혀 없다. 강신술의 비참한 결과 중 많은 부분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발로 짓밟고, 그 대신에 꾸며낸 이야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16)." (1 증언, 344)

2. 악한 천사들이 죽은 친구들로 가장함

"사단은 가장 자신 있고 매혹적인 기만, 곧 사랑하는 자들을 무덤 속에 장사한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만을 택하였다. 악한 천사들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취하고, 그들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친구들이 생전에 했던 행동을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악한 천사들은 죽은 자의 친척들을 기만하여, 그들의 사별한 친구들이 천사가 되어 그들 주변에 떠다니면서 그들과 교통하고 있다고 믿게 한다. 그들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죽은 친구로 가장한 그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한 이야기로 완전히 거부해 버리든지, 그 말씀이 그들의 의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요긴한 부분을 택하여 그들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맞추고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을 바꾸어 버리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본다면, 모든 사람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기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장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전 9:5, 6).

기만당한 사람들은 악한 천사들을 경배하고, 그들이 죽은 친구들의 영인 줄로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죽은 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신술사들은, 죽은 자들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알고, 그들이 지상에 있는 친구들과 교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적을 행한다고 말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 115:17).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활동한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울 수 있었던 자,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나라들을 그분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었던 자는, 그분보다 힘과 지혜에 있어서 훨씬 열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성을 쓰신 후에 사는 인간 가족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증언, 298-299)

3. 사단의 땅에 모험하여 들어감

"인기 있는 목사는 강신술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그들은 강신술의 해로운 영향에서 그들의 양떼를 방어할 길이 전혀 없다. 강신술의 비참한 결과 중 많은 부분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발로 짓밟고, 그 대신에 꾸며낸 이야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16)." (1 증언, 344)

4. 병든 자들이 사단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들 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들이 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이적들이 더욱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시련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많은 영혼들이 올무에 걸리고 사로잡히지 않을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에서 떠나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같은 거짓 이적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리 모두는 미구에 치러야 할 싸움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경건한 연구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는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1 증언, 302)

5. 가장 위험한 오류(교리)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영계에서 온 방문자들처럼 가장한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계와 경고를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를 제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한 오류를 암암리에 넣어 준다. 그들이 약간의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거짓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가장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천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쟁투, 552-553)

6. 방종하고, 향락적이며 육욕에 젖은 자들

"강신술은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보다 방탕하고 향락적이고 육욕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교묘한 수단을 덜 쓰더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은 강신술의 저속하고 야비한 형태 가운데서 그들의 성향에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사단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 · 정신적 ·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자유는 방종이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에 타락과 부패가 편만할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 양양하게 자신의 그물속으로 몰아넣는다." (쟁투, 555-556)

7. 신접한 자가 위장하여 나타남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자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민 25:1-3; 시 106:28; 고전 10:20; 계 16:14 참조).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박수라는 이름이 오늘날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악한 신과 교통한다는 주장은 암흑 시대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백명, 여러 천명, 아니 여러 백만명의 신봉을 얻어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에 침투해 들어가고, 법조계에서도 호감을 얻고 심지어는 궁정에까지 들어가 있는 이 강신술의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죄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쟁투, 556)

8.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강신술이 등장함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불미한 점들을 감추고 그

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그의 주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 해 동안 제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것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나 있다. 그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가 없다." (쟁투, 557-558)

9. 현대 강신술을 더욱 위험함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쟁투, 558)

10. 사단이 만들어 낸 최고의 걸작품 - 강신술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창 3:4, 5)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써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매 개구리같은 세 더러운 영이 …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 14).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 (쟁투, 561-562)

일요일 신성설이 일요일 휴업령을 이루게 함

11. 안식일을 변경하고자 한 사단의 시도

"사단은 그의 뜻을 계속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그의 부하 천사들에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십계명은 너무도 분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그 중에 단 한 계명만을 고치기로 하였다. 사단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저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은 주일 중 첫째 날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켜 버렸다." (초기, 215-216)

12.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커다란 위기가 놓여 있음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린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린다.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박두했다. 40년 이상 우리가 예언적 말씀의 권위에 의거하여 다가올 것으로 선포해 온 사건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가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강요되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의 관심과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는가?" (5 증언, 711)

13. 의회 앞에 서게 될 것임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영혼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들 자신의 구원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위하여 지금 그대들이 갖추고 있는 준비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을 대항하여 반대가 일어날 때 그대들을 설 수 있게 해 줄 강한 열성과 경건과 헌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들이 의회 앞에 불려 나가고, 그대들이 고수하는 진리의 모든 주장이 심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낭비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완수에 바쳐져야 한다." (5 증언, 716-717)

14. 과거에 가졌던 열성보다 더 큰 열성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이전 어느 때 보다 더욱 사랑을 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막론한 모든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성경을 상고' (요 5:39)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촉구할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다. 그대들의 성경을 이전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하라. 그대들이 신앙 생애에 있어서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 주어진 그 만큼 그분의 백성들 편에, 거기에 상응한 열성과 성실과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더 큰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껏 발휘된 적이 없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의 옷이 씻겨져 어린 양의 피로 희여질 수 있도록 기도에 많은 시간이 쓰여져야 한다." (5 증언, 717)

15.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법을 강요함

"유사한 사건들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률을 높이고 엄격하게 강요할 것이다. 비록 그들 자신의 계명들을 강요하는 데 열성적일지라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분명한 말씀에서 돌아설 것이다. 가짜 휴일을 높이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품성의 사본인 그분의 율법을 모욕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비록 잘못한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고 종교적 고집으로 충만해진 자들의 손에 굴욕과 모욕을 당하도록 넘겨질 것이다." (9 증언, 229)

16. 억압과 잔인함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출 31:13)라. 어떤 사람도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마 10:23). 만일 피할 수만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세력에 그대 자신을 맡기지 말라. 진리를 위하여 즐겨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압제와 학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9 증언, 230)

17. 안식일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금석임

"안식일은 주님의 시금석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통치자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될 권리가 없다. 그들의 동료 인간에게 양심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위에 두게 된다. 거짓 종교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 가짜 안식의 날을 지키는 자들은 참 안식일에 관한 가장 분명한 증거를 무시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율법을 순종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 길을 계속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이 길을 바꾸지 않는 한 형벌을 면할 수는 없다." (9 증언, 234-235)

18. 아본데일 대학에서 한 경험

"오스트레일리아 쿠란봉 가까이 있는 우리의 아본데일 학교에서 일요일의 노동 문제가 의결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우리가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없도록 미구에 우리 주위에 너무도 단단하게 선(線)들이 그어질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학교는 어떤 마을이나 철도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나 방해를 받을 만큼 가까이 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시를 받았다. 관리들은 우리의 구내에 가서 점검해 보도록 권유를 당하였고, 그들은 왔다. 그들이 우리를 고발할 마음만 있었다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하고 있는 자들을 주시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너무도 신임하고 있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한 사업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크게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곳에 간 이후로 전 지역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식일 준수자가 아닌 한 여자는 나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이곳으로 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 작은 집회들을 개최한 결과로 이 지역 사회에 생긴 변화에 관하여 내가 완전히 알려준다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들이 핍박으로 위협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난처한 처지에 빠질 때에는 운동 경기에 관한 질문의 대답으로 주어진 것과 동일한 충고가 주어졌다. 나는 말했다. '일요일을 하나님을 위해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라.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학생들과 함께 나가라. 그들을 숲 속으로, 곧 집들이 가끔 1마일이나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숲 속의 주거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집들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라. 그대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 결과로 그들 스스로가 큰 유익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호감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의 진리를 제시하는 길을 배우기 위해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9 증언, 236-238)

19. 경고의 말씀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 10:16).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바로 시대의 마지막에 이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확고해질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대적하도록 백성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대하여 악감과 편견을 자극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자들이 진

리에 대하여 갖는 원한으로 물들지 않았다면 그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폭력과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옹호자들은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과 온유와 친절을 나타내야 한다. 진리가 자르는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마음의 통로를 막는 장애들을 잘라 줄 것이다.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거칠고 가혹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단이 그들의 정신을 그릇되게 해석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9 증언, 239)

20.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함

"영혼들의 원수를 취급하는 일에서까지 나타난 그리스도의 방법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갖는 모든 교제에서 결코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아야 하고,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바른 길을 알기 위하여 열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칠거나 가혹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한 모본이 되어야 한다." (9 증언, 240)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정신을 주의 깊이 살펴보고 영혼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최고의 의무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 사단은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신속하고 혹독한 고난을 주기 위해 사단의 대리자들의 총 연합체를 선도하고자 불타는 열성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롭지 못한 모든 말은 흑암의 왕에 의하여 소중히 간직될 것이다." (9 증언, 241-242)

기억할 말씀: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저희가 거짓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것이다." (부조 상 53:0)

연구할 과제

1. 강신술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은 인간들을 속이는 어떤 기교인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남인가? (부조 하권 398)
2. 현대 강신술이 어디서부터 그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는가? (쟁하 381)
3. 바로의 술사들이 행했던 일들은 어떤 성질의 것들인가? (쟁하 382)
4. 엔돌의 여인 집에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영과 그 기별에 대해 의논해 보라. (부조 하권 395)
5. 요한 계시록 12장 17절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5 증언, 449)
6. 법왕 세력의 박해에 대해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5 증언, 449)
7. 다음의 영문은 무슨 의미인가? "The prostestant world today see in the little company keeping the Sabbath a Mordecai in the gate. " (5 증언, 450)
8. 결국에 가서 무엇이 입법자들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게 할 것인가? (5 증언, 450)

제85과 쾌락을 사랑함

성경절 연구: 딤후 3:1-5

요점: "우리의 본성은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책이다. 사람들이 '나의 신령적 상태는 어떠한가?' 하고 스스로 물어볼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속을 세속적 오락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 주려고 힘쓴다." (가정, 540)

예언의 신 연구

쾌락의 매력

1. 허다한 사람들이 쾌락(오락)의 장소로 몰려 다님

"세속적인 오락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이런 오락들이 주는 순간적인 향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우정은 물론 이것이 주는 화평과 대상물들은 곧 싫증이 나고 불만스럽게 된다.

현대의 세상은 쾌락에 대한 미증유의 갈망을 갖고 있다. 각처에 방탕과 무모한 사치가 성행하고 있다. 무리들은 오락을 열망하고 있다. 마음은 경박하고 비천하게 되는 바 그 까닭은 마음이 명상하는 습성을 가지거나 공부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이다. 무지한 감상주의가 유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이 계발되고 세련되며 향상하며 고상하여지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유행적인 장식과 피상적인 오락 때문에 모든 가치 있는 예능(藝能)이 무시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시대의 흥분적인 오락은 남녀들,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든 학문과 육체 노동이 끼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게 그들의 활력의 저장에 영향을 끼치는 흥분의 열병에 걸리게 하며, 지능을 위축시키고 도덕성을 부패케 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 521)

2. 유용한 생애에 대한 욕망을 상실해 버림

"청년들이 통속적인 조류에 휩쓸리고 있다. 오락을 사랑하기를 배우는 자들은 유혹의 홍수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교적인 향락과 무모한 환락에 빠져 버린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방탕에서 다른 방탕에로 끌려 다시다가 유용한 생애에 대한 욕망도 자격도 상실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신앙적인 동경은 냉각되고 그들의 영적 생애는 어두워진다. 영혼의 보다 고상한 모든 능력들, 사람을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모든 것들은 저하된다." (가정, 521-522)

3.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있는 많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오락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이와같이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반열에 가담한다.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 평원의 두 도성을 파멸시킨 죄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교의 땅에서 뿐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을 하는

일반 신도들 중에서 뿐만도 아니요 인자의 오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을 당신의 눈에 비치는 그대로 그대들 앞에 제시하신다면 그대는 수치와 공포에 싸일 것이다." (가정, 522)

4. 사단은 교묘한 마술사임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자비가 머물러 있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를 하나의 방대한 휴일로 여기며 계속적인 흥분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목적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사단은 그들로 세속적인 오락에서 행복을 찾고 이러한 오락들이 무해하며 깨끗하며 심지어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힘씀으로써 그들 자신을 정당화시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사단은 세속적인 쾌락의 길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반면에 성결의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제시한다. 사단은 허식적이고 아첨하는 색깔로써 청년들 앞에 세상을 쾌락으로 성장(盛裝)시켜 놓는다. 그러나 지상의 쾌락은 미구에 종말에 이를 것이요 심은 것은 또한 거두어져야 한다. 사단은 모든 의미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기만자요, 교묘한 마술사이다. 그는 겉보기에는 악의가 없는 듯하나 청년들과 방심한 자들을 얽어매기 위하여 교묘히 준비된 많은 잘 짜여진 그물을 가지고 있다." (가정, 523)

5. 쾌락을 사랑하므로 교육에 많은 지장을 가져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만일 회합에 참석하여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융합하지 아니하면 무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어린 나이 때에 그들을 사회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실수를 범하게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라도 그들이 회합에 참석하고 사교에 섞이도록 용납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은 그들이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악을 배우게 되며 그 마음은 무용한 사물들로 충만하게 되는 한편 오락에 대한 그들의 욕망은 심지어 교육의 일반 부문의 지식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육성된다. 그들의 관심은 교육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분열되고 쾌락에 대한 사랑이 우세하여짐에 따라 그들의 지성적 전진은 완만하여진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논다. 환락과 주연과 떠들며 놀기와 기뻐 날뛰임이 있는 바 청년들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연구하도록 그들의 수중에 쥐어진 책들의 저자들의 본을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해악은 이런 일들이 품성에 미치는 영구적인 영향이다." (가정, 523-524)

6.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에 대한 무관심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 가고 있을 새 흥분적인 오락과 잔치에 몰두하였다.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도 마지막 엄숙한 경고에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환락과 쾌락에 열중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그와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는 기별을 전하는 한편 세상은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끊임없는 흥분의 반복이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일으키고 다가오는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감화를 사람들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 (가정, 524)

7.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시험을 받아 증명하게 될 것임

"세속적 감화에 굴복한 젊은 안식일 준수자들은 단련과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의 모든 위험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시련이 청년들 앞에 있다. 청년들은 괴로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에 대하여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더러는 불신자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범을 끼쳐 왔다. 그들은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들놀이와 그 밖의 모든 쾌락을 위한 모임에 참석함으로 세상과 연합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순진한 오락에 참가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종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찾는 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자기를 이기는 자들, 절제와 겸손과 성결의 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경박하고 헛된 이야기를 즐길 수가 없다." (가정, 524-525)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하나?

8. 죄악적인 것을 순결한 것으로 대치하라

"청년들은 노인들처럼 침착하고 근엄해질 수 없고 어린이는 어른처럼 점잖아질 수 없다. 죄된 오락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는 한편 부모들과 교사들과 청년의 보호자들은 품행을 더럽히거나 부패케 하지 않을 순결한 오락을 대신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어리석음과 멸망의 길로 뛰쳐나가게 할 엄한 규칙과 단속으로 청년들을 구속하지 말라. 확고하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손으로 통제의 끈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과 목적을 지도하고 조종하되 유순하고, 슬기롭고 사랑스럽게 함으로써 그대가 한결같이 그들의 최선의 유익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가정, 498)

9. 체육관을 대신할 수 있는 유용한 장소(일 또는 운동)

"체조는 많은 학교에서 유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면밀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과도히 되기 쉽다. 체육관에서 역기를 하려다가 평생 불구자가 된 청소년들이 많다. 체육관의 운동은 아무리 잘 지도된다 해도 호외에서 하는 휴양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는 그러한 휴양을 위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 499)

10. 구기(Ball Game)의 기본적인 지도 원칙

"나는 간단한 구기 운동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할지라도 이것은 과도히 행해질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오락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거의 확실한 결과를 항상 두려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지출하게 한다. 한 계단 한 계단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이끄는 오락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재물의 소비, 그리고 향락을 위하여 이러한 경기를 교육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데 유리하지 못한 사물들에 대한 사랑과 욕정을 낳게 한다.

대학에서 경영되어 온 방법은 하늘의 인을 지니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력을 강화시키지 아니하며 품성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다. 습성과 관습과 세속적 행습을 통하여 짜여지는 옷들이 있는 바 그 장본인들은 너무 열중하고 정신을 잃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선언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하늘의 선언을 받게 된다. 학생으로서 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도록 지력을 강화시켜 주는 대신에 이런 운동 경기는 마음을 공부에서 떠나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이런 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도(道)와 그분의 목적은 잊혀졌다. 은혜의 시기에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의 이론과 발명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바 사단이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정신으로 물들인다. …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그토록 열중하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길러진 그 치열한 격정에 대해서 항의하신다." (가정, 499-500)

11. 많은 운동 경기에 있어서의 문제들

"학생들은 활발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 목적이 없이 게으른 것처럼 무서워할 만한 악은 별로 없다. 또한 대체의 운동경기의 경향은 청소년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볼 때 우려할 만한 문제이다. 교사들은 이 운동이 학생의 재학 중의 성적의 진보에와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성공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므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는 학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부에서 그 마음을 떠나게 한다. 이런 운동 경기는 청소년들이 인생의 실제적인 신실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그 영향은 세련되고 관대하며 참으로 사내다운 품격을 만드는 데 효과가 없다.

축구와 권투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종류의 오락은 야만 행위의 학교가 되었다. 그런 오락은 고대 로마의 경기가 취한 그같은 특성을 발달시키고 있다. 권력에 대한 애착, 단순한 폭력의 자랑, 생명에 대한 무모한 경시 같은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놀랄 만큼 타락하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운동 경기는 비록 그처럼 난폭하지는 않더라도 과도히 행하기 쉬운 점에 있어서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운동 경기는 환락과 흥분을 줘야 하는 마음을 자극하여 유용한 일을 싫어하는 기분과 실제적 의무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조장한다. 그런 운동은 또한 인생의 진실된 현실과 안전한 즐거움을 가지려는 욕망을 없이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오락과 방종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무서운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가정, 500-501)

12. 가족이 함께 가는 소풍

"도시나 마을에서 사는 몇 가족들이 연합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을 얽매던 일에서 떠나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호수나 숲을 낀 촌으로 소풍을 가라. 그들은 조촐하고 위생적인 식물, 곧 좋은 과실과 음식들을 준비하여 나무 그늘이나 창공 밑에 그들의 식탁을 펴놓을 것이다. 차 타기와 운동과 경치가 식욕을 돋구어 줄 것이며 그들은 왕들이라도 부러워 할만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때에는 부모와 자녀들은 근심과 수고와 곤고함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범사를 될 수 있는 한 즐겁게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온 하루를 휴양에 바쳐라. 실내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자들이 노천에서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자들은 누구나 이와같이 행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아무것도 손해보는 것 없이 오히려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활기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직무로 돌아가서 열심으로 그들의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 (가정, 501-502)

13. 예수께서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셨는가?

"예수께서는 각종 형태의 자기 방종을 견책하셨지만 선천적으로 사교적이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베푸는 대접을 받아들이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평범한 인생의 문제들에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에게로 향상시키고자 힘쓰셨다. 결코 방탕을 위하여 방종을 일삼지 아니하셨으며 세속적인 경박의 그림자가 당신의 처신을 훼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결하고 행복한 정경에서 기쁨을 찾으셨으며 당신께서 친히 임석하심으로써 사교적인 모임을 인정하셨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감명적이어서 그 혼인의 기쁨이 인자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다. … 예수님은 혼인 잔치의 즐거움은 당신께서 당신의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시는 그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구속자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자리에 앉게 될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가정, 503)

14. 담화와 처신(행동)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남기신 모본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만찬이나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을 때에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다. …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의 담화를 조종하시고 많은 귀중한 교훈들을 주셨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슬픔을 안위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당신의 팔에 안으시고 축복하시지 않으셨던가? 서기관들과 죄인들은 예수께 이끌렸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입술을 여셨을 때에 그들은 못에 박힌 듯이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가정, 503-504)

만족을 주는 오락(휴양)

15. 손과 마음과 품성을 계발시키는 운동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만찬이나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을 때에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다. …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의 담화를 조종하시고 많은 귀중한 교훈들을 주셨다.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슬픔을 안위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당신의 팔에 안으시고 축복하시지 않으셨던가? 서기관들과 죄인들은 예수께 이끌렸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입술을 여셨을 때에 그들은 못에 박힌 듯이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가정, 503-504)

16. 청년으로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본

"예수님의 생애는 근면으로 빈틈이 없으셨다. 자기의 계발되는 체력에 알맞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심으로 활동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지워진 일을 행하심으로써 흥분적이고 무용한 오락에 탐닉할 시간이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도덕성을 해치고 육체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유용한 노동으로, 심지어 곤란을 견뎌내시기 위하여 훈련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모본이 되셨다. 가정에서는 순종하셨고 유용하셨다.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일하셨다. …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유년 시대와 청년 시대에 일을 하심으로써 심신을 계발시키셨다. 예수께서는 각 분야에서 최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신의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셨고 그 체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할 운동을 하셨다. 주께서는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그분은 품

성에 있어서 온전하셨던 것처럼 직공으로서도 완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훈과 모본으로 유용한 노동을 고귀한 것으로 높이셨다." (가정, 506-507)

17. 변화있는 노동을 통한 원기 회복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시간의 이용, 그들의 재능의 올바른 사용 등에 책임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오락도 휴양도 없는 것인가? 아무런 변화 없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할 것인가?' 하고 물을지 모른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76.

막중한 힘이 드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한동안 변화를 얻는 것은 그들이 다시 힘을 기울여 노동에 종사함으로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요긴한 일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쉬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그들의 체력에 관한 한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없다. 한 가지 종류의 노동으로 피곤해졌을 때에라도 그들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때에 그들은 힘을 별로 쓰지 않고서도 어머니나 누이에게 축복이 될 것들을 무엇인가 해줄 수도 있다. 어머니와 누이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직접 맡아서 그들의 수고를 덜어 줌으로써 그들은 원칙에 근거를 둔 오락 즉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오락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나 이기적인 방종에 소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시간은 늘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분 전환으로 항상 원기를 회복해 뿐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줌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가정, 507-508)

18. 어리석은 오락에 빠지게 하는 이기적인 오락은 필요치 않음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오락에 탐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들 주장한다. 신체의 최선의 계발을 위하여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변화를 통하여 심신이 원기를 회복하고 활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일상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어리석은 오락에 빠지면 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가정, 508)

19. 이상적인 운동으로서 선교 활동

"이 세상에는 쾌락을 위한 오락을 거의 전적으로 불필요하게 하는 유용하고 필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두뇌와 골격과 근육은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곧 선을 행하고 생각을 골똘히 하며 그들로 지적 능력과 신체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킬 계획들을 도모할 때 견실하여지고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이런 능력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간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가정, 509)

20. 참된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들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쾌락, 깨끗한 생각과 이타적 행동을 기름으로써 얻어지는 쾌락, 인정 있는 말을 하고 친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쾌락을 준비하셨다. 이같이 봉사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많은 슬픔으로 어두워진 생명을 환히 비춰 준다." (가정, 511)

기억할 말씀: "생애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 겪는 고통과 죄악적인 것을 행하는 즐거움은 사람들을 그의 올무에 붙잡아 매는 사단의 끈이다." (5 증언, 53)

연구할 과제

1. 휴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 520)
2. 사려깊은 재림 청년들에게 어떤 두가지의 질문을 숙고해야 할 것인가? (가정, 544)
3. 사단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여 사단의 유혹에 말려 들게 하는가? (목사, 474)
4.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마7:13; 5 증언, 435)
5. 오락이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부모, 276)
6.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근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부모, 280)
7. 저들의 대화 가운데 어떤 것들을 잊어 버리는가? (청년, 460)
8. 사단은 오락이 괜찮은 것이라고 정당화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청년, 460)
9.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 485)
10.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낭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청년, 509)

제86과 교만

성경절 연구: 잠 16:18; 벧 4:1; 요일 2:16, 17

요점: "베드로를 그토록 타락하게 하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게 한 화근은 오늘날의 수다한 사람들의 멸망을 일으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증한 것은 없고 사람의 심령에 그 이상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 교만은 모든 죄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실물, 151)

예언의 신 연구

일곱 가지의 교만

1. 영적인 교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는 데는 많은 학식이나 재간이 필요하지 않다. 어린 아이까지도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마저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합을 벌이지 말도록 하자. 그리스도 당시에 퍼져 있었던 것과 아주 똑같은 불신이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 그 때처럼 지금도 승진과 사람들의 찬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된 경건에서 벗어나고 있다. 영적 교만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교만은 없다." (목사, 109)

2. 용모의 교만

"그대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막 들어갔다. 그대는 배워야 할 것이 거의 모두이다. 그대는 현재 사치스럽게 옷을 입지 않지만, 외형적 교만을 소유하고 있다. 그대는 조금 덜 단순하게 옷을 입기를 원한다. 그대는 마땅한 그 이상으로 옷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그리스도께서 부과해 주시는 멍에에 그대의 목을 맡기라. 그러면 그대는 이러한 굴복 속에서 그대 스스로의 길을 좇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얻고자 노력해 왔던 바로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 증언, 335-336)

3. 자기 주장의 교만

"그대는 하나님의 일에 수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은 그대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의 천사들은 자기의 기만적인 이적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한 이들에게 그대의 약점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들은 그대를 이미 자기들과 한 가지로 간주하였다. 사단은 그대가 경솔하게 행할 때 기뻐 날뛰는데, 이는 그대가 자신을 그의 영역 안에 둠으로 사단으로 하여금 그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인물들의 경솔함 때문에 영혼들이 진리로부터 돌아설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대의 영혼은 사업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았으며, 진리에

대해 선한 인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끼쳐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유의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그대는 너무 자주 인내하지 못하며, 성을 내고, 유치하다. 또한 돌출적인 행동을 통해 그대 자신을 원수로 만든다. 만일 그대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도록 편견을 불어넣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강단에서 제시하는 신령한 진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3 증언, 241-242)

4. 지성의 교만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행적, 240)

5. 성공할 때 가지는 교만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시내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소망, 360)

6. 능력(권세)의 교만

"옛 시대에 형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것으로 택하신 것을 얼마나 경하게 여겼는가? 벨사살과 그 귀인 일천명은 여호와의 금 기명을 모독하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장면을 목격하셨다. 그들의 신성모독의 환락 중에 핏기 없는 한 손이 나타나서 궁전의 벽에 이상한 글을 쓰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채 왕과 궁중의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선고한 그들의 운명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하여 중상과 거짓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목격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비방적인 언사는 영혼 없는 기물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자들의 품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벨사살의 궁전의 벽에 글자를 쓴 그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하고 압제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5 증언, 244-245)

7. 번성할 때 교만함

"솔로몬의 훈련은 다윗이 초년 시절에 경험한 훈련에 비해 부족하였다. 환경과 품성,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듯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은 고귀한 몸으로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 큰 번영과 영광이 약속된 통치자의 지위에 올랐다. 여러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의 지식과 통찰력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번영에 대한 교만은 결국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떠나 관능적인 쾌락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돌아섰다. 그는 이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전 2:4-12, 17, 18). 솔로몬은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세속적 사물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는 생활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교의 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나, 소위 영혼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 신들의 약속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배웠을 뿐이었다.

만년에, 솔로몬은 이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마침내 생명 샘에서 마시기 위하여 돌아왔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후세대를 위하여 자기가 헛되이 보낸 세월의 역사를 경고의 교훈과 함께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그의 백성들이 그가 뿌린 씨로 악의 수확을 거두었으나, 그의 평생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필경에는 고난의 단련이 그를 위하여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훈들을 솔로몬이 만일 젊어서 배웠었더라면, 그렇게 훌륭하게 출발한 그의 인생의 대낮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었을까!" (교육, 152-154)

교만에 대한 일곱 가지 사실

8.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게 함

"그대는 번영에 처하였을 때에, 그대가 역경에서 결심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재물의 기만성이 그대를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시켰다. 그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대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고난당하던 자가 어려움에서의 해방을 실현하였으므로 그대에게 영광이 돌려졌으며, 그대는 비천한 인생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대는 유행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았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또한 그대의 영향력을 위하여 그대의 환경이 그대의 사업과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이 일에 너무 지나치게 되었다. 그대는 남의 의견과 판단에 의하여 너무 심하게 좌우되었다. 그대는 필요 없이 오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였다. 그대는 주님의 돈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오직 허영을 조장할 뿐인 그러한 일에 그대가 재물을 사용하였을 때, 기록하는 천사는 그대가 그것을 다시 볼 때에 얼굴을 붉힐 그러한 기록을 하였다. 천사는 그대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너는 너 자신만을 영화롭게 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대는 그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하기까지 하였다." (2 증언, 279)

9. 하늘의 축복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림

"교만과 야심에 빠지게 되면 언제나 그 생애를 망치게 되는데 이는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는 마음 곧 교만이 무한한 하늘의 축복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까닭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능력으로 가장 확실한 부와 가장 만족을 주는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잠 10:22)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알게 될 것이다. 부드러운 은혜에 접촉할 때 구주께서는 영혼들로부터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야망을 몰아내시고 증오를 사랑으로,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켜 주신다. 구주께서 영혼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미혹의 마력은 깨어진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마음으로부터 떠나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해방되어 일어나 구주를 따르게 된다." (선지, 60)

10. 진리에서 떠나게 됨

"진리를 깨달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나타낸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도록 정해져 버렸다. 전파된 교리들이 분명하고 조화롭게 보였기 때문에 청중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의복에 있어서 너무 많은 과시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매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이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다면 그들은 결국 기만당한 것임에 틀림없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미구에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상황이 영원한 생명이나 죽음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현존하는 유행과 일치되는 의복에 시간과 돈을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위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 자매들은 그들의 의복이 전하고 있는 설교를 너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4 증언, 641)

11. 슬픔의 사람(예수님)을 잊어 버리게함

"나는 그 모본이 거의 연구되지 않고, 그들에게 거의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그들은 희생하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생애로 표현하는 말이, '자아가 만족을 얻어야 한다.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는 것임을 보았다. 그들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를 잊어버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예수님의 고통, 그 동산에서 큰 핏방울처럼 흘린 그분의 땀, 그분의 거룩한 이마를 찌른 가시관도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감각이 마비되었다. 그들은 감각이 무디어졌고,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큰 희생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 그들은 앉아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잔인한 못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심령속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1 증언, 155)

12. 견책을 받게 되면 증오하게 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내적 생애의 비밀과 숨겨진 죄들을 내게 공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과오들을 견책하고 숨겨진 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달갑지 않은 의무가 내게 지워졌다. 감히 다른 이들은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견책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을 때 성화되지 않은 심령들 속의 자연적인 감정을 건드리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와 고백으로 저들의 죄를 버리는 반면에,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증오가 일어났다. 그들의 길이 질책을 받을 때, 그들의 교만심은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미약한 종을 통하여 자기가 빠진 위험과 죄를 보여 주심으로 과오들을 고치는 일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내버릴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대신에, 화잇 자매가 그들을 해치는 자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3 증언, 314)

13. 실망과 불행을 맛보게 할 것임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시 7:8),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다. 거만한 사람들이 한동안 큰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성공할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할 것이다." (부조, 124)

14. 영적인 죽음을 초래함

"나는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꾸미기 위한 유행을 이것저것 연구함으로써 차라리 내어 버리는 것만 못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하고자 애쓰고 있을 때, 바로 그 육체가 며칠이 못 가서 벌레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그 육체를 그대들의 취향에 맞게, 또한 눈을 즐겁게 하도록 꾸미고 있는 동안, 그대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허무하고 악한 교만을 미워하시고, 그대를 부패와 부정(不淨)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 보신다." (1 증언, 134)

교만이 고쳐진 예

15. 번영 가운데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꿈을 연구해 보라. 왕은 땅에 심겨진 높은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산과 언덕에서 온 양떼와 소떼가 그 그늘을 즐겼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보금자리를 지었다. 이와같이 느부갓네살의 위대함과 번영이 표현되었다. 민족들이 그의 통치권 아래 모였다. 그의 왕국은 그의 백성들의 중심부에 굳게 세워졌다.

왕은 그의 번영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우쭐해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께서 그에게 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바로 그것들을 했다." (8 증언, 126)

16. 강한 통치자가 미친 사람이 됨

"홀은 오만하고 강력한 군주의 손에 더 이상 쥐어져 있지 않다. 그 강력한 통치자는 미치광이가 되어 있다. 그는 이제 가축들이 먹는 것처럼 먹기 위하여 그것들과 한 무리가 된다. 그는 들의 짐승들과 친구가 된다. 한때 보관(寶冠)을 썼던 이마는 이성과 지성의 부재로 가치를 손상당하고 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14절)라는 명령이 내렸다." (8 증언, 127)

17.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

"7 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천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는 그의 죄악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을 대중 앞에 선언하였다. 느부갓네살은 말하였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견책하에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모든 통치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공과, 곧 참된 위대함은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공과를 배웠다. 그는 여호와를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위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인 성명은 성사(聖史)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였다." (선지, 520-521)

교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18. 교만을 자극하는 것을 금하라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첨과 칭찬을 주고 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助手)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만민의 눈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신 그에게'로 향하게 하며 만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그분께 올라가도록 하라." (실물, 161-162)

19. 교만은 십자가에 못박아야 함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훈, 143)

20.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함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미 상태에 빠져 어떤 이들은 시간의 부족과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교만 즉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자랑이 안식일 준수자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왔다. 천사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자랑과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120)

기억할 말씀: "… 교만한 자는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께서 계실자리가 없다." (보훈 18:1)

연구할 과제

1.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1 증언, 132)
2.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신 교만심을 나타내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4 증언, 647)
3. 환난의 때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승리를 응당 얻어야만 하는가? (초기, 75)
4. 앞에서 열거한 교만에 대한 일곱 가지 사실 가운데 어떤 것이 루스벨에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속성이었는가? (부조 상권 22, 24)
5.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교만은 어떤 것이었는가? (부조 상권 140)
6. 소돔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조 상권 191)
7. 솔로몬이 배교하게 된 계단들은 무엇인가? (선지, 제3장)
8. 괄목할 만한 영적 교만의 예를 들어 보라. (1 소망 326)
9. 교만의 반대말에 대해 의논해 보라. (실물, 379)
10. 각 시대를 통하여 겸손과 영성에 위험을 초래해 왔던 것은 무엇인가? (청지기 149)

제 12 장

나의 마음 - 나의 교육, 나의 정신 훈련

제87과 나의 선생

성경절 연구: 눅 2:40, 51, 52

요점: "부모들은 저들의 자녀들이 여덟살이나 열살이 이르기까지 저들의 자녀들의 최상의 선생(교사)이 되어야 한다. 저들의 교실은 꽃들과 새들이 있는 옥외가 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화들은 저들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저들(아이들)이 이해력을 가지게 되자 마자 부모들은 저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계를 펼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가르친 공과(교훈)들은 그리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 기초, 157)

예언의 신 연구

최초의 선생 - 부모

1. 부모들을 위한 교육

"아이의 유년 시절은 물론 후년의 교육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를 위하여 주의 깊고 용의 주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각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책임을 지고자 하기 전에 남녀의 신체 발육 법칙, 즉 생리, 건강법, 태교(胎敎)와 유전 법칙, 위생, 의복, 운동, 질병의 치료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또한 지적 발달과 도덕적 훈련 법칙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 활동을 중시하시고,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삿 13:12)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시를 그 아버지에게도 주셨다. 부모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그 거룩한 책임을 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교육으로 달성되어야 할 모든 것들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교육, 275-276)

2. 어린이를 훈련하는 부모의 특권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므로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감사하고 존경하게 해 주는 부모, 친절과 공의와 인내로써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으심을 알려 주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줌으로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부모들은 행복하다. 이러한 선물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는 각 시대의 어떤 재물보다 더욱 귀중한 보배, 곧 영원히 존속할 보배를 자녀에게 준 것이다." (치료, 375-376)

3. 어머니에게 주어진 기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영광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는 충실한 어머니 위에 머무르고 있다. 어떤 사업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사업과 비교될 수 없다. 그는 화가와 같이 화폭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며, 조각가처럼 대리석을 아로새기지 않는다. 그는 저술가처럼 고상한 사상을 힘 있는 말로 나타내지 않으며, 음악가처럼 아름다운 감정을 음률로 표현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발시켜 주는 일이다." (치료, 377-378)

4. 아버지의 책임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의 행복에 어머니와 꼭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부양과 지도를 기대한다. 그는 자기 가정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생활과 감화력과 교제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입법자(立法者)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가정의 법규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말씀하셨다(창 18:19). 거기에는 악을 제지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잘못이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제멋대로 하게 버려 두는 편애가 없고, 그릇된 사랑의 요구를 들어주노라고 의무에 대한 확신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교훈을 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르고 공의로운 율법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법칙을 주셨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한 길을 떠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따르도록 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꾸준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억제하고, 그들의 그릇된 경향을 막아야 한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끈기,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근면, 실제적 유용성(有用性)등과 같은 엄격한 미덕들을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씩씩한 태도로써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 권위에 애정을, 확고한 제지에 친절과 동정을 연합시켜라. 그대들의 여가 시간 중의 얼마를 자녀들에게 바치라. 그들과 친해 지라.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운동에 동참하여 그들의 신임을 얻으라. 그들과 친구가 되되, 특별히 그대들의 아들들과 친구가 되라. 이와 같이 함으로 그대들은 선을 위하여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의

걱정과 사업상 어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미소를 띄고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치료, 390-392)

5. 부드럽게 인도하라

"많은 남편과 아버지는 충실한 목자의 사려 깊은 태도에서 유력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야곱은 신속하고도 힘든 여행을 하라는 독촉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식들은 유익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 가리이다' (창 33:13, 14).

인생의 고된 여로(旅路)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동행 중에 있는 일행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인도할 것이다. 재산과 권력을 구하여 급속히 달려가는 세상의 경주에서, 그는 발을 멈추고 자기 곁에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편은 동정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의 아내를 도와주어야 한다. 만일 그가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줌으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누어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위로를 박탈당하고, 과로로 인하여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의 힘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생활력과 정신적 활기와 쾌활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생애를 밝고 즐겁게 해주는 곤란과 힘든 활동과 심한 걱정을 면하게 하여 줌으로 아이들이 건전한 신체를 이어받아 그들 자신의 강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가정, 218-219)

6. 적당하게 훈련을 받은 아이의 가능성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모든 가능성을 보신다. 합당한 훈련을 시킨다면 아이가 세상에서 선을 위한 능력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과연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지 혹은 그릇된 친절함으로 아이를 현세에서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는지의 여부를 간절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다. 이 무력하고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를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업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가정, 264)

7. 어머니는 인자와 고결함의 모본이 되어야 함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한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곳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그들에게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것의 모본이 될 수 있다. 그대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과 같게 하라.

다른 모든 일에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일은 철저히 그리고 효과 있게 행하라. 그대의 자녀들이 가정 교육을 받아 순결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사회에 나간다면, 그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큰 계획안에서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자리라도 차지한다면 그대의 생애는 결코 실패라고 불리울 수 없으며 회고해 볼 때 결코 회한에 잠기지 않을 것이다.

영아는 어머니가 자신의 습관과 행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이 어린 학습자 앞에서 어머니는 자기의 언어 행실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어머니는 어떤 품성의 특성을 막론하고 그것이 자녀들의 성격에서 계발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품성의 특성을 먼저 자기 자신 속에 계발시켜야 한다." (가정, 267)

어린 시절

8.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함

"가정은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민감하고 부드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쉽게 기뻐하고 쉽게 시무룩해진다. 어머니들은 부드러운 교훈과 상냥한 언행으로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에 붙들어 맬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를 좋아하고 혼자서는 좀처럼 놀지 않는다. 그들은 동정과 친절을 갈망한다. 그들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어머니는 비록 자기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마는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냉랭한 태도로 취급함으로 예민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어머니의 동정과 인정은 귀중하다. 인정하는 표정과 권장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 줄 것이다.

어머니는 그들의 소란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들의 작은 소원들 때문에 난처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그에게서 쫓아 버리는 대신에 그들의 활동적인 손과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오락이나 가벼운 일을 계획하라." (치료, 388)

9. 자기 중심 사상에 젖지 않도록 교육하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그들의 오락과 일을 지도하여 줌으로 어머니는 자녀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나쁜 습관을 고쳐 주고 이기심과 감정의 발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하는 주의나 견책의 말은 큰 효력이 있을 것이다. 꾸준하고 세심한 사랑으로 그는 자녀들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성의 특성을 계발시켜 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의뢰심(依賴心)과 자기중심사상(自己中心思想)을 가지고 양육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자녀들을 스스로 재미있게 놀도록 가르치고 그들 자신의 재간과 기량을 발휘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우 단순한 기쁨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작은 실망과 시련들을 용감하게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소한 고통과 상처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전환시켜 작은 괴로움과 불편을 가볍게 지나쳐 버리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라." (치료, 388-389)

10. 꾸준히 가르치고, 동정을 나타내 보이며, 동료가 되어 저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나 어린이들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걱정에 눌려있는 어머니들은 때때로 그들의 자녀들을 꾸준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쏟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 안에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동정과 친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같이 위험하게 만들 다른 방면에서 그것들을 기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억해

야 한다.

많은 어머니들은 시간과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순진한 기쁨을 주는 대신에 바쁜 손가락과 피곤한 눈으로 다만 치장을 위한 일, 기껏해야 그들의 어린 마음에 허영과 사치심만 조장해 줄 어떤 일에 부지런히 열중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장성한 남녀로 자라남에 따라 이러한 교훈들은 자고심(自高心)과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열매를 맺게 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결점을 슬퍼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거두고 있는 수확이 자기 자신이 심은 씨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치료, 389-390)

11. 가족 제단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침과 저녁에 가족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 놓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노래를 같이 불러야 한다. 아침에 매일의 업무를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둘러 앉혀 놓고, 하나님께 머리숙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에 맡겨야 한다. 하루의 수고가 끝난 후에, 가족들은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치료, 392-393)

12.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는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일이 아무리 과중할지라도 그대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 주도록 기도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매일 괴로운 일들이 젊은이들과 노년층들의 길을 에워싸고 있다. 인내와 사랑과 기쁨으로 생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

가정은 쾌활과 예절과 사랑이 깃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미덕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피치 못할 것들이다. 비록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 속에 있는 햇빛이 되게 하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한다." (치료, 393)

13. 친절하고 자비롭게 다스리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냉랭하고 은폐하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친숙해 지고, 그들의 취미와 기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명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내야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하여 그대의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주라. 만일 그대들이 그렇게 한다면, 필요에 따라 과하는 그대들의 제재는 그들의 어린 마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자녀들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다스리고,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0)는 말씀을 기억하라. 만일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업을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이 그대들의 할 일을 다 함으로 천사들과 협력하라." (치료, 394)

14. 훗날에 가서 부모들이 지켜 주고 감독해 준 일을 감사할 것임

"진실한 가정의 현명하고 부드러운 지도 아래 자라난 아이들은 쾌락과 동료를

찾아 곁길에서 방황하고 싶은 욕망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죄악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 파급되어 있는 정신이 그들의 성품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가정의 보호를 떠나 세상에 처할 때 받을 유혹을 저항할 강한 방어가 될 수 있는 습관과 원칙을 형성할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협동체의 일원임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먹고 입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행복을 가져 옴으로 그들이 받은 많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아이들은 때때로 제재받는 일을 원망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훗날에 가서 그들은 경험이 없던 어린 시절에 그들을 지켜 주고 지도해 준 그 성실한 보호와 엄격한 감독에 대하여 부모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치료, 394)

청년 시절

15. 일찍 하나님을 찾으라

"유년들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습관과 감명은 생애와 품성에 항상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이나 요한이나 특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히 하며, 악한 것을 꾀하는 친구나 또는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것은 쾌락과 이기적인 방종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친구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 가정의 작은 의무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예사로이 넘겨 버리나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책임도 또한 소홀히 할 것이다. 그대는 순결하고 건전하며 고상한 품성을 가진 온전한 남녀가 되기를 원한다. 일을 가정에서 시작하라. 작은 의무들을 책임 맡아 철저하고 정확하게 행하라. 주께서는 그대가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보실 때에 그대에게 더욱 큰 책임들을 맡기실 것이다. 그대가 어떻게 건물을 짓고 있는지, 그 건물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는지 신중을 기하라. 그대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품성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가정, 297)

16. 네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 (잠 23:26)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마음을 당신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인정되는 어린이들의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를 사랑할 것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설혹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내지 않고 그들의 친절과 그들의 인내로 그리고 일상 생애의 의무를 분담하는 데 그들의 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유년 시대와 청년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우리 주의 신실한 제자임이 입증될 것이다." (가정, 297-298)

17. 각 사람이 선택할 것임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얻으라. 그대의 부모가 그대를 가르치고 그대의 발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힘쓸지라도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대는 마음을 예수께 바치고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 생활에서의 그대의 의무를 신실히 감당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아이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을 것이

다. 그대의 부모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를 순종한다는 사실이 그대의 구원을 보증하여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그 땅에 있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유년 시대와 청년 시대에 그대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입을 행하라. 그대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영생을 위하여 그대의 영혼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훈련시킬 책임이 그들에게 놓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주기를 원하는 도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현명한 판단의 지시에 기꺼이 복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라. 이런 방식으로 그대는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대와 사귀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여, 싸움을 싸우라.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것이 그대들을 원수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정, 298-299)

18. 자녀들 역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할 것임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유혹, 곧 자기 마음대로 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유혹에 대항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그들이 봉사의 생애를 살면서 사려 깊고 친절하고 순종하고 또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의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순박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갈 때에 갖는 신뢰심과 똑같은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아이가 배고플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그대가 필요한 것들을 당신께 요구하기를 원하신다. …

예수께서는 아이들의 요구를 아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좋아하신다. 자녀들은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과만 함께 있고 하나님의 눈이 가장 깊은 마음속도 들여다보시며 심령의 요구하는 바를 알아차리신다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

자녀들이여, 그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라. 그대의 마음의 은밀할 것들을 그분 앞에 털어 놓으라. 왜냐하면 그의 눈은 심령의 구석구석마다 살피시고 그대의 생각을 펼쳐 놓은 책을 보듯이 읽으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심령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한 후에는 구한 것들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가정, 299)

19. 어머니에게 변화와 휴식을 주라

"자녀들이 일에 마음 없어 하고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갖은 구실을 꾸며 댈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기를 도와주도록 종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유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위탁하신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신다면? 그대가 유용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대에게 기회는 있다. 그대의 첫째 의무는 그대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신 그대의 어머니를 돕는 일이다. 어머니의 무거운 부담을 덜어 드리고 그분께 즐거운 휴일들을 드려라. 그 까닭은 어머니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 동안에 휴일과 변화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그대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그대의 권리로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대가 가정에서 햇빛을 비칠 때가 이제 온 것이다. 그대의 의무를 감당하라. 일하기 위하여 즉시 나아가라. 그대의 극기하는 헌신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라." (가정, 301)

20. 이제부터 과거를 상환하기 위하여 시작하라

"청년들은 지금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을 첨가하신 계명을 생각하라고 그대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 말며 그들로 그대들의 처지를 생가하고 염려하고 애통함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가 만일 부모에게 사랑과 순종을 드리지 않음으로 범죄하였으면 이재부터 과거를 속죄하기 시작하라. 그대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 그것은 곧 그대의 영생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정, 302)

기억할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지신 이상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높은 것이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까지가 곧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다. 학생의 앞에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 열려 있다.

연구할 과제

1.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래의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라. (가정, 178)
2.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가정, 179)
3. 이 세상에 편만한 악의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 (가정, 179, 180)
4. 자녀들을 부모들의 마음과 하나님께 붙잡아 매고자 하는 부모들은 저들이 먼저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 (가정, 180)
5. 자녀들을 훈련(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구인가? (상동)
6.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이 가르쳐져야 하는가? (가정, 182)
7.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책임이 부모들에게 속하는가? (가정, 185)
8. 자녀들을 회심케 하는 책임에 대해 토의해 보라. (가정, 186-187)
9. 안식일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가정, 187)
10. "시간이 없어"라고 변명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라. (가정, 190-191, 194)

제88과 하나님의 옛날 학교 – 선지자 학교

성경절 연구: 욥 28:12-28

요점: "이런 학교는 당시에 널리 퍼지고 있는 타락에 대한 방벽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지적, 영적 행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국가의 지도자로서 또는 모사로서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는 인물을 사회에 내어 보냄으로 국가의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총명이 있고 근면한 일단의 청년들을 모았다. 이들은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 (교육, 59)

예언의 신 연구

참된 교육의 근원과 목적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 범위가 너무 좁고 그 정도가 낮다. 우리는 더욱 넓은 식견과 보다 높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된 교육은 어떤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全人敎育)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平生敎育)이어야 한다. 즉, 지(知), 덕(德), 체(體)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육, 13)

2. 참된 고등교육이란?

"근년에 들어와 '고등 교육'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된 '고등 교육'은 '지혜와 권능'(욥 12:13)을 가지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잠 2:6) 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교육, 14)

3.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靈性)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창 1:27)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사람의 모든 재능은 발달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능력과 활력은 끊임없이 증진하게 되어 있었다. 재능의 활용 범위는 광대하였고, 연구를 위해 펼쳐진 분야는 놀라웠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욥 37:16)들은 사람의 연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창조주와 대면하여 마음을 열어 놓고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변치 아니하였더라면, 그 모든 특권이 영구히 사람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

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새 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에 대하여 더욱 더 밝은 개념(槪念)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보다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 15)

4. 참된 교육의 기초인 사랑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눅 10:27)라는 것이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 · 덕 · 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마찬가지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계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된다. 마음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교육, 16)

에덴에 있었던 학교

5. 학교의 모형(Model)

"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교육 제도는 그 후의 모든 시대를 통해 인류의 교육을 위한 모형이 되어야 했다. 그 원칙을 실제로 보여 주는 하나의 시범학교가 우리 시조의 보금자리였던 에덴에 설립되었다. 에덴 동산은 교실이었고 천연계는 교과서였다. 창조주께서 친히 교사가 되셨으며 인류의 시조는 학생이 되어 배웠다." (교육, 20)

6. 첫 부모들이 부여받은 자질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부여 받았다.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 찬 얼굴 빛으로 그들은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지성(知性)과 영성(靈性)의 모든 면에서도 창조주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히 2:7) 지음을 받고 높은 지적, 영적 은사를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경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덕적 책임과 의무도 헤아릴 수 있었다." (교육, 20)

7. 학교 교실과 선생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 2:8, 9). 이처럼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

들로부터 권면과 교훈을 들었다. 때로는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영원하신 분과 대면하여 교제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렘 29:11)이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최상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교육, 20-21)

8. 저들이 배우고 연구한 과목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돌볼 책임, 곧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창 2:15)는 일이 주어졌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하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게을러지도록 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축복으로서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며 품성을 계발하도록 하셨다.

아담과 하와 앞에 생생한 실물 교훈들을 펼쳐 놓고 있는 천연계는 교과서로서, 교훈과 즐거움의 원천이었다. 나뭇잎, 산의 돌덩이, 하늘의 반짝이는 별, 땅과 하늘과 바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호(聖號)가 기록되어 있었다. 에덴의 거주자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곧 나뭇잎, 꽃, 수목은 물론 물에 사는 큰 동물들로부터 햇빛에 비취는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존재의 신비를 배웠다. 하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되는 무수한 별들,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욥 37:16)들, 빛과 소리와 밤과 낮의 신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첫 학교 학생들이 연구할 대상이었다.

천연계의 법칙과 생태는 물론,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진리의 위대한 원칙들까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 그들 앞에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고후 4:6) 가운데서 그들의 지적, 영적 능력이 발달되었으며, 그들은 이에 따른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교육, 21-22)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9.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부조들의 시대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품성의 발달에 가장 알맞는 환경을 주셨다. 그분의 지도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분께서 태초에 정하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계속하여 실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그 곳에 모여 화려함과 사치와 행악 속에서 기뻐 날뛰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에도 도시들을 교만하게 하고 저주받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의 원칙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은 들과 산에 살면서, 밭을 갈고 가축을 치는 가운데 묵상하고 연구하였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뜻과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교육, 33-34)

10. 광야에서 가르치신 교육(훈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확립하려고 하신 교육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당시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쓸 만큼 준비된 자가 많지 않았다. 우선, 부모들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평생에 걸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은 무지하고 타락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었다. 게다가, 이교의 거짓 교훈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려고 애쓰셨다." (교육, 34)

11. 성소에 나타난 복음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 이상에 도달할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시내산에서의 계시는 다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깊이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성소에서 행해지는 희생 봉사를 통하여 또 다른 교훈, 즉 죄의 용서와 구주께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배워야 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성막, 그룹들을 수놓아 짠 휘장을 반영하여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황금벽, 쉴 새 없이 피어 올라 성소에 가득한 향연, 깨끗한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 지성소의 깊은 신비에 싸여 시은좌 위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는 천사의 형상 사이로 나타난 지성소의 영광 이런 성막이 상징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훨씬 뒤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그와 꼭 같은 목적에서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 17)." (교육, 35-36)

12. 학교의 조직과 실업 교육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을 교사로 한 이 광야의 학교는 얼마나 훌륭한 실업학교였던가!

성소의 건축과 설비에 모든 백성들이 협력하여 일해야 했다. 거기에는 머리와 손으로 할 일이 있었다. 매우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성의대로 물건을 기부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부하고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또 그들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영적 건물, 곧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도 협력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길을 떠난 직후부터 그들의 훈련과 양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미 조직을 갖추었으며, 전원이 여러 조(組)로 나뉘어 각각 조장을 임명 받았다. 시내 산 밑에서 이 조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나님의 명확한 질서가 히브리 사람들의 조직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권위와 통치의 중심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시행하였다. 모세 밑에는 칠십 인의 장로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리고 다시 그 밑에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민 11:16, 17; 신 1:15),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이 있었다. 진영은 적당한 순서로 배치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천막이 쳐졌다. 그 밖으로는 각 지파들이 각각 자기 지파의 기를 세우고 그 옆에 천막을 쳤다." (교육, 37-38)

선지자의 학교

13. 라마와 기랏여아림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

"이러한 학교들을 설립한 목적은 널리 퍼지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지적 · 영적 복리를 도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지도자와 자문역으로 배출함으로써 나라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무엘은 경건하고 총명하고 학구적인 젊은이들을 모았다. 이들은 선지자의 생도들로 불리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연구할 때에, 그분의 생명력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거룩한 진리에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

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들은 학식과 신앙심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런 학교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이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랏여아림에 있었다. 그 후에 다른 학교들이 또 설립되었다." (교육, 46)

14. 연구 과목들

"이런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직접 땅을 경작하거나 연모를 다루는 일에 종사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을 유익한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자라도록 버려 두는 것이 죄로 여겨졌다. 모든 청년은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직업 교육을 받았다. 거룩한 직임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도 실업 교육은 유용한 인물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선지자 학교의 교사들도 많은 수가 노작(勞作)을 통하여 자활하였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육의 대부분은 구두(口頭)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년들은 히브리 책들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양피지의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들이 그들의 연구 과제로 제공되었다. 이런 선지자 학교의 주요 교과목은 모세에게 주셨던 교훈이 포함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및 시가(時歌)들이었다. 거룩한 역사의 기록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이 나와 있었다. 또 성소 봉사를 통해서는 표상에 의해 설명된 중요한 진리들을 알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그 제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을 보았다. 학생들의 마음에는 헌신의 정신이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며, 그들의 창조주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렇게 성화된 지성은 하나님의 보고(寶庫)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찾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언과 거룩한 노래 가운데 나타나셨다." (교육, 46-47)

15.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육 방법의 결과

"이런 학교들은 '나라로 영화롭게' (잠 14:34) 하는 의를 진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 학교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를 낳게 한 놀라운 번영의 기초를 놓는 일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친 원칙들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하고 그의 인생을 꼴지운 것과 동일한 원칙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다윗의 교사였다. 그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 119:104, 112)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직 젊은 다윗을 왕위에 앉히실 때 그를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행 13:22)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솔로몬의 청년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가져다 준 결과를 볼 수 있다. 솔로몬도 청년의 때에 일찍이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세속적인 모든 재화보다도 먼저 지혜와 총명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부와 영화를 다 주신 것이다. 그의 이해력과 박학 다식, 그리고 그의 치세의 영화는 참으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것이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번영이 절정에 도달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져 모세를 통하여 반복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附從)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신 11:22-25)." (교육, 47-49)

16. 번영 가운데 있었던 위험

"그러나, 이 번영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 다윗이 후년에 지은 죄는 비록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엄한 벌을 받기는 했으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에 대담해지게 했다. 또한, 솔로몬의 일생도 큰 약속을 받은 아침 이후에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정치적인 권력과 세력 부식(扶植)을 위한 욕망은 이교국과의 동맹을 가져 왔다. 또 다시스의 은과 오빌의 금을 얻기 위해 성실을 희생시키고 하늘의 기대를 저버렸다. 솔로몬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와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부패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우신 방벽들이 무너졌으며, 솔로몬 자신은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감람산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맞서는 거대한 신전과 우상들이 이 방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졌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버렸을 때에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예민한 감수성이 무디어졌다. 그가 처음 통치를 시작하던 때에 가졌던 양심적이며 사려 깊은 정신이 변했다. 교만, 야심, 낭비, 그리고 방종은 잔인과 착취의 열매만을 맺었다. 일찍이 공명 정대하고 동정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통치자가 폭군과 압제자로 변했다. 성전 헌당식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가 지금은 백성을 유혹하는 자가 되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교육, 48-49)

17. 국가 전체가 버림을 받음

"교만한 왕의 국민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비록 그가 나중에 회개하기는 했으나, 그 회개가 그가 뿌린 악의 씨의 결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훈과 훈련은 모든 생활 방법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특권과 축복으로 여겨야 할 이 특징을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훌륭한 품성의 발달에 필수적인 단순함과 자제를 추구하는 대신에 이방 백성의 허식과 방종을 따랐다. '열방과 같이'(삼상 8:5) 되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었다. 그리하여,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되고, 그분의 권위가 부정되었다." (교육, 49-50)

18.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헤아리지도,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과 협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비록 개인이나 국가가 그분을 떠난다 해도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 3:14)." (교육, 50)

19. 이스라엘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1).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육의 성공 여부는 창조주의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착실하게 지킬 때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교육, 50)

20. 참된 교육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에는 참된 교육의 결과에 대한 많은 실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그 품성을 도야한 사람들의 귀한 경험을 보여준다. 그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생을 보내었으며,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섰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인 요셉과 다니엘, 가장 현명한 입법관인 모세, 가장 충실한 개혁자인 엘리사가 있었고, 또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요 7:46)던 예수님을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사였던 바울 같은 인물도 있었다." (교육, 51)

기억할 말씀: "교육이란 생애의 모든 의무를 최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육체적, 지성적,도덕적 힘을 위한 준비이다." (4 증언, 498)

연구할 과제

1.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세상의 빛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 18)
2.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신실한 욕망을 가지고 힘쓸 때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귀착하게 되는가? (교육, 18)
3. 자연계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되는가? (교육, 21)
4.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얻는 교육은 준비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교육, 25)
5.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가? (교육, 28)
6. 아담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가? (부조 상권 44)
7.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의 소유권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교육, 56)
8. 현대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주어졌는가? (교육, 57)
9.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중적인 목적을 따르고 있었는가? (교육, 57)
10. 어떤 형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학교의 설립을 필요로 하였는가? (교육, 58)

제89과 현대를 위한 하나님의 학교- 그리스도인 교육

성경절 연구: 잠 22:6; 렘 13:20; 막 10:13-16

요점: "모든 사람들로 경비를 같이 부담하도록 하라. 교회로 하여금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받은 유익을 보게 하라. 가난한 학생들(가정들)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위험한 나이에 있는 자들,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적합한 경험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향해 참된 선교사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 (6 증언, 217)

예언의 신 연구

교회 학교를 위한 계획

1. 교회 학교의 영구적인 설립

"이 집회들에서 뿌려진 좋은 씨앗은 돌보지 않음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부모들은 야영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교훈이 계속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같은 원칙이 가르쳐지고 실행되는 학교에 넣기를 원할 것이다. 부모들과 어린이들의 관심이 일깨워지는 동안, 야영회 동안에 수행되었던 일이 계속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황금의 기회가 있다.

신자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조직되면, 이런 학교는 이 사업의 영구성과 안정을 증진하는 데 큰 가치가 될 것이다. 새 지역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도 하에 그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들이 마련되기까지는 그 곳을 떠나고자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담한 예배당이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영구한 설립을 위한 준비를 다 갖추어 주어야 한다." (6 증언, 107-108)

2. 교회의 수만큼이나 학교 건물이 필요함

"이것이 미국과 호주와 유럽과 교회가 서는 곳마다 이루어야 할 일이다. 새로 모인 무리들은 예배당이 필요하다. 성경의 교훈을 가르칠 만한 곳이면 학교가 필요된다. 교회 건물만큼이나 교실이 필요하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한 길이 준비되면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갖고 계신다." (6 증언, 109)

3. 적은 규모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녀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우리의 큰 학교들이 서 있는 곳으로 이사해 가는 많은 가정들은, 현재 그들이 있는 곳에 남아 있음으로써 주님을 위하여 더욱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권유하여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원만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나태에 빠질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큰 교회로 가는 대신에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다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

업을 위하여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6 증언, 198)

4. 그리스도인 교사를 채용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라도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교육시킬 정규 학교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그들은, 헌신적인 선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선교사가 되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시킬 그리스도인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성경을 모든 과목의 기초와 생명으로 삼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철저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갑옷을 입고 그들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스스로의 모본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낮 동안에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요 9:4)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기심 없는 노력을 기울여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꾸준하게 가르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6 증언, 198)

5. 가정 규모의 학교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가정들은 홀로 떨어져 살거나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자녀들을 기숙사가 있는 우리의 학교에 보냈다. 그 곳에서 그들은 도움을 얻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 위하여 돌아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 보낼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부모들은 주님을 위하여 재능 껏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포도원의 어떤 부분이라도 즐겨 경작하고자 하는 모범적이요 신앙 좋은 교사를 채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교사와 협력하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영적 흥미를 참신하고 건전하게 보존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매일의 어떤 부분을 바쳐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교육하는 시간을 기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확신도 커질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을 배움에 따라 그들 자신의 성장도 더욱 신속해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겸손한 방법으로 일할 때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믿음과 활동은,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려 주고자 할 때 날마다 증가될 확신과 만족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열렬해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증언, 198-199)

6. 자녀들이 여섯명 뿐일 때 - 그 이상 없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들이 법률에 의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 취학 아동들의 수가 여섯에 불과하더라도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해 내기 위하여, 마치 그대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서 우리의 의무를 너무도 등한히 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여러 해 전에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야 했다. 많은 지역에는 주님의 사업을 특징지을 진리의 대표자들이 이와 같이 있어야 했다. 소수의 지역에 그처럼 많은 큰 건물들을 세우는 대신에, 많은 지역에 학교들을 설립해야 한다." (6 증언, 199)

교사들과 저들의 일

7. 교회 학교에서 해 온 일의 성격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은 가장 높은 표준에 속한 것이어

야 한다.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릇된 교육을 고치는 유일의 치료제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언제나 젊은이들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은 가정 교육을 보충해 주는 것이어야 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가지로 단순과 경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작은 학교에서 일하는 재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학교에서는 유리하게 일할 수 없는 남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성경의 교훈을 실천할 때, 그들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육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6 증언, 200)

8. 교사들의 성격(자질)

"교만하고 냉정한 교사들에게 어린이들을 맡기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교사는 신속하게 성품이 계발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다. 교사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도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시적인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어린이들을 편애하고 귀엽게 생기지 않은 아이들이나 불안정하거나 신경질적인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사업이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들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침착하고 친절하고, 사랑과 관용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는 교사들이 특별히 필요하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주님의 가족 중 나이 어린 가족들로 여기셨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친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취급하셨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참된 선교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영혼을 하나의 엄숙한 위탁물로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교회 학교는 고상한 도덕적 특성을 가진 교사들, 믿음이 건전하고 기지와 인내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자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어두운 구름을 발견할 것이다. 구름과 흑암, 폭풍과 비바람, 자녀들이 형성해야 할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부모에게서 맞게 될 편견 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칙을 가정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환경들이 그들을 결코 정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6 증언, 201-202)

9. 교사와의 협력

"부모들은 자녀들의 앞길에 거치는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강한 열성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는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받아 들여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교제로 연합되어야 한다. 유독한 세상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혼의 창문을 닫아야 하고,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햇빛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늘로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야 한다. 비평과 의혹의 정신이 마음에서 제거되기 전에는, 주님께서 학교 설립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하고자 원하는 바를 교회를 위하여 하실 수 없다. 연합이 있기 전에는, 그분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물과 재능을 맡겨 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부모들은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 주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실천해야 한다. 마음과 성품에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열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 학교를 통하여 발휘될 선에 대한 감화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사와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열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학교를 세

울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증언, 202)

10.의료 선교사의 사업

"우리 교회 학교들은 이 사업을 할 어린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실제적인 선교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꾼들의 군대에 가담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의료 선교 사업에 가담하여 그들의 작은 힘으로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의 투자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작은 도움과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인도될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 무리 중에 있는 어린양들을 위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6 증언, 203)

11. 우리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진리의 빛과 힘과 능력은 확장될 것이다. 세상에서 온 젊은이들, 마음이 타락한 상태에 있던 젊은이들까지도 이와 같은 학교와 접촉함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를 위한 그들의 증거는 부모들이 품고 있는 거짓 이론에 의하여 한동안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종류의 선교 사업이 빛과 지식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증언, 203-204)

12. 어린이들을 성경 말씀 안에서 가르침

"나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러한 교회들의 힘은 저들의 유용성과 능률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우리의 모든 교회마다 학교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학교들마다 선교사인 교사들이 있어야 한다. 안식일 준수자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대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 분야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된 교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 다른 지방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로 운영되는 이러한 학교들은 사정의 요구에 따라 선지자 학교들이 세워진 같은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 (부모 168)

"성경이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없는 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현명한 교사의 지도를 받을 때 성경은 더욱 더 재미있는 책이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저들에게 생명의 떡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가운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매력을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마치 광명과 온기를 주면서도 결코 다함이 없이 지구를 비추어 주는 태양과 같다. 성경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모든 다른 책들이 이 책만 못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저들은 여기에서 자비와 사랑의 샘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 171)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

13. 순종이 요구됨

"교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참된 자존심을 보여야 한다. 그는 자신이 성급한 기질을 부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가혹하게 벌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는 자기자신을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을 깨

달아야 한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신령한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이며 언제나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며 자기 자신의 과오에 대한 생각으로 누그러지게 될 것이다. 교사는 다음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골 1:21, 22)다고 하였다." (부모, 152)

14. 교사에게 힘을 주어야 할 부모님들

"교사는 자기 사업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나가도록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는 모든 교인들의 동정심, 친절, 협동심 및 사랑이 요구된다. 부모들은 교사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교사를 격려해야 한다. 부모들로 저희 자녀들의 불순종을 조장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나는 많은 부모들이 교사에게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저들은 학교가 끼친 좋은 감화를 저희 가정에서 돌보지 않는다. 학교에서 가르친 순종의 원칙을 가정에서 실행해 나가는 대신에 자녀들이 제멋대로 놀며 제재를 받지 않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둔다. 만약 교사가 순종하는 버릇을 가르치기 위하여 권위를 행사할 경우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저들이 벌받은 사실을 고자질한다. 교사는 다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마지 못해 행하였을 뿐이나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녀들을 동정한다.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재를 받고 훈계를 받았을 때 분노한 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이야말로 실로 가장 터무니없는 자들이다." (부모, 153-154)

15. 기교, 기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함.

"어린이들의 지도와 교육은 어떤 남자나 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교사업이다. 실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천연계에서 천연계의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훈들이 매우 분명해져야 한다. 우리의 학교에는 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기량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큰 날만이 이 사업이 이룰 유익을 보여 줄 것이다.

어린이들의 교육에 특별한 재능이 활용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구유를 높은 데 두고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유를 낮은 곳에 두고 어린양들을 먹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마음의 눈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는 악을 처다보는 데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6 증언, 205)

16.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라

"교사들은 때때로 아이들의 운동과 놀이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비평하거나 결점을 찾고자 하지 않고 불친절한 감정과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친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줄 것이며,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장소가 될 것이다." (6 증언, 205)

교회 학교의 목적

17. 저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8). 그대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분별하고 피하도록 교육시키는가? 그대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태만으로 그들의 멸망을 조장하고 있는가?" (6 증언, 195-196)

18. 진리의 수준(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회 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만 하면, 그 학교들은 설립된 지역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는 방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깨닫지 못한 신비들을 해석하셨던 것처럼, 이 지상의 사업이 마칠 때에도 올바르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단순하게 표현하는 말로써 오늘날 '고등 교육'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전 뜰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도 멸망해 가는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음성이 높여질 것이다.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성인들에게 더이상 진리를 전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이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일꾼들이 길이 막혀 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업을 그들이 할 것이다." (6 증언, 202-203)

19.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 바 이 진리는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신령과 능력으로 전하여질 것이다. 저들은 주님을 경외함을 배웠으며 저들의 마음은 신중하고 경건한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졌다. 가까운 장래에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며 나이 많은 교인들이 잘 할 수 없는 시기에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부모, 166-167)

기억할 말씀: "하늘에 있는 지성(천사)들은 성인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린이들에게 임하여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 즉,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저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학교는 어린이들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6 증언, 203)

연구할 과제

1.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청년, 165)
2.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청년, 172-

173)
3. 죄를 범하는데 대한 좋은 핑계는 무엇인가? (청년, 173)
4. 생애의 성공을 위한 어떤 지침이 주어졌는가? (청년, 181)
5.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는 세가지 방법은 어떤 것인가? (청년, 198-199)
6. 그대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이 교육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청년, 215, 216)
7. 고대 유대인들의 청소년 교육에서 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청년, 224-225)
8. 학생들이 돈이 충분히 있어 학교에 내야 할 수업료를 낼 수 있는데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여야만 하는가? (청년, 226)
9. 강한 사람은 환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청년, 245-246)
10.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손으로는 세우고 한 손으로는 부수려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라. (청년, 254-255)

제90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학생들에게 주는 지침

성경절 연구: 갈 6:6-10

요점: "사람은 세 가지의 속성으로 되었는데 솔로몬이 명한 훈련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힘의 올바른 계발을 포함하는 것이다. … 이것은 책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절제와 형제 우애와 경건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며, 우리 자신들을 향한 의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 기초, 57)

예언의 신 연구

품성을 건설함

1. 극기의 힘

"유년과 청소년의 품성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다. 극기의 힘은 이 때에 얻어야 한다. 난로 곁에서와 가정 식탁의 감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끼친다. 초년 시절에 형성된 습관은 어떠한 타고난 재능보다도 더 크게 인생의 싸움에서 그 사람이 승리하느냐, 혹은 패배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아마도 성급하고 참지 못한 말만큼 어른이나 아이들이 심상히 보아 넘기기 쉬운 과오는 없다. 그들은 '내가 방심했다. 내가 말한 것이 내 본뜻은 아니야'라고 변명함으로써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성경은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 29:20),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 25:28)고 말한다." (청년, 134-135)

2. 조절되지 않은 성질, 과로, 초조함

"인생의 어지러운 일, 괴로운 일, 불쾌한 일들의 대부분은 기분을 이기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한 순간의 성급하고 격정적이고 부주의한 말로 인해 일생을 회개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아! 도움과 구원을 줄 수 있었을 자들의 거칠고 성급한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친구들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의 생애가 파멸되었는가!

과로로 말미암아 자제심을 잃는 때가 가끔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급하고 복잡한 활동을 결코 강요하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그들에게 지워주시지 않은 책임들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도록 결코 계획하시지 않은 의무를 서로 다투어 가며 미친 듯이 따라다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도한 책임을 짐으로 과로하게 되어 마음과 정신이 피곤하게 되고 화를 내고 초조하며 잔소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

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만을 감당하고 주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아름답고 동정적이 되도록 보전해야 한다." (청년, 135)

3.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칭찬하실 것인가?

"일상 생애에 충실한 자들과, 자신의 일을 빨리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되 칭찬이나 이익을 생각지 않던 자들은 심판 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토했던 응변, 그들이 과시했던 지력(知力), 혹은 그들의 후한 기부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간과해 버리는 작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상급을 받는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고 주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34-40)." (청년, 145)

4. 동료들의 영향

"가정을 떠나 더 이상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는 곳에 있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친구들을 마음껏 사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그들을 감시하고 계시며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시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학교에는 항상 몇 청년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정신이 저열한 모본을 따라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어렸을 때에 지혜롭지 못한 그들이 장성해 갈 때에도 이러한 결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망쳐버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 힘이 약한 자들을 미로(迷路)에 빠지게 한다." (청년, 164)

5. 가라지를 심지 말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시간은 금이다. 그대들은 가라지를 심음으로 그대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선택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결코 부주의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 가운데에 있는 고상한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특성은 그대들에게 있어서 악을 저항하고 선을 선택하게 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그대들의 표준을 높이 세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대들의 부모와 선생님들의 기도가 밤낮 그대들을 따라다니고 그대들에게 애원하고 경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불량한 동료를 선택한다면 이것들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아무런 위험도 인식하지 못하고 악한 일이건 의로운 일이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죄악의 누룩이 모르는 사이에 그대들의 마음을 더럽히며 또한 부패하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청년, 164-165)

미래를 바라봄

6. 원만한 교육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은 그 교육을 얻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일에 착수하라.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하여 이것을 개척하라. 닥치는 기회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이것을 붙잡아라. 절약을 실천하라. 그대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오락을 위하여 재정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만큼 쓸모 있고 능률 있는 일꾼이 되도록 결심하라. 그대가 손을 대어 일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철두 철미하게 또한 신실히 하라.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온갖 편리와 특전을 이용하라. 서적 연구를 유용한 노동과 연

결시키고 신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원만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은 점점 자라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얻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청년, 174)

7. 영원을 위한 교육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일 2:14)고 말한다. 또 바울도 청년들에게 '근신하' (딛 2:6)라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명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충성되고 확고 부동한 종 다니엘의 정신과 같이 되도록 그대들의 심령을 향상시켜라. 그대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대들이 거룩한 땅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 주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교육의 최고 계단에까지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일이다. 철학과 역사는 중요한 학문이다. 그러나 그대들의 학식을 하나님의 영화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대들의 시간과 금전의 희생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학문적 지식이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는데 디딤돌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가치가 없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지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교육은 무익하다. 그대들이 하늘과 미래의 영생을 목표로 삼지 않는 한 그대들의 학식은 영속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나 만일 다만 한 주일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들의 스승으로 모실 때에는 그대들이 학식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청년, 176)

8. 유용한 일이 주는 이익

"단순한 경기나 장난을 위한 운동에서는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근육을 운동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동일한 양의 활력을 가지고 유익한 노동에 사용한다면 그 유익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활동이 협동 정신을 길러주고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는 양심적인 생각 때문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충분한 자격을 얻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자립하게 될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인생의 성공에도 필요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만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긴요하다. 노는 것은 긴요한 것이 아니다. 오락에 체력을 소모하는 것은 두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불리한 것이다. 점차적으로 운동에 지나치게 사용하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청년, 178-179)

9. 기초적인 학과를 완전히 습득할 것

"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결단코 낮은 표준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학교에 다닐 때 그대들에게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한 부분에서 일할 자격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가라. 그대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대들의 최선을 다하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대들 자신을 위해서는 그대들 스스로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만일 그대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껏 한다면 교장과 교사들의 큰 짐을 얼마나 가볍게 하여 주는 것이 될 것인가!" (청년, 184)

10. 유용하게 지식들을 습득하라

"문학적 방면의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기 이전에 그대들은 먼저 국문법의 간단한 법칙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읽고 쓰며, 아울러 정확한 철자법을 확실히 익혀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장래에 있어서 별로 소용이 되지 않을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고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먼저 모국어를 정확히 말하는 법을 배우라.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배우라. 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유용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라." (청년, 184)

참된 지혜

11. 인간적인 학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못함

"청년 남녀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첫째의 원칙에 대하여는 무지한 자가 될 수 있다. 인간적인 학문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들은 이와 같은 형식이나 예식 또는 오랫동안 서적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청년, 189)

12. 성경과 과학

"우리는 매일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과 사업을 배우는 자에게 이른다. 성경은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로(雨露)와 일광을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셔서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들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서 내려오고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날마다 신실히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계실 것이다. …" (청년, 189)

13. 경건의 신비

"지식의 탐구와 과학적 연구에 따르는 가장 큰 폐단 중의 하나는 이러한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흔히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종교의 거룩한 성격에 대하여는 간과해 버리는 일이다. 세속적으로 지식 있는 자들은 과학적 원리로써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이 방면으로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의 마음은 회의의 미로(迷路)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의 신앙은 곧 경건의 비밀이다. 어떠한 인간의 마음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거듭나지 못한 심령에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청년, 190)

14.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을 헌신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능률이 저하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란 서적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잠 9:10)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지만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신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와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해석해 놓은 것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육을 받는 것이

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섭리 가운데서 또한 참된 교육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방사되는 빛의 첫 접근을 알아본다. 영적 지식의 최초의 미광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늘과의 교통이 열릴 것이다." (청년, 190-191)

15. 우리의 언어

"현대에 유행하는 종교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자칭하는 청년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의 이야기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사람의 품격을 형성하여 주었다. 청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귀한 구속의 계획은 그들의 화제에 오르지 않는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일의 순서를 변경하여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속에 거하신다면 그대들은 잠잠히 있을 수 없으리라. 만일 그대들이 예수를 발견했다면 참된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이 일에 열성을 나타내야 한다. 예수는 그대들의 영혼에게 귀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대가 발견한 것과 그대들의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신 것을 아직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라." (청년, 200-201)

하나님을 위한 봉사

16. 사람을 구원하는 청년들

"사단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중한, 방심하지 않는 원수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 남녀들만큼 많은 선을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젊은이들이 올바르기만 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가 든 전도자들과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의 절반도 줄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쾌락과 육신적 욕망을 희생할지라도, 그들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시간과 재물까지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청년, 204)

17.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근심함

"학교에 다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리고 누가 죄의 길을 버리고 성결의 길을 택하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가?

나는, 이것이 믿는 젊은이들이 취해야 할 길이지만 그들이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다. 운동과 쾌락을 통하여 죄인과 연합하는 것이 그들의 감정에 훨씬 어울린다. 젊은이들에게는 넓은 분야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이제 그들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접근하는 길을 찾는 일에 그들의 정신적 힘을 발휘하여, 거룩함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기도와 간구로 한 영혼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바라노라.

이 얼마나 고상한 사업인가! 한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영혼이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들의 면류관에는 한 보석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 그러나 한 영혼 이상을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그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

는 사업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보답을 받는다." (청년, 205)

18.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안수받은 목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안수받은 일이 결코 없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후에, 그대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주께서는 그대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실 것이다." (청년, 226)

19. 과오(실수)에 대한 우리의 관계

"일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러나 그대들이 과오를 범하므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신실히 활용할 때 그대들은 자아에 불만을 가지게 만들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릇된 모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해한 습관들을 제해 버릴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대 자신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보충해야 할 빈 자리가 생길 때에 그대들은 '더 높이 올라오라' 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대들은 이 부름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새롭고 거짓 없는 열심을 불어넣으라.

영혼들을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비결은 크신 교사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말라가는 초목에 부드럽게 내리는 이슬과 조용한 비처럼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구원하려고 찾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부드럽고 또한 사랑스럽게 내려야 한다. 우리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 기회가 나타날 때 어떠한 핑계로도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곧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226-227)

20. 최고의 사업

"어떠한 사업보다도 뛰어난 사업, 즉 영혼의 정력을 끌어내어 활동시켜야 할, 모든 다른 사업 위에 있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그대들의 생애의 주업으로 삼아라. 이것을 그대들의 특별한 필생의 사업으로 삼아라. 이 위대하고 고상한 사업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라. 그리하여 국내의 또는 외국의 선교사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할 준비를 갖추고 유능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일함으로 구주에 대한 그대들의 믿음을 증명하라. 오! 젊은이나 노인이나 완전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의무에 착수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노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청년, 227)

기억할 말씀: "정당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과 같은 일군(一群)의 군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가까이 재림하시는 구주의 기별이 얼마나 빨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가!" (청년 248)

연구할 과제

1. 그대의 자녀들을 공립 학교에 보내는 것은 무슨 목적 때문인가? (6 증언, 193-194)
2. 어떤 형태의 자녀 교육이 정죄를 받았는가? (3 증언, 132)
3. 육체적인 고통(매)을 가하는 형벌이 필요한 것인가?
   "학교와 가정에서 징계(훈련)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 교실에서 매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희망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 저들을 위해서 준 모든 권고와 대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계속해서 저항(대항, 반역)하는 자들은 저들이 응당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RH 1904. 9. 15)
4. 교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숙사)에 대해서 어떤 두가지의 제안이 있는가? (6 증언, 108, 109)
5.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교과서는 무엇인가? (부모, 153:1-3)
6.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제공되었는가? (부모, 165)
7. 교회 학교가 십일금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 (9 증언, 248)

제91과 내 생애의 일(평생 사업)을 선택함

성경절 연구: 행 9:1-6

요점: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길 것,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할 것 –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직업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교육, 344)

예언의 신 연구

기회는 광범위함

1.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었음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인생의 제일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데는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사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구세주의 생명으로 고무함을 받은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직접 외부의 세계에 대한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교육, 247." (청년, 219)

2. 모든 손들이 일해야 할 중대한 사업

"모든 손들이 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있다. 손 한 번 움직이는 것마다 인류의 향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도 많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축복을 거의 받지 못한 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의 마음은 만족감으로 벅차게 될 것이다. 게으른 자들은 모두 눈을 뜨고 삶의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페이지들을 살펴 보라. 그대가 만일 말씀을 행하는 자일 것 같으면 생애는 그대에게 생기로운 실재가 될 것이고, 그 보상도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 증언, 37)

3.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

"주께서는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각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갖고 계신다. 필요하지 않은 재능은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재능이 적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재능에 적합한 일자리를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만일 그 한 가지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루고자 계획하시는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난한 농부의 재능은 집집방문 활동에 필요하며 훌륭한 재간보다 이 사업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9 증언, 37-38)

4. 가족 전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음

"만일 진리의 빛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실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온 가족이 선교사가 되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부지런한 손과 활동적인 두뇌로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 낼 가족들이 있다. 만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열성적이고, 신중하고, 인정이 많은 남녀들이 있다." (9 증언, 40-41)

산업 분야에서의 훈련

5. 농업은 에이(A), 비(B), 씨(C)로서 기본이 됨

"땅을 경작하는 일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휴식시켜 주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일 중의 하나이다. 농업 분야의 연구는 우리의 학교들에서 실천하는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착수해야 할 첫째 되는 일이다. 우리 학교들은 건강에 요긴한 곡물과 야채, 그리고 과일 등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학문적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어 내고 땅을 경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교사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들 스스로가 책임을 진 자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적당한 학생들이 같은 방법으로 교사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 (6 증언, 179)

6. 부기, 목공, 요리하는 일 등등

"실업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찾아올 것이다. 실업 교육은 부기법, 목공, 농사에 관한 모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장간 일, 페인팅, 제화, 요리, 제과, 세탁, 의복 수선, 타자, 인쇄 등을 가르칠 준비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의 능력을 다 기울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의 의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게 할 것이다." (6 증언, 182)

7. 식자, 인쇄, 제본 등등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교육의 일부로 취급해 온 실업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젊은이들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경험 있는 일꾼들과 끈기 있고 친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목수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직접 학교의 대지 위에 건물들을 세우고 필요한 개축 공사들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실제적인 학습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건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천막 제조와 그 밖의 유용한 분야의 작업과 동시에 식자, 인쇄, 제본 등과 같이 인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작은 과목들을 심고 채소와 꽃들을 재배해야 한다. 여학생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옥외로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6 증언, 176)

8. 선교사들이 또한 산업(실업) 분야의 교사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쌓은 수양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외국의 나라들에서 진리를 유력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이 사는 지방의 사람들에게 요리하고 재봉하고 집 짓는 일을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학교 건물과 집회소와 가옥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수천 마일씩 여행시키는 데 돈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만일, 선교사들이 경험 없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여 최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훨씬 더 감화력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선교사들이 실업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의

가르침은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선교사들은 그들의 연구에 겸해서 체력을 실제적인 노동에 최선껏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하는 데 훨씬 적은 자금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와 같은 분야에서 얻은 모든 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기반이 될 것이다. 실업 부서에 일하는 학생들은 가사에서 일하거나, 토지를 경작하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일하거나 간에 그들이 일과 관련해서 배운 실제적이요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할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되어야 한다. 생애의 모든 실제적 의무에서 천연계의 교훈과 성경의 교훈은 비교되어야 한다." (6 증언, 176-177)

기술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교사가 될 것인가?

9. 두뇌와 근육의 짐을 적당히 나누어 져야 함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뇌와 근육이 균등하게 짐을 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건전한 지식과 균형진 마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건전한 사상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귀중한 것들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진리를 소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진리가 무엇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신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증언, 180)

10. 육체적 노력과 도덕적 힘(능력)

"신체적 노력과 도덕적 능력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노력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살이와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지식을 구비해서 남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살이와 영적인 것의 축복이 우리 주위에서 느껴지게 해야 한다." (6 증언, 189)

11.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겸하라

"사업이 퇴보한다는 인상이 수천 명을 사지에 내려가게 했다.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들은 자주 너무 심하게 일하며, 두뇌 노동자들은 육체적 노동이 주는 건강한 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적인 사람들이 노동 계급의 부담을 어느 정도 짐으로 근육이 강하게 되도록 할 것 같으면, 노동자들은 시간의 일부를 정신적, 도덕적 함양에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앉아 일하고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일을 연합시키는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다." (6 증언, 192)

12. 직업인들을 위한 노작 훈련

"노작 교육의 혜택은 지적인 직업을 가진 자에게도 필요하다. 사람이 혹 우수한 두뇌와 민활한 사색력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직무를 수행할 만한 기량이 있을지라도, 때로 그 직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로 서적에서만 얻은 교육으로는 표면적 사색에 빠지기 쉽다. 실지로 하는 일은 면밀한 관찰력과 독자적인 생각을 조성시킨다. 이 일이 바르게 실행되면, 소위 상식이라는 실제적인 지혜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용기와 견인성을 강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재치와 숙련이 요구된다." (교육, 220)

또 다른 부르심

13. 일생 동안 안식일 학교에서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청년 남녀들에게 안식일학교 사업에 있어서 평생의 열심 있는

활동을 위하여 단단한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안식일학교 사업에 전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사들과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재간을 증가하고 또한 이미 습득한 것을 계발시켜 나가는 교사들을 원하신다." (청년, 219)

14. 성경 교수의 활동

"성경 읽기회를 조직하는 계획은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며 수백 명의 청년 남녀들을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로 보내는 길을 열어준다. 이 일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성경은 매여 있지 않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의 집에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의 진리를 각 사람의 양심에 제시할 수 있다. 고귀한 베뢰아 사람들같이 진리를 받은 후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스스로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 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크고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그리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보상을 받지 않는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빛을 따르는 이러한 충성의 행동을 당신의 특별한 은총의 징표로 보답하실 것이다." (청년, 220)

15. 문서 전도 사업

"하나님께서는 아직 진리를 듣지 못한 곳에서 문서 전도자로 또는 전도인으로서 집집마다 방문하기를 청년들에게 요구하신다. 주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20)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지도 하에 일하러 나간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8 증언, 229)

"청년들이 전도 사업에 대한 자격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문서 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기록된 책들을 권유하게 하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심은 진리의 씨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 서적을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설교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던 경험을 얻을 것이다. … 진정으로 목회 사업에 종사하기를 갈망하고 남김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문서전도 사업에서 장래의 영생에 관한 여러 가기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청년, 220-221)

16. 교육 사업

"청년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정신을 도야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하여야 할 여러 방면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특별히 아동들을 위하여, 침착하고, 친절하며 인내와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는 교사들이 필요된다. … 우리 교회 학교에는 높은 도덕적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필요하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교사들,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지(機智)와 인내를 가진 교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교사들이 필요된다." (청년, 221-222)

17. 사무가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각 부문에 지혜 있는 적임자들을 배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큰 원칙을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일 가운데 활용하는 사업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은 매우 면밀한 연구와 훈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지혜 있고 능률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야 할 어떤 부문에 속하는 일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바로 그 부문에 속한 자들일 것이다.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는 그가 그의 모든 사무에 있어서 가장 엄밀한 시험을 받았으되 한 가지의 흠이나 실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업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 한 모본이 되었다. 그의 역사는 두뇌와 뼈와 근육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222)

18. 의료 선교 사업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전도 구역을 담당한 자는 없다. 의료 선교 사업보다 더욱 훌륭한 일을 하며 또는 그의 기쁨의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없다. 그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들어가는 모든 병실에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는 죄로 병든 영혼에게 참된 치료의 향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는 병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켜 줄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병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환자의 십중 팔구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주를 알게 될 때에 정신과 육신이 훨씬 호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다. 그는 죄에 병든 영혼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이시다.

거의 모든 지역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어떤 종교적 예배에 참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은 그들의 가정으로 틀림없이 전달된다. 때때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과 접촉할 유일의 길이 된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선교 간호사들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고 구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욕을 타락시킨 식욕을 지배할 힘을 소유하지 못한 속절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들은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들의 생애에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 사심 없는 친절한 행동 속에 나타난 그들의 이타적 사랑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청년, 222-223)

19. 전도(목회)사업

"복음 전도 사업을 경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어떠한 계획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이 미천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도록 그런 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전도 사업을 경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업 중에 가장 고귀한 사업은 여러 방면의 전도 사업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업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는 사업이 없음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 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단념시키지 말라. 그들 중 더러는 화려한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명령하시는 길을 떠나게 될 위험성이 있

다. 어떤 전도 사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공부하도록 권함을 받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교역자들이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초(前哨)를 보강하라 세계 각 곳에 신실한 파수꾼을 두라'고 말씀하셨다.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도량이 넓고 마음이 큰 청년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청년들의 군대를 필요로 하신다." (청년, 224)

20. 외방 선교 사업

"청년들이 필요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 지방으로 부르신다. 비교적 걱정과 책임이 없으므로 그들은 많은 가족을 교육하고 부양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들보다도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에 더욱 유리한 입장에 있다. 더욱이 청년들은 새 기후와 새 사회에 용이하게 적응하고 불편과 고난을 더 잘 참을 수 있다. 기지와 인내로써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년들은 외국어에 능통하게 됨으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들은 죄인들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들이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지성을 발전시키고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작은 책임밖에 감당하지 못할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외국어를 공부하여 능통하게 됨으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번역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청년, 224-225)

기억할 말씀: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각각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다." (청년, 276)

연구할 과제

1. 모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가? (9 증언, 30)
2.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교지는 무엇인가? (9 증언, 37)
3. 문서 전도 사업에 대해 서술해 보라. (9 증언, 33, 34)
4. 농부들, 자본가들, 건축가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9 증언, 36)
5. 음악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노래하는 전도자들의 사업에 대해서 서술해 보라. (전도, 492, 495)
6. 정치가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였는가? (청년, 43)
7. 진정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성공적인 법률가(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 (청년, 272)
8. 불일치 중에 존재하는 조화(일치)에 대해 토의해 보라. (9 증언, 144)
9. 평생 사업을 바르게 선택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교육, 344)

제92과 평생 사업을 위한 훈련(교육)

성경절 연구: 행 9:7-31; 갈 1:15-21

요점: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어떠한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을는지 모른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진리를 증거하라는 요구를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입법 회의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더러는 왕들 앞에와 지상의 학자들 앞에 서서 신앙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청년, 186)

예언의 신 연구

참된 교육

1. 참된 교육의 의미

"참된 교육이란 정신과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새겨주는 모든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 영혼의 대적의 기만적인 속살거림에 대항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학식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이 지식을 얻는다면 긴요한 그 밖의 모든 것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지식도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서적들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인정 하시는 품성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의(義)의 첫째 원리는 알지 못한 것이다." (청년, 171)

2. 그리스도의 학교

"세상 학교에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그들이 또한 다른 한 학교 곧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결코 졸업하는 일이 없는 학교이다. 학생 중에는 노인도 소년도 있다. 하늘 교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지혜와 고상한 영성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이 함으로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바 그 학교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계속 진보하게 될 것이다." (청년, 171)

3. 의무와 행복에 관한 권면

"무한한 지혜자께서 우리 앞에 인생의 위대한 교훈 곧 의무와 행복에 관한 공과를 제시하신다. 이러한 공과는 때때로 배우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진보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배우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눈물 심지어 고뇌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거나 싫증을 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 위한 적합성을 얻어야 할 곳은 시험과 유혹이

편만한 이 세상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연구에 열중함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기를 중지하는 자들은 무한한 손실을 당하고 있다." (청년, 171-172)

4. 지식과 자기 훈련

"그들의 동포에게 복주기 위하여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들의 지력은 열심 있는 활동을 위하여 깨우쳐질 것이다. 그리고 재능은 넓어지고 계발 되고, 정신은 능력 있고 능률 있게 될 것이다.

자기 수양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이 자기 수양은 웅변이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청년, 175)

봉사를 위한 훈련

5. 유혹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자제력과 신앙적 원칙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유혹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게 되고 대학이나 하숙집이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걸치는 외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원칙들은 생애 전체에 그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청년, 181)

6. 성격과 행동

"생명의 샘에서 마시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와 쾌락에 대한 동경심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품행과 성품에서 안정과 화평과 행복을 엿볼 수 있으니 그것들은 매일 주님의 발 앞에 그들의 번민과 고통을 내려 놓음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그들은 순종과 의무의 도리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증거해 보일 것이다. 그러한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에게 감화를 끼쳐 학교 전체에 그 영향를 파급시킬 것이다.

열렬하고 양심적이며 성실한 한 사람의 젊은 학생은 평가할 수 없는 고귀한 보화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러한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것이며 모든 의로운 일, 물리친 모든 유혹, 승리한 모든 악들이 하늘 장부에 기록된다. 그는 장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를 쌓는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세우신 기관들의 보존과 영속성(永續性)이 다분히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에게 의존되어 있다. 지금 이 때처럼 인간의 한 세대(世代)에게 그처럼 중대한 결과가 의존되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그들의 조물주께서는 다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요한 주장들을 하신다." (청년, 181-182)

7. 학교 훈련의 가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사납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품성은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청년들이 우리 기관의 법규와 규정들에 적응하는 것이, 사회에서의 그들의 명망을 높이고 품성을 향상시키고 정신을 고결하게 하며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바른 규칙과 건전한 요구 사항에 반항하지 않을 것이며 이 기관들에 대한 의혹과 편견을 조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182)

8. 저들을 우리 학교에 오게 하라

"청년 남녀들은 지식과 수양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인 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한다. 그들은 그릇된 교리를 물리치고 마귀의 오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성경에서부터 더 많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것이다. …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사람들을 세속적 사업에 종사하도록 이끄는 동기 즉,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어떠한 세속적 고려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청년, 185-186)

그대의 목적 - 시간이 필요함

9. 성공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함

"어떤 계통의 일에나, 성공을 하려면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일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그 노력에 합당한 목표를 마음 속에 굳게 간직해야 한다. 그런 목표가 청소년들 앞에 놓여져 있다. 현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하늘이 정해준 목적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목적을 위한 노력의 문이 열린다." (교육, 262)

10.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도록 교육시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하신 말씀은 자기를 좇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누구나가 다 말 그대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동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인 것이다. 위대하거나 평범하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노소를 물론하고,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서 존경받도록, 명목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은 결여된 생애를 살도록 해서, 진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판단을 내리시도록 교육할 수 있겠는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한 편으로는 복음의 정신을 부인하면서, 복음의 은혜는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는 유일한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은 품격과 품위를 갖추게 할 교육을 거부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너무 늦게야 그 일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에게 내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들의 파멸을 확실하게 했다. 그들은 유혹 앞에 굴복한다. 그들은 자라서 세상의 저주가 되고 부모에게도 슬픔과 욕을 돌린다." (교육, 264-265)

11.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배정된 특정의 지위는 각각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진보를 이룩하거나 같은 일을 동등한 실력으로 해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히솝(脣形科 植物)이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커지거나 감람나무가 당당한 종려나무처럼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사람과 하나님의 힘을 결합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교육, 267)

12. 너무나 여러해 동안 훈련(교육)을 받는데 소비하고 있음

"여러 해 동안 이것은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었다. 베틀크릭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정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다. 만사의 끝이 가까이 임하고 있다. 고통의 날, 울부짖게 될 날, 천벌을 받는 날, 죄의 심판의 날이 이땅에 마치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임하고 있다. 이 세상에 갑자기 임할 파멸의 날은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저들이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경고할 말이 있다. 그대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희미한 빛으로 비춰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도 너무나 멀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가장 적은 부분도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채 그냥 서 있다. 학생들은 저들의 능력은 저들이 받는 교육과 훈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은 저들이 인간들이 연구한 과학의 연구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사고에 꼭 파고 들어야 할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신속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일할 것이요, 인간의 능력이나 열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에 인간이 가진 능력을 제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 계신 구세주이시며,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언자되신 중보자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투쟁을 다하자.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는 위기가 얼마나 신속하게 임할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도적같이 점점 우리 위에 임하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밝게 비추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이 선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시집 장가를 들며 결혼을 베풀면서 저들이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발간물들은 계속해서 기사들을 실어 배부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어내면서 서로가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자리 다툼을 일삼고 있으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극장을 찾아 다니고 있으며, 경마장, 지옥의 도박장에서 최고의 흥분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 날은 신속하게 임하고 있다. 모든 경우들이 최후의 운명을 결정지으려는 찰라에 놓여 있다.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우리가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우리가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마음과 혼을 다해서 믿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만이 행함으로 저들의 믿는 바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가고 있다. 사단은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의 대리인들을 동원하여 세상을 소란하게 하여 사람들로 속임을 받고, 기만을 받은 채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머무르게 하여 문이 영원히 닫혀 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아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속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 신속하게 움직이라. 밤이 신속하게 임하고 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성을 가지고 그대에게 오는 학생들에게 계속되는 과정을 이수하게 하기 위해 공부하도록 권장하지 말라. 너무나 긴 시간동안 교육을 연장하지 말라.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저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같은 계획이 저들의 영혼에게 하나의 올무가 됨을 증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졸업할 당시 보다 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에 더 나은 준비를 갖추었으며,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저들로 유식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게 하였으며, 저들이 얼빠진 사람이 되기까지 연구를 계속하였다. 책들을 저들의 우상으로 만들었으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건강도 영성도 기꺼이 희생하였다. 기도하기 위해 바쳐야 할 시간을 제한하였으며,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계발하지 않았으며, 빛과 지식을 나누지 않았다. 저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였고,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에 있어서는 진보하지 않았다. 선교사의 일은 점점 인기가 없는 일이 되었으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욕망은 증가되었다. 저들이 연구를 추구하는 가운데 지혜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하였고, 저들이 베틀크릭에 들어 가기 전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더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위를 받으라고 권장하였다." (교육 기초, 354:1-355:1)

13. 진정한 교육

"젊은이들이 그들의 지적 능력의 최고의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옳은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한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최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디딤돌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8 증언, 311)

"젊은 남녀들이 봉사 사업에 적합하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한 교육을 주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첫째가 되며 가장 중대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지식의 탐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다리의 가장 높은 층계에 오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학생들로 가급적 신속하고 최대한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능력이 포용하는 한 저들의 연구 분야가 가급적 광범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들로 하나님을 저희의 지혜로 삼고, 무한한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 세대 동안 숨겨 있는 비밀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야 하며 당신을 믿는 자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부모, 394-395)

평생 사업

14.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음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30년 동안의 생애를 평범한 기계적 생활로 지내셨으나, 이 기간에 그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연구하고, 당신의 감화가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셨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6, 27)." (교육, 267-268)

15.일반인 중에서의 일군들

"끝나가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복음으로 점령해야 할 광대한 지역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조력자들을 일반인 중에서 모아야 한다. 밭에서, 포도원에서, 공장에서, 노소를 물론하고 부르심을 받아 구세주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자격이 있다고 보신다.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마음을 두고 배우기를 계속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일꾼으로서 그를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교육, 269-270)

16. 타락한 인류에게서 가능성을 보심

"세상의 비참함과 절망의 깊이를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

도 아신다. 그분께서는 죄와 불행과 고통으로 암흑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영혼들을 도처에서 보신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며,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도 보신다. 비록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악용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하나님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으나, 창조주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이다." (교육, 270)

17. 눈에 보이는 실패에서 성공을 가능하게 하심

"그리스도께서는 무지한 자와 길 잃은 자들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상의 험난한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할 무거운 짐을 지워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손이 비록 거칠고 미숙할지라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서서 그들을 도우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 중에 은혜를 보고 손실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은 고난 중에 특권을, 혼란 중에 질서를, 분명한 실패에서 성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재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저주는 변장된 자비로 보일 것이다. 일반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구세주께서 전 인류의 슬픔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도 동포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교육, 270)

18. 수천의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함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습 1:14). 이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무수한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이 일에 헌신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부르심에 응하였으나, 그 수효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은 이런 일꾼들에게 동정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일꾼의 대오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의 지도 아래서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교육, 270-271)

19. 천사들과 동역하는 일군들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사업은 없다. 전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조력자이다. 그들은 천사들의 협력자들이요, 아니 그보다도 그들은 천사들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사람의 통로인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 말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한다. 그리하여, 일꾼들은 천사들과 협력함으로 그들의 교육과 경험에 유익을 얻는다. 교육의 방법으로서, 어떤 '대학의 과목'이 이와 필적할 수 있겠는가!" (교육, 271)

20. 세상 끝이 얼마나 신속하게 임할 것인가?

"올바르게 훈련된 우리 청소년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셔서 멀지 않아 오실 구세주의 기별이 얼마나 속히 전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얼마나 속히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해와 고통을 가진 이세상의 소유 대신에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시 37:29),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 33:24),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 65:19) 라고 한 그 곳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인가!" (교육, 271)

기억할 말씀: "그대의 학창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라. 그대들은 오직 단 한번 그 길을 지나갈 것이다." (7 증언, 275)

연구할 과제

1. 어떻게 하면 종교적 체험을 가질 수 있을까? (청년, 231)
2. 그대가 믿는 믿음의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청년, 236)
3. 무엇 때문에 졸업할 당시에 생애의 예리한 시험에 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는가? (교육, 341)
4.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 (교육, 341-343)
5. 다음의 표현들을 생각해 보라.

1) "내가 낙제만 하지 않는다면 만족하겠다." (청년, 233)
2) "그 청년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거야. 최근 지능 검사에서 가장 높은 지능 점수를받았지!" (청년, 237)
3) "나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무엇하나? 학교를 그만 두어야지! 아니면 낙제를 하여 다시 시작해야 될까봐!" (청년, 239)
4) "그 사람이 나의 목표물이야!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면!" (청년, 244)
5) "내가 청년 선교회에서 일하라는 부탁을 받았었지. 그런데 내가 그 청을 거절하였어. 내가 그 사업을 잘 해 내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어." (청년, 245)

제93과 균형진 학교 교육 과정(프로그램)

성경절 연구: 잠언 8장

요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과 심령을 강하게 해 주고, 우리를 더욱 훌륭한 남녀로 만들어 주는 지식이다. 본질적인 교육은 단순히 책을 통하여 배우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치료, 450)

예언의 신 연구

이론적인 교육의 위험

1. 하나님에 대한 추리적 이론에 빠짐

"지식의 탐구, 곧 학문의 연구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는 인간의 이성(理性)을 그 참된 가치와 적절한 범위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완전한 과학의 지식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업적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권한을 측정하고 무한하신 분에 관한 추리적 이론에 빠지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연구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금지된 땅을 밟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다만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첫조상은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한 지식을 욕망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므로 그들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에 결코 접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 곧 죄의 저주가 전혀 없는 지식,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지식을 주셨을 것이다. 그들이 유혹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얻은 모든 것은 죄와 그 결과를 아는 지식이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땅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그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단이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한 그 분야는 그가 오늘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세상에 쏟아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온갖 계략을 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추리하게끔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치료, 427-428)

2. 범신론의 사상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손상시키는 강신술적 교훈이 도처에서 교육기관들과 교회들을 침투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천연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이론이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가장되었을지라도, 이 이론은 하나의 가장 위험한 기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을 그릇되게 이끌 뿐만 아니라 타락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암흑이 그 요소이고 관능이 그 영역이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성에 있어서 그것은 파멸을 의미한다.

죄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피를 통하여서만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하나님에 대한 광신술적 이론은 그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든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천연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면,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다만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치료, 428)

3.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함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신 29:29).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당신 자신의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간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추측하고자 자신의 힘을 지칠 정도로 발휘할지라도 마침내 그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위탁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의 정신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을 추리해내고자 몰두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침묵이 웅변이다. 전지(全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시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경륜을 세울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린 아이들처럼 무지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분의 권한에 대하여 추측하기보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유의해야 한다." (치료, 429-430)

4. 자연계에 나타난 신비

"가장 위대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천연계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감은 가장 심오한 학자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답하도록 하고자 제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목을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로 이끌므로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변에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회의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한된 이해력을 통해 인정받으시는 만큼 당신께서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인정받으셔야 한다. 거룩한 계시와 천연계에 있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신비를 주셨다. 그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찾고, 탐구하고, 배울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무한한 것이 남아 있다." (치료, 431)

여러가지 주제들이 평가됨

5. 라틴어와 희랍어

"제재를 벗어나서 무모한 쾌락과 방탕과 부도덕에 빠져 학생들은 그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을 본받을 뿐이다. 희랍어와 라틴어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언어들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식은 타락해 있고 타락시키는 문학을 연구하지 말고 실제적인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희랍어와 라틴어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어(死語)의 연구는 심신이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는 과목들에 비하여 부수적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한 훈련을 등한히 하면서 사어나 어떤 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얻는데 그들의 시간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치료, 443-444)

6. 외국어 연구

"청년들은 외국어에 능숙해지므로 인하여 사업에 봉사하기 위한 자격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구원하는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매개물로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은 죄인들을 위한 봉사적인 노력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외국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저들이 저희 시간을 아낀다면 저들은 저희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욱 광범위한 유용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모, 508)

7. 모국어를 능숙하게 함

"어느 분야의 교육이든지 간에, 단순한 기능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보다도 더욱 중요한, 학생들이 달성해야만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게 된다.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보다는 먼저 모국어를, 그것이 현대어든 또는 고어(古語)든 간에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고 말할 줄 알도록 익히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높은 언어 연구의 중요한 일은 문법적인 지식의 교육만으로는 얻어지지 아니한다. 언어 공부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순결하고 친절하고 진실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고 하셨으니, 만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표현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234-235)

8. 생리학과 위생을 연구함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므로, 정신적 활력과 영적인 힘은 바로 신체적인 힘과 활동에 크게 좌우되며,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곧 건강한 정신과 균형진 품성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일이 된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도, 또 이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강은 품성과 마찬가지로 충실히 돌봐야 하며, 생리학과 위생에 관한 지식은 모든 교육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생리학의 지식이 널리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건강의 원칙들에 대하여는 놀랄 만큼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 마치, 생명이 정해진 바른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우연에 의하여 지배되는 양,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의 기호와 충동을 좇아 살고있다.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풍부한 힘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황금보다 더 값진 보화, 학식이나 지위, 또는 부(富)보다 발전에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보화인 생명이 얼마나 경시되고 무모하게 낭비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얻으려는 힘겨운 노력 끝에 건강을 잃고 마침내는 그가 소원하는 목적에 거의 도달했을 때 속절없이 쓰러지고 마는가! 반면에 더 튼튼한 체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라던 목적을 붙잡았다. 건강 법칙들을 무시한 결과, 불건전한 생활로 악한 습관에 빠져서 현세와 내세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 195-196)

9. 음성 훈련

"발성(發聲)의 훈련은 체육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일은 허파를 넓히고 튼튼하게 하므로 질병을 예방하게 한다. 글을 읽든지 말을 할 때에 확실하고 올바른 발성을 하려면, 호흡을 할 때 복부 근육이 최대한 충분하게 운동하게 하고 호흡 기관이 압박을 받지 않게 하라. 힘을 목의 근육에 주지 말고 복부의 근육에 주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 목과 허파에 큰 피로를 주지 아니하고 이런 기관들을 보호하므로 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분명한 발음, 순하고 잘 조화된 어조,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은 말씨를 쓰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일들은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에도 기쁨과 능률을 크게 더하여 준다." (교육, 199)

10. 가정 교육의 중요성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요리하는 사람의 기술과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다시 없다. 잘못된 조리와 비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주부는 어른의 유용한 영양 섭취와 아이들의 발육을 저해하며, 심지어는 파멸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몸의 필요에 맞고 구미를 끌고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함으로, 주부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행복은 많은 점에서 날마다 하는일을 충실히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녀는 다 각자의 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내나 여자 아이를 물론하고 가족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잠자리를 펴고 방안을 정돈하며, 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하며, 세탁하고 옷을깁는 일이 사내로서 사내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자로 더욱 행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여자 아이가 마구를 지우고 말을 몰며 쇠스랑이나 큰 호미는 물론이요 망치나 톱을 쓸 줄 알면, 인생의 비상 사태에서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216-217)

11. 노작 교육의 중요성

"노작 교육에 대해서는 전보다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의 지적 · 도덕적 교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발육과 실업 교육도 할수 있는 최상의 설비를 갖춘 학교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제조업 -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유용한 실업을 포함시켜서 - 또한 가정 경제, 영양 요리, 재봉, 위생적인 의복 만들기, 환자의 치료, 그 밖의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정원, 작업장, 치료실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일은 반드시 숙련된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 217-218)

12. 기술을 배우도록 하라

"모든 교육 기관들은 공부하고 농업을 실습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실비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여 여러 학과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산업(실업) 분야의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하루 일과 중에 얼마를 정신적 계발을 위해 시간을 보냄은 물론이요, 적당한 양의 시간을 육체적 노동을 위해 바치게 하고 또한 운동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헌신하는데도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교육 기초, 72:4)

13. 부기를 배우도록 하라

"나는 사업의 많은 분야에서 부기(簿記)가 크게 약한 것을 보았다. 부기는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또한 언제나 그럴 것이다. 부기를 전공한 자들은 우리의 기관들과, 모든 분야의 선교 사업에 크게 필요하다. 그것은 정확하고 신속하면서도 걱정이나 지나친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유능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부끄럽게도 등한히 여겨져 왔다. 우리의 사업처럼 이렇게 중요한 일이 결함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되는 것은 하나의 수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완전 사업을 원하신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사업을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와 그 진리의 창시자에게 수치가 된다. 나는 우리 기관에 있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 사이에 행동의 조화와 연합이 없을 것을 보았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은 지휘관으로 서실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보이는 우두머리도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부주의하고 무질서한 일꾼들의 집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또한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고상한 수준과 분명한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전진케 하고 향상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영혼의 향상은 예수님이 마음 속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기쁨, 그분의 사랑의 복된 열매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는 마음은 그분의 성전과 그분의 보좌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고 말씀하신다." (5 증언, 552-553)

교육에 있어서의 참과 거짓

14. 불신자 저자들이 쓴 책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신자 저자들이 쓴 저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저서들에는 빛나는 많은 사상의 보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사상의 보석들을 누가 만들어 내었는가? 그는 하나님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모든 빛의 근원이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진리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성적 진리를 얻기 위하여 불신자들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막대한 오류를 통과하여 건너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정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과시하는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 사단 자신이 하늘의 조정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요 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 그는 귀중한 것과 천한 것을 혼합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사단이 스스로 밝은 하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광명한 천사로 받아들일 것인가? 유혹하는 그의 방법대로 교육받고, 그의 정신으로 고무되고, 그의 사업에 적합한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할 것인가? 우리는 그의 부하들의 저서들을 교육상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무신론자의 분명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쳐진 시간과 노력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졌을 것같으면, 오늘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치료, 440)

15. 역사와 신학적 지식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업의 준비로서 역사와 신학의 저서에 해박한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지식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해를 힘들여 연구하는 일은 그들의 활동을 강화시켜 주기는 커녕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주는 경향이 있다. 역사와 신학 지식에 대한 묵직한 책들로 채워져 있는 도서실들을 볼 때, 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돈을 쓰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은 그와 같은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6:35, 51, 47, 63)." (치료, 441)

16. 건전한 내용으로 된 소설

"진리를 가르쳐 주거나 어떤 큰 악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소설들이 있다. 그와 같은 작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것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위험으로 가득찬 일련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들과 정교한 필치로 묘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묘사된 장면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거듭 거듭 살아난다. 그와 같은 독서는 정신을 유용한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활동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흥미를 말살시켜 버린다. 하늘의 사물들이 생각 속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묘사된 불순한 장면에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면 정욕이 일어나고, 마침내 죄를 짓게 된다.

심지어 불순을 시사하지 않고, 훌륭한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진 소설일지라도 해롭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만을 위하여 급하고 피상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조장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일관성 있고 활기찬 사고력(思考力)을 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심령이 의무와 운명에 속한 위대한 문제들을 명상하는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

단순한 쾌락을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일은 인생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취미를 갖지 못하게 한다. 소설의 자극적이고 도취시키는 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불행하고 버려진 많은 가정, 많은 불치의 병, 정신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소설을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치료, 445-446)

과학과 성경

17. 지질학은 무엇이라고 증언하는가?

"땅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고대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 유물들은 모세의 기록 이전 시대에 동물과 식물이 생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주고 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과 동물의 생장이 후대의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었다. 홍수 때에 지구의 표면은 파괴되어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 지각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

에서, 그 시대 이전에 생존하였던 동식물이 화석으로 많이 보존되었다. 광대한 삼림은 홍수 때에 땅 속에 파묻혔다가 후에 석탄으로 변하여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석유의 공급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편리와 안락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무언 중에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교육, 129)

18. 인간의 진화

"창조 사업의 최고의 영광인 사람을 미생이 지구에 관하여 성경은 창조 사업이 완결되었다고 말한다. 물에서 연체 동물, 연체 동물에서 다시 사족 동물로 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구의 진화에 관한 학설과 유사한 것이다." (교육, 129-130)

19. 당신의 창조물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

"이 지구에 관하여 성경은 창조 사업이 완결되었다고 말한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 4:3).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고 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움직이게 한 기계 조직이 그 고유의 힘에 의하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호흡 하나하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한 증거이다. 가장 작은 곤충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130-131)

20.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 (시 11:4)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아시고,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교육, 132)

기억할 말씀: "모든 공과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개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학생들로 하나님의 지식의 샘에서 마시게 하여 저들의 품성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게 하라." (6 증언, 132)

연구할 과제

1. 하나님의 개성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교육, 173)
2. 만약 범신론의 논리적 결론을 따랐다고 하면 어떤 결론이 있었을 것인가? (치료, 391)
3. 건전한 내용의 소설을 읽게 하므로 쓸데없는 소설을 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대 자신의 대답을 말해 보라. (치료, 409)
4.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있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치료, 405; 교육, 346)
5.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역사와 신학적 지식에는 어떤 악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치료, 405-406)
6. 세상에 속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교육 기초, 347, 450; 부모, 306)
7. 어떤 조건하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세속에 속한 교육 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5 증언, 583)

8. 그대는 어떤 족보를 수락하고 있는가? (눅3:38; 교육, 170)
9. 진화론의 가르침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조 상권 36)

제 13 장

나의 몸과 육체 훈련

제94과 건강 원칙

성경절 연구: 시 107:17-21

요점: "건강 개혁 사업을 앞장 세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하면 그것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해로운 음식과 음료를 피하여 절제하는 것은 참된 종교의 열매이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은 모든 해로운 습관과 식욕을 포기할 것이다. 완전한 절제를 통해서 건강을 파괴하는 방종에 대한 열망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9 증언, 113)

예언의 신 연구

식욕의 방종

1. 자극하는 음식

"부절제는 비건강 식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된 방종으로 말미암아 소화 기관이 약화되고, 섭취된 음식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조성되고, 보다 자극적인 음식을 갈망하게 된다. 차, 커피, 육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독물의 영향으로 신경 계통은 흥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동안 정신적으로 활기 있고 상상력이 더욱 생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자극제들이 얼마 동안 이러한 기분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속 그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부당하게 자극을 받은 신경 계통은 현재 필요한 힘을 미래를 위해 저장된 힘에서 빌려 온다. 신경 계통의 이 모든 일시적인 활성화에는 침체가 따른다. 이 흥분제가 일시적으로 신체를 활기 있게 하는 데 비례하여, 자극이 그 힘을 잃은 후에는 흥분된 기관의 힘이 저하될 것이다. 식욕은 기분 좋은 흥분을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경향을 지닌 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훈련되며, 마침내 방종이 습관화되어, 담배, 과실주, 독주 등의 보다 강력한 자극제를 계속적으로 갈급하게 된다. 식욕은 방종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더욱 잦아져서 지배하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신체는 더욱 허약해지고, 부자연스런 자극제가 없이는 그 능력이 더욱 떨어지며, 이러한 자극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증가하여 마침내 의지가 압박을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

운 갈망을 거절할 힘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3 증언, 487-488)

2. 식탁(밥상)에서의 부절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부절제를 개탄하는 많은 어머니들은 그 요인을 발견할 만큼 깊이 살피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식욕을 유발하고 과식을 조장하는 갖가지 음식과, 과도히 조미된 음식을 장만한다. 우리 미국인들의 식탁은 대개 사람을 술고래로 만드는 식탁으로 차려지고 있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욕은 지배적인 원리가 되고 있다. 너무도 흔히 식사 때에, 식욕에 방종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자들은 누구나, 옳지 않은 식사 습관에 젖는 경향을 강화한 것에 비례하여 식욕과 다른 면에 있어서의 정욕의 욕구를 저항할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어머니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잘 계발된 품성을 소유한 자녀들을 사회에 내어 보낼 책임이 있음을 깊이 느껴야 한다. 확고한 원리를 가지고 활동 무대에 오르는 남녀들은 이 타락한 세대의 도덕적 오염에 물들지 않고 설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저들의 황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유용성과 의무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의무이다. 그들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에서 그 자녀들에게 속해 있다. 소중한 시간을 과시하기 위한 의복을 장만하는 일에 허비하지 말아야 하며, 그 자녀들에게 자아 부정과 자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내성 있게 교훈하고 주의하여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공언하는 많은 이들의 식탁이 위장을 자극하고 신체에 발열 상태를 조장하는 다양한 음식으로 날마다 차려지고 있다. 육식이 어떤 가정의 주된 식사이며, 그 결과로 그들의 혈액은 암과 연주창 체액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들의 신체는 그들이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통과 질병이 그들을 덮칠 때에, 그것은 섭리에 의한 고난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부절제는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한다. 식욕의 방종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차와 커피의 사용을 통해서 식욕은 담배를 탐하게 되고, 이것은 또다시 술을 탐하게 한다." (3 증언, 563)

3. 대식가가 되도록 훈련된 아이들

"식욕을 거부하고 그 세력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유혹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본과 자녀들에게 베푸는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을 대식가와 대주가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많다. 자녀들은 흔히 건강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때에 먹는 일에 몰두한다. 유아시절부터 대식가가 되도록 훈련을 받은 자녀들이 많다. 식욕의 방종으로, 그들은 어린 나이에 소화 불량에 걸린다. 자아 방종과 식사에 있어서의 부절제는 그들의 성장과 같이 자라고, 그들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강하게 된다. 부모의 방종으로 정신적 · 육체적 활력은 희생된다.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손해만 주는 어떤 종류의 음식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신체에 부담이 지워짐에 따라 몸도 허약해진다." (3 증언, 489)

4. 식욕과 정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자들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지킬 필요를 느낄 것이다. 지력이 손상되지 않고 분별력이 명료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 사단의 역사와 올무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욕과 정욕은 억제되고, 계발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자에게 주어질 마지막 보상과 승리를 열망하지만, 구주께서 견디신 것처럼 수고와 궁핍과 극기를 기꺼이 견디려 하

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서이다." (3 증언, 491)

5. 위대한 사람들이 방종으로 인하여 실패함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기질에 빠짐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알렉산더와 시이저는 그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다.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 세상에서 소위 위대하다고 한 그들이 쓰러졌다. 하나는 식욕에 빠짐으로 부절제의 희생물이 되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외람됨과 정신나간 야욕으로 무너졌다." (4 증언, 348)

질병과 그 원인

6. 질병과 정의

"더욱 호전되는 유일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의사들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육체적 조직에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치료, 127)

7. 질병은 원인이 없이는 결코 오지 않음

"병은 원인없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 건강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길이 마련되고 질병이 들어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부모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은 없을지라도 건강의 법칙을 범하는 여부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부모들의 그릇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생활을 통하여 그들 자신을 보다 좋은 조건 아래 놓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의하여 건강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이 자연법칙을 어기면,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결과가 나온다. 그리하여 질병이 그들을 엄습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의 참 원인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연법칙을 무시함으로 초래되는 고통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치료, 234)

8. 죄와 질병과의 관계

"죄와 질병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연결이 있다. 어떤 의사도 여기에 예시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한 달 동안 개업할 수는 없다. 그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너무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주의가 그것으로 기울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가 관찰하게 되고 정직하다면 그는 죄와 질병이 상호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사는 민감하게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그가 환자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 그들을 무덤의 가장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므로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면 그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과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습관을 갖도록 그들을 유혹하고자 애쓰는 것이 타락한 원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는 자아를 부정하고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순종할 필요를 그들의 마음에 새겨 줄 수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그는 바른 원칙을 주입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강한 사랑으로 그분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천연의 법칙을

세우셨으나 그 법칙은 전제적으로 강요되지 않는다. 신체적 법이거나 도덕적 법이거나를 막론하고 '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모두 약속을 내포하거나 의미한다. 그것을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의 발걸음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위험과 불행이 된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끌림을 받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어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강압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행위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5 증언, 444-445)

9. 두려운 죄

"건강은 큰 보물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다. 재물, 명예, 혹은 학식을 건강을 상실한 대가로 얻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비싼 대가이다. 만일 건강을 잃는다면, 어떤 것을 달성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남용하는 것은 무서운 죄이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모든 남용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약화시키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패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3 증언, 150)

10. 질병 치료를 위한 놀라운 치료제

"어떤 이들은 허약한 것을 핑계한다. 힘이 있다면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자신을 가둔 채로 지냈고, 자기의 연민에 빠져있으며,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 너무 말을 많이 하며, 그것이 그들의 현대 진리가 되었다. 남들이 더 동정과 조력을 받을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한다. 허약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대여, 치료제가 있다. 벗은 자를 입히며, 쫓겨난 자를 그대의 집으로 들이고,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췰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훌륭한 치료제이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분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2 증언, 29)

질병과 예방

11. 건강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건강원리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때는 없었다. 생활의 안락과 편리에 관하여 그처럼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되 심지어 위생문제와 질병의 치료에서까지도 놀라운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인내력의 감퇴는 놀라울 정도이다. 그것은 동료인간들의 복리에 마음을 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의 인공적(人工的)인 문명은 건전한 원칙을 파괴시키는 악을 조장하고 있다. 습관과 유행은 자연과 싸우고 있다. 사람들이 거듭하고 있는 행동, 그들이 조장하고 있는 방종 등은 육체적 정신적 힘을 계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견딜 수 없는 짐을 인류에게 지우고있다. 부절제와 범죄, 질병과 불행이 도처에 있다." (치료, 125-126)

12. 생명력을 보존해야 함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양(量)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 생명의 기능을 지탱하기에 적합한 기관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 기관들이 모두 함께 조화롭게 활동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명

력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육체의 미묘한 작용을 질서 있게 보호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고, 신경 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을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한 가지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자연은 분명한 저항없이 많은 혹사를 견딘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일어나서 그가 받아온 부당한 취급 때문에 생긴 결과를 제거해 버리고자 결정적 노력을 한다. 그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 때로는 열(熱)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치료, 234-235)

13.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훈에는 건강의 보호가 세심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노예생활에서 형성된 불결하고 불건전한 습관을 가지고 그 생활에서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건강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위생법칙이 강조되었다.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이 엄격히 구별되었다. 전염성 질병 혹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진영에서 격리되었으며, 사람과 의복을 다 같이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진영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레 15:4-12)." (치료, 277-278)

14. 정결

"개인적 정결의 필요성이 가장 인상 깊은 방법으로 가르쳐졌다.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율법의 선포를 듣기 전에, 백성들은 그들의 몸과 의복을 씻도록 요구되었다. 그 지시는 위반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조건으로 강요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한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보다 불결한 것들이 해로운 영향을 적게 미칠 옥외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지냈다. 그러나 그들의 장막 안과 밖에서는 꼭 같이 청결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장막 안이나 주위에 쓰레기를 놓아두도록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신 23:14)." (치료, 279)

15. 마음의 즐거움

"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다(잠 17:22).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 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애의 기조(基調)가 되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연중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 년에

세 차례씩 여행하였다. 장막절 기간의 일 주일동안 초막에서 지나는 일은 옥외에서의 휴식과 사교생활의 기회가 되었다. 그 절기들은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고, 나그네와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친절한 환영으로 더욱 기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신 26:11)." (치료, 281)

16. 건강과 자연계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들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택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왕궁에 두거나 오늘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투쟁하고 있는 인공적 장식과 사치품으로 그들을 둘러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천연계와 밀접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동산에는 품위 있는 관목들과 고운 꽃들이 어디에나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으며, 그 중 많은 나무들은 향긋하고 맛좋은 과일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 나뭇가지들에서는 새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땅의 생물들이 아무런 두려움없이 함께 모여서 놀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흠없는 순결을 간직한 채 에덴동산에서 보고 듣는 것을 즐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창 2:15) 하는 일을 하도록 지정해 주셨다. 매일의 일은 그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부부는 그들의 창조주의 방문을 기쁨으로 환영하였으며, 날이 서늘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당신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치료, 261)

17. 건강과 의복

"건강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기 위하여 신체 각 부분의 필요성이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기후의 특성과 환경과 건강상태와 나이와 직업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의복은 쉽게 어울리고, 혈액의 순환에 방해가 없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충분히 호흡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이음새가 여유있게 됨으로써 손을 들 때는 옷이 자유롭게 따라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치료, 293)

18. 건강과 식생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그 몫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한다." (치료, 295)

19. 건강과 절제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노동에 있어서 절제,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타락한 식욕으로 인하여 생기는 악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 개혁에 관한 빛을 주시는 바, 순결과 성결함을 사랑하는 자들로 저들을 위하여 제공하신 것들을 바르

게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하고, 매일의 생애에서 절제를 실천하므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게 하고자 하심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120)

20. 건강과 신앙(종교)

"이 세상은 거대한 병인의 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건강이요 힘이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마귀 들린 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분에게 고침의 능력을 입기 위하여 온 자들을 그분께서는 아무도 거절하여 돌려 보내지 않으셨다. 그분에게 고침을 받기 위하여 청원을 올리는 자들은 스스로가 질병을 불러 일으켰음을 그분께서 아셨지만 저들을 고쳐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이 이 가련한 영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에 저들은 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병은 물론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 그 복음은 아직도 똑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와 똑 같은 결과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가?" (건강에 관한 권면 28)

기억할 말씀: "식욕을 주장하는 힘(능력)이 수천만의 사람들을 패망하게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데, 만약 저들이 이점에 있어서 승리하였더라면 다른 모든 유혹에 있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을 가졌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 위생 154)

연구할 과제

1. 1867년에 주의 종이 표현한 건강 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증언, 486)
2. 건강 법칙을 어기는 것이 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 보라. (3 증언, 164, 165; 485)
3. 규칙적으로 먹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 (치료, 276)
4. 먹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한가지의 나쁜 것은 무엇인가? (치료, 278)
5. 하루에 두 때만 먹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의 말씀이 있는가? (치료 277, 292)
6.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식욕에 방종이 되지 않는 한계는 무엇인가? (음식, 211)
7. 엘렌 지 화잇이 건강 개혁에 대해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2 증언, 487; 9 증언, 158, 159
8. 세상 끝에 가까이 접근해 가는 자들이 건강 개혁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6 증언, 112)
9. 건강을 얼마나 신성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교육 기초, 146)

제95과 건강 개혁을 하는 이유

성경절 연구: 고전 6:15, 19, 20

요점: "위생 개혁의 중대한 목적은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대 한 도로 계발시키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이생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며, 내세를 위한 준비에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음식, 23)

예언의 신 연구

순종에 관한 문제

1.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더욱 즐길 수 있을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살아 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夭折)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좀더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 16)

2.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임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 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器管)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의 살아 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꼭같이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모든 부주의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행동과 어떠한 혹사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거처인 몸은 가장 놀랍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 어느 한편이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신체 기관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기 쉽다." (음식, 17)

3. 부패된 습관의 노예가 됨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강림 바로 직전의 세상 형편

이 홍수 직전과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며,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현재 존재한다. 세상은 주로 식욕의 방종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려는 기질은 부패된 습관－우리를 운명지워진 소돔의 거민과 더욱 더 같아지게 하는 습관－의 속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나는 지상 거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의아하고 있다. 맹목적인 격정이 이성을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상한 동기가 정욕에 희생된다." (음식, 17－18)

4. 병든 육체 아니면 균형지지 않은 정신(마음)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그리하여 살아 있는 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몸이나 또는 균형지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먹는 일에나 마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부절제로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천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인 이상, 이 법을 주의깊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요구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에 순응할 것이다. 이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죄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5, 19, 20).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마치 그 법을 범해도 아무 벌이 따르지 않는 듯이 자기 몸을 취급하고 있다. 그릇된 식 욕으로 신체의 기관과 기능이 연약해지며, 병들고 불구가 된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그럴 듯한 유혹으로 일으킨 이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그 소유로 사신 인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조물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렇게도 꼴사나운가! 라고 한다.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죄를 지어 자기 길을 부패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음식, 18)

무엇 때문에 건강 개혁에 관한 빛이 주어졌는가?

5. 연속되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당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시므로 죄스러운 방종으로 인하여 지난 세대에 모여들었던 어두움과 캄캄함이 얼마간 사라지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부절제의 결과로 인한 일련의 악이 감소되게 하신다." (음식, 22)

6.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건강 개혁의 빛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비치도록 하셨다. 사단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식욕에 방종하게 하고, 기호를 만족하게 하며, 생각 없는 미련한 것에 그들의 일생을 소모하도록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는 이기적인 향락과 육욕적인 방종의 생애에 속한 매력들을 제시한다. 부절제는 정신과 육체의 힘을 약화시킨다. 여기에 지는 사람은 사단의 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인데, 그는 거기서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마침내 모든 의의 원수의 뜻대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음식, 22－23)

7.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일, 곧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

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하된 식욕의 결과로써 생기는 재난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건강 개혁의 빛을 보내셨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신중히 사용할 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일상 생애에서 절제를 활용함으로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될 수 있게 하셨다." (음식, 23)

8. 건강 원칙(원리)의 중요성

"나는 그 기별의 초창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들이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꼭같이 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을 보았다. 음식물 문제에 관하여 주신 빛을 결코 따른 적이 없는 어떤 이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 아래에서 등불을 취하여 밝고도 명랑한 빛으로 비추게 할 때이다.

건강 생활의 원칙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모든 원칙들은 지금 시험되고 있으며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저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건강 생활의 원칙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적당한 음식물의 결과로 일어나는 불행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저희의 습관을 변경시킬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안 후에, 개혁의 과정이 투쟁과 인내를 대단히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입맛이 일단 형성되면, 그들은 전에 아무 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음식물의 사용이 느리기는 하나 확실하게 소화 불량과 다른 질병들의 기초를 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음식, 23-24)

큰외침을 위해 준비시킴

9. 큰 외침을 위해 준비가 되지 않았음

"나에게 보여주신 건강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며, 팔과 손이 인간의 몸에 관계되듯이 그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위대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았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협력하여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일을 하도록 남겨 놓으셨다.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폭식은 이 시대의 편만한 죄이다. 색욕은 남녀들을 노예로 삼으며, 그들의 지력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도덕적 민감도를 마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고 고상한 진리들이 이해되지 못하게 한다. 저열한 성질이 남녀들을 지배하여 왔다.

승천하기에 알맞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시편 기자와 더불어 '내가 주 앞에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시 139:14)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식욕을 도덕적인 기관들에 예속시켜야 한다. 몸이 마음의 종이 되게 할 것이요, 마음이 몸의 종이 되게 할 것이 아니다." (음식, 32-33)

10. 새롭게 하심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

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케 하기를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라고 요구하신 그 일을 도리어 주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이 일에 무관심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지상의 온유한 자가 숨기움을 받을 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편에서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새롭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임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제거하여 주고 과오들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만일 새롭게 하심에 의존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므로 스스로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가담할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한다면, 그들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새롭게 하심,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성결케 함으. 로 그것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음식, 33)

11. 주저하는 자들에게 하는 호소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망쳐놓았다. 건강 개혁이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의 큰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하였더라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장벽들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큰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 개혁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우리가 그릇되게 먹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경박하게 하고 우리의 재능들을 남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기적인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할 것인가? 우리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생애를 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실천적인 복음이 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비신자들의 발에 거치는 모든 돌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격정을 강화시키는 식욕을 남용하느니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인마다 자기 생애를 남김없이 바쳐서 주님을 섬기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결정적인 개혁을 요구하신다. 만물이 저주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게 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날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들이 건강을 해하는 각종 방종을 끊고 떠날 때, 그들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욱 명료한 식별력을 가질 것이다. 종교적인 경험에 놀라운 변화가 보일 것이다." (음식, 33-34)

12.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몫을 잘 이행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통찰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건강 원칙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방종의 노선을 따를 것인지 입증되고 있다.

아무도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대는 달리 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미래의 불멸의 생애를 위하여 성품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이 책임들을 이해하도록 하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당당하게 짊어지도록 하자." (음식, 34)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

13. 건강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나는 건강 개혁의 주제에 관한 기별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 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가졌던 충성에서 퇴보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그들은 정신과 영혼과 몸의 모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힘을 조금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건강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연구하면, 우리들은 식사에 있어서 단순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 영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끈기 있게 연구해 보자.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천연계의 법칙을 어길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이다." (음식, 36)

14. 저들이 식욕에 방종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

"육식과 차(茶)와 커피를 사용하며 진하면서도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준비하는 일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식물에 대한 식욕에 계속해서 방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정화될 것과,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는 극기가 실천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완전히 한 백성으로 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영혼들의 변화와 성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놀랍고도 틀림없는 기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며, 큰 외침과 함께 전파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별이 세상 끝날까지 중요성을 더해가며 전파된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음식, 36-37)

15. 빛이 있는 동안 빛 안에서 행하라

"믿노라고 하는 어떤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증언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기별로서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종을 정죄하는 부분은 거절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에 반대되게 일하고 있다. 빛이 있을 동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건강 개혁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의 실 생활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있으며, 신자와 비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인상을 끼치고 있는 자들이다.

엄숙한 책임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워져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저희 믿음에 일치되어야 하며 생애가 세련되고 성화되어야 하며, 또한 기별을 마치는 이 시대에 급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을 위하여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에 방종할 시간과 힘이 없다.

다음의 말씀이 지금 진지하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우리 중에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쓸 여유가 있는가?" (음식, 37)

16. 자원하는 순종이 참된 예배이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종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종교이다.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음식, 37)

연합 전선

17. 건강 개혁을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는 건강 개혁을 진척시킬 일을 받았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거 35년 간(1902 년에 기록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서 있으라고 요구하신 그 위치를 떠나지 말 것이다. 그대는 건강 개혁 사업에 반대하는 처지에 스스로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고통을 감소시키며,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불화를 일으키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대가 취하는 태도에 주의하라. 나의 형제여, 그대가 건강 개혁의 원칙을 지킴으로 이르러오는 축복을 그대의 생애와 가정에 가져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주신 빛을 반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건강 개혁에 관한 기별을 주셨다. 이 빛은 30년 동안 그들의 길을 비춰왔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빛을 방해하는 노선을 취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할 수 없으시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건강 개혁의 기별에 반대되게 행할 때에 불쾌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 기별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라고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한 장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의 과반수가, 마치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건강 개혁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의 동역자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원칙을 가르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간주하신다. …

지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교훈과 모본으로써 도덕적인 의무에 무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과 연관을 맺게 되는 것보다 주님의 파수꾼들에게 실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건강 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소홀히 다루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손해가 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빛에 배치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음식, 38)

18. 축복에 채어(걸려) 넘어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 천사는 말했다. 그대는

건강 개혁에 걸려 넘어졌다. 그대에게 그것은 진리에 덧붙인 불필요한 부록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진리의 일부이다. 더욱 가까이 접근해오는, 그러면서도 일찍이 그대에게 부과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많은 시련을 겪게 할 과업이 그대 앞에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 되는 그 축복을 붙잡지 못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주저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손실을 당한다. 그대의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적게 하려고 하늘이 그대의 길에 놓아둔 바로 그 축복에 그대는 걸려 넘어지고 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못마땅한 빛으로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대로 하여금 그대에게 최대의 유익이 될, 그리고 그대의 육체적 ·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건강 개혁과 싸우게 하려고 한다." (음식, 39)

19.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노력하였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몸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등한시 한 결과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적 · 정신적 · 영적 능력을 위축시킴으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일찍 늙어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른 결과이다. 방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벌을 받는다. 심판 때에 우리는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진로(進路)를 소급하여 관찰할 것이므로 우리가 얻었을 뻔 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일 성경을 우리의 상담자로 삼았더라면 형성했을 수도 있었던 고상한 성품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음식, 40)

20.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함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해하는 데 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몸을 합당하게 돌보는 일에 관하여 무지한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비참함과 불구와 질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고하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때에는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고, 죄악으로 땅이 패괴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볼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낮추며 만날 수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찾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에 모순되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 40)

기억할 말씀: "우리가 세상의 급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동안은 돛이나 노가 필요하지 않다. 흐르는 급류를 저항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때에 우리의 일이 시작된다." (6 증언, 129)

연구할 과제

1.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향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무엇인가? (음식, 14)

2.각 사람이 선택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음식, 14-15)
3. 참된 회심의 증거로써 무엇이 주어졌는가? (음식, 19)
4. 몸의 조직들에 대한 법칙에 무지한 결과로 받게 될 형벌들에 대해 토의해 보라. (음식, 19)
5. 부와 학문과 명예를 위해서 때로 어떤 값이 지불되는가? (음식, 20)
6. 고대 유대인들의 성서 봉사에 요구되었던 것 가운데 현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어떤 교훈이 있는가? (음식, 22-23)
7.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어 있는가? (음식, 23)
8.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가? (음식, 26)
9.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음식, 29-30)
10.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제시한 영적 싸움과 그보상에 대해 설명하라. (음식, 30-31)

제96과 이것들이 참된 치료제이다

성경절 연구: 요삼 2; 고전 9:15-17; 10:31

요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같이 요긴하다." (치료, 127)

예언의 신 연구

깨끗한 공기와 햇빛

1.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밤공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밤공기가 건강에 해롭다고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래서 밤공기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하였다. 저들의 자는 방의 문과 창문들을 닫았는데 이는 밤공기는 건강에 해롭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을 밤공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하 이렇게 함으로 저들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차거운 밤이기 때문에 옷을 끼어 입는 것이 필요될는지 모르나 저들의 폐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밤에 신선한 공기를 저들의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다. 거져 주시는 하늘의 신선한 공기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축복 가운데 하나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59)

2. 신선한 공기가 주는 영향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신체 조직 전반에 걸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공기는 신체를 신선하게 하고, 굳세고도 건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정신에 미쳐 어느 정도 침착성과 평온함을 끼쳐 준다. 그것은 식욕을 돋구어 주며 음식의 소화를 더욱 완전하게 하여 주고 깊은 단잠을 자게 한다." (음식, 104)

3. 가정에 있어서의 햇빛

"그대의 가정을 스윗홈(달콤한 사랑의 가정), 매력있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면 공기와 햇빛으로 밝게 하라. 묵직한 커튼을 걷어 치우라. 창문 가리개를 없애 버려라. 풍성한 햇빛을 만끽하라. 비록 그대의 가정에 값비싼 양탄자의 색깔이 아름답다고 하여도 그렇게 하라. 햇빛이 혹 그대의 집에 깔아 놓은 양탄자(카펫)의 새깔을 바라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자녀들의 볼에 상기한 건강미를 줄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진지함과 사랑하는 마음, 소박한 가정을 가졌다고 하면 공기와 햇빛으로 밝고 아름답게 하라. 그리하면 이기심 없는 환영의 즐거움이 그대의 가정과 하늘 아래서 여행하고 있는 피곤한 여행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이기심 없는 환영의 즐거움이란 햇빛과 공기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말함-역자)." (건강에 관한 권면 196)

절제, 휴식 그리고 운동

4. 절제와 능률

"우리의 처음 조상들이 식욕에 방종하므로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을 확고하게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음식물에 절제하고, 모든 정욕을 조절하는 것은 지성을 보존하게 하고, 정신적 도적적 힘을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저들의 성질을 높은 힘의 지배 아래 두게 하고,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인식하게 하며,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분별하게 해 준다. 하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심으로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셔서 치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573)

5. 치료제로서의 휴식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끊임없는 수고와 유폐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신경과민이 된 사람들은 단순하게,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시골을 찾아가서 천연계의 사물과 밀접히 교제하므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들판과 숲속을 배회하면서 꽃들을 꺾고,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회복에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치료, 236-237)

6. 운동이 주는 유익

"활동은 우리의 생존 법칙이다. 신체의 모든 기관은 제각기 맡은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의 수행에 따라 각 기관의 발달과 힘이 좌우된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힘과 활력이 생기지마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와 죽음으로 기울어진다. 한 쪽 팔을 몇주일 동안만이라도 묶어 두었다가 붕대를 풀어 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 팔이 같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팔보다 약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활동은 모든 근육조직에 꼭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 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피부 역시 무활동 상태가 된다. 만일 활발한 운동으로 순환 작용이 촉진되어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폐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흡수하게 되었을 것같으면 제거되었을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의 상태는 배설기관에 이중(二重)의 부담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이 생기게 된다." (치료, 237-238)

적당한 음식

7. 음식물의 선택

"그러나 건전한 음식물 자체가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필요에 꼭 같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선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식생활은 계절과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적합해야 한다. 어떤 계절이나 어떤 기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음식물이 다른 계절이나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각기 다른 음식물들이 있다. 때때로 심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

는 음식물이 앉아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심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경험과 건전한 판단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거기서 선택해야 한다." (치료, 296-297)

8. 음식물의 다양성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 놓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 끼에 과일을 먹을 것같으면 다른 끼에는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식사는 늘 변경시켜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 같은 음식이 끼마다 또는 날마다 식탁 위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에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된다." (치료, 299-300)

9. 음식물의 조리(준비)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음식의 질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먹는 음식이 맛이 없을 것같으면, 신체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식물은 주의 깊게 선택되고 지혜롭고 기술적으로 조리되어야 한다.

극상품 흰 밀가루는 빵을 만드는데는 최선의 것이 아니다. 그런 밀가루를 사용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하다. 정제한 밀가루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것은 흔히 변비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건강치 못한 신체 조건의 원인이 된다.

빵을 만드는데 있어서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해로우므로 필요하지 않다. 소다는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때로는 신체의 온 기관을 중독시킨다. 많은 주부들은 소다가 없으면 좋은 빵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만일 그들이 더 좋은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같으면 그들이 만드는 빵은 더욱 건강에 좋고, 정상적인 구미에 보다 더 맞게 될 것이다.

부풀리거나 이스트를 넣은 빵을 만들 때에 물대신 우유를 사용하면 비용이 더 들고 우유는 빵을 건강에 좋지 않게 만든다. 우유로 만든 빵은 물로 만든 빵만큼 구운 후에 오랫 동안 맛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에 들어가면 쉽게 발효된다.

빵은 가볍고 맛이 좋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신 맛이 있어서는 안된다. 빵 덩어리들은 작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구워 누룩균을 죽여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부풀린 빵이 금방 구워내어 뜨거울 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빵은 식탁에 절대로 올려 놓지 말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누룩없는 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통밀가루로 만들어서 화력이 좋은 오븐에 갓 구워낸 로울 빵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다.

죽이나 미음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곡식은 여러 시간 동안 끓여야 한다. 그러나 연한 음식이나 유동성(流動性)식물은 철저히 씹어야 하는 마른 음식보다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즈위백 혹은 두 번 구운 빵은 가장 소화가 잘 되고, 가장 맛이 좋은 음식 중 하나이다. 부풀린 보통 빵을 조각 조각 썰어서 오븐에서 말리되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말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전체를 약간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이 빵은 건조한 곳에서 다른 보통 빵보다 훨씬 오랫 동안 저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하기 전에 다시 데우면 처음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된다." (치료, 300-301)

10. 요리는 미천한(보잘것없는) 과학이 아니다

"요리하는 자들이 건강 식물의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많은 영혼들이 좋지 못한 요리법의 결과로 잃어버림을 당한다. 좋은 빵을 만드는데는 생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마는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 참으로 훌륭한 요리사는 드물다. 젊은 부인들은 요리나 그 밖의 가사를 하는 것을 미천한 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처녀들은 결혼하여 가족을 돌보게 될 때에 주부와 어머니에게 속한 의식에 대하여 별반 생각이 없다.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는 모든 부인들이 배워야 할 과학인 동시에 보다 더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음식을 맛있게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영양있게 만드는데는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요리하는 자들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음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요, 보다 더 맛이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가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건강에 좋은 요리법의 기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여인들은 자기 가족의 건강에 대단히 필요한 것을 배울 결심을 해야 한다. 여러 곳에 위생적인 요리학교가 이 방면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인들은 어떠한 좋은 요리사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 주방 기술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진보를 위한 그의 노력에 꾸준히 인내할 것이다." (치료, 302-303)

11. 그릇된 식사 조건

"위는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가 병들면 약화된 소화기관을 돕기 위하여, 뇌에서 정신력을 불러낸다. 이러한 요구를 자주 받게 되면, 뇌는 충혈이 된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육체적 운동이 부족할 때에는, 평범한 음식물이라도 적게 먹어야 한다. 식사시간에는 근심과 걱정스러운 생각을 던져 버리고, 바쁘게 서둘지 말고, 도리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정신을 충만케 하여, 천천히 즐겁게 먹으라.

육식이나 그 밖에 나쁘고 유해한 식물을 먹지 않기로 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음식이 단순하고 건강에 좋으므로 제한 없이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식과 때로는 폭식에까지 이른다. 이것은 잘못이다. 소화기관은 그 계통의 일을 어렵게 만들 음식의 질(質)이나 양(量)으로 인하여 과로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치료, 306)

12. 과식

"음식을 차례로 식탁에 내어 놓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아닐지도 모르는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차례의 음식이 올라오면 그는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한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조금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그 유혹하는 후식을 먹는다. 만일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의도한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식탁에 올려 놓는다면 식사하는 사람은 최선껏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어떤 때는 과식의 결과를 즉시 느낀다. 다른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소화기관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체력의 기초는 서서히 약화된다." (치료, 306)

13. 안식일에 먹는 음식

"안식일을 위하여 보통 날보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말 것이다. 도리어 음식물을 더욱 간단하고 적게 먹어서 영적 사물을 잘 이해하는데 정신이 맑고 힘있게 할 것이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는 것이다. 부적당한 식사로 말미암아 머리가 혼란되어 있는 연고로 가장 귀중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거룩한 기회에 유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부적합한 자가 되게 한다.

안식일에 요리를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 추운 계절에는 전날에 준비해 둔 음식을 데워야 한다. 그리고 음식은 단순하고 맛이 있고, 먹음직해야 한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식일에 별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곧 가족들이 매일 먹지 않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치료, 307-308)

14. 음식물 개혁

"나쁜 식사 습관에 빠졌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척해야 한다. 위를 과도히 사용한 결과로 소화불량증이 생겼을 때에는 모든 과중한 부담이 되는 짐을 제거함으로 남아 있는 활력을 보존하는데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위를 오랫 동안 학대하면 다시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식사습관이, 위가 더 이상 쇠약하여짐을 면하고 많이 회복되게 할 것이다. 각개(各個)의 경우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사에 관한 바른 원칙에 주의하면 크게 개혁이 생길 것이요, 요리사가 끼니마다 식욕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치료, 308)

물의 사용

15.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료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나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된다.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 순환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런 방법 중 하나이다.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强壯劑)이다. 온수욕은 털구멍을 열어 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크다.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 순환 작용을 고르게 해 준다." (치료, 237)

16. 수치료법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물을 적당하게 사용함으로 얻는 유익한 효과를 경험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수치료법(水治療法)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 진가를 인정해야 할 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치료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모든 사람은 간단한 가정 치료법에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건강할 때나 병든 때를 물론하고 가족들을 간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치료, 237)

17.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

"대기 가운데 사는 생애는 몸과 마음에 좋다. 그것(공기)은 건강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이다. 깨끗한 공기, 좋은 물, 햇빛, 아름다운 자연 환경 – 이런 것들은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자연 치료 요소들이다. 병든 자에게는 햇볕을 받으면서 또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것은 황금이나 은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166:3)

거룩한 능력을 신뢰함

18. 한결 같은 평안

"한결같은 평안,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그 근원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 14:27). 이 평안은 그분께서 당신 자신과 상관없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 평안를 받을 수 있다." (치료, 247)

19. 우리가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도와 주실 것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에 대비하여 도움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 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무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치료, 248)

20. 우리를 동정하는 친구를 소유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다(사 27:5).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 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은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相談者)가 있다. 우리의 슬픔과 사별(死別)의 고통과 외로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깊은 친구가 있다." (치료, 248-249)

기억할 말씀: "하늘은 이 지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의 백성들이 온유와 자비하심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자기들 위에 있는 주님의 깃발은 사랑이며, 사랑의 열매는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한 지상 천국을 만들 것이다." (7 증언, 131)

연구할 과제

1. 잠자는 방에 빛과 공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해 토의해 보라. (건강에 관한 권면 57-58)
2.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양 이외에 어떤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9증언, 166, 161)
3. 인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 (치료, 269)
4.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신 음식을 취하면 몸과 마음에 무엇을 공급해 줄 것인가? (치료, 269)
5. 견과류와 올리브(감람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치료, 272)
6. 음식을 한꺼번에 식탁에 올려 놓지 않고 차례대로 올려 놓아 먹게 하는 것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반대를 제시하였는가? (치료, 279)
7. 때때로 과식으로 인한 기진맥진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치료, 279)
8.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나의 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치료, 283)
9. 개혁자들이 어떤 잘못을 범해 왔는가? (치료, 290-291)
10. 건강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어떤 해로운 영향이 발생되는가? (치료, 294-295)

제97과 좋은 음식과 음료

성경절 연구: 시 78:17, 18; 106:13-15; 고전 10:6, 11, 12

요점: "각종 양념과 동물성 기름을 쓰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과실, 곡식, 채속들은 우유나 크림을 곁들이면 가장 건강에 좋은 식물이 된다." (음식, 372)

예언의 신 연구

과실, 씨리얼(곡식), 채소

1. 신선한 과실 속에 있는 축복

"나는 아담이 에덴의 가정을 잃을 때, 주님께서 과실의 공급을 끊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한다.

주님께서는 연중 대부분 신선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과실을 가지는 축복에 대하여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나무에서 금방 따낸 신선한 과실에 좀더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축복이 더욱 클 것이다.

삶는 요리를 보다 적게 하고 천연 그대로의 과실을 좀더 많이 먹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신선한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딸기,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각종 다른 과실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깡통 대신에 유리병을 사용하여 통조림을 하므로 겨울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두도록 하라." (음식, 309)

2. 알곡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었음

"지혜롭게 경영하면 우리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 쌀, 밀, 옥수수, 귀리와 또한 콩, 팥, 편두 등 여러가지 식품들을 해외 어디든지 보낸다. 이러한 식물에다 본고장에서 나는 과일과 수입되는 과일과 각 지방에서 재배되는 각종 채소를 넣으면 육식을 하지 않고도 완전한 식사가 되는 음식물을 얻을 수 있다." (음식, 314)

3. 영양, 인내력과 지성의 힘을 더해 주는 음식

"각종 양념과 동물성 기름을 쓰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과실, 곡식, 채소들은 우유나 크림을 곁들이면 가장 건강에 좋은 식물이 된다. 그것들은 몸에 자양분을 공급하며, 자극성 음식이 만들지 못하는 인내력과 지성의 활력을 준다." (음식, 321)

후식과 양념

4.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양의 설탕이 사용되었음

"일반적으로 음식에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과자, 단 푸딩 (밀가루에 과일. 우유. 계란. 설탕. 향료 등을 넣고 구운 후식용 과자), 페이스트리(가루 반죽으로 만든 과자의 일종), 젤리, 쨈들은 소화 불량의 주 원인이 된다. 우유와 계란, 설탕

이 주요 성분인 카스테라와 푸딩은 특히 해롭다.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유와 다량의 설탕을 옥수수 죽에다 넣어 먹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건강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탕과 우유를 섞어 먹으면 위에서 발효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몸에 해롭다." (음식, 113)

5. 양념

"오늘날과 같이 조급한 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다.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기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알콜 중독자의 위장이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알콜 음료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함으로 일어난다. 오래 가지 않아서 보통 음식은 그 같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신체는 더욱 자극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느낀다." (음식, 339)

6. 소다, 소금, 피클(절여서 만든 음식)

"빵을 만드는 데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해롭고 필요하지 않다. 소다는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때로는 전신을 중독시킨다. 많은 가정 주부들은 소다가 없이는 좋은 빵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잘못이다. 만일 더 좋은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 같으면 그들의 빵은 더욱 건강에 좋고 정상적인 구미에 맞게 될 것이다.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로 부풀린 핫 비스켓은 우리 식탁 위에 절대로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합성물들은 위장으로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다. 어떤 종류든지 부풀린 뜨거운 빵은 소화하기 어렵다." (음식, 342-343)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피클과 양념한 음식을 피하라.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으라. 그러면 식사 시간에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크게 사라질 것이다.

나는 약간의 소금을 사용함으로 언제나 소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그것은 해가 되는 대신에 피를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나는 그 지시를 그대에게 전할 따름이다." (음식, 344)

지방성

7. 식사 개혁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라

"식사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유나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할 방법을 배우도록 하라. 사람들 중에 악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동물들에게 병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란과 우유와 크림 또는 버터를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타락한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온 동물계가 땅을 저주하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는 가깝다.

올리브를 매끼마다 먹도록 준비할 수 있다면 훌륭한 결과가 따른다. 버터를 사용함으로 얻는 유익은 적당하게 준비한 올리브를 먹음으로 얻을 수 있다. 올리브 기름은 변비증을 완화시키며 또한 폐결핵과 감염을 받아 염증을 일으킨 위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약보다도 좋다. 음식으로써 그것은 동물에서 얻는 어떤 기름보다도 더욱 좋다." (음식, 349)

8. 우유, 계란, 버터

"나는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며 35년 전에 나에게 주어진 빛을 아직도 따른다. 나

는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로서는 버터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깨끗한 버터를 구할 수 없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마리의 좋은 젖소, 저어지 하나와 홀스타인 하나가 있다. 우리는 크림을 사용하는데 모두들 이것으로 만족해 한다." (음식, 351)

"버터로 인한 질병의 위험과 어린 아이들이 계란을 마음대로 먹는 해로움에 관하여 경고가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잘 사육하고 합당한 사료를 먹인 닭이 낳은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말 것이다. 계란은 어떤 독소를 중화시키는 치료제가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음식, 207)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우유와 크림, 계란과 같은 식품 중에 어떤 것들은 버릴 수 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미리 극단적인 제한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환경이 그것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음식, 208)

9. 견과류, 견과류로 만든 음식, 치즈

"견과와 견과 식품들이 육식을 대용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견과에다 곡식과 과실과 어떤 채근(採根)들을 조합하면, 건강에 좋고 자양이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견과의 분량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견과 식물을 사용하여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주의를 엄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게 둬 것이다." (음식, 363-364)

육식(지방질 계속)

10. 반역과 그 징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대군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계속 먹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질된 식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지혜로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고기를 대단히 갈망하였다. …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인 사단은 그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한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과실을 먹게 함으로 그에게 성공적인 실험을 한 때로부터 식욕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왔다. 사단은 자신의 유혹물을 가지고 먼저 섞인 무리, 즉 믿는 애굽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분기시켜 선동적인 불평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질된 식욕은 더 다양한 음식, 특히 고기를 갈망하였다.

이 불평은 오래지 않아 거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의 심판을 자초함으로 하늘의 번개로 대부분의 범죄자를 소멸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겸비하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불평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 문간에서 울며 가족 전부가 불평하는 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그는 불쾌하였다. 모세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항적인 정신과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기신 지위, 즉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양육하는 아버지의 입장을 주님 앞에 제시하였다. …

주님께서는 모세가 백성 중의 장로들로 알고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그 앞에 모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들은 연장자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엄과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이 있으며, 재판관이나 유사들이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 '칠십 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민 11:16, 17).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

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이십 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 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민 11:18-20).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 11:21-23). …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 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들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민 11:31, 32).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민 11:33).

이 경우에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최선이 아닌 것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싶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으로 판명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데 순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세와 주님을 대적하여 선동적인 불평을 하기에 전념하였다. 그들의 타락한 식욕이 그들을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결과를 당하게 하셨다. 심한 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불평하는 데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갈망하였던 고기를 맛보자마자 죽임을 당하였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선별하여 주신 음식을 감사히 받고 아무 꺼리낌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지 않았을 것이며 반역적인 불평 때문에 그들 중의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식, 375-377)

11. 동물의 고통과 그 영향

"흔히 몹시 병들어서 주인이 더 오래 기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동물들이 시장에 끌려나와 식용으로 매매된다. 그리고 매매하기 위하여 살찌게 하는 어떤 과정이 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일광과 깨끗한 공기를 차단한 가운데서 외양간의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썩은 식물로 살찌게 하므로 온몸이 곧 불결한 물질로 감염된다.

흔히 가축들은 먼 거리에 수송되어 심한 고생을 겪고서 시장에 도착된다. 푸른 초장(草場)을 떠나서 덥고 먼지나고 괴로운 먼길을 걷고 혹은 더러운 짐차 속에 가득 실려 열이 나고 기진하며 흔히 여러 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지낸다. 이 불쌍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그들의 사체를 먹이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질병으로 죽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기를 먹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세상은 보다 더 현명해지는 것같지 않다. 흔히는 동물들을 도살할 목적으로 아주 먼 거리로 운송해다가 잡는다. 그들의 피는 격양되어졌다. 살이 부어 있고 건전한 운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먼 여행을 해야 할 때는 지나치게 먹이고 기진하게 된다. 그러한 상태로 도살되어 시장에 나간다. 그들의 피는 상당히 감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

는 사람들은 독을 먹는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심한 고통으로 침해를 받고 열병, 콜레라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병으로 죽는다. 시판되는 아주 많은 동물들은, 파는 사람들에 의하여 병들었다고 판명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 동물들을 사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언제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나 육식하는 사람 들은 자기들이 병든 동물들을 먹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음식, 385-386)

12. 그들의 고기는 독약이다

"도살을 위하여 끌려나오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같이 보이며, 몹시 사나워져서 글자 그대로 미친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 도살되어, 그 고기가 시장에 팔리기 위해 준비된다. 그들의 고기는 독약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경련과, 진통, 졸도, 급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을 고기에 돌리지 않는다.

어떤 동물들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무자비한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문을 당하며, 극도로 고통스러운 많은 시간을 견딘 후에 도살당한다. 심지어 돼지가 역병(疫病)에 걸려 있는 동안에라도 팔리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중독된 고기가 전염병을 퍼뜨리며, 많은 사망자가 생긴다." (음식, 386)

13. 병에 걸리는 확률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세상의 의사들은 인간 가족 중에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기인함을 안다.

동물들이 병들어 있다.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어 말라리아 유행에 접하게 되면, 보다 예민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인다. 또한 우리가 유행성 및 전염성 질병에 접하게 되면, 조직은 그 질병을 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고기는 피의 질을 저하시킨다. 양념을 쳐서 요리한 고기와, 또한 그것을 진하고 맛좋은 케이크와 파이와 더불어 먹으면, 그대는 나쁜 질의 피를 가질 것이다. 신체는 이러한 유의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진다. 절대로 어느 누구의 위장에도 들어 있지 않아야 할 민스 파이와 (파이 속에 고기를 다져 넣은 것) 피클(신 오이지 류)은 좋지 않은 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적당한 방법으로 요리한, 질이 좋지 아니한 음식과, 불충분한 양의 음식은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다. 육류와 진하고 맛좋은 음식과, 빈약한 식사는 같은 결과를 자아낸다." (음식, 386-387)

14. 암, 폐결핵, 종양의 원인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된다.

육식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이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면 그 대답은 아니오, 결코 아니오라는 것이다. 건강 개혁 기관은 이 문제를 교육시켜야 한다. 인간의 신체 기관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들에게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마땅히 동물계에 질병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검사하는 사람의 증언은 질병이 없는 동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각종 질병들-암, 종양, 연주창(連珠瘡), 폐결핵,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육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이 동물이 살아 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서리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결핵 병균과 암종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기타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전염된다." (음식, 388)

15. 특별히 돼지는 정죄됨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빛과 지식을 주셨다. 그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으로 믿는다고 하며 식욕을 부인하도록 그대를 가르치고 있음을 공언해 왔다. 그대는 돼지고기의 사용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권위를 보이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해로울 것이기 때문에 주신 그분의 명시된 명령과 반대되는 것을 안다. 돼지고기의 사용은 피를 불결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연주창(連珠瘡)과 기타 종양들이 신체를 부패케 하고 전신의 기관에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섬세하고 민감한 뇌신경들이 약화되고 아주 흐릿하게 되어 거룩한 사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통 사물과 같은 낮은 수준에 놓을 것이다." (음식, 392)

16. 동물성 지방질과 피

"한 가족으로서 그대는 질병을 면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명백하게 금하신 동물의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 3:17).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 7:26, 27)." (음식, 393)

17. 물고기는 어떤가?

"여러 곳의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汚物)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별히 물고기가 대도시의 더러운 하수(下水)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하수 중의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고기가 먼 강물로 떠나가서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곳에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고기가 음식에 사용될 때에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 (음식, 394)

음료

18. 물 사용의 바른 방법과 그릇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물이 차가우면 찰수록 위장에 손상이 크다. 얼음물 또는 찬 레몬수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위장을 충분히 따뜻하게 열을 가하기까지 소화 작용을 정지시킬 것이다. 뜨거운 음료들은 쇠약하게 하며 그외에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의 노예들이 된다.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음료도 식사와 함께 필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침이 음식과 섞이도록 천천히 먹으라.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반드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피클병을 버려라. 매운 양념을 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식사와 함께 과실을 먹으라. 그러면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갈증을 해소시킬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식사하기 얼마 전이나 식후 얼마 있다가

마시는 깨끗한 물이, 몸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차나 커피나 맥주나 포도주 또는 어떤 알콜성 음료도 절대로 마시지 말라.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이다." (음식, 420)

19. 차와 커피의 대용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차나 커피를 차려내지 말 것이다. 건강을 파괴하는 이런 음식들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잘 만든 곡류 캐러멜을 차려낼 것이다.

어떤 사정으로 사람들은 세번째 식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먹을 경우에는 아주 가볍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크래커—영국의 비스켓—또는 즈위백, 그리고 과실 혹은 곡류로 된 커피들은 저녁 식사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 (음식, 431-432)

20. 과일 주스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으로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호프(맥주 원료)를 재배하며 시장에 판매할 포도주나 사이다 제조에 종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선한 용도로 사용하여 일종의 축복임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그릇된 용도로 사용하여 유혹과 저주를 입증할 수도 있다. 사과즙과 포도즙은 신선할 때에 통조림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장기간 맛좋게 보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면 그것들은 이성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 (음식, 432-433)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은 건강에 좋은 일종의 음료이다. 그러나 현재 아주 흔히 마시는 많은 알콜 음료들은 죽음을 주는 음료들이다. 그것들을 마시는 사람들은 흔히 미치게 되며 자기들의 이성을 빼앗긴다. 그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폭행의 죄를 범하며 흔히는 살인 죄를 범한다.

과실을 그대의 식탁에 차려놓는 식품으로 삼으라. 그리고 그것이 메뉴(食單)가 되게 할 것이다. 빵에 곁들여 먹게 되는 과일 쥬스를 아주 즐기게 될 것이다. 잘 익은 썩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과실은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음식, 436-437)

기억할 말씀: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 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날 것이다." (음식, 443)

연구할 과제

1. 육류(육식)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 또는 육체적으로 해로운 일인가? (음식, 444)
2.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에 대해 토의해 보라. (음식, 208:1)
3. 모세의 율법이 폐한 지금에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은 일인가? (음식, 456; 사 66:15-17절을 설명하라.)
4.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은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라. (음식, 455-456, 457)
5. 다음의 용어들을 정의하라. (사전을 찾아 보라.)

Grease, Parasite, Scavenger, Trichina. (음식, 410페이지 을 참고할 것)
6. 때때로 건강 개혁자들이 건강 개혁을 통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음식, 465)
7. 육류를 끊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이 주어졌는가? (음식, 463-464)
8. 특별한 경우, 또는 위급한 때의 경우에 대해 토의해 보라. (음식, 459, 541; 9 증언, 163)
9. 육식과 입출교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음식, 468, 472)
10. 건강 법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음식, 468, 469, 470-473)

제98과 내가 입는 옷- 장식

성경절 연구: 벧전 3:3-5; 딤전 2:9, 10

요점: "복장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판단된다. 세련된 취미와 교양이 넘치는 지성은 단순하고 적합한 복장을 선택하는 데서 나타난다. 청초하고 질소한 의복이 겸손한 태도와 연합되면, 젊은 여성을 품위 있는 분위기로 두를 것이요, 그 분위기는 허다한 위험에서 그를 지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248)

예언의 신 연구

품성 건설을 위한 요소들

1. 외부적 단장에만 있는 매력

"많은 사람들은 잘 생긴 용모와 화려한 의복만 있으면 능히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단지 외적인 치장만으로 형성된 매력은 천박하고 변하기가 쉽다. 이런 것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단장이야말로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다. 그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3, 4)고 말씀하신다." (청년, 345)

2.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자들

"청년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는데 사용되는 시간의 절반을 정신적 수양 곧 내면적 단장에 바친다면 그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나겠는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그들이 입는 의복에 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밝히 말씀하신 이 명령의 요구에 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의복을 장식하는데 지출되는 돈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며 그들의 머리에 유용한 지식을 쌓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신망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들은 그들을 무한한 대가를 주고 사신 예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청년, 345-346)

3. 우리가 어떤 표식을 달고 다니는지 주의하여야 함

"우리의 외모는 때때로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나는 그대들이 귀한 자녀들로서 예수를 따르며, 모든 일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대들이 열심으로 속사람의 단장을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구주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날마다 예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아를 이길 수가 있다. 교만과 과시욕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에서 사라질 것이다. 온유한 마음과 간소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청년, 346-347)

4. 증인되는 것

"악의 모양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대는 이보다 더 전진하여, '선행을 배우'(사 1:17)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대들의 날마다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주를 따르는 자들은 산 편지가 되어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고후 3:2)가 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좋은 품성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노력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바라는 그대들의 소원은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企圖)와 견인 불발의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진보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면 마침내는 꼭대기에 우뚝 선 자신 곧 그대들을 사랑하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청년, 348)

5.두 무리가 서로 비교됨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표현하셨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감화가 없다면 세상은 그 자체의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무리들에 대한 묘사를 보라. 그들은 의복과 처신을 함부로 하고, 영업상 거래에 있어서도 그들의 의복처럼 셈이 흐리고, 무뚝뚝하고 무례하고 행동이 거칠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지 못한 특성들을 진정한 겸손과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성인 것처럼 오인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다면 그들을 가리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라.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미암아 격상된다. 그들은 비록 스스로 낮추어 어리석게 아첨하는 것을 죄라고 믿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또 인자하다. 그들의 말은 진실되고 참되다. 그들은 형제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하다. 의복에 있어서 그들은 사치와 자랑을 피한다. 그러나 그들의 의복은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담하여, 그 사람을 질서 있고 세련되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거룩한 안식일과 하나님 경배에 대하여 신성한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입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이다." (청년, 349)

적당한 의복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

6. 아담한 의복

"성경은 의복에 있어 아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딤전 2:9). 이 말씀은 의복의 사치와 화려한 빛깔과 지나친 장식을 금한다. 입는 사람에게 주의가 끌리거나 감탄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양을 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아담한 의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청년, 351)

7. 경제적인 의복

"우리의 의복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딤전 2:9) 만든 것이 아닌 비싸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돈은 자랑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을 때 돈은 주린 사람을 위한 식물이 되고 벗은 사람을 위한 의복이 된다. 눌린 자에게 방어가 되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는 수단이 되며 불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 그대들은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던 돈을 이제부터는 지혜 있게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여 보라.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자신을 부인하신 그분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라.

소위 그리스도계라고 일컫는 사회에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기에 충

분한 돈을 보석들과 필요치도 않은 값진 의복을 사는데 소비하고 있다. 유행과 자랑이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재정을 흡수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 (청년, 351-352)

8. 의복의 품질과 취미

"그러나 우리들의 의복은 아담하고 단순하면서도 품질이 좋고 색깔이 어울리며 일하기에 적합한 의복이어야 한다. 화려한 것보다 질긴 감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복은 보온과 몸을 적당히 보호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잠언서는 지혜 있는 여인에 대하여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잠 31:21) 않는다고 말하였다." (청년, 351-352)

9. 건강과 정결, 품위와 자연미가 있는 의복

"우리들의 의복은 청결하여야 한다. 의복이 청결하지 못하면 건강에 좋은 의복이 아니며 그런 옷은 몸과 영혼을 더럽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6, 17).

모든 점에 있어서 의복은 건강을 위주로 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가 '강건하기를'(요삼 2) 원하시는데 영혼과 육신이 다 같이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들은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건전한 영혼과 육체는 다 같이 건강에 좋은 의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의복은 품위와 아름다움과 알맞는 자연적인 단순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교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으며 의복의 품위와 자연미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를 가리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9)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천연계의 사물을 이용하여 천국에서 가치 있게 평가하는 아름다움을 예시하셨는데 아담하고 단순하며 정결하고 어울리는 옷차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청년, 352)

10. 의복이 미치는 감화력(영향력)

"우리는 단정한 의복을 폄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른 취향은 멸시받거나 정죄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실생활에 나타날 때에 간소한 의복을 입고 선행에 열중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정하고 청결한 의복에 대한 기호를 상실할 때 사실상 진리를 떠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들을 결코 타락하게 하지 않고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아무렇게나 옷입고 거칠고 무뚝뚝한 태도를 보일 때 그들의 감화력은 진리를 손상시킨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고 말하였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이 날마다 세상에 끼쳐주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

간소한 의복은 현명한 여인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입은 의복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다. 현숙하고 경건한 여인은 검소한 옷차림을 할 것이다. 고상한 취미와 교양 있는 마음이 단순하고 알맞는 의복을 선택하는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유행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젊은 여인은 사회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의복과 품행에 있어서 단순하고 가식이 없는 여인은, 참된 여인의 특징이 도덕적 가치에 있음을 이해하는 여인임을 나타낸다. 단순한 의복은 참으로 매력 있고, 참으로 흥미 있는 것으로써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비교될 수 있다." (청년, 353)

단순한 의복

11. 이와 같은 원칙을 무시한 결과

"인간적 추론은 언제나 단순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회피하고 제쳐놓으려고 노력해 왔다. 각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극기와 겸손을 요구하고 말과 행실과 의복에 있어서 겸양과 단순성을 권하는 모든 교훈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었다. 즉 복음의 교훈을 떠나는 것은 유행과 관습과 세상의 원리를 채택하도록 이끈다. 죽은 형식주의가 산 경건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무리들에게서 떠나 성경 말씀의 교훈에 즐겨 순종하는 좀더 겸허한 신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본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세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로 다른 교파들이 줄을 이어 일어났으나 단순성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초창기의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여 버렸다." (청년, 354)

12.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어 구별하기가 어려움

"일찍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적이 있는 자가 어찌 부박(浮薄)한 유행에 만족할 수 있을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처럼 의복에 대한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은 심히 아프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공언하지만 불신자와 거의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들은 신앙 생애를 즐기지 않는다. 그들의 시간과 재물은 멋있는 의복을 입는다는 한 가지 목적에 적용된다." (청년, 355)

13. 세상에서 반짝하는 유행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죄악이 교회 내에 차츰 자리를 굳히는 것을 본다. 이 문제에 관하여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일까? 많은 신도들이 명백히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유행의 지시에 복종할 때 교회가 마땅히 끼쳐야 할 감화를 끼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어찌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의 교훈을 저버리는데도 우리는 잠잠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당혹감을 안겨준다. 나의 그리스도인 자매들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성해 보지 않으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 외모를 가꾸는데 허비된 시간은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불필요한 장식을 위하여 낭비된 백해 무익한 시간을 바른 원칙과 건전한 학문을 얻는데 바친다면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젊은 여인들이 사실에 있어서 주의 품성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이제까지 껍데기를 핥는데 만족하여 왔다. 반짝이는 금박 비단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재산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인다. 겉에 입는 의복을 영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용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색과 연구로 말미암아 계발될 수도 있는 모든 정신적 능력이 잠자는 상태로 묶여 있고 애정은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청년, 355-356)

14. 속 사람을 단장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속사람의 단장 곧 하나님께서 큰 가치를 부여하신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을 얻기를 구하려는가, 아니면 짧은 은혜의 시기를 허식을 위한 쓸데없는 노력에 낭비하려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가치 있고 행복한 생애 곧 세상에 축복이 되고 창조주께 영광이 되는 삶의 원동력인 지적 · 도덕적 힘을 축

적하면서 끊임없이 정신과 마음을 수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청년, 356-357)

15. 유행으로 인하여 심령이 주리고 위축되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 시대는 쾌락에 대한 열망이 유례 없이 크다. 낭비와 무모한 사치가 각처에서 성행되고 있다. 군중은 오락을 열망한다. 명상의 습관에 익숙치 않고 연구의 훈련을 받지 못한 까닭에 마음은 경솔하고 천박하게 된다. 무지한 감상주의가 유행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계발되고 세련되고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유행을 좇는 허식과 피상적인 쾌락을 위하여 모든 가치 있는 것의 습득을 등한히 하는 일이 너무도 흔하다. 여인들은 유행으로 인해 심령이 주리고 위축되는 것을 방치한 까닭에 사회에 축복이 되는 대신 저주가 된다." (청년, 357)

의복과 우상: 진정한 단장

16. 도덕적 질병

"의복의 우상 숭배는 일종의 도덕적 질병이다. 이것은 거듭난 생애에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복음의 요구에 굴복하는 데는 의복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청년, 358)

17. 의복은 상징이 되어야 함

"의복을 입는 일에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외양을 가장 단아하게 꾸며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사에서, 당신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세밀하게 가르치셨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루마기에 관하여 매우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이는 그의 두루마기가 표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의복도 이처럼 표상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외모는 어디로 보나 단정하고, 우아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의복에 변화를 가하여 세상과 똑같게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값진 옷이나 고가의 장신구로 몸을 단장하여서는 안 된다.

의복에 관한 성경 말씀은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몸에 걸치는 의복에까지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바 교훈의 말씀에 유의할 것이다. 심지어 의복의 모양도 복음의 진리를 표현할 것이다." (청년, 358)

18.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대가

"타락을 조장하는 사치가 도처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혼들은 그들의 의복과 과시를 사랑함으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 유행에 열중하는 자들의 생애의 십분의 구는 살아 있는 허위이다. 기만과 사기가 그들의 일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고상한 정신과 친절과 관용은 악한 것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헐값으로 팔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데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도덕을 팔아버린다. 변천하는 세상의 유행에 관한 이러한 광란은, 단순하고 평범한 의복을 선호하는 개혁자들의 군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사단은 돈과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유행을 언제나 불러들이고 있다." (청년, 359)

19. 두 개의 거울

"자긍과 허영심이 각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도덕적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 이 의복의 우상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모두 파괴해 버린다. 이것은 명상하고 반성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야 할 귀중한 시간을 소모해 버린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를 지도하기 위한 교훈들을 기록하셨다. …." (청년, 359-360)

20. 단장을 하려면 은혜로써 하라!

"의복에 대한 열중은 은혜와 자선의 사업을 하도록 위탁된 자금을 소비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치를 위한 지출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모든 재산은 자만심과 과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착한 청지기가 되어 헐벗은 자를 입히고 주린 자를 먹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재산을 바쳐야 한다. 우리에게 단장이 필요하다면, 온유와 겸손과 정숙과 근신 등의 덕행이야말로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단장이 된다. 우리는 성실한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굳건히 하고, 교훈과 모범으로써 이 타락된 시대의 방탕과 사치에 대한 방종을 굴복시키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모본을 설정해 주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지 않겠는가?" (청년, 360)

기억할 말씀: "옷을 입는 일은 그 밖에 있는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는 의복이 간결하고 건강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몸에 잘 맞고 신분에 적당한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교육 319)

연구할 과제

1. 마지막 시대의 한 표징(징조)이 되는 어떤 것을 말씀하였는지 찾아 보라.(청년, 451)
2. "많은 잔주름과 깃털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의가 있는가? (청년 435:1)
3.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장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청년 437)
4. 반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4 증언, 603; 목사, 564)
5. 늘 변하는 유행은 어디서 발단되는가? (2 증언, 531; 3 증언, 564)
6. 유행하는 의복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청년 439)
7. 그리스도 교회와 연합하는 것(교회에 참석하는)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청년, 448)
8. 유행에 대해 토의해 보라.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라.(치료, 264-265)
9. 옷을 적당하게 입지 않음으로 육체에 임하는 결과(영향)는 무엇인가? (치료, 265-267)
10. 유행의 노예가 된 여인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여인을 비교해 보라. (치료, 268)

제99과 마약과 자극제

성경절 연구: 고전 3:16, 17; 벧전 2:11; 계 3:21

요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음란한 자들에게만 이 경고가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식욕과 정욕에 대한 각종 해로운 만족을 경계한다. 그것은 차와 커피, 담배, 알코올, 모르핀과 같은 자극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일종의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절제, 82)

예언의 신 연구

담배 사용의 영향

1. 담배가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담배는 부지중에 서서히 파고드는 독소인데 그 영향은 신체 조직에서 씻어 내기가 술의 영향보다도 어렵다.

흡연의 습관은 음주보다도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신경계통을 손상시킨다. 담배는 술잔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 희생자들을 노예의 사슬로 얽어 매므로 이 습관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는 더욱 음흉스런 독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독한 술보다도 더 인체와 정신을 중독시킨다." (절제, 55)

2. 흡연자는 하나님 앞에 유죄함

"어떤 형태의 담배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인체 조직에 해롭다. 이것은 완만한 독소이다. 담배는 두뇌에 작용하여 감각 능력을 둔화시키므로 신령한 사물, 특히 이런 더러운 방종을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진리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다. 어떤 형태의 담배든지간에 담배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지 못하다. 그런 추한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의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들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이며 분명한 독약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다. 흡연의 해독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이 해로운 습관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시지만 담배의 진상에 관한 참 빛이 그들 앞에 제시된 후에도 여전히 이 천한 욕망에 탐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죄하다." (절제, 55)

3. 뿌린대로 거둠

"생명의 법칙을 범하면 자연은 반드시 거기에 항거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기억해야 한다. 징벌은 정신적 능력과 체력에 가해질 것이다. 그것은 과오를 범한 당사자에게 끝나지 않는다. 그의 비행의 결과는 자손에게까지 미쳐서 유전적인 병폐가 3, 4대까지 유전된다. 아버지들이여 그대들이 영혼과 두뇌를 마비시키는 마취제인 담배를 피울 적에 이 사실을 생각하라. 이 폐습이 그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대 외에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소년들과 청년들이 흡연하면 말할 수

없는 해독을 초래한다. 그 선대 조상들의 비건강적 습관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신적 장애, 신체의 쇠약, 신경의 불안정, 그리고 불건전한 욕구 등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 준 것들이다. 그리하여 같은 습관을 자녀들이 계속할 때에 그 나쁜 결과는 증가되고 영속화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육체적 · 정신적 · 도덕적 타락은 이 원인에 기인된 바가 적지 않다."(절제, 56)

4. 흡연은 자살행위임

"술과 담배는 사람의 피를 오염시켜서 매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독약 때문에 희생된다. 인체는 독약인 담배를 추방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인체가 지고 만다. 인체가 침입자를 몰아내는 작업을 포기하면 생명은 투쟁하다 희생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음의 순결과 개인적인 청결을 요구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에서 여행하며 항상 노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청결을 철저히 요구하셨다면, 밀폐된 집안에 살아서 불결하게 되기가 더욱 쉽고 비위생적 영향을 더욱 받기 쉬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덜 철저하게 요구하실 리가 없다. 담배는 인체의 신경을 자극한 후 마비시키는 영향을 가진, 가장 기만적이며 악성인 독소이다. 더구나 담배가 인체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느리고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스러운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담배의 해독으로 희생되어 쓰러졌다. 그들은 실로 이 만성적인 독소를 가지고 자신들을 살해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묻고 싶다."(절제, 57)

5. 담배는 괴롭히고(저주) 죽임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파이프 담배나 여송연이나 궐련을 피우는 사람들이 내뿜는 연기로 더러워진 공기를 호흡하느라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공기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늘 앓게 된다. 영아의 폐는 흡연자의 더러운 호흡으로 불결해진 방안의 공기를 들여마심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병들게 된다. 흡연하는 아버지와 함께 잠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가망이 없을 정도로 독소의 침해를 받는 영아들이 많이 있다. 흡연자의 폐와 피부의 기공에서 발산되는 독한 담배 냄새를 들여마시므로 영아의 조직은 독소로 채워진다. 이것이 어떤 영아에게는 만성적인 독소로 작용하여 두뇌와 심장과 간장과 폐를 손상시켜 이것들을 서서히 위축시키지만 어떤 영아에게는 즉시 영향을 끼쳐서 경련이나 발작증이나 마비현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급사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슬피 울면서 이런 영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터인데 자기들의 자녀에게 잔인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 그 어린 아이는 담배에 대한 더러운 욕망의 희생물로 죽은 것이다. 담배의 노예가 내뿜는 숨결마다 주위의 공기를 독하게 한다."(절제, 58-59)

6. 담배가 가지고 있는 사로잡는 힘

"사람들을 흡연의 무서운 악습에 붙들어 매므로 두뇌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거룩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일단 이 마약에 인이 박히면 담배가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그는 담배의 힘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부다운 기개를 가지고 굳게 설 수 없다. 그는 오직 타락한 욕망의 노예일 뿐이다."(절제, 60)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담배

7. 흐려진(희미한) 창문으로 내다봄

"담배에 인박힌 청년은 자신 전체를 더럽힌 것이다. 그가 원수의 편에 가담하기 전에 그를 믿음직스럽게 만들었던 기민성과 패기는 찾아 볼 길이 없다. … 그의 정신은 부패하지 않아야 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상실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근육과 인대(靭帶)와 전신의 유체(流體) 조직과 고체 조직을 약화시키는 파괴자와 완전히 야합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지성이 작용하는 자율 기능을 둔화시킨다. 그는 자기가 내다보아야 할 유리창을 흐리게 만든다. 그는 모든 것을 왜곡된 빛으로 보게 된다." (절제, 62)

8. 마왕(사단)에게 분향함

"담배의 노예가 되어 자기 주위의 모든 것에 침뱉고 더럽히면서도 자기는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볼 때에 나는 만일 하늘에도 흡연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본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던 입술은 담배진으로 더럽혀졌고 호흡은 악취로 오염되었으며 그의 의복까지도 더럽혀졌다.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독기서린 연기를 즐기던 영혼도 분명히 더럽혀졌을 것이다.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증거가 외모에 온통 나타난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몸을 사단의 제단에 바치며 담배의 향연을 마왕에게 분향한다. 이런 표현이 너무 가혹한가? 제물은 반드시 어떤 신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러운 것이란 아무것도 가납하시지 않으시며 이런 비싸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제물은 거절하신다. 고로 우리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절제, 62-63)

9. 파이프 담배냐, 아니면 천국이냐?

"이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는 실례를 나는 많이 보았다. 나는 의사로부터 천식의 치료법으로 담배를 피우라고 권고 받은 한 여인을 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열렬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흡연은 비건강적이요 더러운 습관이므로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자 그녀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의 파이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나라여 잘 가거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나의 파이프를 버릴 수 없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사 인간의 온전한 마음과 전적인 애정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구역질나는 더러운 폐물인 담배보다도 천대를 받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과 몸을 망치는 방종 때문에 밀려나신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에게는 놀라움거리이다." (절제, 63)

경제적으로 손실이요, 악한 본이 됨

10.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여야 함

"흥분제와 마약을 사는 데 수억원이 소모되고 있다. 이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을 남용한 사람들은 장차 그들이 주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도록 소환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보았는가? 그대는 담배를 사는 데 주님의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대가 일생 동안 사용한 액수를 계산해 보라. 이 더러운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친 액수와 비교할 수 있는가?" (절제, 66)

"담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 생활 필수품과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담배를 끊을만한 의지력이 없다. 식욕의 요구가 타고난 애정을 능가한다. 짐승이나 다름없는 식욕이 그들을 지배한다. 담배와 술을 계속 사용하여 인이 박히며,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사하고 인도주의마저 돌아보지 않는다. 만일 그들에게 돈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정의 충당은 제쳐놓고 담배와 술을 살 것이다. 담배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식욕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절제, 67)

11. 모범이 남겨주는 힘(영향)

"여덟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흔히 보는가? 그들에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피우시는데 뭐, 이것이 아버지께 좋다면 내게도 좋을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또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저런 훌륭한 분들이 피우니 나도 피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 어른들이 그러한 본을 보여 주고 있으면서 그런 경향을 물려받은 아이들에게서 그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절제, 68)

12. 담배를 피우는 식사

"담배와 주정음료를 사용함으로 심령과 육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온다. 자신의 사명에 성실한 의사는 그와 같은 환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의사가 담배나 알콜음료를 사용하는 자일 것 같으면, 그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는 환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방종을 의식하므로 그 환자의 불행의 원인을 지적해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는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그것들의 해로운 결과를 확신시켜 줄 수 있겠는가?" (절제, 69-70)

13.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음

"아버지된 자들이여, 그대가 자녀들의 기질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어린 마음을 가장 효과 있게 지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해로운 담배나 피우면서 흘려보내거나 대포집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

이런 유독한 자극제에 방종하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지시는 자녀들이 일어날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나갈 때에든지, 들어올 때에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제, 70)

차와 커피는 어떤가?

14. 반드시 부작용이 따름

"자극성 식물과 마취제라는 이름 아래 음식 혹은 음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은 틀림없이 해롭다. 사람들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잠시 동안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면 항상 과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체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이 된다." (절제, 73)

"자극제의 사용에 방종한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 결과는 체력의 손실 작용뿐만 아니라 지성을 둔화시킨다.

두뇌를 통하여 정신에 생명력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마취제의 사용으로 두뇌를 둔화시키거나 자극제의 사용으로 흥분시켜서는 안 된다. 두뇌와 뼈와 근육은 잘 조

정된 기계의 각 부분이 서로 균형을 이뤄 움직이므로 어느 한 부분에 과중한 짐이 실리지 않고 운전되는 것처럼 조화된 활동을 해야 한다.

차, 커피, 담배와 아편 그리고 독주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박힌 탐닉물들을 갑자기 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흥미와 열심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나 증언을 활기 있고 고상하게 하기에 무력한 듯이 보인다.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향락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가? 땅에서 온 것인가?" (절제, 73-74)

15. 그런 것들(자극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는가?

"차, 커피, 아편, 술 등을 애용하는 사람들 중의 더러는 장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실이 이런 자극제들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구실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부절제한 습관 때문에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던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날에 가서야만 밝혀질 것이다" (절제, 74)

16. 차와 커피가 주는 나쁜 영향

"일시적으로 자극한 후에 오히려 전보다 신체를 더 저조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먹음으로 결코 건강이 증진되지 않는다. 차와 커피는 한동안 무기력한 활력을 부추기나 일시적인 영향이 지나가면 그 결과로 의기 소침해진다. 이러한 음료들은 하등의 영양분도 주지 못한다. 제공되는 한잔의 차와 커피에 포함된 우유와 설탕이 함유된 영양분의 전부이다.

신체 조직이 이미 과로하여 휴식을 요할 때에 차를 먹어서 하기 싫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억지로 하도록 몰아대므로 신체의 수행 능력과 인내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이전에 체력이 고갈되고 만다. 차는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삼가야 한다. … 차의 다음 번 부작용은 두통, 불면증, 심계항진(心悸亢進:가슴이 두근거림), 소화불량, 신경이 떨리는 증세 등 기타 많은 피해가 있다.

커피는 해로운 방종이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흥분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정신적 · 도덕적 · 신체적 능력의 쇠진과 좌절과 마비이다. 악습을 극복하기 위한 비장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정신은 쇠약해지고 두뇌의 활동은 영구적으로 감퇴된다." (절제, 76-77)

17. 습관성 음료

"차와 커피는 건강에 유익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이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습관성이 된다." (절제, 78)

18. 혀가 풀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함

"차와 커피를 상용하는 자들이 사교적인 집회에 모이면 그들의 해로운 습관의 결과가 곧 나타난다. 모두들 저들이 즐기는 음료를 마음껏 마셔서 그 자극적인 기운이 감돌면 그들의 혀가 풀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악한 일을 시작한다. 잘 가리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한다. 험담과 잡담 토막과 때때로 추문에 대한 독설이 퍼져 나간다. 이런 수다쟁이들은 증인이 듣고 있음을 잊어버린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그들의 말을 하늘 책에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찻잔의 흥분시키는 감화 아래 발해진 이 모든 불친절한 비평과 과장된 보고와 시기하는 정신을, 당신 자신을 대적한 것으로 기록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절제, 79)

19. 확고한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승리함

"담배와 같은 만성적 독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을 줄로 생각한다.

그들이 이런 자극제들을 끊을 때에 괴로운 이유는 그들이 전신을 건강하고 조화되게 유지하려는 인체의 작용을 훼손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기증, 두통, 마비증, 신경질, 조바심 등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러는 오용된 인체가 회복될 때까지 자극제를 끊는 일을 끈질기게 버티지 못하고 다시 같은 해로운 것들을 찾게 된다. 그들은 인체에 끼친 손상을 회복시킬 만한 시간을 인체에 주지 못하고 당장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해로운 방종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인체는 점점 약화되어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견인 불발의 정신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한다면 오용된 인체는 곧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이런 자극제 없이 그의 일을 현명하게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차와 커피를 끊기가 마치 알콜 중독자가 술을 끊기만큼이나 어렵다." (절제, 80)

20. 차와 커피를 포함한 절제 서약

"이 모든 신경 자극제들은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초조감, 성급함, 신경의 파손으로 인한 정신쇠약 등은 영적 향상을 저해하는 투쟁해야 할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것을 끊을 때에 마치 술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처럼 견디기가 몹시 힘든 허탈증 때문에 이런 방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절제 개혁을 주창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유해한 것들에 관하여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지 않을까? 절제 서약에 해로운 자극제인 차와 커피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절제, 81-82)

기억할 말씀: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죄이며 해로운 방종이다. 그러므로 그것 역시 다른 악과 같이 영혼에게 상처를 입힌다." (절제, 89)

연구할 과제

1. 그대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라면 그대의 식료품 가게에서 차와 커피, 그리고 담배를 진열하여 팔겠는가? (3 증언, 488)
2. 매우 어린 나이에 담배를 사용하는 소년들에게 미치는 담배의 영향은 무엇인가? (절제, 62)
3. 1877년대에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절제, 66)
4.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담배와 술에 대해 경고를 발할 수 있겠는가? (절제, 68)
5. 만약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담배로 그의 입술을 더럽힌 후에 성소 안에 들어갔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절제, 71)
6. 현대 성직자들의 흡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절제, 76)
7.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 같은 인공적인 흥분제라"고 정의한 것들은 무엇들인가? (절제, 80)

8. 사단이 모조한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절제, 84)
9. 후퇴한(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절제, 90)
10. 문서 전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절제, 92)

제100과 부절제와 사회

성경연구: 잠 20:1; 3:29, 합 2:15

요점: "우리는 자주 그 원인을 묵과하고 용인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무서워하기도 하며, 그 무서운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절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절대금주를 위해서 교훈과 행동 즉 발언과 글과 투표권으로써 저들의 감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저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고 이 개혁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큰 대적과 더불어 싸우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타협도 휴전도 없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절제, 295)

예언의 신 연구

부절제의 개념

1. 본래 완전했던 인간

"그는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서 있었다. 그의 신체의 각 기관과 기능들은 고루 발달되었고 서로 잘 조화되어 균형이 잡혔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활동의 유지를 서약하심 —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의 살아 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 주실 것을 친히 서약하셨다." (절제, 11)

2. 부절제의 발단

"사단은 인류가 가장 범하기 쉬운 악행을 안출해내기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소집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하나하나 제안된 후에 마침내 사단 자신이 한 계획을 고안했다. 그것은 포도, 밀, 그밖에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신 것들을 취하여 독성으로 변화시켜 그것으로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인 능력을 파괴시키고 분별력을 정복함으로써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타락한 식욕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부패된다. 사람에게 알콜을 마시게 유도함으로 대대적으로 인간을 저락시킨다." (절제, 12)

3.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유혹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식욕의 만족이라는 저항하기 힘든 유혹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다. 그는 이 점에서 능히 인간을 정복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식욕으로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고 그래서 그들은 기쁨에 넘치는 본향을 잃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그 얼마나 엄청난 불행과 죄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는가! 많은 도시들이 비열한 범죄와 포악한 죄악으로 인해 우주의 오점이 되어 지면에서 완전히 말살되기도 했다. 식욕의 방종은 그들의 모든 죄악의 기초였다." (절제, 14)

4. 식욕의 부절제(방종)로 인한 손실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도처에 편만한 쇠약의 기초가 된다." (절제, 15)

"그리스도인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자신의 품격을 저하시키도록 신경조직에 작용하며, 그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든지 간에 그것을 신체 조직에 섭취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정신과 몸의 모든 기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절제, 18)

5. 식욕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중요성

"그분의 첫 시험은 아담이 실패한 것과 같은 내용의 것이었다.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거의 전 인류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그의 성공은 그가 이 타락한 지구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기를 능히 저항할 수 있는 분을 발견했으며 그는 패장(敗將)의 신세로 전장(戰場)을 떠나갔다.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자제를 통하여만 존재한다. 만일 인류에게 가해진 방종한 식욕의 권세가 그렇게도 강하여 그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인류를 위하여 거의 여섯 주일의 금식을 견디셔야 하셨다면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투쟁이 클지라도 그는 이길 수 있다. 사단이 고안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시험을 저항하신 그 거룩하신 능력의 도움으로 그도 역시 악과 접전하여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절제, 20-21)

6. 범죄의 자극제

"온갖 형태의 죄악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현재의 상태에 익숙해져서 그 원인과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전에 사용되던 술보다 더욱 취하게 하는 독한 술이 사용되고 있다. 몸서리나는 술취함과 무서운 죄악의 가공할 진상들 가운데서 신문은 오직 그 결과로 나타나는 범법 사건의 일부분만을 보도한다. 폭력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범죄와 부절제와의 관계는 국가의 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취급해야만 하는 인사들에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필라델피아의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범죄의 5분의 4가 술의 영향 아래서 감행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20명의 죄수 가운데서 술이 그들의 살인 사건의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피, 곧 피흘리는 것과 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형무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음주를 배운 자들이다." (절제, 23)

7. 경제적인 면을 보자

"술집에 이성을 팔아 버려 그 결과 자신을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맡기는 데 허비되는 돈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만일 이 돈이 성경의 원칙에 따라 동족들을 돕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법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학교들을 설립하는 데에 사용되었더라면 이 사회는 얼마나 크게 변했을 것인가!

사회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 우리들은 그들 중 대부분이 독한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장관들과 변호사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그들에게 술과 담배의 유해한 방종을 위해 사용할 돈을, 이 세상의 위대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준비시킬 교육기관들을 설립하는 데에 기부하라고 요구하라.

만약 술장수의 돈궤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면 굶주린 무수한 사람들의 아우성은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죄악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못된 것들을 좋아하도록 길들여져 그로 인하여 그들의 몸과 영혼이 파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해야 할 일을 거절한다.

사람을 동물처럼 만들고 그의 이성을 파괴시키는 술을 마시는 데 쓰여지는 수억 만원을 생각해 보라. … 만일 이 돈이 이 세상의 암흑한 지방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말할 수 없는 선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당한 하나님의 소유물을 강탈해 갔다." (절제, 29)

8. 알코올(술)과 가정

"술꾼의 가정을 바라보라. 쪼들리는 가난과 불행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로 가득하다. 한때 행복스럽던 아내가 미치광이 남편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라. 그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후려칠 때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결혼식장에서 굳게 맹세한 신성한 결혼 서약은 어디에 있는가? 달콤한 사랑은 어디로 갔으며 이제 무엇이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인가? 슬프다. 이 모든 것들은 타오르는 알콜 용액, 저주받을 잔 속에서 고귀한 진주처럼 녹아 버렸다! 벌거숭이가 된 자식들을 보라. 한때 그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던 아이들이다. 겨울의 삭풍이나 이 세상의 어떤 멸시나 욕설의 찬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닥칠세라 돌봐주고, 아버지는 보살피고 어머니는 사랑하니 그들의 가정은 낙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돌변했다. 술주정꾼의 아내와 자식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민의 울부짖음은 매일 매일 하늘에 사무친다.

술꾼을 바라보라. 술이 그를 어떤 몰골로 만들었나 보라.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다. 그의 얼굴은 부어 올랐고 멍청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린다. 사단의 공작의 표지가 온 몸에 기록되어 있다. 천연계는 그런 모양의 사람을 모른다고 항의한다. 그는 천부(天賦)의 능력들을 오용했으며 자신의 고귀한 인격을 술에의 탐닉으로 망쳐 버렸다." (절제, 31-32)

9. 아내는 빼앗기고 자식들은 굶주림

"주객이 정신을 잃게 하는 술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의 파멸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과부에게서 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되는 음식을 빼앗아 가는 것도 합법적이다. 그로 인하여 희생된 자의 가족에게 굶주림을 강요하고, 불쌍한 자식들을 거리로 내보내어 한푼의 돈과 한 조각의 빵을 구걸하게 만드는 것도 합법적이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재연되어 마침내 주류 판매인의 양심은 화인맞은 것처럼 마비된다. 고통당하는 자식들의 눈물과 고민하는 어머니의 울음은 다만 술장사를 격노케 할 뿐이다. …." (절제, 32-33)

10. 사고의 원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사단은 철도와 기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맹목적인 환락과 타락한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잊고 떼지어 다니는 무리들로 만원을 이룬 배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사단은 이들을 꾀이기 위하여 매력적인 뇌물을 주어 그들로 그릇된 식욕과 습관에 빠지게 함으로써 마치 기능공이 기계를 다루듯이 자기가 그들의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만든다. 그 후에 그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와 도구로서 그와 협력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신호를 잘못 보내므로 자동차가 서로 충돌한다. 공포와 불구(不具)와 죽음이 따른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현저하게 많아질 것이다. 일간 신문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을 보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은 그대로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며, 술은, 말로는 '나는 대장부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나는 자제할 줄 모른다. 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자제력을 상실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계속 팔리고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자들이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얼간이들이다." (절제, 34)

누구의 책임인가?

11. 부모의 모범과 지도

"자녀들의 품성은 부모들의 모범과 훈육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과 따라서 자녀들이 형성한 품성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가 거의 없다.

자녀들이 바른 습관과 순수한 식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어머니들의 과업이다. 자녀들의 식성을 길들여서 자극성들을 싫어하도록 가르치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죄악을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도록 그대의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대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흔들리거나 세찬 나쁜 감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도록 가르치라." (절제, 180)

12. 하나님께서는 술꾼들에게 책임을 물으심

"취중에 여러 가지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 자기가 행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범인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기의 판단력을 파괴시킬 것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제 손으로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댔다면 그가 취중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의 식욕이 그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의 판단력을 취하게 하는 술과 교환한 것이다. 자신을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은 그 자신의 행위였으므로 그가 취중에 저지른 범죄도 그가 생생한 판단력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절제, 25)

"대형 기선의 선장들과 열차의 승무원들은 철저히 절제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두뇌는 취하게 하는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든 남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실 것이다." (절제, 35)

13.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이 책임이 있음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은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영혼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수 없다. 그들의 영향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한, 손을 씻는 의식이 그들을 깨끗하게 못한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탕진해 버린 엄청난 액수의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주류 판매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주류 판매의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빈곤과 범죄 사건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주류 판매업을 통해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고 그들의 적은 수입을 빼앗아 치부하고있다. 아,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주점들을 폐쇄시켜서 이제 정신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실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절제, 28-29)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의 길의 모든 단계들을 주시하고, 이웃의 입에 술병을 공급하므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들을 추적한다. 술장수의 이름은, 손에 피묻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된 장부에 기록된다. 그는 그의 이웃이 유혹되어 몰락하며, 가정을 불행과 타락으로 채우는 독주를 그의 손으로 계속 취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주님께서는 주객의 모든 도덕적 능력을 상실시키고, 그의 인격을 앗아가면서 가련한 주객의 수입에서 술장수의 금고로 흘러들어온 모든 돈에 대한 책임을 술장수에게 지우신다." (절제, 39-40)

14. 의사들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의사들은 수많은 술고래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다. 음주가, 애주가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그들의 환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처방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만일 의사들이 인과관계를 깊이 생각했다면 술이 전신에 끼치는 똑같은 영향을 신체의 각 기관에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의사들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술고래가 되도록 영향을 끼친 데 대하여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절제, 42)

15.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자니이까?"

"술장수는 가인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고 하신다. 술장수들은 도덕적 힘이 약하여 음주의 유혹에 빠진 자들의 가정에 초래된 불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주류 판매로 이 세상에 발생된 비참과 고통과 절망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희망과 기쁨을 땅에 묻어 버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방황하는 어머니와 자식들의 비애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새를 돌보셔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간과하시거나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범죄를 영구화시키는 이 죄악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이 모든 책임을 사람들에게 유혹의 문을 열도록 영향을 끼친 모든 자들에게 지우신다." (절제, 41)

우리의 광범위한 절제 무대

16. 음식 먹는데 있어서의 절제

"절제의 원칙들은 다만 주정 음료의 사용 금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전진해야 한다. 자극성 식물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흔히 주정 음료와 똑같이 건강에 해롭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술 취함의 씨앗을 심는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식욕은 항상 도덕적 ·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부절제하고 무분별하게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알콜성이 있는 술을 마셔야만 반드시 부절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부절제하게 먹는 죄-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기름지게 먹고, 불건전한 음식을 먹는 것-는 소화 기관의 건강한 작용을 파괴하고, 두뇌를 손상시키며, 판단력을 그르쳐서 합리적이며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방해한다." (절제, 138)

17. 노동에 있어서의 절제

"우리는 노동에 있어서 절제를 실천해야한다. 우리가 스스로 과로할 수밖에 없

는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과로가 요구되는 입장에 처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몫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을 현명하게 지배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어떤 의사라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줄 수 없는 일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 (절제, 139)

18. 공부의 부절제

"공부의 부절제는 일종의 흥분제이며 그런 습관에 방종하는 자들은 마치 주정꾼처럼 안전한 길에서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 주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라신다. 학생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능력을 학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소모해서는 안 되며 영혼들을 도와 의의 길을 찾게 하는 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의 새로운 활력을 보존해야 한다." (절제, 140)

19. 부(돈)를 추구하는 일의 부절제

"인간의 신체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돈벌이에 몰두하고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돈을 추구하는데로만 그들의 생활을 집중시키고 이 한 목적을 위하여 휴식과 수면과 생애의 안락들을 다 희생시킨다. 그들의 타고난 좋은 신체조직은 훼손되고, 그들의 신체력을 남용한 결과로써 질병에 걸리게 되어 그들의 그릇된 일생의 장면은 사망으로 종지부를 찍고 만다. 그처럼 두려운 값을 치르고 번 그 사람은 그의 재물 가운데서 일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돈도 궁전도 화려한 의복도 이젠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일생의 업적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절제, 140)

20. 모든 일에 절제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일에 절제 곧 노동의 절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식욕으로 인해 초래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순결과 성결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신중히 잘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고, 또한 일상 생활에서 절제를 실천함으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강 개혁의 빛을 보내셨다." (절제, 141)

기억할 말씀: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절제, 161)

연구할 과제

1. 성만찬 예식 상에 마귀가 어떤 덫을 올려 놓았는지 설명하라. (절제, 27)
2. 홍수 이전에 편만했던 죄악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절제, 28)
3.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라. (절제, 29)

4. 술로 인해서 야기된 가장 두려운 저주는 무엇인가? (절제, 37)
5. 헤롯이 따른 방탕 때문에 생긴 두려운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절제, 54)
6. 어떤 조건 하에서 과실즙을 마셔도 좋다고 하였는가? (절제, 105)
7. 성경에 포도주를 어떻게 정죄하였으며,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인정하였는가? (절제, 108-109)
8. 누가 절제 서약에 서명하여야 하는가? 그대는 절제 서약에 서명하였는가? (절제, 229-236)
9 적당하게 마시는 것에 대해 토의해 보라 (절제, 322)
10. 하나님께서 술장사가 주는 선물(희사 금)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는가? (5 증언, 360; 치료, 308-309)

제101과 약물-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성경절 연구: 시 103편

요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치료는 하나의 저주이다. 약을 멀리하도록 교육하라. 그것(약)들을 점점 더 적게 사용하고, 위생에 더욱 의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원들(치료 요소들)인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적당한 운동, 깨끗한 양심이 반응하게 될 것이다." (CT 261 - 1890년에 기록된 말씀임)

예언의 신 연구

약물의 사용

1. 독한 약을 함부로(자연스럽게) 사용함.

"많은 질병과 심지어는 더욱 위험한 악의 기초를 놓고 있는 하나의 습관은 독한 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다.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주된 희망은 고통과 불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특성을 별로 알지도 못하는 특효약을 구하러 가거나, 그들의 비건강적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그들의 비행(非行)의 결과를 제거해 줄 어떤 치료를 받고자 의사에게 의뢰한다. 만일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약을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을 시험해 본다. 그리하여 악은 계속된다." (치료, 126)

2.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 주기도 함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 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독을 제거해 주고 병의 원인이 되어있는 상태를 고쳐 주기에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주는데 불과하다.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마는,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 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치료, 126)

3. 많은 사람들이 약물사용으로 인해 평생 동안 질병을 앓게 됨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하였다면 살았을 뻔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위 많은 치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를 둘 다 파괴하는 습관과 욕구를 조성해 준다. 소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많은 특효약들, 심지어 의사들이 조제하는 어떤 약품들까지도 사회에 그처럼 무서운 저주가 되고 있는 음주, 아편, 마약 등의 습관의 기초를 놓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치료, 126-127)

4. 도움을 주거나 고쳐주는 대신에 죽이는 일을 함

"우리 기관(병원)들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은 주께서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의 빛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다. 약물 사업은 도움을 주거나 고쳐주는 대신에 세상에 더 많은 해를 주었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기관들을 설리해야 하는 빛을 주신 첫째 이유는 발 요양원을 세워서 이로 하여금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개혁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의료, 27:2)

5. 독물로 된 약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부절제와 불경하는 일은 어느 곳에서나 증가되고 있다. 절제 사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의사는 위대하신 의원(예수님)의 사업과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시기 위해 하늘 궁전을 떠나 오셨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수석 의원과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인류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독성이 가득한 약물을 사용함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요, 단순한 치료법을 사용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과 관례들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아 부정과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식욕에 방종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만 할 가장 큰 악이다." (의료, 85)

6. 두 가지의 짐을 지도록 해주는 약물 사용

"약물은 언제나 필수적인 힘을 깨어 버리고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연은 죽어가는 병자를 고치고자 노력하는데 장애를 받게 되는데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요, 자연이 지나친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이 그 최고의 노력을 했었을 것이다. 자연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전혀 원치 않는다. 이 세상의 유행의 관습을 따라 자연에게 지워준 짐들을 덜어 주라. 그리하면 많은 경우에 자연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할 것이다. 약물 사용은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바람직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약물 사용은 자연으로 하나의 짐을 지게 하는 대신에 두개의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만 극복해야 했으나 심각한 두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의료, 223)

7. 약물 사용은 제거되어야 함

"약물 사용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의사의 양심은 부드럽고, 참되며, 깨끗해야만 한다. 만약 시정되지 아니하면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 사용에 대한 갈망은 마땅히 제지될 필요가 있다. 약물 사용에 대한 것이 내게 보여진 바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 약물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만약 저들의 병실에서 약물을 없애버렸더라면 죽지 않았어도 될 뻔한 생명들을 잃어버렸다.

그대가 생리학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약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돈은 매우 적어질 것이요, 결국에 가서는 약물을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이 그의 의료행위 가운데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그가 섬세한 인간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사)는 종신토록 파괴하게 하는 씨앗(약물)을 인체에 집어 넣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난폭하게 대우받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루셨다.

여러 해 전에 주께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관을 세워야 할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사망의 씨앗(약물)을 인체

에 심음으로 인해 살아있는 거처가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다." (의료, 227, 228)

8. 약물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것은 값비싼 실험이다

"의사들이 약물 치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의 치료법 – 풍성한 물과 공기의 사용 – 을 현명하게 기지를 다해 사용했었더라면 환자들이 회복되었을 기회들을 상시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약물 사용을 제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약물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것은 값비싼 실험이다. 뇌와 혀가 마비되는 것은 바로 약물 사용의 결과이며 때가 되지 않은 때에 일찍 희생을 당했다. 만약 저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습포, 젖은 홋이불 등의 치료법을 사용했었더라면 오늘날도 살아 있을 수 있었던 자들이 희생되었다." (의료, 228)

환자를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

9. 고치는 작용은 그 필요가 생기기 전에 준비되었음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에 두루 편만해 있다. 나무가 베어지든지, 사람이 상하고 혹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즉시로 그 상해의 회복을 위해 치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치료 작용은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시는 것이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눅 4:18)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갈 6:1). 여기 '바로잡는다'라고 번역된 말의 어원은 제자리에서 물러난 뼈마디를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의미 깊은 표현인가! 실수나 죄에 빠진 자는 자기를 둘러싼 일체의 사물과의 정당한 관계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는 혹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후회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는 혼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배감으로 속수 무책에 빠진다. 그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으켜져야 할 사람이다. '신령한 너희는 …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노를 쉬게'(잠 15:1)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 온유'(고전 13:4)하고, '허다한 죄를 덮'(벧전 4:8)는 사랑, 이런 교훈들을 배울 때에, 과연 우리 생애에는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이런 귀한 교훈은 작은 어린이들에게라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다. 어린이의 마음은 그 감각이 예민하고 쉽게 감명을 받는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마 18:3) 되고 예수님의 단순하고 유화하고 온순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치료의 봉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교육, 113-114)

10.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고치심

"당신의 이적을 통하여 구주께서는 사람을 지탱해 주고 고쳐 주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천연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2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분께서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다(시 103:3, 4).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많은 병자들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하셨다(요 5:14).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질병이 그들에게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건강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치료, 112-113)

11. 자연요법을 사용함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같이 요긴하다.

자연요법의 이용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자연의 과정은 점진적이므로 참을성없는 사람들에게는 느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로운 방종을 버리는데는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자연이 일을 현명하게 잘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자연법칙에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치료, 127)

12. 독한 약물을 대신해서 사용해야 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간단한 방법, 곧 독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요구하며,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자 한다. 식사의 개혁에 관한 가르침이 크게 필요하다. 그릇된 식사 습관과 불건전한 음식물의 사용은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부절제와 범죄와 불행에 대하여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치료, 146)

13. 병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임

"의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교육하는 일이며, 저들이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선은 질병

과 고통, 조직의 단절과 요절(일찍 죽는 일)을 예방하는 일이다. 그러나 육체와 정신에 미치고 있는 부담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은 약물 처방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 약물 처방은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체에 두배 이상의 악을 위한 기초를 놓는다." (의료, 221:4)

14. 간단한 치료법으로 질병과 싸우라.

"우리 백성들은 독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 밝히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간단한 치료법을 통해서 질병과 싸우는 교육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수 천만의 생명들이 독한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저들은 간단한 치료방법을 사용했었더라면 건강을 회복했을 사람들이다. 현명하고 능란하게 주는 수치료법은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열심히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치료하도록 하라. 병자의 침상 곁에서 믿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라. 저들(환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도록 병자들을 격려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라. 그리스도 예수, 인류의 구세주는 우리의 일과와 회의에 더욱 더 나타나야 한다." (의료, 227)

15. 수 천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음

"고통받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만약 저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약방을 의존하는 대신에 저들이 모든 약들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살며, 위를 상하게 하고, 약하게 하여 소화하지 못하게 하며, 비록 단순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극이 없이는 소화할 수 없게 만드는 차와 커피, 주정 음료와 양념들을 피한다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의 빛을 분명하고 뚜렷한 빛으로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채소, 과일, 곡식들이 우리의 식사를 구성해야 한다. 단 한점의 고기라도 우리 위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고기를 먹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로 환원하여야 한다." (의료, 229)

우리의 건강 기관들

16. 그리스도를 높여야 함

"우리 건강 기관들의 목적은 병원이 되게 하는 것이 첫째 – 최상의– 목적이 아니다. 이 지상의 마지막 복음 사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건강 기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음의 대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업과 연관된 모든 기관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건강 기관으로서 육체적 영적 질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의 사명을 충분히 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마치 옛날 중풍 병자처럼 첫째로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이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만약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복음과 연관을 맺고 있는 요양원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과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복음의 원칙을 이행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면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요, 그 존재의 목적에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관(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은 더 큰 것들을 기대하도록 인도되어야 한 것에 대한 것을 지시받았는데, 이는 위대하신 대의원께서 그의 지상 봉사기간 동안에 마을과 동리를 다니시면서 그에게 고침받기 위해 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 연고이다. 아무도 그냥 되돌려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

다. 비록 저들이 볼 수는 없지만 저들에게 고통을 제거해 주고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임석하신 그리스도를 환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라." (의료, 27-28)

17. 자연 법칙에 순응함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육하여 저들로 하나님께서 인간 조직을 주관하도록 제정하신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 지식과 빛을 대항하여 죄를 짓고 약물로써 저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기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들의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저들이 약을 적게 사용하면 할수록 저들의 건강 회복에는 더욱 좋다. 약은 자연(천연)을 돕는 대신에 낫게 하고자 노력하는 자연을 마비시키는 일을 한다. …

저들은 저들이 전에 가지고 있던 먹고 마시는 습관에 대해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러해 동안 저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인하여 질병을 위해 기초를 놓았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의 양심은 이런 일에 무식한 자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바 대로 저들의 식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금하도록 지혜롭게 처방하여야 한다.

그(의사)의 생각에 건강 법칙에 유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양심적으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 건강의 법칙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깨움을 받은 양심으로 저들이 아는 바대로 저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위대하신 의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건강 개혁자들이다. 의사들은 철저한 건강 개혁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혜와 경험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환자들에게 약물에서 멀리하도록 원리로서 가르치고 저들의 생애로서 본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교육하여야 한다. 저들은 임시적으로 약물이 좋은 결과를 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그 후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을 신체내에 심어 주는데 어떤 경우는 평생을 두고도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자연은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방해하는 요소들은 응당 제거되어야 하고, 자연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만약 모든 손상을 받은 것들이 제거되고 충분한 기회를 주면 자연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의료, 224)

18. 생명의 법칙 안에서 교육하라.

"건강 개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도처에서 필요되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시기 때문이다. 건강에 유익을 주는 절제를 제시하라. 건강 법칙 안에서 저들을 교육하여 저들로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저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약물 사용은 계몽된 이 사회에 하나의 저주이다.

약물에서 멀리하도록 교육하라. 이것들(약물)을 좀더 적게 사용하고 위생을 위한 매체(자연 치료제)들을 더욱 많이 의존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의원들인,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적당한 운동과 깨끗한 양심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건강 법칙 대로 살았다면 단 하나의 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회복되었을 것이다. 약물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어야 한다. 위생 원칙에 따라 일을 하는데는 진지함과 인내와 끈질긴 노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열성있는 기도와 믿음이

그대가 하는 노력에 연합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대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함으로 그대는 환자들을 교육할 것이요, 병들었을 때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을 교육하게 될 것이다." (의료, 259)

19. 절제와 건강

"고통당하는 자들은 특별한 파멸로부터 구원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라. 만약 우리 요양원을 찾고 있는 자들이 주정 음료와 약물 사용을 금하고 왜곡된 식욕으로 불러 들인 질병을 몰아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안전한 치료법에 의존한다고 하면 주께서 치료해 줄 자들이 있다. 만약 저들이 유혹을 저항하고 원수의 마력을 깨어 버리기 위해서 저들이 해야 할 부분을 행하고 저들 자신을 죄많은 영혼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복종시킬 것같으면 저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속전으로 치루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육체를 무능하게 하고, 지각력을 죽이어 거룩한 것, 영원한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는 또한 자아 방종이 저들의 도덕력을 왜곡시키며, 인간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회심하는 것인데, 몸과 마음과 혼이 자아 방종의 생애로부터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생애로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된다는 것을 아신다." (의료, 263-264)

20.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임

"환자들에게 좋은 자연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자극하는 음주를 금해야 하고, 약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알코올, 차, 커피 또는 약물을 결코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들은 항상 악의 흔적을 남겨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의사들이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라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간과 거룩한 분이 협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우리 기관들을 찾아올 것이다. 죄악에 방종하여 건강을 망친 자들, 약물이 효과를 내지 못할때까지 의사의 치료를 받아온 자들이 올 것이며, 저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는 기관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양심적으로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과 주님께서 협력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병실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분께서 간호원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의료, 228-229)

기억할 말씀: "참된 신앙 생활은 인류를 육체적 · 지적 ·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시킨다. 신앙은 자제와 침착과 절제를 가르친다. 종교는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을 성화시킨다. … 신앙 생활은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 준다." (부조, 600)

연구할 과제

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약물이 주는 결과는 무엇인가? (음식, 351)

2. “무모한 습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절제, 94)
3. 특허받은 약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치료, 114)
4. “가장 좋은 최선의 약”은 무엇인가? (치료, 236)
5. 단순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3 소망 387)
6.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법을 배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의료, 221)
7.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건강 법칙들을 들어 보라. (의료, 230)
8. 약초의 뿌리와 잎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의료, 230)
9. 자연계 가운데 있는 약품이 되는 근원들에 대해 토의해 보라. (의료, 231)
10. 죽음을 예방하는 과일은 무엇인가? (의료, 233)

제102과 기도 - 치유

성경절 연구: 약 5:14-16

요점: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시다. 그분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향유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 226)

예언의 신 연구

믿음의 기도

1. 인간의 힘으로 안될 때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 이라고 말한다(눅 18:1).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기운이 쇠약해지고 생명 자체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이다. 때때로 건강한 사람들은 날마다, 해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기억에 떠오른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운이 쇠약해 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도다.' (시편 103편 13, 14절)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시편 107편 17, 1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9, 20절)" (치료, 225)

2.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향유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들을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비로운 의사시다. 그분에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향유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의 그분의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16:18)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께서 역사(役事)하시는 통로이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신다.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의 팔로 안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치료자를 믿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치료, 225-226)

3. 봉사의 특권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며, 구주께서는 주의 종들이 병자와 소망이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청하여 주의 능력을 의지케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종은 주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병고치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믿음의 팔로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잡고 구주께로 인도하여야 한다.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혼과 육신의 고침을 바라는 자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 믿음의 줄을 붙잡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 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 돕는다. 병든 자를 보고 저희로 거룩한 사물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영원한 사업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자에게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얻은 소망으로 저들을 위로하면, 자기의 영적 경험은 더욱 풍성해지고 그 능력이 더하여질 것이다.

계속적인 범죄의 결과로 질병 중에 고통하며 번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자각을 받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이 때야말로 목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할 좋은 기회이다. 이와 같이 온유와 사랑으로 희망의 기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자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의 대언자인 것이다. 그가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하고 침상에서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이 하여 인성이 신성과 접촉되는 것이다." (복음, 213-214)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

4. 하나님의 법칙들에 순종함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시 66:18).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半信半疑)의 순종을 할 것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치료, 227)

5. 비건강적인 행습을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장 엄숙한 행동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드려서는 안된다.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 드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믿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참람된 주장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방종에 의하여 스스로 질병을 초래한다. 그들은 일치되도록 생활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때로는 어떤 형태의 부도덕이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고쳐 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식욕에 방종할 자유가 있다는 구실을 만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적을 행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죄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생활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 것같으면, 하나님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그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한다. 그들은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 (치료, 227-228)

6. 죄를 고백하고 그릇된 것을 바르게 고치라

"건강을 회복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약 5:16).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 주라.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으며,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만일 당신의 죄를 후회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의무입니다.' 개인적 성격에 속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요일 2:1).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고백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범해진 죄는 모두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동료에게 잘못한 것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바르게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건강을 얻고자 간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함으로 죄를 범하였거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불화의 씨를 뿌리거나 분리와 분화를 일으켰다면, 또는 어떤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피해를 입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치료, 228-229)

7.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라

"잘못이 바르게 시정된 후에, 우리는 주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조용한 믿음으로 병자의 필요를 주님께 제시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무진장하기 때문에, 병자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을 얻도록 권장을 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걱정하게 되면 연약해지고 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이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일어서면 그들의 회복의 가망은 더욱 양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기 때문이다(시 33:18)." (치료, 229)

8. 하나님의 뜻(의지)에 복종함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롬 8:26).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최선의 것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들어있어야 한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앓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들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견디지 못할 것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애가 그들 자신과 세상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 아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렬하게 탄원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해야 한다(눅 22:42).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간구하신 후,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첨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합당한 것이었다면, 유한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들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흘러나와야 겠는가!" (치료, 229-230)

병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9. 그분의 능력을 붙잡으라!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벧엘로 바뀔 수 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 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직접 병실에 오셔서 의사와 간호원들의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같으면,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자체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다(요 14:14, 12:26).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마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치료, 226-227)

10. 우리의 청원을 하나님께 올리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라

"우리의 욕망을 시종여일 완전히 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온전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신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순종하는 정신이 없이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명령의 형식이 아닌 중재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치료, 230)

11.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치료의 자비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즉시, 그리고 그들의 소원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병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권면을 받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친구들에 대한 의문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치료, 231)

12. 질서있게 행하라

"때때로 여기에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믿고 기도의 부족을 나타내는 듯한 일은 무엇이나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죽음으로 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되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자기들이 소원하는 대로 질서 있게 처리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헤어지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권면이나 격려의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치료, 231)

13. 자연 치료법을 사용하라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 주시고자 마련하신 치료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자연의 역사를 도와 주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회복되기에 가장 유리한 상태에 두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 그 지식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편의를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리한 모든 점을 취하고, 천연계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우리가 병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더욱 많이 기울여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특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에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우리는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다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별을 전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이 15년 간 연장될 것이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면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는 지시가 주어졌다(사 38:21)." (치료, 231-232)

14. 나음을 입었으면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사별(死別)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주께 새로운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열 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 무분별한 아홉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치료, 233)

15.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많은 빛을 받은 후에도 그릇된 습관을 간직하고, 자아 방종에 빠져 개혁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왜곡된 식욕을 만족시키고자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종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사 50:11).

'주께서는 나를 고쳐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식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참람해지고자 하는 자들은 미구에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주께서 그대들을 자비롭게 고치셨다고 해서 그대들이 자아 방종의 세상 습관에 스스로를 결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8:11)고 명령하신 대로 하라. 식욕이 그대들의 신(神)이 되어서는 안 된다." (9 증언, 164)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16. 현재 이스라엘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을 모셔야 한다. 주께서는 현대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떠나 심령의 전(殿)을 깨끗하게 할 때, 병자들을 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위한 그분의 치료제를 사용하시므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빛을 내게 주셨다. 믿음으로 인간이 질병을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단순한 치료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 그의 노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9 증언, 164)

17. 하나님의 천사들이 섬기기(봉사)위해 기다리고 있음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중에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 영혼과 육체를 다같이 봉사할 수 있는 구원케 하는 복음의 대진리가 사소한 일에 지나친 관심을 쓰는 가운데 망각되는 수가 있다. 그대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에 그대는 저들에게서 놀라운 축복을 몰아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의

요청에 따라 그 영혼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움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저들의 일상 생활과 대화속에서 진리를 증거한다면 저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들이 하는 노력과 협력할 것이다. 죄로 인해 고통 당하는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며, 저들이 그분의 찬양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기구가 될 것이다." (의료, 195)

18.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임

"거룩한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병실에 함께 계시며 참으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제자들도 옛날의 주의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약 5:15)할 것이다." (복음, 214-215)

19.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 14:13)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만일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받지 못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 230)

20.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심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즉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은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에 양보해 달라고 그분께 요구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분의 목적에 흡수되어 그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욕망과 흥미는 그분의 뜻 가운데 잃어버린바 되어야 한다. 믿음을 시험하는 이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다.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놓여 진실하고 성실한지, 혹은 환경에 좌우되어 불안하고 변하기 쉬운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실천을 통하여 강화된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귀중한 약속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치료, 230-231)

기억할 말씀: "…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치료, 205)

연구할 과제

1.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토의해 보라. (치료, 205-206)
2. 언제 야고보서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의료, 16-17)
3. 만약 병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의료, 260)
4.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의 치유를 서로 비교해 보라. (치료, 80)
5. 그릇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치료, 209)
6. 응답받은 기도(Answered Prayer)와 들어주는 기도(승인된 기도-Granted Prayer)의 차이를 말해 보라. (치료, 210)
7.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 66:18; 2 증언, 148)
8. 들어주는 기도 또는 승인된 기도가 어떻게 하면 저주도 될 수 있는가? (2 증언, 148)
9.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제안하라. (2 증언, 147)
10. 기도를 통해 나음을 입은 예들을 들어보라. (화잇 자서전, 74-76, 121-123, 145, 146, 151-153)

제 14 장

나의 시간

제103과 일하는 엿새와 안식일

성경절 연구: 창2:1-9; 출 20:3-11; 31:13, 16, 17

요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부조, 307)

예언의 신 연구

창조 사업과 그 기념물

1. 창조 사업이 마쳐짐

"창조는 이제 완성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2:1-3, 1:31). 에덴은 지상에서 꽃같이 화려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였다.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 38:7)." (부조, 47)

2. 창조 사업에 엿새가 소모되었음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美)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에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2,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그분은 피곤한 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당신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부조, 47)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일과 그것의 기초가 된 사실들

을 시인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엿새 동안에 행해져야 할 일과 일곱째 날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본을 가리키시면서, 이와 같이 주일 제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1). 우리가 창조 주간의 날들이 글자대로 24시간 하루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이유는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 매 주일의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이다.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쉬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한다." (부조, 111)

3. 하나님께서 창조 기념물을 세우셨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의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숭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칠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부조, 47-48)

4. 인류에게 안식일이 필요되었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칠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의도하셨다. 천연계는 사람들의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 19:1, 2). 땅을 옷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喬木)들, 피어나는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부조, 48)

5. 하늘과 땅이 창조 사업을 기뻐함

"안식일 준수 속에 큰 축복들이 펼쳐진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라신다. 안식일을 제정할 그 때에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을 만족하게 바라보셨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창

1:31)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욥 38:7)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분의 완전한 작품을 손상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고 선함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의 증거로 아직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이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 또한 그분을 앎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기를 바라신다." (6 증언, 349)

표징(적)과 인이 되는 안식일

6.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가 됨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출 31:16, 17)." (6 증언, 349)

7. 현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하는 표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식일이 구별되는 표였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이며, 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다. 그것은 그분의 충성된 신민들과 범죄자들을 구분한다." (6 증언, 349-350)

8. 성결케 하는 표 - 안식일

"구름기둥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선포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출 31:13).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케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 그분의 거룩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을 인정하시는 표로 인식된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의 담보물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 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6 증언, 350)

9.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인을 내포함

"열 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입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4-27)." (6 증언, 350)

10.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칭호임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7:2, 3; 14:1)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준다. 제칠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이 넷째 계명은 열 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부조, 307)

안식일 예배(행사)

11. 적은 무리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두세 사람의 신자들이 있더라도 안식일에 함께 모여 주의 약속을 구하도록 하라.

그분의 거룩한 날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작은 무리들의 모임들은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모임 중에 귀한 손님으로 계심을 믿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참된 경배자들은 다음의 약속을 구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 31:13)." (6 증언, 360-361)

12. 짧은 설교, 또는 성경을 읽음

"안식일 예배 시의 설교는 대체로 간략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표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목사가 없을 시에 한 사람이 예배의 인도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설교를 한다던가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 설교보다는 짧고 재미있는 성경 읽기가 더욱 이로울 경우가 많다. 이어서 기도와 간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 중 신체적 · 정신적 힘을 다 소모하여 버려서 안식일 예배 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생한 감화를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상적인 일을 적게 하라. 안식일에 그분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지 말 것이다. 그대들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그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말

씀의 양식을 주라.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라. 헌신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귀한 생명이 그분께 바쳐지도록 하라." (6 증언, 361)

13. 안식일에 잠을 자는 것과 게으름을 피는 자

"아무도 예배드리러 와서 자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자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일상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잠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그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예배를 일상 생활보다도 더 낮은 곳에 방치할 작정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은 무용한 게으름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의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위하여 엿새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칠일을 축복하시고 거룩케 하셨으며,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 날에 그분께서는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 날에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갈망하신다." (6 증언, 361-362)

14.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

"각자는 안식일 집회들을 흥미있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교환하기 위하여, 매일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일깨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신실한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집회에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삶의 시련과 투쟁에 있어서 영혼을 힘있게 한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만 생각하여 자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각자는 인류라는 거대한 망의 한 부분이다. 개인의 경험은 이웃들의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얻어야 하는 축복의 백분지 일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수용하는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불타오르지 않는가?" (6 증언, 362)

15.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거기 계셔서 참 예배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려서 매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 마음의 모든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라. 성전에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속한 바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을 드려라. 예배의 설교자나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를 통하여 큰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라. 스스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구하라." (6 증언, 362-363)

16. 하늘 가는 문이 될 것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예배 장소가 매우 보잘것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시는 경우는 없다. 신령과 진정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 문처럼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 내진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들여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다. 시련의 도끼와 망치와 끌이 기술이 좋으신 분의 손에 들려 있다. 그것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 영혼을 완성시키고자 사용된다. 궁정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귀한 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6 증언, 363)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임

17. 찬양과 감사로써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달라고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광야를 열매가 맺히는 밭으로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 그러나 너무 찬양이 없으므로 그분의 마음은 우울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더 강한 표현들이 백성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바라신다." (6 증언, 364)

18.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이 땅의 신자들과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한 하늘 존재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이는 성도들의 회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땅 곧 바깥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하늘 안뜰에서 그들이 듣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하여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자의 감사와 찬미가 하늘의 찬양 속으로 들어가며, 찬양과 즐거운 소리가 하늘 궁정에 울려 퍼진다. 천사들이 샘 근원에서 마시는 동안 지상의 성도들은 보좌로부터 흘러 나는 맑은 강,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이 강에서 마신다. 오, 우리가 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가까움을 느낄 수 있으면 오죽 좋으랴! 세상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빛의 천사들을 동무로 하고 있다. 살아 있는 모든 영혼을 소리 없는 증인이 지키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고자 애쓰고 있다. 희망이 있을 동안, 즉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하여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하늘의 존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며 간증과 노래와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찬양이 하늘 천군의 찬양대에 의해서 보충됨을 기억하자." (6 증언, 366-367)

19.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려 있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11:19)

우리 순례길에서 왜 우리의 영적 노래 소리를 일깨우지 않는가? 왜 단순함과 열의 있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더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촛대가 우리로부터 옮겨가지 않도록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렸다. 그 문지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모든 교회를 위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분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좌 주위를 둘러싼 하늘 찬양대의 노래와 감사의 주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시온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은 가장 찬란하며, 귀한 감사의 노래가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들릴 것이다. 적은 실망과 곤란함 때문에 생기는 불평하고 투덜거림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금으로된 안약을 바를 때에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사단의 무거운 그림자를 가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공로의 향을 드리는 우리의 옹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대로, 실상대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함과 다양함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6 증언, 368)

20. 더 나은 땅을 위해 준비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완전한 사랑을 함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이런 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분께서 마련하실 처소에 지상의 거민들이 적합하게 되도록 해 준다. 매 안식일과 월삭에 높은 음조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고자 그들은 성소에 모일 것이다." (6 증언, 368)

기억할 말씀: "하나님의 정부의 표를 받아 들이는 자마다 저들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아래 두는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을 순종이라고 하는 황금 고리에 붙잡아 매는 것인데 이 고리들은 약속들로 되어 있다." (6 증언, 350)

연구할 과제

1. 땅에 있는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가? (창 2:7; 1소망 371-372)
2.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6 증언, 364)
3. 환경이 안식일에 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4 증언, 251)
4.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에 일요일에 노동하는 것을 피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모, 459)
5.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가비 후서(외경) 2:4-7절; 선지 436; 살아 221; 쟁하 504)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바 된 두 돌비가 의의 원칙으로서 모든 세상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남녀들이 저들의 구원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도 죄에 대한 변명을 찾지 못할 것이다. 법 가운데 있는 의의 원칙에 의해서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RH 1909. 1. 28)

제104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성경절 연구: 출 16:22-30; 눅 23:54-56

요점: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므로, 그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들이 연결되어져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을 건너고 호숫가를 따라서, 혹은 작은 나무숲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러 가는 가족은 행복할 것이다. 만물이라는 펼쳐진 책으로부터 실례를 끌어내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푸른 나무 아래 모여 하늘 아버지를 배우고 찬미하는 부모는 행복할 것이다." (교육, 251)

예언의 신 연구

안식일에 대한 개혁이 필요됨

1. 참된 안식일이 높여져야만 함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금으로된 걸쇠이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이 범해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더럽힘을 당하였다. 안식일은 죄의 사람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찢겨져 나갔으며, 보통 일하는 날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존귀케 되었다. 율법이 깨어졌다. 이 파손된 것을 수리해야 한다. 참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로서 제자리에 올려져야 한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율법을 찬미하며 그것을 존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래 황폐된 곳을 일으키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야 한다.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사 58:12-14절)." (6 증언, 350-352)

2. 마지막 논쟁점이 될 것임

"안식일 문제는 전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정점이 될 것이다. 인간이 하늘을 다스리는 원칙보다도 사단의 원칙을 존중하였다. 그들은 사단이 자기의 권위의 표로 세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당신의 요구에 도장을 찍으셨다. 이 두 가지 안식일 제도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지울 수 없는 표로서 그 창시자의 이름을 각각 지니고 있다.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받거나 반역의 나라의 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를 받은 나라의 신

민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안식일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6 증언, 352-353)

3.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야 함

"새로운 교회들을 설립함에 있어서 목사들은 합당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주의 깊은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쉼의 날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 일요일 준수자들 사이에 만연한 해이한 준수가 모방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지닌 자와 또 반역의 나라의 표를 지니는 자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뚜렷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주님께서는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욕을 당하셨다." (6 증언, 353)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4. 주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음

"넷째 계명 서두에 주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들이 수많은 걱정과 문제 속에서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핑계할 유혹을 받거나, 그 신성한 중요성을 잊을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고 계명대로 그것을 지키고자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법조항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을 삶의 모든 부분과 영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안식일이, 그분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이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나라의 율법을 매일 실천할 것이다. 안식일의 성결케 함이 그들 위에 머물기를 매일 기도할 것이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며, 그분의 품성의 완성을 구현할 것이다. 매일 그들의 빛은 선행을 통하여 타인에게 비춰질 것이다." (6 증언, 353-354)

5. 그대의 가정 안에 있는 적은 교회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에 해당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먼저 보는 승리는 가정생활 속에 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 주일 내내 부모들은 가정이 학교가 되어 자녀들이 위에 있는 궁정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라. 정신을 사납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여 한 주일 동안, 자녀들을 주사 훈련시키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이 살라. 집에서 작은 교회를 훈련하여, 안식일에 모두 성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 매일 아침, 저녁 그대의 자녀들을 그분의 피로 사신 유산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며 특권인 것을 가르치라.

부모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만드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성경절들을 자주 외우게 하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성경절들을 외우게 하라. 귀한 말씀들은 자주 반복시키는 것이 좋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시 62:5)." (6 증언, 354)

6. 금요일은 특별히 준비하는 날임

"안식일 준비를 한 주일 내내 할 것이지만, 금요일은 특별한 예비일이 되어야 한다.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만나)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출 16:23; 민 11:8).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온 양식은 요리해야 되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이 요리하는 일을 예비일인 금요일에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것은 시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보기 원하셨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지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완전한 지침서이다.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것이다." (6 증언, 354-355)

7. 집회에 어떻게(어떤 복장으로) 나가야 할까?

"많은 이들은 안식일 예배에 올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들은 주일 중에 입는 보통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에 참석할 때에 입을 특별한 옷을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지만, 우리의 외모에 무신경해서는 안 된다. 장식은 없어도, 우리는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모로나 마음으로나 순결해야 한다." (6 증언, 355)

8. 안식일의 시작과 끝에 방심하지 않도록 하라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가 완료되게 하라. 모든 의복이 준비되고, 모든 요리가 마쳐졌는가 확인하라. 신발은 닦아 놓고, 목욕을 하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옷을 수선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쾌락을 구하거나, 기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상 일을 제쳐 놓고, 세속적인 모든 신문, 잡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준비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준비를 하는 데 참여하게 하라.

우리는 안식일의 모든 부분을 열렬히 지켜야 한다. 매 순간이 다 바쳐진 시간이며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가능할 때마다 사용자들은 고용인들에게 금요일 정오부터 안식일 시작 시간까지를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어 그들이 주의 날을 고요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물질적으로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6 증언, 355-356)

9. 모든 불화를 없이하라

"예비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날에 교회나 가족 중에서 형제 사이에 갈라진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악의를 영혼으로부터 몰아내어야 한다. 겸손한 정신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약 5:16)." (6 증언, 356)

10. 세속에 관한 사업을 중단하라

"죄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순결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득을 얻었는지를 멈추어 서서 생각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지난 한 주일이 영적으로 손실이었는지 아니면 이득이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삼상 2:30)리라." (6 증언, 356)

가정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1. 안식일에 하는 대화

"P 형제여, 그대는 넷째 계명의 신성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하며, 그대 가정에서와 그대의 행동을 통하여 안식일을 격하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디에서나 그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대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이제까지 이 점에 대하여 그대가 끼쳐 온 영향력을 깨뜨려야 한다. 그대는 흔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대는 흔히 망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사사로운 말을 하였다. 그대는 주의하지 않았으며, 헌신하지 않은 자들과 그 날의 일상 문제 즉 이익과 손해, 주식, 농사, 식량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대의 감화력은 손상을 입는다. 그대는 개혁하여야 한다." (2 증언, 703)

12.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노동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중 집회에 참석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중대한 실수를 범해 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은 다른 사람들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주 이 특권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의사들은 빈번히 병자들을 방문하도록 요청을 받고 그것이 피곤한 노동의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노력은 자비의 사업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구주께서 선언하셨다. 그러나 특별한 변화 없이 글을 쓰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 그들의 안식일을 정규적으로 바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가치가 없는 본을 남기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4 증언, 539)

13. 해가 지기 전에

"일몰 시간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미하고, 기도하도록 하라. 이 일에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 점에 태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존귀케 하고자 모든 식구들이 예비되도록 특별한 준비를 하는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안식일의 귀한 시간이 잠자리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 아침에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만일 늦게 일어나면 아침 식사와 안식일 학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혼란하고 부산하게 될 것이다. 서두르고, 부딪히고, 성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집안에 불경건한 느낌이 생길 것이다. 안식일이 그렇게 더럽혀지면, 그 날은 피곤한 날이 되며, 안식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기보다는 겁이 날 것이다." (6 증언, 356-357)

14. 안식일을 위한 음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안식일에 평일보다 더 많은 음식, 갖가지 음식들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음식은 매우 단순해야 하며 적게 먹어서 정신이 맑고 힘이 있어서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과식은 정신을 흐리게 한다. 가장 귀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정신이 부적당한 식사로 혼란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많은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안식일에 요리하는 일을 피해야 하지만, 찬 음식을 꼭 먹을 필요는 없다. 추운 날에는 전날 준비한 음식을 데워 먹으라. 비록 단순하지만 맛있고 식욕이 당기게 요리하라. 그리고 매일 먹지 아니하는 특식을 준비하라." (6 증언, 357)

15. 안식일에 가족 예배는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가족 예배 시에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라. 각자가 다 성경을 가져와서 한두 절씩 읽도록 하라. 잘 아는 찬미를 몇 장 부르고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의 모본을 주셨다. 주의 기도는 형식으로만 반복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고, 진지하며, 포괄적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예증이다. 단순한 간구 속에서 주께 그대의 필요를 아뢰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를 표하라. 그리하여 그대는 예수를 그대의 가정과 마음에 반가운 손님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다." (6 증언, 357-358)

16. 부모들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함

"안식일학교와 예배 시간은 안식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에게 맡겨진 부분은 안식일 시간 중에 가장 신성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기간의 대부분을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많은 가정들에서 어린 자녀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방임된다. 자녀들끼리만 방치하면 마음이 들뜨게 되고, 놀기 시작하거나 엉뚱한 장난을 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를 상실한다.

청명한 날씨에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들과 논을 거닐라. 천연계의 아름다운 것들 사이에서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를 설명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사업을 묘사하라. 세상이 그분의 손에서 처음 생겼을 때에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라. 각종 꽃과 관목과 나무들은 그 조물주의 목적에 응하였다. 사람의 눈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조화된 음악이었다.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보여 주라. 가시와 엉겅퀴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은 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알려 주라. 비록 죄의 저주로 손상되었지만 지구가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 주라. 푸른 들, 키 큰 나무들, 빛나는 햇살, 구름, 이슬, 밤의 적막함,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아름다운 달,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를 증거한다.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을 비추는 한줄기의 빛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요 3:16) 하셨는지를 말해 주라.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려주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했던 어린 예수, 가정을 돕고 뒷받침했던 신실하고 부지런한 소년 예수에 관하여 말해 주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들에게 구주께서 어린 시절의 시련과 곤란과 유혹과 희망과 기쁨을 알며, 그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그들과 함께 성경 역사의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읽어라. 그들에게 안식일 학교에서 배운 것을 물어 보고, 다음 안식일 교과를 함께 공부하라." (6 증언, 358-359)

17. 안식일의 해가 석양에 넘어갈 때

"해가 넘어갈 때에 기도와 찬송으로 거룩한 시간이 끝남을 장식하고, 수고의 한

주일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부모들은 안식일을, 마땅한 대로, 주일 중 가장 즐거운 날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이 그 날을 즐거운 날이라, 날 중의 날이라. 여호와께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권면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그대의 자녀들이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면 그대는 율례와 모본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마음에 진리가 깊이 아로새겨지면 완전히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조금 흐리게 될는지는 몰라도 결코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받은 감동은 훗날에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와 집을 떠나 살아야 할 형편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 있는 한 유아 시절과 어린 시절에 받은 교훈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6 증언, 359)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8. 부모들과 자녀들이 안식일 학교에 참석함

"안식일학교는 젊은이들에게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제공하여 준다. 부모들은 이 이익을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감사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만일, 부모들이 먼저 안식일 학교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관심을 나타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식일 학교에서는 부모들도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더 예언을 잘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실제적 교훈에 대하여 좀더 철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그저 무관심하게 읽어 내려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된 진리에 명철하여질 수가 없다." (안교, 52-53)

19. 하나님의 집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도덕적 취향은 고상하고, 세련되고,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슬프게도 등한히 여겨져 왔다. 그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그러므로 무질서와 불경건이 널리 퍼졌고, 하나님은 모독을 받아 오셨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과 백성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드높은 견해를 갖지 못했다면,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너무도 흔히 그들을 책임져야 할 부모에게서 떠나서 그룹에 가담한다. 그들이 하나님 면전에 있고, 그분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박하고, 경솔하며, 그들은 속삭이고, 웃고,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고, 무관심하다. 그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대사이며, 그가 전하는 기별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기능 중 하나이고, 그 기능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특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도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좀처럼 받지 못한다." (5 증언, 496-497)

20. 부모들이여, 안식일을 기쁜 날로 만들라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어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나누어 줄 방법을 고안하며, 가족들로 하여금 영적인 사물에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제시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안

식일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도록 안식일을 기쁜 날로 만들라." (2 증언, 585)

기억할 말씀: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한데 묶어 주는 황금 고리이다." (6 증언, 351)

연구할 과제

1. 안식일은 계명에 대한 반대(범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부조, 상권 88)
2. 하나님의 율법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언급된 멍에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갈리디아서 5장 1절에 언급된 멍에와 같은 것인가? (2 소망, 54)
3.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으로 나타났는가? (상동)
4. 우리의 식당들의 운영에 대해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는가? (7 증언, 121-123)
5. 학생들은 어떻게 하므로 안식일을 거룩되지 못하게 하는가? (4 증언, 114)
6. "저녁"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라. (레 23:32; 막1:32; 1 증언, 116)
7. 안식일에 불피우는 일에 대해서 의논해 보라. (출 35:3; 부조, 하권 11)
8. 안식일에 여행하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가? (6 증언, 359)
9. 안식일에 꼭 여행을 해야만 할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의 말씀이 있는가? (6 증언, 360)
10. 우리 앞에 있는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분리될 것인가? (9 증언, 16)

제105과 휴식하는 시간 - (레크레이션)

성경절 연구: 요 17:15-17; 눅 14:12-14

요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휴양을 즐기는 것과 쾌락과 오락만을 위주로 한 세속적인 모임과의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도와 그리스도 및 거룩한 사물들에 대하여 말하는 대신에 세속적 인간들의 입술에서는 어리석은 웃음과 경박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부모, 336)

예언의 신 연구

세속적인 모임

1. 영혼을 얽어 매는 고리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장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음악회에 참석하고, 그 오락을 통하여 세상과 연합하는 것 등이 그들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사단은 그들의 욕망을 지도하고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가 가장 중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사단의 올무에 붙들어 매어 그의 영원한 파멸을 결정하는 사건들의 사슬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증언, 92-93)

2. 젊은 친구들의 세속적 모임

"현재와 같은 사회 상태에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을 제어하여 바른 성경의 법칙에 따라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제재를 참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며 자행자지 하고자 한다. 특별히 10세로부터 18세까지 사이에는 젊은 친구들의 세속적 모임에 가는 것이 별로 해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거기에 위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저들은 저희 자녀들의 특이한 기질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모든 세속적인 사물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 모든 자극적인 오락에서 자녀들을 격리시켜야만 한다." (부모, 326-327)

3.사단이 마치 환영 받는 손님처럼 대우 받음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17).

그러나 ____에서 사교집회로 모이는 무리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기관이나 교회의 치욕이 되어온 환락의 회합들이었다. 이들은 의복의 자랑과 외모의 자만과 자기 만족과 환락과 경박한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 사단은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대를 받으며 이런 모임들을 장려하는 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 (부모, 339)

4. 비열한 웃음이 있으나 양심은 잠자고 있음

"이 같은 무리에 대한 광경이 내게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회합하였다. 한 사람이 악기 앞에 앉아 있는데 지켜보는 천사들을 통곡 시킬 그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거기에는 환락이 있었고 비열한 웃음이 있었고 많은 열광이 있었으며 일종의 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이란 사단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수치로 여길 열성이요 심취함이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 참석한 자들로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그러한 환경에 이끌리었다가 그 수치스러운 행동을 충심으로 회개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볼 만하다." (부모, 339)

5. 저들은 사단이 주장하는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됨

"사단은 ___에 그의 올무를 크게 펴 왔다. 품성과 신앙적인 체험면에 피상적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이들은 마귀의 미끼로 이용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쾌락이나 운동 집회에는 민감하며 저들의 감화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 성경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써 왔던 젊은 남녀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도록 설득된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 무리들 속에 이끌려 들어간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혀야 할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배우기 위하여 하늘의 표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은 이러한 오락들이 영혼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저들로 그리스도의 의인 품성의 흰 두루마기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단의 집회인 것을 실로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저들은 고립됐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가고 싶어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저들은 심령에 전혀 신령한 감화를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의 감화를 받게 된다. …." (부모, 340-341)

즐거운(행복한) 경우들

6. 그리스도의 사교성

"때때로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지 아니하는 그의 형들과 예수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러나 예수는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풍부히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있을 때에는 가정 안에 좀더 순결한 분위기가 나타났으며 그의 생애는 교제하는 자들 가운데서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였다. 그는 무례하고 난폭하고 버릇없는 자들 곧, 부정한 세리, 무모한 탕아,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 나라의 군인, 거친 농부, 잡된 무리들 가운데서 해받음 없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행하셨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보실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는 그들의 짐을 나눠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가 천연계에서 배우셨던 교훈을 그들에게 여러 번 말해 주었다." (소망, 90)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는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는 그들을 그들의 일상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는 교훈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로 당신의 신령한 임재의 감화를 받게 하셨다. 그는 자주 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생활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가셨다." (소망, 151)

7. 분리되어야 하지만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됨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계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 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저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상케 하고 고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신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라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이 부패하여 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부모, 323)

8. 어린이들과 하나가 되라

"청소년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저들 자신들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라. 또한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라. 진실되고 진지한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필요된다. 모든 좁은 소견들은 없이 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감시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 교사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저들 주위를 배회하지 않으면서도 – 마치 정복을 차려 입은 군인들이 저들을 감시하듯 감시하도록 하며, 교사의 존엄성을 굽히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의 즐기는 오락과 운동에 있어서 어린이들과 하나같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라. 그대가 그곳에 있어 함께 하는 것은 저들의 행위를 꼴짓는데 도움을 준다. 저들과 함께 하는 그 일이 그대의 맥박을 새로운 사랑으로 뛰게 해 준다. 청소년들은 동정, 애정(사랑)이 필요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게 된다.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라는 정신이 저들을 주관하게 되면, 저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은 하나 저들 편에 저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임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더러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행한 실제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대우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저들의 의무인양 느끼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저들을 고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인상을 지우는 것이 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는 자들은 거의 없다." (교육 기초, 116)

9. 특권들이 허락됨

"학생들을 다루는 우리들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연령과 성질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나이 어린 자와 나이 많은 자를 꼭 같이 취급할 수 없다. 확고한 체험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남녀들에게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지 않는 몇 가지 특권들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연령, 조건들 및 정신적인 적성(適性)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확고부동한 정신과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되며 나이 어리고 미숙한 학생들의 무익하고 무모한 교제를 금하는 엄격한 규칙을 해이(解弛)하게 다루어서도 안될 것이다." (부모, 101)

10. 행복한(즐거운) 저녁 시간

"부모들은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라. 하루 중의 근심과 어려웠던 것들을 벗어 버려라. 남편이요 아버지된 자는 가정 식구들로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사업상의 고민 거리들을 집으로 들여 오지 않는 것을 하나의 법으로 삼

는다고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아내의 조언이 필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들 둘 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연하바함으로 어려움으로부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상 고민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기억하라.

저녁 시간은 할 수만 있으면 즐겁게 지내도록 하라. 가정들로 하여금 즐거움, 예절 그리고 사랑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면 가정이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쓸데없는 걱정 거리들을 불러 들이고, 성미가 급하고, 남의 흠이나 들먹이는 일을 하게 되면 자녀들 역시 만족해 하지 않으며 싸움을 일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엮겨운 장소가 된다. 자녀들을 가정보다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분별없는 동료들에게서 또는 거리에서 더 큰 기쁨을 찾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극기하고 인내를 길렀더라면 방지될 수 있을 것인가. 가족 전원이 자아를 조절(극복)한다고 하면 가정은 낙원이 될 것이다. 그대의 방을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운 장소로 만들라. 자녀들로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장소로 찾도록 만들라. 저들로 거리의 불량배들을 찾거나 사악한 어떤 것들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라. 만약 가정 생활이 응당되어야 하는 것처럼 유지된다면, 청년들이 가정을 떠나게 될 경우에 가정에서 형성된 저들의 습관은 유혹을 대항하는 힘있는 방패가 될 것이다." (교육 기초, 154)

사교의 힘

11. 사교성은 냥쭝임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과 애정과 영적 사물을 빨리 깨닫는 이해력 등은 귀한 달란트인 동시에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장점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이런 특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만 좋으면 그들은 큰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궁핍한 자에게 한푼도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의 편협함을 업신여긴다. 그들은 그같이 인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그가 잘못 사용한 달란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희는 자기 자신과 이러한 편협한 자들을 비교해 보고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속이고 있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자질은 그들의 책임을 더 중하게 할 뿐이다. 남보다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애정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다. 사교성(社交性)도 또한 달란트로 볼 수 있다. 이 달란트를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같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사교성을 이용하지 않고 버려 두는 사람은 저희가 인색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는 주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았다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실물, 352-353)

12. 사교성을 계발하라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사교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지고 오직 그들만이 즐겨야 할 거룩하고 아름답고 탐스런 보배로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기호에 맞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비록 그들 스스로 택한 친구들이 아닐지라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드러운 관심과 사교적 특성들을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주변에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경건의 빛을 비추셨다. 학생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젊은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자 노력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 (6 증언, 172-173)

13. 마음을 쇠하게 하지 않는 오락

"예수님이 기쁨의 샘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그분은 인간들의 처참한 형편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 많은 행복의 근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들은 어떤 쾌락이 바른 것이며 바르지 못한 것인지 실수함 없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마음과 영혼을 쇠하게 하지 않는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오락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자아를 파멸케 하는 슬픈 영향을 남기지 않을 것이요, 유용성을 제한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정신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저들은 참으로 안전하다." (교육 기초, 84)

그대의 화롯가로 저들을 초대하라

14. 저들을 초대하라

"다시 나는 그대에게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의 필요를 강조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책임, 개인적 사업이 있다. 그것은 교훈과 개인적 노력과 모본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사교성을 계발해야 하는데 단순히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 개인적 노력으로 그들과 가까이하라. 시험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어 주라. 악은 모든 면에서 그들을 초청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자 노력하라. 그들이 결점 투성이라면, 그 잘못들을 고쳐 주고자 노력하라. 그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들을 그대의 화로 가로 데려오고, 그대의 가족 제단에 그들을 초청하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수천 가지의 사업이 있다. 사단의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는 유혹적이요, 유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 먹는 자는 누구나 저주의 선고를 받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 가는 길을 깨끗하고 밝고 매력적으로 만들므로, 사단의 파괴적인 마법에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것임을 기억하자." (5 증언, 599-600)

15. 우리 가정으로 저들을 환영하라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교적 접대는 세상의 관습을 그대로 따름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축제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을 조력하는 사람이거나 종교 지도자와 전도자이거나를 막론한 레위인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손님으로 인정되어 모든 경우의 사회적 혹은 종교적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병이 들거나 어려울 때는 친절하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가정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이 영접해 줄 때 흔히 집이 없이 가난과 많은 실망으로

고투하고 있는 선교사 간호원과 교사, 걱정에 눌리고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어머니, 연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치료, 352-353)

16. 과시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대에게 큰 짐을 지워 줄 손님들이 아니다. 그대는 공을 많이 들이거나 비용을 많이 써서 그들을 접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대는 겉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하고, 화롯가에 같이 앉고, 가족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누고, 기도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축복을 나누는 특권을 가짐으로써 그와 같은 믿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이다." (치료, 354)

17. 도피소(피난처)가 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동정은 자신의 영역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가야 한다. 자기의 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감화를 주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따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들은 시험당하는 젊은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기로(岐路)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든 감화력과 인상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그들의 운명을 꼴지워 주는 길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악은 그들을 손짓하고 있다. 악의 장소는 찬란하고 매력적이다. 거기에 가는 자들은 누구나 환영을 받는다. 우리의 주위에는 가정이 없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가정이 도움이 못되고 향상의 능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그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다." (치료, 354)

18. 교훈을 겸한 환대(접대)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되는 오락 분위기가 있다. 계몽되어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은 순결한 것뿐만 아니라 교훈적인 것에서부터 환대와 오락을 위한 풍부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옥외에서 즐기는 오락,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명상하는 일들이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5 증언, 653)

19. 생애의 기회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우리는 다만 한 번만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생애를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절하고 자아희생적인 정신과 확고한 목적을 요구한다. 아무리 작은 등불일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켜져 있는 동안에는 많은 다른 등을 밝혀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충실히 이용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생애의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결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치유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늘날 불모(不毛)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과 미와 결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치료, 355)

20. 하늘에 우리가 도와 준 청소년들이 있을 것임

"우리는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 없이 죽어 가는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쾌적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 없는 어린것들을 집으로 들이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동정과 친절한 말과 존경과 예절을 그리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초청하라. 그대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소원한다면, 그대는 그분의 피로 사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은 경험이 미숙한 자들과 또 동정과 관심이 필요한 많은 이들과 관련을 맺고 산다. 그들은 구조가 필요하다.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젊은 이들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무기력하고 무식하고 그분의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자를 향해 자애를 나타내시는 분의 힘으로 우리는 그들의 미래의 복지를 위하여, 기독교인의 품성을 꼴 짓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때때로 우리의 인내심을 매우 심하게 시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0).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 구주께서는 선포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이 일을 행한 자들의 이마에는 희생의 관이 씌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가 도와주었던 자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던 자들을, 우리가 유혹에서부터 끌어내었던 자들을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4)." (6 증언, 348)

기억할 말씀: "환경이 친구들을 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의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치료, 64)

연구할 과제

1. 소돔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는가? (1 증언, 395)
2. 소창(Recreation)과 오락(Amusement)의 차이는 무엇인가? (청년, 454 (교육, 268)
3.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명랑하고 행복해야" 한다면 "경박함, 익살부림, 농담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청년, 455; 2 증언, 236)
4.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분간하는 능력이 때때로 소멸되는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청년, 478)
5. 천박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 487-488)
6.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청년, 514)
7. 하늘에서의 사회 생활에 대해 말해 보라. (가정, 567-568)
8. 히브리서 13장 2절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들어 보라. (가정, 462)
9. 방문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 적당한 제안을 들어 보라. (가정, 466-467)
10. 예수께서 환대에 대한 어떤 모본을 남기셨는가? (가정, 468)

제106과 오락과 게임 - 계속

성경절 연구: 전 3:1; 11:9; 12:13, 14

요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어떤 오락장이나 유흥에도 들어가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극장이나 당구장, 혹은 볼링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화려한 댄서와 연합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이면 어떠한 매력을 가진 쾌락에도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398)

예언의 신 연구

그리스도인의 레크리에이션(휴양), 아니면 세속적 쾌락

1. 정신을 새롭게 하고 신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적 · 정신적 힘을 사용하려는 목적 하에, 무해한 휴양으로 정신을 새롭게 하고 신체를 활발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우리의 휴양은 어리석은 환락의 장면이나 무의미한 장난의 형태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동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향상시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휴양을 즐길 수 있다." (청년, 364)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신체를 원기 왕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우리들의 모든 힘을 항상 최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취하는 휴양으로 부여된 모든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한 감화를 끼치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휴양을 계획하고 또한 그렇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새로운 정신과 원기를 회복한 몸으로 휴양지에서 집으로 돌아와 더 좋은 희망과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일에 착수할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 (청년, 385)

2. 저들 안에는 행복해 할 만한 것이 없음

"사교를 좋아하는 자들은 빈번히 이런 특성에 탐닉되어 그것이 정욕을 지배하기까지 이른다. 아름답게 꾸미고, 오락의 장소들을 찾아가고, 허영보다 더 못한 문제들을 놓고 웃고 잡담하고 이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다. 그들은 흥분시키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행하다.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처럼 분별없고 무모한 다른 젊은이들의 회합에 행복을 의존한다. 고상한 목적에 돌려져야 할 능력을 그들은 어리석음과 정신적 낭비에 쓴다." (4 증언, 624)

3. 돈을 낭비하게 됨

"올바로 발휘된 자선은 사람의 정신적 · 도덕적 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궁핍한 자를 축복하는 일에 가장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한다. 재물을 가

진 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푼돈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이다. 만일 양심이 깨우쳐진다면, 그 양심은 식욕, 교만, 허영, 쾌락에 대한 사랑 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쓸데없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었어야 할 주님의 돈을 낭비한 사실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물을 낭비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3 증언, 401)

4. 권면의 말씀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일의 전환으로 일종의 운동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어떤 것이어야 함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곧 유익한 실제적 노동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영적 생애에 손실을 주는 인간적인 고안에 집착한다. 유희(遊戱)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님을 슬프시게 한다." (청년, 371)

"육체적 노동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정하셨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실생애의 의무들을 배우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야의 교육을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바쳐야 한다." (청년, 372)

5. 젊은이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

"세속적인 감화력에 굴복한 젊은 안식일 준수자들은 단련을 받아야 하고 확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날의 모든 위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련이 청년들 앞에 놓여 있다. 청년들은 괴로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이 가려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들 중의 더러는 불신자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기꺼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야유회나 기타 모든 쾌락을 위한 모임에 참석함으로 세상과 연합해 왔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해롭지 않은 오락에 참가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방종들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그들로 세상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청년, 375-376)

6. 세상에서 분리됨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사 불러내신, 교회의 큰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세상과 분리될 것을 요구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추종자들이 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당신에게 이끌려 오므로 그들을 세속적 요소로부터 분리시키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과 우정을 사랑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치되는 것이 없다." (청년, 377-378)

오락과 게임

7. 카드 놀이

"카드 놀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제와 경향은 위험하기 이를데 없다. … 이러한 오락은 영육간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거기에는 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없으며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상의 축척도 하나 없다. 때때로 그들은 가치 없고 비속한 문제에 관하여 담화하기가 일쑤다. …." (청년, 379-380)

8. 극장, 곡예(곡마단)에 가는 것은 어떤가?

"가장 위험한 쾌락의 장소 중 하나는 극장이다. 자주 주장되는 바와 같이 극장

은 도덕과 미덕의 학교이기는 커녕 부도덕의 온상이다. 악한 습관과 범죄의 경향이 이러한 오락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굳어진다. 저열한 음악과 음탕한 동작, 표정, 태도가 생각을 타락시키고 도덕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음행장에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청년은 부패한 원칙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상상에 해독을 끼치고 신앙적 인상을 파괴하며 조용한 즐거움과 인생의 진정한 현실에의 취미를 흐리게 하는데 있어 극장의 오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이러한 장면에 탐닉할 때마다 마치 마취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구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것과 같이 그에 대한 애착도 증가된다. 유일의 안전책은 극장이나 곡예, 또는 그 밖에 의문되는 오락의 장소를 피하는 일이다." (청년, 380)

9. 저열하고 속된 향락적 모임

"먹고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저열하고 속된 향락적 모임은 지옥에서부터 나온 정신의 충동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사단에게 바치는 제물에 불과하다. …." (청년, 382)

10. 댄스, 서양 장기, 바둑(서양식)

"휴양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며, 주로 정신 노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더 한층 필요하다. 심지어 신앙에 관계된 문제라 할지라도, 정신을 끊임없이 과도히 활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무도, 카드 놀이, 장기, 바둑 등과 같은 오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찬성할 수 없다. 하늘이 그것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락들은 큰 죄악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한다. 그것들은 그들의 성향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시키는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 속에 도박과 유흥으로 이끌어가는 이 놀이들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준다. 이 모든 놀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정죄되고, 전혀 손해를 주지 않는 어떤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청년, 392)

"오늘날 행해지는 댄스라는 오락은 타락을 키우는 학교요, 사회에 대한 무서운 저주이다. 만일 우리 대도시에서 해마다 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생애의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행습에 대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고민과 놀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인가! 어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공공연히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환락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그들을 유혹의 길에 두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어찌 청년 남녀들이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이 미혹하는 쾌락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청년, 399-400)

11. 당구장, 볼링장에 가는 것은 어떤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어떤 오락장이나 유흥에도 들어가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극장이나 당구장, 혹은 볼링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화려한 댄서와 연합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이면 어떠한 매력을 가진 쾌락에도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오락들을 변호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에 탐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장이나 무도장에서 보낸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장소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아무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한 장소에서 뵈옵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청년, 398)

12. 야구, 경마

"일반 사람들은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크리킷, 야구 및 권투 시합 같은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열중한다. 사단은 인간들이 교육이 되지 못하고 쓸모없으며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일에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한다.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제적 가치가 없는 경기의 선수가 될 때에 사단은 저들의 영혼을 취하려고 생명을 걸고 경기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재능을 빼앗고 그 대신에 마귀의 악한 속성들을 갖게 한다. 사람들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공작이다. 그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독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실 장소를 얻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며 청소년들의 감각을 혼란시킬 경기들이나 연극 등을 연출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다." (부모, 274-275)

"나는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격려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귀중한 보석들을 쌓아둔 보물 창고와 같아서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들을 필요로 한다. 지적 인간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막대한 시간이 경마, 크리킷 경기 및 구기 경기 등으로 낭비되었는가! 이러한 운동 경기에 대한 방종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의를 알고자하는 욕망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저들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인도할 것인가?" (부모, 456)

13. 정구, 크리킷 경기

"나는 밤에 그 날 운동장에서 행하여진 자들에 대하여 목격하였다. 괴상망칙한 흉내들을 내는 일에 참여한 학생들은 바로 원수의 정신을 본따서 한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학생들은 신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실을 보였다. 학생들이 테니스와 '크리킷' 경기에 가담하여 운동하는 광경이 내 앞에 전개되었다. 그 때에 나는 이런 오락의 성질에 관하여 교훈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오락들은 국가의 우상과 동일한 종류의 우상에 속하는 것임을 보여 주셨다." (부모, 350)

14. 축구, 권투는 어떤가?

"축구나 권투 같은 인기 있는 종류의 경기는 야만 행위의 학습장이 되었다. 그런 오락은 고대 로마의 경기 특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권력에 대한 애착, 단순한 폭력의 자랑, 생명에 대한 무모한 경시 등은 청소년들을 놀랄 만큼 타락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운동 경기도 비록 그처럼 야만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행하기 쉬운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운동 경기는 마음에 환락과 흥분을 자극하여 유용한 일을 싫어하게 하고, 실제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조장한다. 그런 경기는 또한 인생의 진실한 현실과 안전한 즐거움의 취미를 없애는 경향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도락과 방종을 향한 문이 열리고, 무서운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교육, 210-211)

"축구 경기와 이방인들을 따라 발명한 다른 것들에 그대의 힘의 얼마를 바치고 있는가? 이런 운동은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한다. 유용한 노동을 하는데 똑 같은 힘을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더욱 기쁨을 주는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

… 나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번의 경우라도 노는 일이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바쳤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분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위대한 교육자이시다. 나는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축구 경기나 권투 경기에 참여함으로 육체적 운동을 하게 한 것이나 극장 같은 것을 사용하신 예를 단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교육 기초, 229)

15. 연극이나 오페라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많은 오락들이 이교도들의 오락이 가져왔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誇示)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 무도회, 댄스, 카드놀이를 이용하여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육욕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곳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다." (부조, 459-460)

휴양과 운동

16. 옥외에서 주로 하라

"어린이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건강과 쾌활함과 활력과 잘 계발된 근육과 두뇌를 소유하게 하려면 그들은 호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또한 균형진 활동과 오락이 필요하다. 학교에 갇혀서 책에만 국한되어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건전한 신체 조직을 가질 수가 없다. 연구를 통하여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활동이 없이는 혈액을 두뇌로 모으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을 통한 혈액 순환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두뇌에 지나치게 혈액이 모이는 반면에 사지에는 너무 적게 모인다. 저들의 연구를 특정 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며, 그들 시간의 일부를 신체적 노동에 쏟아야 한다. 만일, 저들의 먹고, 입고, 잠자는 시간이 신체 법칙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3 증언, 137-138)

17. 육체와 정신을 위한 노동

"연구에 몰두하는 자들은 휴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신은 끊임없이 면밀한 사색에 혹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섬세한 뇌수(腦髓)의 기관이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운동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락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오락의 성질을 주의 깊이 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오락들은 육체적 · 정신적 · 도덕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 마음이 이것에 매혹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인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나 않을 것인가?" (청년, 379)

18. 합당한 사교적 집회

"모든 영향력 있는 재능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는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 사용되어야 한다. 청년 남녀들은 흔히 행해지는 운동 경기와 야회(夜會), 그리고 음악 연주회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의 모든 집회가 확고한 종교적 감화를 그 특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빛을 거듭거듭 받아왔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눅 10:25) 하고 물으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자 모이며, 다 같이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실 것이다." (청년, 391)

19.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공휴일을 세상의 본을 따라 지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려서도 안 될 것을 나는 보았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불만을 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감화에 직면하고 세상의 쾌락과 흥분에 부패하게 될 위험이 있는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무엇인가 연구해 내어 보다 더 위험한 오락을 대신할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대가 자녀들의 유익과 행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하라.

공휴일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이 한가한 날이 건강과 행복에 요긴하다고 믿도록 교육을 받아 왔으나 그 결과는 이 날들이 악으로 충만해 있음을 나타내 보여 준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변경시키는 한편 공휴일이 청소년들에게 흥미 있는 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 우리의 목적은 불신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오락의 장면에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었다." (가정, 472)

20. 공휴일을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지 아니하는가?

"공휴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심에 대한 기억을 우리 마음에 회상할 수 있는 날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심령 깊이 들어온 감명적인 경고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세상에는 많은 공휴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이와 경마와 도박과 흡연과 술취함에 열중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풍성하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거룩한 기원을 자주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가정, 475-476)

기억할 말씀: "육체나 정신을 새롭게 하지도 않는 오락을 위해 자주 바쳐지는 시간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당하는 자를 방면하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바쳐져야 한다."

연구할 과제

1.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학회(문학 집회)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청년, 492-495)
2. 문학 집회를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청년, 495-497)
3. 생일 선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가정, 492)
4. 우리는 감사절(추석과 같은 날)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가정, 493-494)
5.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시간에 대해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가정, 497)
6. 크리스마스를 무시해 버리는 것은 어떤 면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인가? (가정 498)
7. 휴일(크리스마스나 다른 기념일 또는 축제일)에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 어떤가? (가정, 498-499)
8.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것인가? (가정, 502-503)
9. 엘렌 지 화잇이 캘리포니아의 힐드스버그(Healdsburg, California)에서 망년회 겸 신년회에 참석한 것을 이야기하라. (가정, 523:2-3)

10. 무엇 때문에 다윗이 춤춘 것과 현대인들이 즐기는 댄스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가정, 536)

제107과 독서와 음악

성경절 연구: 행 19:18-20; 눅 15:8, 10

요점: "사람의 신령적 경험은 그가 한가할 때에 읽으려고 선택하는 책들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찬미의 선율은 하늘의 분위기이다. 하늘이 땅으로 더불어 공명할 때 거기는 음악과 노래－'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사 51:3) 있는 것이다." (청년, 291)

예언의 신 연구

독서의 선택

1. 불건전한 독서의 영향

"사단은 그들이 섭취하는 양식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청년들과 성숙한 장년들로 하여금 이야기책들과 고담과 그 밖의 서적들을 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적들을 읽는 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의무 수행에 부적당하게 된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생애를 살고 있으며, 성경을 상고하여 하늘 '만나'를 먹으려는 욕망을 잃어버린다. 굳세게 되어야 할 정신이 약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업에 관계되는 위대한 진리를 연구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바 그 진리는 곧 정신을 굳세게 하고 상상력을 일깨우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려는 강하고 열렬한 소망의 불을 당기는 진리이다." (청년, 271－272)

2. 어떤 결과가 남게 되는가?

"소설을 읽는 자들은 영성(靈性)을 파괴하고, 성경 장절의 미를 흐리게 하는 죄악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불건전한 흥분을 일으키고 상상력을 발동시키며, 우리 정신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잊게 하고 어떠한 영적 활동에도 부적합하게 만든다." (청년, 272)

3. 신령한 것의 적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흥취를 자극하는 이야기의 감화력에 대하여 그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라. 그대들은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펴고 생명의 말씀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책이 재미없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연애 소설의 매력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의 건전성을 파괴하며, 그대들의 영원한 행복에 관계되는 귀중하고 엄숙한 진리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

모든 헛된 서적을 읽는 것을 단연코 그만두라. 그것은 결코 그대들의 영성을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생각을 왜곡시키는 나쁜 감정을 갖게 되어 그대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분의 귀중한 교훈들을 전보다 적게 생각하게 한다. 우리들의 정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 정신력에 힘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사상은 마음에 공급된 양식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청년, 273)

4. 책중의 책

"성경은 책 중의 책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회 있는 대로 이를 상고하면 성경의 풍성한 보배들을 소유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며, 그 때에 그대들은 예수께서 그대들을 당신에게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의 교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경을 되는 대로 읽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보물들이 있는바, 이 보물들은 다만 진리의 광맥을 타고 깊이 들어감으로써만 발견될 수 있다." (청년, 274)

에베소 사람들의 모범

5. 저들은 습관과 행실을 바꾸었음

"에베소인들이 회개하고 개종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습관과 행습을 고쳤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즉각 반응하였고 마술의 모든 비밀을 숨김 없이 드러냈다. 그들은 와서 자백하였고 그들의 행적을 나타내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지금까지 마술에 열중하고 그 마법을 행하도록 사단이 고안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크게 존경한 데 대하여 거룩한 의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은 악마를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고가의 책들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렸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나타내었다. …." (청년, 275)

6. 그대들의 마술 책을 불태워 버렸는가?

"에베소 사람들이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불 가운데 던져넣었던 책들은 전에 즐겼고 이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였던 책들이다. 그들은 그 책들을 팔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더면 악습은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 후로 사단의 신비인 마술을 증오하였고 그러한 책들에서 얻은 지식을 혐오하였다. 나는 진리와 연합한 청년들에게, 그대들의 마술책을 불태워 버렸는지 묻고 싶다." (청년, 275)

7. 엄숙한 사상을 가질 수 없게 함

"사람의 마음을 허영과 아둔으로 채우고, 진리와 의의 말씀에 대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소설류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이 함으로써 마음은 엄숙한 사상을 품을 수 없게 되며,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인 성경을 인내하며 끈기있게 연구할 수 없게 한다.

마치 이 세상의 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여행권을 살 것처럼 세상 재물을 얻는데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다. 하늘 나라로 가는 통로에 한 줄기 광선도 비추지 못한 사람들의 무모한 공적이 가득 기록된 역사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청년, 277)

8.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책들

"청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전쟁과 유혈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청년들이 이러한 책을 읽을 때 사단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읽고 있는 주인공의 전사 정신을 고취시킨다. 그러면 그들의 피가 혈관에서 뜨거워지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픈 충동이 솟구친다. 속된 욕망을 갖게 하며 마음의 정욕을 선동하여 모든 순결하고 거룩한 것에서 떠나게 하는 비도덕적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들은 일찍이 하늘 조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영감을 불어넣은 바로 그 장면과 광경을 담고 있는 마술책들을 가지고 있었다. ….” (청년, 277)

소설을 읽는 결과는 무엇인가?

9. 생애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읽어야 할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진지한 대답이 요구된다. 사람의 마음에 좋은 감화를 끼치지 못하는 연재 소설을 실은 정기 간행물과 신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은 몹시 괴롭다. 나는 이렇게 하여 소설을 즐기는 습관이 양성된 사람들을 지켜보아 왔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나 성년이 되기까지 진정한 경건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들의 성격을 구성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갖지 못한 자가 많다. 선정적 소설이 그들의 마음의 양식이 된다. 그들은 비현실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생애의 실무에 부적당한 사람이 된다.

나는 이러한 길로 즐겨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관찰해 보았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들은 침착하지 못하고 극히 공상적이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문제 이외에는 대화를 하지 못한다. 높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어진 고상한 재능들이 모두 퇴보되어 쓸데없는 문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러한 문제들에 만족하게 되며 어떠한 고상한 것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거의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종교적 사상과 담화에 싫증이 나게 된다.” (청년, 279-280)

“흥분을 자극하는 소설들을 연속적으로 탐독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력을 불구로 만들고 힘있는 사색과 연구에 부적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된다. 이 세상에는, 부절제한 독서의 결과로부터 회생하지 못한 채 인생의 말년에 이른 남녀들이 있다.” (청년, 280)

10. 정신적 주정꾼

“흥분을 일으키는 선정적 소설을 탐독하는 기호가 양성되면 도덕적 취향은 파괴되고 이 쓸데없고 불건전한 양식을 끊임없이 먹지 않는 한 마음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칭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설이나 잡지가 곁에 없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주정꾼이 강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자극을 받는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헌신의 정신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의 동무들도 그들을 지식의 근원으로 인도할 만큼 하늘의 빛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깊은 신앙적 경험을 가진 일이 없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서적들이 계속하여 그들 앞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변화의 가망성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갈망하였고 이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청년, 281)

11. 죄의 초상(肖像)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되고 발매되는 선정적인 주제의 책들을 결코 읽지 말아야 한다. 이런 책들 가운데는 사단의 홀림이 있다. 비통스러운 범죄와 잔학 행위로 가득 찬 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넋을 잃게 하는 매혹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가장 악독한 범행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는 엉뚱한 생각을 품도록 사람들을 자극시킨다. 순전히 역사적인 기록이면서도 극악 무도한 범죄 행위, 잔인성 및 방탕과 음란한 습관들을 묘사한 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마치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여 그와 흡사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청년, 284)

12. 쭉정이와 알곡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소설을 게재한 잡지 읽기를 중지하라. 소설책을 모두 치워버려라. …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소설 잡지와 어리석은 그림들-사단의 대리자들이 지어낸 화상들-을 청소해 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것들로 마음에 해독을 끼칠 여유가 없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렘 32:28).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되고 영원히 가치를 지닌 것만을 읽도록 하자.

우리는 가장 엄숙한 의무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 … 이 위대한 사업을 완성할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할 수 있겠는가?" (청년, 286)

음악이 주는 이익과 영향

13. 음악은 귀중한 선물임

"성경에 기록된 노래의 역사는 노래나 음악이 얼마나 유용하고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암시들로 가득하다. 음악은 때때로 악용되어 악한 목적에 사용되고 그리하여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음악이 바르게 사용되는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고귀한 주제(主題)로 높이고, 심령에 영감을 일으키고, 향상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 되는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격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즐기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졌다. 그것은 거칠고 교양이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졌고, 사람의 마음에 활기를 주고, 동정심을 깨우치며,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고,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두운 생각과 흉사에 대한 예감을 없이 하는 힘을 가졌다." (청년, 291-292)

14.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음악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의 노래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노래를 불러서 책망하는 말이 적어지게 하고, 더욱 쾌활함과 희망과 기쁨의 말이 많아지게 하라. 학교에서 노래를 부름으로 학생들로 하나님과 교사로 더불어 또 학생들끼리 더욱 친근하여지게 하라." (청년, 292)

15. 종교적 일부의 행사로서의 음악

"종교적 행사의 일부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마찬 가지로 예배의 행위인 것이다. 사실상 많은 노래는 기도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가르침을 받는 아이는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동받기가 쉬워질 것이다." (청년, 292)

16. 감화를 주는 재능

"노래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의 독창이나 몇 사람들의 합창을 통해서 특별한 기별이 전달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적은 수효의 사람들만으로 합창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한다. 노래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갈고 닦아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감화의 재능이다." (청년, 293)

17. 천사의 노래

"구속주께서 우리를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문 어귀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보좌를 두른 하늘 합창대의 찬미와 감사의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천사들의 노래의 메아리가 지상의 가정에서 반향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가수(歌手)들에게 더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하늘의 교제는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찬미의 기조(基調)를 배운다." (교육, 168)

18. 음악의 악용

"천사들은 저쪽 편에 있는 주택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그 곳에 모여 있다. 그 곳에서는 음악과 악기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곳에 모여 있지만, 그대들이 듣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댄스 홀에서나 적합한 노래이며 천박한 곡이다. 보라, 순결한 천사들이 그들 주변 가까이에서 빛을 거두고 있다. 그리하여, 흑암이 그 방에 있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다. 천사들은 그 장면에서 옮겨가고 있다. 슬픔이 그들의 얼굴에 어려 있다. 보라, 그들은 울고 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대열 속에서, 특별히 ___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본 장면이다. 기도에 바쳐져야 할 시간들이 음악에 빼앗겼다. 음악은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다. 사단은 음악을 젊은이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삼을 수만 있으면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단을 섬기는데 시간이 바쳐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의 목적에 적합할 것이다. 사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의하여 감각을 잃고 있는 동안 그들을 정신 없이 심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로잡기 위하여,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역사한다. 음악은 좋게 이용되면 하나의 축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사단이 영혼들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그것이 남용되면,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만과 허영과 어리석음으로 이끈다. 헌신과 기도의 위치를 대신하도록 허용되면,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된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일지라도, 흔히 그들의 천박한 대화와 음악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들의 신앙에 욕을 돌리게 된다. 거룩한 음악은 그들의 취미에 맞지 않는다. 나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보게 되었다. 심판 때에 이 모든 영감의 말씀들은 거기에 유의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청년, 295-296)

19. 낙담을 이기는 무기로서 음악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나타내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에 말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자.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대항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건강과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 499)

20.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함

"오늘날 교회는 싸우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흑암의 세상과 대결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을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율법 이외에 어떤 율법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어 찬양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할 것이다. 극히 아름

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에 잠기게 될 것이다.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되고, 햇빛은 지금보다 일곱 배나 더 밝아질 것이다. 세월은 기쁨 중에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도 다시 없으리라' 고 선포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소리치게 될 것이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이 계시들, 곧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장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환영의 말을 영원한 나라의 문턱에 서서 들어보라. 천사들과 함께 그들은 면류관을 벗어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고 부르짖는다(계 5:12, 13).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 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치료, 504-507)

기억할 말씀: "… 하늘의 교제는 땅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찬미의 기조(基調)를 배우는 것이다." (교육 219)

연구할 과제

1. 소설을 읽을 때 생기는 결과 7가지를 들어 보라. (청년, 340)
2. 소설을 제거하는 자들을 위해 어떤 계획이 추천되었는가? (1 증언, 135)
3. 엘렌 지 화잇이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가? (청년, 360)
4. 어떤 독서에 대한 서약이 제시되었는가? (청년, 338)
5. 천로역정(요한 번역 저)이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쟁상, 407)
6. 음악과 요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2 증언, 538)
7. 그리스도께서 그의 청소년 시절에 유혹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전도, 490)
8. 예수께서는 그의 긴 일과 시간 동안 어떻게 하여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는가? (치료, 46)
9. 거룩한 노래의 힘에 대해 토의해 보라. (교육, 217-218)
10.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 말해 보라. (전도, 493-495)

제 15 장

나의 돈

제108과 나의 돈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절 연구: 신 8:11-18; 잠 10:5; 27:23; 31:27-28

요점: "모든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유용한 일을 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떤 직업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든지, 또 다른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능력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습관을 기르는 모든 자들의 재능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모든 자를 축복하실 것이다." (청지기, 165)

예언의 신 연구

근면 - 부지런함

1. 적은 동물(곤충)들에게서 근면을 배우라

"지혜로운 자는 지구상의 작은 피조물들이 사는 방법과 습관들에서 유용한 교훈을 배운다. 부지런한 꿀벌은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잘 본받아야 할 본보기를 제공해 준다. 이런 곤충은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며 게으른 벌은 벌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 벌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지력과 활동력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한다. 발에 밟히기 일쑤인 해충 취급을 받는 개미도,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지 않는 인간을 능가한다. 잠언은 지상의 미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환기시키고 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우리는 이러한 작은 교사들로부터 충실함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이와 같은 근면으로 활용했다면 우리의 유용성을 위한 역량이 얼마나 크게 확대되었을까. 그토록 작은 미물에도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어찌 눈여겨보지 않으시며,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우월함에 상응하는 되돌림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는가?" (4 증언, 455-456)

2. 자기 돈은 자기가 벌도록 자녀들을 장려하라

"도시 밖에서 사는 많은 아이들은 경작하기를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칠 돈을 얻는 수단으로 삼도록 그에게 가르칠 수 있다. 소년과 소녀들이 다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올바르게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돈의 가치와 절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선교 목적을 위한 돈을 장만하는 일 외에 그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옷을 사 입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도록 그들에게 장려해야 할 것이다." (가정, 388)

3. 자급 자족하는 선교사(전도자)

"많은 지역에서 자급 전도자들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자급 전도자로서였다. 날마다 아시아와 유럽의 큰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동료들의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手工業)에 종사하였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그의 고별의 말은 그가 일한 방법을 알려 주고, 모든 복음의 역군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남겨 준다." (치료, 154)

4. 그리스도인 농부들

"그리스도인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거처를 마련하도록 도와 주고, 그들에게 토지를 경작하며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 참된 선교사업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농기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경작하고 과수원을 만들어 돌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라.

토지를 경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태만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확을 얻는 일에 실패한다. 그들의 과수원은 올바르게 관리되어 있지 않고, 곡식들은 적당한 때에 심겨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다만 피상적인 일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땅이 불모하다는데 돌려 버린다. 적당하게 일을 하였을 것 같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땅을 정죄함으로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 빈약한 계획, 적은 노력, 최선의 방법에 대한 적은 연구 등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치료, 193)

절약하라!(아끼라!)

5.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깊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절약에 대한 공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으셨다. 당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 수천 명의 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는 남은 조각들을 낭비하게 아니하셨다.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많은 무리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먹일 수 있으셨던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위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현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돌봐 주신다. 언제든지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런 잔치를 마련할 수 있으셨지만 잔치 후에 부스러진 조각들을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실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실행되어야 한다. 범사에 절약이 실천되어야 한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인 낱말이 되고 마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 신앙이 실생활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 신앙적인 의무와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의 최고의 신중성이 서로 화합되어야 한다." (가정, 381)

6. 하나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절약하라

"절약과 극기의 교훈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은 이런저런 향락에 탐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입을 다 쓰는 생활을 해 나가려는 습성을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점을 우리가 개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제시하여 주신다. 우리가 즐겨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마음과 지능을 바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로 인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근면하고 절약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 (가정, 382)

7. 유행을 따르는 부자 이웃들과 경쟁하지 말라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의 겸비한 추종자들인 우리가 부자인 체하거나 혹은 어느 모로나 우리의 실제의 상태 이상의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이를 꾸민다고 하여 기분을 상하여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손님을 즐겁게 하거나 우리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며 식욕을 방종시키기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버는 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남에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우리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올무이다." (가정, 384)

8. 값비싼 집과 의복들

"단순한 우상에 불과한 것, 즉 더욱 고상한데 사용되어야 할 생각과 시간과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소비되는가! 얼마나 많은 돈들이 비싼 주택과 가구들, 이기적 쾌락, 사치스럽고 불건전한 음식, 해로운 방종등에 낭비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선물에 낭비되는가 !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로운 것들을 위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유흑자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몇 배나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복에 너무 많은 돈을 써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다. 그들은 가장 평범한 의복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값비싼 장신구들과 의복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자매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옷 입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한 원칙과 조화되게 한다면 그대들보다 더 가난한 자매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때때로 이 일이 가장 필요하다. 그대들의 제안, 그대들의 기지(機智)와 기술로써 도와 주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단순하고 품위 있게 옷 입는 법을 알려 주라. 많은 여자들이 그들의 허름하고 어울리지 않은 의복이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대조 때문에 감정이 예민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굴욕감과 불공평하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을 의심하고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근과 유혈사태와 화재와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은 아무것도 낭비하

지 말고, 쓸데없이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치료, 206-207)

조심해야 할 것들

9. 게으름을 조장해서는 안됨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 사람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주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부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궁핍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 결함을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지적해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여도 구멍 뚫어진 바구니에 보배를 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빠지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런 불행에 처한 자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나타내야 한다." (청지기, 122)

10.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 한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꾸게 되어 결국 빚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낙담하고 만다." (청지기, 249)

11. 사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께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엄격한 절약을 가르치라는 권고를 부모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헤프게 쓰는 습관에서 야기되는 악들을 내 앞에 보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용된 돈은 합당한 사용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대가 만일 사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의 생애에서 즉시 이 습관을 끊어 버려라. 이같이 아니하면 그대는 영원히 파산자가 될 것이다. 절약과 근면과 근신의 습관은 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풍성한 참 금보다 더 좋은 분깃이 된다.

우리는 지상에서 나그네요 외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억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합당하게 나타내자." (가정, 374-375)

12. 현명하지 못한 절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혹사시킴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맛있고 기운을 돋구어 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신체를 돌보는 것은 가장(家長)의 첫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음식물의 공급을 아까워 하는 것보다는 의류와 가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어떤 가장은 손님에게 값진 대접을 하기 위하여 가족의 식탁을 절약한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손님 대접은 훨씬 더 단순하게 하여야 한다. 가족의 필요에 먼저 유의하라.

슬기롭지 못한 절약과 허식적인 습관 때문에 친절한 접대의 행위가 요청되고 또한 그것이 축복이 될 곳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식탁에 놓을 정규적인 음식물의 공급은 뜻밖의 손님이 오더라도 주부가 달리 준비하기 위하여 부담을 지지 않고라도 그 손님을 환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절약은 결코 빈약한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유의 절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물을 풍족히 먹어야 한다. 그러나 요리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

절약은 인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신중하게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가정, 377-378)

재산을 모으는 방법들

13. 자기가 저들의 신이요 저들의 알파와 오메가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재산을 모으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모은 듯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둠 없이 재산을 얻고 쓰는 일에 그들을 지도해 주시도록 간절한 기도함이 없이 재물을 얻고 또 쓰고 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을 물게 될 독사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나 소돔의 사람들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하여 일깨워진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 그들의 모든 계획은 무너질 것이다. 자기, 자기, 오직 자기가 그들의 신이요 알파요 오메가이다." (청지기, 141)

14. 저들이 모으는 속도보다 더 빨리 흩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일에 사용할 때에만 안전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밝히 보고 자신에게 축복되고 남들에게 축복 되도록 주의 선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처세법을 채택하여 하나님의 권면과 조화되게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돈이나 재물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택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진리와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거룩한 품성에 욕을 돌린다.

이제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모두 시험을 치르며 시련을 겪고 있다. 사단이 그의 기만적인 매혹물과 뇌물로 역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이는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창안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들이 안전하게 흥왕하고 이기주의적인 안목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모으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흩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청지기, 141-142)

15. 사업에 있어서 정직성이 필요됨

"우리가 우리 동료 인간과 거래할 때 사소한 부정을 하거나 대담한 사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도 그렇게 거래하게 될 것이다. 부정직한 행위를 끈질기게 고집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팔고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들의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작은 속세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와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 그들은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생활의 모든 행동마다 정직성이 찍혀 있어야 한다. 하늘 천사들은 우리가 행한 일을 검사하여 진리의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 있을 때에는 '부족하다' 고 기록한다." (청지기, 142)

16. 이 땅에 재물을 쌓아 두는 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고 하였다. 보화란 정신을 빼앗고 관심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보화를 획득하도록 자극하는 돈에 대한 사랑은 유대인 당시의 지배적인 욕망이었다. 고상하고 영원한 문제는 지상의 재물과 권세를 획득하는 문제 다음의 제 이차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신앙이 차지할 자리를

세상욕심이 빼앗았다. 인생을 그렇게 매혹시키고 홀리는 영향을 끼치는 부에 대한 탐욕적인 욕망은 인간 속에 있는 고상함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부패케 하여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땅에 보화를 쌓아 두는 것에 대하여 단호한 경고를 하셨다." (청지기, 142)

17. 모든 거래에 있어서 총명과 순결을 유지하라.

"'여호와께 성결'은 구속주의 지상 생애의 큰 특징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의 특징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의 일꾼들은 그 유용성의 영향력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일꾼들과 유대를 갖고 이타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총명과 순결이 그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거래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주님의 사업에는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한다. 부정직은 하나님을 최고로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다." (청지기, 143)

18. 시험을 물리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원칙의 탁월성을 나타내기를 심히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자들은 마치 기도가 자기들 신앙의 일부분인 것처럼 모든 사업 거래도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단은 자기의 뜻을 이행하는 대가로서 이 세상 왕국을 각 영혼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시험의 광야에서 그리스도께 제시되었던 큰 유혹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가 만일 내 사업의 방법을 따른다면 나는 그대에게 부로서 보상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마다 자기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낼 시험을 언젠가 받게 될 것이다. 시험을 물리치면 귀한 승리를 얻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자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인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지기, 143-144)

19. 하늘 원장에 기재함

"세상의 관습들은 그리스도의 표준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민활한 간계, 그 기만, 그 착취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동료에게 행한 모든 불의한 행위는 황금률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잘못은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점과 불행을 이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하늘의 책에 사기라고 기록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열중하기보다는 차라리 밤낮 수고하며 빈곤의 떡을 먹기를 원할 것이다.

정당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은 방벽을 깨뜨려 더욱 큰 불의를 감행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킨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불리하게 하는 그만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게 된다. 그런 값을 치르고 얻은 이익은 두려운 손실이다." (청지기, 144)

20. 인색하고 이기적인 교제

"나는 나의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계발시키라고 호소하며 권하는 바이다. 그대의 직업이나 지위가 무엇이든간에 만일 그대가 이기심과 탐욕을 품는다면 주님은 그대를 불쾌히 여기실 것이다. 주의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상의 거래일지라도 아무에게나 인색하고 이기적인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주의 금고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사업과 연관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교활한 거래, 절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 그의 땅과 재산을 그 가치 이하의 금액으로 사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비록 그 이익을 모두 바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납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하고 정직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다. …

만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청렴하게 수고하던 한 형제가 몸이 허약해져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고시키지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의 생계를 위하여 충분한 보수를 주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그대는 모두 형제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지기, 145-146)

기억할 말씀: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물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교만이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는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식물이 되고, 벗은 자들을 입힐 의복이 된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켜 주는 방비가 되고,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 (치료, 287)

연구할 과제

1. 탐욕(탐심)에 관한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청지기, 28)
2. 무엇 때문에 부를 가리켜 불의한 우상이라고 부르는가? (눅 16:9; 청지기, 136)
3.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인가? (청지기, 147)
4. 영적 생활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청지기, 150)
5. 재물을 모으려는 욕망에 대해 설명하라. (청지기, 150)
6. 어떻게 해서 부자가 약점을 지닐 수 있는가? (청지기, 152)
7. 어떻게 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청지기, 152; 160; 161)
8.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청지기, 161-162)
9. 모든 영혼들에게 어떤 시험이 이르러 오는가? (청지기, 222-223)
10.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급 전도자인 바울의 본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 (치료, 140)

제109과 하나님의 청지기 – 하나님과 동업함

성경절 연구: 잠 3:9, 10; 11:24, 25; 사 32:8

요점: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 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들이다." (교육, 137)

예언의 신 연구

청지기의 일

1. 우리의 미래의 생명을 위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함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서의 우리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품성에 이기심의 때가 묻어 있는 자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하심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신다." (청지기, 22)

2. 하나님께서 그의 청지기들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사람은 자기의 애정을 세상 사물에 두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가! 그의 주의는 집과 땅에 쏠려 있고 자기 동료 인간에게 대한 의무는 등한히 한다. 그 자신의 구원 문제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망각해 버린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땅의 보화들을 완고하게 붙잡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나 동료 인간들의 필요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의 재물을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단지 그들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당신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들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도 주님의 돈으로 장사하고 있는 바 그들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였느냐 남용하였느냐가 오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신임을 결정할 것이다." (청지기, 112)

3. 주님의 대리자로 일함

"청지기는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한다. 그는 청지기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행한다. 주님의 관심사가 자기의 관심사가 된다. 청지기의 지위는 존엄한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를 신임하신 까닭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기적인 행동, 즉 자기 주인의 돈으로 장사해서 얻은 이

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두신 신임을 악용하는 것이다.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신실한 자요 천국에서 더 높은 신임을 위한 재물의 청지기로서 부적당함이 판명될 것이다." (청지기, 113)

4. 간교한(부정직하도록) 유혹함

"사람들은 세상 재물을 얻는 데에는 미친 듯한 욕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각종 부정직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마치 천국을 얻는 보증이나 되는 듯이 그들의 사업을 강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한다. 그들은 주께서 위탁하신 자금을 세속적인 사물에 묶어 놓음으로 세상 거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사용할 재물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0, 21)." (청지기, 137)

5. 부를 얻는 것은 죄가 아님

"성경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선고하지도 않고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발한다. 그리고 이 재능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용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귀중한 달란트가 된다. 성경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기술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에 베옷을 입거나, 또는 집에 있는 위안과 취미와 편리를 위한 모든 시설을 제거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썩지 않을 보화와 경쟁하는 위치에 재물을 둘 때에만 그 재물은 위험한 소유가 된다고 가르친다. 지상의 일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각과 애정과 헌신을 흡수해 버릴 때 그것이 올무가 된다. 몇 년만 최선을 다하면 영원한 저택이 그들의 집이 될 수 있는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지상의 화려하게 반짝이는 보잘것없는 물질과 바꾸는 자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은 교환이요, 미디안 왕의 보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발람의 교환이며, 은 삼십냥에 영광의 주를 팔아먹은 유다의 교환이다." (청지기, 138-139)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재물을 모음

6. 이방인들로 도와 달라고 요청하라

"왜 이방인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는가? 세상에는 동정적인 마음을 소유한 남녀들이 있으며 고난당하는 인간의 필요를 그들 앞에 제시할 때 동정심을 표할 자들이 있다는 가르침을 나는 받았다. …." (청지기, 188)

7. 모세에게서 배울 교훈

"광야에서 재물을 모으는 모세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 곳에는 강제의 필요성이 없었다. 모세는 큰 잔치를 배설하지도 않았다. 그는 환락, 무도회, 일반적인 오락의 장소로 백성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 세울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복권이나 세속적인 제도를 창설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에서

부터 우러나서 자원해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아야 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 고로 모세는 이제는 충분하니 그만 두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바치는 것을 중지해야 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흡족히 드렸기 때문이다." (청지기, 203)

8.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교훈

"소리 없이 비밀리에 성을 순회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어려운 현지 답사를 하는 가운데 그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소문이 일어나 그의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까 하여 동료들이나 원수들의 주의를 이끌기를 원치 않았다. 느헤미야는 남은 밤 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쳤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낙심되고 분열된 그의 동족들을 일깨워 연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했다.

비록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일에 주민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다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뢰와 동정 얻기를 노력하였으며, 손의 연합은 물론 마음의 연합이 그가 착수한 위대한 사업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음날 그는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잠자고 있는 그들의 활동력을 깨우고 제각기 흩어진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 요지를 그들에게 발표하였다. … 그들에게 자세히 사정은 이야기하고 또 그가 바사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위로써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인 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그와 함께 분발하여 성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지를 직접 질문하였다. 이리하여 이 호소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이 수치로 변하였다. 그들은 모두 새 용기를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힘과 고상한 희망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의기 백배하여 얼마 동안은 그늘의 지도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서 각각 자기의 영역내에서 느헤미야의 역할을 하였으며 각각 사업장에서 형제들에게 힘을 주며 용기를 주었다." (선교, 174-175)

9. 유다에게서 배울 교훈

"유다는 가치 있는 재질들을 소유했으나 그의 성품 중에는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먼저 내어 버려야 할 어떤 특성들이 있었다. 그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탐욕의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거래에서 이 경향을 따름으로 마침내 그것은 그의 습관으로 굳어졌다. 그의 이러한 경제적인 습관은 인색한 정신을 계발시켰으며 드디어 그에게 치명적인 올무가 되었다. 금전적인 이득은 그의 신앙 경험에 척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모든 참된 의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정직과 공의의 원칙은 그의 생활 습관 속에 자리잡을 틈이 없었다." (청지기, 219-220)

집과 땅들

10. 집과 재산을 파는 일

"하나님께서는 땅과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팔아서 선교 지방의 큰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함으로 오는

참된 만족을 경험한 자들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재물을 영혼을 회개케 하도록 창고에 끊임없이 흘려 보낼 것이다. 그러면 구원 받은 영혼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극기와 절약과 단순한 삶을 실천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 올 것이다. 이처럼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고 현명하게 투자할 때 영혼 구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들이 감사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주님의 청지기들의 충성을 통해 '주시는 분'은 인정을 받고 그 분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며 우리의 선교 사업의 경제적인 부족을 제시할 때 진리를 믿는 양심적인 영혼들은 깊이 감동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동전 두 푼을 드린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들은 구차한 중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때때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생활 필수품까지도 희생할 것인 반면 집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들은 이기적인 고집으로 지상의 보화를 꽉 움켜쥐고 기별이나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주님의 사업에 바칠 만한 믿음도 갖지 않는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특별히 적용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 (눅 12:33)." (청지기, 58)

11. 개별적인 지도를 기대하라.

"자기들의 집을 팔아서 사업을 위하여 바쳐야 할지에 대해 나에게 편지로 조언을 구하는 남녀들이 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호소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들의 작은 집을 당장 파는 것이 그대들의 의무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주께서 그대들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대들의 의무를 이행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청지기, 59)

12. 재산을 증가시키는 대신 줄이라.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도무지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곧 선포될 것이다." (청지기, 59)

13. 환란의 때를 위해 준비하라.

"환난의 때에는 집과 땅이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그 때에 그들은 분노한 폭도들에게 쫓겨 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에는 그들의 재산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성도들이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그리하여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청지기, 59-60)

14. 땅에 얽매는 줄이 없음

"하나님의 사업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만일 주의 백성들이 그의 권면을 따른다면 최후의 대 화재에 그들의 소유가 불타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해하지 않는 곳에 그들의 보화를 간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지상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청지기, 60)

그대 개인이 해야 할 청지기 사업

15. 유언과 유산

"우리 중에는 그들의 유예 시기의 끝이 가까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확보할 만큼 충분히 각성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사단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빌려 주신 것으로 장차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활동 무대에서 물러날 때에는 열 가운데 아홉은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그 재산 중 일부도 주님의 금고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 선량한 그 형제들이 헌신하지 않은 조언자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충고를 한다. 재산은 빈번히 오직 그들에게 해가 될 뿐인데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상속된다. 이들은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이 재물은 전부 주님의 것이건만 사단의 편으로 넘어가서 사단의 주관을 받게 된다. 사단은 우리 형제들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통찰력과 교묘한 기술로서 재물을 자신에게 확보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어떤 유언은 너무 희미한 방법으로 되어 있어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많은 돈이 주의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손실을 본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신실한 종들과 같이 이 문제에 관하여 저희 지능을 활용하여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확보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점에 관하여 지나치게 소심하다. 그들은 저희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노인에게나 병약한 이에게 재산 문제를 꺼내는 것은 금지된 땅에 발을 내디디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이 의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할 의무와 똑같이 신성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돈이나 재산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인계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라고 자기에게 빌려 주신 재물을 다만 자기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손에 둘 것인가? 현명하게 계발시키라고 그에게 빌려 주신 달란트인 주님의 돈을 그가 올바로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은 물론 그 사람의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과 염려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는가? 형제가 죽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배도 도적맞고 있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곁에 서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그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에 두려운 손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재물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진리에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 둠으로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그는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지기, 323-324)

16. 어떻게 하면 본인이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임종시까지 재산 분배를 연기하라고 제의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아직 강건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저희 자신과 저희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어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저희 의무를 행하는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유언 집행자가 되어 책임을 남에게 맡기는 대신에 저희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지기, 325-326)

17. 자선을 베풀어 사느냐 유산과 함께 죽느냐?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죽음을 손실로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끼친 선한

감화와 하나님의 금고를 풍성하게 드린 많은 자원하는 예물 때문이다. 살아서 자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가면서 드리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께 드리는 관대한 헌금으로 날마다 그들의 유언을 남겨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이 저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비해 균형지지 않게 적은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유언을 남기는 일에 그들은 애정을 가장 많이 쏟은 대상들과 친구들을 기억할 것이다." (청지기, 326)

18. 친척들이 핍절할 때에

"유서들은 반드시 법적 효과가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유서들을 작성한 후에도 수년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만일 사업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기부를 계속해도 아무 지장 없도록 한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관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의 유서에 궁핍하지도 않은 친척들의 긴 명단을 포함시키지는 말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병으로 고통중에 있거나 혹은 빈곤으로 허덕이는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다면 그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세상 재물이 많고, 세상을 섬기는 불신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단지 그들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 손에 재물을 물려 준다면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신 조물주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청지기, 330)

19.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함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동안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 줌으로 큰 과오를 범한다. 이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부모도 자녀도 더 행복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부모는 수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후회한다. 이렇게 했다 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대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더 느끼지도 않는다. 이 일의 저변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서는 오직 이기주의만을 거둘 뿐이요, 부모들 편에는 의뢰심에서 오는 불행과 비참한 감정을 맛보기 때문이다." (청지기, 332)

20. 봉사의 상급

"마지막 날에 가장 풍성한 보장을 받을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자선을 베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린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너무 바빴던 자들, 위대한 일만을 생각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작은 자들이요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청지기, 340)

기억할 말씀: "재물을 내세로 가져갈 수 없다. 거기에는 재물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실물, 266)

연구할 과제

1.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설교는 어떤 것인가? (청지기, 32)
2. 어떤 투자가 장려되었는가? (청지기, 53-54)
3. 늦은비를 연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청지기, 54)
4. "가난한 자와 부한 자"라는 표현을 설명하라. (청지기, 152)
5. 부자 법관 청년에 대해 말해 보라. (청지기, 217, 218)
6. 학교를 위해 주신 어떤 교훈의 말씀이 개개인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 있는가? (청지기, 278)
7.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실제로 없애 버려야만 하는가? (청지기, 330-331)
8. 유산으로 물려 받은 재물이 어떻게 하여 때때로 올무가 되는지 설명하라. (청지기, 338)
9. 어찌하여 자선 사업은 이중 축복이 되는가? (청지기, 352)
10. 그대는 그대의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지기, 116-119)

제110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 십일금 제도

성경절 연구: 레 27:30, 32; 말 3:8-12; 마 23:23

요점: "나는 십일조 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 얼마나 미미하게 보이는가! 그 평가는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재고자 하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가! 그리스도를 위한 십일조이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 얼마나 미미한 기부이며 부끄러운 보상인가!" (4 증언, 119-120)

예언의 신 연구

십일조 제도의 기원

1. 십일조 제도는 아주 오래된 것임

"십일조 제도의 근원은 모세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헌물로 나타내어야 했다. 이 일은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의해 실천되었다." (3 증언, 393)

2.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금을 드렸음

"그러나 십일조를 헌납하는 제도는 히브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십일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요구하셨고 이 요구는 인정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야곱도 방랑자로 벧엘에서 방황할 때에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 14:20; 28:22) 라고 약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서 세워지려고 할 때에 십일조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 하나로서 그것을 순종하면 번영하게 될 것임이 재확인되었다." (부조, 525)

3. 수입의 십분의 일

"요구된 분량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이득의 십분의 일을 정하셨다. 이 제도는 인간의 양심과 자선에 맡겨져 있으며 이 십일조 제도에 대해 인간의 판단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 제도는 자유롭게 양심에 맡겨져 있는 한편, 한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전혀 강요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모든 이득의 십분의 일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그분은 이생의 사물과 달란트를 증가시켜 그분께 돌리도록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그분은 십분의 일을 요구하시되, 이것을 인간이 그분께 돌려드릴 최소한의 것으로 요구

하신다. 그분은 내가 내 것인 십분의 일을 요구하는 한편, 너희에게 십분의 구를 준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이 십분의 일을 드리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된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 감사 제물 등이 이득의 십분의 일 외에 추가로 요청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득의 십일금을 드리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늘의 책에 그 행위자가 도적질한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것을 사취하게 된다. 이러한 태만의 죄가 저들 앞에 지시될때, 그들이 행로를 바꾸고 그때부터 올바른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이것은 채주에게 돌려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된 재산을 유용한 하늘 기록의 숫자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불충실한 거래와 배은망덕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 (3 증언, 394)

4.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십일금을 냄

"십일조와 헌물의 성서적 제도에서 각 사람이 그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므로 드리는 양은 물론 크게 다르다.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십일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될 것이며 그 예물도 자기 힘의 분량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헌금이 하나님께 가납되는 것은 예물의 양이 아니요, 마음의 동기와 감사의 정신과 그것의 표현인 사랑이다.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예물이 너무 적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바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큰 재산을 맡기신 사람은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빚을 받은 양심의 지시대로 행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지 않도록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된 자는 시험을 받을 때 사단에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답변할 것이다." (청지기, 73-74)

5. 십일조 제도는 무효되지 않았음

"십일조 제도 역시 그 계획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한 이 제도는 그것을 창시하신 분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았다. 현재 효력을 전적으로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인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이 더욱 충만한 빛으로 드러남에 따라 더욱 충실하게 수행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3 증언, 392)

십일금 제도의 목적

6. 모든 축복의 근원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행 17:25; 시 50:10; 학 2:8; 신 2:8)고 선언하신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써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 주시는 것 중의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십일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십일조는 …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말에는 안식일 계명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 있다.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출 20:10)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으므로 그중 하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사람은 무죄하다고

할 수 없다." (부조, 525-526)

7. 고대에는 성소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십일조를 사용하였음

"바쳐진 십일조는 오로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된 레위 지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의 한계가 십일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헌물로 세워졌다. 그리고 모세는 필요되는 수리와 다른 비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을 계수할 때마다 각 사람이 '회막의 봉사'를 위하여 반 세겔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매년 헌물을 바쳤다(출 30:12-16; 왕하 12:4; 대하 24:4-13; 느 10:32, 33). 때때로 속죄 제물과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러한 헌물들은 연중 축제 때에는 매우 많이 드려졌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부조, 526)

8.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사단의 능력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며, 사단을 정복해야 한다. 흑암의 세력을 대항하는 방대한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자금을 보내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손에 이 싸움을 계속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금의 달란트를 주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업이 스스로 유지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 십일조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단순함과 공정함에 있어서 아름답다. 모든 사람은 믿음과 용기로써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단순성과 유용함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는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고귀한 구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남녀들과 청년들은 주님을 위한 회계원이 되어, 자금에 대한 요구에 응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고전 16:2)라고 사도는 말한다." (3 증언, 388-389)

9. 우리 교육 기관에 있는 성경 교사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우리 합회들은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일꾼들이 학교에서 배출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온 현명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교들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사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은 십일금으로 부양돼야 한다는 빛을 명백하게 주셨다. 이지시는 오래 전에 주신 것인데 최근에 다시 여러 번 반복하여 주셨다." (청지기, 103)

10. 복음 사역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바치는 문제를 일시적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정확한 교훈을 주셨다. 그분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 … 각 사람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여 얻어진 자기의 수입을 검토하여 십일금은 주님의 거룩한 것이 되도록 별도로 따로 떼어 놓으라. 이 돈은 어떠한 경우에든

지 어떤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직 복음 사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십일금을 따로 떼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예물과 헌금을 배분하라." (청지기, 80-81)

십일금을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는가?

11. 개인이 사용할 때 십일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저들의 수중에 맡겨 당신의 금고에 넣게 하신 금전을 사적 용도를 위해서 착복하고 있음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들은 십일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들은 시치미를 떼고 하나님의 것을 내놓지 않으나 그들에게 손해가 될 뿐이다. 그들은 저들의 탐심과 십일조와 헌물에 대한 속임수와 도적질을 통하여 빈약함과 가난을 자초하며 교회를 흑암 속에 들어가게 한다." (3 증언, 269)

12. 십일금을 빌려 쓰는 것은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여 주께 속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은 복음의 재원(財源)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금고에서 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신성 모독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분의 제단에서 전환시키므로 실수를 범해 왔다.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올바른 빛 가운데서 존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곤궁한 처지에 빠질 때, 종교적인 목적으로 바쳐진 돈을 자신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면서 미래의 어느 때엔가 돌려 줄 것이라는 말로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돈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수입에 맞게 지출을 줄이고, 필요를 제한하고, 자금의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9 증언, 246-247)

13. 문서 전도인들을 위해 사용하면 어떤가?

"어떤 이는 교육 사업에도 십일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이들은 권서원이나 문서전도자들도 십일금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이론을 붙인다. 그러나 목사들의 부양 이외의 목적으로 십일금을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

십일조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에 대하여 참견하는 자들은 저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늘 보화를 잃어버리게 한 죄목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십일조의 용도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목적 이외의 다른 여러 방향에 유용함으로 더이상 사업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른 부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이에 대처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다. 이런 부서들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십일조에서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십일조는 아직도 목사의 부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청지기, 102-103)

14. 사랑의 행위를 하거나 선물 또는 얼마의 연금을 드림으로 십일금을 대처할 수 없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일에 정확하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인간 대리자인 자신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나 방법대로 어떤 자선 행위를 하거나 어떤 선물이나 어떤 헌물을 함으로써 주님의 계획을 상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이런 저런 경우에 따라 그들의 선한 동기를 평균치보다 올려서 하나님의 요구에 반대되게 그것들을 상쇄하는 미봉책을 고안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가련한 책략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 자신의 계획에 그들의 영향을 발휘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계획

을 알려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개선하고자 모험하는 대신에 이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9 증언, 248)

"십일금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이것을 구제기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의 부양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목적에서 이탈될 수 없다." (청지기, 103)

15. 교회 경비로 사용해도 안됨

"십일금을 교회의 부수적인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임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방법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비싸지 않은 의복을 입고 식욕을 자제하고 극기를 실천함으로 이런 지출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교회 경비를 위하여 그 자금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 103)

16. 변명할 여지가 없음

"인간이 주님께 그분의 것을 돌려 드리는 것은 하늘이 정한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명백히 진술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해할 핑계도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온 우주와 교회와 세상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명백히 진술된 요구를 보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계획을 따르므로 그들의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 이기적인 영혼의 탐심으로 그들은 자금 전체 즉 원금과 이자를 다 소유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쓰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 위에 그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나는 우주의 소유자이다. 이 물건들은 나의 것이다. 그대가 빼돌린 십일금은 내가 흑암의 지경에 있는 자들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성경을 열고 가르치는 일을 할 나의 종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 놓은 것이다. 그대의 욕망을 채우고자 내가 떼어 놓은 자금을 사용함으로, 그대는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마련한 빛을 그들로부터 약탈해 간 것이다. 그대는 나에게 충성심을 보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대는 나를 약탈하였다. 그대는 나의 적립금을 훔쳤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9)." (6 증언, 387)

십일금 제도를 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17. 번영이 약속되었음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십일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3 증언, 395)

18. 주의 창고가 풍성해짐

"말라기서 3장을 주의 깊이 읽고 하나님께서 십일조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 보라. 만일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십일조를 그분의 금고

에 드리는 데 성실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일꾼들이 목회 사업에 임하도록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고갈된 금고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회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기적인 마음들과 손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고 억제해 두지 않았거나 십일조를 다른 분야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주님의 금고에는 풍성한 공급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9 증언, 249)

19. 가장 많은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임

"의무는 의무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명령에 약속을 덧붙이셨다. 주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많은 축복으로 보상하시마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요청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주께 바치는 예물에 비례해서 갚아 주시마고 약속하신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다정하시고 진실하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최대의 축복을 주셨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은 계약서에 당신의 인을 치셨다." (청지기, 90-91)

20. 영적으로 일깨워지고 발전하게 됨

"___교회에서 가졌던 특별 집회의 결과로 영성, 경건성, 자선, 활동면에 결정적인 발전이 있었다. …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에 대한 설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십일조를 바치지 않았다고 자백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음은 물론이요, 그 교인 개개인들의 죄의 결과로 교회가 고난을 당해야 함을 안다. 우리 교회 녹명책에는 많은 수의 교인 명단이 있는 바 만일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몫인 십일조를 정직하게 주님께 드렸다면 재정의 부족은 없었을 것이다. …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제시했을 때 백성들은 이 문제에 관한 그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한 형제는 2 년간 자기의 드릴 십일금을 드리지 않았노라고 말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때 희망을 갖게 되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반문했다.

나는 '그대는 각서를 써서 교회 회계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사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했으나 앉아서 쓰기를 시작했다. '나는 받은 값에 비례하여 바치기로 서약함.' 여기까지 쓴 후 그는 이것이 주님께 각서를 쓰는 적당한 형식인가 하고 말하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네. 받은 값어치에 비례하여' 라고 썼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던가? 천사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던가? 주께서 축복하사 모든 영적 축복과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았던가? '받은 값에 비례하여 나는 571불 50전을 교회 회계에게 드리기로 서약함' 이라고 썼다. 그는 그가 과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며칠 만에 그의 각서를 받았고 십일금을 회계에게 지불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125불을 바쳤다.

다른 한 형제는 몇 주일 안에 지불하기로 하고 1, 000불의 각서를 써서 드렸다. 또 다른 한 형제는 300불의 약속 어음을 써서 드렸다." (청지기, 95-96)

기억할 말씀: "십일조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성과 동등성이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제도를 이행할 것인데 기원에 있어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3 증언, 388)

연구할 과제

1.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부조, 상권 163; 부조, 하권 425; 3 소망 20)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버지의 대표자이셨다." (RH. 1890.02.18)
2. 다른 사람에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사람이 십일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증언, 391; 청지기 94)
3. 수입금 이외에 또 어떤 것에서 십일조를 구별하여야 하는가? (청지기, 67)
4. 사업의 본부(교회 본부나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믿지 못할 때에 십일금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권면하였는가? (9 증언, 249)
5. 복음 사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권면하였는가? (행적, 331)
6. 누가 교회 교인들의 십일금을 정할 것인가? (4 증언, 469)
7.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마치 우리의 첫 조상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여 주는가? (6 증언, 386)
8. 안식일과 십일조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비슷한 표현을 한 것이 있는가? (부조 하권 174)

제111과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과 제2의 십일금

성경절 연구: 마 6:19-21, 33; 고후 9:6, 7

요점: "그대는 그대의 재산을 안전하게 간수하기를 원하는가? 그 재산을 십자가의 못자국을 지닌 손에 두라. 그것을 그대의 소유물 속에 간직해 두면, 그것은 그대에게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그분의 명각(銘刻)을 지니게 된다. 그것은 그분의 불변성(不變性)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대는 그대의 물질을 향유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고통받는 자들의 축복을 위해 사용하라." (9 증언, 50-51)

예언의 신 연구

하나님께 헌신하였는가?

1. 인색한 연금과 절름발이 희생물

"참된 증인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고 말씀하신다. 이기적이요 탐욕적인 마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세속적 재물의 수입 중 매우 적은 부분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대들이 기본 재산에 관하여 이야기할까봐 겁을 먹고 머뭇거린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을 부인한다.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신앙 고백자여, 예수님께서는 그대의 행위를 아신다. 그분께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는 그대들의 헌금과 절름발이인 그대들의 희생 제물을 싫어하신다." (1 증언, 195)

2. 재리의 유혹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얻기 위한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데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현대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그 사업을 도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바람직한 집이나 토지를 사고 그 값을 지불한 후에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로 큰일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 서약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욕망이 성취되면, 그들은 가난하던 때보다 하나님 사업의 발전을 돕기 위한 마음을 훨씬 더 적게 가진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자요' (마 13:22). 재리의 유혹은 그들을 한 계단씩 이끌어서, 마침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게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자부한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진리에 대한 사랑은 그들 안에 없다." (1 증언, 477-478)

3. 번영은 관대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진정한 관용은 번영과 부(富) 때문에 너무도 흔히 훼손된다. 역경 중에 있거나 미천한 빈곤에 처해 있는 남녀들은 때때로 진리에 대한 매우 큰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의 번영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빈번히,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가치를 입증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번영케 하시고,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광주리와 상점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기만적이다. 그들의 훌륭한 의도와 약속은 마치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바란다. 그들은 번영하면 할수록 얻기 위하여 더 열광한다. 궁핍한 중에 있을 때 한동안 관대하였던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인색하고 가혹해진다. 돈이 그들의 신이 된다. 돈이 그들에게 주는 권세, 그것 때문에 받는 영광을 기뻐한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시험을 견디는지 주목해 보라. 부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품성의 계발을 주시해 보라.' 어떤 사람들은 궁핍한 가난뱅이들을 압제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값으로 그들의 봉사를 받고자 한다. 그들은 거만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곧 힘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기만당하였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계 22:12)." (1 증언, 482-483)

4. 저들이 궁핍하게 될까봐 두려워함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다는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의 풍요함을 희생해 가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나는 가난한 과부와 같이 궁핍한 중에 동전을 바치는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을 몇몇 볼 수 있었다. 그런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귀한 보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돈을 모으고 재산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은 너무 뒤쳐져 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에 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챙기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핍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뜻 신뢰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병약하며 너무 많은 이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탐욕자들이 있다. 세상에 애착을 두는 사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각박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굳은 얼굴과 강퍅한 마음으로, 고생하여 얻는 적은 액수를 아까워하며 노동자들에게 주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대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분의 종들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인색한 정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바친다. 비유에 나온 사람은 그의 재물을 쌓아 둘 곳이 없었다. 주님께서는 그의 무익한 생애를 단축하셨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실 것이다. 이 부패한 시대에 세속화되고 이기적으로 되지 않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신 이에게 배은 망덕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 부지런히 영혼을 보호하는 일에 경성과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2 증언, 198-199)

5. 만약 하나님의 손이 저들의 재물을 흩으신다면...

"이기적으로 돈을 거머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을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 봉헌되어야 했던 것인데 거머쥐고 있었다면 그것이 무모한 아들에게 위임되어 그가 낭비할 수도 있다. 헛된 마음의 자랑인 멋진 말이 외양간에서 죽어 있을 수도 있다. 때때로 소가 죽을 수도 있으며 과일이나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

절할 때 그분의 청지기에게 빌려 주신 돈을 흩어 버릴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의무를 등한히한 것을 상기시켜 줄 만한 손실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우는 더 희망이 없을 것이다." (2 증언, 661-662)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리켜 주고 계심

6. 참된 부를 축적할 수 있는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재물이 많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들에게 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 부자를 위한 그분의 치료제는 세상 재물에 대한 그들의 애정을 영원한 기업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돈을 투자함으로, 영혼 구원을 도움으로, 어려운 자들을 돈으로 도와줌으로 그들은 선한 일에 부하게 되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안전한 투자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하늘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땅에 있는 돈을 먼저 하늘에 보내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하늘 보물에 가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2 증언, 681)

7.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첫째로 이행하라

"하나님의 요구가 최우선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상적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 이후에 수입의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수입의 어떤 부분도 사용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몫을 취해서 그분께 드려야 한다. 고대에는 감사의 제사가 제단에 끊임없이 불타 올랐으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다함없는 복종의 의무를 보여 주었다. 만일 우리가 세속적인 사업에서 번창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이 수입의 한 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분께 드려질 때, 나머지도 성별되고 우리 자신의 용도에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착복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분의 저주는 모든 것에 내리게 될 것이다." (4 증언, 477)

"이생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기 전에 주님의 재산을 올바로 처리하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 드려라. 그대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것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재산의 처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처럼 많이 필요한 자금을 주님의 사업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온갖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진시키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모든 돈을 필요로 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의 달란트를 세속적인 사업에 묶고 있다. 나는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가방 속에 넣어서 하늘의 보고에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저축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바이다. 나는 특별히 미구에 그들의 재산을 처분해야 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교훈으로 봉사해 온 자들을 기억하도록 호소하고 싶다. 그대들의 재산을, 건강과 생명이 쇠약해 질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곳에 두라. 그리하면 그것들은 취급하는 자들에게로 넘겨져 끊임없이 축적될 것이다." (7 증언, 295-296)

8. 동전 두 렙돈을 넣은 과부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동전 두 닢을 넣은 과부의 일은 다른 이

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희생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행위에 제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예물을 거부들이 바친 많은 예물보다 귀하게 보셨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다. 그들은 그 헌금으로 인해 조금도 구차하게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적은 연보를 내기 위해서 생필품을 줄여야 했다. 그녀는 미래의 결핍이 어떻게 채워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구차한 때에 그녀를 뒷받침할 남편이 없었다. 그녀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헌물의 가치는 바쳐진 양에 의해서보다는 그 선물을 바치는 비율과 동기에 의해 측정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각인에게 상을 주실 터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2 증언, 666-667)

9. 참된(순수한) 종교가 정의됨

"현재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불행한 이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나타내고, 친절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약 1:27). 여기에 진실된 경건이 정의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과 동일한 배려를 맹인에 대해서, 기타 신체적 연약함 때문에 고생과 고통을 쥐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베풀기를 요구하신다. 사심 없는 자선이 이 시대의 세상에 아주 드물다." (3 증언, 516)

10. 탐심(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려야 할 양을 결정할 때 마땅히 드려야 할 요구에 모자라게 하기보다 더 많이 드리도록 하자. 이 헌물을 드려야 할 대상을 생각해 보라. 그것을 생각하면 탐심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욱 향내가 나지 않고 더욱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자비와 축복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흘러나가는 통로로만 자신들을 바라볼 것이다. 동료 인간들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은사에 그들과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통해 하늘로 영광의 환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4 증언, 484-485)

처음 열매와 서원

11.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음

"십일조 바치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는 표시가 있었다. 땅의 모든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였다. 양털을 깎을 때의 처음 깎은 털과 밀타작할 때의 처음 얻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즙의 처음 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다. 또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그러하였고 처음 난 아들을 위하여서는 속전이 지불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성소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이 쓰도록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과 양떼와 소떼의 참 소유주라는 것과 당신께서 파종 때와 추수 때를 위하여 햇빛과 비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며 당신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물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득 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였다. 제사장이 헌물을 받을 때에 바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애굽에서 체류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신 26:5, 8-11)고 하였다." (부조, 526-527)

12. 우리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바쳐야 함

"십일조 외에, 주께서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 이것을 그분께서는 따로 떼어 놓으셔서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업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셨다. 주의 종들이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사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장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리를 가르칠 때에 그들은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할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원하는 효과를 최대한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선 사업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베풀어져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물들과 헌금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특별히 새로운 지역들에서, 진리의 깃발이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는 곳에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노유를 물론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 같으면 재물 창고에 부족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이들이 십일조를 충성되이 드리고 소득의 첫 열매를 주께 드린다면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되지도 않고, 순종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핍절의 압박을 주게 되었다." (6 증언, 384-385)

13. 하나님께 서원(서약)하는 것임

"우리 형제들 앞에서 말이나 글로 얼마의 금액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증인이다. 그 서약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며 이웃에게 준 어음과도 같은 것이다. 금전의 지불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 서약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더 큰 법적 채무 증서는 없다." (4 증언, 470)

14. 서약(서원)에 대한 교회의 책임

"교회는 각 교인의 서약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만일 서약 이행을 소홀히 하는 형제가 있음을 알면 그들은 친절하고 분명하게 그에게 일러주고 서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가 서약한 바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 처해졌을 경우 그가 훌륭한 교인이고 기꺼이 이해할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4 증언, 476)

15. 요청은 계속해서 옴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는 자신이 공언하는 진리가 실제적인 것임을 느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무아적 일꾼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부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돈이 요구되므로 불평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재물을 요구하는 데 끝이 없다고 말한다. 한 일, 다음에 다른 일이 또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에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발전함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자금의 공급을 요청하는 더 많은 기회와 더욱 긴급하고 빈번한 요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다." (3 증언, 389)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을 때, 바치는 데 지쳐 버렸다고 말할 것이다. 그대도 그러한가?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 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서 받는 것도 지쳐 있는가? 그분께서 그대에게 축복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분이 주장하는 몫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의무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고자 그대를 축복하신다. 그대가 받는 일에 지쳐 있을 그 때에, 그대는 '나는 바치라는 부름을 너무 많이 듣고 지쳐 버렸다' 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것 중 특정한 부분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 이 부분의 것이 그분께 돌려질 때, 나머지 부분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바치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때 전체가 미구에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요구가 첫째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다." (5 증언, 150)

제2의 십일금

16.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함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제2 십일조가 요구되었다. 제1 십일조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 다 주었' (민 18:21)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제2 십일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 14:23, 29, 16:11-14) 고 명하셨다. 이 십일조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은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하였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였는데 이 연회에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하였다. 매년 축제일에는 감사 예물과 연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였으며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부조, 530)

17. 자선 사업과 접대를 위하여 사용함

"그러나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제2 십일조를 모세가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민 26:12)고 말한 바와같이 집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였다. 이 십일조는 자선 사업과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 (부조, 530)

18. 가난한 자들과 다른 자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과수원이나 토지, 가축, 손과 머리를 써서 일하여 얻는 수확 등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더하여 또 다른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빈민 구제와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없애고, 넓고 고결한 품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다." (교육, 44)

19.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시대에 십일조와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였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적게 드려도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가 받은 빛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눅 12:48).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 10:8)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증가할 때,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비할 데 없는 희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헌물을 드림으로 표시하지 않겠는가? 확장되어 가는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옛날보다 더 큰 돈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법칙은 히브리인의 제도 하에서보다 지금 더 긴급히 필요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고를 채우기 위하여 비그리스도적이요 신성하지 않은 방법에 의뢰하지 않고 자원하는 헌물로써 당신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을 것이다." (부조, 528-529)

20. 풍성하게 바칠 때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족히 되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3:11, 12)." (부조, 527)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하신 유일의 길은 재산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분은 식물이 자라게 하신다. 그분은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그분의 풍성한 손에서 온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께서는 남녀들에게 십일조와 헌물-감사헌물, 자원하는 헌물, 속건 헌물-을 통하여 특정한 부분을 그분께 돌려드림으로 그들의 감사를 표시하기를 바라신다." (5 증언, 150)

기억할 말씀: "잃어버린 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갈바리의 십자가로 데려 갔다. 영혼들을 위한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극기와 희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9 증언, 59)

연구할 과제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가? (1 증언, 193)
2. 1859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던 가장 큰 죄악은 어떤 것이었는가? (1 증언, 194)
3. 가난한 사람들의 유산에 대해 토의해 보라. (1 증언, 479)
4. 메로소(삿 5:23)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증언, 284)
5. 하나님의 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의존하시지 않으신다는 성경절을 찾아 보라. (3 증언, 390)

6.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사업 거래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가? (4 증언, 494)
7. 얼마나 자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가?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5 증언, 150)
8.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원칙과 세상의 원칙을 비교해 보라 (9 증언, 254)
9. 그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3 소망 76)

제112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나의 십분의 구

성경절 연구: 시 128편

요점: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을 바쳐야 했다는 이유로 유대 백성을 동정 받아야 할 백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에게 최선인지를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통하여 인간의 십 분의 구를 당신의 축복이 결여된 전체의 금액보다 더욱 그들에게 가치 있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불완전한 헌물을 가져간다면, 재앙과 손실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읽으신다. 그분은 사람들의 목적을 아시며, 당신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사람들이 받을 만한 대로 보상하실 것이다." (3 증언, 404)

예언의 신 연구

봉사의 동기로서의 상급(보상)

1. 참다운 희생의 정신

"구주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보상을 열망하거나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신다. 이는 주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보시기 때문이다. 그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신실성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

참다운 희생 정신과 무아의 정신으로 봉사한 자들은 마침내 첫째가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일꾼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봉사는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대표했다. 그 집주인은 자기는 남보다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노라' 고 말했다." (청지기, 339)

2. 모든 보수는 부수적이 되어야 함

"우리는 모두 보상을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약속을 감사하는 한편 주께서 옳게 행하실 것이며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익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며 보수에 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바울은 그에게 주시고 또 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항상 바라보았다. 그가 그렇게 면류관을 사모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얻은 승리 때문이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높이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재능이나 승리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지혜로운 자

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렘 9:23, 24)." (청지기, 339-340)

3. 권리로서가 아니라 선물로서...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그가 사도들이 행한 일의 분량에 따라 그 보상의 분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나타냈다. 제자들 사이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서로를 비교하는 정신이 있었다. 만일 그들 중에 누가 눈에 띄게 실수를 범할 경우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은 더 낫다고 느꼈다. 예수께서는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신이 들어옴을 아셨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기주의의 경향을 보셨다. 그분은 그것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기 전에 이 악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제자들은 복음의 참된 원칙을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분은, 보상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로 주는 것임을 가르치심으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새벽에 부름받은 일꾼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부름받는 사람도 처음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 사업은 모두 은혜이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아무도 피차에 남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특권을 받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권리로 보상을 주장할 수도 없다. 베드로는 삯꾼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청지기, 340-341)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4. 재난과 손실로부터 안전한 곳에 두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고 탄원하신다. 그대의 소유를 위에 있는 세계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그대의 모든 최선의 정력을 다 쏟을 가치가 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기에는 그대의 영원한 유익이 내포되어 있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모든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대의 금과 은의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준다면 끊임없이 그 가치가 증가할 것이요, 그것은 하늘 나라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될 것이다. 그대는 취리하는 자들의 손에서 증가된 영원한 부를 수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바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청지기, 342)

5. 영원과 관계가 있는 계획

"그대의 가진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는 것이 그대의 단호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의 봉사가 현세의 생명을 위해서도 유익되고 내세를 위해서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만일 그대의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 6:22). 만일 눈이 성하면, 만일 그것이 하늘을 향한다면, 하늘의 빛이 그 심령을 채울 것이요 땅의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며 마음을 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목적이 변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권면에 주의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그대의 사상은 위대한 영원의 상급에 고정될 것이다.

그대는 모든 계획을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고려하여 세우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보배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속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모든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조용하게 묻는 질문은 '주여 저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가 될 것이다. 성서적인 신앙은 그대의 매일의 생활에서 체험 될 것이다." (청지기, 342-343)

6.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속적 사물도 자기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애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권위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늘 가는 길이 얼마나 더 쉬워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부패나 손실이 전혀 없는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대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주의 법이 그대의 기쁨이 될 것이요 최후의 결산하는 날에 그대는 다음과 같은 기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청지기, 343)

7.모든 이기주의의 만병통치약이 될 것임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분배 관리인으로 삼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당신의 선물들을 위탁하셨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자선 행위는 모든 이기주의에 확실한 만병 통치약이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통하여 그대는 그 궁핍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 (청지기, 343).

8. 연합의 줄을 튼튼하게 함.

"교회가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신자들은 더욱 잘 연합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고통중에 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고후 9:12). 형제들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증가되어 저희 영혼과 육체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것이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라." (청지기, 343-344)

9. 그리스도의 손 위에 새김.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사랑의 제단 위에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은 없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보존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순종하고, 자기 희생을 한 신실한 자들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것이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토하며 내침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입술에 담아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특별히 탄원하실 것이다. 이기적이며 교만한 자들이 잊어버려질 때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요 그들의 이름은 불멸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애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는 이생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요 내세에서는 불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청지기, 344)

자선에 대한 현세의 축복들

10.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누림

"인간의 동정심이 사랑과 자선과 혼합되어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화될 때 그것은 선을 행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선심을 계발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어 축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자선 사업의 좋은 감화력을 통하여 유익을 받는다.

남들에게 비춘 모든 빛줄기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슬픔에 처한 자들에게 행한 모든 친절하고 동정어린 말, 압제당하는 자들을 건져 내기 위하여 행한 행동, 그리고 우리 동료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선물 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준 것이나 행한 것은 주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남에게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은 온 신경 계통에 전달되어 행복감을 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청지기, 345)

11. 정신적 영향의 효과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잠 17:22).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향은 투병(鬪病)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치료, 241)

12. 지상의 세력이 깨어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한 부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분과의 연결을 통하여 이 부를 받아 나누어야 한다. 이 세상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단 목사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대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그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사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마음과 성품을 다스리던 지상의 세력은 깨어진다. '내가 그를 사랑하므로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는 약속에 따라 그에게는 하늘 손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실 것이다. 그는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한다." (청지기, 346)

13. 주는 자의 마음이 넓어짐

"구원하는 진리의 이 귀한 빛을 전파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극기하며 바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헌신한 예물로서 주 앞에 온전히 가납된다. 그리고 드리는 바로 그 행위는 바치는 자의 마음을 넓히고 그를 세상의 구속주에게 더욱 온전히 연결시킨다." (청지기, 347)

14. 행복과 번영이 따름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일 자기에게 최상권을 줄 것 같으면 세상의 나라들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늘을 잃어버린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고, 속이는 것보다 궁핍해지는 것이 더 낫고, 거짓말 하기보다 굶는 것이 더 낫다.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런 말로 사단을 대적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명백히 이해되어야 할 조건과 약속이 있다. 행복과 번영은 여호와를 섬기는 결과로 주어질 것이다." (4 증언, 495)

구원 받는 자의 기쁨에 참여함

15. 기쁨을 함께 나눔

"이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교역자들과 그들의 부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바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 이 사업의 활동적인 봉사에 가담한 자들과 이 교역자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드리는 자들은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모든 현명한 재물의 청지기들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충실한 영혼 구원자들에게 복스러운 칭찬, 거룩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추수하는 집에서 기뻐 외치는 것같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청지기, 348)

16.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만족해 할 것 인가?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두 만나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택에 모이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오, 이 땅에서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 온 이기심 없는 일꾼들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함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들어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악 소리 같은 예수님의 맑은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추수꾼들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구속주께서는 자신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온 자들은 그들이 멸망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가졌던 해산의 고통의 결과를 보고 만족한다. 그들이 겪은 번민의 시간들, 그들이 당면해야만 했던 당황스러운 상황들,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느꼈던 마음의 슬픔들은 다 사라졌다.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행한 극기는 더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애썼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볼 때에 하늘 궁전에는 찬송과 감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것이다." (청지기, 348-349)

17. 기대보다 더 확실한 현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사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이 때문에 주께서는 심판장의 직위를 받으셨다. 심판장의 지위를 차지하신 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선생이시며 구속주이신 그분, 아직도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며 거기서 영광의 광채가 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면류관에 후광을 비치시는 그 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펴셨던 바로 그 손을 가지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음성의 주인이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을 환영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하신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 당신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회개케 하신 그분, 그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신 그분이 이제는 당신과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환영하신다. 오! 그들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현된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크다. 그들의 기쁨은 완성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번쩍이는 면류관을 들어 구속주 앞에 던진다." (청지기, 349)

18. 그 약속은 확실함

"우리는 오랫동안 구주의 오심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머지 않아 우리는 약속받은 그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곳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캄캄한 섭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낙원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흐리지 않은 눈으로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씌워 주신 면류관을 구주의 발앞에 던질 것이며, 금거문고를 타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청지기, 349-350)

19. 이제는 조금 밖에 남지 않음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고 그들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덤들은 열릴 것이며 죽은 자들이 다음과 같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올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진리를 지켜 온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찍이 인간의 귀로 들어 본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음성이 들릴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의인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과 같이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구속주의 발앞에 던질 것이며, 금거문고를 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하늘은 그 풍부한 음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청지기, 350)

기억할 말씀 : "…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생애의 내용이 풍부하게 되고 고상하게 됨이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 189)

연구할 과제

1.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해상이나 이 지상에 있는 재난들은 무엇인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
3. 십일조를 내는 것 이 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4. 갈라디아서 6장7절의 말씀을 토의해 보라
5. 디모데전서 6:10절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해 보라
6. 투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는 가?
7. 현명하지 못한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8. 빚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9. 누구는 집을 팔아서 바쳐야 하며 누구는 집을 소유하여야 하는가?
10. 그대는 바람직한 예금 계정과 부를 축적하는 악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1 증언, 173)

제 16 장

나의 교제

제113과 나의 소꼽 동무와 나의 친구들

성경절 연구: 잠 17:17; 18:24; 요15:13; 고전 15:33

요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친구를 사귀게 된다. 우정의 깊이에 따라서 친구를 서로 간에 선과 악에 대한 감화(영향)을 끼칠 것이다." (4 증언, 587)

예언의 신 연구

안전한 교제와 불안전한 교제

1.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것)들

"우리의 교우 관계의 범위가 아무리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감화를 끼친다. 우리가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친밀도와 그 교제의 견실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 주신 고귀한 요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진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자초(自招)하고 그것을 저항할 도덕적 힘이 너무나 약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의 정신에 물들고 그들의 생각을 품게 되고 또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우리 친구들의 생각보다 더 낮은 곳에 두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의의 원수가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은 꼭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청년들이 이 감화의 지배를 받으면 그들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쉽게 이 감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들이 보는 표정들, 그들이 듣는 음성들, 그들이 가는 장소들, 그들이 사귀는 친구들, 또 그들이 읽는 책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인상을 남긴다.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택하는 교우 관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 459)

2. 불경건한 자들과 가지는 교제의 위험성

"이 세상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의 정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게 하여 거짓 신들을 경배하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고귀한 축복들을 자기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바 이는 주의 율법이 그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과 사귀면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고 더렵혀지지 않은 채로 보존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정신을 간파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들의 운명을 함께 나눌 것이다." (가정, 459-460)

3. 음흉한 악의 영향력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부모의 기도가 밤낮 그대들을 따를 것이다. 그들의 호소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무모한 친구들을 선택하지 말라. 그대는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음흉하게 그대의 품성을 타락시키고 그대의 습관을 손상시키고 그대가 악한 습관을 되풀이하도록 이끌어서 그대에게 불건전한 성격을 계발시키려고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그대가 실제적인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가 전에 그릇된 일을 하라는 유혹에 굴복하기 전과 꼭 마찬가지로 쉽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경고하고 호소하고 조언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에게 주신 재능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가정, 460-461)

4. 신앙에 냉담한 자들을 조심하라.

"만일 어린이들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세상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과 휩쓸린다면 그들의 마음도 똑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신앙의 원칙에 대하여 헐뜯는 말과 우리의 믿음을 흠잡는 것을 듣는다면, 만일 진리에 대해서 교활하게 반대하는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각에 남아서 그들의 성격을 형성할 것이다.

헛되고 부주의하고 타락된 마음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진지한 느낌과 선한 욕망을 억제하고 쫓아 버리는 것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지나 풍자나 농담이 아무리 큰 매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경솔히 하고 냉담히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여러 활동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친구들로서 그들이 끼치는 감화는 더 무서운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많은 위험한 매력들로 비종교적인 생애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461)

5. 세속적인 친척들에게 애정을 집중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려는 욕망이 없는 세상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애정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는 동안 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모든 방법으로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과 행위는 어느 면에 있어서나 그들의 생각이나 습관과 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과 가지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과의 교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영성을 위하여 더욱 더 유익할 것이다." (가정, 462)

6. 낮은 수준이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들을 피하라.

"그리스도인이 품행이 나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적, 도덕적 힘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는 친구와의 절친한 매일의 교제는 위험

하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가 순결하고 성화된 것이 아니라 부패함으로 더럽혀진 것이라면 그 분위기를 호흡하는 자들은 그것이 거의 감지할 수 없게 지성과 심령에 해독을 끼치고 파멸시키기 위하여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마음이 천성적으로 저열한 수준에 있는 자들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위험하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감지할 수 없게, 천성적으로 양심적이고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접촉한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저능함과 도덕적 황무함에 동참하고 동조하게 된다." (가정, 462)

7. 많은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굴복한다.

"어린이들은 순결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비웃지 않고, 도리어 옳은 것을 옹호할 자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한다. 조롱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은 유혹에 굴복하고 불경건한 길로 들어선다. 어머니들은 교훈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가정, 463)

8. 타인들 앞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순결하고 거룩한 사업을 하는 데에 그대를 부적당하게 만들 자들과 교제하는 일에 한 시간도 사용하지 말라. 그대가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 혹은 그대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 할 일들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조금도 행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나의 진의(眞意)를 안다. 나는 그대들 젊은이들에게 주의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악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필연코 그 영향을 받는다. 그대의 행동은 그대 자신의 품성 건설에 쓰여진 재료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반면 또한 강력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다. 그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주께서 그대를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과 주께서 위탁하신 모든 재능들에 대하여 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결코 눈을 감지 말라." (가정, 463)

사교 문제에 있어서의 부모의 지도

9. 거의 압도적인 악의 세력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있는 악한 세력은 거의 압도적이어서 자녀들의 마음을 퇴폐하게 하고 파멸로 이끈다. 청년들의 마음은 쉽사리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형성되기 전, 그들의 판단이 무르익기 전인 연소한 때에 빈번히 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편애심을 나타낸다.

나의 음성이 전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미칠 수 있다면 나는 자녀들의 벗이나 친구의 선택에 있어서 자녀들의 욕망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경고하리라. 젊은이들이 신령한 감화보다 새로운 감화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거의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갖는 사교들은 은혜의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되도록이면 청년들이 가장 유리한 환경 속에서 지나도록 하라. 그 까닭은 그들이 사귀는 동무와 그들이 취택하는 원칙과 그들이 형성하는 습관은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의 장래의 영원한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틀림없이 결정할 것이

기 때문이다." (가정, 466)

10. 무제한한 자유의 위험성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아들 딸들은 합당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 그대의 시인이나 승낙이 없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연령의 자녀들에게 제한 없이 허용된 자유가 많은 자녀들을 멸망시켰음이 증명되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밤거리를 다니도록 허용되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친구에 대해서 무지한 채 안심하고 있는가. 타락시키는 감화를 끼칠 뿐인 그러한 동무들을 선택하는 때가 빈번하다.

암흑의 덮개 아래서 소년들이 그들의 최초의 교훈들을 카드놀이와 도박과 흡연과 술이나 맥주를 마시는 일에서 배우려고 패를 지어 모인다. 믿는 부모의 아들들이 감히 굴(牡蠣)로 만든 저녁밥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방종을 행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감으로 유혹에 빠진다. 이런 유흥가의 분위기야말로 독신(瀆神)과 부패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것이다. 아무라도 부패됨이 없이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유망한 청년들이 취한(醉漢)과 범죄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친구들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악의 시초인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주위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한 그대들의 자녀들이 해진 후에 거리에 나아가서 호외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혹은 다른 소년들과 놀기 위하여 만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규칙을 엄격히 시행한다면 이 규칙에의 순종은 습관이 될 것이요 규칙을 범하고 싶은 욕망은 미구에 사라질 것이다." (가정, 466-467)

11.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택해 주어야 함

"부모들은 방종한 도덕성과 야비한 품성의 소유자들과의 교제는 청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이 만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합당한 교제를 하도록 택하여 주지 않는다면, 만일 부모들이 그들을 의심스러운 도덕성을 가진 청년들과 사귀도록 용납한다면 그것은 자녀들로 부패의 공과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학교에 다니게 하거나 혹은 그들로 스스로 그러한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유혹을 대항할 만큼 튼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악한 감화에 대항하기보다는 이에 굴복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들이 그 사실을 미처 깨닫기 전에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사귀는 친구들의 정신에 물들게 되어 타락하거나 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정, 467-468)

12. 단속은 단호하나 친절하게...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의 경향에 양보하지 말고 그들을 친절하게 단속하며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거절하며 열렬하고 경건한, 견인 불발의 노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세상에서 떠나 하늘로 지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명백한 의무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도록 허용하여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도처에 입을 벌리고 있는 길목으로 가도록 방임하여서는 안 된다.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충고와 권면을 견디어 내지 못하는 자들만큼 큰 위험에 빠진 자는 없다.

가능한 한 그대의 자녀들을 모든 좋지 못한 감화에서부터 보호하라. 그 까닭은 도덕적인 위엄과 순결과 품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화든지, 아니면 이기심과 부정함과 불순종의 감화든지 간에 유년 시절에 받아들이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들이 불평과 자긍함과 허영심과 부정한 정신의 감화를 받으면 그 더러운 흔적은

생명 그것과 같이 지울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가정, 469-470)

그릇된 친구(동료)의 악한 감화

13. 소돔성에 있었던 현세적 이익과 그 감화는 어떠하였는가?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들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고전 3:15)이 구원을 얻었다. 롯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자녀들의 성격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악,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없었다." (청년, 419)

14. 소돔이 롯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회와 술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실례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부조, 157)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기었다. 저녁 무렵의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갔다 하였다." (부조, 157-158)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 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악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요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부조, 159-160)

"롯은 소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 곳에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롯은 이 도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 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였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였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부도덕한 도시의 감화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 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부조, 167-168)

15. 삼손의 그릇된 교제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마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성취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다. 그 소년이 성장할 때에 그는 비상한 체력을 가졌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체력은 삼손과 그 부모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튼튼한 근육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의 깎지 않은 머리가 상징하는 바와같이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만일 삼손이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였더라면 그의 운명은 보다 더 고상하고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소알촌이 블레셋 나라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삼손은 그들과 다정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젊은 시절에 정교(情交)의 싹이 터서 그 영향은 그의 전생애를 어둡게 하였다. 딤나라고 불리우는 블레셋인의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인이 삼손의 애정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가 삼손의 목적을 단념시키려고 노력하자 삼손은 부모에게 다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삿 14-16장을 보라)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부모는 마침내 그 소원을 허락하여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부조, 562)

16. 감화력의 가치를 생각하라 - 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생에서의 그대들의 행복과 내세의 영생은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사상과 말과 도덕을 천박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그대들은 식욕이나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권위를 경홀히 여기고, 야비한 말을 사용하며, 가장 비천한 수준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는 감화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수 있었을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와의와 거룩함과 하늘에서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심판 날에 잃어버린 바된 자들이 그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실패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신앙을 조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빛을 가졌었고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지하였으므로 맹목적으로 멸망으로 달음질쳤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비난에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각 사람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보이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감화력의 가치를 얼마나 자세하게 계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의 계산에서 빼지 말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나보다 빛과 증거를 훨씬 적게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행동은 어떠한 감화를 끼칠 것인가? 하고 항상 자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청년, 31-32)

참된(진정한) 우정(친구)의 '예'들

17.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오늘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보잘 것 없는 인생 중에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인하시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을 정죄한다. 그들 앞에서는 죄인까지도 두려움과 억제력을 느낀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읽는 산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에는 부드러운 친절과 위엄과 거룩한 교양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동료들의 마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준다." (4증언, 615)

18.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이 가는 길에는 밝은 곳들이 거의 없었다. 이 때에 그의 피신처를 알고 찾아온 요나단의 예기치 않은 방문은 그를 매우 기쁘게 하였다.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지낸 순간들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을 말했으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고 말하였다. 저희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쫓겨다니는 도피자는 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부조, 660)

19.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우정

"네로의 한마디 말이나 한 번의 고개짓으로도 그의 생명이 희생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날마다 침침한 감방에 앉아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부르러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볼 책임이 지워졌으므로 바울이 로마로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에 디모데는 거기 남게 되었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매우 깊고도 강한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회심한 이래로 디모데는 바울의 수고와 고통에 동참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더욱 강하고 깊고 거룩하게 자라서 마침내 디모데와 연로하고 수고에 지친 사도와의 관계는 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관계처럼 되었다. 바울이 외롭고 고독한 중에 디모데를 보고자 간절히 원한 것은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행적, 498-499)

20. 말린 루터와 멜랑톤 사이의 우정

"루터에게 진실한 친구의 동정과 조언이 가장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써 멜란히톤(Melanchthon) 을 비텐베르크로 보내셨다. 나이가 젊지마는 겸손하고 내성적인 멜란히톤은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웅변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반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욱 훌륭하였다. 곧 그는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루터의 가장 신임받는 친구가 되고, 그의 귀중한 동지가 되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성질은 과감하고 용감한 루터의 성질을 보완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하므로 개혁 사업은 한 층 더 보강되었고 이것이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되었다." (쟁투, 134)

기억할 말씀: "… 참된 우정의 온기(溫氣)와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 준다." (치료, 327)

연구할 과제

1. 많은 청소년들을 타락의 길로 걷게 한 한가지의 그릇된 선택은 누구인가? (청년, 516)
2.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 그가 의도한 목적은 무엇인가? (부조 상권 207)
3. 오늘날도 롯이 저지른 실수가 어떻게 하여 성행되고 있는가? (부조 상권 207)
4.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세 말씀을 찾아 보라. 성구 색인 사전을 찾아 보라.

5. 인간의 참다운 위대함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부조 하권 234)
6. 삼손이 선택한 친구(동료)가 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조 하권 234)
7. 나실인이란 무엇인가? 성경 사전을 찾아 보라.
8.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어떤 아름다운 시로 애도하였는가? (삼하 1:23, 25-27)
9.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어느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는가? (부조 하권 350)
10. 루터가 의회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 멜랑톤은 왜 그의 곁에 서지 않았는가? (쟁상, 240-245, 257-258)

제114과 사회적 관계

성경절 연구: 말 3:16-18

요점: "사교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모든 남녀들은 선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두운 앞길에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된 사교의 힘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계발되어야 한다." (치료, 496)

예언의 신 연구

사교와 예절

1. 일해야 할 또 다른 영역(분야)

"인간의 이해 관계와 자신을 연결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그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가 따라야 할 모본이다. 우리는 사교적 교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과도 접촉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강단 위에서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써 감동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 있으니 비록 그보다는 작을지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유망한 것이다. 이는 미천한 자의 가정에서, 부귀한 자의 저택에서, 식탁에서, 또 순진한 사교적 친목을 위한 모임 중에서 발견된다." (청년, 403)

2.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세상과 혼합하여 어리석게 그들과 연합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교제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침묵이나, 혹은 우리의 참여함으로 죄를 시인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돌벽 속에 감춤으로 그 신앙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사교적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빛을 받은 각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청년, 403)

3.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누어야 함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의 능력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기적 이해 관계에 열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은 냉정하거나 혹은 강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

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라." (청년, 403-404)

4. 그리스도인의 사교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의 사교성이 너무 적게 배양되어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부분의 교육을 등한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각각 독립된 원자가 아니라 다른 실과 합하여 옷감을 짜내는 한 올의 실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교훈을 학교 만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학교에서 그들은, 만일 활용만 한다면 품성의 사교적인 일면을 계발하기에 큰 도움이 될 많은 기회들로 둘려 있다. 그들을 행복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 품성의 개발은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 스스로 고립되는 자들, 즉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꺼리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상호 접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연마 단련되기 때문이다. 또 사교적 접촉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마음의 일치와 사랑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우정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청년, 405)

5. 학교에 다니는 동안 선교사가 될 수 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즐겨 사랑의 봉사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언행 일치하는 신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산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에 투자된 시간은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니 학생들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세상에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청년, 406)

지도와 영향

6. 교제는 운명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성인들에게도 교우 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역설한다. 하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정신과 성격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들이 교제하는 동무들과, 그들이 채택하는 원칙들과, 그들이 이루는 습관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의 장래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청년, 404)

7. 누가 그대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마음은 예수께 속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변호를 하고 계시되 탄원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를 마땅히 요구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 하실 수 있으니 예수는 항상 살아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마음은 귀한 재물이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다. 그대들의 모든 인격과 소유한 모든 능력은, 거룩한 헌물로 다시금 하나님께 즐겨 되돌려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위탁물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대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드릴 수는 없다. 그런 고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셨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청년들은 흔히 시간과 애정과 체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단은 청년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그에게 돌린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제 소유로 요구하지만 사실은 속량하신 구주의 소유이다. 만일 마음을 세상에 내어준다면 그 마음은 걱정과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찰

것이며 결국에는 불순하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사랑과 봉사를 세상에 내어주는 것은 가장 악독한 약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쾌락을 구하는데 마음을 바친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 (청년, 407)

8.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고리

"청소년들이 교제하는 친구들을 갖게 되는 것과 교제의 감화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영혼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신비한 고리들이 있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응을 주게 된다. 또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감상과 정신을 받아들인다. 이 교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피차에 서로 돕고 격려하여 품행과 성격과 지식이 발전한다. 그러나 부주의하고 불성실함으로 그들은 타락케 하는 감화를 끼칠 수도 있다." (청년, 411)

9. 힘을 헤아림

"성품의 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강하고 분방(奔放)한 열정을 품성의 강한 힘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참된 위대성과 고결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의 힘으로 평가되며 그를 굴복시키는 그 자신의 감정의 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굴욕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 · 도덕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각 사람은 자신의 품성의 건축가이다. 그 건물은 거의 다 완성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유의하여 우리의 건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지 살피라고 경고하신다. 우리 행위가 현실 그대로 나타날 시기가 온다. 모든 사람이 현세에서는 유용하고 또한 내세에서는 더욱 고상한 생애에 합당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계발시킬 때는 바로 지금이다." (청년, 412-413)

10. 각자 자신의 분위기로 둘러 싸여 있음

"그리스도의 생애는 언제나 넓어지고 있는 무제한의 감화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감화력을 가졌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감화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과 연락되어 있어 하나님의 크신 가족의 한 부분이 되나니 우리는 상호간에 의무를 지고 있다. 아무 사람도 자기 동포들에게서 고립할 수는 없으니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까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으니 이 분위기는 생명력을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사랑의 향기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이 분위기는 불만과 이기심과 불만의 우울과 쓸쓸함으로 둘러싸일 수도 있으며 품은 죄로 몹시 오염된 유독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를 싸고 있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자들이 은연 중에 그 감화를 받게 된다." (청년, 417)

우리의 책임

11. 말, 행동, 의복, 태도(품행)와 표정에 있어서의 책임

"이것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복과 품행과 심지어는 안색까지라도 각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끼친 감화에는

선악간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결과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끼친 충동은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하는 씨가 된다. 이 충동은 우리로서는 어디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길다란 사슬의 한 고리가 된다. 만일 우리가 실지 모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선한 원칙을 실행하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는 것이 된다. 그들도 또한 같은 감화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한다. 이리하여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주는 감화로써 여러 천만 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 417-418)

12. 친구의 선택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유익한 교제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도움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가능한 한 힘겹게 만들기 위하여 사단이 많은 장애물을 놓아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그들의 뜻대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격 형성에 거슬리는 나쁜 감화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부득불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히 서서 타락하지 않도록 갑절이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청년, 419)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 청년들은 바른 일을 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선택할 것이요 바른 원칙과 고상한 목적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교는 피할 것이다. 비속한 습성을 가진 청년들을 각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과 교제하게 되는 경우에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이성과 양심이 바르다고 가르치는 바를 굳게 견지할 것이다." (청년, 422)

13. 황금율

"타인과 교제할 때 자신을 그의 처지에 두라. 그들의 자각과 곤란과 실망과 기쁨과 슬픔에 들어가라. 그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대가 그들과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대가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의의 진정한 법칙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19:19) 하신 것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들의 교훈의 대강령이다. 그것은 하늘의 원리이며 그 거룩한 교제에 적합한 모든 사람에게서 계발될 것이다." (청년, 420)

14.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신사를 만들 것임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신다.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또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의와 겸손을 가지고 대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사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는 예의를 지키셨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그리하셨다. 따라서 참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통치자들 앞에 불려온 바울을 보라. 아그립바 앞에서 행한 그의 변론은 설득력 있는 웅변 뿐 아니라 참된 예의의 실례가 된다. 복음은 이 세상에 유행하는 형식적 공손을 장려하지 않고 충심어린 친절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를 장려한다." (청년, 421)

15. 참된 세련에는 사랑이 필수적임

"인생의 외모에 나타나는 예의를 가장 세심하게 계발하는 것으로는 모든 성내는 일과 가혹한 판단과 부단한 언사를 물리치는데 역부족이다. 진정한 세련이란 자

기를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을 마음 속에 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행동의 동기를 자기 주께 대한 충심의 사랑에서 이끌어 온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뿌리에서 그 형제에 대한 무아의 관심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사랑은 이를 가진 자에게 우아와 예의와 아담한 행동을 준다. 이는 얼굴로 빛나게 하고 소리를 낮추게 한다. 이것이 전인격을 세련시키고 향상시킨다." (청년, 421)

씨를 뿌리고, 뿌린 것을 거둠

16. 세속적 교제를 즐겨함

"청년들은 무엇을 자신의 목표와 일생 사업으로 삼을 것인지 진실히 생각하여야 하며 부패에 물들지 않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야 한다. 만일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한다면 자립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연못에 있는 수련이 티끌과 진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공이 있는 줄기를 통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양분을 빨아올린다. 그리하여 흠 없는 꽃을 피워 못 한가운데에 곱고 순결한 모습을 드러낸다. 연꽃은 자신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모두 거절한다.

우리는 이 수련을 통하여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비록 도덕을 부패하게 하고 영혼을 멸망케 하는 감화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패를 거부하고 나쁜 교제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할 수 없는 곳에 우리 몸을 둘 수 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은 흔들리지 않는 보조로 위를 향해 나아가려고 고투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나쁜 감화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이요, 높은 성품의 표준에 도달하려는 열성을 갖지 아니한 나태한 사람들, 그리고 원칙에 진실한 사람으로 신뢰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여야 한다. 청년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도록 하라.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고결하고 견고한 품성은 연못 한가운데서 순결한 꽃을 피우는 수련으로 대표된다. 그들은 타락적인 감화에 의해 품성이 형성되는 것을 거부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품성의 발달에 필요한 것만을 모은다. 그들은 하늘 모형에 일치되기를 구한다." (청년, 423-424)

17. 고상한 문제를 주제로 하는 대화

"청년들의 마음과 연장자들의 마음이 올바른 지도 하에서 서로 교제한다면 그들은 고상한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마음이 순결하고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고상하게 될 때 언어는 곧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잠 25:11)와 같은 성질을 띄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해력과 행습,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낮은 표준을 갖고서는 그들의 대화가 저열하고 무익할 수밖에 없다. 이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고전 15:47) 것으로 진리의 향기, 하늘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양식 있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청년, 427)

18. 젊은 날의 방탕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젊은이의 만용으로 사용한 짧은 방탕의 시간이 그대들의 전생애를 아픔 가운데 몰아넣을 그런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다. 부주의한 한 시간-유혹에 한 번 굴복한 일-이 일생의 전조류를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청춘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그것을 잘 이용하라. 그대들이 한 번 그 곳을 지나면 그 과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유혹의 길에 내어놓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청년, 429)

19. 죄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미혹될 때 시험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의 성벽을 따름으로 도덕과 참된 선행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 만일 청년들이 도덕적 완전 무결함을 소유하였다면 아무리 강한 유혹도 무력할 것이다. 그대들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의 행위이지만 굴복하는 것은 그대들 자신의 행위이다. 사단의 온 대군도 시험받은 자로 하여금 억지로 범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청년, 430)

20. 하나님과 교통(대화)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청년들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마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그는 탁월한 도덕의 높은 표준과 다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사상에 도달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훌륭한 사상과 고상한 욕망,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고상한 행동의 목적을 장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그분께 연결시키는 자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빛과 지혜의 통로로 삼으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에 대한 견해를 더욱 분명히 하고 더 높은 곳으로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청년, 431)

기억할 말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침묵이나 혹은 우리의 참석으로 하여 죄를 시인하여서는 안된다." (청년, 503)

연구할 과제

1. 엘렌 지 화잇이 "조각된 상이 아니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청년, 504:2,3)
2. 그대의 생활 가운데 행복은 어디에 의존되었는가? (청년, 512-513)
3. 우리의 모든 학교에서 어떤 두 부류가 발견되는가? (청년, 513)
4. 많은 청년들이 범하고 있는 슬픈 실수들은 무엇인가? (청년, 513)
5. 세상을 능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청년, 521-522)
6.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는가? (청년, 530)
7. 내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 532)
8. 한 문단 안에 "싸우라, 노력하라"는 말이 네번이나 반복되었는데 그 이유는? (청년, 533)
9. 대기만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었는가? (청년, 535)
10. 믿지 않는 친척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가? (청년, 537-538)

제115과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음성 훈련

성경절 연구: 약 3:3-13

요점: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물, 335)

예언의 신 연구

재능(달란트)은 계발되어야 함

1. 음성은 달란트(재능)임

"음성은 위탁된 재능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동료들을 돕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길을 지키려 한다면 그들의 말에 병적인 감상주의의 기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말은 건전하고 순결하고 품격을 계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정에 있거나 혹은 밖에 있거나 간에 그들은 말을 신중히 가려서 할 것이다. 그들은 천박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434)

2. 모든 말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선악간에 영향을 끼친다. 부모들이 화를 내어 말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정신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의 자녀들로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생각지 않으신다. 때에 알맞은 충고의 말은 젊은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같이 되어 작은 발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맺는다. 그러나 그릇된 말은 그들의 발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천사들은 가정에서 쓰여지는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결코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대들의 말의 감화가 향연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라." (가정, 434)

3. 언어는 마음의 미덕이 외부에 표현된 것임

"언어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친절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곧 '마음의 미덕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는 가정이다.

친절한 말은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부드러운 보슬비와 같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실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다고 말한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가정, 435)

4. 음성은 가정에서 계발되어야 함

"음성의 훈련에 관한 교훈은 가정 사회에서 주어져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히 말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성경을 맑고 뚜렷한 어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읽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동안 가족 제단 주위에 무릎을 꿇는 자들 중에 얼굴을 손으로 싸거나 또는 의자에 파묻지 못하게 하라. 그들로 경건한 두려움과 용기를 가지고 머리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라.

담화에 순결하라. 거칠거나 독단적이 아닌 부드럽고도 설복력이 있는 어조를 배양하라. 음성의 계발에 대하여 자녀들을 가르쳐라. 어떠한 시련이 그들에게 이를지라도 저주나 거친 말들이 저절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일이 없기까지 그들의 이야기하는 습관을 단련하라.

음성의 계발은 학생들의 건강과 깊은 관계를 가진 문제이다. 청년들은 적당히 숨쉬는 법과 목과 폐에 부자연한 부담을 주지 않고 복부 근육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목구멍에서 말하고 목소리를 발성기관의 상부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은 그러한 기관들을 손상시키고 그것의 효능을 저하시킨다. 복부의 근육들은 이 일의 가장 힘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목구멍은 통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음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웠다면 살 수 있었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읽기와 말하기에 있어서 복부 근육의 올바른 사용은 그것이 많은 음성과 흉부 질환의 치료 수단이 됨과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임이 입증될 것이다." (가정, 435-436)

5. 올바른 언어와 계발된 (수련된) 음성

"… 오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연구하며, 저들이 올바른 언어와 계발(훈련)된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여 진리를 고상케 하는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교육 기초, 256:1)

말로서 햇빛을 주기도 하고 그늘을 주기도 함

6. 거친 말과 꾸짖는 말의 영향

"거칠고 성낸 꾸짖는 말이 들리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의 감수성 예민한 마음에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얼굴을 명랑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미소하라. 그리하면 어린이의 마음과 심령은 마치 예술가의 잘 닦은 판(板)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듯이 그대의 얼굴의 빛을 반사할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마음대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대의 자녀들의 마음에 거룩한 형상으로 감화를 주기 위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도록 하라." (가정, 436)

7. 귀에 거슬리는 말이 없도록 하라.

"어떠한 싸움이나 알력도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결코 그대의 목소리를 거칠게 높이지 말라. 그대 자신의 평정을 지켜라. 흠잡는 것과 모든 허위를 쫓아버려라. 자녀들에게 그대가 그들로 완전히 평화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룩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그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시련을 참아라. 그것이 그대에게는 작은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큰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회심할 때에는 그들의 지배 원칙의 철저한 전환이 있게 된다. 그들의 사상이 변할 것이며 그들의 혀가 변화될 것이다. 가정에는 크고 성낸 말들이 없게 될 것이다. 말은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 모든 추악한 것들을 음성으로부터 없애버려라." (가정, 436)

8. 햇빛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늘이 되게 할 것인가?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의 습관이 자신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되거나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이다.

불행은 종종 언어의 재능의 어리석은 사용에 의하여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가족간에 불쾌한 감정과 불행을 조성하도록 거칠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존경심을 잃게 된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려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신뢰와 애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 437)

9. 자녀들에게는 유쾌한 말을..., 부모들께는 존경하는 말을...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유쾌한 말만을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존경하는 말만을 사용하도록 하라. 가정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에 주의한다면 어린이들의 품격 건설이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437)

악한 말들을 피하라!

10. 어떤 형태의 야비한 짓이라도 피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대들 자신을 행동과 말과 사상에 있어서 야비한 방향으로 교육시키지 말라. 거친 말과 야비한 농담,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예의와 참된 예절의 결핍은 그대의 제 2 천성이 될 것이며 그대에게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교제에 부적당하게 만들 것이다. 가정은 야비함이나 색정이나 서로 죄를 씌우거나 추문으로 하여 더럽혀지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곳이다. 악한 말을 금하고 신성하지 못한 생각을 쫓아 버려라. 이는 참된 증인이신 분께서 모든 말을 달아보시고 모든 행동의 가치를 정하시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고 선언하시는 까닭이다.

저속하고 값싸고 야비한 말은 조금도 가족간에 쓰여서는 안 된다. 청결한 마음을 품을 때에 지혜의 풍성한 보화가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그대의 가정에서 어리석은 말이 거리낌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로 인하여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부모들 사이에 교환되는 나태하고 어리석은 말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같은 종류의 말이 사용되도록 이끌며 바르고 성실되고 정직하고 진지한 말은 온 가정 안에 그같은 말이 쓰여지도록 이끄는 동시에 바른 행동으로 이끈다." (가정, 437-438)

11. 성낸 급한 말들

"그대가 자녀들에게 성낸 말을 할 때에 그대는 모든 의(義)의 원수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매 자녀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로부터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하라. 가르치는 일은 유년 시절에 시작되어야 하며 거칠게 함으로가 아니라 친절함과 인내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교훈은 그들이 성인이 된 남녀로 성장해 가는 모든 기간 동안 일관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가족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열성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찾도록 하라. 그들로 성급히 말하는 습관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도록 하라. 그들로 가정에 있어서 친절하고 예모 있게 되기를 배우도록 하고

사려 깊고 조심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하라.

가정 사회에서 참을성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큰 해독을 끼치는 것이니 이는 그같은 정신과 모양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참을성 없는 발언이 반복되도록 이끄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는 보복적인 말을 하게 되고 자기 변호의 말을 하게 되며 이러한 말이 그대의 목에 무겁고 괴로운 멍에를 지워 준다. 왜냐하면 이 모든 쓰라린 말은 그대에게 불행한 수확을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다.

거센 언어들은 귀를 통하여 마음을 해치고 심령에 가장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 말이란 마치 파종되는 씨와 같은 것이다." (가정, 438-439)

12. 불경한 언사와 노한 말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부주의하게 말하는 버릇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남의 애를 태우는 버릇, 거친 말을 하는 습관은 방임될수록 더욱 더 강하여지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의 명령을 좇는 많은 못마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결코 격노에 불타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안목에 불경한 언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정, 439)

13.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서 신뢰를 잃게 되는가?

"나의 형제여, 그대의 거만한 말이 그대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비판하려는 경향은 자라날 것이다. 흠을 잡는 것은 그대의 일생을 망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대의 아내에게와 그대의 자녀들에게로 퍼지고 있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의 혹독한 꾸지람이 틀림없이 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혹은 그들의 허물을 인정하도록 격려되지 못한다. 자주 그대의 말들은 마치 부드러운 초목들을 으스러뜨려서 황폐하게 하는 우박과도 같다. 이렇게 해서 입는 피해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가 말한 거친 말들을 피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게 된다. 그들은 견책과 벌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피할 것이다. 거칠고 인정 없는 명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가정, 439-440)

서약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다

14. 하나의 제안

"모든 사람이 그 가정에서 친절히 말하고 사랑의 율법이 자기의 언사를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부모들이여, 결코 성급히 말하지 말라. 만일 그대의 자녀들이 그릇되게 행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나 그대의 말은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대가 성내어 꾸짖을 때마다 그대는 관용과 인내의 공과를 가르쳐 줄 귀중한 기회를 잃는다. 그대가 잘못을 교정함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현저한 특징이 되게 하라." (가정, 440)

15. 식탁에서의 담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그들의 매일의 음식에 의심과 질문들로 양념을 치는가! 그들의 친구들의 성품을 세밀히 해부하며 그것들이 마치 맛있는 후식(後食)인 것같이 식탁에 내놓는다. 중상하는 엄청난 말들을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식탁 주변에서 말한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가정에는 비평하는 정신이나 허물을 찾는 정신이 없어야 한다. 가정의 평화는 아주 거룩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식탁에 앉을 때에 가족들은 비난하는 말, 허물을 찾는 말 그리고 추문의

접시를 돌린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나 비판과 불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많은 가족들을 발견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러한 가족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가족에 연합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가족 식탁에서의 담화는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되게 하자." (가정, 440)

16. 더 이상 고자질과 험담을 일삼지 말라.

"우리는 식인종이 아직 살이 덥고 푸들거리고 있는 그 희생자의 고기를 먹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무서운 결과는 그 진의가 거짓되이 전하여지고 훼손하는 비판을 받으며 품성에 대한 자세한 비판을 받는 것 곧 이로 인하여 오는 고뇌와 파멸이다. 어린이들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험담과 고자질하는 정신은 사단이 불화와 싸움을 뿌리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고 진실하게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가정, 440-441)

17. 불신의 씨를 더 이상 심지 말라.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상정(常情)이다. 이러한 성향에 굴복하는 자들은 사단이 그들의 마을에 들어와서 그들로 남의 잘못과 과실들을 재빨리 기억하게 하도록 문을 연다. 그들의 잘못들은 오래 기억되고 그들의 결점들은 주목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대한 신뢰를 얕게 하는 말을 한다. 종종 불신의 씨가 뿌려지는 것은 우리가 총애를 받아 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렇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도들에게 허물을 찾는 일과 성급하고 불친절한 말을 그치라고 요구하신다. 부모들이여, 그대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친절하고 유쾌한 것이 되게 하여 천사들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 도울 수 있도록 하라. 가정 교회에 있어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일을 당장 시작하라. 모든 불평과 성내는 것과 꾸짖는 일을 그치게 하라. 성을 내고 꾸짖는 자들은 하늘 천사들을 막고 악한 천사들에게 문을 연다." (가정, 441)

오래 참고 자제하라!

18. 어버이다운 관용과 자제를 유지하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이 성이 났을 때에 이 위험스러운 흥분으로 인하여 온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때에는 그대 자신을 엄중히 경계하고 그대의 입술로 과실을 범하지 않기를 그대의 마음속에 결심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말만을 하도록 하라. 그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성난 말을 함으로써 나의 자녀들의 행복을 손상시키지 않으리라' 고. 이렇게 그대 자신을 제어함으로 그대는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신경은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는 올바른 원칙들에 의하여 강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성실히 그대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의식이 그대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노력에 대하여 기쁘게 여길 것이며 그대를 도울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에게 친절히 말하라. 그대가 얼마나 예민하여 비난받는 것이 그대에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인가를 기억하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대의 자녀들도 그대와 똑같다는 것을 알라. 그대가 견딜 수 없는 일을 그들에게 부과하지 말라. 그대가 비난과 견책을 참을 수 없다면 그대의 자녀들도 역시 참을 수 없다. 그들은 그대보다 더 약하며 그대만큼도 견뎌 낼 수 없다. 그대의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이 항상 그대의 가족들 사이에 태양 광선과 같이 되게 하라. 그대들의 자제와 사려 깊음과 고심의 열매는 백 배나 될 것이다." (가정, 441-442)

19. 침묵할 때와 노래할 때

"완전히 헌신한 사람에게까지라도 시련이 올 것은 사실이다.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자의 인내력도 격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성급한 대꾸를 하도록 하기 쉬운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을 듣는 다른 쪽에서는 침묵을 지키도록 하자. 침묵 속에는 안전함이 있다. 종종 침묵은 범죄한 사람에게 입술로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꾸지람이 된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자제력을 잃고 노한 말을 할 때에 견책이나 논쟁이나 비난으로 응하는 수단을 취하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는 종종 따라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다. 후회는 매우 빨리 올 것이다. 황금과 같이 귀중한 침묵은 종종 말할 수 있는 모든 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자아(自我)가 정복되지 못한 까닭에 사람들이 조급하고 성을 내고 불평을 말할 때에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서 목수 일을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은 때때로 둘러싸고 조급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송가들을 노래하기 시작하시고 그들도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하자면 그 곳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에 감화함을 받아 노래하시는 그분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가정, 442-443)

20. 말에 자제하는 싸움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제와 강한 성격 형성의 모본을 보임으로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직접 사귀는 사회 안에 빛을 비추라고 요구하신다. 어떠한 경박하고 야비한 말이라도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생애에 있어서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들여다보신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제를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매일 그들은 거친 언어와 성품에 대항하여 묵묵히, 경건하게 투쟁한다. 이러한 투쟁들은 인간들에 의해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이 나오려는 성급한 말들을 참은 데 대하여 인간의 입술로는 칭찬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이러한 정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것이요 또한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정복자들을 경멸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의 기록에 그들은 승리자로 기록된다. 모든 숨은 투쟁과 모든 조용한 승리를 친히 보고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그대가 사납게 굴거나 성내거나 야단치기를 거절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지나갈 길을 보여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대가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언어의 재능을 사용하는 데에 도우실 것이며 그리하여 인내와 안위와 사랑의 귀중한 속성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가정, 443)

기억할 말씀: "경우에 합당하게 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치 않게 한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 오게 된다. 저들의 영향력(감화력)은 황폐케 하는 우박과 같다." (3 증언, 109)

연구할 과제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능력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실물, 345-346)
2 우리가 언어의 완전을 위해서 세워야 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실물, 346)
3.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실물, 346; 부모, 196)
4.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실물, 347-348)
5. 부모들은 어떻게 함으로 저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말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가? (실물, 348)
6.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증언, 559)
7. 과장해서 하는 말은 어떤가? (교육, 304)
8. 언어가 놀라운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합해져야 하는가? (부모, 177)
9. 언어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의해 보라. (부모, 195-196)
10. 음성 계발을 위한 제안들은 어떤 것들이있는가? (부모, 201-202)

제116과 사랑

성경절 연구: 요일 4:16-21

요점: "사랑은 힘이다. 지적 도덕적 힘이 이 원칙에 포함되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부의 힘은 타락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힘은 상하게 하는 데 강하다. 순수한 사랑의 탁월성과 가치는 선을 행하며 선만 행하는 효력이 있다. …'사랑은 행동이 없이는 살지 못하며,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논쟁과 권위가 무력해질 때에,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은 이익이나 보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의 활동마다 그 확실한 결과로서 큰 유익이 따르도록 정하셨다." (2 증언, 135)

예언의 신 연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랑 안에서

1.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때만 이루어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목적이 달성될 때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각 시대를 흘러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사랑은 형제간의 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8 증언, 139)

2.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말 4:2)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망, 22)

3. 사랑을 표시하도록 격려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상호간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라. 이 세상에 그토록 마음이 강퍅한 남녀들이 많은 이유는 참된 애정을 연약으로 간주하고 막고 억눌러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더 좋은 본성은 어린 시절에 짓눌려 없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냉혹한 이기심을 녹여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행복은 영

원히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의 부드러운 정신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 (소망, 516)

4. 모든 가치있는 쾌락을 빛나게 하라!

"거룩한 지도를 따르는 자는 구원하는 은혜와 실제적인 행복의 참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줄 능력을 얻게 된다. 아무도 신앙이 없이 생애를 참으로 즐길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모든 취미와 욕망을 순결하게 하고 고결하게 하며 모든 애정을 강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있는 쾌락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생애는 사람들로 모든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게 하고 즐기게 할 것이다." (부모, 53)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사랑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진리를 아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는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사랑을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거의 나타내지 아니하며, 또한 부모의 소망을 존중하거나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출 20:12) 하신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한다." (청년, 331)

6. 약속있는 계명은 어떤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 중에 속해 있노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은 다섯째 계명을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를 범한다. 그리하여 이 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실과 성격을 개혁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거할 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청년, 331-332)

7.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일을 지금 시작하라!

"만일 그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한 허물을 가졌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난 날을 상환(償還)하기 시작하라. 그대들은 이 밖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 이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은 곧 영생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그대들의 태도를 아시나니 이는 하늘 성소의 금저울로써 도덕적 품성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 그대들의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들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멸시한 것을 자백하라. …." (청년, 332)

8. 그대는 부모들의 사랑을 어떻게 다시 갚아 주려는가?

"부모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동정심이 되어 그대들 위에 부어지고 있는데 그대들은 부모의 사랑을 냉랭한 배은 망덕으로 갚을 수 있는가? 부모들은 그대들을 사랑하고 그대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대들은 부모들의 충고를 멸시하고 자행 자지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대들은 그러한 고집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였는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들이 보인 배은과 불경으로 말미암아 상심한 채 무덤으로 내려갔다." (청년, 332)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사랑

9. 사랑은 예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는 귀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거나 맹목적일 수 없다.

참되고 순수하고 헌신적이며 순결한 사랑이 거의 없다. 이 귀중한 요소는 매우 드물다. 정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다. 진실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진,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사랑이란 하늘 분위기에서 자라는 식물이므로 이를 배양하고 거름을 주어야 한다. 정다운 마음씨,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감화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상하게 하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가정, 50)

10. 참된 사랑과 정욕

"사랑은 … 무분별하거나 맹목적일 수 없다. 그것은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에서 오는 정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순결한 사랑은 모든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히 일치하는 반면에 정욕은 완강하고 경솔하고 무리하며 모든 제재를 무시하고 또한 그가 선택한 대상을 우상화 할 것이다. 참된 사랑을 가진 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정숙함과 단순성과 성실성과 도덕과 신앙이 혼인으로 결연에 이르는 각 계단들을 특징지을 것이다. 이렇게 제어를 받는 이들은 피차의 교제에 골똘하여지지 않고 기도회나 종교적인 예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진리에 대한 열성이 식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관능적 만족에 그 기초를 둔 데 불과한 사랑은 완고하고 맹목적이며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명예와 진리와 모든 고상하고 향상된 정신력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이런 열정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는 일이 너무 흔하다. 의논도 애원도 그들로 자신의 행동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수는 없다.

참된 사랑은 강열하고 불꽃과 같은 맹렬한 욕정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조용하고 깊은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외면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며 품위 있는 성질의 것에만 끌리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며, 그 충실함은 거짓이 없고 영속적이다.

정욕과 중동의 영역에서 승화된 사랑은 정화되어 말과 행동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조급하고 초조함이 없는 성화된 상냥함과 사랑을 가져야 하며 거칠고 가혹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한다." (가정, 50-51)

11. 감상주의는 문둥병처럼 피해야 함

"공상과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는 마치 문둥병을 대하듯이 경계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도덕적 덕행이 결여된 많은 결혼기의 청년 남녀들이 있으니 그들은 크게 경계를 받아야 한다. … 고결한 품성을 보존한 자들은 설사 다른 바람직한 특질은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참된 도덕적인 가치는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어느 점으로 보나 하나님도 없고 민감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허무 맹랑하고 경박하며 그들의 담화는 저급하다. 구혼과 결혼이 마음을 지배하여 보다 높고 고상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버린다.

청년들은 구혼과 결혼에 관하여 열광적으로 매혹된다. 사랑으로 번민하는 감상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청년들을 이런 잘못된 감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큰 경계와 묘안이 필요하다.

딸들은 극기와 자제를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응석을 부리고 그들의 자부심은 조장된다. 그들은 마침내 콧대가 높아지고 고집이 세어지기까지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용납된다. 그제서야 그대들은 그들을 파멸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애쓴다. 사단은 그들의 뻔뻔스럽고 경망스러움과 여자다운 정숙미의 부족을 미끼로 그들을 불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어린 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버려둔 바 되었다. 겨우 십대에 이른 것들이 그들 나이 또래의 소녀를 애인으로 삼아 집으로 데려 가기도 한다.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부절제와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완전히 속박되어 이 방탕한 시대에 사는 자녀들의 들뜬 행위를 고쳐주고 제어하기 위하여 감히 어떤 결정적인 방침을 모색하려 하지 아니한다." (가정, 51-52)

"그대는 지금 학창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마음을 다하여 영적인 사물에 전념하라. 모든 감상주의를 그대의 생애에서 제거하라. 그대 자신을 경계하여 스스로 훈육하고 자제하라. 그대는 지금 품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지정하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성한 이익을 손상시킬 쓸데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가정, 53)

12. 애정을 경계하라!

"너희 마음의 띠를 띠라고 사도가 말하였으니 그대의 생각들을 제어하여 지나친 자유를 갖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다. 생각들은 그대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경계되고 제어될 것이다. 바른 생각을 하면 그대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그대의 애정을 경계할 것이니 나가서 부적당한 대상들에 눈독을 들이지 않게 하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사셨으므로 그대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지력(智力)과 마음의 애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과 상의해야 한다." (가정, 54)

권면(충고)의 말씀이 필요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3. 성경에서 권면의 말씀을 찾으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서 결코 이기적인 정신으로 행할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엄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고를 구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 주신 성경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늘은 성경에 주어진 지시에 일치하고자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립된 결혼을 기쁨으로 주시한다.

만일 침착한 이성과 냉정한 판단으로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이다. 성경이 상담역으로서 필요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함께 매는 단계에 나가기 전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은 감정이 지배하므로 너무 흔히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가 키를 잡고 파멸로 인도한다. 청년들은 어떤 다른 문제에서보다도 바로 이점에서 그들의 예지를 덜 보여 준다. 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거부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다. 그들의 감각들은 속박되고, 그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이 누구에게 간섭을 받을까 두려워하듯이 비밀리에 전진한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항구에 입항한다. 그들은 안내자가 필요하건만 그들 자신의 배를 조종할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또한 그들의 배가 감추인 암초에 부딪쳐 믿음과 행복이 파선할 지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크게 요구되는 도움을 받는 일을 경멸히 여긴다. …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학생이 되지 않는 한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그들 자신과 남의 행복을 망쳐 놓을 중대한 과오를 범할 것이다." (가정, 70-71)

14. 올바른 결정을 위해 기도가 필요함

"만일 남녀들이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앞둔 단계에 있어서는 하루에 네 번씩 기도하여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 그대들의 생애에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다. …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결혼과 결혼하는 방법은 말세의 여러 징조들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남녀들은 고집이 세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도외시한다. 종교는 마치 이 엄숙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무시를 당한다." (가정, 71)

15. 마음이 들떠서 권고에 귀를 막을 때

"두 사람이 친숙해지면 그들은 서로에게 열중하여 주의력을 온통 그것에 빼앗기게 된다. 이성은 어두워지고 판단력은 전도(顚倒)된다. 그들은 어떤 충고나 지시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 결과와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 자신이 택한 길을 고집할 것이다. 어떤 전염병이나 유행병처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들뜬 마음만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인다.

혹시 그들 주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결혼으로 연합된다면 평생을 두고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올 뿐임을 깨닫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는 탄원과 충고는 헛일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봉사할 때 축복하고자 하신 사람의 유용성이 그런 연합 때문에 무능하게 되고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호소와 설득에 유의하지 않는다. 경험 있는 남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은 그들을 이끌어 온 그들의 희망에 대한 결심을 고치기에는 무력하다. 그들은 기도회나 종교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홀려서 별로 생각할 것이 없는 일인 듯이 생애의 의무들을 등한히 한다." (가정, 71-72)

16. 연장자의 지혜와 경험이 요구됨

"결혼 때문에 그처럼 많은 불행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청년들은 슬기롭지 못할까? 어찌하여 그들은 연장자와 경험이 더 많은 이들의 충고를 줄곧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거래를 하는 경우에 남녀들은 크게 조심한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계획을 할 때도 사업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준비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시간과 돈을 바치고 세심한 연구를 함으로 그들이 착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후손들과 내세에 영향을 끼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더 큰 조심을 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하는 대신에 희롱과 경박, 충동과 욕정, 그리고 맹목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가운데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 흔히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사단이 세상의 불행과 타락을 보기 좋아해서 영혼들이 거기 걸리도록 이같은 그물을 고안해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단은 이 무분별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의 그들의 가정에 대한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가정, 72)

17. 부모의 현명한 판단이 존중되어야함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와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기호에만 의존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소원이나 선택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현명한 판단도 존중하지 않는 듯하다. 이기주의가 자식으로서 가져야 할 효성의 문을 닫아 버렸다. 청년들의 마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명은 허락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지만 애인의 요구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어머니의 사랑을 경시하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이름 아래 기록되어 있는 죄목들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과오의 하나는 젊고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의 애정 문제는 침해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사랑의 경험은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각 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다른 이들의 경험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고 조심성 있게 쌍방의 일들을 저울질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가볍게 다룬 문제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들과 상의하라.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정, 72-73)

18. 부모들은 청년들의 애정을 지도해야 함

"부모들은 청년들의 애정 문제에 관하여 잘 지도하고 그들로 적당한 배우자와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 자신들의 가르침과 모본으로 자녀들을 가장 어린 시절부터 순결하고 고상하며 선하고 참된 것에 관심을 두도록 꼴 짓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이해한다. 어려서부터 진리, 순결 그리고 선량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자. 그리하면 청년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를 찾아 구할 것이다." (가정, 74)

19. 이삭이 세운 모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에 대한 그들 자신들의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에 복종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애를 좋아하도록 배운 훈련의 결과이었다. — 상동, 218.

이삭은 장차 그를 통하여 세상이 축복을 받을 허락의 후사가 되는 일로 하나님께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의 나이 40세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의 종을 임명한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달게 받았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아 그 결혼의 결과는 하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였다." (가정, 74)

20. 지혜로운 부모는 사려깊이 할 것임

"'부모가 아들이나 딸의 마음이나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의 반려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고 그대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묻겠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부모들의 행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야 말 터인데 아들이나 딸이 부모와 먼저 의논함이 없이 배우자들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한 자녀가 부모의 충고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택한 길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아니다. 결혼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계명은 그런 행동을 금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주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확실히 성취시키실 허락이 있는 계명이 있다.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소원을 고려함이 없이는 그들의 배우자를 결코 선택하지 말 것이다." (가정, 75)

기억할 말씀: "… 사랑은 자원하는 우정과 부드러움, 변치않는 성실함 가운데 서로를 묶어 주는 금사슬로서 이 금사슬은 영혼을 하나님께 붙잡아 매준다." (3 증언, 187)

연구할 과제

1. 사랑에 대해서 "요점"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말씀들을 들어 보라. (2 증언, 135)
2. 요한은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다른 미덕과 어떻게 비교하였는가? (행적, 310-312)
3. 어느 제자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온전히 굴복하였는가? (행적, 534-535)
4. 어떻게 어디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생애에 관한 공과를 가르쳐야 하는가? (2 소망, 323)
5. 예수께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사랑을 어떻게 함으로 증명하셨는가? (3 소망, 285-286)
6. 맹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토의해 보라. (가정, 77-78)
7.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서 인간 사이에 있는 참다운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분지으려고 하였는가? (5 증언, 171)
8. 그대는 참된 사랑과 얼빠진 미친 사랑의 차이를 알 수 있는가? (청년, 544-575)
9. 결혼에 있어서 감정보다 더 나은 지침은 무엇인가? (청년, 555-556)
10. 행복이 어떻게 하면 얻어질 수 있는가? (치료, 328-329)

제117과 교제(구혼)

성경절 연구: 잠 19:14; 31:10-12; 고후 6:14, 15

요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우정을 맺고 친구를 선택하는데 크게 주의하여야 한다. 그대들이 지금 순금으로 여기는 것들이 값싼 쇠붙이로 드러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세속적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길에 장해물을 놓는 경향이 있다. 사업이나 결혼에 있어서 결코 향상하거나 고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불행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다." (청년, 436)

예언의 신 연구

그릇된 형식의 구혼(교제)

1. 진리와 의무에서 돌아 서게 함

"견실함과 극기의 정신이 부족한 성격은, 무너지는 모래처럼 되지 않을 참된 신앙적 경험을 얻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굳건하고 성실한 목적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생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만일 그대들이 성실한 정신을 가졌다면 바른길에서 떠나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동기도 그대들을 의무의 곧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데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할 것이다. 사랑과 애정의 호소도, 우정에 대한 열망도 그대들을 움직이어 진리와 의무에서 떠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은 기호(嗜好)를 위하여 의무를 희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형제여, 만일 그대가 경험이 없는 젊은 여자, 곧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에 관한 교육이 정말로 결핍되어 있는 여자와 일생의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대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결핍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과 비교할 때에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 여자에게 빛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그 여자는 신앙적 특혜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련하고 죄된 상태를 느끼지 못하였다." (청년, 437)

2. 조혼은 권장되지 말아야 함

"조혼이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과 같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원대한 관계를 조급하게, 충분한 준비 없이 그리고 정신적 · 육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맺지 말 것이다." (청년, 438)

3. 밤늦게 앉아 있는 것을 피하라.

"밤늦게까지 앉아 있는 습관이 통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그대들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적당한 시간들은 건강을 해치고, 그 다음날의 의무를 위한 정신을 파괴하며, 또한 죄악의 모양을 띠고 있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러한 형태의 구혼을 단호히 피할 수 있는 자존심을 갖기를 바란다. 만일 그대가 일편 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고자 한다면 그대는 신중한 원칙 하에서 행할 것이다. 그대는 감상적 연애병이 그대의 눈을 가리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고상한 요구들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락치 않을 것이다." (청년, 438)

믿지 않는 자와 약혼하는 일

4. 네가지 질문

"사랑하는 자매여, 나는 그대가 그대와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와 약혼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대가 이 중요한 문제를 주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까 염려된다. 장래에 영향을 끼치게 될 일보를 내딛기 전에 나는 그대가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깊이 생각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런 새로운 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될 것인가? 그대의 모본은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청년, 439)

5. 신앙 생애가 가정에 필요됨

"가정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결혼 생활을 종종 격심한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악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한 무아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 그 때에 심령이 심령과 연합하고 두 가지 삶이 서로 조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정의 손님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거룩한 수호(守護)가 결혼의 침소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타락적인 정욕은 없어질 것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생각이 지향되고 그분께로 헌신의 마음이 상달될 것이다." (청년, 439-440)

6. 어두운 그늘이 떠날 날이 없는 가정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사랑을 연모하지만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강하거나 순결하거나 고귀하지 못하다. 아내는 구주 안에서만 인생의 염려와 책임과 슬픔을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 여인은 자신을 이 땅의 어떤 친구에게 주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이와 충돌되는 것이면 어떠한 관계라도 맺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에 불행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자매여, 어둔 그늘이 떠날 날 없는 가정을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

심판 날에 이 모든 말을 직면할 것을 각오하는 자로서 나는 그대가 지금 내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발걸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청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마음을 예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지 않을까? 그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이므로 나를 이끌어 자기가 즐기는 것들에 동참하게 하지 않을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고 거칠다. 그대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짐도 더 취하지 말라. …." (청년, 440-441)

7. 한가지만 제하고는 그 사람이 더 좋다.

"불신자가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한 가지 외에는 배우자로서 요망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호소하는 일이 간혹 있다. 신자 쪽에서 조금만 판단을 잘하면 불신자와 일생을 연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건만, 십중팔구의 경우는 감정이 승리한다. 영적 타락은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신앙적 열성은 시들어지고 보루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져 마

침내 두 사람은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나란히 서게 된다. 피로연에서까지도 세상의 정신이 양심과 믿음과 진리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다. 새 가정에서는 기도의 시간이 존중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택하였으며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처음에는 불신자가 새 관계에서 반대의 표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진리에 관한 주제가 주의와 고려의 대상으로 제시되면 즉시 감정을 나타낸다.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했소.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독특한 견해에 관한 대화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신자가 만일 그의 믿음에 관하여 어떤 특별한 열성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경험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대한 불친절처럼 보일 수도 있다.

믿는 자는 그가 선택한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사교적 · 세속적 오락들이 제공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차츰 적어지고 믿음이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어진다. 한 때 확고하고 양심적인 신자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추종자였던 사람이 지금처럼 회의적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결혼에서 초래된 변화가 아닌가!" (4 증언, 505-506)

8. 약혼의 파약

"'그러나 내가 이미 약혼하였는데 이제 그 약혼을 깨뜨려야 할까요?'라고 그대는 말할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만일 그대가 성경에 반대되는 약혼을 하였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성급한 약속을 할 만큼 그것에 열중한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약혼을 취소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킴으로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청년, 441)

"그러나 그대가 결합하려는 사람의 품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약혼을 했을지라도, 약혼으로 말미암아 혼인 서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나 그대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지 말라. 어떻게 조건적인 약혼을 맺을 수 있을까에 아주 주의하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결혼 후 갈라서는 것보다 결혼 전에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청년, 449-450)

총고와 지도의 필요성

9. 실수함이 없는 조언자와 확실한 안내자가 필요함

"위험과 부패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 있다. 많은 청년들이 위험한 항구에서 배를 젓고 있다. 그들은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꼭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스스로 배를 인도할 만큼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배가 장차 신앙과 행복의 파탄을 가져올 암초에 바야흐로 충돌하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청년들은 구혼과 결혼 문제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 관심은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 때 실수함 없는 조언자와 확실한 안내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는 한 이생과 내세의 생애에 있어서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손상 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청년, 443)

10. 훌륭한 행동은 어떤 것일까?

"한 청년이 상대의 부모 모르게 젊은 여인과 교제를 나누어 그 마음을 사는 것은 그녀나 그녀의 부모에 대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비밀 교

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유하는 고상하고 성실한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솔직하고 숨김 없이 행하지 않고 성경의 표준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직스런 보호자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신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맺어진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여자로 하여금 의무를 떠나게 하고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생각을 혼란시키는 사람은 결혼의 의무에 대하여도 신실하지 못할 사람이다." (청년, 445)

11. 어머니를 대접하는 것은 한 지표가 됨

"참된 사랑은 재배를 필요로 하는 식물과 같다.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결합을 바라는 여인, 장래의 불행과 슬픔을 피하고자 하는 여인은, 그의 애정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나의 애인에게 어머니가 있는지 물어보라. 어머니의 성격의 특색은 무엇이며, 그 남자는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는 어머니의 소원과 행복을 고려하고 있는가? 만일 그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내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 친절과 주의를 표시할 수 있겠는가? 결혼의 신선미가 지나간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는 나의 실수를 참아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오만하게 굴고 전제적 행동을 취할 것인가? 참된 사랑은 많은 실수를 용납할 것이다. 사랑은 실수를 찾아내지 않을 것이다." (청년, 450)

12. 기만과 위선이 있어서는 안됨

"청년들은 충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애인의 매력적인 외양에 이끌려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또한 너무 쉽게 포로가 되지도 말아야 한다. 오늘날 행해지는 구혼은 하나님보다도 영혼의 대적 마귀가 훨씬 더 크게 관여하고 있는 기만과 위선의 계략이다. 훌륭한 상식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때이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이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청년, 450)

13. 마음으로 희롱하는 일

"마음으로 희롱하는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좋아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들의 애정을 구한 다음에는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이 한 말이나 끼친 영향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새 얼굴이 그들을 끌면 그들은 전과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그 같은 정성을 바친다.

이 성벽(性癖)은 결혼 생활에 나타날 것이다. 결혼 관계가 언제나 변하기 쉬운 마음을 굳게 하고 요동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며, 원칙에 진실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정절에 싫증을 낸다. 그리하여 깨끗하지 못한 생각은 깨끗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의 띠를 잘 동이고 그들의 행동을 경계함으로써 사단이 그들을 정직한 길로부터 미혹해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57)

가장 큰 결정

14. 행복한 결혼 생활, 아니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냐가 달려 있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혼 후에 비참하고 불행한 그림자를 초래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지금 이를 중대하고 신중히 숙고해야 할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계단을 지혜 없이 내딛는 것은 청년 남녀들의 유용성을 가장 효과적으

로 파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생애는 짐이 되고 저주가 된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처럼 그렇게도 아내의 행복과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생애로 마음 아픈 짐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으며,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처럼 남편의 희망과 포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그의 용기를 마비시키며 그의 감화와 기대를 소멸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다. 많은 남녀에게 있어서 이생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희망은 그들이 결혼하는 시각부터 시작된다. 나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면할 위험, 특별히 불행한 결혼을 함으로 만날 위험을 보고 깨닫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가정, 43)

15.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합인지 분명히 알고 행하라.

"결혼은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대들의 생활에 일종의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찬성하신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고는 결혼 문제에 대한 그의 계획을 추진시키지 말 것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 택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꼭 택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아니하신 까닭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자와 더불어 결혼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나의 말을 이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나 공상이나 감정의 작용을 허용하여 멸망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과 최고의 애정을 요구하신다." (가정, 43)

16. 짝은 지어졌으나 어울리는 부부는 못됨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진 이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완전한 행복의 극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나 그들이 만일 파기할 수도 없고 또 감히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결혼 서약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는 남녀들의 아픈 마음을 그 사분의 일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멍에다. 세상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짝을 짓고 있으나 어울리는 한 쌍이 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늘의 책들은 결혼이란 외피에 감추인 재난과 부정과 낭비를 기록하기에 부담을 진다. 이것이 곧 내가 혼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상대자를 택하는 일에 조급하지 말고 서서히 하라고 경고하는 이유이다. 결혼 생활의 길이 혹 아름답고 행복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날는지 모르나 허다한 사람들이 이미 그 일로 실망을 맛보았는데 그대라고 어찌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가정, 44)

17. 선택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들

"대부분의 남녀들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들이 피차에 사랑하느냐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유일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대한 책임이 그들 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상한 동기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숭고한 생각－곧 사회는 그들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들의 가정적 감화의 무게가 저울대를 올리고 내리게 하는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는 적다.

인생의 반려자의 선택은 부모와 자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복리를 위하여 가장 안전하게 할 것이니 곧 부모와 자녀들이 이웃 사람을 복되게 하고 조물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이어야 한다." (가정, 45)

18. 장래의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들

"젊은 남자는 생애의 부담을 나누어 지기에 합당한 여성, 그의 감화로 남편을 고상하게 하고 순화시키며 그의 사랑으로 남편을 행복스럽게 하여 줄 수 있는 내조자를 찾도록 하라. 여기에 심사 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으니, 그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그대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는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인가 혹은 결혼하면 허영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번 것뿐 아니라 그대가 번 것까지를 다 써버릴 것이 아닌가? 이 방면에 대한 그의 원칙들은 올바른 것인가? 그 여인에게는 의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하는 따위다. …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정신이 빠져 버린 남자들은 마치 이런 문제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이런 문제들이 그대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대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성품을 살펴라. 그 여자는 참을성 있고 근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혹은 그대의 부모들이 바야흐로 의지할 강한 아들이 요구되는 때에 그대의 부모에 대한 보호를 중지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리하여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남편을 그 부모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들로 애정 있는 며느리를 얻는 대신에 한 아들을 잃도록 하지는 않을 것인가?" (가정, 45-46)

19. 장래의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들

"여인마다 결혼 서약을 하기 전에 자기로 더불어 운명을 걸고 연합하려는 남자가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그의 과거의 경력은 어떠하였는지? 그의 생애는 깨끗한지? 그의 사랑은 고상하고 품격을 향상하게 하는 사랑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감정적으로 귀여워하는 사랑인지?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품성의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의 애정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아내로서의 자기 개성을 보존하도록 허용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판단과 양심이 남편의 그것에 복종하고 제어되어야 할 것인지? … 구세주의 요구를 최고의 것으로 높일 수 있는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여인들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평화스럽고 행복한 결합을 희망하는 여인, 장래의 불행과 슬픔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여인은 자신의 애정을 바치기 전에 이렇게 물어 보라. 나의 사랑하는 그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신가? 그 어머니의 품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는 과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는 과연 어머니의 소원과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만일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도 공경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보여 줄 것인가? 신혼의 기분이 지난 후에라도 그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것인가? 그는 나의 실수에 대하여 관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판적이고 오만하며 독재적이 될 것인가? 참된 애정은 많은 실수들을 간과할 것이다. 사랑은 실수들을 가려내지 않을 것이다." (가정, 47)

20. 순결하고 남성적인 특징의 소유자를 맞으라.

"젊은 여인들은 순결하고 남성적인 특징의 성격을 소유한 남자, 부지런하고 진취적이며 정직한 남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남자만을 생애의 반려자로 맞도록 하라.

불경건한 자들을 피하라. 태만한 자들을 피하라. 신성한 것들을 비웃는 자를 피하라. 천한 말을 쓰고 단 한 잔이라도 술 마시는 일에 탐닉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

하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구혼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심령을 성화시키는 순수한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며, 참된 의의 원칙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남자로 더불어 갖는 가장 유쾌한 친교를 끊어 버리도록 그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친구들의 결점과 무지를 참을 것이나 결코 그들의 비행에 참여하지는 말 것이다." (가정, 47-48)

기억할 말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사상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치료, 358)

연구할 과제

1.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케 할"수 있을 것인가? (시119:9; 청년, 554)
2. 조혼에 대해 토의해 보라. (청년, 562)
3.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는가? (가정, 51)
4. 어떻게 해서 일반적으로 타락하는 첫 계단을 내디디게 되는가? (가정, 53-59)
5.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 성경에서 어떻게 금지하였는가? (가정, 56-58)
6. 솔로몬의 취한 과정들을 설명하라. (가정, 58-59)
7.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암 3:3; 가정, 61)
8.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탄원(간청)은 무엇인가? (가정, 63)
9. 한 편이 결혼 후에 개종한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가정, 64)
10. 고대 남편될 사람이 아내될 사람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가정, 85-86)

제118과 결혼

성경절 연구: 엡 5:19-31

요점: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분께서는 혼인 잔치에서 당신의 첫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잔치 자리에서 당신의 공중 봉사를 시작하셨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을 당신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인정하심으로 그 결혼을 시인하셨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치료, 356)

예언의 신 연구

엄숙한 결혼 약속

1.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거룩한 목적 — 남편은 여자의 마음으로부터의 깨끗한 사랑을 얻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품성을 부드럽게 하고 증진시켜서 완숙하게 하는 — 으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저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도를 폐하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의 존엄성과 품위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던 그분은 결혼 관계를 시인함으로써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가정, 99)

2.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을 원하심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위있고 고상하여진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거룩한 본질과 연합하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도록 훈련되기 전에는 결코 그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 곧 행복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인류에게 보관하도록 맡겨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죄로 말미암아 악용되었으나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이 목적하는 바이다. …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인류의 축복이 되고 인류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 이 지상의 가족들은 그들의 연합과 화평과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다.

사회의 형편은 이 신성한 관계에 대한 하늘의 이상에 대하여 슬픈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우의와 즐거움을 바라던 곳에서 쓰라림과 낙망을 당한 이들에게 그

리스도의 복음은 위로를 준다." (가정, 99-100)

3. 즐거운 자리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 잔치에 초청되었을 경우에 그처럼 즐거운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심으로 당신은 당신의 율법을 준수하는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하늘의 율법을 따라 행하여지는 인간의 깨끗한 잔치들을 결코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서 친히 높이시는 그런 모임에 그의 제자들이 참석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신 후에도 많은 다른 잔치에 참여하셔서 당신의 임재하심과 교훈으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가정, 100)

4. 허식, 낭비, 그리고 떠들고 노는 일은 결혼 예식에 합당하지 않음

"결혼 예식들이 허식과 사치와 자아 방종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결혼하는 두 편이 종교적 신앙과 관습에 합의하고 그로써 시종 일관하다면, 그리고 그 결혼 예식이 사치나 허식 없이 거행된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결혼이 하나님께 불유쾌한 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결혼 잔치가 양쪽 가정에서 모두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과시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기뻐서 들뜨고 허식에 찬 결혼 예식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매우 합당하지 않게 생각되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예식이니 가장 엄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족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것은 하늘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가정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 100-101)

5. 두 생명을 융합

"영혼을 구원하는 봉사 사업에 있어서 피차의 취미와 동정과 사랑과 노력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선 자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그들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아주 중요한 계단을 밟는 것이니 곧 두 생명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 남자와 아내가 완전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다.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연합이 있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하늘의 햇빛과같이 임한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지도 아래서 거룩한 연합으로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가정에서 결혼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취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취미에 연결시키며 그분의 팔과 보증에 의지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칭찬하는 이 연합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

결혼은 그들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강하게 한다. 그들은 결혼 생활을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봉사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에 대하여 아는 것은, 나의 남편과 내가 36년 동안 연합하였고 주께서 명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던 까닭이다. 이런 일로 보아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숙한 예식이다. …

나는 이제 이 형제의 손을 붙잡고 …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내된 그대의 손을 붙

잡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전진하라고 권장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그대들의 고문을 삼으라고 말하고자 한다. 서로 연합하고 연합하라." (가정, 101-102)

6. 신혼 부부에게 주는 권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평생 계속될 서약으로 결합되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대들의 교육은 시작되었다. 결혼 생활의 첫 해는 경험의 해로서 어린이가 학교에서 학과를 배우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의 성품의 다른 특성들을 배우는 해이다. 결혼 생활의 이 첫 해에 그대들의 장래의 행복을 파괴할 장(章)들이 없게 하라. …

나의 형제여, 그대의 아내의 시간과 힘과 행복은 이제 그대가 가진 그것들과 연결되었다. 아내에 대한 그대의 감화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든지 혹은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여인의 생애를 해치지 않도록 깊이 조심하라.

나의 자매여, 그대는 결혼 생활이 가져오는 책임들에 대하여 첫 실제적 공과들을 이제 배우려고 한다. 날마다 성실히 이 공과들을 꼭 배우도록 하라. … 이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경계하라.

그대들의 생애의 연합에 있어서 그대들의 애정은 피차간의 행복에 공헌해야 한다. 각각 상대편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반면에 그대들 중 아무라도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대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함으로 저를 창조하여 주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102-103)

7. 하늘의 증인들 앞에서 하는 서약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이들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조화(調和)가 있어야 할 것을 명하였다. 신랑 신부는 하늘의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정하신 대로 피차에 사랑할 것을 서약할 것이다. …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요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여야 한다. 남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재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대의 기록을 손상시킬 생각과 말과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그대는 그대의 결혼 서약을 강철처럼 참되게 하라." (가정, 103-104)

후년의 경험

8.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짐

"아무리 신중히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부는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진다." (치료, 359-360)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면 연합을 가져온다.** —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계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자비, 관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같은 정신이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그 가정에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의가 되실 것이다. 그

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거할 곳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가정, 120)

9.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

"근심과 걱정의 짐을 가진 생활이 신혼부부에게 닥쳐 오면 흔히 결혼생활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로맨스는 사라진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전에 가졌던 교제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피차의 성격을 알게 된다. 그런 때는 그들의 경험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들의 미래의 전 생활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노선을 취하는데 달려있다. 때때로 그들은 피차에 생각지 않았던 약점과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장점들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 자신의 태도와 우리 주위에 있는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사랑의 표현을 연약함의 증거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와 같은 정신은 동정의 물결이 흘러오지 못하게 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마음의 충동이 억제될 때, 마음은 시들어지고, 황폐하고, 냉랭해진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그대들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치료, 360)

10.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라"

"비록 곤란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의 어느 한 편에서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다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피차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 항상 사전에 주의할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생애의 투쟁에 피차 용기를 주라. 피차의 행복을 증진시킬 길을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라.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온기(溫氣)와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 준다." (치료, 360)

11. 사랑을 강요하기 보다는 서로 주어야 함

"부부는 피차에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계발하고, 피차에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고취시켜 주고, 사랑은 보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증가된다." (치료, 361)

12.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라.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흡수시켜서는 안된다. 각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자도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그릇된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한다. 그대의 애정의 재산을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분에게 쏟아 놓으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그분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 짐에 따라 그대들 피차 간의 사랑은 순결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치료, 361)

13.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간에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엡 5:2, 24, 25)." (치료, 361)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실패한 남편** — 말과 용모와 행위에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은 천사들이 그들의 임재하기를 즐기며 영광으로부터 오는 광선으로 거룩하게 하는 곳이다. 거기서는 가족들이 행할 비천한 의무들이 그들에게 매혹적인 것이 된다. 그런 환경 아래서는 생의 어떤 의무라도 그대의 아내에게 있어서 하기 싫은 일이 될 수 없다. 그는 그런 의무들을 즐거운 정신으로 수행할 것이요 또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들에게 햇빛처럼 될 것이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할 것이다. 현재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대의 아내가 그렇게 느끼는 원인이 그대에게 있다. 그대는 가장으로서 그대에게 부과된 필요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는 하나 결함이 있다. 정다움을 가지게 하는 값진 사랑의 감화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사랑은 용모와 태도에 나타나야 하고 음성의 고저에서 들려야 한다." (가정, 109)

14.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안됨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 간에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이 결혼서약에서 실천하기로 약속한 그대로 피차를 행복하게 해 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 (치료, 361)

"각각 품위 있게 양보하라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과 아내는 때때로는 훈련되지 않은 고집 센 어린이처럼 행동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여 어느 편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는 다만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남편이나 아내는 피차에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즐겨 양보해야 한다. 쌍방이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동안 행복하여질 가능성은 없다."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흔히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충동적이요 철없는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강하고 훈련되지 않은 의지는 남을 다스리고자 한다. 그런 이는 바울의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정, 118-119)

행복하고 성공적인 협력

15. 결혼하는 자는 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임

"**참된 결합은 평생을 두고 하는 경험이다.** —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사업이다. 결혼하는 이들은 이생에서는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가정, 105)

16. 사랑은 시험과 단련을 받아야 한다.

"애정은 수정처럼 맑고 그 순결함으로 아름다울 것이나 그것은 시험과 단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피상적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범사에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삼으라. 계속하여 그를 쳐다볼 것이니 그리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에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증대될 때에 그대들 피차간의 사랑도 더욱 깊고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가정, 105-106)

"모든 사람은 인내를 실행함으로써 인내를 길러야 한다. 친절하고 용서하는 중에, 참된 사랑은 마음 가운데 뜨겁게 보존될 것이요 그 특성은 계발되어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가정, 106)

17. 원수는 이간시키고자 힘쓴다.

"사단은 어떤 의견의 차이라도 생기면 이를 이용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갖고 있는 못마땅한 선천적 특성들을 포착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엄숙한 약속으로 연합한 부부를 이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혼 서약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다툼의 악마는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요 분리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애정의 소외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106)

18. 강한 의지를 가진 부부에게 대한 권면

"남편도 아내도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 주께서는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하여 원칙을 세우셨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하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두 사람은 친절한 정신을 계발시킬 것이요 결코 상대편을 근심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말다툼이 되게 하지 말자. 만일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둘 다 불행해질 것이다. 친절하게 말하고 예모 있게 행동하며 그대 자신의 욕심을 버려라. 그대의 말들을 경계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선악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대의 음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있게 하라." (가정, 106-107)

19. 작은 정성이 가치가 있음

"하나님께서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판단하신다. 마음에 품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소한 일들이다. 인생의 행복의 총체를 이루는 것은 인생살이의 허다한 작은 일들과 간단한 호의같은 작은 정성들이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의 총체를 만드는 것은 친절히 하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상냥한 말, 그리고 인생살이의 작은 호의 같은 일에 등한히 한 일들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제함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에 큰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관심 곧 남의 유익과 행복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눈여겨 보실 만한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가정, 108-109)

20. 상호간의 사랑과 관용이 보답된다.

"상호간에 관용과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세상의 힘이라도 그대와 그대의 남편을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된 결속 가운데 붙들어 둘 수 없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대들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각각 상대편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밀접하고 친절하며 거룩하고 고상하며 그대들의 생애에 영적 능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상태에 도달하

면 그대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발견할 것이요 그대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결혼 서약에서 행하기로 약속한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가정, 112)

기억할 말씀: "… 결혼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막론하고 여생에 영향을 준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실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치료 325)

연구할 과제

1. 에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두 가지 제도는 무엇인가? (보훈, 93)
2. 무엇 때문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받아야 하였는가? (5 증언, 93)
3. 부모들에게 놓여 있는 영광과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 (치료, 341)
4. 신천신지에서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마22:29, 30; 의료, 99)
5. 화잇 집에서 거행되었던 결혼에 대해 묘사하라. (가정, 96)
6. 자아 중심적인 아내에게 주어진 권면은 어떤 것인가? (가정, 103)
7. 불친절한 남편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가정, 105-106)
8. 이상적인 가정의 내부에 대해 제안해 보라. (치료, 333-334)
9. 이상적인 외부 환경에 대해 말해 보라. (치료, 333)
10.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저들의 가정이 사랑의 끝이 되게 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수 있을까? (부조 상권, 219)

제119과 가정 관계를 유지함

성경절 연구: 잠 31:10-31

요점: "나는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 있던지 모든 나의 행동에 도덕적 힘을 주기 위하여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가정에서 나는 나의 정신과 행동과 말을 경계해야 한다. 나는 올바른 원칙들 안에서 개인적 교양과 나 자신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시간을 써야 한다. 나는 남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명상하고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내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검이다." (가정, 180)

예언의 신 연구

신성한 사회

1. 가정 사회의 신성한 의무

"각 가정 주위에는 보존되어야 할 신성한 테두리가 있다. 그 신성한 테두리 내에서는 가족들 밖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간에 각각 상대편을 자기의 전부로 삼아야 한다. 아내는 남에게 알게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숨겨야 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자기 아내에게 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어느 편도 남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농담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장난으로나 혹은 그 밖의 어떤 모양으로라도 피차에 남을 원망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흔히 이 어리석음의 방종과 전혀 무해(無害)하다고 보이는 농담이 피차에 시련이 되고 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각 가정 주위에 신성한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가정 사회는 거룩한 장소로, 하늘의 상징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반사하는 거울로 간주되어야 한다. 친구와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가정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강한 소속감이 느껴져야 하며 안락감과 평온감과 신뢰감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가정, 177)

2. 혀와 귀의 눈이 성화되어야 함

"가족 사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와 귀와 눈과 몸의 각 지체들을 성화시키시도록 기도하도록 하라. 죄악으로 더불어 접촉하게 된다 하더라도 죄악에게 정복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품성이 선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의 품성을 그릇 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 자제, 용서 그리고 참된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뜻과 사업과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고집 센 성벽을 나타낼

자유가 있다고 느낀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친절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과연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향하여 자라고 있는가?" (가정, 177-178)

3. 연합, 사랑, 화평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 상호간에 불일치가 없이 그들 자신들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이 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그대들이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공언하는 하나님께 엄숙히 약속하라.

부모들은 불화의 정신이 가정에 기어 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품성에 그의 인상을 찍으려는 사단의 대리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배한 원칙들을 되풀이해서 가르침으로 가정 내의 연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불화는 쫓겨나고 연합과 사랑이 그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과 자녀들은 성령의 선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불화가 들어오도록 용납하여 그들의 생애들을 비참하게 만듦이 없이 충분한 질 수 있는 짐이 있음을 기억하라. 작은 불화에게 틈을 주는 이들은 사단을 가정에 초청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사소한 일에서 논쟁하는 정신을 간파한다. 악의 작용은 부모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들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비록 결혼 생활 중에 시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존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어머니를 모든 친절, 자비, 동정을 받을 만한 자로 보아야 한다." (가정, 178-179)

4. 가족 연합의 비결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비록 이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가정, 179)

가정 관리

5.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함

"가정의 통치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칙들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항상 살필 필요가 있다. 주께서는 지상의 가족들이 하늘 가족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그리고 지상의 가 족들이 올바른 노선을 따라 행동할 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신 가정의 통치권을 올바르게 대표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어린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두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족 관계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유일의 안전한 안내자이다.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이상을 발견

해 내지 못하였고 자녀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주신 경영보다 더 현명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였다.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그들의 창조주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들의 복리에 대해서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사신 그분보다 더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깊게 연구되고 충실히 순종하는바 된다면 사악한 자녀들의 비뚤어진 소행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괴로움은 줄어들 것이다." (가정, 306)

6. 맹목적인 애정으로 눈이 어두워짐

"맹목적인 애정, 값싼 사랑의 표시가 그대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목둘레를 팔로 얼싸 안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순종으로써 참으로 가치 있는 아이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대는 애정의 표시를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대의 방종,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은 가장 잔악한 일이다. 그대는 '우리 아이는 나를 사랑해요'라고 말함으로써 불순종을 장려하고 변명한다. 이런 사랑은 값싸고 기만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가족 내에서 계발되어야 할 사랑, 순수한 사랑은 그것이 순종을 통하여 입증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

그대가 그대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예모 바르게 하라. 그러나 많은 입맞춤과 사랑의 표시는 그대의 눈을 멀게 하며 그대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안다. 포옹하고 입맞추는 이런 외관적인 표시를 보다 적게 하고 사물의 진상을 규명하여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라. 그대의 명령을 순종하고 존경함으로써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표시를 가짜와 기만으로 생각하고 거절하라." (가정, 307)

7. 제지와 주의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음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한 교회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에 대한 그대들의 의무를 개탄할 정도로 등한히 하였다. 그들에게는 규칙과 제지가 놓여져야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그대의 품성 가운데 사단적인 면이 아닌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크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단속과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하다. 그들을 그대의 마음에 묶어 두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을 제시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인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그대의 자녀들을 제어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한 전부가 아니다. 그대는 아직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배워야 한다." (가정, 309)

8. 공정하고 확고한 취급

"나는 많은 가족들이 가장의 지나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족들은 상의와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고 만족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족을 다스림에 있어 불안정함은 큰 해를 일으키는데 사실 이것은 다스림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나쁘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왜 그토록 자주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다루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 종종 나온다. 그 이유는 가정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 관리에 있어 연합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흔하다.

변덕스러운 관리 — 때로는 노선을 굳게 잡았다가 어떤 때에는 이제까지 비난하여 온 것을 허락하는 — 는 자녀를 파멸시킨다." (가정, 310)

이러한 남편은 되지 말아야 함

9. 독재적이요 지배적인 남편이 되지 말아야 함

"독재적이요 지배적인 남편에게 보내는 권면 — 만일 그대가 남편이요 아버지인 까닭에 절대적인 권위가 자신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지 않았던들 그대는 훨씬 더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대의 행습은 그대가 가정의 띠라는 그대의 지위를 오해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대는 신경질적이고 독재적이어서 판단력의 큰 결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대가 그대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대의 아내와 자녀에게는 일관성 있게 보일 수 없다. 그대가 일단 어떤 입장을 취했을 때 그대가 기꺼이 그 의견을 철회하려는 때는 별로 없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따르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할 때에 그대는 그대의 계획을 수행하기로 단호히 결심한다. 그대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랑과 참을성이며 그리고 더 적어져야 할 것은 그대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려는 결심이다. 그대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길에서는 그대는 가정의 띠가 되기는커녕 남을 억누르고 고민하게 하는 바이스가 될 것이다. …." (가정, 225)

10. 초조하고 성미가 급한 남편이 되지 말아야 함

"남편들이여, 그대들의 아내들에게 영적 생활을 할 기회를 주라. …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그 초조해 하는 경향은 그들이 장성한 아이처럼 되기까지 자라나도록 조장된다. 그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부분을 그들 뒤에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성미 급한 불평들로 말미암아 일생을 속박하고 위축되기까지 이런 생각을 품는다.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생애뿐 아니라 남들의 생애까지도 그렇게 만든다. 그들은 그 손은 누구나를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들은 그를 대항하는 이스마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가정, 226)

11. 이기적이고 무뚝뚝한 남편이 되지 말아야 함

"B형제는 자기 가정에 햇빛을 가져오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그가 일을 시작할 좋은 장소가 있다. 그는 광선이라기보다는 구름과 같다. 그는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의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다. 특별히 모든 가족 중 누구보다도 자기의 사랑과 친절한 존경을 받아야 할 이에게 대하여 그러하다. 그는 무뚝뚝하고 거만하며 독재적이다. 그의 말들은 흔히 통렬하여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는 자기의 정신을 부드럽게 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그 상처를 고쳐 주려고 하지 아니한다. …." (가정, 226-227)

12. 편협하고 이기적인 남편이 되지 말아야 함

"그대는 그대의 아내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대는 너무 많이 책망한다. 만일 그대가 쾌활하고 즐거운 기질을 계발시키고 가족에게 친절하고 은근하게 말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집에 음울과 슬픔과 불행 대신에 명랑함을 들여올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의견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대는 극단적인 입장들을 취해 왔으며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의 아내의 판단이 차지해야 할 마땅한 위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다. 그대는 그대의 아내를 존경하도록 그대 자신을 권장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판단을 존경하도록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대는 그를 그대와 동등하게 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통치권을 장악하고 그대 자신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있다. 그대는 사랑하거나 동정하는 기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대가 만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대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할진대 이 품성의 특성들을 계발시켜야 한다." (가정, 227)

이러한 아내는 되지 말아야 함

13. 공상적인 순교자가 되지 말아야 함

"많은 가정이 주부의 쓸데없는 불평으로 말미암아 매우 불행해진다. 그런데 이 주부들은 수수한 가정 생활의 단순하고도 소박한 노역(勞役)을 싫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일과 책임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원기를 냄으로써 명랑해지고 흥미가 일어날 뿐 아니라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일이 가장 하찮은 고역이 된다. 그는 자기 생활의 노예성을 염오(厭惡)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를 순교자라고 생각한다.

가정이라는 기계의 바퀴가 언제나 원활하게만 구르는 것은 아니다. 참아야 할 일과 힘이 드는 일이 많다. 어머니들은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은 아니지만 그 환경이 어머니의 평생 사업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함을 받는 것은 환경이 그들의 원칙을 지배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그대로 놔둘 때이며, 자신들의 고상한 위탁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고 불신실하게 되어 이미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할 때이다." (가정, 248)

14. 질책과 불평을 털어 놓는 아내가 되지 말아야 함

"가정에서 아무런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질책과 불평의 대접을 받는 매우 많은 남편과 자녀들은 가정을 떠나서 목로주점이나 다른 금지된 오락 장소에서 위안과 오락을 추구한다. 집안 일에 매어 있는 아내요 어머니 된 이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특수한 괴로움과 곤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가정을 명랑하게 하는 자잘한 예모들에 대해서 자주 소홀히 한다. 그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준비하기에 골몰하는 동안 남편과 아들들은 외인들처럼 집을 출입한다." (가정, 249)

15.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함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저 곡식 밭에서 까마귀를 놀라게 하는 허수아비와 같이 보이는 그런 옷차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은 그대들이 어울리고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한갓 방문자들이나 낯선 이들이 만족해 하는 것보다 더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아내와 어머니들은 집안 일을 할 때나 남편과 아이들만이 보는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무슨 특별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눈을 위하여는 매우 정성을 들여서 세련되게 옷을 입는다. 남편과 아이들의 평가와 사랑을 외인들이나 일반 친구들의 그것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이들의 행복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복보다 더욱 존중히 여겨져야 할 것이다.

그대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면 그대에 대한 자녀들의 존경심은 커질 것이다. 자녀들도 어울리게 옷을 입었는지 보살펴라. 그들이 단정하지 못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가정, 252-253)

16. 사치하는 아내가 되지 말아야 함

"자아 방종하는 습관이나 아내와 어머니 된 자의 재치와 기술의 부족으로 항상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집안 일에 있어서 전혀 기술과 재치를 습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가정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자기네와 같

은 수의 식구에게는 충분한 금액보다 배나 많은 금액이 필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금전 출납부 기장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등한히 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지출은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한다." (가정, 374)

가족들에게 주는 권면

17. 어머니들에게 주는 권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의 바로 앞에 놓인 대쟁투에서 그들이 어떤 임무를 맡아 행할 것인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희망과 두려움의 착잡한 감정으로 바라본다. 염려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질문한다.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켜서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하고. 어머니들이여, 크나큰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다. 그대들이 국회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 하나님과 그대들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대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악행을 하게끔 동요되거나 감화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도록 지도하고 감화를 끼치는 그런 품성들을 양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의 열렬한 믿음의 기도로 그대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가정, 264)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변화하는 유년 시절과 위험한 청소년 시절을 통하여 아들과 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감화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의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정욕이 지배권을 잡으려고 다툴 때에 사랑의 능력, 곧 제지하며 진지하고 단호한 어머니의 감화가 그 영혼을 의의 편에 서도록 해 줄 것이다." (가정, 266)

18.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

"자녀들은 유아 시절부터 그들을 돌봐 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준 부모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별히, 양심적이고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 왔다. 자녀들에게 있는 결함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던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유순해 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짓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신속히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가정, 292)

19.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옳게 인도할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활동하여야 한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서로 엇갈린 행동을 함으로 자녀들이 그릇된 취급 때문에 불량하여진다. …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한 쪽이 너무 귀여워하는가 하면 한 쪽은 너무 엄하게 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들의 품성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한 강제를 행사하여서도 안 되지만 우유부단한 관대함을 보여서도 안 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아버지의 눈을 가리려

고 하지 말 것이요 아버지가 금한 일을 자녀들이 행하도록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취급하는 지혜에 대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하나라도 심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자신이 취하는 행동으로써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엇갈린 행동을 취하여 상호간의 감화를 소멸시킨다면 그 가족은 도덕적으로 퇴폐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훌륭하게 다스려지는 가족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 아이들은 집안의 규칙과 단속들, 특히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칙들에 대한 비난은 금방 알아차린다." (가정, 312)

20. 늙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지워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는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 부모가 연약하고 늙었으면 부모의 필요에 비례하여 자녀들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은 설혹 자아 부정이 요구될지라도 고상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정하여 부모들의 마음에서 모든 근심과 어려운 생각들을 제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친절히 돌보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녀들이여, 친히 부모들을 돌보아 드려라. 그것은 어떤 손도 그대가 그들에게 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달가운 마음으로 자잘한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친절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대의 귀중한 기회를 이용하라.

부모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한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세월이나 거리로 측정될 수는 없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등한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녀들은 늙은 부모가 기쁨과 안위를 기껏해야 얼마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신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소홀함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부모들의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늙어서 무력하여진 아버지 어머니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나쁜 자녀들의 죄가 또 무엇이겠는가?" (가정, 360)

기억할 말씀: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써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부조, 144)

연구할 과제

1. 어디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엡 5:22-24; 가정, 109-111)
2. 아이들이 얼마나 일찍부터 가정에서 저들이 가사를 협력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하는가? (가정, 177, 292)
3. 계모에게 주었던 교훈과 견책에 대해 말해 보라. (가정, 276-278)
4.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정, 352-353)
5. 절망적인 학대를 받는 여인에게 준 권면은 무엇인가? (가정, 354)
6. 사람이 이혼을 했으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아직도 결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였는가? (가정, 355)
7. 이혼과 교적에 대해 토의해 보라. (가정, 357-358)

8.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인 아내가 떠나야 할 것인가? (가정, 359)
9.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5 증언, 335)
10.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논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부조 상권, 175)

"사막에서 방황할 때 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죄악의 광야에서 인간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요, 계속되는 가뭄을 위해 그 말씀을 항상 소유하는 것이다." (실물, 111)

제 17 장

나의 미래 생애

제120과 가까운 미래와 마치지 못한 사업

성경절 연구: 마 24:15; 행 1:6-8; 계 22:17-20

요점: "진리의 기수들이 쓰러져 가는 이 때, 이러한 빈 자리들을 메꿀 수 있도록 청년들을 준비시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야 한다.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진하여야 할 때이다. 젊음과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캄캄한 지방에 돌진하여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도록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마음의 전(殿)에서 모든 깨끗지 못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한다." (복음, 104)

예언의 신 연구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

1.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가장 먼 지경에까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있어서 너희를 돌봐 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 명령을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며 설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은혜로운 약속은 우리의 것이다." (전도, 15)

2. 교회는 기별을 위탁 받았음

"우리는 오늘날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인류는 진리를 알아야 할 책임을 깊이 느끼고 떨어야 한다. 이 세상의 끝날은 왔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때에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

임박한 최후의 멸망을 세상에 경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멀고 가까운 여러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가 이르고 있다. 깊은 열성으로 사업에 헌신한 교회는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한다. '복음의 잔치에 나아오라.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나아오라 … 영생의 면류관을 쟁취하라'는 기별을 전해야 한다. 하늘 왕국은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잃어버린 보화를 찾아내야 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안전하게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누가 찾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죄의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누가 빛을 비추어 줄 것인가?" (전도, 16)

3. 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이 위기의 시기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주신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열렬한 정신으로 일해야 할 책임감을 지금 느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열성껏 일해도 지나칠 수 없다. …

마지막 경고를 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데는 특별한 능력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것은 다만 잠간 동안에 불과할 것이다. 위기란 지금 이 때를 두고 한 말이다.

모든 인류는 지금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사람들은 이 시기의 엄숙성과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증거하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권세로 전파해야 한다." (전도, 16-17)

4. 온 땅을 띠로 두름

"진리의 빛을 만방에 두루 비추어 무지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의 정신을 깨우쳐야 하고 회개시켜야 한다. 모든 나라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

교회들이 조직되어야 하고 새로 조직된 교회들의 신자들이 해야 할 사업을 위해서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이 복음 선교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새로운 지역을 합하여 포도원의 경작된 터를 넓혀야 한다. 온 세상을 띠로 두를 때까지 둘레를 확장시켜야 한다." (전도, 19)

5. 낭비할 시간이 없음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은 심히 가까왔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던 통로는 좌우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것들로 인해서 막혀 버릴 것이다. 주님의 사자들이 현재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장애물들이 길을 막아 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직시(直視)해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급적 속히 전진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막후(幕後)에서 맹렬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치 이리가 먹이를 움켜는 것처럼 사단은 현재 졸고 있는 자들을 살그머니 덥치려고 전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가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통로로 보존되고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전진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전도, 30-31)

가장 고상한 사명

6. 봉사를 위하여 신속히 준비할 것

"우리 학교들은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만일 그 기관들이 주님의 목적에

일치하게 운영된다면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여러 분야의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속히 준비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 간호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문서전도자로, 또는 공중전도자나 교사로, 또는 복음사역자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청년들을 복음 전도 사업에 종사하도록 가르치라 — 주님께서는 우리 위생병원들과 출판기관들과 우리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사업을 하도록 청년들을 가르치라고 요구하신다. 다른 분야의 사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위생병원들이나 식품상회나 식당들을 짓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활동력을 크게 소모해서는 안 된다. 목회사업이나 성경 교수나 문서전도사업에 종사해야 할 청년 남녀들을 기계 다루는 직업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 (전도, 23-24)

7. 튼튼한 젊은이들을 부르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여 과감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르신다. 만일 청년들이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청년들을 하늘이 택하신 진리의 저장소로 삼아 오류와 미신에 대조되는 진리를 백성들 앞에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안에 당신의 말씀이 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할 튼튼한 젊은이들에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전도, 24)

8. 결혼한 남녀들을 부르심

"등한시되어 온 지역에서 일하는 결혼한 남녀들 — 진리를 알고 있는 결혼한 남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등한시되어 온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개척사업을 완수한 사람들의 모본을 따르라. 그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에서 지혜롭게 일하라. 그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건강 개혁의 원칙들을 배우라. 건강의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읽고 연구하여 병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주님을 위하여 더욱 훌륭한 사업을 하도록 하라." (전도, 50)

9. 예수께서 형제끼리 짝을 지어 내보내셨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시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저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상호간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만일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랐었다면 전도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전도, 72)

"현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위대하신 교사께서 제정하여 주신 활동 방법에서 이탈하였을까? 왜 오늘날 그분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둘씩 짝지어 내보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하여 그대들은 '아, 그 까닭은 일터를 감당할 충분한 일꾼들이 없기 때문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할 지역을 좁게 잡으면 될 것이 아닌가. 길이 열린 듯이 보이는 지역에 일꾼들을 보내서 이 때를 위한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라. 우리는 두 사람씩 함께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지혜를 깨달을 수 없을까?" (전도, 74)

10. 복음 사업 종사하는 여성들

"우리에게는 자비의 사자로서 헌신한 여성들이 크게 필요한데, 저들은 가정 안

에 있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관하여 저들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방문한 가정의 일상적인 가사(家事)를 도와 줄 수 있다. 그대들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봉사의 결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전도, 459)

일할 밭(일터)

11. 모든 도시와 촌락에 주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짐

"나는 큰 번민 속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나 자신이 큰 집회 가운데 있는 듯이 보였다. 권위를 가지신 한분께서 어떤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들 앞에서 모두가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지도가 펼쳐 있었다. 그분께서는 지도를 가리키며 그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그 밭을 경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할 것이었다. 많은 지역에 빛이 전달되어야 하며, 그 빛을 받은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빛이 전달되어야 한다.

나는 도시와 시골에서, 그리고 이 지구의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빛이 분사(噴射)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순종케 하였으며 그 결과로 모든 도시와 촌락에 주님을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주님의 진리는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전도, 43)

12. 대로와 소로에서

"**외딴 지역** — 사업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도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여러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들을 돌봐 줄 필요가 있다.

대로에 있는 자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며, 산울가에 있는 자들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지방 저 지방을 여행하며 이집 저집을 지나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아야할 것이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별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었을까? 저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그들은 모든 인간이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나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단순한 특성을 가진 진리가 대로변과 인구가 밀집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사는 많은 가정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저들을 방문하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고 그들의 영혼에 구원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우쳐 주는 일이 우리의 특권이다.

대로와 산울가에서 해야 할 이 사업에는 직면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심각한 난관들이 있다.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가 되시고 계속적으로 그를 도와 주실 것이므로 영혼들을 찾아 나설 때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앞에 문호를 개방해 주실 것이다." (전도, 45-46)

13. 미개척 지역에 초보자들이 들어가야 함

"미개척 지역에 초보자들이 들어가야 함 —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우리 앞에는 죄악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최종적인 위대한 사업이 놓여 있다. 쟁기를 버리고, 포도원을 떠나고,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서 물러나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보내야 할 인물들이 있다.

이 세상은 고장이 난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낙담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 준 바로 그 남

녀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찬 보증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킬만할 자격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신다. 만일 저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자들이 되고자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써 저희 자신의 재능을 능가하는 사업을 하기에 알맞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므로 그들에게 능변의 권능을 주실 것이다.

대부분의 불모(不毛)한 미개척 지역에는 초보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만일 교역자들이 겸손한 정신으로 일을 시작하며 사업에 저희 마음을 쏟는다면 이 세상에 대한 구세주의 밝은 견해가 많은 교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들은 때와 장소에 알맞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비애와 절망적인 상태를 내다보실 것인데, 그러한 절망의 상태는 큰 능력을 가진 어떤 교역자들을 크게 낙담할 정도로 굴복시킬 것임으로 그들은 남녀들을 진리의 첫째 계단으로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는지 몰라 아연(啞然)해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들의 치밀한 방법들은 별반 가치가 없다. 저들은 사다리의 낮은 계단에 올라서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고 말할지라도 가련한 영혼들은 저희 발을 어디에 디뎌야 좋을지 모르고 있다." (전도, 48-49)

14. 마을과 촌락을 위해 수고할 선교사들

"거주지를 바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고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위하여 버리신 영혼들을 도와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형제들은 빛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마을과 촌락으로, 그리고 저들의 노력과 경험으로써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마을과 촌락으로 가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당신의 증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에 침투하게 하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진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

예수님께서는 촌락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 (눅 8:1)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

이곳(배틀크릭시)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고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전도, 52)

15. 새로운 도시의 지역들을 위하여 재능이 많고 노련한 일꾼들이 요구됨

"새로운 지역으로 침투하는 사업은 노련한 일꾼들에게 맡겨야 한다. 사업의 신성한 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항상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노력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시를 상대로 하여 일해야 한다. 큰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자가 없어야 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능이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남녀들에게 주신 지식과 능력은 저들이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할 때 크게 증가될 것이다." (전도, 67)

16. 뉴욕은 전 세계를 위한 사업의 상징임

"대도시 뉴욕에서 사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가급적 가장 우수한 사역자들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곳을 하나님의 사업의 중심지로 삼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사업의 상징으로 삼으라. …

주님께서는 대도시 뉴욕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고귀한 영혼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지로 말미암아 오류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이 사업에 사치와 전시효과 등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은 겸손과 복음의 단순성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사역자들은 아무리 외부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청중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실 것이다." (전도, 384-385)

17.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

"**모든 국적과 계급과 신조를 초월함** — 그리스도께서는 국적과 계급과 신조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 지역적과 민족적 특권을 구별하여 세계에 산재해있는 그 외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배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은사가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전도, 568-569)

18.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외국인들

"본국의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뉴욕과 같은 대도시와 아직 손을 쓰지 못한 다른 많은 도시에 기별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막중한 책임을 누가 느끼고 있는가? 한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직 본국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거두어 들일수 있는 모든 재정을 미국에서 외국으로 다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수백만의 무리들 가운데는 많은 민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곧 캘리포니아 지역의 도시들과 뉴욕과, 그리고 다른 많은 주의 도시들 안에 남아 있다. …

깨어라, 깨어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한 미국 안에 있는 일터로 나아가라. 그대가 외방선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한 뒤에 그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물론 외방선교 사업도 해야 하지만 미국 내에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이것은 실로 중대한 일이다. 미국에 있는 도시들에는 거의 모든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척자들이 수고한 결과로 많은 영혼을 거두어 들인 것을 기뻐한다." (전도, 571-572)

19.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백성)에게 전해야 함

"**온 땅을 환하게 비쳐야 함** — 지금 이 때는 모든 도시와 이 지상의 멀리 떨어진 구석 구석까지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자들이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쳐져야 한다. 이 빛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비쳐져야 한다. 또한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그 빛이 밝히 반사되어야 한다. …." (전도, 407)

20. 우리가 그 날을 촉진시킬 수 있음

"세상에 복음을 전하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만일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빨리 온 세상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수확물은 속히 익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배로운 알곡을 거두시기 위하여 속히 오실 것이다." (전도, 696-697)

기억할 말씀: "지금 , 바로 지금이 외방(미국)에서 일할 때이다. 신앙의 자유인 나라인 미국에서 양심의 자유를 강압하고,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왕권과 연합하게 될 것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미국) 본을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다." (6 증언, 18)

연구할 과제

1. "폭풍우가 불어 온다"라는 말을 토의해 보라. (청년, 112)
2. "사망을 향하여 행진하는 대열"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전도, 26-27)
3. 하늘이 보내는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전도, 27-28)
4.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엘렌 지 화잇에게 주어진 계시에 대해 언급해 보라. (9 증언, 92-94)
5. 1906년에 주의 종에게 어떤 커다란 멸망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는가? (전도, 29)
6. "대 도시들", "수천의 도시들"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전도, 29-30)
7. 계시 가운데 세상의 어떤 형편이 보여졌는가? 동시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1908년 당시에 열려 있었던 문들이 지금에 닫혀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가? (전도, 32-33)
8. "감동적인 장면"에 나오는 두 무리에 대해 비교해 보라. (전도, 42-43)
9. 그러면 도시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 안으로 이사해야 할 것인가? (전도, 79-80)

제121과 법왕권의 목적

성경절 연구: 단 7:25; 계 17:1-6

요점: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만일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신교계는 마침내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입법 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교회는 오늘날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구에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쟁투, 581)

예언의 신 연구

법왕권의 태도와 목적

1. 법왕권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왕 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교회들과 법왕의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 왔던 것만큼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때가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법왕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법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에서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쟁투, 563)

2.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왕권의 태도는 어떠한가?

"어떤 유명한 저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왕권의 태도와 그 정책의 성공으로 특별히 북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미 합중국에서 갖는 것을 종교적 편협이나 유치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그런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특성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적대적

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성장에서 불길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먼저 우리 정부와 천주교의 근본 원칙의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

북미 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법왕 피우스 9세는 1854년 8월 15일자의 동문 통달(同文通達)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법왕은 1864년 12월 8일부의 동문 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 에게 저주하였다." (쟁투, 564-565)

3. 하나님께서는 로마교를 어떻게 보시는가?

"로마교의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쟁투, 565)

4. 미국에서 로마교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도 로마교의 제도는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한다. 개신교회들은 큰 암흑속에 묻혀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였을 것이다. 로마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의 교회당과 교인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교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보라. 영국에서의 의식주의(儀式主義)의 성장과 로마교의 대열에 가담하기 위한 빈번한 탈회 행위를 보라. 이런 일들은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한다." (쟁투, 565-566)

로마교의 추측(가설)과 현실

5. 개신 교회가 타협함

"개신교는 로마교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교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쟁투, 566)

6.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이 사람들을 매혹하고 있음

"많은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매력적이 아니며 그 예배 역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비록 로마

교가 기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조잡하고 졸렬한 모양으로 가장되어 있지 않다. 로마교의 예배 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 이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킨다. 그 눈은 황홀해진다.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단, 정선된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 귀도 또한 황홀해진다. 그 음악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오르간 소리,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으로 구분된 복도를 통하여 울려오는 무수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이감과 숭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쟁투, 566)

7. 외형적인 종교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는 아니다. 고상한 예술 지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세속적이며 육욕적인 사람의 심중에도 흔히 있다. 그들은 흔히 사단에게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령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의 생애와 영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한한 구원자에게서 돌아서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든다.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쟁투, 567)

8. 사람들을 매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책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로마교도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儀式), 곧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 또한 죄를 범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중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제(司祭),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생애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비열 한 고백은 이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려 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이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욱 좋게 여겨진다. 또한 인간성에서 볼 때 고행을 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일이며 육체를 베옷과 쐐기풀로 괴롭게 하고 쇠사슬로 제어하는 편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보다 더욱 쉽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보다 더욱 낫다." (쟁투, 567-568)

왜곡키시는 일, 박해, 예언하는 일을 함

9.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냄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 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

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단은 그의 품성 속에 본래부터 있는 잔인성을 창조주께 돌리고 그것을 종교 제도에 구현시키고, 예배의 형식에 나타내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자신의 대리자로 삼는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념이 곡해됨으로써 이교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형태 하에서 무섭고도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

로마 천주교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며, 그에 못지 않은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 왔다. 로마교의 전성 시대에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다.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어떤 규모의 대량 학살들이 감행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는 사단의 지배 아래 그들의 희생물이 된 자들에게 최대의 고문을 하면서도 그 생명을 종식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고문을 반복하였으므로 고통받는 자의 신체가 투쟁을 포기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즐거운 해방으로 환영하였다." (쟁투, 569)

10. 로마교의 징계

"이런 것이 로마교에 반배하는 자들의 운명이었다. 로마교는 그 신봉자들에게도 채찍질과 굶주림의 고통과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육체적 고통과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과하였다. 하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회개한 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지상 생애를 복되고 즐겁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줄을 끊어 버리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선천적 애정을 억제해 버리고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대한 동정의 생각과 감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헛된 노력에 그들의 생애를 허비한 무수한 희생자들이 교회의 묘지에 누워 있다." (쟁투, 569-570)

11.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함

"과거 여러 백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국의 중심부와 그 전역에서 사단이 나타낸 잔학성을 알고자하면 로마교의 역사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이 거대한 기만의 조직을 통하여 악의 왕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그의 목적을 수행한다. 사단이 자신을 변장하는 일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참으로 성공적임을 알 때 우리는 그가 성경에 대하여 그처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사람들에게 지워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쟁투, 570)

12. 자칭 그리스도의 대표자라 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 가운데 남녀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려면 수도원에 묻혀야 한다는 아무런 모본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을 억

제해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다.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있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면 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지각은 더욱 밝아지며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진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품성을 우리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겨 주신 일이 있었는가? 그분께서 당신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등한히 여김을 받으시자 사도 요한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질문하였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좇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눅 9:54).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당신의 제자를 보시며 그의 과격한 정신을 책망하셨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눅 9:56 난외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정신은 그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정신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쟁투, 570-571)

13. 법왕권에 대한 예언

"지적 어두움이 심했던 시대가 법왕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적 빛이 밝은 시대도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 자기들의 발 앞에 펼쳐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이 시대에 '소위 과학' 이라는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어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능을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과 야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의 이론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총명이 무지보다 더욱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암암리에 손상시키는 오늘날의 거짓 과학은 암흑 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로마교의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법왕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성공적인 길임이 입증될 것이다." (쟁투, 572-573)

14. 개신교가 로마교(법왕권)의 발자취를 따름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미구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법왕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한다." (쟁투, 573-574)

예언상의 미국

15. 요한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계 13:11-16)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이 법왕권에게 이러한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 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계 13:3) 리라고 한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살후 2:8)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법왕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고 한다. 신대륙과 구대륙 모두에서 법왕권은 오로지 로마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쟁투, 578-579)

16. 예언의 성취가 가까움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예언서 연구자들은 이 증언을 세상에 발표해왔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속에서 그 예언이 급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적을 날조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교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성경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쟁투, 579-580)

17.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해 연합함

"로마교는 약삭빠르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을 안다. 그 교는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자칭 무류 권력자(無謬權力者)의 도움을 구하여 그 교회가 제정한 제도를 존중하고자 할 것이다. 로마교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개신교의 도움을 얼마나 쉽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교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마교의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알 자들이 누구겠는가?" (쟁투, 580)

18. 로마교에 먼저 충성해야 함

"전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뻗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

어 법왕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구상 각 나라에 있는 여러 백만명의 교도들은 법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국적과 정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비록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로마교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로마교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든 서약은 취소하게 된다." (쟁투, 580)

19. 법왕의 정치적 정책의 목적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군주들과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간다. 1204년에 법왕 인노센트 3세는 스페인의 아라곤왕 베드로 2세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선서를 시켰다. '나, 아라곤왕 베드로 2세는 내 주 인노센트 법왕과 그의 천주교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에 언제나 충성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의 명령대로 우리 나라를 유지하고 천주교의 신앙을 옹호하며 이단적 타락의 무리를 박해할 것을 공언 하며 서약합니다.' 이 말은 로마 법왕의 권세에 관하여 주장한 다음의 말과 일치된다. '법왕으로서 황제들을 폐위시키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는백성들이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쟁투, 580-581)

20. 로마는 이 주장을 결코 바꾸지 않음

"그리고 결코 변경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로마교의 자랑을 기억해야 한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인노센트 3세가 가졌던 원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 천주교의 원칙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로마교가 권력을 가지게만 되면 지나간 세기에 못지 않게 그 세력을 행사할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사이에서 로마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교는 그의 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그의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의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쟁투, 581)

기억할 말씀: "… 개신교 세계는 마치 아하수에로 왕궁의 문전에 서 있던 모르개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을 본다." (5 증언, 450)

연구할 과제

1. 무엇 때문에 로마교가 미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종교 자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쟁하, 397-398)
2. 고해성사가 어떻게 하여 사람을 저하시키고 하나님의 지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되는가? (쟁하, 401)
3. 오늘날 로마교와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교를 서로 비교해 보라. (쟁하, 402)
4. 오늘날 로마 교회와 암흑 시대의 로마교를 비교할 때 그 성격이 어떠한가? (쟁하, 407)
5. 카톨릭 주의와 개신교(프로테스탄트)와 별 차이가 없고 비슷한 것은 무엇 때

문인가? (쟁하, 408)
6. 로마교의 권력이 미국에서 증가될 때에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인가? (쟁하, 409)
7. 로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쟁하, 409-410)
8.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 최초로 어디서 주장하게 되었는가? (쟁하, 411-412)
9. 로마와 안식일에 대해서 서술해 보라. (쟁하, 412-417)
10. 국가적인 배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 232)

제122과 절박한 최후의 위기

성경절 연구: 왕상 18:1-18

요점: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왕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심연(深淵)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왕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 증언, 451)

예언의 신 연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투쟁함

1. 사단이 반역하는 목적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그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 (약 2:10)가 된다." (쟁투, 582)

2. 옛 투쟁에서의 최후의 싸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간의 싸움,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진리와 의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기관들은 오늘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처럼 고난과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자신의 지혜와 자주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

는 것이 자기들의 약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많은 교수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쟁투, 582-583)

3. 오늘날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우상 숭배

"진리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 한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많은 사람들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쟁투, 583)

4.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현대 공격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교리는 그리스도교계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로써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理性)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다. 모든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어떤 정부도 법률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율법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유명한 목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에 대하여 그것이 백성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국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직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여도 큰 범죄가 되는데 모든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죄는 더욱 중하지 않겠는가?" (쟁투, 583-584)

법을 무시하는데 대한 결과
5. 불순종의 종자(씨)를 심음

"국가로서도 그 법률을 없애 버리고 국민을 제각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할 수 없는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죄인을 정죄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표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 버리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무신론이 지배권을 장악했던 당시의 프랑스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무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에서 벗어나면 가장 잔인한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세상에 증명되었다. 의의 표

준이 제거될 때 악의 왕이 그의 권력을 세상에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면 죄가 사악하게 보이지 않고 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위험한 가르침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심중에 불순종의 정신이 부식되어 무질서하고 방종한 사회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조소하는 한편 사단의 속임수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정욕대로 행동하여 이교도들에게 심판을 초래한 그 죄악을 자행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불순종의 씨를 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과해진 제재가 완전히 제거되면 미구에 인간의 법률도 무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행위와 탐심과 거짓말과 속임수를 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세속적 번영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유린하려 한다. 그러나 그 율법을 버린 결과로 그들이 예기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누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인가? 재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게 될 것이므로 강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생명 그 자체도 존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룩한 방호벽이 되지못할 것이다. 힘있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처럼 무시될 것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문명 세계는 절도와 암살자의 소굴이 되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쟁투, 584-585)

6. 불법, 방탕, 부패가 성행됨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사람들의 도덕 관념을 약화시키고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 놓았다. 불법과 방탕과 타락은 걷잡을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사단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까지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질투, 시기, 위선, 이간, 경쟁, 불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육욕의 방종 등이 있다. 사회 생활의 기초와 뼈대가 되어야 할 종교적 원칙의 전체적 체계와 교리는 마치 흔들거리는 덩어리처럼 바야흐로 부서져 없어지려 한다. 가장 타락한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로 투옥될 때 그들은 흔히 부러워할 만한 공훈을 세운 것인 양 선물을 받고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특성과 범죄 행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신문이 그 범죄 행위를 세밀하게 알려 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절도, 살인 등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 사단은 자신의 흉악한 음모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 한다. 부도덕에 대한 열중,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종, 부절제의 놀라운 격증, 각양각색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성시켜 악의 물결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쟁투, 585-586)

7.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법정은 부패되고 위정자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육욕적 쾌락을 따라 움직인다. 부절제가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흐려 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법률가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고 뇌물로 매수당하고 기만당한다. 음주와 술주정, 정욕적인 질투, 온갖 종류의 부정직이 그 법을 취급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행된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사 59:14)." (쟁투, 586)

8. 성경에 대한 신앙을 파괴함

"로마교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종교 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기없는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중에 그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채택했으며 회의론의 씨를 널리 뿌려온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영혼 불멸설과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법왕교의 오류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그들은 강신술에 대한 유일의 방어책을 거부해 버렸다. 영원 지옥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도록 이끌었다.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리하여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행하고 싶지 아니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유일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내어 버린다.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심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계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쟁투, 586-587)

기만과 파멸

9. 삼중 연합 세력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深淵)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주림과 학대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말 3:17)라. 만일 이 때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종자로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때 그들의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차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쟁투, 588)

10. 교회들이 강신술을 받아들이게 됨

"강신술이 오늘날의 유명 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사단은 현대의 감각에 맞추어서 스스로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

적들이 행해지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다.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쟁투, 588-589)

11. 사단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타날 것임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유혹은 무수한 무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부절제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방종과 투쟁과 유혈이 따르게 된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투, 589)

12. 사단은 천재지변을 이용하여 일함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 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쟁투, 589)

13. 사단은 공중에 치명적인 병독을 뿌림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 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

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사 24:4, 5)." (쟁투, 589-590)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

14.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음

"그 때에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 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 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왕상 18:17, 18).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쟁투, 590)

15. 영들과 교통함

"강신술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 (쟁투, 590-591)

16. 그가 하늘에서 사용한 똑 같은 방침을 사용할 것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천사들의 소위인 것으로 비난하였다. 그와 똑같은 기만 정책이 로마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힘쓰고 그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하였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악행자로 고발당하였다. 그들은 사단과 동맹했다고 선고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과 자신들에게까지도 극악한 범죄자들로 나타나게 하고자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할 때 그는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

들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자들로 비난받게 할 것이다." (쟁투, 591)

17. 잔혹함으로 저들을 통제하려 할 것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쟁투, 591)

18.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임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쟁투, 591-592)

19. 율법을 옹호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려 함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경으로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열망할 것이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법왕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이끌게 될 길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다." (쟁투, 592)

20. 양심의 자유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음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쟁투, 592)

기억할 말씀: "… 위정자와 입법자들이 공중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반의 일요일 휴업령의 제정에 대한 요구에 굴복한다." (쟁하, 437)

연구할 과제

1. 사람이 어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친숙하게 되었는가? (부조, 479)
2.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한 원한(원수)의 첫 실례는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부조 상권 83)
3. 현대 강신술의 기초는 무엇인가? (부조 하권 398)
4. 앞으로 강신술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인가? (쟁하, 391)
5. 때때로 교회에 의해서 어떤 좋은 일과 악한 일들이 강조되는가? (쟁하, 430)
6. 어떤 두 가지의 악을 행하도록 입법자들이 허용하고 있는가? (선지자, 176)
7. 하나님께서 왜 그 자신이 만든 법을 변개할 수 없는가? (4 증언, 311)
8. 참된 종교(신앙)와 거짓 종교(신앙)을 비교해 보라. (1 소망, 399)
9. 일요일 휴업령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5 증언, 452)
10. 이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는가? (5 증언, 452)

제123과 신앙의 기준인 성경

성경절 연구: 시 119:9-16

요점: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쟁투, 593)

예언의 신 연구

거룩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

1. 적그리스도의 일이 성경 말씀에 의해 분별되어야 함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사 8:20)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쟁투, 593)

2.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시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쟁투, 593-594)

3.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준비되지 않았음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

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쟁투, 594)

4. 짐승의 표에 대해 배워야 함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계 14:9-11 참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딤후 4:3)리라. 그 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진리가, 죄악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쟁투, 594-595)

누가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5. 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쟁투, 595)

6.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법관들까지라도 그분을 믿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나라의 지도적 인물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책잡고 부인하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그들이 주님께 대하여 죄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나

헛된 수고만 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편견 속에 넣어 두었고 그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분께서 메시야 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권세에 아무 이의 없이 굴복해 왔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법관들과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게 되었다." (쟁투, 595-596)

7. 진리를 알아보는 것을 거절함

"그 제사장들과 법관들에게 작용한 그 정신은 지금도 매우 경건한 것으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나타나 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연구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많은 것, 재산이 풍부한 것, 인기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가진 소수의 가난하고 인기없는 자들이라 하여 멸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부당한 권위의 행사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계속될 것을 미리 아셨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세를 존중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셨는데, 그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사람들에게 그 눈먼 지도자들을 좇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 (쟁투, 596)

8. 성직자들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신뢰하는 것

"로마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성직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종교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으나 로마교로 말미암아 지지된 그와 같은 원칙은 개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된 것일지라도 그들의 신조나 그들의 교회가 확립해 놓은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 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된다." (쟁투, 596-597)

9.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에 순종하는 것

"사단이 인간의 감화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아 두는 방법은 많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편이 되게 한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이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쟁투, 597)

10. 무엇에 순종하든 별 상관이 있는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쟁투, 597-598)

11.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여야 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고 말씀하셨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놓여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 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路程)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쟁투, 598)

성경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배우라!

12. 첫째요 최상의 의무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 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

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쟁투, 598)

13.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속에 묻혀 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 (막 12:24)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고 약속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쟁투, 598-599)

14. 성경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써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상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것과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永遠 自存者)에게서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함으로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고해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전심 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고로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원(祈願)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 (사 59:19)이다." (쟁투, 599-600)

15.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 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고 말하였다." (쟁투, 600)

거짓 것과 참된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임

16. 많은 유망한 사람들이 불신으로 상해를 받음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회의론(懷疑論)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바로 진리의 기둥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의 불신에 속한 풍자(諷刺)와 궤변(詭辯), 교활하고 치명적인 교훈의 공격권에서 벗어날 수는없다. 사단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의 시험을 적용한다. 그는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과학적 반대 이론과 철학적 이론으로 대결하는 한편 무식한 자들에게는 희롱과 조롱으로 성경을 불신케 하거나 경멸하도록 공격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이들도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은 청년기의 불신은 그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조소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게 되었다(히 10:29 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전도 유망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더러운 불신의 기운으로 시들어 버렸다. 인간 이성의 자랑스런 결정력을 의지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의 오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이 없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다." (쟁투, 600-601)

17. 사단에게 홀리는 땅(환경)에 있음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쟁투, 601)

18. "잠자는 자여 깨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그들은 하늘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탄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4-16)." (쟁투, 601-602)

19. 핍박이 임하면 순수한 것(진짜)이 나타날 것임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 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 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쟁투, 602)

20. "지혜를 얻는 자 ... 복이 있나니"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 119:99, 104)고 말한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 3:13),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8)." (쟁투, 602)

기억할 말씀: "만일 그대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말씀들을 상고한다면, 그대들은 그 말씀의 풍성한 보화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그대들을 그분께로 이끄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7 증언 211)

연구할 과제

1.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목사, 105-107)
2. 진리를 찾기에 겸비한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8 증언, 322)
3. 어떤 형제가 그대와 갖지 않은 어떤 성경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목사, 107; 교육 기초, 473; 복음, 298-303)
4. 성경의 어떤 새로운 빛, 새로운 교리, 새로운 해석에 대해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가? (사 8:20; 초기, 264, 265; 5 증언, 293)
5. 우리 선조들이 믿음과 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 일치를 이루었는지를 묘사하라. (2 증언, 650, 651;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192-193)
6. 올바른 정신으로 성경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목사, 108)
7.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권장되었는가? (목사, 106)
8.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3 소망 170; 빌 2:5)
9.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8 증언, 299)

제124과 최후의 경고

성경절 연구: 욜 2:23-32

요점: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쟁투, 612)

예언의 신 연구

세계적인 명령

1.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됨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말라'(계 18:1, 2, 4).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계 14:8 참조).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 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십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 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쟁투, 603-604)

2. "내 백성아 거기서 곧 그 가운데서 나아오라!"

"이 예언에서 알려 주는 시대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쟁투, 604)

3.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됨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계 13:16)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계 14:9-10)." (쟁투, 604)

4. 그 법령이 맹종을 강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係爭點)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쟁투, 605)

바벨론이 들어날 것임

5. 충성에 대한 큰 시금석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쟁투, 605)

6.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불합리한 것이라 단정되어 왔음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의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

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쟁투, 605-606)

7. 개혁자들은 두려움 없이 죄악을 견책하였음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쟁투, 606)

8. 수 천만의 사람들이 이 기별을 놀라움으로 듣게 될 것임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왕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 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격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쟁투, 606-607)

박해

9. 교회는 정권의 강한 팔에 매어 달릴 것임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

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 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쟁투, 607)

10.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고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쟁투, 607-608)

11. 이전에 형제되었던 자들이 가장 심한 원수가 될 것임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쟁투, 608)

12. 주님의 종들의 신앙이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취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 때에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

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쟁투, 608-609)

13. 새로운 모든 진리가 반대를 만났음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시련을 경험하였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덜, 박스터,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모든 교리를 성경으로 시험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가혹한 분노로써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교회 역사의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진리의 발전으로 각각 구분되어 왔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증오와 박해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 왔다. 진리의 빛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당하고 시련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상시에 특별한 진리를 주신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 진리를 전하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잠잠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그들의 영혼은 위험에 빠진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결과를 전혀 괘념치 않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쟁투, 609-610)

14. 반대는 더욱 심해져 감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그들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 싸움은 더욱 급박해지고 격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강해진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우리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누어 어떤 부분은 요긴하고 다른 부분은 요긴하지 않다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여할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이다. 암흑의 군대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감화로 빼앗길 때 놀라서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압제적 권력을 써서 양심을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쟁투, 610)

지상 거민들이 저들의 표준을 세울 것임

15. 유력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있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증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지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다." (쟁투, 610-611)

16. 1844년의 재림 운동이 가장 깊은 종교적 활기를 띤 운동이었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쟁투, 611)

17.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욜 2:23).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2:17, 21)." (쟁투, 611)

18. 복음의 시초에 나타난 능력못지 않은 능력이 나타날 것임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 (행 3:19) 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행 3:20)라." (쟁투, 611-612)

19. 수천의 음성들이 경고의 기별을 증거할 것임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계 13:13 참조).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쟁투, 612)

20. 기별은 변론으로가 아니요 감동과 확신으로 전파될 것임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 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 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편에 서게 된다." (쟁투, 612)

기억할 말씀: "… 이 때에 금은 교회에 있는 찌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이 번쩍거리는 쇠붙이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그 빛의 찬란함을 동경하던 많은 별과 같은 존재들이 그 때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5 증언, 81)

연구할 과제

1. 누가복음 21장 26절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인가? (1 증언, 268; 초기, 42)
2.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언제 있을 것인가? (초기, 257, 287)
3.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치는 사업이 언제 마쳐질 것인가? (5 증언, 475, 쟁하, 455)
4. 진리를 위해 최후에 증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2 소망, 89, 90)
5. 모든 박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인가? (2 소망, 95, 96)
6. 박해가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3 소망, 99-100)
7. "큰 외침"에 대해 토의해 보라. (초기, 284-285)
8. 예수님의 재림시에 종들(노예 제도)이 있을 것을 언급한 두 예언을 말해 보라. (계 6:14,15; 초기, 285)
9. 세상 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개신교 사이에 어떤 부흥이 있을 것인가? (쟁하, 251; 초기, 267)
10.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핏기없는 손"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선지자, 501; 정로, 168; 청년, 288)

제125과 마지막 위기

성경절 연구: 고후 6:17-18; 벧전 2:9

요점: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9 증언, 11)

예언의 신 연구

각종 부패와 범죄 그리고 재난들이 일어남

1. 많은 도시들이 소돔과 같이 변하고 있음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영적 흑암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들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모든 국가의 대도시에서 복음 사역자는 가장 완고한 무리들과 가장 크게 도움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대도시에 범람하는 범죄와 불법에 대한 기록은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악인들의 범죄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 많은 도시들은 소돔과 꼭같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 증가일로에 있는 죄악은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구원의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지극히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영혼들의 원수는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경고하여 심판의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

대도시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이 할 일은 임박한 멸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영혼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엄숙히 호소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불원간 중대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것이며, 지성적인 태도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할 기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비가 머물러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성경 진리의 회개케 하는 감화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안에 도시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지금 당신의 사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전도, 25-26)

2. 묘사할 수 없는 부패가 성행함

"우리는 어디서나 사려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려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연되고 있는 부패는 사람의 필력(筆力)으로 묘사할 수 없다. 매일 정치적 투쟁, 증회(贈賄), 사기 등이 새롭게 폭로되고 있다. 매일 폭력과 불법,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과 극악한 파멸 등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이 전달된다. 매일 정신이상, 살인, 자살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사단의 부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부패케 하며,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치료, 142-143)

3. 뉴욕시에 있는 고층 건물들

"뉴욕에 있을 때, 나는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건물들은 방화시를 대비, 든든한 보증이 되어 있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가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 건물들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고, 가장 값비싼 재료가 거기에 사용되었다. 그 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아, 재물을 이같이 투자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거대한 건물들을 쌓아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통치자의 눈에는 그들의 계획과 고안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는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람의 첫째 의무가 되는 이것을 잊어버렸다." (9 증언, 12)

4. 건물들은 내화적(불에 타지 않게 지어짐)이라고 상상함

"이 고층 건물들이 올라갔을 때 그 소유주들은 자아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이웃의 선망을 자극시키는 데 사용할 돈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야심적인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대부분의 돈은 가혹한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름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업 거래의 기록이 하늘에 보존되고, 모든 부정직한 거래,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기만과 오만가운데서 주께서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실 지점에 이르게 될 때가 이르러 오고 있다. 그 때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은 화재의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 방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높은 건물들을 쳐다보고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9 증언, 12-13)

5. 시대의 위기의 문어구에 서 있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거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4)는 기별이다. 사회 특히 열국의 대도시에 만연하는 온갖 상태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의 문어귀에 서 있다. 하나님의 형벌 곧 전쟁과 유혈 사태를 수반하는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이르러 올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크고도 결정적인 사건들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이는 은혜의 천사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 277-278)

물질을 얻고자 하는 탐욕과 쾌락에 미쳐 날뜀이 성행함

6. 탐욕과 압박이 있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 상태를 말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그 때에 있을 탐욕과 압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부한 자들아 …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 5:1-6). 이 말씀은 오늘날의 상태를 묘사한 말이다. 사람들은 온갖 압제와 강탈의 수단을 동원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기아(饑餓)에 허덕이는 군중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고 있다." (실물, 170)

7. 가난과 처절함이 도시에 만연해 있음

"원수는 공의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사 59:14). 대도시에는 양식과 몸둘 곳과 입을 것이 거의 없이 가난과 불행 속에 사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도시에서 마음에 욕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여 사치스럽게 살고, 호화롭게 단장한 집과 몸치장에 그들의 돈을 사용하고 더욱이 육욕적인 식욕의 만족과 술과 담배와, 두뇌의 힘을 파괴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하고 심령을 타락시키는 것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자들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한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압박과 착취로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9 증언, 11-12)

8. 세속적 사업과 쾌락에 열중함

"그러나 신속하게 성취되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하여 주어진 경고들을 누가 깨닫는가? 세상사람들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가? 그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홍수 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업과 쾌락에 몰두되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 (마 24:39)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경고를 받았으나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무시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9 증언, 14)

9.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로 극장이 만원을 이룸

"위기는 소리 없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제 궤도를 돌면서 햇빛을 비추어 주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심고 집을 지으며 또한 시집가고 장가간다. 상인들은 사고 파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붐비며 서로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고 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시련의 시간이 급속히 박두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들이 영원히 결정지어지려 하지만 고조에 달한 쾌락의 흥분은 가실 줄을 모른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남지 않은 것을 안다. 그는 모든 부하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속이며 혼돈시키고 황홀하게 하기를 시련의 때가 마치며 은혜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할 것이다." (선교, 51)

10.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곧 임하게 될 것임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다. 사람들은 배우들로서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으므로 연합을 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맹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장면을 구경하고 계시다. 그의 반역적인 지구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혼돈의 요소들이 잠시 동안 지배하도록 허용하시지만 세계를 인간들의 손에 맡기시지는 않으셨다. 땅의 권세는 연극에 있을 마지막 위대한 장면들 -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으며 비밀 단체에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활동하고 있다. 동맹

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은 사람들은 원수의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죄악은 거의 그 한도에까지 달하였다. 세상은 혼란으로 충만해지고 있으며 무서운 사태가 인류에게 속히 닥쳐오고 있다.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무서운 기습처럼 세상에 속히 부딪히게 될 일을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9증언, 27-28)

평화를 부르짖으며, 전쟁을 준비함

11. "놀랄 이유가 없다!"고 소리침

"홍수 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여덟 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범법자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헛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벧후 3:3, 4)고 기록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말을 공공연한 불신자에게서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설교단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거듭 듣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의인이 1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므로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만물은 태초에 있었던 것같이 계속된다. 군걱정하는 사람들의 흥분시키는 기별에 아무도 불안해 하지 마시오.' 그러나 천년기에 대한 이같은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의 가르침과 조화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의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바울이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악이 증가되는 것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딤전 4:1). 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딤후 3:1)라고 말한다. 그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놀라운 죄의 일람표를 제시한다." (부조, 102-103)

12. 노아를 광신주의자라고 생각하였음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득의에 차 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창 7:11) 조롱하던 자들은 홍수에 엄몰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뽐내던 모든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것과 크신 입법자는 자연의 법칙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단이 없어서 어쩔줄 몰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도 늦게야 발견하였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눅 17:26, 3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후 3:10).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살전 5:3)할 것이다." (부조, 103-104)

13. 소돔을 향한 은혜의 문이 닫힘

"싯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사 13:9).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시 91:1, 4, 16)는 약속이 있다." (부조, 167)

14. 나라들이 분노함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상하고 중대한 역사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날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건들이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한 순간만이 남아 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오늘날 전연 전쟁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인 치는 일이 마치면, 지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사단은 모든 사람이 가담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를 위하여 그의 계획을 부지런히 짜고 있다. 거의 2천 년 동안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께 제시한 동일한 장면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그는 놀라운 방법으로 영광스런 세상 나라들이 그들 앞에 지나가게 한다. 그는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 아래 끌어들이고자 한다." (6 증언, 14)

15.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임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의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쓴 분이 곧 하늘의 군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선지자 다니엘이 '정한 때는 오랜 후'(단 10:1 흠정역)라고 말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일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6 증언, 406)

하나님의 남은 백성

16.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함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8 증언, 153)

17. 세상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필요로 함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위대한 개혁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설교하는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같으면, 더욱 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死別)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이 사업은 결실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치료, 143-144)

18. 세상 사람들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음

"우리가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기별을 가진 자들의 생애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높은 표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한다." (9 증언, 23)

19. 도시 안에 있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

"대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저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직면하게 될 악과 부정과 부패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사악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같은 기별로 그런 사역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9, 10).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권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세계 전체가 빛과 진리에서 떠나가거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구주의 초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도시마다 강포와 범죄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 곳에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선지, 277)

20. 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 들일 것임

"많은 사람들이 …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 저기 분주히 왕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저들의 골수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불타는 소망으로 저들 속에서 충만해 질 것이다.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신령한 권고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권

능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기구들을 던져 버리고 속박하는 제도와 세심한 절차에서 벗어나 성령의 권능을 힘 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전도, 681)

기억할 말씀: "겸손하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격려를 받아야 한다. 저들이 일하는 때 저들은 귀중한 경험을 얻을 것이다." (9 증언, 118)

연구할 문제

1. 이 세상에 부패와 범죄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가? (치료, 129)
2. 누가 그리스도의 의용병들인가? (9 증언, 23)
3.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6 증언, 406)
4. 일반 사람들이 일군으로 일할 때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선교, 27)
5.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달란트는 누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선교, 28)
6.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선교, 50)
7.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인가? (행적, 109-110)
8.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흔들림의 원인과 그 영향은 어떤 것인가? (초기, 276-278)
9. 하나님 백성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전파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초기, 278; 5 증언, 463)

제126과 환란의 때

성경절 연구: 사 51:11-16, 21-23; 단 12:1

요점: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9 증언, 17)

예언의 신 연구

예수께서 그의 중보 사업을 마치심

1. 지상에서 봉사하던 천사들을 돌아 오라고 선언함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행 3:19)르는 '늦은비'(호 6:3)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쟁투, 613-614)

2. 악한 천사들이 일할 준비를 이미 다 갖추었으며, 하나님의 승락만을 기다리고 있음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

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격노케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쟁투, 614-615)

3.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자들은 누구인가?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요 11:50)고 말하였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찜이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렘 30:5-7)." (쟁투, 615-616)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슬퍼할 것이냐?

4.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자 노력할 것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쟁투, 618-619)

5. 저들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계 3:10)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각처에서 반역의 음모에 관한 말을 듣고 또한 적극적인 반역 활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 곧 애타는 심정이 타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역의 활동을 저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편 그들 자신에게는 악의 큰 물결을 저항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몹시 큰 가책을 느끼게 된다. 만일 그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오고 계속적으로 힘있게 전진했을 것 같으면 그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쟁투, 619-620)

6. 저들의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아 도말되었음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 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낼 수 없다." (쟁투, 620)

7. 범죄의 결과를 슬퍼함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써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의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 때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은 마치 에서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그런 자복을 하는 자들은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 바로와 같이 그들은 형벌이 제거되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돌아갈 것이다." (쟁투, 620-621)

하나님과 씨름함

8. 줄기차게 계속하는 기도의 힘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쟁투, 621)

9. 적은 믿음을 활용하는 자들의 위험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쟁투, 621-622)

10. 주의 약속을 실험함으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알아야 함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 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제도 모른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어떤 길에 발을 들여 놓기를 거절할 것 같으면 그들은 죄에 유혹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을 경고할 마지막 엄숙한 사명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가 없이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곳에서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창 32:30)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므로 왕자라는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쟁투, 622)

11. 우리가 얻기를 게을리하는 경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난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겔 14:20)." (쟁투, 622-623)

12. 그 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 14:30)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쟁투, 623)

사형 명령

13. 도시와 촌락에서 도망하게 될 것임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 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 (사 33:16)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쟁투, 626)

14. 하나님이 저들을 잊으셨단 말인가?

"이와 같은 시련의 때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 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

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사 49:14-16)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슥 2:8)고 말씀하셨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쟁투, 626-627)

15.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신 나라.

"하나님의 형벌이 당신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대담해지게 한다. 그러나 오래 지체된다고 해서 분명하고 두려운 그 형벌이 결코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사 28:21).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비상한 일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 33:11).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출 34:6)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출 34:7)으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출 34:6, 7; 나 1:3). 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무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릴 심한 형벌의 정도는 주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 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분께서 헤아려 보시는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형벌하지 않고 버려 두시는 그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쟁투, 627)

16. 사형 법령이 때를 정함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 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劍)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戰士)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쟁투, 631)

아침이 드디어 오다

17. "...밤도 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사 21:11, 12)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빛은 산봉우리 위에 뜬구름에서 비치고 있다.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치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한다." (쟁투, 632)

18.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호소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들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거의 걷힐 것처럼 보인다. 모든 하늘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는 서광으로 빛나고, '너의 충절을 굳게 지켜라. 도움이 찾아온다'는 말이 마치 천사들의 노래의 음조처럼 귀에 들려온다. 전능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당신의 피곤한 군사들에게 내어 주시며,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 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쟁투, 632-633)

19. 허락의 무지개가 각인을 두르고 있음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 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보아야 할 때다." (쟁투, 633)

20. "네 밀실에 들어가라!"

"각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들이 당해야 하는 위기를 주목해 보셨다. 그들은 마치 사로잡혀 정배당한 자들처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비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진다면 그것은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 27:5)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사 26:20, 21)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쟁투, 634)

기억할 말씀: "…우리 나라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 정부의 원칙을 무시할 때에 개신교주의는 천주교(법왕)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때가 오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전제(법왕) 정치에게 다시 한번 포학한 일을 하도록 생기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5 증언, 712)

연구할 과제

1. 은혜의 시기 끝에 지상을 덮을 흑암은 영적인 흑암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흑암이냐? (쟁하, 468)
2.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인가? 의로운 자들은 알 수 있는가? (쟁하, 469, 488)
3. "야곱의 환란"에 대해 묘사하라. (쟁하, 471-474)
4.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표적)는 무엇인가? (5 증언, 451)
5.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지 설명하라. (쟁하, 478, 490-492)
6. 사단이 행하게 될 마지막 대기만은 무엇인가? (쟁하, 483-485)
7. 마지막 일곱 재앙에 대해 토의해 보라. (쟁하, 488-490)
8. 환란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초기, 58)
9. 야곱의 환란은 은혜의 시기 이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시기 이후에 있을 것인가? (부조 상권 253)
10.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들을 떠나 한적한 곳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 징조는 무엇이 될 것인가? (5 증언, 464)

제127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음

성경절 연구: 사 2:10-12, 21-30, 29-30; 계 6:15-17

요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쟁투, 635)

예언의 신 연구

무리들을 무지개가 두르고 있음

1.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됨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쟁투, 635)

2. 성난 악인들이 성도들을 체포하려 함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 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 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쟁투, 635-636)

3. "위를 쳐다 보라!"는 음성이 들림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 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고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다. 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의 음성을 듣는다." (쟁투, 636)

승리의 함성을 울리게 됨

4. 저들이 깜짝 놀라게 됨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섬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褓)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무서운 우레 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도 그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써 의기 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압하고 들려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그 때에 사람들은 자비를 탄원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부복한다." (쟁투, 637-638)

5. 주위에 있는 암흑보다 4배가 더 밝은 빛이 나타남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 주지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 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학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이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 46:1-3)." (쟁투, 638-639)

6.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 그를 따르더라' (계 19:11, 14).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합 3:3, 4)도다. 그 살아 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옴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 (쟁투, 640-641)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7. 만왕의 왕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렘 30:6)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 모든 낯이 빛을 잃'(나 2:10)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옴에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싸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 50:3, 4)시도다." (쟁투, 641-642)

8. 경멸과 조롱의 소리가 그침

"경멸적인 조롱은 그친다.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진다.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사 9:5)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 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란다." (쟁투, 642)

9. 그 음성은 저들의 기억을 새롭게 함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 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해 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 아,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잠 1:24, 25)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 준다." (쟁투, 642)

10. 저들은 성도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하는 말을 들음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들의 생애에는 양심이 각성되고, 위선적 생활에 대한 괴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서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

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잠 1:27)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쟁투, 644)

새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함

11. 흙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騷音)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쟁투, 644)

12. 아담이 부활한 성도들 사이에 서 있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엄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退化)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 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 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말 4:2 흠정역 영어 성경).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쟁투, 644-645)

13. 저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감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구름 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그 아래는 산 바퀴가 있다. 수레가 위를 향하여 굴러갈 때마다 바퀴는 '거룩하다'고 소리를 낸다. 날개 역시 움직일 때마다 '거

룩하다'고 부르짖는다. 수행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수레가 점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라고 외친다." (쟁투, 645)

14. 광휘 찬란한 행렬이 정방형을 이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휘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거문고가 쥐어진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거문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 1:5, 6)." (쟁투, 645-646)

15. 하늘에서 환영을 받음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찍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더욱 훌륭한 음성을 듣는다.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제 성취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 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유 24) 아버지에게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내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죄의 흔적과 암영(暗影)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순간이 된다!" (쟁투, 646)

구속함을 받은 자들

16. "십 사만 사천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십 사만 사 천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계 15:2, 3, 14:1-5) 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14:5, 7:14-17)." (쟁투, 648-649)

17. 지붕 밑, 오막살이, 유옥(幽獄), 단두대, 산중, 사막, 동굴, 바다 가운데서 나온 자들임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 동굴, 해저 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 를 받은 자들이다.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시 50:6)이 되신다.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진다. '여호와께서 …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사 25:8).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62:12, 61:3)게 하신다. 그들은 더 이상 허약한 자, 고통받는 자, 흩어진 자, 압박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런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도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 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런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났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온 하늘의 거민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계 7:10, 12)." (쟁투, 650-651)

18. 구속의 신비는 계속해서 풀리게 될 것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하게 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도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이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개될 것이다.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이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쟁투, 651-652)

19. 십자가의 오묘(신비)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런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쟁투, 652)

20. 아버지께서 구속의 값을 치룬 것을 인하여 만족해 하심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쟁투, 652)

기억할 말씀: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은 그 때에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교육, 305)

연구할 과제

1.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실 때에 일어날 기이 현상들을 묘사하라. (쟁하, 501, 502)
2.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특별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인가? (쟁하, 502)
3. 의로운 자들이 휘황 찬란한 하늘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장면이 보여졌는가? (쟁하, 517)

4. 이 때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기억될 것인가? (쟁하, 517)
5. 두 아담이 만나는 장면을 묘사해 보라. (쟁하, 514-516)
6. 그렇게도 유혹하던 죄들이 이제는 그토록 두려운 것(혐오를 느끼는 것)이 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쟁하, 517)
7. 부활한 의인들이 죄를 기억나게 할 어떤 단 한가지가 있는가? (쟁하, 511)
8. 부활한 자들의 개성이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3 소망, 356)
9. 재앙이 내려질 때에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때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 (쟁하, 502)
10.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체(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가? (3 소망 399)

제128과 지상의 황폐

성경절 연구: 사 14:12-20

요점: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쟁투, 654)

예언의 신 연구

지상의 황폐와 그로 인한 슬픔

1. 그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침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자 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 18:5-10).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 한 '땅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계 18:3, 11, 15-17).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있다." (쟁투, 653)

2.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일순간에 소멸됨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 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뀌어진다." (쟁투, 653-654)

3. 저들이 악의 결과로 받을 형벌에 대해 두려워 하나 죄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음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 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쟁투, 654)

4. 전능하신 이의 눈이 저들을 떠나지 않았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全知)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씨를 뿌렸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통하여 그는 수확을 바라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 8:11).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 (겔 13:22)도다.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렘 23:1, 2, 25:34, 35)." (쟁투, 654-655)

5. 이제 저들이 사태의 진상을 깨닫게 됨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샘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수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

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 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쟁투, 655)

6. 저들은 그때에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 들게 됨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 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 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쟁투, 655-656)

황폐된 지상

7. 죽이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감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렘 25:31).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 악인을 칼에 붙이심' 이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겔 9:1-6)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쟁투, 656)

8.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사 26:21).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 (슥 14:12, 13) 라.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된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

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렘 25:3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시므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 (사 24:1, 3, 5, 6)리라." (쟁투, 656-657)

9. 도시와 촌락들이 다 황량하게 됨

"온 땅은 황량한 황무지같이 된다.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와 촌락들의 폐허들, 뿌리째 뽑힌 수목들, 바다에서 튀어나오고 땅이 갈라지므로 솟아올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친 바위들이 지구 표면에 널려 있다. 또한 커다란 동굴들은 산들이 그 기초부터 갈라진 지점을 말해 준다." (쟁투, 657)

사단은 일천년간 유리 방황하게 됨

10. 사단은 거민이 없는 황량한 이 땅에 갇히게 됨

"이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 (레 16:21)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쟁투, 657-658)

11. "일천년 동안 잡아 결박"할 것임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단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일천년 동안 존속될 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 20:1-3)." (쟁투, 658)

12. "무저갱" - 끝(바닥)이 없는 상태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땅이 혼돈하고 암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임이 다른 성경절들에 의하여 명백해진다(창 1:2).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한다. 예언은 땅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렘 4:23-26)다." (쟁투, 658-659)

13. 다른 우주 세계를 다닐 수없이 갇히어 있음

"이 곳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일천년간 거할 곳이다.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 온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쟁투, 659)

14. 사단에게 내리는 형벌은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천사들보다 더 큼

"다음에 나는 보좌들이 놓인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구원얻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 있을 때의 행위를 심판하여 모든 경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심판하였다. 사단의 형벌은 그가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속였던 모든 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살아남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초기, 290-291)

15. "그의 옥(무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었"었음

"육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 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 았다. 그는 육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 주셨다." (쟁투, 659)

16.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 범위 밖에 있음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 (사 14:18-20)느니라." (쟁투, 659-660)

17.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 범위 밖에 있음

"일천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 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사단의 결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선지자는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

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사단을 말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사 14:3-6)라." (쟁투, 660)

심판과 둘째 부활

18. 사망의 책에 심판 사항이 기록됨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일천년간에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고전 4:5)라.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단 7:22)다고 말한다. 이때에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 20:4, 6).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2)고 예언한 말은 이 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律法典)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쟁투, 660-661)

"성도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거문고와 흰 예복과 면류관을 받고 도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 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 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초기, 52)

19.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됨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3)고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유 6)다고 주장한다." (쟁투, 661)

20. 둘째 부활

"일천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5)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음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사 24:22)고 주장한다." (쟁투, 661)

기억할 말씀: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 왔는지는 영원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 (소망, 240)

연구할 과제

1. 하나님께서 사단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에 왜 즉시로 죽여 없애지 아니하셨는가? (부조 상권, 33-34)
2.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 오도록 용납하셨는가? (부조 상권 , 435-436)
3. 어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무엇인가? (민 16:22, 23; 사 65:22-23; 마 19:14; 부조 상권, 402; 쟁하, 512, 572)
4. 천년 동안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초기, 54)
5. 요한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 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 증언, 630)
6.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자비의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3 소망, 300-304)
7.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지 말해 보라. (3 소망, 304-305)
8. 세상 끝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계발될 것인가? (3 소망, 305)
9.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당시에 마귀가 그리스도를 유혹에 빠뜨렸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 증언, 293)

제129과 대쟁투의 종말

성경절 연구: 겔 28:6-8, 16-19; 계 5:12, 13

요점: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鼓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쟁투, 678)

예언의 신 연구

복천년기의 끝

1. 둘째 부활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適意)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들은 과거의 생애에 있었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일생 동안의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쟁투, 662)

2.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 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 ',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 (슥 14:5, 4, 9)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쟁투, 662-663)

3. 마지막 투쟁을 위한 준비를 갖춤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의 간계(奸計)를 써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 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게 되자 사단은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한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모든 자들에게 준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악마같은 광희(狂喜)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병기들을 제작하고 조직을 재정비함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효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으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이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한다. 무훈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 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좇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쟁투, 664)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

5.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백성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 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계 7:9)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계 7:10).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쟁투, 664-665)

6. 대관식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1, 12)라." (쟁투, 665-666)

7.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남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쟁투, 666)

8. 구속의 경륜에 관련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나타남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와 악의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짐에 눌렸던 두렵고 신비한 겟세마네의 고민,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 다니신 저항없는 죄인, 의기 양양하게 그분을 안나스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의 재

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제는 크게 동요하는 무리들 앞에서 마지막 광경, 인내의 수난자가 갈바리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하늘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만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폭도들이 죽어가는 그분의 고민을 조롱하고, 초자연적 흑암이 나타나고, 땅이 흔들려 바위가 깨어지며 무덤이 열리므로 세상의 구주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을 알려 주는 광경들이 나타난다." (쟁투, 666-667)

9. 사단 자신도 그 광경을 지켜 볼 것임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무서운 광경들이 나타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한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없다. 각 일을 담당했던 자는 그가 한 역할을 회상한다.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하여 무구(無垢)한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가책받는 심령을 달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피를 흘린 야비한 헤로디아, 지조없는 빌라도, 조롱하던 군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고 외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광적인 무리,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함을 보게 된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고 부르짖을 때, 악한 자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거룩한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 (쟁투, 667)

심문을 받고 형벌을 받음

10. 불행, 불명예, 절망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삯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히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아,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않노라' 고 선언했던 것이다." (쟁투, 668)

11. 사단이 이런 광경을 볼 때에 마비된 자와 같이 됨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경이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그 음조의 물결이 성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3)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한 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타락했던 당시를 생각한다. 빛나는 스랍,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어찌하여 변화되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는가! 그는 일찍이 존경받던 회합에서 영원히 제외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다른 천사가 그분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키가 크고 위엄 있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드리는 것을 본다. 그는 자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천사의 높은 지위가 그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임을 깨닫는다." (쟁투, 668-669)

12. 허물이 없던 옛날을 추억함

"추억은 허물없고 순결하던 옛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을 때에 소유하였던 평안과 만족을 회상케 한다. 그의 비난과 반역, 천사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그의 기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낸 그의 고집 등, 이 모든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자기의 사업과 그 결과, 곧 사람들 상호간의 원한, 무서운 생명의 파멸, 나라들의 흥망 성쇠, 왕위의 전복, 장기간 계속된 소란과 투쟁과 혁명 등을 되돌아본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반대하고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써 온 것을 생각한다. 그는 흉악한 자기의 간계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아무런 힘이 없었음을 깨닫는다. 사단이 자기의 수고의 열매인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는 오직 실패와 파멸만을 깨닫게 된다. 그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 그는 그 대쟁투가 계속되는 동안 거듭거듭 실패하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쟁투, 669)

13. 폐배당하고 정체가 드러남

"그 큰 모반자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여 왔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여 그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 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도록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다. 수천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단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쟁투, 669-670)

14.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함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 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쟁투, 670)

15. 여호와께서 보수(복수)하시는 날이 됨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섶같이 살라지리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사 9:5, 34:2)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 11:6).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의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 버린다(말 4:1; 벧후 3:10 참조).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 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사 34:8) 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잠 11:31 참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말 4:1) 사를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 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쟁투, 672-673)

16. 영원히 타는 지옥은 없음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육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사 14:7). 찬송과 승리의 함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고 노래한다.

땅이 멸망의 불에 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계 20:6; 시 84:11 참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쟁투, 673-674)

새 하늘과 새 땅

17. 오직 한 기념물만이 남게 될 것임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영어 성경-방주)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었도다'(합 3:4) 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쟁투, 674)

18. 사랑과 동정이 거기서 활용됨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령 속에 심어 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쟁투, 677)

19.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임 - 새로운 것들을 배울 것임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企圖)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쟁투, 677)

20. 천천 만만의 음성이 합해진 우주적인 합창대의 찬양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쟁투, 678)

기억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교제하고 살아온 자는 하늘 본향에 있어서의 교제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 167)

연구할 과제

1. 오리온 성좌에 있는 열린 공간에 대해 묘사하라. (초기, 42)
2. 초기문집 298에 "큰 산"이 나오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인가? (쟁하, 536)
3. 둘째 부활 때에 일어나게 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된 것들이 있는데 말해보라. (쟁하, 537-544; 초기, 300)
4.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구세주께 가장 가까이 서게 될 자들은 누구인가? (7 증언, 26; 쟁하, 539)
5.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쟁하, 547-549)
6. 하늘 본향의 실제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을 서로 비교해 보라. (쟁하, 552-555)
7. 하늘에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말해 보라. (쟁하, 555)
8. 요한 계시록 21장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해 보라. (쟁하, 556)

9. 하늘 나라를 추측하는 자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는가? (복음, 313)
10.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땅에서의 고난과 시련들을 비교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선지자, 704)

제130과 내가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성경절 연구: 계 22:1-5, 12-14

요점: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쟁투, 677)

예언의 신 연구

하늘(천국)은 학교임

1. 연구할 범위 - 우주 세계

"하늘은 학교이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었는데, 후일에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전 2:9).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부분적인 계시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 301)

2. 새 하늘과 새 땅

"밧모 섬의 예언자는 내세의 학교 소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1, 2).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췸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 21:23)." (교육, 301)

3. 옛 에덴의 학교와 신천 신지에 있을 학교와의 차이점

"창세시에 에덴에 설립되었던 학교와 내세의 학교 사이에는 인류의 범죄와 고난, 거룩하신 희생,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 등의 세상 역사의 온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에덴의 학교 사정들이 다 그대로 내세의 학교에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 301-302)

4. 과학을 연구하는 학생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케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의 나직한 울음 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서는 한 가지 필적만 보일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 크게 씌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악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교육, 303)

5. 역사의 분야

"무한한 안계(眼界)와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역사가 학도들 앞에 전개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학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리한 입장을 통하여 광대한 분야의 역사에 대한 견해를 얻고 인간 사회의 사건들을 지배하는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안목은 여전히 어둡고,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다. 영원한 빛 앞에 서기 전에는 모든 것을 명백히 볼 수 없다.

그 때에는, 창세 전에 시작되어서 세상의 기한이 다할 때에 끝날 대쟁투의 경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죄의 시작, 파멸적 허위와 그 부정한 활동, 곧은 길에서 꿋꿋하게 오류를 정복한 진리 등의 역사가 다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제거되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육, 304)

6. 천사들의 봉사

"영원한 빛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호되고 중재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천사들은 사람이 관계된 사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고, 길 가는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도 왔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정에서 우대를 받았고, 길 저문 행인을 인도하는 일도 하였다. 그들은 강탈하는 자의 의도를 꺾고 파괴자의 타격을 물리쳤다.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천사들은 그들의 회의에서 발언자가 된 일이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은 그들을 보았고, 사람들의 귀는 그들의 호소를 들었다. 회의실과 법정에서, 하늘의 사자들은 박해와 압제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변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의도를 격파하여 악을 저지하였다. 하늘 학교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학도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 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 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 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교육, 304-305)

7. 하늘 학교에서의 연구와 보상이 될 것

"사람들에게 무아의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는 하늘에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각 방면에 미친 그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으

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원칙의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 학교의 연구 대상과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교육, 306)

8. 우주 가운데 있는 보화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 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궁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광휘있는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엡 3:20)는 것이 영원토록 다함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교육, 307)

하늘에 있는 직업과 특권

9. 인생의 파종의 결실을 그때에 보게 됨

"무아의 정신으로 일해 온 사람들은 그 곳에서 그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올바른 원칙과 고상한 행위의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중 어떤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일의 결과가 그 일을 행한 본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수고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먼 곳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나 교사가 최후의 잠자리에 누울 때 자신의 평생 사업이 헛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충성됨으로 열려진 축복의 샘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양육한 아이들이 인류 동포의 축복과 영감이 되어 수천 배의 감화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다.

많은 일꾼들이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축복의 말을 심어 주면서도, 자기가 외로이, 미천하게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선물을 주면서 짐을 지고 수고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넘어서 거둘 복된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린다. 그들은 남들이 먹을 나무를 재배한다. 그들은 세상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앎으로 만족한다. 내세에서는 이런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교육, 305-306)

10. 하늘에 있는 음악과 노래들

"그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시 87:7),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사 24:14).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 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교육, 306-307)

11.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임

"거기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때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 · 덕 · 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교육, 307)

12.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증거할 것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 함이니라'(마 20:28). 이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에 내세에서는 그분과 함께 일할 더 큰 능력과 특권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사 43:12). 이것도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이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륵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 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영원토록 연구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원하는 경이로움이 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과학에 대한 증언이 없을 것인가? 그들은 과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겠는가?

오늘날에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엡 3:10)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6, 7).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시 29:9).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만대의 왕-본문)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계 15:3, 4)." (교육, 307-309)

13. 봉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즐거움)

"비록 죄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최고의 교육은 봉사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죄된 인간으로서의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 내세에서도 봉사의 최대 환희와 최고의 교육이 있을 것인데, 항상 증거된 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신 '이 비밀의 영광이 … 풍성한 것'을 새로 배우는 것이다(골 1:27)." (교육, 308)

14.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요일 3:2)라.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의 성과를 보심으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평생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유 24)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사 53:11)다." (교육, 309)

하늘은 우리의 가정임

15. "나는 다른 들(땅)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산 조각이 나고 그 대신 거기엔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 때 우리는 정방형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것은 열 두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열 두 문이 있었다. 각 면에 세 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그 때에 우리는 성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 놓고 농삿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삿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들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였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이 우리의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이 세상에 있는 침침한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 속에는 빛이 있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했다. 나뭇가지들은 이리 저리 흔들리고 있었으며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숲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자리에 빨갛게 테를 둘린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했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 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테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일곱 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십사만 사천명만이 이 곳으로 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일곱 개의 기둥이 떠 받치고 있었으며 일곱 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4,000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 달라고 졸랐다. 그 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 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초기, 17-20)

16. 나무, 강,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신 것이었으나 결국 그 조건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내세의 선물은 절대적이요 영구적인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계 22:1, 2).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사 60:21)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류는 창세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께 배울 것이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사 52:6).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계 21:3)." (교육, 302)

17. 생명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 … 실 것임이러라'(계 7:14-17).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교육, 302-303)

18. 거기서 에덴 생활 곧 전원 생활이 시작될 것임

"거기서는 에덴의 생활, 즉 전원 생활이 영위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

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 (사 65:21, 22)라." (교육, 303-304)

19. 잃었던 통치권이 회복됨

"거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65:25). 거기서는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을 회복하고, 하등 동물들은 다시 사람의 지배권을 시인하며, 사나운 것은 온순해지고, 두렵던 것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교육, 304)

20. 이 지상에서 나그네(순례자) 되었던 자들의 가정(집)

"지상의 순례자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의인들을 위한 두루마기가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 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9 증언, 286)

기억할 말씀: "…저들은 흐리지 않는 눈으로 창조의 영광 - 모든 태양과 별들의 모든 계통이 각각 그 일정한 궤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도는 것을 본다." (쟁투, 558)

연구할 과제

1.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재물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증언 , 59)
2. 우리의 첫 조상이 잃어 버린 통치권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획득하신 통치권을 서로 비교해 보라. 어떻게 해서 잃어 버렸으며 어떻게 하여 다시 찾으셨는가? (보훈, 32)
3.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여 보내실 수 있는 최소의 불완전은 무엇인가? (2 증언, 453)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실물, 323-324)
4.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쓴 면류관에 대해 그대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초기, 17; 64)
5. 구세주께서 쓰시게 될 면류관에 대해 묘사해 보라. (초기, 55)
6. 면류관을 쓰기 앞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가? (치료, 439)
7.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이 하늘에 있는 대가족의 상징이 되게 하셨는가? (실물, 298)